



1981 - 2021

행복과 사랑 보훈공단 40년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행복한 세상

보훈공단 40년

나라를 위한 희생과 헌신을 잊지 않겠습니다.
섬김의 마음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0년간의 역사를 바탕으로
더 나은 미래를 준비하겠습니다.

‘공공의료복지를 선도하는 최고의 파트너’ 40년



“보훈”은 국가유공자의 애국정신을 기리어 나라에서 유공자와 그 유족에게 훈공에 보답하는 일입니다. 대한민국 국가유공자와 보훈가족의 따뜻한 삶을 위해 행복한 섬김을 실천해 온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이 창립 40주년을 맞이했습니다.

지난 40년간 보훈공단은 끊임없는 발전을 거듭하여 1개 보훈병원과 수익사업을 근간으로 시작해 현재, 전국 6개 보훈병원, 8개 보훈요양원과 보훈교육연구원, 보훈원, 보훈재활체육센터, 보훈휴양원의 18개 소속기구를 갖춘 국내 최대 공공의료 복지기관으로 성장했습니다.

250병상으로 출발한 보훈병원은 현재 3500병상 규모로 매일 약 16000여 명을 진료하고 있으며, 의료서비스 수준과 환자 안전의 우수성을 인정받아 보건복지부 의료기관 인증, 12년 연속 고객만족도 고득점과 함께 공공보건의료 시행평가 최우수기관에 선정되었습니다. 또한, 2020년부터 시작된 코로나19위기에서 국가유공자 정상 진료와 감염병 전담병상 지정, 생활치료센터 운영으로 공공의료기관의 역할을 다했습니다. 아울러, 보건의료 패러다임 변화에 따라 예방, 치료, 재활, 요양, 재가, 임종으로 이어지는 보훈의료복지통합서비스를 구축해 보훈의료전달체계를 확립했습니다.

복지사업은 보훈원을 시작으로 복지타운, 휴양원, 재활체육센터를 비롯해 수원·광주·김해·대구·대전·남양주·원주 7개 요양원을 개원해 1400여 장기요양 병상을 운영하고 있으며, 전주보훈요양원 개원을 앞두고 있습니다. 보훈요양원은 요양보호사 추가 배치, 우수 재활장비 도입,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 등의 서비스를 특화해 보건복지부 장기요양기관평가에서 10년 연속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습니다.

국가보훈과 의료복지 현장에서 성실히 역할을 수행 중인 임직원을 비롯해 공단 성장에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신 국가보훈처와 보훈단체에 감사 말씀 드립니다. 특히 창립 때부터 공단 발전을 위해 힘써주신 선배님들의 노력과 희생 덕분에 공단의 오늘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분들께 각별히 수고하셨고 감사하다는 인사를 드립니다.

『행복한 섬김, 보훈공단 40년』은 공단 40년을 정리하고 성과를 재조명했으며, 다가올 미래 발전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10년 만에 제작한 이번 사사(社史)가 공단의 역사를 돌아보고 미래를 위한 여정을 준비하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공단 50년, 100년 역사의 주인공은 임직원 여러분입니다. 국가유공자의 감소와 코로나19와 같은 국가재난은 예전과 다른 여건입니다. 공단은 이러한 환경 변화에 대응해 의료복지의 수준을 높이고 군인·경찰·소방관 등 국가사회기여자에 대한 진료를 확대하며 국내 최대 규모의 공공의료복지기관으로서 역할을 강화할 것입니다. 공단이 ‘공공의료복지를 선도하는 최고의 파트너’로 도약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그동안 맡은 바 임무를 충실히 수행한 보훈공단 가족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40년사 발간을 위해 애써주신 분들의 노고에 격려의 박수를 보냅니다. 고맙습니다.

2021년 11월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이사장 

40주년을 맞은 보훈공단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국가유공자를 비롯한 보훈가족 분들의 동반자이자, 영예로운 삶을 위한 건강 지킴이로 역할을 해 온 보훈공단의 <보훈공단40년사> 발간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지난 1981년 설립된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은 국가유공자 곁에서 끊임 없는 발전을 거듭함으로써, 현재 전국

6개 3,500여 병상 규모의 보훈병원과 8개 보훈요양원, 보훈원, 재활체육센터 등 다양한 시설을 갖춘 명실상부한 보훈의료·복지 공공기관으로서 그 책임을 충실히 실천해 왔습니다.

특히, 심화되고 있는 국가유공자의 고령화와 코로나19 팬데믹 등으로 인해 그 역할이 갈수록 중요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국가유공자 진료는 물론 코로나 19 전담병상 지정, 요양원 맞춤형 면회 프로그램 운영 등으로 우리가 직면한 위기를 극복하는데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국가유공자의 안락하고 건강한 삶을 위해, 공공 의료·복지기관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물심양면으로 애써주신 감신 이사장님을 비롯한 공단의 모든 임직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의 ‘국가를 위한 희생과 헌신’에 대한 의료·복지적 예우는 앞으로도 변함없이 계속되어야 합니다. 특히, ‘포스트 코로나’와 ‘뉴노멀’ 시대 등 우리 사회 전반의 급격한 환경 변화는 물론 보훈가족들의 눈높이와 기대 수준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는 만큼, 보훈공단 역시 이에 부응하는 혁신과

변화를 통해 새로운 미래를 준비하고 열어가야 합니다. 이를 위한 첫걸음은 지나온 시간 동안의 발자취와 성과를 면밀히 돌아보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의 역사와 발자취를 기록한 <보훈공단 40년사>는 ‘옛것을 익혀서 새것을 안다’는 온고지신을 새기고 실천하는 중요한 기록물이 될 것입니다. 지난 40년간의 역사를 바탕으로 미래의 새로운 비전을 세우고, 공급자가 아닌 수요자 중심의 세부 계획들을 하나하나씩 고민하고 실천해 간다면, 국가유공자를 비롯한 보훈가족의 건강한 삶을 책임지고 함께하는 ‘튼튼한 동행’은 더 큰 성과로 이어지고, ‘국가를 위한 헌신’에 대해 최고의 예우와 보답으로 이어지는 결실을 맺을 것입니다. 또한, 보훈공단 스스로도 지속 가능한 발전과 함께 우리나라의 공공의료복지를 선도하는 기관으로서 그 위상도 한 층 높아질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아무쪼록, <보훈공단 40년사>가 대한민국 보훈의료·복지의 역사서로서, 그리고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의 더 큰 도약을 위한 이정표이자 디딤돌로서 역할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다시 한번 <보훈공단 40년사> 발간을 축하드리며,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국가보훈처 역시 언제나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년 11월
국가보훈처장

황기철



사진으로 보는 보훈공단 40년사	10
제 1 편 국가보훈과 의료복지	18
제 1 장 국가보훈	20
제 2 장 보훈의료복지	36
제 2 편 보훈공단 40년의 조망	48
제 1 장 출범·운영체계 정비(1981-2000)	50
제 2 장 성장기반 구축(2001-2010)	68
제 3 장 의료·복지체계의 확립(2011-현재)	82
제 1 절 의료지원사업	83
제 2 절 복지지원사업	104
제 3 편 부문별 보훈공단 40년	114
제 1 장 추진체계	116
제 1 절 법규	117
제 2 절 조직체계	124
제 3 절 예산관리	157
제 4 절 정보화 시스템	165
제 2 장 경영관리	178
제 1 절 경영관리	179
제 2 절 성과관리	183
제 3 절 재무·자산관리	191
제 3 장 의료지원사업	198
제 1 절 의료지원	199
제 2 절 보훈의료망 구축	214
제 3 절 의료수준 향상	225
제 4 절 보훈재활 특성화	258
제 5 절 의학연구	278
제 6 절 환자중심 맞춤형 의료서비스	294
제 7 절 운영관리	322
제 8 절 공공의료기관 역할	333

일러두기

<행복한 섬김 보훈공단 40년>은 연혁화보, 보훈개요, 발전과정, 부문사, 발전방향, 부록으로 구성했다. 연혁화보는 40년의 주요 이슈를 사진과 함께 담아내어 역사의 흐름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했다. 제 1편은 국가보훈과 보훈의료복지 개요를 설명하고, 제2편은 발전과정을 체계 정비, 구축, 확립 과정으로 나누어 설명했다. 제3 편 부문사는 사업별 성장과정을 세부적으로 설명하여 업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했고, 제 4편 발전방향은 중장기 경영전략을 토대로 기술했다. 본문에 담지 못한 역대 기관장 현황, 전·현직 간부명단 현황, 기타 각종 주요통계자료, 보훈공단 동우회 자료 등은 부록에 담았다. <행복한 섬김 보훈공단 40년>은 <보훈공단 10년사>, <보훈공단 20년사>, <보훈공단 30년사>와 국가보훈처의 <보훈 60년사> 등을 참고했다.

표기원칙

모든 표기는 한글사용을 원칙으로 하고, 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부득이한 경우 한자와 영문을 혼용했다. 통계자료는 2021년 현재를 기준으로 했으나 보훈재활 체육센터·중앙보훈병원·대구보훈요양원 등 일부 시설이 2011년도에 개원함에 따라 필요한 경우 2011년 현황을 포함시켰다. 사업부서의 명칭은 2021년 현재를 기준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당시의 명칭을 그대로 사용했다.

제 4 장 복지지원사업	336
제 1 절 양로보호	339
제 2 절 요양보호	350
제 3 절 주거 환경개선 사업	374
제 4 절 보훈복지사업비 지원	378
제 5 장 보훈의료복지통합서비스	380
제 6 장 보훈교육연구원	392
제 1 절 교육사업	395
제 2 절 연구사업	404
제 7 장 운영관리	414
제 1 절 인사관리	415
제 2 절 복리후생	421
제 3 절 홍보활동	425
제 4 절 법무관리	435
제 5 절 노사협력	437
제 6 절 안전관리	438
제 8 장 사회공헌활동	440
제 9 장 감사제도	460

제 4 편 보훈공단의 발전방향	468
제 1 절 환경변화	470
제 2 절 정부정책	472
제 3 절 발전방향	474

부록	479
I 역대기관장	480
II 전·현직 간부 명단	481
III 보훈병원 현황	491
IV 재산 현황	526
V 연표	530
VI 대외기관 주요 수상내역	538
VII 보훈공단 동우회	539
VIII 국가보훈 관련 자료	542

1980 - 1990

사진으로 보는 보훈공단 40년사

1981

11.2.

한국원호복지공단 설립



1982

4.8.

신규 수익사업(합성수지사업소)



5.10.

신규 수익사업(반월편직사업소)



8.20.

신규 수익사업
(관세품판매사업소)

1983

1.1.

주택건설업체(주)한성 인수



8.16.

서울원호병원 신축, 이전



4.3.

부산원호병원 개원



1986.

위탁진료 제도 시행



2.27.

목제, 철제공장 신축 이전



1984

1985

1.1.

한국보훈복지공단으로 명칭 변경



1986

1987

4.25.

광주보훈병원 개원



1988

1990 - 2000

11.
서울보훈병원 의지창 신축



2.12.
대구보훈병원 개원



4.1.
보훈원 인수



1991

1992

1993

5.15.
부산보훈병원 신축, 이전



1996

7.21.
보훈복지타운 건립



8.30.
충주보훈휴양원 건립



1997

6.26.
보훈원 신축이전



9.24.
본사 사옥 이전



11.5.
대전보훈병원 개원



1998

11.29.
서울보훈병원 종합재활센터 건립



1999

1.1.
보훈연수원 인수



2000 - 2010

1.16.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으로 명칭 변경



3.5.
신규 복권사업 착수



11.19.
광주보훈병원 재활체육시설 건립



2.17.
보훈교육연구원 신축, 이전



12.6.
광주보훈병원 신축, 이전



5.6.
부산보훈병원 540병상으로 확장



9.2.
대전보훈병원 재활체육센터 시설 건립



2007

11.29.
대구보훈병원 475병상으로 확장



2008

보훈병원 첨단 전산화 구축



8.26.
수원보훈요양원 개원



9.4.
광주보훈요양원 개원



2009

9.22.
주거환경개선 '나라사랑 행복한집' 전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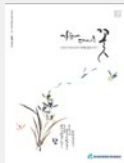
9.30.
김해보훈요양원 개원



10.6.
의료복지통합서비스 bohun-this 출범



11.2.
보훈공단 사보
<가슴에 피어나는 꽃>
창간



12.31.
올해의 보훈공단인상 제정



2010 - 2021

10.30.

대전보훈요양원 개원



11.1.

중앙보훈병원 암센터 개설



2.28.

중앙보훈병원 보훈요양병원, 재활센터 개원



8.30.

대한민국 윤리경영 3년
연속 대상 수상



6.12.

남녀고용평등 우수기업
고용노동부 장관상



12.14.

광주보훈병원 재활센터
건립



2011

2012

2013

2014

2015

5.19.

보훈재활체육센터 건립



9.6.

중앙보훈병원 신축병동 개원



11.7.

대구보훈요양원 개원



11.21.

주거환경개선사업 '나라사랑행복한집'
제1000호 준공



12.19.

본사 원주혁신도시 이전



2.27.

남양주보훈요양원 개원



2016

2018

2019

2020

2021

8.30.

중앙보훈병원
보훈의학연구소 개소식



11.7.

인천보훈병원 개원



6.23.

6.25전쟁 70주년
'나라사랑행복한집' 제5000호 준공



12.16.

원주보훈요양원 개원



제 1 편

국가보훈과
의료복지

제 1 장 국가보훈
제 2 장 보훈의료복지

제 1 장 국가보훈

- 1 보훈의 개념
- 2 보훈제도의 발전과정
- 3 보훈의 대상
- 4 보훈(지원)의 내용
- 5 보훈재정

보훈의 개념

보훈은 국가의 존립과 유지·발전을 위해 신명을 바치거나 특별한 공훈을 세운 사람과 그 유족에 대한 정신적, 물질적 보답이다. 보훈의 가치와 목적은 국가를 위한 희생과 공헌에 상응한 보상과 예우를 통해 국가유공자와 유족의 명예로운 생활이 유지·보장되도록 하고, 그분들의 숭고한 애국정신을 계승·발전시킴으로써 국가 공동체의 영속적 발전을 도모하는 데 있다.

국가는 그 성원들의 희생과 공헌을 정당하게 평가하고, 그에 상응한 보답을 통해 자발적 참여와 헌신의 동기를 부여한다. 희생과 공헌에 대한 국가의 인정과 보답은 공동체에 대한 성원들의 믿음과 귀속의식을 강화함으로써 강한 국민정신을 갖게 한다. 국가 공동체의 존립과 발전의 기반, 즉 국기(國基)를 튼튼히 하는 것이야말로 보훈의 존재 이유(raison d'être)인 동시에 궁극적 가치이다.

보훈은 동서양을 막론하고 국가의 성립과 함께 시작되었다. 국가 체제를 수립하고 발전을 지속해나가는 과정에서 희생하였거나 공헌한 사람들에 대한 보답은 국가 공동체를 유지하는 데 필수불가결한 것이기 때문이다.

고대 아테네의 정치가 페리클레스(Pericles)는 기원전 431년 케라메이코스 국립묘지에서 행한 전사자 추도 연설에서 ‘미덕에 최고의 보답이 주어지는 곳에 국가에 봉사하려는 훌륭한 시민들이 있다.’라고 말했다. 보훈의 의미와 가치를 잘 보여주는 말이다. 고대 중국의 보훈제도는 그보다 훨씬 앞선 기원전 11세기 주(周)나라에서 시작되어 진(秦), 한(漢) 등으로 이어졌다. 오래된 보훈의 모습은 우리 역사 속에서도 얼마든지 확인할 수 있다. 신라의 상사서(賞賜署), 고려의 고공사(考功司), 조선의 충훈부(忠勳府) 등의 보훈기구가 있었다.

이와 같이 나라를 위한 희생과 공헌에 상응한 국가의 보답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오래된 역사를 가지고 있다. 처음에는 국왕의 은전(恩典)과 시혜(施惠)로 시작되었다. 그러나 근대 이후 전사·부상군인이 대량으로 발생하고, 민주주의 정치이념이 보편화되면서 국가가 존재하는 한 그들의 희생을 잊을 수 없다는 부채의식과 그에 따른 도덕적 책무가 재인식됨에 따라 보상의 권리로 발전했다.

나라마다 역사가 다르듯이 보훈의 명칭이나 내용에서도 차이가 있다. 그중에서도 우리나라의 보훈은 다른 나라에 비해 매우 독특한 성격을 지니고 있다. 실정법의 제·개정 과정을 따라가 보면 보훈의 개념과 가치가 적극적으로 변화되어 왔음을 확인할 수 있다.

대한민국의 보훈은 1950년 4월, 6·25전쟁의 발발 직전에 제정된 「군사원호법」으로부터 시작되었다. 동법은 ‘군무에 복무하는 장병과 그 가족 또는 유족에 대한 원호를 목적으로 한다.’라 규정하고 있었다. 1961년 11월에 제정된 「군사원호보상법」과 1962년 4월에 제정된 「국가유공자 및 월남귀순자 특별원호법」 또한 크게 다르지 않았다.

군사원호보상법

군사원호대상자의 보호와 그 희생에 대한 보상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국가유공자 및 월남귀순자 특별원호법

국가와 민족을 수호하기 위하여 활동한 자와 그 유족에 대한 특별원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호’라는 용어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보훈의 가치에 주목하지 못했다. 그런 것은 1980년대 초반까지도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그러다가 1984년 8월 「국가유공자 예우 등에 관한 법률」(현 국가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제정으로 획기적 변화를 맞이했다. 이 법은 보훈의 개념과 이념이 분명하게 제시된 첫 번째 법률이다.

개념과 목적

국가를 위하여 공헌하거나 희생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에 대하여 국가가 응분의 예우를 행함으로써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도모하고 아울러 국민의 애국정신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기본이념

우리 대한민국의 오늘은 온 국민의 애국정신을 바탕으로 순국선열을 비롯한 국가유공자의 공헌과 희생 위에 이룩된 것이므로 이러한 공헌과 희생이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들에게 송고한 애국정신의 귀감으로서 항구적으로 존중되고, 그 공헌과 희생의 정도에 대응하여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의 영예로운 생활이 유지·보장되도록 실질적인 보상이 이루어져야 한다.

「국가유공자 예우 등에 관한 법률」의 제정으로 종래의 원호에서 탈피해 물질적 보상과 정신적 예우가 조화를 이루는 ‘보훈의 시대’로 나아갈 수 있었다. 그에 따라 보훈정책은 국가보상 수준의 향상, 국가유공자 공훈 선양 등 두 축으로 발전할 수 있었다.

2000년대를 전후해 보훈은 민주화 시대 변화를 담아내야 했다. 「국가유공자 예우 등에 관한 법률」의 시행과 함께 높아진 국가유공자의 위상과 보상 수준의 개선에 따라 나타난 현상이기도 했다. 그에 따라 보훈대상이 고엽제 관련자, 6·25 및 월남전 참전유공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등으로 확대되었다. 1997년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제정으로 장기복무 제대군인에 대한 사회복귀 지원이 보훈행정의 한 축을 차지하게 되었다. 이로써 보훈정책은 보상과 예우, 공훈 선양, 제대군인 지원 등 3축으로 발전할 수 있었다.

2005년 「국가보훈기본법」이 제정되었다. 범정부적 차원의 보훈정책에 추진 체제가 마련되고, 보훈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의 책무가 새로이 규정되었다. 국가유공자 공훈 선양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도 한층 더 강화되었다. 이로써 보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한 보다 넓은 거버넌스(governance)가 구축되었다. 「국가보훈기본법」의 보훈 개념은 애국정신의 기억과 전승을 통한 국민통합과 국가발전의 적극적 기능을 강조한 특징이 있다.

개념과 목적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사람의 숭고한 정신을 선양하고 그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의 영예로운 삶을 도모하며 나아가 국민의 나라사랑정신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기본이념

대한민국의 오늘은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분들의 숭고한 정신으로 이룩된 것이므로 우리와 우리의 후손들이 그 정신을 기억하고 선양하며, 이를 정신적 토대로 삼아 국민통합과 국가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국가보훈의 기본이념으로 한다.

2000년대 보훈은 해외로 그 영역이 넓혀졌다. 2000년 6·25전쟁 50주년을 계기로 본격화되기 시작한 국제보훈은 60주년(2010), 70주년(2020)을 거치면서 보훈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게 되었다. 2020년 「유엔참전용사의 명예 선양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다.

이 법은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위하여 헌신한 유엔참전용사의 명예를 선양하고 유엔참전국과의 우호를 증진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국가이미지를 제고하고, 자유민주주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간의 국제보훈 활동을 법체계에 반영한 것이지만 보훈의 개념과 가치가 국가 이미지 제고, 자유민주주의 발전 등으로 확장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와 같이 우리나라의 보훈 개념은 시대 변화를 수용하면서 진화를 거듭해왔다. 생계지원 위주의 원호에서, 물질적 보상과 정신적 예우가 결합된 보훈으로, 호국에서 독립과 민주주의 가치로, 국가보훈에서 지방보훈으로, 국가보훈에서 국제보훈으로 그 개념과 영역이 변화되어 왔다. 지금의 보훈은 국가유공자와 유족에 대한 보상과 예우, 공훈 선양과 나라사랑 정신 함양, 제대군인 지원, 국제보훈 등 4축으로 발전하고 있다.

‘보훈’ 명칭의 탄생 과정

1984년 원호처(현 국가보훈처)는 물질적 지원 위주의 법체계에서 정신적 예우와 물질적 지원을 병행하는 새로운 법체계 전반에 대한 개편 작업에 나섰다. 법체계 개편의 기본방향은 「군사원호보상법」 등 7개 법률을 하나의 법률로 통합·일원화하는 것이었다. 핵심 사안은 주요 용어를 명예의 관점에서 새롭게 정립하는 것이었다.

명칭을 새롭게 정리하기 위해 한글학자, 언론인, 작가 등 외부 전문가들에게도 광범위한 자문을 구했다. ‘국가유공자’라는 호칭에 대해서는 비교적 쉽게 공감대가 형성되었지만 문제가 되었던 것은 기관의 명칭이었다.

장의처(獎義處), 훈민처(勳民處), 정량호민처(貞亮護民處) 등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었지만 나름대로 깊은 의미에도 불구하고 난해함, 시대성, 국민정서 등에 비추어 기관명으로 사용하기에는 적합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자체적으로 마련한 안이 ‘보훈처(報勳處)’였다. 재차 전문가 의견 수렴과정을 거쳐 확정하고, 「정부조직법」을 개정하여 1985년 1월 1일 지금의 ‘국가보훈처’로 새 출발하였다.

이렇게 하여 종래의 ‘원호’가 ‘보훈’으로, ‘원호처’가 ‘국가보훈처’로, ‘원호대상자’가 ‘국가유공자와 유족’으로 변경되었다. ‘공훈에 보답한다.’는 자의(字意) 그대로 국가유공자에 대한 명예와 감사함이 담긴 용어는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유일하다. 외국에서는 제대군인 지원(미국, 영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대만), 무훈(撫恤, 중국), 원호(援護, 일본), 부조(扶助, 독일) 등으로 되어 있다.

1984년 「국가유공 예우 등에 관한 법률」 제정 당시에도 ‘국가보훈법’이 제시되었지만 정부 내 법안 심의과정에서 사전에 없는 조어(造語)로 생소함이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그 후 ‘원호’를 대체하여 ‘보훈’이 폭넓게 사용되면서 국어사전에 ‘국가유공자의 애국정신을 기리어 나라에서 유공자나 그 유족에게 훈공에 대한 보답을 하는 일’로 올라 있다.

보훈제도의 발전과정

1단계 보훈제도 수립기(1950~1984)

보훈이 ‘원호’라는 이름으로 시작되고 1961년 전담기구와 법령체계가 수립·시행된 기간으로 국가의 지원과 함께 스스로의 자립 노력이 강조되었다.

2단계 보훈제도 전환기(1985~1999)

생활지원에 중점을 둔 ‘원호’에서 물질적 보상과 정신적 예우가 조화를 이루는 ‘보훈’으로 전환된 기간으로 국가유공자와 유족의 보상과 예우 수준이 개선되고, 보훈대상이 확대되었다. 그와 함께 국가유공자 공훈 선양과 기념사업이 보훈의 큰 부분을 차지하게 되었다.

3단계 보훈제도 확장기(2000~2011)

시대 변화에 부응해 보훈의 개념이 확장되고, 보훈정책 추진체계가 강화된 기간이다. 그에 따라 보훈 시설물 관리 일원화를 통해 보훈의 위상과 상징성이 새롭게 정립되었다.

4단계 보훈제도 성숙기(2012~)

2000년대 초반의 제도적 안정을 바탕으로 품격 있는 성숙한 보훈의 시대에 한 걸음 더 나아간 기간이다. 정성과 품격을 더한 명예 존중과 예우를 통해 나라 위한 헌신에 끝까지 책임지는 ‘국가보훈’의 본령에 접근하고 있다.

1단계

보훈제도 수립기
(1950~1984)

전담기구가 설치되고 법령체계가 구축되다

1950년 4월 「군사원호법」의 제정으로 상이군인과 그 가족, 전몰군인의 유가족에 대한 생계부조, 직업보호, 수용보호 위주의 원호사업이 시행되었다. 이어 1951년 6월 「경찰원호법」이 제정되어 전투 또는 전투에 준하는 행위로 인해 상이를 입은 경찰관과 그 가족 또는 순직한 경찰관의 유가족에 대한 생계부조와 수용보호가 포함되었다. 1952년 9월 「전몰군경 유족과 상이군경 연금법」이 제정되어 1953년 10월부터 사망급여금과 소액의 연금이 지급되었지만 명목적 수준에 지나지 않았다.

원호사업은 사회부(현 보건복지부)를 중심으로 내무부, 국방부, 체신부 등의 정부기관 외에 대한군경원호회를 비롯해 각종 원호단체가 일부 원호업무를 담당하기도 했다. 그러나 행정기구의 분산으로 체계적인 원호가 이뤄지지 못하고 사실상 소액의 연금 지급과 수용보호 등에 그쳤다. 사회부 산하에 직업보도원(3), 정양원(4), 구호병원(2), 중앙재활원 등을 통한 지원이 있었지만 제한된 시설과 인력으로 인해 치료조차 제대로 이루어지기 어려웠다. 그로 인해 국가를 지키기 위해 희생된 분들이 실의와 자조에 빠지기도 했고, 커다란 사회적 문제가 되기도 했다.

1961년 7월 군사원호청의 설치로 사회부, 국방부, 내무부, 체신부 등에 분산되어 있던 원호업무가 통합, 일원화되었다. 군사원호청은 보건사회부로부터 직업보도원(3), 정양원(4), 구호병원(1)을 인수하고, 산하에 5개 지청과 25개 출장소를 설치했다. 그와 동시에 「군사원호대상자임용법」, 「군사원호대상자고용법」, 「군사원호대상자정착대부법」 등 3개 법률의 제정으로 직업보도와 자영사업에 대한 지원이 대폭 강화되었다.

- 1 군사원호청 보상금 지급 사업
- 2 군사원호청 퇴계로 청사



2단계

보훈제도 전환기
(1985~1999)

정부는 1961년 11월 「군사원호법」과 「경찰원호법」을 폐지하고 「군사원호보상법」을 제정했다. 1962년 4월 「국가유공자 및 월남귀순자 특별원호법」의 제정으로 군인과 경찰 외에 애국지사와 유족, 4·19의거 부상자와 사망자 유족, 월남귀순자가 특별원호 대상이 되었다. 그에 따라 1962년 4월 군사원호청이 원호처로 승격되었고, 산하 기관으로 종합원호원, 원호병원, 직업보도원, 직업재활원이 설치되었다. 이어 「군사원호대상자보상급여법」(1962), 「원호대상자 직업재활법」(1963), 「군사원호대상자녀교육보호법」(1968)의 제정으로 생활 안정을 위한 법적, 제도적 기반이 구축되었다.

1960년대 이후 원호사업은 보상금을 주축으로 자녀 교육보호, 의료지원, 직업보도, 직업재활, 정착대부, 양육·양로보호 등을 통해 생활안정 기반을 마련할 수 있었다. 그 가운데서도 대학까지 수업료 면제, 의무고용제도와 채용시험 가산점, 그리고 주택 우선 분양과 대부지원이 큰 역할을 했다.

1962년 7월 구호병원을 인수해 발족한 원호병원은 1974년 종합병원으로 발전했고, 「상이군경의료규정」의 제정으로 거주지 일반 병원의 응급 및 통원의료제도가 시행되었다. 1981년 11월 「한국원호복지공단법」(현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의 제정으로 원호병원과 직업재활원 등을 흡수한 한국원호복지공단이 설립되었다. 보훈공단의 설립은 의료서비스 발전의 획기적 계기가 되었다. 이 부분은 이어지는 ‘보훈의료복지’ 항목을 통해 자세히 살펴본다.

국가유공자 예우 중심의 보훈으로 전환되다

1980년대 중반은 보훈정책의 기초와 틀이 바뀌는 전환기였다. 1960년대 이후 정부의 지원과 자조 노력을 바탕으로 어느 정도 생활안정에 도달할 수 있었고, 따라서 자존감도 높아졌다. 국민의 추앙과 존경 그리고 정신적 예우에 초점을 둔 새로운 법체계의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1984년 8월 기존의 7개 법률을 통합한 「국가유공자 예우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다. 그에 따라 ‘원호’가 ‘보훈’으로, ‘원호대상자’가 ‘국가유공자와 유족’으로, ‘원호처’가 ‘국가보훈처’로 각각 개칭되었다.

1987년 개정 헌법은 그 전문에서 “대한민국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을 계승한다.”는 것을 천명했다.

그리고 헌법 제32조 제6항에서 ‘국가유공자·상이군경 및 전몰군경의 유가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우선적으로 근로의 기회를 부여받는다.’라고 규정해 국가유공자와 유가족에 대한 예우가 헌법적 수준으로 끌어 올려졌다.

법 제정 이후 국가유공자와 유족의 보상과 예우 수준이 큰 폭으로 향상되었다. 일례로 연간 보상금 예산의 규모가 1985년 876억 원에서 1991년에는 4,640억 원으로 거의 5.3배 신장되었다. 아울러 보훈병원 국비진료 대상이 상이군경과 애국지사의 모든 질환으로 확대되는 등 의료지원이 대폭 확대되었고, 거주지 일반 병원 위탁가료제도가 도입되었다.

또한 국가유공자의 공훈의 선양과 애국정신의 계승을 위한 사업이 보훈정책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게 되었고, 임시정부수립기념일(1990)과 순국선열의 날(1997)이 정부기념일로, 4·19묘지(1995)가 국립묘지로 각각 승격되었다.

1990년대 시대 변화에 부응해 고엽제 관련자, 참전군인, 장기복무 제대군인, 특수임무수행자 등으로 보훈의 대상과 범위가 확대되었다. 1993년 「참전군인 등 지원에 관한 법률」(현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과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진료 등에 관한 법률」(현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의 제정으로 참전용사에 대한 보상과 지원제도가 마련되었다.

1995년 광복 50주년을 계기로 「국가유공자 예우 등에 관한 법률」에서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이 분리, 입법됨으로써 독립유공자와 후손에 대한 예우 시책이 진일보하는 계기가 되었다. 1997년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제정으로 장기복무 제대군인에 대한 상담, 직업훈련, 직장알선 등 사회복귀 지원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구축되었다.

50만여 명에 이르는 6·25 및 월남전 참전용사의 국립묘지 안장 문제가 대두되었지만 국방부 산하의 국립묘지(당시 2개소)는 안장자격과 수용 능력의 한계가 있었다. 이에 따라 국가보훈처와 재향군인회는 1997년부터 호국용사묘지(현 국립호국원) 건설을 추진했다. 영천과 임실(2001)을 시작으로 이천(2008), 산청(2015), 괴산(2019) 등이 차례로 개원되었다.

3단계

보훈제도 확장기 (2000~2011)

시대 변화에 부응하여 보훈 개념이 확장되다

2002년 「5·18민주유공자 예우 등에 관한 법률」(현 5·18민주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의 제정으로 예우의 실시와 함께 5·18민주화 운동이 정부기념일로, 5·18묘지가 국립묘지로 승격되었다. 그와 함께 「참전군인 등 지원에 관한 법률」이 「참전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로 전면 개정되어 참전군인에 대한 지원이 국가유공자 예우로 격상되었다. 2004년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현 특수임무수행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다. 이로써 보훈은 독립-호국-민주(4·19, 5·18)로 이어진 근현대사의 흐름을 오롯이 담게 되었다.

2003년 국무총리 산하에 호국보훈정책기획단이 설치되어 국가보훈기본법 제정, 국가보훈위원회 설치, 독립기념관과 국립묘지의 국가보훈처 이관 등을 내용으로 하는 ‘호국보훈정책 중장기 발전계획’이 발표되었다. 그에 따라 2005년 「국가보훈기본법」이 제정되어 범정부적인 보훈정책 추진체계가 수립되고, 보훈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의무가 강화되었다. 기본법의 제정으로 지방자치단체가 보훈의 한 축을 담당하게 됨으로써 국가보훈에 더해 지방보훈의 역할이 증대되고 있다.

같은 해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의 제정으로 국립대전현충원이 국방부에서, 「독립기념관법」의 개정으로 독립기념관이 문화관광부에서 각각 국가보훈처로 이관되었다. 국립묘지와 기념시설물 관리의 통합, 일원화는 보훈의 위상을 높임으로써 보훈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전환하는 계기가 되었다. 그에 앞선 2002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개정으로 국가보훈처는 현충시설물에 대한 종합적 관리기능을 확보할 수 있었다.

그와 함께 의료·복지시설에도 큰 변화가 있었다. 2011년 서울보훈병원(현 중앙보훈병원)이 1,400병상 규모로 신축, 개원되었고, 노인성 만성 질환자에 대한 전문적 진료를 위해 보훈요양병원이 설치되었다. 아울러 장기요양보험제도의 시행과 더불어 보훈요양원 5개소(2008~2012)가 건립되었다.

4단계

보훈제도 성숙기
(2012~)

품격 있는 성숙한 보훈의 시대로 들어서다

2012년 7월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제정으로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관련성 여부에 따라 국가유공자와 보훈보상대상자로 구분했다. 이는 국가유공자의 개념과 범위를 엄정하게 유지하고 정체성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었다.

2017년 이후 독립유공자의 대대적 발굴, 포상이 이뤄지고, 독립유공자 후손과 참전유공자에 대한 예우가 크게 높아졌다. 독립유공자 손자녀에게 생활지원금이 지급되고, 6·25 및 월남전 참전유공자의 명예수당의 인상과 함께 진료비 감면비율이 60%에서 90%로 대폭 높아졌다.

2019년 3·1운동 및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기하여 대한민국임시정부 기념관이 건립되었다. 2020년 6·25전쟁 70주년을 계기로 「유엔참전용사의 명예선양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다. 2000년 6·25전쟁 50주년을 계기로 정부 차원에서 본격화된 국제보훈 활동은 60주년, 70주년을 거치면서 법적 기반까지 갖추으로써 더 큰 발전을 기대할 수 있게 되었다.

그와 함께 국가유공자의 고령화에 따른 의료복지시설과 재가복지서비스가 대폭 확대되었다. 인천 권역 거주자의 근접 진료를 위해 인천보훈병원이 건립됨으로써 보훈병원이 6곳으로 늘어났고, 보훈요양병원과 재활센터, 그리고 보훈요양원의 증설로 이어지고 있다.

우리나라의 보훈은 제도적 안정을 기반으로 성숙단계에 들어서고 있다. 보훈은 국가유공자의 보상과 예우에 정성과 품격을 더해 국가를 위한 헌신에 끝까지 보답하고 책임지는 진정한 ‘국가보훈’의 시대로 나아가고 있다. 그리고 국가유공자의 공훈 선양과 나라사랑 정신의 함양을 통해 국민통합에 적극 기여하는 한편, 유엔군 참전용사 대상의 국제보훈을 통해 국가의 이미지 제고와 유엔참전국과의 유대 강화에 노력하고 있다.

국가보훈처는 「보훈 60년사」를 통해 ‘국가를 위한 헌신이 정의롭고 당당한 대한민국’이라는 기치로 다섯 가지 정책과제를 제시하고 있다. ① 희생과 공헌에 합당한 보상 실현, ② 고령 국가유공자에 대한 의료·복지 및 사망 시 예우의 강화, ③ 국가안보를 위한 제대군인에 대한 지원 강화, ④ 일상 속 보훈문화의 조성, ⑤ 국가가 책임지는 영예로운 보훈 등을 제시하고 있다. 그 가운데 의료와 복지서비스는 국가유공자의 전반적 고령화로 인해 한층 더 강화될 수밖에 없는 분야이다.

보훈제도 발전과정				
구분	보훈제도 수립기 (1950~1984)	보훈제도 전환기 (1985~1999)	보훈제도 확장기 (2000~2011)	보훈제도 성숙기 (2011~)
기구	• 사회부 등(1950) • 군사원호청(1961) • 원호처(1962)	• 국가보훈처(1985)	• 국가보훈처	• 국가보훈처
법령	• 군사원호법(1950) • 경찰원호법(1951) • 전몰군경 유족과 상이군경 연금법(1952) • 군사원호보상법 • 군사원호대상자임용법 • 군사원호대상자고용법 • 군사원호대상자정착 대부법(이상 1961) • 국가유공자 및 월남귀순자 특별원호법 (1962) • 군사원호대상자보상 급여법(1962) • 원호대상자직업 재활법(1963) • 군사원호대상자녀 교육보호법(1968) • 한국원호복지공단법(1981)	• 국가유공자 예우 등에 관한 법률(1984) • 참전군인 등 지원에 관한 법률(1993) •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진료 등에 관한 법률 (1993)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1995) •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1997)	• 5·18민주유공자예우 등에 관한 법률(2002) • 참전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2002) •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2004) • 국가보훈기본법(2005) •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2005)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2018) • 유엔참전용사의 명예선양 등에 관한 법률(2020)
대상 (추가)	• 상이군경 • 전몰군경 유족 • 애국지사과 유족 • 4·19의거 희생자 • 월남귀순자 • 재일학도의용군인 • 순직/공상 공무원 • 무공수훈자(태극, 을지)	• 무공/보국수훈자 • 국가사회발전 특별 공로자 • 월남전 참전 고엽제 후유증/후유의증환자 • 장기복무 제대군인	• 5·18민주유공자 • 참전유공자(6·25/ 월남전) • 특수임무유공자	• 5년 이상 복무 제대군인
예우 (지원)	• 연금 • 수용보호 • 직업보도 • 의료지원 ※원호병원 신축, 증설	• 보상금급여체계 개선 •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지원(수당, 진료 등) • 의료지원 확대(상이자, 애국지사의 모든 질환) • 보훈병원 증설, 위탁 병원제도 시행 • 호국용사묘지 조성	• 상이등급 확대(7급) • 6·25전몰군경 유자녀 수당(신설) • 무공수훈자 명예 수당 (신설) • 참전유공자 명예 수당 (신설) • 의료복지시설 확충 • 독립기념관, 국립 대전현충원 인수	• 독립유공자 손자녀 생활지원금(신설) • 참전유공자 예우 확대 (수당, 진료비 감면) • 의료복지시설 확충 • 국립묘지 추가 조성, 국가관리 묘역 지정 • 대한민국임시정부 기념관 건립 • 제대군인 지원 확대 • 국제보훈 활성화

※ 법률, 시설 등은 제·개정 또는 설치 당시의 명칭임

보훈의 대상

우리나라의 보훈에는 외국과 달리 군인과 경찰 외에도 독립유공자와 민주유공자(4·19, 5·18) 등이 포함되어 있다. 독립-호국-민주로 이어진 우리의 역사가 오롯이 담겨 있기 때문이다. 「국가보훈기본법」은 보훈의 대상이 되는 국가를 위한 특별한 희생과 공헌의 범위를 ① 일제로부터의 조국의 자주독립, ② 국가수호와 안전보장, ③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의 발전, ④ 국민의 생명 또는 재산의 보호 등의 공무수행으로 규정하고 있다.

보훈행정 대상은 2021년 12월 말 기준으로 중·장기복무 제대군인을 포함해 83만 9천 명(본인 58만 4천 명, 유족 25만 5천 명)이다.

적용 대상자		
법률	적용 대상자	해당 요건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 순국선열 • 애국지사	독립운동을 하다가 순국하여 서훈을 받은 사람 독립운동을 한 사실로 서훈을 받은 사람
국가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전몰/전상군경	군인이나 경찰공무원으로서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은 사람
	• 순직/공상군경	군인이나 경찰·소방공무원으로서 국가수호 등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 중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은 사람
	• 무공/보국수훈자	무공훈장(보국훈장)을 받은 사람
	• 6·25참전 재일학도 의용군인	재일동포로 국군 등에 지원 입대하여 6·25전쟁에 참전한 사람
	• 4·19혁명 사망자·부상자·공로자	1960년 4월 19일을 전후한 혁명에 참가하여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은 사람 또는 그 공로로 건국포장을 받은 사람
	• 순직/공상공무원	공무원으로서 국민의 생명·재산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 중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은 사람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등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 국가사회발전 특별 공로 순직자·상이자·공로자	국가사회발전에 현저한 공이 있는 사람 중 그 공로와 관련되어 순직하거나 상이를 입은 사람 등 (국무회의에서 의결)
	• 고엽제후유증환자 •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월남전에 참전 또는 남방한계선 인접 지역에서 복무하고 전역한 사람으로서 고엽제 질병이 있는 사람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 참전유공자	6·25전쟁 또는 월남전쟁에 참전한 사람
5·18민주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 5·18민주유공자	5·18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은 사람 또는 그 밖의 희생한 사람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 특수임무유공자	특수임무수행으로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사람 또는 특수임무를 수행한 사람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 재해사망군경 • 재해부상군경	군인이나 경찰·소방공무원으로서 국가수호 등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 중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은 사람
	• 재해사망공무원 • 재해부상공무원	공무원으로서 국민의 생명·재산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 중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은 사람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 제대군인	중기복무 제대군인(5년 이상 군 복무 후 전역한 사람) 장기복무 제대군인(10년 이상 군 복무 후 전역한 사람)

보훈(지원)의 내용

오늘의 보훈은 크게 ① 국가유공자의 명예스러운 생활 보장, ② 국가유공자 공훈 선양과 나라사랑 정신 함양, ③ 중·장기 제대군인 지원, ④ 유엔군 참전용사 대상의 국제보훈 네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째, 국가유공자의 명예스러운 생활 보장이다. 희생과 공헌의 정도에 상응한 금전적 보상으로 매월 보훈급여금이 지급된다. 질환의 가료, 재활, 요양에 이르는 건강의 회복과 증진을 위한 의료지원이 행해진다. 이를 위해 공단 산하에 보훈병원(6개소)과 보훈요양원(7개소)이 있고, 위탁병원(439개소) 제도가 운영되고 있다. 본인과 자녀의 교육지원과 채용시험 가점 부여와 공·사기업 의무고용, 직장알선과 직업훈련 등의 취업지원이 실시된다. 주택의 우선 분양(임대), 인허가 우선 지원 등으로 생활 안정을 도모하며, 양육·양로보호와 재가복지서비스가 제공된다. 그 밖에 조세, 교통, 통신, 문화, 사회복지 등의 사회적 우대와 의전상의 특별한 예우가 따른다.

둘째, 국가유공자의 공훈을 선양하는 활동이다. 정부기념일(17개) 행사를 주관 하거나 각종 기념행사를 지원한다. 그리고 국립묘지(12개소), 기념관(8개소)을 비롯한 기념시설을 건립하거나 지원하며, 국외 순국선열의 유해를 찾아서 봉환한다. 아울러 각종 문헌 편찬·교육·홍보 활동, 기념사업회 지원 등을 통해 국가유공자의 희생과 공헌을 전승하고 국민의 나라사랑 정신을 함양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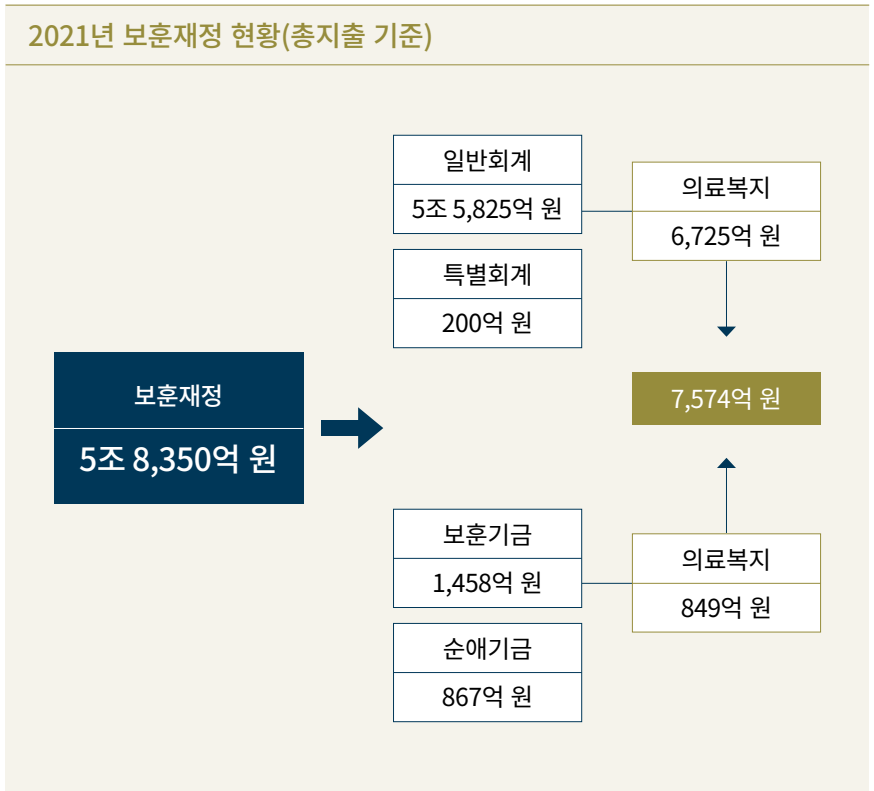
셋째, 5년 이상 국방을 위해 헌신하다가 전역한 중·장기 복무 제대군인에 대한 사회정착 지원이다. 중·장기 제대군인의 빠른 사회적응과 훈련된 인력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주요 도시 10곳에 제대군인 지원센터를 두어 전직지원 컨설팅, 직업교육훈련, 구직활동 지원 등 사회로 복귀해 정착할 수 있도록 돕는다.

넷째, 유엔군 참전용사와 참전국 대상의 국제보훈 활동이다. 유엔군 참전의 날(7.27), 유엔참전용사 국제추모의 날(11.11) 등의 기념행사를 개최하고, 본인과 후손을 초청하거나 유엔참전국을 순방하며 위로행사를 갖는다. 기념시설의 건립, 참전기록의 발굴과 보존, 국가 차원의 교류와 협력을 통해 유엔참전국과 유대를 강화한다.

보훈재정

보훈재정은 정부 세출예산(일반, 특별회계 포함), 보훈기금과 순국선열애국지사기금 지출예산으로 구성된다. 2021년 기준 보훈재정(총지출 기준)은 5조 8,350억 원 규모로 ① 일반회계 세출예산 5조 5,825억 원, ② 특별회계 200억 원, ③ 보훈기금 1,458억 원, ④ 순국선열·애국지사사업기금(순애기금) 867억 원 등이다.

그중 의료복지 예산은 ① 일반회계 6,725억 원(11.5%), ② 보훈기금 849억 원(58.2%)을 포함해 총 7,574억 원이다. 일반회계 의료복지 예산은 ① 보훈병원 진료비 보상 3,855억 원, ② 위탁병원 진료비 보상 2,325억 원, ③ 보장구·보훈병원 시설 확충 545억 원 등이다. 보훈기금 의료복지 예산은 ① 보훈요양원 건립비 232억 원, ② 복지서비스 인력 경비 500억 원 등이다.



제 2 장

보훈의료복지

- 1 보훈의료복지의 개념
- 2 보훈의료복지의 발전과정
- 3 보훈의료복지의 대상과 범위
- 4 보훈의료복지 전달체계
- 5 보훈의료복지의 특징과 과제

보훈의료복지의 개념

전상군경 등에 대한 치료와 재활을 목적으로 시작된 보훈의료는 모든 보훈 대상자의 건강한 생활을 보장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의료서비스 (Health Care)와 복지서비스(personal welfare service)가 포함된 폭넓은 개념으로 변화되어 왔다.

보훈은 ‘자선이나 복지가 아니라 봉사에 대한 보상이며, 영감을 불러일으키기 위한 암시적 인센티브’라 정의되기도 한다. 보훈의 목적이 국가를 위한 희생에 대한 보상을 통해 애국적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데 있다는 뜻이다. 언어적 보편성이나 수단의 유사성 때문에 ‘복지’라는 용어가 사용되고 있지만 어디까지나 보훈은 ‘보상으로 복지’ 또는 ‘명예로운 복지’이다.

앞에서 보았던 것처럼 보훈은 보훈급여금, 의료, 교육, 취업, 대부지원, 양육·양로보호, 사회적 우대 등 여러 가지 형태로 시행되고 있다. 그중에서 의료복지서비스는 제도적 보장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여타의 보상제도와 다른 점이 있다.

첫째, 강한 봉사성이 전제되어 있다는 점이다. 현장에서 따뜻한 감성과 정성스러운 손길이 요구되는 대면서비스를 통해 보훈의 의미와 가치를 직접적으로 구현하는 활동이기 때문이다. 법령의 규정에 의해 집행되는 보훈급여금이나 교육보호 등의 보상제도와 비교해보면 쉽게 이해된다.

꿈을 이루는 봉사

우리는 꿈으로 위대하게 성장합니다. 우리 중 일부는 이 위대한 꿈을 상실하였지만, 다른 이들이 그들을 보살피고 보호합니다. 건강을 회복할 때까지 돌보아줍니다. 그리고 따뜻한 햇살과 밝은 빛 속으로 데려갑니다. 꿈은 항상 진심으로 바라는 사람들에게서 이루어집니다.

미국 제28대 대통령 토마스 우드로 윌슨(Thomas Woodrow Wilson)

둘째, 서비스의 지속성이다. 보훈급여금, 교육, 대부, 취업 등은 일회성으로 끝나거나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지만 의료복지는 보훈대상자 개개인을 대상으로 생존하는 동안 계속해 이어지는 평생 건강관리 서비스이다. 특히, 재활은 신체적, 정신적 기능의 회복과 증진을 통해 사회경제적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으로 어렵고도 긴 치료와 훈련과정이 필요하다.

셋째, 비정형적, 복합적 서비스로 확장성이 강하다는 점이다. 이 또한 획일적이고 정형화된 여타의 보훈제도와 다른 특성이다. 보훈의료는 상이처와 병발질환에서 모든 질환으로, 내·외과 처치에서 치과, 안과, 정신과, 재활, 보장구 등으로 확장되어 왔다. 그리고 질환의 치료에서 요양, 양로, 재가복지 등이 융합된 토털케어(total care)로 변화되고 있다.

넷째, 인적 자원(human resources)이 매우 중요하다는 점이다. 보훈의료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들에게는 고도의 헌신성, 책임성, 전문성 등의 자질이 요구된다. 그 같은 자질은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의 인재상에도 반영되어 있다. ① 보훈인(국가관과 보훈의식이 투철한 인재), ② 봉사인(맑은 품성과 사랑으로 봉사하는 인재), ③ 전문인(의료복지서비스의 전문성을 갖춘 인재), ④ 화합인(믿음과 협력으로 소통하는 인재) 등이다.

보훈의료복지의 발전과정

역사적으로 보훈의료는 17세기 말 유럽에서 전상자에게 치료, 정양, 안식을 위한 공간을 제공할 목적으로 시작되어 20세기 두 차례 세계대전을 겪으면서 큰 발전이 이루어졌다. 지금은 의료와 복지서비스가 결합된 통합적 건강관리서비스로 나아가고 있다. 그 같은 흐름은 의료시설의 명칭의 변화에서도 감지된다. 시설보호 성격의 호스피털(hospital)에서 메디컬센터(medical center)로, 그리고 헬스 케어 센터(health care center) 개념으로 변화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보훈의료복지는 전상군경의 치료를 위한 원호병원 1개소(서울)와 수용보호를 위한 종합원호원 1개소(수원)의 단순한 형태로 시작되었다. 지금의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은 보훈병원과 보훈요양원 등의 다양한 복지시설을 두루 갖추고 예방, 치료, 재활, 요양, 양로, 휴양, 재가복지 등에 이르는 의료복지 통합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전국적 보훈의료 체계의 구축

우리나라의 보훈의료는 6·25전쟁과 역사를 같이 한다. 45만여 명에 이르는 부상자가 발생했지만 병원의 부족으로 치료조차 어려운 실정이었다. 사회부(현 보건복지부) 소속의 구호병원과 정양원이 있었지만 한계가 있었다. 1961년 군사원호청(현 국가보훈처)이 설치되고 사회부 소속의 구호병원이 원호병원(현 보훈병원)으로 개편되었다.

1981년 한국원호복지공단(현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이 발족되었고, 1983년 원호병원은 현대식 종합병원으로 신축, 개원했다. 그 후 부산보훈병원(1984), 광주보훈병원(1987), 대구보훈병원(1993), 대전보훈병원(1997), 인천보훈병원(2018) 등의 신축으로 6개소로 늘어났다. 지금의 보훈병원은 중앙(1,370), 부산(499), 광주(553), 대구(475), 대전(383), 인천(137) 등 총 3,417병상을 갖춘 국내 유수의 의료기관으로 발전했다.

보훈병원은 국내의 여타 병원과 달리 급성기 병원과 만성질환자를 위한 요양병원, 재활의학센터와 재활체육시설을 두루 갖추고 있다. 그와 함께 의료 이용의 접근성과 편의성을 위해 민간 위탁병원 439개소(2021년)를 지정, 활용하고 있다.

다양한 보훈복지 서비스의 개발

보훈복지서비스는 1963년 무의탁 유자녀와 고령의 유족의 양육·양로보호를 위한 종합원호원(현 보훈원)의 설립으로부터 시작되었다. 현재 보훈원은 양로 및 요양서비스와 함께 주거복지서비스의 형태(보훈복지타운 452세대)로 운영되고 있다. 그와 함께 1994년 보훈휴양원(충주)을 건립해 전몰군경 미망인을 비롯한 노령 보훈대상자에게 여가선용과 휴식처를 제공하고 있다. 2000년대 후반에 들어 보훈복지서비스에 큰 변화가 있었다. 2008년에 수원과 광주보훈요양원의 개원을 시작으로 김해(2009), 대구(2011), 남양주(2015), 원주(2020) 등이 차례로 개원했고, 전주보훈요양원의 개원(2022)을 앞두고 있다. 보훈요양원은 국내 ‘최고의 요양기관’이라는 평가를 받으며 발전하고 있다. 아울러 2009년부터 ‘나라사랑 행복한 집’이라는 브랜드의 주거환경 개선사업(Home Adaptation Service)이 시행되고 재가복지에 크게 이바지하고 있다.

보훈의료복지 통합서비스로 발전

전국적 의료체계가 구축되고 다양한 복지서비스가 개발되면서 시설 단위로 분절된 서비스에서 보훈대상자 개개인을 대상으로 한 맞춤형 통합서비스가 필요해졌다. 그에 따라 고객의 범위를 재가 환자로 넓혀 예방, 치료, 재활, 요양, 양로, 휴양, 방문 의료, 가정간호, 재가복지, 심리상담 카운슬링, 주거환경 개선, 의료·복지용품 지원 등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의료복지 통합서비스 체계가 구축되었다. 지금은 지역 기반 서비스(community based service), 즉 지역사회 의 의료복지 자원을 종합적으로 활용하는 보다 넓은 개념으로 발전하고 있다.

보훈병원의 역사

보훈병원은 17세기 후반 시설보호(accommodation)와 치료를 겸한 안식원에서 시작되었다. 세계 최초의 보훈병원은 1674년 10월 프랑스 파리 중심부에 세워진 앵발리드(Hôtel des Invalides)였다. 영국에서는 1682년 왕립 첼시안식원(Royal Hospital Chelsea)이, 1684년 킬마인햄안식원(Kilmainham Hospital)이, 1692년 그리니치안식원(Greenwich Hospital)이 설립되었다. 미국에서는 1812년 ‘해군의 집’을 시작으로 1853년 워싱턴에 2개 군인의 집, 1866년 치료와 안식을 위한 내셔널 홈(National Home)이 세워졌고, 1929년까지 총 11개 기관으로 늘어났다. 제1차 세계대전의 발발로 많은 전상자가 발생하자 수백 개의 민간병원과 호텔을 임차하여 사용하다가 1930년 보훈처(Veterans Administration)가 창설된 후 전국 주요 지역에 보훈병원(Veterans Hospital)이 세워졌다. 지금의 보훈부(Department of Veterans Affairs)는 메디컬센터(VA Medical Center) 171개소, 외래진료소(VA Clinic) 1,112개소 등 총 1,293개소에 달하는 방대한 의료시설을 갖추고 있다.

보훈의료복지의 대상과 범위

보훈의료복지는 원칙적으로 직무관련성이 있는 부상 또는 이와 관련해 발생되었거나 악화되었다고 인정되는 병발질환을 대상으로 한다. 직무관련성이 없는 부상이나 질환의 포함 여부는 국가마다 차이가 있다. 우리나라 보훈의료의 대상은 국비진료와 감면진료로 구분된다. 국비진료는 독립유공자와 상이자(전상/공상군경, 4·19, 5·18상이자, 특수임무 상이자, 공상공무원 등), 감면진료는 여타의 국가유공자 본인과 배우자 등이 해당된다. 보훈의료복지서비스에는 진료와 처치(medical treatment), 재활(rehabilitation), 요양(nursing-home care), 보장구(prosthetic appliances) 지원, 재가 의료복지서비스(personal welfare service) 등이 포함된다. 첫째, 진료와 처치는 입원, 외래, 약품 지원 등으로 이루어진다. 보훈병원의 진료는 급성기 환자에 대한 치료와 만성질환자에 대한 관리로 세분화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그에 따라 보훈병원 내에 요양병원을 병설해

신경 정신적 치료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

제1차 세계대전의 발발은 보훈의료의 발전에 큰 영향을 미쳤다. 대량 살상 무기와 독가스의 사용과 끝없는 참호전은 수많은 부상자를 발생시키고 질병에 이환하게 하였다. 전쟁은 신체적 불구와 장애뿐만 아니라 신경 정신 장애의 문제를 야기하였다. 영국의 여류 소설가 패트 바커(Pat Barker)는 《재생 3부작(Regeneration Trilogy)》을 통해 전쟁의 고통과 그 심리적 여파를 [기억-외상-생존-회복]의 과정으로 그려냄으로써 정신적 장애에 관한 주의를 환기하였다. 그러나 그때까지만 해도 신경 정신적 장애는 shell shock(1차 대전), battle fatigue(2차 대전), operational exhaustion(한국전쟁) 등 전투 피로증(combata fatigue) 정도로 여겨졌다. 베트남 전쟁이 끝난 후 미군과 호주군의 신경 정신적 장애가 커다란 사회문제로 부상하였고, 1978년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ost-traumatic stress disorder)’로 공식화되었다.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는 심각한 외상을 겪은 후에 나타나는 불안 장애를 의미한다. 외상의 종류는 전쟁 외에도 자연재해, 교통사고, 화재, 폭력, 범죄 등이 있을 수 있다. 베트남 참전 용사의 약 30%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경험했다는 보고가 있다. 그에 따라 신경 정신적 치료와 재활이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게 되었다.

만성질환에 대한 특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둘째, 의학적 재활은 손상된 신체기능의 회복과 유지를 통해 직업재활로 이어지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치료와 병행해 재활훈련을 실시하며, 재활체육 시설을 설치, 운영하고 있다.

셋째, 보장구는 상이자의 신체 기능 장애나 활동력이 상실된 부분을 보완해주는 보조기구를 말한다. 인공 장구에서 시작된 보장구는 의공학(醫工學)의 발전과 함께 기술적 보조기구(technical aids) 개념으로 진화되고 있다. 보장구는 의지, 의수, 의안, 보청기, 보조기, 자조구, 휠체어 등이 포함되며 공급, 교체, 수리서비스가 포함된다. 상이군경 등이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보철용 차량을 구입할 경우에 제세공과금과 유류비, 통행료 등을 감면해준다. 국가에 따라서는 차량 구입비 또는 개조비용을 보조해주거나 실명자에게 안내견(guide dog)을 제공해주기도 한다.

넷째, 재가 의료복지서비스는 방문 의료, 가정간호, 간병, 의료·복지용품 지급, 가사 보조원 파견 등 재가복지서비스, 심리·사회적응 상담, 주거환경 개선 등을 포함하며 의료기관 내왕에 따른 교통비를 보조해주기도 한다.

보훈의료복지 전달체계

세계적으로 보훈의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은 ①국민의료보장제도 이용 방식, ② 별도의 보훈의료체계 구축 방식, ③ 보훈의료체계와 민간 의료시설을 함께 이용하는 절충형 방식 등 세 가지로 형태로 분류될 수 있다.

첫째는 국민의료보장제도를 이용하는 방식이다. 보편적 복지제도가 발전해 있거나 의료 수요가 많지 않아 별도의 의료체계를 구성할 필요성이 낮은 국가들로 영국, 캐나다, 호주 등과 사회주의 국가들이 이에 속한다. 이 방식은 의료 이용의 접근성은 높지만 보훈 환자의 특성에 따른 전문적 서비스 제공에 한계가 있다. 영국은 조세를 재원으로 전 국민에게 적용되는 국민보건서비스(National Health Service)를 제공하고 있다. 전쟁연금(War Pension) 수급권자의 경우에는 의료기관 이용의 우선권이 주어진다. 캐나다에는 제1차 대전이 한창이던 1917년 퀘벡의 세인트 앤 병원(Ste. Anne's Hospital)을 시작으로 1946년까지 총 44개 병원이 세워졌다. 1963년까지 남아 있던 18개 병원 중 17개 병원이 주정부에 이관되었다. 2016년 마지막으로 세인트 앤 병원이 퀘벡 정부에 이관되었다. 지금은 세인트 앤 병원을 포함해 제2차 세계대전, 한국전 참전용사만 이용가능한 주정부 계약병상(3,784개), 지역 주민 누구나 이용가능한 지역사회 병상(6,601개)이 있다. 호주의 보훈의료서비스는 공립병원과 지정 민간병원을 통해 제공된다. 1차 진료는 의원급(일반의)에서, 2차 진료는 일반의의 의뢰에 의해 공립·민간병원(전문의)이 담당한다.

둘째는 별도의 보훈의료체계를 구성하고 있는 경우이다. 이 방식은 보훈 환자에 특화된 전문적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고, 비용관리의 효율성이 높지만 의료 이용의 접근성은 취약한 편이다. 미국과 대만의 보훈의료시스템이 이 같은 유형에 속한다. 미국의 보훈의료서비스는 1차 외래진료소(1,112개소), 2차 메디컬센터(171개소)로 구성된 23개 보훈의료통합네트워크(Veterans Integrated Services Networks)를 통해 제공된다. 외래진료소 주치의의 승인을 거쳐야 메디컬센터를 이용할 수 있으며, 8단계 우선순위그룹제도(Priority Group System)에 의해 장애율 50% 이상 해당자에게 우선권을

부여하고 있다. 미국이 별도의 보훈의료체계를 구축하게 된 것은 사보험 중심으로 되어 있어서 공적 의료보장이 취약하기 때문이다. 대만의 보훈의료 전달체계는 국군퇴제역관병보도위원회(國軍退除役官兵輔導委員會) 산하 의료시설을 통해 이루어진다. 의료전달체계는 제1차 영가보건조(榮家保健組, 16), 2차 영민총의원分院(榮民總醫院分院, 12), 3차 영민총의원(榮民總醫院, 3)으로 구성되어 있다.

셋째는 별도의 보훈의료체계를 구축하고 있지만 의료 이용의 편의성 제고를 위해 민간병원을 함께 이용하는 절충적 방식이다. 이 방식은 전문성과 접근성을 아울러 갖는 장점이 있다. 우리나라, 프랑스, 중국 등이 이에 속한다.

우리나라는 6개 보훈병원을 주축으로 439개 위탁병원(2021년 현재)을 통해 의료서비스가 제공된다. 프랑스는 보훈장관 산하에 앵발리드와 9개 병원이 있지만 시군 지역에 ‘블루에 드 프랑스(Bleuet de France, 수레국화)’라는 마크가 붙은 지정병원을 통해 1차적 의료서비스를 제공한다. 중국의 경우에는 명예군인 회복병원(27), 제대군인 신경과병원(73), 제대군인만성병요양원(32) 등의 특수 의료기관을 두고 있다.

보훈의료의 대상, 내용, 전달체계			
구분	진료대상	보장범위	전달체계
국비 진료	• 독립유공자 • 국가유공자 중 상이자 등 - 전상/공상군경, 재일학도의용군인, 4·19혁명 부상자, 공상공무원,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 상이자 • 5·18민주화운동 부상자 • 고엽제후유의증환자 • 특수임무유공자 중 부상자 • 보훈보상대상자 중 부상자	• 모든 질환의 치료 • 보장구 지급 (상이자) • 방문의료서비스 등	• 보훈병원(6개, 3,417병상) • 위탁병원(439개)
	• 국가유공자 본인(비상이) - 무공, 보국수훈자, 참전유공자,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자 • 5·18민주화운동 기타 희생자 • 특수임무유공자 중 공로자 • 10년 이상 복무 제대군인 • 국가유공자 배우자, 유족	본인 부담 진료비 30~90% 감액 (참전유공자 90%)	• 보훈병원 • 위탁병원(이용대상) - 국비진료대상자 - 75세 이상 무공수훈자, 참전유공자 - 75세 이상 보상금 수령 선순위 유족

※감면대상 : 참전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10년 이상 장기복무 제대군인의 배우자와 유족 비해당
※감면비율 : 보훈대상자의 종류와 등록시점에 따라 상이

보훈의료복지의 특징과 과제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보훈의료복지서비스는 1961년 군사원호청의 창설과 함께 시작되어 1981년 11월 한국원호복지공단의 창설로 본격화되었다. 길게는 60년, 짧게는 40년의 경험을 바탕으로 보훈병원, 보훈요양원, 보훈원, 보훈재활체육센터, 보훈휴양원 등의 인프라를 구축하고 의료복지 통합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보훈가족으로부터 사랑과 신뢰를 받는 국내 굴지의 공공의료복지기관으로 자리를 잡고 있다. 보훈공단은 ‘보훈가족의 건강과 행복한 삶’이라는 비전하에 성공적인 공공의료복지기관으로 발전하고 있다. 우리나라 보훈의료복지의 특징과 과제는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

첫째, 보훈대상자의 모든 질환에 대해 포괄적 건강증진서비스를 제공한다. 본인뿐만 아니라 배우자와 일정 범위의 유족이, 상이처뿐만 아니라 모든 질환이 포함된다. 그런 점에서 우리나라의 보훈의료는 대상과 보장의 범위가 가장 넓은 국가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급성기 환자에 대한 치료와 만성질환자에 대한 치료와 요양이 함께 이루어지는 것 또한 다른 의료기관에서 찾아보기 어려운 장점이다.

둘째, 상이군경 등의 신체적 재활과 사회적응 능력 개발을 위한 재활의학시스템이 잘 갖추어져 있다. 보훈병원은 재활치료시설, 보장구센터, 재활체육센터 등의 시설과 장비를 구비하고 있다. 그중에서도 중앙보훈병원 재활의학센터(187 병상)와 수원의 보훈재활체육센터는 국내 최고의 시설 규모를 자랑한다.

셋째, 의료기관 이용의 접근성이 높은 편이다. 국비진료 대상자는 거주지의 위탁병원과 보훈병원을 선택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 1, 2차 진료로 구분된 다른 나라의 의료 이용 체계와 다른 점이다. 다만, 참전유공자를 비롯한 감면진료 대상자는 75세 이상에 한해 위탁병원을 이용할 수 있다. 아울러 특수질환이나 중증환자 등에 대하여는 전문위탁 진료제도를 통해 대학병원 3차 의료기관을 통해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보훈의료는 전문성과 접근성 향상이 동시에 추구되고 있다. 거주지 인근의 의료기관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면서도 보훈병원의 역할을 높이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넷째, 의료와 복지가 융합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한다. 2009년부터 시작된 보훈의료복지 통합서비스는 몇 차례의 보완과정을 거쳐 일류 서비스 브랜드로 발전하고 있다. 보훈병원은 전자의무기록시스템(Electronic Medical Records)이 가장 먼저 도입된 의료기관 중의 하나이다. 지난 10여 년간 축적된 건강정보와 2020년에 개발된 건강복지안전망(IMSAFE)은 원격진료, 유헬스(u-Health), 재가복지 등과 연계한 평생건강증진서비스로 발전하는 중요한 기반이 되고 있다.

다섯째, 인적 자원 관리(HRM)와 연구 개발(R&D)이 중요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앞서 인재상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보훈의료복지서비스의 질은 인력 자원의 헌신성과 전문성에 의해 좌우된다.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빠른 적응을 통해 경쟁력을 높이는 것도 중요하다. 이에 따라 신기술의 습득, 국내외 정보의 수집과 협력체계의 구축을 위한 인력의 고도화가 중요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공단은 2018년 중앙보훈병원에 보훈의학연구소를 발족해 의학적 연구와 함께 미래 의료 환경의 변화에 대비하고 있다. 연구 개발, 국내외 의과대학 등과의 협력관계 구축, 인재 육성 등을 위한 정부 차원의 적극적 투자가 필요한 상황이다. 일례로 미국의 보훈부는 연구 개발에 매년 수십억 달러를 투입하고 있다.

여섯째, 공공의료의 역할이 증대되고 있다. 보훈대상자에 충실한 서비스 제공을 전제로 현역군인, 경찰관, 소방관, 감염병, 재난피해자, 나아가 특화된 의료서비스를 통해 지역 주민 대상의 공공의료에도 일정 부분 기여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제 2 편

보훈공단
40년의 조망

- 제 1 장 출범·운영체계 정비(1981-2000)
- 제 2 장 성장기반 구축(2001-2010)
- 제 3 장 의료·복지체계의 확립(2011-현재)

제 1 장

출범·운영체계 정비 1981-2000

- 1 보훈공단 출범
- 2 보훈병원 시대의 개막
- 3 의료지원 확대
- 4 보훈병원 건립
- 5 양로시설 운영
- 6 수익사업 추진

보훈공단 출범

설립배경

1980년대에 이르러 국가 경제 발전과 함께 국민들의 복지욕구 증대에 따라 국가유공자의 복지수요가 점차 증가추세에 있었으며 보다 다양하고 수준 높은 복지증진사업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상이처 또는 고령화로 인한 질환에 대해 지속적인 가료와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재활지원사업의 필요성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었다. 그 당시 정부에서는 국가유공자의 복지증진을 위해 진료를 전담하는 국립원호병원과 적절한 직업을 확보하고 고용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국립직업재활원 등 2개 국가 현업기관을 운영하고 있었다. 또한 국가유공자 자녀들에게 장학금을 지원하는 재단법인 원호장학회와 국가유공자 단체 운영을 지원하는 원호단체후원회 등을 원호처에서 직접 관리하고 있었다. 이러한 사업들은 그 특성상 의학적 전문성과 양질의 서비스가 요구되었지만, 당시 정부 행정체계로는 운영의 경직성과 다양한 사업수행의 효율성이 떨어질 뿐만 아니라 적절한 소요재원확보 애로 등 여러 문제점이 제기됨에 따라 정부에서는 기존의 여러 국가유공자 복지사업 수행기관들을 흡수·통합해 보다 효율적으로 사업수행 할 수 있는 공법인체 설립을 추진하게 되었다.

보훈공단 출범

국가유공자의 진료와 중상이자에 대한 의학적·정신적 재활 및 직업재활사업을 통해 자립정착을 도모하고 복지증진에 기여할 목적으로 「한국원호복지공단법」(법률 제3419호)이 1981년 4월 특별법으로 제정되어 같은 해 11월 2일 특수 공법인체인 ‘한국원호복지공단’(현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이하 보훈공단으로 표기)이 설립되었다.

기본자산

설립 당시 기본자산은 국립원호병원 귀속재산 32억 9,000만 원, 국립직업재활원 귀속재산 16억 9,600만 원, 원호장학회 귀속재산 11억 7,600만 원, 원호단체후원회 귀속재산 8,400만 원, 전 서울목공분조합 기부 재산 32억 4,800만 원 등 총 94억 9,400만 원으로 출발했다.

주요사업

주요사업으로는 가료·보호 및 의학적·정신적 재활과 진료, 직업재활 교육, 국가유공자 단체의 운영지원, 복지시설 운영, 국가유공자 등과 그 자녀의 학비 지원, 호국정신의 함양 및 고취를 위한 사업, 그리고 상기 각 사업수행을 위한 수익사업 및 부대사업 등이 있다.

운영체제

주요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의결기구인 이사회와 집행부서를 두었다. 의결기구인 이사회는 이사장은 국가보훈처 차장이었으며, 임명직 상임이사는 국가보훈처장이 제청하고 대통령이 임명한 보훈공단 사장 및 보훈병원장 그리고 보훈공단 사장이 제청하고 국가보훈처장이 임명하는 부사장이었다. 또한 당연직 비상임이사로는 경제기획원 예산실장, 국방부 조달본부차장, 보건사회부 기획관리실장, 원호처 기획관리실장 및 조달청 차장으로 구성되었다.

집행부서는 본사에 사장, 부사장, 상무(기획, 영업, 총무)를 두고 산하기관으로 원호병원과 인천사업소, 수원사업소, 특수사업소 등 3개 사업소로 편성했다.

이와 같은 운영체제를 구성하게 된 배경은 국가로부터 위임받은 의료·복지지원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원호병원 운영에 필요한 예산이 전액 국고에서 지원되어야 했지만, 그 당시 정부재정 여건상 진료비 지원이 한정되어 부족한 자원 마련을 위해 보훈공단법 제6조에 의거 자체적으로 수익사업을 적극 수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또한 원호처(현 국가보훈처)에서 관리하던 서울목공조합과 국립직업재활원에서 운영하던 목제·철제·피복 및 인쇄공장은 중소 규모의 제조업으로서

- 1 최초 본사 건물인 대남빌딩
- 2 2012년 공단 본사 전경
- 3 2021년 현재 공단 본사 전경



수익창출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었다.

이와 같이 보훈공단은 국가로부터 위임받은 의료·복지지원 사업을 수행한다는 명분아래 출범했지만, 실질적으로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재정기반이 근본적으로 취약하여 어려운 실정에 처해 있었다. 이러한 열악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초창기에는 사장을 중심으로 모든 역량을 수익사업에 중점을 둘 수밖에 없었다. 공단은 본사에 부사장, 영업상무를 두어 신규 수익사업개발을 본격적으로 착수했으며 보훈병원은 병원장 책임 하에 관리하도록 했다.

공단 본사는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동 대남빌딩에 있었으며, 이후 1997년 동작구 신대방동 신대방빌딩으로 이전했다. 그리고 1997년 9월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동 대동빌딩을 거쳐 2013년 공공기관 지방이전 정책에 따라 강원도 원주시 혁신로 40으로 이전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보훈공단 설립 관련 중앙일보 사설(1981.6.6)

6월은 우리 민족의 한이 서린 달이다.

조국의 산하가 3년여의 전화에 휩싸인 때가 6월이었고 이때 입은 상처는 31년이 지난 지금까지 아물지 않고 있다.

6·25동란 중, 국군의 상실만도 15만 명이 넘었고 전쟁미망인은 13만여 명을 헤아린다. 이들의 유족과 독립유공자가족, 공상공무원 등 국가유공자를 합하면 도움이 필요한 이웃은 아직도 13만 가구나 된다.

이들의 넋을 달래고 유족의 생활터전을 마련해주고 병환을 돌보아 주는 일은 오늘을 사는 바로 우리의 의무다. 그들의 희생 위에 오늘이 이룩되었기 때문이다. 정부는 해마다 6월을 「원호의 달」로 정하고 범국민적인 원호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특히 올해는 물질적인 지원 못지않게 정신적인 지원에 중점을 두기로 했다.

원호대상자들이 흔히 소외감에 사로잡히는 경우가 많은 것을 생각하면 이들에 대한 정신적 지원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국민은 이들에게 언제나 감사하는 마음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혹 사회의 냉대와 무관심 속에서 고통의 나날을 보낸다면 후세의 누가 이들처럼 신명을 바칠 각오를 하겠는가. 원호의 참뜻은 원호대상자의 긍지와 자립의식을 심어주는 데 있는 만큼 원호 실무를 맡은 당국도 20여 년간의 국가원호업무가 여기에 초점을 맞추어 왔는지 반성해 볼 필요가 있다. 급한 불만 끄는 식의 보조금지급은 생활에 조그만 보탬은 될지언정 이들이 과거를 털어버리고 떳떳하게 살 수 있는 방편은 못 된다. 따라서 이들에

대한 취업알선이 자활의 첩경이며 누차 강조된 생산적인 원호인 것이다.

사회적 격동기였던 작년을 제외하고 최근 수년간 원호성금의 모금이 1백억 원을 넘어선 것은 원호에 대한 인식이 깊고 넓게 확산됐음을 의미한다. 어려운 살림이나 기업경영 속에서도 국민의 지원이 컸던 것은 아직도 우리 사회에 온정의 샘물이 마르지 않았다는 증거이기도 하다.

이와 같은 국민적 성원을 바탕으로 올해부터는 원호병원의 설립과 장기복무 제대군인의 생활안정책 그리고 한국원호복지공단의 설립이 본격적으로 추진 될 것이라고 한다. 원호업무가 과거보다 크게 강화되는 셈이다. 한국원호복지공단의 설립은 기존의 국립원호병원과 국립재활원 그리고 신축 중인 구호병원의 운영을 일원화시키는 데 대한 의료시혜와 복지혜택에 처음으로 추진된 지원사업은 이들이 20여 년간 사회에 적응이 어렵다는 이유로 하고 있는 것으로 하고 사회에는 초년병이기 때문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해마다 맞는 현충일이지만 그치지 말고 이날의 의미를 되새기면 한다.

국민적 성원을 바탕으로 올해부터는 원호병원의 설립과 장기복무 제대군인의 생활안정책 그리고 한국원호복지공단의 설립이 본격적으로 추진 될 것이라고 한다. 원호업무가 과거보다 크게 강화되는 셈이다. 한국원호복지공단의 설립은 기존의 국립원호병원과 국립재활원 그리고 신축 중인 구호병원의 운영을 일원화시키는 데 목적이 있는 만큼 상이용사에 대한 의료시혜와 복지혜택의 진일보를 기대한다.

보훈병원 시대의 개막



1 1981년 한국원호복지공단 창립 행사

2 1984년 신입사원 공채 면접 모습

국가보훈처 설립 이전에는 나라의 재정여건이 취약하여 6·25전쟁 희생자에게 상응한 보상은 물론 상이처에 대한 치료조차 제대로 실시하지 못한 실정이었다. 이 시기 상이군경에 대한 진료업무는 1953년 2월 설립된 사회부 산하 대구 제2구호병원에서 담당하다가 1957년 서울시 구로구 궁동에 200병상 규모의 구호병원을 건립해 진료업무를 담당했다.

또한 당시 전국 11개소에 정양원이 있었으나 시설장비의 부족, 열악한 환경, 운영 미숙 등으로 제대로 기능을 수행하지 못했고, 이에 상이군경에 대한 가료보호는 국립병원과 적십자병원에서 상이처 또는 재발된 상이처를 치료하는 단순한 수준에 머물렀다.

이후 1961년 군사원호청이 설립되면서 상이군경 등 국가유공자에 대한 의료보호사업은 새로운 발전의 전기를 맞이하게 되었다. 1961년 7월 29일 원호처는 궁동 소재 보건사회부 산하 구호병원을 인수해 1962년 원호병원으로 개편했고, 1969년까지 250병상 17개 진료과 규모의 국립원호병원으로 발전했다. 1974년에는 대통령훈령 제37호 「원호대상자 자립지원에 관한 지침」에 따라 종합병원으로 확대 개편되었다.

그러나 국립원호병원은 시설, 장비의 노후와 의료진 부족으로 양질의 의료를 제공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국가보훈처는 1979년 서울시 강동구 둔촌동에 현대식 종합병원건립을 추진했으며 프랑스 차관(CLB)을 도입해 최신 의료 장비를 설치하는 등 향후 보훈병원 진료체계가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한편 기존 국립병원 체제로는 예산 운영의 경직성 등으로 우수의료진 확보가 어렵고 병원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이에 1981년 11월 2일 국립병원체제에서 법인체제인 한국원호복지공단(현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을 발족해 원호병원을 산하기관으로 개편하면서 상이군경 등에 대한 양질의 의료보호와 재활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새로운 보훈병원 시대를 맞이하였다.

의료지원 확대

국비진료

국비진료의 목적은 국가를 위해 희생, 공헌한 분들 중 신체적 부상을 입은 보훈대상자의 상이처 및 질병에 대해 보훈병원 또는 위탁병원에서 진료를 실시하고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국가가 지원함으로써 이들의 건강한 생활 유지와 복지향상을 도모하는 데 있다.

국비가료 범위는 1953년 전상자 및 애국지사의 상이처에 한해 국가 부담으로 진료한 것을 시작으로 1962년 응급 및 통원가료를 실시했고, 1974년에는 상이처 외에 일반 질병에 대해서도 진료비의 60%를 감면했다. 1980년 상이 1급~2급 국가유공자에 대해 진료비 감면범위를 전 질환으로 확대한 이후, 1985년 「국가유공자 예우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어 국비가료 범위가 대폭 확대됨에 따라 국가유공상이자와 애국지사 모두에 대해 상이처 뿐만 아니라 모든 질환을 국비가료 범위에 포함시켜 국가유공자에 대한 실질적인 의료보장이 제도화되었다.

국비진료 대상자는 애국지사, 전상군경, 공상군경, 4·19혁명부상자, 공상공무원, 특별공로상이자, 6·18자유상이자, 5·18민주화운동부상자, 재해부상군경, 재해 부상공무원, 특수임무부상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고엽제후유증2세환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급기준 미달판정자(인정 질환에 한해 지원), 상이등급 기준 미달판정을 받은 전·공상 제대군인(인정 상이처에 한해 지원)이다.

1980년대 보훈병원 진료 모습



위탁진료

보훈병원과 원거리에 거주하는 대상자들에 대한 의료지원은 상대적으로 미흡한 실정이었다. 이에 보훈병원과 원거리에 거주하고 있는 의료지원 대상자의 진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거주지와 인접한 민간 의료기관과의 진료계약을 통해 위탁병원을 지정하고, 국가유공자가 의료지원 서비스를 제공 받는 제도이다. 1986년 제주특별자치도에 위탁병원을 지정한 이후 고령 및 만성질환의 증가에 따른 의료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전국 각 지역에 위탁병원을 추가 지정하고 있다. 2021년에는 위탁병원을 439개소로 확대해 근접의료 서비스를 강화했다.

감면진료

감면진료는 독립유공자 유·가족, 상이를 입지 않은 국가유공자(무공수훈자, 참전유공자 본인 등), 상이를 입은 국가유공자의 유·가족, 특수임무공로자, 5·18민주화운동부상자의 유가족, 5·18민주화운동희생자 및 유가족, 10년 이상 장기복무 제대군인 등이 보훈병원 또는 위탁병원에서 진료를 받을 경우 진료비 중 본인 부담금의 30~90%를 국가가 지원하는 제도이다.

도서·벽지 지역 감면진료

제주특별자치도와 강원도 및 기타 도서·벽지 지역 등 보훈병원과 멀리 떨어진 지역에 거주하고 있어 보훈병원의 진료를 받기 곤란한 국가보훈대상자의 진료 편의를 위해 별도로 지정한 위탁병원에서 감면진료를 실시하고 있다.

위탁병원 감면진료

2009년 7월부터 75세 이상 보상금을 수령하는 선순위 유족 1명, 참전유공자, 무공수훈자, 재일학도의용군인, 6·25전몰군경유자녀 수당 대상자 등에 대해 요양급여 진료비(약제비 제외)에 한해 60% 감면을 실시하고, 2018년부터



- 1 2014년 국방부-보훈공단 업무협약 체결
- 2 2018년 해양경찰청-보훈공단-해양경찰재향경우회 업무협약 체결
- 3 2020년 소방공무원 의료지원 협약 체결
- 4 2021년 교정본부-보훈공단 업무협약 체결

75세 이상 참전유공자의 요양급여 진료비(약제비 제외)는 60%에서 90%로 감면율을 확대해 지원하고 있다.

국가사회기여자 감면진료

2012년 현직 소방공무원, 병역명문가 병역이행자, 해양경찰청 소속 직원 의료지원 협약 체결, 2014년 현역 군장병, 2016년 경찰공무원, 2018년 퇴직 경찰공무원(20년 이상 근속), 퇴직 해양경찰공무원(20년 이상 근속), 2020년 퇴직 소방공무원(20년 이상 근속), 2021년 전직(20년 이상 근속), 현직 교정 공무원 의료지원 협약을 체결해 보훈병원 진료 시 본인부담금액의 30% 감면 혜택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PTSD(외상후스트레스증후군) 검사, 치료 및 예방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으며, 이후 진료실적이 점진적으로 증가해 2020년 기준, 국가사회기여자 5,000여 명에게 의료 혜택을 지원함으로써 공공의료기관으로서 역할을 제고했다.

보훈병원 건립

중앙보훈병원

보훈병원은 1981년 보훈공단 설립 이후 250병상 규모의 원호병원에서 출발했다. 이후 정부의 보훈대상자 의료지원 범위 확대 및 고령화에 따른 복합·만성질환으로 의료수요가 증가하면서 의료시설을 단계적으로 확충했다.

국가보훈처에서 추진한 둔촌동 신축병원은 1979년 3월 공사를 착공해 1983년 12월 준공되었다. 본관동은 부지 68,174㎡를 매입해 소요예산 163억 원(공사비 120억 원, 의료장비 43억 원)을 투입, 지하 1층 지상 7층, 440병상 규모로 준공하였으며 이어 외래병동 및 신검장 등도 증축했다. 부족한 병상을 확보하기 위해 1991년 330병상을 추가로 증축해 770병상의 규모를 갖추었고 1996년 의료지원시설인 별관동, 1998년 재활병동 73병상을 증축했다. 이로써 보훈병원은 800병상 규모의 대형병원으로 발전했다.

부산보훈병원

1983년 부산시 동구 범일동 소재 구 철도병원을 인수하여 보수공사 후, 1984년 4월 지하 1층 지상 4층, 150병상 규모로 출발했다.

기존 건물이 노후한 데다 철도 변에 위치해 소음 공해로 병원시설로는 적합하지



광주보훈병원

않아 1992년 사상구 주례동 6만 6,764㎡ 부지에 151억 원을 투입해 연면적 1만 4,572㎡, 240병상 규모의 신축병원으로 이전했다.

국가유공자 등 진료대상 범위 확대와 고령화로 장기입원 환자 및 정신과 환자의 의료수요가 증가하여 1994년 정신과 병동 40병상을 포함한 100병상을 증축하여 340병상 규모로 확장했다.

1987년 국가보훈처에서 부지를 제공하고 보훈공단이 건축비 44억 원을 투입해 광주시 서구 주월동에 지하 1층 지상 6층, 120병상 규모의 광주보훈병원을 건립했다. 이후 호남권 국가유공자 의료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1990년 80병상을 증축하고, 1991년 100병상을 추가로 증축해 지방보훈병원 최초로 300병상 규모로 확장되었다.

대구보훈병원

1991년 대구시로부터 건립부지(31,346㎡)를 제공 받아 보훈공단에서 1991년부터 1993년까지 220억 원을 투입해 지하 1층 지상 6층, 300병상 규모의 대구보훈병원을 건립했다.

대전보훈병원

1997년 대전·충청지역 거주자의 진료편의 도모와 전국적인 보훈의료망 구축을 위해 대전시 대덕구 신탄진동 113,449㎡ 부지에 지하 1층 지상 5층, 300병상 규모의 대전보훈병원을 건립했다.



- 1 중앙보훈병원
- 2 부산보훈병원
- 3 광주보훈병원
- 4 대구보훈병원
- 5 대전보훈병원

양로시설 운영

1963년 국가보훈처는 무의탁 고령유족과 유자녀의 생활 보호를 위해 종합 원호원을 설립하여 이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터전을 마련했다.

종합원호원은 1969년 국립원호원으로, 1985년에는 국립보훈원으로, 1993년에는 보훈연수원과 보훈원으로 명칭과 업무를 분리해, 보훈원의 양로·양육보호 업무를 보훈공단에 위탁했다. 이는 보훈공단의 설립목적인 국가 유공자의 복지지원 사업을 본격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시발점이 되었다.

양로보호는 무의탁 고령 보훈대상자 본인 및 유족을 보호하여 여생을 편안히 보내도록 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 1993년 국가보훈처에서 인수한 보훈원 시설이 낙후되고 열악하여 1997년 보훈기금을 재원으로 편의시설 및 의료시설 등 다양한 시설을 갖춘 현대식 건물을 신축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또한, 고령화된 국가유공자들의 복지 욕구 해소를 위해 1996년에는 부양 의무자가 없는 무주택자들이 거주할 수 있는 주거용 보훈복지타운을 건립 했으며, 미망인 등 보훈가족의 여가 선용을 위한 보훈휴양원을 충북 충주시에 건립해 운영하고 있다.

수익사업 추진

보훈공단의 설립목적은 국가유공자 등의 진료와 중상이자에 대한 의학적·정신적 재활 및 직업재활을 행하여 자립정착을 도모하고, 복지증진에 기여하는 데 있다.

국가로부터 위임받은 목적사업(의료·복지)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예산이 전액 국고에서 지원되어야 했지만 그 당시 정부재정 여건상 지원이 한정되어 부족한 자원 마련 일환으로 보훈공단법 제6조에 의거 수익사업을 적극 수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또한, 보훈공단 설립 시 국가보훈처로부터 인수한 서울목공조합과 국립직업재활원에서 운영하던 목제·철제·피복 및 인쇄공장은 중소 규모의 제조업으로서 수익창출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었다. 따라서 공단은 이를 스스로 극복하기 위해 모든 역량을 수익원 창출에 중점을 둘 수밖에 없는 운영체제로 출발했다.

수익사업은 크게 제조사업, 유통사업, 위임사업, 복권사업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제조사업은 건제사업(목제, 철제), 합성수지사업, 봉제사업으로 구성 되었으며 각 사업소에서 생산된 제품은 대부분 국가기관, 정부투자기관 등에 납품했다.

유통사업의 세관위탁물품판매사업은 각종 관세범칙물품 및 국가귀속물품을 각 세관으로부터 위탁받아 판매하는 사업이며, 미군면세품 양수판매사업은 한·미 행정협정에 의해 주한미군 및 그 가족들이 귀국할 때 사용하던 가구류, 가전제품 및 차량 등을 양수받아 판매하는 사업이다.

위임사업은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등에서 발생하는 불용품불하사업, 인쇄 등 제조납품사업, 용역사업으로 보훈공단 설립 시 원호단체후원회로부터 이 사업을 인수, 1984년 보훈공단의 출자회사인 (주) 창훈실업에서 운영했다.

이와 같이 수익사업은 설립 초기에는 사업 규모의 영세성, 사업여건의 어려움 등으로 사업실적이 저조했으나 신규사업개발, 경영개선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1990년에는 61억 원의 사업이익을 이루었다.

목제사업

1990년대에 이르러 초기의 사업여건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점차 신장해 목적사업인 의료·복지사업의 성장기반 구축에 기여했으나 주력사업인 제조사업의 경우 공기관으로서 운영의 한계성과 중소기업 수준의 규모로는 더 이상의 수익 창출이 어려운 실정이었으며 1990년대 말에는 IMF 경제체제 여파로 결정적인 시련에 봉착하게 되었다. 이에 대응하여 각 사업별로 적극적인 수주물량확보, 신제품개발, 생산공정개선, 구조조정 등을 통해 사업성과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고자 노력했다.

유통사업은 1994년 관세청 위탁물품을 전량 인수함에 따라 사업 규모가 확장되었고, 1997년 주한외교관을 대상으로 외교관면세점 판매사업을 신규사업으로 착수하는 등 여건변화에 대처했다. 또한, 국가보훈처의 보훈기금 증식사업으로 제2 전화사업인 하나로통신투자와 보훈공단의 출자회사인 종합건설업체 (주)한성 운영 등 다양한 신규사업을 추진했으나 소기의 성과를 이루지 못하고 마무리되었다.

이와 같이 수익사업은 1981년 보훈공단 설립 이후 2000년대 이르기까지 중·소 규모의 기존 사업 외에 신규수익사업 개발을 적극 추진하여 의료·복지 사업의 성장기반 조성에 일익을 담당했으나 사업구조 취약성 및 대내외 사업여건 등의 변화로 한계점에 도달했다.

목제사업은 보훈공단 설립 초기 국가보훈처 귀속재산으로 관리해 오던 인천시 북구 십정동 소재부지 15,672㎡ 건물 4,710㎡ 규모의 인천사업소로 출발하여 대한주택공사에서 건설하는 아파트용 목제창호류 등을 주로 생산했다. 그러나 당시에는 설비와 장비가 열악하고 생산능력이 저조해 납품처도 대한주택공사로 제한적이었다.

이에 신규시설과 장비를 투자해 공정을 개선하고 생산능력을 대폭 향상시켜 1985년부터는 수주물량증가로 사업이 호전되었다. 또한 육군본부 및 군수 본부에 군인아파트 건축용 목제창호류와 탄약상자를 납품하여 사업기반을 구축했다. 1988년 반월공단으로 생산공장을 신축 이전 후, 공장 현대화계획에 따라 생산능력이 더욱 향상되었으며 1990년 신도시 아파트 건설 붐이 일어나 대한주택공사와 서울도시공사로부터 사업 물량을 대량 수주하여 획기적인 사업 신장을 이루었으나 1990년대 말 IMF 경제체제로 인해 국내 건설 경기가 침체되기 시작되면서 사업운영에 어려움을 겪었다.

철제사업

철제사업은 국가보훈처 산하기관인 국립직업재활원에서 운영하던 목제, 철제, 피복 및 인쇄공장의 국유재산을 보훈공단이 인수하면서 대지 29,608㎡ 건물 6,029㎡ 규모의 수원사업소로 출발했다.

철제사업은 주거래처인 주택공사에 아파트 건축 기자재인 세대 현관문, 틀, 발코니 난간 등을 생산해 납품했는데 1988년 반월공단으로 신축 이전한 후에는 대량 생산체제를 갖추게 되어 주문량 증가와 스테인레스 난간 수배전반 등 신제품 개발을 통해 그동안의 침체기를 벗어나 성장세로 돌아설 수 있었다. 이후 1990년 신도시 아파트 건설 붐이 일어나 목제사업과 함께 사업 시작 이래 최대의 성과를 이루었다.

또한 KS공업규격표시 획득과 수배제품 전반에 대해 ISO 9002 인증을 획득하는 등 생산성 향상 및 생산제품의 고급화를 이루었으나 IMF 경기침체의 여파 등 사업여건 악화에 따른 적자누적으로 철제사업은 2006년 조기에 마무리되었다.

봉제사업

보훈공단은 1982년 대한상이군경회에서 운영하던 러닝셔츠 제조공장인 서울 편직분조합을 매입해 봉제사업을 착수했다.

1985년 국방부가 장병들의 복지향상의 일환으로 러닝셔츠 주문량을 확대함에 따라 생산능력과 품질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지속적인 제조설비의 현대화를 통해 군수본부를 비롯한 납품처로부터 품질의 우수성을 인정받았다.

1995년부터는 주 납품처인 국방부에서 러닝셔츠 고급화에 따른 주문량이 대폭 확대됨에 따라 신제품 생산을 위해 새로운 공장건물을 준공하고 1996년 신제품(Silket 제품)을 생산해 사업실적이 크게 신장되었다.

유통사업

보훈공단은 원호단체후원회에서 운영하고 있던 미군면세품양수판매사업을 1982년 인수했다. 한·미 행정협정에 의거 주한미군 및 그 가족이 본국에 귀국할 때 그들이 사용하던 개인용품을 구입해 통관조치 후 적정이윤을 부가해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사업으로 주요 취급품목은 가전제품, 가구류 등이다. 같은 해 보훈공단은 정부의 사치성 외래품 유통개선 대책에 따라 관세청으로부터 세관물품수탁판매기관으로 지정받아 세관물품판매사업소를 신설하고 서울 강남구 판매장에서 식료품, 화장품, 가정용기기 등 72개 품목을 판매하기 시작했다.

1983년에는 세관물품판매사업소와 SOFA 면세품양수영업소를 통합해 관세품 판매사업소로 명칭을 변경했다.

1984년 생활용품에 국한된 미군면세품양수판매사업은 SOFA(The ROK-US Agreement on Status of Forces in Korea)면세차량 양도에 따른 유통질서 확립과 외화낭비 방지를 위해 시작됐다. 보훈공단은 관세청으로부터 SOFA 면세차량 양수업체(외제 중고차량 판매)로 지정받아 미8군 내에 판매사무실을 운영했으며, 또한 정부기관, 미8군사령부, 한국담배인삼공사의 지원을 받아 미군부대에 근무하는 미국인 및 종사자를 대상으로 국산 면세담배를 판매하기도 했다.

이어서 신규판매사업으로 국산품 할인매장을 개설해 가정에서 주로 사용하는 생활용품, 가전제품 등을 판매했다.

한편 세관물품사업과 면세품양수판매를 담당하던 관세품판매사업소는 1994년 유통사업단으로 개편됐다. 이후 사업구조 개편 일환으로 미군면세 양수품판매사업, 외제 중고차량 판매사업과 외국군용 담배사업이 같은해 대한민국상이군경회로 이관됨에 따라 사업이 종료되었다.

이후 사업수익 감소에 대응해 1995년 관우회에서 운영하던 성동창고를 53억 원에 인수해 보세장치장 사업에 참여했으나 관세법 관련 규정 변경 등 사업여건의 변화로 조기 종료했다. 한편 2001년에는 보세장치장 부지에 아파트를 건립하여 수익을 창출하는 등 유통사업은 부침을 거듭하면서 유지되어왔다.

위임사업

위임사업은 국가기관, 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을 주 거래처로 하는 불용품 불하사업, 제조 납품사업, 용역사업, 골재 채취사업 등을 보훈공단 명의로 수주·계약하고 국가유공자가 경영하는 전문업체가 이를 대행해 시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1984년 5월까지는 보훈공단에서 직접 수행했으나 원활한 사업관리를 위해 자본금 5,500만 원을 출자해 (주)창훈실업을 설립·운영했다. 그러나 사업관리의 한계로 2000년 대한민국상이군경회에 이관했다.

보훈복지조합

1963년 7월 제정된 「원호대상자 직업재활법」에 의거 국가유공자의 직업 재활과 생활안정을 위해 원호대상자정착 직업재활조합이 설립되어 국립직업 재활원에서 관장하던 19개 분조합이 보훈공단 설립 시 이관되었다.

사업지원은 보훈공단이 수주한 생산물량 중에서 일부를 가공 의뢰해 생산, 납품토록 하여 재활분조합이 운영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지원했으나 제반 사업 여건이 점차 악화되어 2013년 신생복지인쇄조합을 마지막으로 모두 해산되었다.

합성수지사업

보훈공단은 목제 및 철제사업의 수익금만으로는 목적사업을 위한 재원조달에 한계가 있어 신규 제조사업으로 1982년 합성수지사업소를 개설했다. 생산제품은 비닐하우스에 사용되는 PE(Polyethylene)필름과 추곡수매용 PP (Polypropylene)포대로 농협 및 플라스틱조합 등 공공기관이 주요 납품처였다. KS자격을 획득해 규격화된 제품생산과 품질관리를 선도해 1980년대 중반에 이르러 제품의 우수성을 대내외에서 인정받았으며 특수필름 및 농업용 필름의 대명사인 테크롱필름과 고가의 EVA필름을 판매하면서 고부가가치 시설원에 농업시장에 진출했다. 또한 한국통신공사의 PVC 신규사업으로 새로운 이익이 발생하는 등 1990년대 중반까지 사업안정기에 접어들었으나 관용 물량 수급 축소, 제품 가격 하락 등의 대내외적인 요인으로 2002년 사업을 종료했다. 이로써 1982년 설립되어 수익사업의 한 축을 담당했던 합성수지사업소는 20년 만에 정리되었다.

보훈기금 증식사업

국가보훈처에서 관장하는 보훈기금의 근간인 보훈성금이 정부의 준조세 성격의 성금 폐지 방침에 따른 국가보훈처의 보훈기금 증식 계획에 따라 1991년 「보훈공단법」이 개정되었다. 이에 따라 국가보훈처장이 위탁하는 보훈기금증식사업을 보훈공단이 수행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이에 보훈공단은 그 당시 서울시의 절대적인 주택공급 부족에 대응하여 2개 지역의 부지를 매입하고 주택공급사업을 추진해 보훈기금증식사업에 기여했다.

출자회사 (주)한성 관리

보훈공단은 1983년 1월 건설업체인 (주)한성 주식 전량을 대한주택공사로부터 89억 9,800만 원에 매입했다. 당시 보훈공단의 수익사업은 중소기업들과의 경합이 심한 업종들이라 안정적인 재원조달과 수익성이 보장되는 대형 신규사업개발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공단이 조립주택 건설사업으로 축적된 주택건설기술을 토대로 (주)한성을 종합건설회사로 육성할 경우 수익성이 기대되고, 목제·철제사업을 연계할 수



공단 인수 당시의 (주)한성

있어 제조사업이 성장할 수 있다는 장점을 고려했다.

한편 대한주택공사는 한성이 자립할 때까지 사업물량을 우선 배정하고 수익계약을 할 수 있도록 회계 규정을 개정했으며 보훈공단은 (주)한성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주요 사항을 결정할 때는 보훈공단의 지도와 감독을 받도록 하는 내용의 관리 약정을 체결하고, 보훈공단 사장을 한성의 당연직 이사장으로 선임했다.

보훈공단의 자회사가 된 한성은 대한주택공사의 발주물량을 지속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기존 저층의 PC주택(시멘트보드를 활용한 조립주택)에서 고층화를 추진하고 다양한 PC부재를 개발해 수주처의 다변화를 모색했으며 자체적으로 건설사업을 적극 추진하기 위해 전국 각지에 임대주택 건설과 상가 분양, 자체 분양아파트 건설사업에 참여해 대한주택공사에 의존하던 사업구조가 개선되는 전기를 마련했다.

종합건설업체로서의 면모를 갖춘 (주)한성은 1991년 사업용 재산 재평가로 부채 비율이 대폭 감소되어 재무구조가 크게 개선되었다. 이로 인해 은행차입이 용이해졌고 건설도급순위한도액 산정에도 유리한 적용을 받게 되면서 향후 대형종합건설회사로서의 새로운 도약을 기약할 수 있게 되었다.

이와 같이 (주)한성은 1983년부터 1994년까지 145억 원의 보훈기금을 조성해 보훈공단의 경영수지 개선에 기여했다. 그러나 90년대 중반 이후 1,100억 원을 투입한 아파트 부지는 건설경기 침체로 600억 원의 자금이 사장되었고 425억 원의 사업비를 투자한 아산 PC공장의 실적이 극히 저조하여 경영수지가 악화되기 시작했다.

이로 인해 누적된 적자는 1,418억 원, 금융기관 차입금은 1,960억 원에 달했으며 57억 원의 자본이 잠식된 상태에 이르러 1997년 부도가 발생하여 1998년 12월 16일 법정관리에 들어갔다.

이후 (주)서희건설이 인수업체로 결정되어 1999년 12월 4일 주식 10만 5,500주를 10억 원에 매각함으로써 (주)한성은 1983년 보훈공단의 자회사로 인수된 후 16년 만에 보훈공단에서 분리되었다.

하나로통신 사업

보훈공단에서는 1997년 보훈기금 증식 및 수익증대사업의 일환으로 하나로통신 주식에 자금을 투자하고 관련 부대사업 참여를 추진했다. 하나로통신 전체 주식의 3%에 해당하는 주식을 223억 4,400만 원에 매입했으며,

부대사업으로는 통신보호관(FC관) 생산협력사업과 광가입자망(FTTO/C) 장비 제조사업을 부산의용춘과 협력사업으로 추진함과 동시에 시내전화 유치사업 등을 추진했다.

또한 1999년 추가로 주식을 매입해 총 369억 900만 원을 투자했으나, 하나로통신 시내전화 판매사업의 착수지연과 한국통신의 신기술 도입 영향으로 향후 사업전망이 불투명했으며, 하나로통신 부대사업도 수익 창출에 한계에 도달했다. 이와 같은 여건변화로 보훈공단은 재무상태가 악화됨에 따라 2003년까지 보유주식을 전량 매각했다.

청도 전통소싸움 사업

신규 수익사업을 모색하던 공단은 청도 전통소싸움 민간 사업 운영법인체인(주)한국우사회 주주가 되어 부대사업에 참여하기로 했다. 공단은 (주)한국우사회 주식에 24억 2,900만 원을 투자했으나 (주)한국우사회의 경영 정상화가 불투명하여 보유주식을 매각하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주식매각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무역사업

항암 버섯인 아가리쿠스(Agaricus) 분말을 원료로 수입해 국산 한약 재료를 첨가, 가공한 후 건강식품 등의 재료로 수출하는 것이 사업 모델이었다.

보훈공단은 당시 자체 복권사업의 종료와, 의료·복지에 소요되는 비용 재원 마련을 위해 2004년 아가리쿠스 무역사업에 151억여 원을 투자했으나 이듬해인 2005년 보훈공단의 국내 에이전트사였던 (주)나우월드의 관세법 위반 사기 사건으로 판명되어 무역사업은 중단되었다.

이로 인해 투자금 중 73억 5,600만 원의 손실이 불가피하게 되었고, 당시 이사장과 관련 임직원들이 사법처리 및 해임되는 상황이 발생했다. 이후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통해 투자금을 대부분 회수했으나 7억 원의 손실이 발생했다.

제 2 장

성장기반 구축 2001-2010

- 1 경영시스템 개편
- 2 국비진료비 정산제
- 3 보훈병원 전산화
- 4 의료물류 지원
- 5 요양시설 건립
- 6 수익사업 성과

경영시스템 개편

보훈공단은 1980년대 출범 초창기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운영체계를 정비 하면서 단계적으로 의료사업과 복지증진사업 중심체제로 전환했으며, 이를 기반으로 2000년대에는 보훈공단 설립의 궁극적 목표인 국가유공자 복지증진사업을 발전시킬 수 있는 기반을 구축했다.

2001년 책임경영체제 확립과 핵심사업을 체계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한국보훈복지공단법」이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으로 개정됨에 따라 이에 맞추어 이사회 기능과 조직체계를 개편했다. 또한 2007년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기본법」시행과 2008년 정부의 공공기관 선진화 정책이 시행됨에 따라 보훈공단법 및 이사회, 조직운영체계 등 경영시스템을 개편했다.

보훈공단법 개정

의료사업기능 강화 및 상임이사장 체제로 전환

2001년 1월 16일 보훈공단법이 「한국보훈복지공단법」에서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으로 개정되었다. 주요 내용은 집행부서(사장)와 의결기구(당연직 이사장 국가보훈처 차장 겸직)로 이원화된 조직체계의 일원화를 통해 책임 경영체제를 강화하고 주된 기능인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의료사업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보훈공단의 명칭을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으로 변경한 것이다. 또 서울보훈병원장이 관장하던 지방보훈병원을 보훈공단이 직접 관장하여 각 보훈병원별 책임경영체제로 보훈공단법을 개정했다.

국가보훈처 차장이 겸직하던 보훈공단 이사장을 국가보훈처장 제청으로 대통령 임명하도록 하고 사장제를 폐지했다. 보훈공단 이사장이 공단을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하는 상임이사장제를 도입해 자율·책임경영을 강화했으며 4인 이내 상임이사를 두고 업무를 분장했다.

또한 보훈공단의 사업범위에 복권발행 판매 사업을 추가함으로써 의료·복지사업의 소요재원을 원활하게 조달할 수 있게 되었다.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령에 의한 제도 보완

「공공기관운영에 관한 기본법」이 공포됨에 따라 2008년 2월 19일 보훈공단법이 개정되었다. 정부는 2000년대 이후 공공기관에 대한 경영 효율성, 투명성 제고 및 대국민 서비스의 질적 향상 등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증대됨에 따라 공공기관 운영에 대해 기본법을 제정했다. 이에 보훈공단은 이사회, 임원 등에 관한 사항을 정비했다.

첫째, 보훈공단의 이사장, 이사 및 감사는 임원추천위원회를 거치도록 하여 임용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고 이사와 감사의 임기를 각각 2년으로 하되 직무수행결과에 따라 1년 단위로 연임할 수 있도록 하여 책임경영을 강화했다. 둘째, 감사 임명권을 이사장 제청으로 국가보훈처장 임명에서 기획재정부 장관 제청으로 대통령 임명으로 변경해 감사의 독립성을 보장했다.

셋째, 이사회 회의는 출석이사 과반수 찬성에서 재적이사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는 등 이사회 의결 및 심의사항을 보완 정비했다.

이사회 개편

최고 의결기구인 이사회를 대표하는 이사장을 국가보훈처 차장이 당연직으로 겸임함에 따라 공공기관의 독립성, 자율 및 책임경영 강화정책에 부합되지 않는다는 문제가 있었다. 공단은 이사장 중심의 책임경영체제 정착을 위해 2001년 1월 16일 사장제를 폐지하고 이사장이 집행조직과 이사회를 대표하도록 이사회를 개편했다.

- 국가보훈처 차장이 당연직으로 겸직하던 이사장을 국가보훈처장 제청, 대통령이 임명하는 상임이사장제로 전환하고 이사장이 보훈공단을 대표하도록 했다.

- 상근이사 역할을 수행하던 사장, 부사장, 보훈병원장을 폐지하고, 4인 이내 상임이사를 이사장 제청으로 국가보훈처장이 임명토록 했다.

- 상임이사는 사업별로 두어 상임이사 책임경영체제를 강화했다.

2006년 11월 29일 이사회에서는 상임이사장이 집행조직 및 이사회를 모두 대표함에 따라 상임이사장에 대한 대표권 제한 필요성이 제기되어 외부 민간인 비상임이사를 2명에서 3명으로 확대해 이사회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외부민간인 비상임이사 임명을 이사장 제청 없이 국가보훈처장이 직접 임명하도록 임명절차를 제도화함으로써 보훈공단 지배구조를 확립하는 방향으로 이사회를 개편했다.

조직개편

기획과 관리를 구분하여 운영하는 상임이사제가 부서 간 업무 구분이 불분명하여 2007년 조직체계를 기획, 의료사업, 복지사업, 수익사업 등 사업단위로 구분하고 업무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본부장제로 전환했다. 상임이사가 본부장이 되었다.

2009년 정부의 공공기관 경영합리화 정책에 따라 조직과 인력을 감축하게 됨에 따라 수익사업본부장을 폐지하고 복지사업본부장이 수익사업 분야를 통합관리하는 것으로 이사진을 개편했다.

현 보훈공단 이사장제에 부합하도록 2012년에 본부기구 및 본부장 명칭을 종전과 같이 이사로 개편했다. 또한 보훈공단의 미션, 비전과 중장기 경영전략에 부합하는 능동적이고 효율적인 조직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유사업무 통합 후, 기능별로 재설계해 본사의 기획 기능 강화와 의료·복지통합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스템으로 개편했다. 이에 본사는 사업별로 상임이사를 기능중심으로 전환해 기획·의료·복지이사를 기획·관리·사업이사로 개편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보훈공단 조직은 국가유공자의 다양한 서비스 요구와 수요 증가로 인한 지속적인 시설인프라 확충과정에 맞춰 확대 또는 새롭게 개편했다. 또한 정부의 공공기관 경영효율화 방침에 따라 유사기능 통폐합, 감량경영 등을 통해 조직을 재조정하는 등 합리적인 운영체제를 구축했다.

- 2001년 보훈공단법이 집행부서와 의결기구의 이원화된 조직체계를 일원화해 책임경영체제를 강화하고,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의료사업 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정 시행됨에 따라 조직체계를 상임이사장 체제로 전환하고 보훈병원별 책임경영체제로 조직기능을 조정했다. 기존 사장, 부사장, 보훈병원장을 폐지하고 이사장제로 전환해 상임이사로 기획이사, 의료이사, 복지이사, 사업이사를 신설했으며, 본사의 명칭을 본부로 변경했다. 그리고 4개 지방보훈병원을 관장하던 한국보훈병원장을 지방보훈병원장과 같은 직위로 조정해 이사장이 5개 보훈병원을 직접 관장토록 하여, 각 보훈병원별 책임경영체제로 개편했다.

- 2006년 본부의 의료관리 기능을 통합·강화하고, 복지시설 확충 및 합리적 운영과 수익사업 규모의 경량화를 위해 조직을 개편했다. 의료사업을 총괄하는 본부로서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이사체계를 기획이사·의료이사에서 기획이사·관리이사로 기능별 개편했다.

- 2007년 경영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사업별 전문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상임이사제 체제를 사업별 본부장제로 전환하고 업무효율 중심으로 조직을 통폐합 조정했다. 이에 따라 기획·관리·복지·사업이사를 기획·의료사업·복지사업·수익사업 본부장으로 변경했다.
- 2009년 정부의 공공기관 선진화 추진에 따라 수익사업본부를 폐지하고 경영지원·의료·복지사업본부로 개편하였다. 또한 정부의 경영효율화 정책에 부응하고 조직운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상위직 정원을 감축하고 본사 계층구조를 축소하는 등 조직구조를 재설계 개편했다.
- 2012년 이후에는 본부장제에서 사업별로 기획·의료·복지이사로 전환 하였으나, 기능중심의 기획·관리·사업이사로 개편됨에 따라 각 부서별 업무기능이 조정되었으며 또한 의료시설확충, 진료기능 강화 및 의료서비스 개선과 요양시설 확대 등 대내외 여건변화에 따라 조직체계를 개편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국비진료비 정산제

국비진료에는 보훈병원 진료와 타 의료시설에서의 전문위탁진료, 응급 및 통원진료가 있으며 이에 소요되는 진료비를 국가가 지원하고 있다.

국가보훈처는 1989년부터 국비가료 대상자에 대한 진료비 전액을 국가가 부담하고, 보훈공단의 수익금은 전액 병원시설 확충에 투입하도록 하는 운영지침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국비진료예산은 매년 국가보훈처의 세출예산 범위 내에서 책정했으나, 국비진료대상자의 가료범위 확대와 고령화에 따른 만성·복합질환으로 의료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당초 책정된 진료비 예산보다 초과진료를 할 수밖에 없었다.

2006년 감사원은 보훈병원 운영개선 방안으로 국비진료비의 적정의료수가를 책정하고 진료비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심사를 거친 후 보전받도록 하는 국비진료비 정산제 도입을 제기했다.

이에 따라 2008년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연구용역 결과에 의거 새로이 국비의료수가를 제정했으며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심사결과에 따라 진료비 정산을 실시했다. 이와 같이 진료비 정산제를 실시함에 따라 진료의 오·남용 관리 및 적정 진료수가 운영으로 국비진료비 예산이 보다 합리적이고 투명하게 쓰이게 되었고, 경영개선 등 효율적인 운영체계가 정착되었다.

보훈병원 전산화

보훈병원 전산화는 1989년 서울·광주보훈병원 PM/PA(원무관리시스템) 구축 이후 본격화하기 시작해 1998년 OCS(처방전달시스템), 2003년 PACS(의료영상시스템), 2008년 통합EMR(전자의무기록) 시스템 등으로 이어졌다. 첨단 전산화를 공공의료기관에서 선도적으로 구축하여 정보화 역량을 강화한 것이다.

1998년

OCS(Order Communication System 처방전달시스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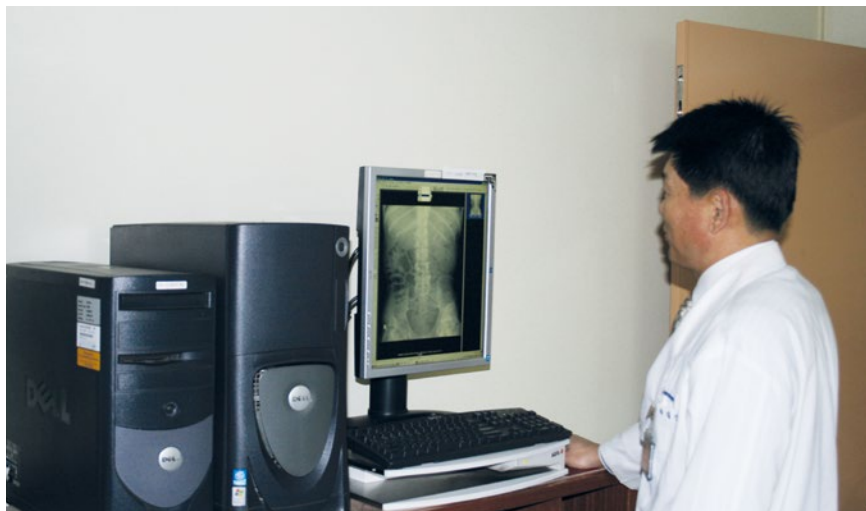
환자의 진료정보 및 각종 의학정보를 보관한 데이터베이스와 환자를 진단한 처방 내역을 통신망을 통해 해당 진료부서로 전달해 주는 OCS는 1998년 서울보훈병원을 시작으로 4개 지방보훈병원으로 확산되었다. OCS 도입으로 처방을 전산화해 처리시간 단축과 진료의 질을 높일 수 있었으며 2004년에는 병원별로 상이했던 프로그램과 데이터 구조를 표준화해 통합 OCS를 구축했다.

2003년

PACS

(Picture Archiving Communication System 의료영상전송시스템)

PACS는 의사가 환자 질환에 대해 신속하고 정확하게 진단할 수 있어서



PACS(의료영상전달시스템)
가동

2008년

의료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기할 수 있다. PACS는 의료영상, 특히 방사선학적 진단 영상들을 디지털 형태로 획득한 후, 고속의 통신망(Network)을 통해 전송하여 디지털 정보 형태로 의료영상을 저장하며, 영상조회장치를 통해 환자를 진료하는 포괄적인 디지털 영상관리 및 전송시스템을 의미한다. 각종 영상을 CR(Computed Radiography)을 통해 디지털화하며, 하드디스크와 같은 저장매체에 저장, 통신망을 통해 각 단말기로 전송하면 진찰실, 병동 등에서 실시간으로 환자의 영상 수집이 가능하다.

통합 EMR(Electronic Medical Record 전자의무기록) 시스템

공단은 2008년 중앙보훈병원을 시작으로 보훈병원 통합 EMR시스템을 가동했으며, 2009년부터는 부산, 광주, 대구, 대전보훈병원에 도입했다. 2018년 인천보훈병원이 가동됨에 따라 전국 6개 보훈병원이 통합 EMR시스템을 사용하게 되어 국가유공자는 물론 일반 환자에게 최상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게 되었다. 이는 신개념 종합 헬스케어서비스인 Bohun-THIS와 맞물려 정부의 보건의료사업 선진화 전략에도 발전적으로 접근할 수 있게 되었다.



EMR 시스템 메인 화면

의료물류 지원

보훈병원 의약품, 의료장비, 진료재료는 그간 병원별로 구매해 조달해 왔으나, 병원 규모가 확대되어 사용물량이 대폭 증가하고 병원별 구매에 따른 사용품목, 구입가격의 격차 및 투명성 확보와 등 업무수행의 전문화가 필요해졌다. 공단은 2001년부터 공공의료기관으로서 선도적으로 물류관리시스템을 개선했다. 종전의 각 병원별 구매방법에서 본사의 중앙구매방법으로 변경함으로써 사용물품의 표준화와 대량구매에 따른 예산 절감 및 구매행정의 집중·전문화로 경영개선 효과를 거둘 수 있게 되었다.

또한, 2019년부터 최저가 낙찰제에서 납품실적·기술능력·경영상태 등 계약 이행능력과 가격을 종합적으로 심사해 낙찰자를 결정하는 적격심사 낙찰제를 도입함으로써 계약이행의 적정성 확보 및 최저가 투찰을 방지해 동반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 의약품 중앙구매는 2020년부터 실적제한 없는 공개경쟁 입찰로 신생·중소기업의 진입장벽을 완화하는 등 공공의료기관으로서 모범적인 물류관리 및 상생문화 정착에 기여했다.

요양시설 건립



- 1 가정회상프로그램 '보훈빌리지'
- 2 재활치료실
- 3 통합인지프로그램
- 4 청춘필라테스 프로그램

요양보호는 2000년대에 이르러 고령 국가유공자에 대한 노후 복지지원 제도의 필요성이 제기되며 본격 대두되었다. 치매·중풍 등 장기요양 보호 수요는 증가하고 있는 반면에 핵가족화로 노인 부양기능은 크게 약화됨에 따라 수발 장애를 겪고 있는 고령 국가유공자의 간병·간호 지원서비스 등 복지시책을 강화하기 위해 국가보훈처는 2005년 국가유공자 노후복지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2006년부터 요양시설 건립을 추진했다. 같은 해 3월 국가보훈처와 보훈공단이 위탁 약정을 체결함에 따라 보훈공단에서 요양시설 업무를 수행하게 되었다.

보훈공단은 2006년 5월부터 국가유공자 특성에 맞는 보훈요양시설 건립을 추진하여 2008년 수원·광주, 2009년 김해, 2011년 대구, 2012년 대전, 2015년 남양주, 2020년 원주요양원을 개원했으며, 이어서 2022년 전주보훈요양원을 개원할 예정이다.

요양원은 일광욕실, 재활치료실, 요양실, 프로그램실, 치유정원, 중앙정원과 자동승강욕조실 등이 완비된 최신시설로서 '나라사랑, 가족사랑, 자연사랑, 지역사랑'을 콘셉트로 한 인테리어 환경을 갖추고, 입소하는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들에게 정성을 다해 편안한 요양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또한 생활요가, 발마사지, 침·뜸 서비스, 종이접기, 꽃북주머니 만들기, 태극기 그리기 등의 특별프로그램도 실시하고 있으며, 입소자들의 건강을 위해 물리치료, 작업치료, 운동치료, 건강체조와 약물투약, 건강상담, 혈압체크, 촉탁의 진료, 이·미용 등의 보건의료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정서 기능 회복을 위한 미술치료·원예치료·레크리에이션·노래교실 등의 활동 프로그램은 물론 어린이집 운영, 자원봉사자와 정기·특별·결연후원 등으로 지역사회와 함께 어우러진 프로그램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또한 2010년부터는 요양정보시스템을 사용해 입소자 개개인에게 맞는 과학화, 선진화된 맞춤형 요양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수익사업 성과

수익사업은 보훈공단 설립 초기에는 제조사업, 유통사업으로 출발하였으나 사업 규모의 영세성, 사업여건의 어려움 등으로 실적이 저조했다. 공단은 본사에 부사장, 영업상무를 두어 모든 역량을 집중하여 신규사업개발, 경영개선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한 결과 소기의 성과를 이루었다.

그러나 1990년대에 이르러 주력사업인 제조업이 공기관으로서 운영의 한계성과 중소기업 수준의 규모라는 이중고를 겪어 더 이상의 수익 창출이 어려운 실정이었으며, 1990년대 말에는 IMF 경제체제 여파로 결정적인 시련에 봉착하게 되었다. 이에 대응하여 각 사업별로 적극적인 수주물량확보, 신제품개발, 생산공정개선, 구조조정 등을 통한 다각적인 경영개선으로 어느 정도 사업성과를 유지하였으나 더 이상의 사업 신장은 한계점에 도달했다.

반면, 보훈병원 시설확충 등 목적사업에 필요한 재원은 계속 증가하는 추세를 보임에 따라 기존의 수익사업 외에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이익이 보장되는 신규사업 개발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에 공단은 2000년 10월 복권사업을 신규사업으로 채택하고, 2001년 1월 16일 개정된 보훈공단법에 따라 보훈공단의 사업 범위에 복권발행판매사업이 추가되었다. 이로써 의료·복지사업에 소요되는 재원을 원활하게 조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다. 공단은 2001년 3월부터 복권사업단을 발족해 추첨식, 즉석식, 온라인(인터넷) 복권을 발행하면서 본격적으로 복권사업에 참여했다. 그러나 정부방침에 따라 2004년 4월 복권 및 복권기금법이 시행되어 모든 목적사업이 국무총리 산하 복권위원회로 이관되면서 자체 복권사업은 종료되었다.

복권사업 성과는 2001년부터 2004년까지 수익금이 총 1,998억 원이었다. 복권사업 수익금으로 광주보훈병원 신축 등 의료시설을 확충하고, 최신 의료장비 등을 도입하였으며 보훈서비스 운영 지원 및 재무구조 개선 등 획기적인 성과를 이루었다.

이와 같이 복권사업은 기존 수익사업이 한계에 도달해 보훈공단의 목적사업인 의료·복지사업 지원을 위한 소요재원 조달이 어려운 상황에서 신규 수익사업

개발 일환으로 도입했다. 당시 조만진 이사장의 주도하에 보훈공단법 개정 등 적극적인 사업 추진으로 오늘날 보훈공단의 성장기반을 구축하는데 크게 기여했다.

마무리

1981년 보훈공단 설립 이후 수익사업은 부침을 거듭하면서 의료·복지사업이 체계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기반조성에 크게 기여했다. 그러나 2008년 정부 공기업 선진화 계획에 따라 수익계약으로 수주하던 사업 물량이 단계적으로 감축되고, 일반경쟁 입찰로 전환되는 등 대내외 경영여건이 악화됨에 따라 2014년 봉제사업, 2015년 건제사업 및 유통사업을 정리하면서 그동안의 역할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

1981년부터 2015년까지 수익사업 이익금은 총 3,581억 원이다. 이익금은 보훈공단 목적사업인 의료·복지시설 확충 및 운영비 지원과 재무구조 개선 등에 사용했다.

사업정리 후에도 건제사업 및 봉제사업의 공장부지를 중·소업체에 임대하여 약 74억 원의 임대수익을 올렸으며, 코로나19 여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업체에 대해 임대료 8억 4,000만 원을 인하하였고 유통사업의 유희자산인 양산창고를 매각했다.

수익사업 이익금							(단위 : 백만 원)
구분	1981~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계
수익사업이익금	349,761	2,906	517	3,422	△431	2,009	358,184
건제사업	51,121	1,923	220	2,123	568	△429	55,526
봉제사업	23,233	471	△351	376	△1,988	89	21,830
유통사업	45,985	723	774	923	989	2,349	51,743
복권사업	199,752	-	-	-	-	-	199,752
조합관리	24,381	△211	△126	-	-	-	24,044
합성수지사업	4,808	-	-	-	-	-	4,808
기타사업	481	-	-	-	-	-	481

복권사업은 과감한 도전... 결국 성공해 보람 느껴



조만진 9대 이사장

조만진 전 이사장님께서 2001년 보훈공단법을 개정하고 사업 범위에 복권발행사업을 추가하셨는데요. 추진하신 배경과 의사결정 과정이 궁금합니다.

당시 우리 공단에서는 자체 수익사업을 하고는 있었지만, 수익이 충분치 않아 국가유공자를 위해 해야 할 일을 다 하지 못한다는 아쉬움이 컸습니다.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한 수익이 필요했습니다.

2000년 10월, 신규사업개발심의위원회를 개최해 복권사업을 신규사업으로 채택했고 2001년 1월 16일 개정된 보훈공단법이 공포되었습니다. 이후 3월에 외부 전문가 영입 없이 내부 직원으로만 구성된 복권사업단을 발족했습니다. 당시 주택복권 1등 당첨금이 5억 원이었는데 우리는 40억 원으로 결정했습니다. 복권 명칭도 잘 지어야 했습니다. 300만 원의 상금을 걸고 대국민 공모전을 통해 ‘플러스플러스복권’이라는 이름도 얻었습니다. 40억 원이라는 1등 당첨금을 지급하기 위해서는 흥행에 성공해야 했습니다.

출시 당시 ‘보훈공단이 고액 복권 발행으로 사행심을 부추긴다’라는 비판기사가 KBS 9시 뉴스에 보도됐는데 이후 관심이 폭증했습니다. 의도치 않은 노이즈 마케팅 덕분에 출시하자마자 성공을 거둘 수 있었습니다.

보훈공단법에 복권사업을 포함하는 일이 쉽지 않았을 것 같은데요. 이사장님만의 노하우를 듣고 싶습니다.

많은 이들이 법 개정을 위해 국회의원을 설득하는 것을 가장 어려운 숙제로 여겼습니다. 민주화추진협의회 조직부국장, 중앙당 조직국장을 지낸 저로서는 국회의원들과 인맥이 있어 자신이 있었습니다. 사업 자체가 국가유공자를 위한 일이니 통할 것이라는 확신도 있었습니다.

여러 국회의원들을 직접 만나 보훈공단의 복권사업 당위성을 피력했습니다. 여·야 의원 57명의 동의를 얻어 당시 김원길 새천년 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2001년 1월 16일에 보훈공단법이 개정되었습니다. 우리 공단이 본격적으로 복권사업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 것입니다.

추진하신 복권사업이 공단에 많은 도움이 되었는데요. 어떤 성과들이 있을까요?

복권사업을 통해서 흑자 경영으로 전환했고 광주보훈병원 신축 등 의료시설 확충, 최신 의료장비 도입, 보훈서비스 운영 지원에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로또복권 수익금의 9.7%를 공단에 배분토록 한 약정은 큰 성과라고 봅니다. 2002년 복권위원회가 구성되고 로또복권이 추진되자 우리도 사업을 준비했습니다. 그러나 정부에서 일원화 방침을 세우고 로또복권 사업을 포기하는 대신 향후 수익금의 9.7%를 공단에 배분하겠다는 제안을 했습니다. 우리가 복권을 출시한 2001년 시장점유율이 9.7%였고 제안 당시엔 약 27%의 시장점유율을 기록하고 있었지만 받아들였습니다. (현재는 매년 복권수익금 중 35%를 보훈공단 등 기존 복권사업자에게 배분하며, 배분 비율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음)

복권사업의 기반을 닦아주신 덕분에 보훈공단이 이렇게 성장하여 창립 40주년을 맞았습니다. 당부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신지요?

공단의 4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더불어 전 국민이 국가유공자의 희생과 고마움을 알고 섬길 수 있는 교육과 홍보시스템을 구축해 주기를 당부드립니다. 보훈병원의 인력난 해소와 맞춤형 인재 양성을 위한 간호대학 설립도 기대합니다. 국가유공자에게는 국가가 모든 걸 책임져 주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합니다. 우리 임직원 여러분께서 공단의 발전이 곧 ‘보훈’의 발전, 나라의 발전이라는 사명감을 가져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 3 장

의료·복지체계의 확립

2011-현재

제 1 절 의료지원사업

- 1 전국 보훈의료망 구축
- 2 보훈병원별 시설 확충
- 3 전문진료기능 강화
- 4 미래지향 의료서비스
- 5 보훈재활 특성화
- 6 보훈의학연구
- 7 환자중심 맞춤형 의료서비스
- 8 환자안전관리
- 9 감염예방관리
- 10 공공의료기관 역할

제 2 절 복지지원사업

- 1 양로보호
- 2 요양보호
- 3 보훈의료복지통합서비스
- 4 보훈복지사업비 지원

제 1 절

의료지원사업

전국 보훈의료망 구축

보훈병원은 1981년 보훈공단 설립 이후 250병상 규모의 원호병원에서 출발하여 정부의 보훈대상자 의료지원 범위 확대 및 고령화에 따른 복합·만성질환으로 의료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의료시설을 단계적으로 확충했다.

중앙보훈병원은 1983년 서울시 강동구 둔촌동에 최신시설을 갖춘 440병상 규모의 서울보훈병원(현 중앙보훈병원)이 준공되어 구 원호병원에서 이전·개원했다. 그 후 연차적으로 장기요양병동, 재활병동을 증축해 1990년 800병상 규모로 확충되었으며, 이어서 중앙보훈병원의 신축 계획에 따라 2011년 600병상을 신축하고 기존의 800병상을 리모델링하여 2014년 1,400병상 규모의 대형병원으로 발전했다.

지방보훈병원은 1984년 부산보훈병원, 1987년 광주보훈병원, 1993년 대구보훈병원, 1997년 대전보훈병원에 이어서 2018년 인천보훈병원이 개원함으로써 보훈공단 설립 당시 1개 병원 250병상에서 6개 병원 3,417병상 규모의 전국 권역별 보훈의료망을 구축했다.

이와 같이 전국 보훈의료망이 구축됨에 따라 민간 위탁병원이 전국 각 지역에서 1차 진료기관 역할을 하고, 2차적으로 권역별 보훈병원이 진료를 담당하며, 고난이도의 난치성 질환 등을 3차적으로 중앙보훈병원이 진료기능을 수행하는 보다 효율적인 보훈의료전달체계의 기반을 마련했다.

보훈병원						
구분	중앙	부산	광주	대구	대전	인천
개원	1981. 11	1984. 4	1987. 4	1993. 2	1997. 11	2018. 11
병상수	1,370	499	553	475	383	137
진료과	31	21	24	22	20	15
진료권	서울·경기·강원	부산·경남·제주·울산	광주·전남·전북	대구·경북	대전·세종·충남·충북	인천·경기서북부

보훈병원별 시설 확충

중앙보훈병원

2000년대에 이르러 국가유공자 등의 가료대상 범위 확대에 따른 의료수요 증가와 고령화 추세로 대부분이 복합·만성질환(평균 5.8개)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만성요양성환자의 장기입원이 증가하고 신규 입원할 환자의 적기가료가 어려운 실정에 이르렀다. 중앙보훈병원은 입원대기 적체 해소 및 만성요양성환자에 대한 효율적인 가료체제와 보훈의료전달체계의 기반 구축을 위해 시설 확충을 추진했다.

중앙보훈병원 신축 사업은 2005년부터 2013년까지 9개년 동안 총사업비 2,577억 원을 투입해 600병상 규모의 신축병동을 건립하고 기존병동 800병상을 리모델링하는 공사였다.

1단계 신축병동은 2007년 착공, 2011년 4월 공사가 완료되어 9월 개원했다. 이어서 기존병동 800병상은 신축병동 공사 준공 후, 순차적인 리모델링 공사를 착수해 2013년에 마무리됨에 따라 1,400병상 규모의 대학병원급에 상응한 대형 중앙보훈병원이 건립되었다.

신축 병동 건립 이후 보훈재활의료 특성화 일환으로 국내 최고 수준의 로봇재활 등 특성 분야 육성 및 융합형 모델을 구축하기 위해 2013년 국내 최대 규모인 187병상을 보유한 재활센터를 개설했으며, 국가유공자 고령화에 따른 요양수요 증가 및 보훈의료전달체계(급성기·재활·요양) 구축과 관련하여

2014년 400병상 규모의 보훈요양병원을 개설했다. 이후 보훈의료대상자

특성에 맞는 진료 및 질병 연구기능 수행을 위해 2018년 238억 원을 투입해 지하 2층 지상 5층 규모의 보훈의학연구소를 건립했다.

또한 보훈대상자 고령화에 따른 치과 수요를 해소하기 위해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사업비 412억 원을 투입해 기존 치과병원 건물을 철거하고 지하 4층 지상 5층 규모 치과병원 신축공사를 추진하고 있다.

중앙보훈병원 치과병원
조감도



부산보훈병원

부산보훈병원은 요양병동 및 고엽제 환자 등 국가유공자 의료수요 증가로 2004년 195억 원을 투입해 200병상을 증축하여 540병상 규모로 확장되었다. 이후 외래진료시설 및 병동시설 리모델링 공사를 시행해 진료환경을 개선했다. 또한 급성기 진료가 끝난 환자들의 재활치료 연계를 위해 2018년부터 2021년까지 234억 원을 투입해 80병상 규모의 재활센터를 건립하고 있다. 국가유공자 고령화에 따른 요양성 환자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2019년부터 2022년까지 복권기금 418억 원을 지원받아 180병상 규모의 요양병원도 건립하고 있다.

광주보훈병원

광주보훈병원은 호남권 의료수요 증가에 대처하고 쾌적한 진료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광주시 광산구 산월동 첨단과학단지 내 부지 74,103㎡를 매입하고 2000년 8월 착공, 2002년 12월에 지하 1층 지상 8층(연면적 36,208㎡), 500병상 규모의 현대식 병원을 신축·이전했다. 이후 2004년 국가유공자의 재활훈련과 신체기능 회복을 위해 1,969㎡ 규모의 재활체육시설을 건립했으며, 이어서 MRI실 및 진료지원시설, 전공의 숙소, 중환자실, 재활센터를 증축했다. 급성기 진료가 끝난 환자들의 재활치료 연계를 위해서는 2018년부터 2021년까지 221억 원을 투입해 114병상 규모의 재활센터를 건립했다. 또한, 국가유공자 고령화에 따른 요양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2019년부터 2021년까지 복권기금 214억 원을 지원받아 120병상 규모의 요양병원을 건립하고 있다.

대구보훈병원

대구보훈병원은 2005년 8월부터 2008년 11월까지 500억 원을 투입해 병동 증축 및 본관동 리모델링, 의료지원 시설, 재활체육시설 등을 건립하여 475병상 규모로 확장되었다.

또한 급성기 진료가 끝난 환자들의 재활치료의 원활한 연계를 위해 2021년부터 2022년까지 171억 원을 투입해 40병상 규모의 재활센터를 건립하고 있다.

대전보훈병원

대전보훈병원은 2001년 병동 및 의료지원시설을 증축했으며, 국가유공상이자의 재활체육 활동을 통한 신체기능 회복을 위해 2005년 복권기금 24억 원을 투입해 론볼링장, 사격장, 농구 경기장 등 재활체육시설을 건립했다. 2010년 병동 추가 증축으로 총 383병상 규모로 확장되었다.

병원은 또한 2020년부터 2022년까지 본관동 리모델링 사업(지하 2층 지상 5층, 연면적 14,523㎡)에 230억 원을 투입해 내원 환자에게 쾌적한 환경에서의

진료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아울러 2020년부터 2022년까지 171억 원을 투입해 40병상 규모의 재활센터를 건립하고 있다.

인천보훈병원

중앙보훈병원이 서울, 인천 등 수도권과 강원도 등에 거주하는 국가유공자 및 유가족을 담당하고 있어서 많은 이용자로 인해 장시간 진료 대기가 발생하고 인천권역 대상자는 원거리를 왕래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인천권역(경기 서부지역 포함)의 취약한 보훈의료시설을 강화할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공단은 인천보훈병원 건립을 추진했다. 인천보훈병원은 2015년부터 2018년까지 441억 원을 투입,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용현동 28,724㎡ 부지에 지하

인천보훈병원 전경



1층 지상8층, 130병상 규모의 고령자 전문병원으로 특화해 개원하였다. 그러나 건립 당시 응급실을 설치하지 않아 응급환자 진료가 어렵고 외래진료대기실 등 협소한 진료공간 개선을 위해 2020년부터 2021년까지 61억 원을 투입해 응급실 설치 및 외래진료공간 확충공사(지상 3층 연면적 1,528㎡)를 진행하고 있다.

보훈병원별 시설현황					
구분	대지	건물	병상수	진료과	소재지
중앙	88,473㎡	133,832㎡ (중앙관 지하 4층~지상 13층)	1,370	31	서울특별시 강동구 진향대로61길 53(둔촌동)
부산	66,764㎡	41,374㎡ (본관 지하 1층~지상 6층)	499	21	부산광역시 사상구 백양대로 420(주례동)
광주	67,997㎡	44,631㎡ (본관 지하 1층~지상 8층)	553	24	광주광역시 광산구 첨단월봉로 99(산월동)
대구	31,346㎡	37,632㎡ (동관 지하 2층~지상 7층, 서관 지하 1층~지상 7층)	475	22	대구광역시 달서구 월곡로 60(도원동)
대전	40,944㎡	38,541㎡ (본관 지하 1층~지상 5층)	383	20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청로82번길 147(신탄진동)
인천	28,724㎡	11,183㎡ (지하 1층~지상 8층)	137	15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인주대로 138(용현동)

전문진료기능 강화

중앙보훈병원
전문진료센터

중앙보훈병원은 국가유공자 고령화로 만성·복합질환 등 다빈도 질환 및 뇌혈관 질환 등 중증질환의 증가 추세에 대비해 전문진료기능을 강화했다. 2000년대에는 의료수요가 많은 진료과 중심으로 특성진료 분야를 선정·운영했으나 2011년 신축 이후에는 보훈의료전달체계와 연계해 병원별 전문진료센터 개설 및 고난도 진료를 통해 의료수준의 질적 향상을 도모했다. 특히, 상급병원을 지향하는 중앙보훈병원의 경우 11개 분야 전문진료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암환자 빠른 진료(패스트트랙)와 여러 진료과 협력(다학제 진료협력)으로 최상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최신형 로봇수술 도입 및 고난도 심장·혈관 수술 활성화 등 공공병원 최고 수준의 진료서비스를 실현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전문진료센터	주요 내용
암 (2012. 11 개설)	• 암 다학제 협력진료 - 국가유공자 고령화로 인한 복합질환 및 합병증 등으로 단일 진료과에서 치료계획 수립 및 관리에 어려움 - 다양한 진료과 전문의 협력 및 협진으로 개인별 치료계획 수립·관리하는 ‘암 다학제 협력진료 시스템’ 운영 - 6개 진료부서 의료진 구성: 혈액종양내과, 영상의학과, 방사선 종양학과, 핵의학과, 외과 등 • 암환자 진료 패스트트랙 - 신속한 치료가 필요한 암환자를 위한 EMR 시스템 구축으로 수술 우선도가 높은 환자에게 당일 진료검사 및 신속한 수술로 적기에 치료 - 진료 프로세스 시스템(다학제 협력진료·패스트트랙·로봇수술)으로 환자 중심 암 진료 • 보건복지부 암질환 분야 적정성 평가 2018년 이후 1등급 달성
로봇수술 (2020. 10 개설)	• 전립선암, 직장암 등 32종 암 수술 시 최소 절개와 안전하고 효과적인 수술 제공 • 최소 침습 수술로 출혈 및 감염위험을 방지하고 수술 후 통증이 적고 회복이 빨라 조기 퇴원 가능하며 고령환자에게 합병증을 최소화하는 수술 방법

TAVI 시술 및 풍선·경피적 대동맥판막 치환술

냉각도자 절제술 (TAVI, Transcatheter Aortic Valve Implantation)

대동맥 판막협착증 환자에게 가슴을 열지 않고 작은 절개만으로 카테터를 동맥에 삽입해 기존 대동맥 판막 부위에 인공판막을 위치시켜 대체하는 시술이다. 풍선을 대퇴부에 있는 혈관을 따라 판막까지 도달하게 한 다음, 좁아져 있는 판막 사이에 풍선을 위치시켜 부풀린 후 판막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물망을 대동맥 판막에 적절하게 고정시키는 방식으로, 이 시술은 임상시험 단계를 거치며 안전성과 유효성이 입증되어 보건복지부 신의료기술로 공식 인정을 받았다.

풍선냉각도자 절제술

심장에 가느다란 관을 밀어 넣은 뒤 심방세동을 일으키는 이상 부위를 찾아 이를 영하 75℃로 냉각시켜 그 부위에 조직괴사를 일으킴으로써 심방세동을 치료하는 방법으로, 시술 시간이 짧고 전신마취 없이 진행이 가능하다. 시술 후 환자 회복이 빠르다는 장점이 있어 미국 등 의료 선진국에서는 심방세동의 안전하고 효과적인 치료법으로 부각되고 있다.

중앙보훈병원 심혈관센터
풍선냉각도자 절제술



청각재활장치 이식수술

2011년 인공와우 수술을 시작해 2013년 인공중이 이식 수술, 2017년 골전도 보청기 수술을 시행했다. 최근 10년간 인공와우 162건, 인공중이 85건, 골전도 보청기 수술 58건의 수술을 시행해 국내 의료기관 중에서 최상위 수준급의 성과를 이루었다.

치과진료기능 강화

국가유공자 고령화로 의료수요 급증에 따른 진료적체 해소와 진료 분과별 전문화로 의료 수준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치과병원 신축을 추진하고 있다. 사업비 414억 원을 투입해 지하 4층 지상 5층 규모로 2021년 착공, 2023년 완공 예정이다.

신축치과병원은 임플란트 수술센터와 디지털 보철실을 설치하여 대학병원급 수준의 전문치과병원으로 면모를 갖추게 될 것이다.

지방보훈병원 심혈관 센터

부산보훈병원

병상 규모가 540병상으로 확장됨에 따라 병원 규모에 상응한 의료 수준의 질적 향상을 추진했다. 60~70대 이상 국가유공자의 심근경색, 협심증, 고혈압, 당뇨병 등 심혈관계 질환 환자가 증가함에 따라 순환기내과(정확한 진단 및 중재적 시술)와 흉부외과(외과적 수술) 등의 진료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2006년 심혈관센터를 개설했다.

광주보훈병원

호남지역 의료기관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전남대병원과의 의료진 교육 및 학술강좌 개최 등 유기적인 교류협력체제로 의료서비스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2004년 보훈병원 최초로 심혈관센터를 개설했다. 이어서 흉부외과를 개설하고 심장센터를 운영하여 지역의 수준급 의료기관으로 자리매김했다.

대구보훈병원

의료수요 및 의료수준 향상을 위해 2020년 심혈관센터를 개설하여 외부기관 우수의료진 초청 고난도 수술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경북대학교병원 대구·경북 권역 심뇌혈관질환센터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심뇌혈관질환 진료 협진체계 및 예방관리사업에 동참했다.

미래지향 의료서비스

디지털 비대면 의료서비스

보훈공단은 감염병 확산에 대비해 국가유공자 의료이용 공백을 방지하고, 감염병 위험으로부터 의료진·환자를 보호하기 위해 디지털 기반 비대면 의료서비스를 도입했다. 향후 보훈의료·복지통합서비스와 연계해 일반진료뿐만 아니라 ICT 활용 상시 건강모니터링, 보훈 PHR(개인평생건강관리) 시스템 등과의 연계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였다.

2020년 3월 보건복지부 등 관련 기관의 법률 검토를 거쳐 거동이 불편하거나 반복적으로 투약처방 받는 국가유공자에게 한시적으로 허용된 전화상담·처방을 시범사업으로 시행 후, 확대할 예정이다.

스마트병원 구축

다학제 원격협진 시범모델 개발	최단시간 격리병실 전환 모델 개발
- 기존 플랫폼 활용한 원격 협의진료 시스템 시범 모델 개발 추진 - 지방환자 암 치료 시 중앙보훈병원 전문의와 협진 - 코로나19 관련 감염내과 전문의 부재 시 활용	- 가변형 하이브리드 병실 구축 계획 수립으로 비상시 일반병실에서 격리병실로 전환 가능한 병실모델 개발 추진 - 환자 맥박, 산소포화도 등 원격으로 환자 상태 실시간 확인이 가능한 비대면 환자케어 시스템 도입

AI 진단시스템 ‘닥터 앤서’

중앙보훈병원은 국가유공자 특성에 맞는 정밀 진단을 위해 2020년 공공의료 기관 최초로 대장암, 치매, 뇌동맥류 3종의 국산 AI 진단시스템을 도입해 진단분석을 실시했다.

AI 영상 자동판독 시스템

각종 검사 증가 및 진료 전문화로 검사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정확하고 신속한 영상 판독 보조 프로그램을 도입했다. 빅데이터에 기반한 진단 보조로 정확도 향상과 일반촬영 판독 시간이 단축되었다.

AI로봇 헬스케어

AI로봇을 활용한 헬스케어 서비스로 독거노인 등 소외된 취약계층의 건강증진 및 코로나19 감염병 확산에 따른 만성질환자 감염 예방을 위해 한시적 비대면 진료를 실시했다.

지역 유관기관과 협력해 대상자를 발굴하고 케어매니저가 주기적으로 방문해 AI로봇 활용방법 교육과 함께 업무 프로세스를 안내·홍보했다. 또 전화처방, 약품택배 및 대전보훈요양원과 연계한 화상 원격진료를 시행했다.

치매질환 맞춤형 서비스

ICT 활용 치매질환 단계별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ICT 특성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민·관 치매 관련 기관과 네트워크를 구축, KT와 협업으로 ICT 활용 뇌활력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재가 대상 찾아가는 치매서비스

VR기기를 활용한 Brain Touch-Care 프로그램 도입 및 치매초기선별검사 (KDSO) 실시 후 고위험군은 보훈병원 정밀검사 및 진료과 연계

스마트 LED 고독사 방지

돌봄이 필요한 취약계층이 제때 돌봄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함에 따라 기관 간 공조를 통해 동작감지 센서 등이 내장된 LED등을 설치하는 스마트 케어서비스 운영체계를 구축했다.

스마트 LED 고독사 방지사업은 취약계층 가정을 방문하여 건강측정 및 상담, 치매예방 운동법, 인지강화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심장질환자 재택의료 시범사업

중앙보훈병원은 2020년 보건복지부 심장질환자 재택의료 시범사업 기관으로 선정되어 국가유공자를 대상으로 재택관리를 시행하고 있다.

심장질환으로 심박기 등 보조 장치를 삽입한 환자의 경우 자택에서 이상징후 전조증상 발생 시, 대응이 제한되어 비대면 서비스 도입이 필요하다. 이에 삽입형 제세동기(ICD), 심박기, 재동기화치료기(CRT) 삽입 심장질환자를 대상으로 원격진료·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재활의료

재활(Rehabilitation)은 신체적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의 신체적·감각적·심리적 및 사회적 기능을 최상의 상태로 향상시키는 일련의 과정(WHO)을 의미한다. 선진국의 보훈정책은 재활 분야를 주요사업으로 격상해 상이처 치료에서부터 재활과정을 거쳐 사회복귀까지의 체계적인 재활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국가보훈정책의 목표가 국가를 위해 헌신한 분들에게 끝까지 책임진다는 데 있는 만큼, 앞으로 의료에서부터 직업, 사회재활서비스까지 One-Stop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종합재활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중앙보훈병원
재활센터

보훈공단은 재활 분야를 전략적 사업단위(Strategic Service Unit)로 설정하고 국가유공상이자에게 치료에서부터 재활과정을 통한 사회적응까지의 평생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체계적인 보훈재활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이의 일환으로 재활시스템의 기본이 되는 재활의료 기능 강화를 최우선 과제로 설정하고, 중앙보훈병원의 재활의학센터를 명실상부한 국내 최고 수준으로 발전시키는 것을 기본방향(Vision)으로 운영시스템을 마련했다.

1998년 73병상 규모의 재활센터를 개설한 이후 중앙보훈병원이 1,400병상 규모로 확충됨에 따라 2014년 국내 최초로 급성·재활·요양까지 가능한 융합형 진료체계를 갖춘 재활센터를 개설했다. 국내 최고 수준의 의료진과 187병상 규모의 재활센터 단일병상을 갖춰 보다 전문적인 재활케어가 가능하다. 9개 분야 재활전문클리닉과 인지재활, 수중재활, 로봇치료프로그램 등 7개 분야 재활프로그램을 상지·하지로봇 재활시스템 등 첨단 재활 치료장비를 활용해 운영하고 있다. 또한 재활센터·보장구센터·방문재활 각 분야의 전문 의료진이 협력해 입원부터 퇴원까지 토탈 케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보훈재활 특성화



지방보훈병원
재활센터 건립

중앙보훈병원 재활센터에 이어서 지방보훈병원도 전문재활서비스 제공을 위해 재활센터 건립을 추진하고 있다. 총사업비 776억 원을 투입해 2018년부터 광주·부산보훈병원 재활센터 건립을 시작으로 2022년까지 대구·대전보훈병원 재활센터를 건립하여 전문재활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IT와 의료융합
재활서비스

AI 재활치료 시스템

- 재활치료자의 역량에 따라 재활서비스의 질이 좌우되어 최상의 재활치료 제공 일환으로 AI 스마트글러브를 도입했다. 손가락과 손목, 팔의 움직임을 측정해 환자 상태에 따른 최적화 된 재활치료를 제공

재가 AI 인지 재활서비스

- 거동이 불편한 중증 치매 환자 치료방안으로 스마트 디바이스를 활용해 검사부터 재활, 훈련 모든 과정을 병원과 동일하게 가정에서 받는 재활훈련
- 태블릿PC를 이용해 전산화 인지재활 프로그램 Cotras-M 활용 검사 및 재가 치료를 동시에 실시

보철구 지급

보철구는 신체기능 장애나 활동력이 상실된 부분을 정형 또는 보완해주는 장구이다. 보철구 지급사업은 국가를 위해 희생한 국가유공상이자들에게 신체적 기능의 보완뿐만 아니라 개인 능력을 극대화하고 사회참여 기회를

보철구 품질 개선

확대해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재활 사업으로, 전동 의수족 등 첨단 제품을 제작하고 신규 품목을 확대해 보상금 성격의 현물로 지급하고 있다. 우수한 보철구 제작을 위해 중앙보훈병원 보장구센터 및 부산·광주·대구·대전 보훈병원 내 지방분소에서 만들어 보급하고 있으며, 현재 지급하고 있는 보철구 품목은 52종이다.

2014년 고체형 실리콘 의수 제조방법에 관한 특허를 취득해 연구개발에 대한 기반을 조성했다. 2015년 DMZ 목함지뢰 폭발 사고로 다리를 상실한 부사관 2명에 대한 성공적인 재활은 중앙보훈병원과 보장구센터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는 계기가 되었다. 이후 국군의무사령부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해 현역 부상 장병에 대해 사고발생 초기부터 보철구 전 주기를 관리할 수 있게 되었다. 2015년부터 보훈의학연구소 연구과제 수행을 통해 실리콘 의수 제작기법, 전동휠체어 안전장치, 요천추 척추보조기 등 지식재산권을 확보해 보장구 관련 기술개발에 앞장서고 있으며 중소기업에 기술이전 하여 상용화하고 있다. 4차 산업혁명 등 첨단기술 발전에 따라 보철구 제작 첨단화를 위한 방안으로 2018년부터 3D프린팅 기술을 도입하는 등 첨단기술을 적용한 다양한 품목의 보장구를 제작하는 데 활용하고 있다.

2019년부터 민·관·연 협업체계를 통해 국내 최초로 전자제어식 로봇 의족(종아리 의지)을 개발해 2020년 로봇 의족을 시범 공급했으며, 환자의 손과 똑같은 모양으로 일상생활에서 다양한 동작을 할 수 있는 첨단 의수를 개발(특허등록)했다.

2020년부터 시작된 범부처 전주기 의료기기 연구개발 사업에 민·관·연 컨소시엄을 구성, 2개 연구과제에 선정됨에 따라 파킨슨병 환자를 위한 보행



2020년 로봇의족 시연회
행사

재활체육센터

보조 장치 연구 및 무릎관절 다리 의지 신제품 국산화 개발에 착수했으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국과학기술연구원과 협약을 통해 첨단기술이 들어간 다양한 제품을 도입하기 위한 기반을 구축했다.

앞으로, 국가유공자의 초고령화 사회 진입에 따라 고령친화 보철구 수요의 지속적 증가가 예상된다. 보장구센터는 4차산업 기반의 감지 센서·AI 딥러닝 등 첨단기술이 포함된 의수족, 휠체어 등 국가유공자들의 높아진 생활 수준 및 욕구에 맞는 첨단 보철구 개발 및 보급을 통해 보훈가족의 건강과 행복한 삶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국내 최고 수준의 보장구 제작 능력을 보유한 곳으로 발전하게 될 것이다.

재활체육이란 재활치료의 연장선상에서 신체활동을 통해 신체적·심리적·사회적 영역의 향상을 도모하고 사회통합을 이루기 위한 체육활동을 의미한다. 보훈재활체육센터는 전·공상군경 등의 신체기능 회복을 위해 1983년 서울시 강동구에 원호병원을 신축하면서 국내 최초로 병원시설 내 종합체육시설을 건립했다. 이어서 2004년 광주보훈병원, 2005년 부산·대전보훈병원, 2007년 대구보훈병원 내에 재활체육시설을 건립했다. 한편 서울보훈병원 체육시설은 2007년 중앙보훈병원 신축공사로 철거됨에 따라 이를 대체할 국내 최대 규모의 종합 재활체육센터 건립을 추진했다.

보훈공단은 수원 보훈교육연구원 내 사업비 216여억 원을 투입해 2011년 보훈재활체육센터를 준공하여 실내체육관과 실외 종합경기장 및 체력 단련실, 수(水)치료실 및 생활관을 배치했다. 또한 매년 개최하는 척수장애인체육대회는 선진국과 같이 선수와 가족이 함께하는 축제로 발전했으며, 선발된 우수선수는 장애인올림픽 등 각종 국제 대회에 참가 하여 국위를 선양하고 있다.

- 1 보훈재활체육센터 전경
- 2 보훈재활체육센터 양궁 연습



보훈의학연구

보훈공단은 국가유공자에게 최상의 의료서비스 제공 일환으로 보훈의료의 연구기능을 강화하고 공공성 있는 의학연구를 통해 공공의료발전과 사회적 가치 실현에 기여할 목적으로 2013년 중앙보훈병원 소속 보훈의학연구소를 개설했다. 장기적으로는 임상과 연구를 연계하여 효과적인 질환치료법과 의약품을 개발할 수 있는 체계를 목표로 하고 있다. 2018년에는 국가유공자를 위한 바이오뱅크와 보훈환자 질환 중심의 연구 특성화를 위해 4개 연구부(보훈유전체연구부, 중개임상연구부, 뇌의학연구부, 재활·보장구연구부)를 운영하고 있다.

기관생명윤리 위원회

중앙보훈병원 IRB는 본원에 소속된 연구자에 의해 수행되는 연구계획의 윤리적·과학적 타당성을 심의하고, 연구진행 과정 및 결과에 대한 조사·감독 기능을 수행하는 독립적 위원회다. 2004년 의약품 임상시험 기관 지정을 시작으로 2013년 인간대상연구, 인체유래물 기관 등록 및 의료기기 임상시험 기관 지정, 2019년 인체유래물은행 기관 등록, 2021년 체외진단의료기기 임상적 성능시험기관으로 지정되어 6개의 IRB를 통합 운영하고 있다.

유전체기반 정밀의료

보훈병원 환자에게 첨단기술을 통한 진단 및 치료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차세대 염기서열분석(NGS) 임상검사를 진행할 수 있는 기관으로 등록해 다양한 질환의 차세대 염기서열분석 유전자 검사를 내부적으로 운영 또는 위탁할 수 있게 되었다.

유전자 바이오마커 검사를 통해 정밀의료의 근거를 명확히 제시해, 임상의의 임상시험연구의 질을 향상시키고, 정밀医료를 위한 새로운 유전자바이오마커를 발굴해 암 질환을 포함한 다양한 질환의 진단과 치료에 의학적으로 기여할 수 있다.



연구진의 모습

바이오뱅크 프로젝트

보훈의학연구소 바이오뱅크는 고품질의 인체자원·유전체 정보에 임상·예후 정보 및 의학 통계적 고찰을 통한 코호트 데이터 생산을 통해 글로벌 수준의 보훈질환 코호트 빅데이터 정보를 구축해 정밀의료 구현을 위한 기반을 마련할 수 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헬스케어 중심에는 정밀의료이 있으며, 이를 실현하기 위한 빅데이터의 핵심 인프라가 바이오뱅크에 있으므로 차세대 보건의료연구의 발전에 기여할 것이다.

SCI (과학기술논문 인용색인) 지원

보훈병원 의료수준의 질적 향상을 위해 의료진 연구활동을 장려하고, 보훈병원 위상 제고를 위한 일환으로 국내외에서 인정하는 SCI(E) 논문 등재 시 지원 지침을 마련해 2006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주요 연구대상이 보훈병원의 환자이며 2006년부터 2020년까지 345건, 4억 8,000만 원의 연구비를 지원했다.

환자중심 맞춤형 의료서비스

보훈요양병원

보훈공단은 보훈의료 특성화 일환으로 국가유공자 고령화에 따른 요양 수요 증가 및 보훈의료전달체계(급성기·재활·요양) 구축과 관련해 2014년 중앙보훈병원 내 보훈요양병원을 개원했다.

시설 규모는 중앙보훈병원 중앙관 병동신축에 이어 기존 800병상의 리모델링 공사가 마무리됨에 따라 400병상(호스피스병실 및 격리병실 포함)을 갖추게 되었다.

운영체계는 요양병원장 소속 진료부, 간호부, 운영부 및 약제과를 두었으며 급성기병원, 재활센터와 진료전달체계를 구축하여 치매병실운영, 욕창관리, 환자안전관리 및 다양한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어서 부산보훈병원은 2022년까지 180병상 규모, 광주보훈병원은 2021년까지 120병상 규모의 요양병원을 건립하고 있다.

가정간호서비스

인구의 고령화로 만성 퇴행성 질환 증가 및 각종 사고와 재해로 인하여 거동 불편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수요자 중심 보건의료제도가 도입되었다. 의료진이 환자의 집을 방문하는 가정간호는 치료의 연속성 유지 및 심리적 안정감 도모 등을 통해 삶의 질 향상, 의료 이용 편의를 제고할 수 있다.



중앙보훈병원
가정간호사업팀

호스피스

중앙보훈병원은 보건의료제도 도입 이전인 1993년 7월부터 환자 중심 맞춤형 의료서비스 일환으로 중상이 국가유공자들이 거주하는 용사촌을 대상으로 가정간호서비스를 실시했으며 1997년부터 병원 중심의 가정간호사업에 본격적으로 참여했다. 지방보훈병원에 이어서 2014년부터는 수원보훈요양원, 남양주보훈요양원 및 사회복지시설까지 서비스를 확대 실시하여 입소 어르신과 지역사회 주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하고 있다. 특히 중앙보훈병원 간호부장(윤영미)은 대한가정간호사회 회장을 역임하면서 가정간호서비스 표준, 가정간호수가 개발 및 요양원 방문 시행 등 의료계 가정간호사업의 정착과 보훈의료·복지서비스 향상에 크게 기여했다.

호스피스(Hospice)는 라틴어의 hospitals와 Hospitium 즉, 주인과 손님 사이의 따뜻한 마음과 그러한 마음을 표현하는 장소에서 변천되어왔다. 보훈병원 호스피스사업은 암 질환 발생의 증가로 현대의학으로 더 이상의 치료가 불가능한 고통 받는 말기 환자들을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경제적, 영적 돌봄으로 마지막 순간까지 인간답게 가치 있는 삶을 유지하도록 도와주며 남아있는 가족의 고통과 슬픔을 경감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 총체적 돌봄을 수행하고 있다.

보훈병원 호스피스 운영은 1999년 중앙보훈병원에서 지역사회 종교단체 후원으로 시작하여 2001년 산재형 호스피스를 운영하고, 2014년 요양병원 내 호스피스 병동(33병상)을 개설했다.

2015년 중앙보훈병원은 완화의료 전문기관으로 지정되었으며, 부산·광주·대구·대전 등 지방보훈병원에서도 호스피스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 이와 같은 호스피스 운영 활성화로 보건복지부 평가 결과,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2016년부터 매년 국고보조금을 교부받고 있다.

권역별 호스피스센터 지정

보건복지부는 2017년 호스피스 완화의료의 선도적인 역할을 하는 중앙보훈병원을 권역별 호스피스센터로 지정했다.

권역별 호스피스센터는 해당 권역의 호스피스 사업지원·교육·훈련 및 호스피스 전문기관들에 관한 의료·사업지원 등을 통해 체계적인 서비스 제공 및 질 향상을 도모하며 2021년 현재 전국 호스피스센터는 10개소이다.

보훈공단법·의료법 개정

의료법상 진료기록 열람·사본 교부를 엄격하게 제한하는 관계로 보훈가족이 외부 위탁병원 이용 시 서류발급을 위해 수차례 재방문하는 불편이 발생했다. 이에 따라 공단은 타 기관(건강보험관리공단, 심사평가원 등) 사례를 들어 의료법 예외조항에 보훈공단이 포함되도록 2020년 의료법과 보훈공단법을 동시 개정했다. 그 결과 보훈병원과 일반병원 간의 정보공유가 확대됨에 따라 보훈가족이 진료기록을 직접 제출하는 불편을 해소함과 아울러 위탁지정병원 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했다.

보훈공단법, 의료법
개정 관련 언론 기사



진료정보교류
시스템

2017년 의료기관 간 환자진료정보교류 사업에 관한 의료법 시행으로 보건복지부 주관 진료정보교류사업에 보훈공단도 협력병원으로 참여해 진료정보교류시스템을 구축했다. 시스템은 환자들이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을 때 발생하는 진료내역, 투약내역, 검사내역 등의 진료정보를 교류에 동의한 환자들을 대상으로 의료기관 간에 전자적으로 전달하는 것이다. 전국 의료기관 간 어디서든 진료정보 교류를 통한 안전한 의료서비스 제공이 가능해져 보훈가족의 만족도 향상 및 각종 서식 발행에 따른 행정업무 감소로 업무 효율성을 제고했다.

환자안전관리

보훈병원은 환자안전 문화 확산을 위해 환자안전 리더십 워크라운드, 환자안전 주간행사 실시, 환자안전의 날 우수사례 발표, 환자안전 문화 향상제도, QPS(Quality Improvement, Patient Safety)뉴스레터 발행 등을 추진해 환자안전에 대한 인식과 문화에 긍정적인 변화가 보이고 있다. 낙상 재교육 활동(Teach Back), 낙상예방 라운딩, 낙상사고 분석 및 개선활동으로 낙상예방을 강화하고 있으며, 사고별 고장유형 및 영향분석(FMEA)에 따라 원인을 분석하고 문제점을 개선해 환자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있다.

환자안전
관리 시스템

응급·중증질환자의 경우, 환자 의식 불명 등으로 신속한 본인확인이 곤란함에 따라 2020년 스마트 디바이스(PDA)를 활용한 차세대 안전관리 시스템을 도입하여 환자 처치·기록 자동화로 투약오류 등 사고 위험을 해소 했다.

자동 약제 배분
시스템(ADS)

약물오용으로 인해 환자 생명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정확성을 높이는 자동 약제 배분시스템을 도입해 고위험 약제 조제 및 배분을 자동화했다.

낙상예방클리닉

중앙보훈병원은 2015년 국내 최초로 낙상예방클리닉을 개설했다. 낙상 위험도가 높은 환자를 선별해 낙상예방 운동교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입원환자 대상으로는 낙상예방 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하고, 외래환자 중에서 낙상 위험성이 큰 환자(뇌졸중, 요통) 대상으로 낙상예방클리닉을 실시하고 있다. 그 결과 치료중심에서 예방영역으로 패러다임이 전환되어 낙상예방의 중요성에 대한 환자 및 보호자의 인식이 제고되었다.

치매환자
보호구 개발

치매 등을 앓아 거동이 불편한 환자가 결박억제대를 착용하면 화재 등 재난 상황 시 구조가 어려워 피해가 우려된다. 사내벤처 학습동아리가 공기튜브형 치매환자보호구를 개발(특허출원)하여 자해행위를 예방하고 환자 이동을 보장하는 에어튜브 타입 억제대로 환자 편의 및 안정성을 제고했다.

감염예방관리

보훈병원은 환자, 내원객, 직원 간에 감염전파를 최소화하고 지역사회 전파를 예방하기 위해 감염 관리실을 설치하고 감염 예방시설을 확충했으며, 효율적인 감염 관리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특히 메르스, 코로나19 등 신종감염병 유행 시에는 공공의료 역할을 수행해 병원유입과 지역사회 전파 차단에 주력했다.

감염 관리시설을 확충해 음압격리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법정감염병, 다제 내성균이 검출되는 환자의 격리병실을 별도 운영하고, 출입통제 시스템을 설치해 관리하고 있다. 전국 보훈병원에 감염 관리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또한 정부방역대책과 관련하여 국가감염병 전담병원, 생활치료센터, 국민안심병원을 운영하고 있다.

국가감염병 전담병원 운영

코로나19 유행 초기 대구·대전보훈병원이 우선적으로 2020년 2월부터 감염병 전담병원을 운영했으며 이어서 중앙보훈병원, 광주보훈병원, 부산보훈병원이 운영하고 있다. 또한 중앙보훈병원은 2021년 9월부터 중증환자 전용 10병상을 추가로 운영하고 있다.

국민안심병원 운영

중앙보훈병원은 2020년 2월부터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호흡기 환자를 비호흡기 환자와 분리하고, 호흡기 외래 전용 진료구역을 운영하는 국민안심병원을 운영해오고 있다. 입원환자 또한 층·병동을 철저히 분리하고, 폐렴 환자는 별도 격리해 감염 확산을 사전에 예방하고 있다.



1 감염병 전담병원 초기
대구보훈병원
2 중앙보훈병원
선별진료소



공공의료기관 역할

국가사회기여자 의료지원

공공의료기관인 보훈공단은 대국민 건강안전망 확충 일환으로 2012년부터 국가사회기여자를 대상으로 의료지원 협약을 체결해 보훈병원 진료 시 본인 부담금액의 30% 감면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또한, PTSD(외상후스트레스 증후군)검사, 치료 및 예방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다.

※ 의료지원 대상 : 군장병, 병역명문가 병역이행자, 경찰공무원, 퇴직 경찰공무원, 경찰 소속 행정공무원, 해양경찰공무원, 퇴직 해양경찰공무원, 소방공무원, 퇴직 소방공무원, 교정공무원, 퇴직 교정공무원

공공보건의료 시행 및 평가

보훈공단은 공공보건의료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통해 공공보건의료의 지원 기반을 견고화해 취약계층을 위한 건강안전망 기능을 확대하고 있다. 민간에서 시행하지 못하는 필수의료 수행으로 의료사각지대 방지에 노력하고 있으며, 매년 제출한 영역별 공공보건의료 계획 수립 및 시행 결과 보고서 평가결과 대구보훈병원은 4년 연속, 중앙보훈병원은 3년 연속 최우수상 등급과 보건복지부 장관상을 수상했다.

공공보건의료 역량강화교육

보훈공단은 2018년부터 중앙보훈병원 공공보건의료 콘퍼런스를 개최해 특수공공 병원 및 지방보훈병원의 공공보건의료 역량강화에 중심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외부 공공병원, 특수공공병원, 보훈병원 간의 정보교류 및 사업공유, 인프라 확대로 종사원 역량강화를 통한 의료서비스 질 향상에 기여하고 있다.

복지지원사업

양로보호는 무의탁 고령 보훈대상자 본인 및 유족을 보호하여 여생을 편안히 보내도록 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 1993년 국가보훈처에서 인수한 보훈원은 시설이 낙후되고 열악해 1997년 보훈기금을 재원으로 편의시설 및 의료시설 등 다양한 시설을 갖춘 현대식 건물을 신축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1996년에는 부양의무자가 없는 무주택자들이 거주할 수 있는 주거용 보훈 복지타운을 건립했으며, 보훈가족의 여가 선용을 위한 보훈휴양원을 충북 충주시에 건립해 운영하고 있다.

요양보호는 2000년대에 이르러 고령 국가유공자에 대한 노후 복지지원 제도의 필요성이 제기되며 본격 대두되었다. 치매·중풍 등 장기요양 보호 수요는 증가하고 있는 반면에 핵가족화로 노인 부양기능은 크게 약화됨에 따라 수발 장애를 겪고 있는 고령 국가유공자의 간병·간호 지원서비스를 위해 2006년부터 국가유공자 특성에 맞는 보훈요양시설 건립을 추진했다. 2008년 수원·광주, 2009년 김해, 2011년 대구, 2012년 대전, 2015년 남양주, 2020년 원주요양원을 개원했으며, 이어서 2022년 전주보훈요양원을 개원할 예정이다.

양로보호

보훈원

1963년 개원한 종합보훈원에 속해 있던 양로·양육소의 시설이 낙후되고 열악하여 1997년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에 지하 1층 지상 3층의 신축건물로 이전했다. 보훈원은 주거시설과 의무실, 체력단련실, 독서실, 탁구장, 취미 오락실,종교집회실 등이 있고 옥외에는 게이트볼장,휴게소,산책로가 마련되어 있다. 보훈원에 입소해 있는 치매, 중풍환자 중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분들을 보살피기 위해 2009년 장기요양시설로 등록했으며, 노인성 질환 등을 가진 장기요양보험 수급자를 대상으로 전문요양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2010년에는 보훈원, 보훈복지타운, 수원보훈요양원 입소자를 대상으로 진료 및 재활서비스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보훈원 내에 보훈의원을 개설했다.

2015년 환경개선 일환으로 보훈원 내 유희부지를 활용하여 소나무동산, 자작나무숲, 벚꽃산책로 등 테마공원과 무궁화 쉼터를 조성했다. 이는 휴식 공간을 제공하고 지역 주민의 나라사랑 정신을 거양하는 효과를 거두었다.

운영프로그램

건강증진과 정서적 안정을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안락하고 편안한 노후생활을 지원하고 있다.보훈원 내 체력단련실,이·미용실,목욕탕,종교생활,오락실 등이 있어 다양한 취미생활로 여가를 즐길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대보름행사, 어버이날 행사, 효도관광, 경로대학 등 맞춤형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있다.호국보훈의 달이나 명절,연말연시에는 각계각층에서 방문하여 어르신들을 위로하고 있으며, 지역사회와 연계해 정부 각 부처, 지방자치단체,군부대,학교,기업체 등에서 자원봉사와 위문공연 등을 하고 있다.

건강관리

2009년 보훈원 부설 전문요양센터를 개설하여 (보호인원 28명) 노인성 질환 등을 가진 장기 요양보험 수급자를 대상으로 맞춤형 케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2010년 보훈의원을 개설하여 전문의, 간호사, 물리치료를



1 보훈원

2 보훈복지타운

배치해 맞춤형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디지털주치의’ 비대면 의료 시범서비스를 도입하여 코로나19 확산에 대응, 보훈원·중앙보훈병원 간의 비대면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치매국가책임제 시행에 따라 고령의 보훈가족에게 치매 조기발견 및 치매 예방 증진을 위한 특화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보훈복지타운

고령화된 국가유공자의 복지욕구에 부응하고, 독신노인과 부부노인 전용이면서 무주택 국가유공자를 위해 1996년 수원시 장안구 조원동에 보훈기금 150억 원을 투입해 아파트 7개동에 독신세대 240세대, 부부세대 212세대, 총 452세대를 건립했다. 거동이 불편하여 병원 왕래가 어려운 입주민을 위해 중앙보훈병원 이용을 위한 셔틀버스를 운영하고 있으며, 건강상담실에 간호사가 상주하여 혈압 및 당뇨 등 기본적인 건강상태를 확인한다. 치매안심학교를 운영하고 세대 방문을 통한 심신 및 정서적 안정을 도모하는 등 입주민의 정신건강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다. 특히 독거세대 증가로 고령, 질병으로 인한 고독사 문제가 대두됨에 따라 ICT기술을 접목한 입소자 위험 사전경보 시스템을 도입, 활동 감지센서, 화재·가스 감지센서, 응급호출기를 설치하여 안전사고 예방 및 신속한 대응체계를 가동하고 있다.

보훈휴양원

미망인 및 국가유공자와 그 유가족들의 노후 여가선용과 안락한 휴식처를 제공하기 위해 1996년 충북 충주시에 보훈기금 70억 원을 투입해 60실 규모의 현대식 콘도형 3층 건물을 신축하고 국가유공자 및 그 유·가족 등이 최소한의 실비로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편의 및 부대시설로는 휴게실·노래방·슈퍼마켓·강당·조류농원·산책로 등이 있다. 또한 2004년과 2018년에 노후화된 시설을 리모델링해 쾌적한 환경을 조성했다. 주변에는 충주호, 월악산, 고수동굴 등 관광명소와 수려한 경관이 있어 편안한 휴양과 여가를 보낼 수 있다.

요양보호

국가보훈처는 2005년 국가유공자 노후복지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2006년부터 요양시설 건립을 추진했다. 2006년 3월 국가보훈처와 보훈공단이 위탁 약정을 체결하여 공단이 전담 수행하고 있다.

보훈공단은 2006년 5월부터 국가유공자 특성에 맞는 보훈요양시설 건립을 추진해 2008년 수원·광주, 2009년 김해, 2011년 대구, 2012년 대전, 2015년 남양주, 2020년 원주요양원을 개원했으며, 이어서 2022년 전주보훈요양원을 개원할 예정이다.

보훈요양원은 당초 노인성 질환자뿐만 아니라 보훈병원 병상회전율, 중상 이자의 요양 등을 고려하여 건립·운영 계획이 수립되었으나, 2008년 7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시행에 맞춰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 기관으로 지정받아 장기요양에 사용된 비용 중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부담 하는 비용과 본인 일부 부담금 등을 재원으로 확보하여 운영하고 있다.

요양원 시설은 일광욕실, 재활치료실, 요양실, 프로그램실, 치유정원, 중앙정원과 자동승강 옥조실 등이 완비된 최신시설로서 ‘나라사랑, 가족사랑, 자연사랑, 지역사랑’을 콘셉트로 한 인테리어 환경을 갖추고, 입소하는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들에게 정성을 다해 편안한 요양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운영프로그램은 정서지원 프로그램, 기능회복 프로그램, 건강관리 서비스, 영양서비스 등 각 요양원별로 운영프로그램을 다양화, 특성화하여 일반 요양 시설과 차별화했다. 정서 기능회복을 위한 미술치료·원예치료·레크리에이션·노래교실 등의 활동 프로그램과 생활요가, 발마사지, 침·뜸 서비스, 종이접기, 꽃복주머니 만들기, 태극기 그리기 등의 특별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어린이집 운영, 자원봉사자와 정기·특별·결연후원 등으로 지역사회와 함께 어우러진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다.

입소자의 다빈도질환은 치매, 뇌졸중, 고혈압, 파킨슨, 고관절 골절 순인데 건강 및 기능회복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다빈도질환자의 증상을 분석해 QI 활동을 통한 맞춤형 요양케어, 인지·신체기능 개선을 위한 재활 프로그램, IT

기반 인지훈련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전문요양실을 운영하여 영양·배설·호흡·상처 등 별도 처리가 필요한 1-2등급 입소자에게 집중의료·간호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감염병 확산에 따라 비대면 원격협진시스템을 운영하여 진료편익을 도모하고 있으며 ICT기술을 접목한 낙상위험조기발견시스템을 운영해 안전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다.

특히, 2009년부터 통합요양정보시스템인 Bohun-Care를 구축하여 요양 서비스를 표준화해 개개인에게 맞는 체계적인 맞춤형 요양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2021년 보훈공단의 통합 의료·복지 정보시스템 구축 일환으로 기존의 요양시스템을 재구축하여 보다 나은 과학화, 선진화된 요양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되었다.

정서지원 프로그램

복지 선진국형 설계를 반영한 일광욕실을 비롯해 친환경시설과 텃밭, 가족실 등 친환경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요양원 어르신과 지역사회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하는 ‘1·3세대 사회통합 HAPPY TOGETHER’ 프로그램은 핵가족화로 접촉기회가 적은 1세대(어르신)와 3세대(어린이)가 함께 참여해 어르신에게는 정서적 안정을, 어린이들에게는 경로효친 사상을 심어주며 지역사회 교류를 통한 사회참여 지원으로 어르신의 사회통합 활동을 돕고 있다.

인지·신체기능 개선 프로그램

장기요양등급 호전·유지를 위한 프로그램으로 IT인지훈련, 실버순환 재활, 스노젤렌, 보훈애국 멘토링 등을 운영하고 있다. 또한 국내 장기요양시설 최초로 신체·인지기능을 실시간 측정, 건강상태를 관리할 수 있는 첨단 재활장비를 도입해 인지능력, 근력, 자립보행 능력이 향상되었다.

치매 개선 프로그램

2015년부터 치매예방 및 두뇌 활성화를 위한 IT기반 인지 훈련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요양원 환경을 인지하고 방향감각을 갖도록 유도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증상을 완화시키고 있다.



심리안정치료실(스노젤렌 실)

향기, 아늑한 불빛, 새소리, 음악소리 등을 통해 오감을 자극하여 어르신들의 정서 안정에 도움을 주는 심리안정치료실을 운영하고 있다.

낙상방지시스템

퇴행성 질환 및 노화는 낙상사고 위험을 초래하여 낙상 고위험군 입소자 침상에 ICT 낙상 방지 매트를 설치하고 하지근력 정도에 따라 단계별 맞춤형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ICT 맞춤형 요양서비스

가상현실(VR), 스마트 빔, 스마트폰, 태블릿 PC 등 ICT 기술을 활용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스마트폰을 활용한 다양한 소통 채널을 강화하여 네이버 밴드, 영상통화, 카카오톡 등을 보호자, 입소자 및 요양원과 공유했다.

가상현실(VR)



- 디스플레이 디바이스
 - 입소자 시각에 맞는 가상세계 체험의 기회제공
 - 시각적 효과의 극대화
 - VR시네마 등 다양한 콘텐츠 제공

스마트 빔, 스마트폰



- 스마트폰을 활용한 소통채널 강화
 - 영상통화, 보훈통신
- 스마트 빔
 - 해피빈 지원을 통한 기능 보강
 - 고화질의 질적 서비스 제공

태블릿 PC



- ICT 활용 프로그램 운영
 - 수리, 언어영역 등 난이도 고려
- 치매 예방을 위한 인지치료
 - 낱말맞추기 등의 활동을 어르신 수준에 맞춰 제공

전문요양실

영양·배설·호흡·상처 등 별도처치가 필요한 1-2등급 입소자에게 집중의료·간호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전담간호인력, 영양보호사 등 전문요양팀을 운영하고 있으며 중증입소자에게는 촉탁 의사 방문진료 등 전문적인 돌봄을 실시하고 있다.

비접촉 안심면회

「만남애향」	•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보호자 면회 제한으로 시설 내 전면창 설치공간 활용, 비접촉 안심면회 국내 최초 실시(2020년 3,500건 실시) • 신문, 방송사 등 언론보도 및 EBS 다큐프라임 코로나 19 극복 우수사례 전국 공유
다자간 영상면회 실시	• 입소자 시력·청력 약화로 태블릿 PC 면회 한계 - 70인치 스마트TV 활용 가족 다자간 화상면회 실시 • 명절·생일 등 온 가족이 함께하는 다자간 영상면회 등 영상기기 활용 면회 3,700회 제공



1 만남애향
2 만남애향 SBS 8시 뉴스 보도



보훈의료복지통합서비스

보훈의료복지통합서비스는 환자 개인적 질환 특성에 맞게 예방에서 임종까지 필요 서비스를 케어매니저가 제시하고, 가정간호 등과 병원 진료를 연계시켜 과잉진료와 약물 오남용 방지를 통해 환자 건강에 기여하는 서비스이다. 고령사회에 진입한 선진국의 트렌드는 단일 서비스가 아니라 보건, 의료, 복지서비스가 결합된 복합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스템으로 변화되고 있다.

통합서비스 실행 체계도



보훈공단은 그동안 중앙보훈병원을 비롯한 전국 권역별 보훈의료망 구축, 보훈요양원 건립 및 위탁지정병원 확대 등으로 선진 의료복지기관 수준의 인프라를 구축했다.

그런 면에서 보훈공단은 의료복지 융합서비스가 가장 필요한 기관일 뿐만 아니라 이를 선도할 수 있는 최적 기관이기도 하다. 따라서 예방·치료·재활·요양·양로·주거·휴양·재가서비스에 이르는 보훈의료복지통합서비스 구축사업을 추진하게 되었다.

이와 같이 보훈의료복지통합서비스는 보훈공단의 미래비전이자, 고령사회 의료복지융합서비스 선도전략으로, 요체는 내원환자에 대한 치료를 넘어 진료대기자 및 퇴원자에 대한 적절한 상담서비스, 위탁병원 이용, 가정간호, 원격진료, 재활 및 요양서비스, 재가복지, 심리상담 카운슬링 등의 토털케어를 보훈병원을 통해 통합적으로 구현하자는 데서 출발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의료서비스만으로는 목적달성을 하기 어렵기 때문에 의료와 복지서비스를 복합적으로 또한 맞춤형으로 제공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는 장애나 고령으로 일상생활이 불편한 국가유공자를 위한 가옥구조 개선 및 편의시설 설치서비스를 통해 ‘찾아가는 복지서비스’로 가정에서 편안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건강상 장애요인을 예방하자는 것이다. 이는 또한 지금까지의 복지시설 운영에 국한된 제한된 복지에서 탈피해 보훈공단의 서비스 영역을 확장해주는 측면도 있다.

보훈의료복지통합서비스는 2009년부터 개인별 맞춤형 서비스를 점차 확대 제공하여 만족도가 향상되었으며, 특히 2020년 국내 최초로 건강복지 안전망 (IMSAFE) 전산시스템을 구축해 국가유공자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양방향 서비스 의뢰 시스템을 갖추었다. 건강복지안전망은 개인별 의료·사회적 상황에 따라 필요한 통합서비스를 자동 추천하여 지역사회와 서비스 계획을 연계하는 통합서비스 실행시스템으로 보훈가족의 특성에 맞추어 의료·복지·지역사회 서비스를 연계하여 예방에서 임종까지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보훈공단 고유의 고객중심 맞춤형 통합서비스 분야이다.

보훈복지사업비 지원

보훈공단 설립 이전부터 「원호대상자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설립된 원호단체후원회와 재단법인 원호장학회 등에서 수익사업을 통해 장학사업 등 복지사업을 수행했다.

1981년 보훈공단이 설립되면서 위 단체들은 해산되고, 보훈공단법 제6조와 부칙 제7조에 따라 위 단체에서 운영하던 재산과 수익사업을 승계 받아 국가유공자 등 단체지원, 국가유공자 자녀 학비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되었다.

사업내용은 보훈공단 수익금 중 일부를 국가보훈처의 보훈기금으로 전입하여, 보훈기금 사용계획에 따라 국가보훈처에서 집행하는 것과 보훈공단 자체 지원계획에 따라 보훈공단 수익금에서 자체적으로 집행하는 것으로 구분된다. 국가유공자 보훈복지사업의 일환으로 지원한 사업비는 1981년부터 2020년까지 국가보훈처의 보훈기금 전입지원 385억 5,000만 원과 보훈공단 자체 지원 187억 원을 합해 총 572억 5,000만 원을 지원했다.

제3편

부문별 보훈공단 40년

- 제 1 장 추진체계
- 제 2 장 경영관리
- 제 3 장 의료지원사업
- 제 4 장 복지지원사업
- 제 5 장 보훈의료복지통합서비스
- 제 6 장 보훈교육연구원
- 제 7 장 운영관리
- 제 8 장 사회공헌활동
- 제 9 장 감사제도

제 1 장 추진체계

제 1 절 법규

- 1 보훈공단법
- 2 정관

제 2 절 조직체계

- 1 이사회
- 2 조직관리

제 3 절 예산관리

제 4 절 정보화 시스템

제 1 절

법규 보훈공단법

「국가보훈기본법」을 기본으로 국가유공자 예우 등에 관한 법률 등 보훈관계 법령에 근거하여 국가유공자 복지증진을 목적으로 제정되었다. 그동안 보훈 공단법은 국가유공자 복지증진 사업을 합리적·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공공기관으로서 사회적 여건과 보훈정책 변화를 반영하여 개정했다.

보훈공단 설립 초기에는 보훈정책 변화와 보훈관계법령 개정과 연계해 명칭과 용어변경 적용대상자 등을 반영하여 보훈공단법을 개정했다. 특히, 2001년 보훈공단의 주요 기능인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의료사업 기능 강화 일환으로 보훈공단 명칭이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으로 변경되고 상임이사제가 도입됨으로써 책임경영체제를 강화했으며, 또한 원활한 의료·복지사업에 소요되는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복권판매사업 수행근거를 마련했다.

2008년 공공기관의 대국민 서비스 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령이 공포됨에 따라 이사회와 임원에 대한 관련 사항을 정비하여 공공기관으로서 경영합리화와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했다. 2015년 보훈공단의 주요사업 범위를 구체화했고 2017년 보훈공단 상임이사의 임명권자를 국가보훈처장에서 이사장으로 변경하여 이사장 중심의 책임경영체제가 정착하는 계기가 되었다.

공단법 제정(1981.4.4 법률 제3419호)

보훈공단법은 국가유공자에 대한 진료와 중상이자에 대한 의학적·정신적 재활 및 직업 재활을 행하여 자립정착을 도모하고,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제정되었다. 보훈공단법은 공단 설립과 사업운영에 관한 개별법으로써 법인 성격(특수법인), 주요사업 내용, 보훈병원 운영, 이사회, 보상금 지급, 예·결산 및 회계 관리, 국유재산 귀속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전문29조 및 부칙9조로 제정되었다.

변천과정

구분	주요내용
1984. 8. 2 (법률 제3742호)	1984년 국가보훈처가 원호관계 법률 중 기능과 성격이 유사한 「군사원호보상법」, 「국가유공자 및 월남귀순자 특별원호법」 등 7개 법률을 흡수, 통합하고 법률상 미비점 등을 보완하여 국가유공자 예우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함에 따라 보훈공단법을 개정하여, 명칭을 한국원호복지공단에서 한국보훈복지공단으로 변경하고 원호대상자 호칭을 국가유공자 등으로 변경했다. 이로써 보훈공단법은 국가와 민족을 위해 희생한 국가유공자의 명칭과 범위를 새롭게 정립하고, 물질적 지원뿐만 아니라 정신적 예우와 영예로운 생활을 보장하는 보훈정책 방향을 반영하게 되었다.
1991. 3. 8 (법률 제4366호)	보훈공단은 2차 보훈공단법 개정을 통해 각종 보훈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기 위해 보훈기금의 수익사업 개발 필요에 따라 보훈공단이 보훈기금 증식사업을 위탁 수행할 수 있도록 보훈공단 사업내용을 확대 변경했으며, 보훈공단 이사진 구성을 경제기획원·보건사회부 소속 2급 이상 공무원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 각 1인과 국가보훈처의 2급 이상 공무원 중 국가보훈처장이 임명하는 자 3인으로 변경하여 국가보훈처의 이사회를 통한 관리감독 기능을 강화했다. 또한 이익금 처리대상을 보훈병원 등의 자본적 투자에 우선 충당하는 것으로 조정했다. 특히 국유재산인 광주병원 부지의 보훈공단 귀속을 명시함으로써 행정재산 위에 영구시설물의 건축을 금지하고 있는 「국유재산법」 규정에 따라 등기이전이 어려운 문제점을 해소했다.
1999. 1. 21 (법률 제5673호)	IMF 이후 공공기관에 대한 경영 투명성과 전문성 확보 및 규제 완화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증대됨에 따라 보훈공단법을 민간인 이사로 선임할 수 있도록 개정했으며, 국가유공자단체 등 관련단체 임원을 이사로 선임하게 함으로써 직접적인 지원대상자의 의견을 반영토록 했다. 그리고 보훈공단의 이사가 되는 공무원의 직급을 하향 조정하고, 사장·보훈병원장·부사장·감사를 제외하고는 비상근으로 명시했다.
2001. 1. 16 (법률 제6372호)	보훈공단 집행부서(사장)와 의결기구(당연직 이사장 국가보훈처 차장 겸직)의 이원화된 조직체계의 일원화를 통해 책임경영체제 강화, 보훈공단의 주된 기능인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의료사업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보훈공단의 명칭을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으로 변경하고, 서울보훈병원장이 관장하던 지방보훈병원을 보훈공단이 직접 관장하는 독립된 지역별 보훈병원 체제로 보훈공단법을 개정했다. 또한 국가보훈처 차장이 겸직하던 보훈공단 이사장을 국가보훈처장 제청으로 대통령 임명하도록 하고 보훈공단의 사장제를 폐지해, 보훈공단 이사장이 보훈공단을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하는 상임이사장제를 도입함으로써 자율·책임 경영을 강화했다. 자율·책임 경영체제 확립을 위해 4인 이내 상임이사를 두고 업무를 분장했다. 특히 보훈공단의 사업범위에 복권발행 판매 사업을 추가함으로써 의료·복지사업의 소요재원을 원활하게 조달할 수 있게 되었다.

구분	주요내용
2006. 10. 4 (법률 제8052호)	신규사업에 대한 검증장치 미흡에 따른 무리한 신규사업추진 실패로 대외적 보훈공단 위상이 손상 받게 됨에 따라 대표권 제한을 통한 지배구조 개선과 고령 국가유공자에 대한 주거안정·자립지원 등 노후복지대책을 위한 주택사업을 할 수 있게 보훈공단법을 개정했다. 이에 따라 대표권 제한 조항을 신설해 보훈공단의 이익과 이사장의 이익이 상반되는 사항에 관해서는 이사장이 보훈공단을 대표하지 못하도록 하고 감사가 보훈공단을 대표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지배구조를 개선했으며, 감사의 임기를 2년에서 3년 조정하는 등 제도상 미비점을 보완했다. 보훈공단이 국가유공자 등을 위해 주택사업을 할 수 있도록 보훈공단 사업 범위를 확대하고 주택사업에 필요한 국유지 및 공공택지를 공급받을 수 있는 특례조항을 마련했다.
2008. 2. 29 (법률 제8852호)	2000년대 이후 공공기관에 대한 경영 효율성, 투명성 제고 및 대국민 서비스의 질적 향상 등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증대됨에 따라 정부는 「공공기관 운영에 대한 기본법」 제정을 했다. 이에 보훈공단은 보훈공단임원, 이사회 등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고 국민이 법 문장을 쉽게 이해하도록 어려운 용어를 순화하는 등 미비점을 개선·보완했는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보훈공단의 이사장, 이사 및 감사는 임원추천위원회를 거치도록 하여 임용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고 이사와 감사의 임기를 각각 2년으로 하되 직무수행 결과에 따라 1년 단위로 연임할 수 있도록 하여 경영 책임성을 강화했다. 둘째, 감사 임명권을 이사장 제청으로 국가보훈처장 임명에서 기획재정부 장관 제청으로 대통령 임명으로 변경하여 감사의 독립성을 보장했다. 셋째, 이사회 회의는 출석이사 과반수 찬성에서 재적이사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는 것으로 이사회 의결 및 심의사항을 보완 정비했다. 넷째, 보훈공단 예산안과 운영계획을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국가보훈처장에게 제출토록 하고, 결산서의 제출 시기를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로 변경했다. 다섯째, 법 문장을 원칙적으로 한글로 적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를 정비하여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도록 정비했다.
2015. 2. 3 (법률 제13200호)	보훈공단의 주요사업 범위를 구체화하고, 고엽제후유증 등 검진비 과목 변경에 따라 이를 보상금 지급대상에 포함하며, 국회 법정형 정비자문위원회의 징역형 대비 적정 벌금액 기준 제시 권고안에 따라 보훈공단 사업에 관한 각종 조사 등의 감독업무를 방해하거나 업무상 취득한 비밀을 누설한 자에 대한 벌금형을 현실에 맞게 상향 조정했다.
2017. 10. 31 (법률 제15035호)	보훈공단 상임이사의 임명권자를 국가보훈처장에서 이사장으로 변경했으며 비상임이사는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임원추천위원회가 복수로 추천한 사람 중에서 국가보훈처장이 임명하도록 했다. 또한 보훈공단은 공인회계사법에 따른 회계법인 또는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사반 중에서 선임한 회계감사인으로부터 회계감사를 받도록 하고, 결산의 확정 시기를 3월 31일로 명확히 하는 등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맞추어 임원에 대한 임명절차와 결산 관련 절차를 정비했다.
2020. 3. 24 (법률 제17120호)	보훈공단이 진료, 건강관리 등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 공공기관, 의료인, 의료기관의 장, 의료기관 종사자에게 국가유공자 등의 진료기록 등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타 법률 개정 등에 따른 개정

보훈공단법은 보훈관계법령 및 정부조직법 등 관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함으로써 법체계 일관성을 유지하여 왔다. 타법률 개정에 따른 보훈공단법 개정 사항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구분	주요내용
1993. 6. 11 (법률 제4568호)	「국가유공자 예우 등에 관한 법률」 및 「월남귀순용사 특별보상법」의 적용 대상자를 「국가유공자 예우 등에 관한 법률」 적용대상자로 개정
1994. 12. 31 (법률 제4854호)	보훈기금 내에 설정된 자금 중 대간첩작전 보상대책자금 지원금은 대부지원금과 통폐합, 그 명칭을 보상자금으로 변경
1994. 12. 31 (법률 제4856호)	「국가유공자 예우 등에 관한 법률」을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과 「국가유공자 예우 등에 관한 법률」로 개정
1997. 1. 13 (법률 제5291호)	「국가유공자 예우 등에 관한 법률」을 「국가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로 변경
1997. 12. 13 (법률 제5454호)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라 정부부처 명칭 중 경제기획원·보건사회부소관을 재정경제원·보건복지부소관으로 개정
2003. 5. 29 (법률 제6921호)	「보훈기금법」 개정에 따라 보훈공단 부칙 제4조 제2항 중 ‘제4조 및 제5조’를 ‘제4조’로 ‘재산과 자산 및 부채는’을 ‘재산은’으로 변경
2004. 1. 20 (법률 제7106호)	「보훈기금법」 개정에 따라 보훈공단법 제21조 중 ‘보상자금’을 ‘국가유공자 지원자금’으로 개정
2004. 1. 29 (법률 제7159호)	10개 복권발행기관을 국무총리 소속 복권위원회로 일원화하는 「복권 및 복권기금법」 개정에 따라 보훈공단법 관련 규정 개정
2005. 3. 31 (법률 제7428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로 제정에 따른 보훈공단법 중 제10조 제2호 중 ‘파산자’를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 개정
2005. 3. 31 (법률 제7486호)	「5·18민주 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등 보훈관계 법률 제·개정에 따라 보훈공단법 적용대상자 추가 등 미비점 개선·보완
2005. 12. 29 (법률 제7796호)	「국가공무원법」 개정에 따라 보훈공단법 제8조 제2항 제1호 중 ‘3급 이상 공무원’을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개정
2006. 10. 4 (법률 제8052호)	「특수임무수행자 지원에 관한 법률」을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로 변경에 따라 보훈공단법 관련 조항을 개정
2007. 7. 27 (법률 제8567호)	비밀누설의 금지 및 유사명칭 사용금지 등에 관한 규정 신설로 미비 규정을 보완하여 보훈공단 업무수행의 공공성·공정성 확보
2008. 2. 29 (법률 제8852호)	정부조직법 전부개정에 따른 부처명칭 변경에 따라 보훈공단법 제8조 제2항 제2호 중 ‘기획예산처’를 ‘기획재정부’로 개정
2011. 8. 4 (법률 제11029호)	보훈공단법 제1조 및 제16조 중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을 각각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로 개정
2011. 9. 15 (법률 제11041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보훈공단법 제16조 중 ‘진료와 정양(靜養)’을 ‘진료’로, ‘진료비와 정양비’를 ‘진료비’로 개정
2011. 9. 15 (법률 제11042호)	보훈공단법 제1조 및 16조 중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로 개정
2015. 8. 28 (법률 제13499호)	임대주택법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으로 변경
2015. 12. 22 (법률 제13605호)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을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로 변경
2015. 12. 22 (법률 제13609호)	「참전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을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로 변경
2017. 10. 31 (법률 제15022호)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2021. 1. 5 (법률 제17883호)	「5·18민주 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을 「5·18민주 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로 변경

정관

보훈공단 정관은 보훈공단법의 제정·공포에 따라 발족된 한국원호복지공단 설립위원회에 의해 제정되었다. 정관은 보훈공단법에서 정한 목적,명칭,이사회 운영,임직원,조직,자본금 및 회계,정관변경과 공고 등의 사항을 기재함으로써 보훈공단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했다.

정관은 총칙·이사회·임원·조직과 임무·직원과 겸직교원·파견공무원·사업·재산과 회계·보칙 등 9장 63조로 제정했으며 경영여건 변화에 따른 새로운 업무 및 사업운영의 근거를 마련하고, 보훈공단법·보훈관련법규·공공기관 관련 입법사항을 반영하여 변경되어 왔다.

보훈공단 조직 및 사업운영 체계 관련 변경

구분	주요내용
1992. 4. 2	보훈병원 관리체계 개선을 위해 보훈병원장 산하에 기획조정실(상무급)을 신설, 재활의료부를 삭제
1997. 8. 6	의료사업본부장 삭제, 병원장이 의료사업에 관하여 사장을 보좌하도록 변경
2002. 5. 29	파견공무원의 보훈공단 파견기간을 국가공무원법 기준에 맞게 1년 이내에서 2년 이내로 변경
2006. 9. 13	국가유공자 고령화에 따라 보훈병원 및 노인요양시설 간병인 수요대처 등을 위해 보훈공단 사업범위에 가사·간병서비스 전문 인력 양성과 평생교육시설 설치·운영 추가
2012. 3. 7	중앙보훈병원 주차장 운영사업이 임대 운영 계약에서 병원에서 직영하는 방식으로 전환됨에 따라, 보훈공단 사업범위에 주차장 운영사업 추가
2012. 6. 14	당연직 비상임이사 대리출석 자격요건을 소속 과장급 이상에서 소속 공무원으로 완화
2012. 11. 27	조문 제목은 소속기구로 되어 있으나 내용은 보훈병원에 관한 사항으로 한정되어 있어 제목과 내용이 일치하도록 교육, 복지, 수익사업 해당기구 추가
2013. 7. 5	임원의 의원면직에 대한 제한 및 보훈공단 소속기구에 위탁병원관리단 추가
2014. 1. 9	본사 원주혁신도시 이전에 따른 소재지 변경
2018. 6. 5	외부위원 선임 및 임원의 연임에 관한 사항에 상임이사추천위원회 내용 추가, 상임이사 임명절차 변경 및 상임이사추천위원회 운영에 대한 근거 마련

보훈공단법 등 관계법령 개정사항 반영 변경

구분	주요내용
1984. 12. 8	• 「국가유공자 예우 등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법규 명칭 및 용어 변경 - 한국원호복지공단정관을 한국보훈복지공단정관으로, 원호대상자를 국가유공자 등으로, 원호병원을 보훈병원으로 - 원호처장, 원호처차장, 원호병원장, 원호처 기획관리실장을 국가보훈처장, 국가보훈처차장, 보훈병원장, 국가보훈처 기획관리실장으로 - 상이군경을 전상군경으로 호칭 용어 변경
1991. 4. 19	• 「한국보훈복지공단법」(1991.3.8 법률 제4366호) 및 동법 시행령 개정 (1991.4.2 대통령령 제13341호)에 따라 변경 - 보훈공단비상임 이사진을 국가보훈처의 2급 이상 공무원 중 국가보훈처장이 임명하는 이사 3인과 경제기획원 예산실장, 보건사회부 기획관리실장으로 변경 - 잉여금 처리 시 보훈병원 등의 자본적 투자에 우선 충당 - 사업범위에 국가보훈처장이 위탁하는 보훈기금 증식사업을 추가
1999. 3. 12	• 「한국보훈복지공단법」(1999.1.21 법률 제5673호) 및 동법 시행령이 개정 (1999.3.3 대통령령 제176175호)됨에 따라 변경 - 보훈공단의 이사진 중 비상임이사를 국가보훈처의 기획관리업무 또는 보훈공단업무를 담당하는 국장 또는 이에 상당하는 담당관 각 1인, 예산청의 사회분야 예산업무를 담당하는 국장, 보훈공단의 사업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와 국가유공자 단체 등 관련단체 임원 중 국가보훈처장이 임명하는 자 각 1인으로 변경 - 임원들 중 사장, 보훈병원장, 부사장 및 감사를 제외한 임원은 비상근으로 구분하는 것으로 변경
2001. 2. 6	• 「한국보훈복지공단법」(2001.1.16 법률 제6372호) 및 동법 시행령이 개정 (2001.2.3 대통령령 제17124호)됨에 따라 변경 - 보훈공단명칭 및 정관 명칭 : 한국보훈복지공단,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 사장제를 폐지 이사장제로 하고, 이사장이 보훈공단을 대표 - 이사장은 국가보훈처장이 제청 대통령이 임면, 상임이사 및 감사는 이사장이 제청 국가보훈처장이 임면 - 서울병원장이 관장하던 지방병원을 이사장이 직접 관장하고, 병원별 독립 경영체제로 전환 - 사업별 자율 책임경영체제를 위해 4인 이내의 상임이사를 두고 직제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를 분장 - 보훈공단의 사업범위에 복권발행 판매사업을 추가하고, 참전군인 등 지원기금 관리를 삭제 - 기타 임원 해임 및 의약분업에 따른 원외처방 약제비 청구 지급 조항 신설

구분	주요내용
2005. 6. 1	• 「정부산하기관 관리기본법」(2004년 제정)에서 정한 기관장의 선임에 관한 사항과 보훈공단법 개정(2005. 3)에 따른 일부 이사의 임기 조정 및 사업범위 확대 반영 - 이사장의 임면 시 이사장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도록 하고 추천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별도로 정함 - 임원 중 국가유공자 등 관련단체 임원인 이사의 임기를 현행 3년에서 해당직위 재임기간으로 변경 - 보훈공단의 사업범위에 제대군인의 사회복귀 지원, 참전군인의 해외파병으로 인한 질병의 조사·연구 분야를 추가 - 기타 가료를 진료료, 가료비를 진료비로 변경하는 등 일부 용어를 개정, 법규에 맞게 변경
2006. 11. 29	• 임원의 구성, 임면절차, 임기 및 사업범위로 주택사업 추가 등에 대한 보훈공단법 개정 (2006.10.4 법률 제8052호) 사항 반영 - 보훈공단의 업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1명을 추가하여, 임원구성을 11인에서 12인으로 변경하고, 임명직 비상임이사 및 감사 임면절차를 이사장 제청, 국가보훈처장 임면에서 국가보훈처장 임면으로 개선, 감사의 임기를 임원의 임기와 동일하게 2년에서 3년으로 조정 - 보훈공단의 이익과 이사장의 이익이 상반되는 사항의 경우 이사장이 보훈공단을 대표하지 못하고, 감사가 보훈공단을 대표하도록 대표권 제한 규정 신설 - 국가유공자 등을 위한 주택의 건설·공급·임대사업, 택지의 취득을 보훈공단 사업범위에 추가로 신설
2007. 7. 1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2007.1.19)됨에 따라 정관을 법률에 부합하도록 개정하고 법제처 한글전용화사업에 따라 한글 표기
2010. 3. 31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 개정(2009.12.29)됨에 따라 개정사항 반영 - 상임이사의 임명권자를 국가보훈처장에서 이사장으로 변경하고, 비상임이사 선임절차 중 기획재정부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절차 삭제 - 임명권자 변경에 따라 일부 중복조항(제26조 제3항)을 삭제하고 해임대상에 비상임이사를 추가하며 성과저조 상임이사 해임권을 조정하고 해임건의 대상에서 비상임이사를 삭제
2015. 7. 8	•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사업범위 일부개정에 따라 변경 - 목적사업에 국가유공자 등의 건강관리 추가 - 주택개·보수를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변경 등
2017. 9. 28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등 개정에 따른 조문 정비 - 결산서, 중장기 경영목표 및 예산안 제출기한에 맞추어 정기이사회 일정 현행화 등
2019. 12. 31	• 공기업·준정부기관 회계사무규칙 및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시행령에 따른 조문 정비 - 기본재산 항목 중 정부지원금으로 취득한 자산 항목 삭제 - 보상금의 요구에 관한 조문을 보훈공단법 시행령에 맞춰 정비 등

제 2 절

조직체계 이사회

이사회는 보훈공단정책에 관한 최고 의결기구로서 경영목표 설정, 조직운영 체계 정비, 신규사업 계획, 예산편성, 중요자산 취득 등과 같은 중요 핵심 사안을 의결한다. 그동안 이사회는 사회 경제적 환경변화와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여 이사회 이사진 및 운영방식 등에 대해 개편함으로써 이사진의 전문성과 운영 효율성을 향상시켜 보훈공단 조직과 업무발전에 기여했다.

-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 조직에 관한 사항
- 경영목표, 사업계획,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 중요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사항
- 각종 규정의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
- 잉여금 처분 및 결손금의 처리에 관한 사항
- 중요한 소송 및 화해에 관한 사항
- 장기차입금의 차입 및 그 상환계획에 관한 사항
- 임원의 보수에 관한 사항 및 급여성 복리후생비 신설·변경에 관한 사항
- 임원추천위원회 및 상임이사추천위원회의 외부임원 선임
- 이사장 경영목표 및 성과급 등 계약안 작성에 관한 사항
- 기타 이사장이 심의·의결을 요청하거나 이사회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이사진 변천

창립 이사진

설립 초기 이사회는 원호처 차장이 이사장을 겸직하고 보훈공단 사장은 이사로 참여하는 체제로서, 보훈공단 업무와 관련된 정부부처의 고위공무원 다수가 당연직 이사로 참여한 가운데 총 9인으로 구성되었다. 이는 신설 공공기관으로서 조기정착하기 위해 정부부처와의 원활한 업무협의를 예산 및 인력 등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했기 때문이며, 이러한 이사진의 지원과 협조로 수익사업 확대, 지방 보훈병원 신설과 같은 성과를 거두었다.

이사장	상임(3)	비상임(당연직, 5)
원호처 차장	•보훈공단사장 •원호병원장 •보훈공단부사장	•경제기획원·국방부·보건사회부·원호처 및 조달청소속 2급 이상 공무원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 각 1인 •경제기획원 예산실장, 국방부 조달본부 차장, 보건사회부 기획관리실장, 원호처 기획관리실장, 조달청 차장

제1차 개편(1991.3.8)

창립이사회 이사진이 5개 정부부처 고위공무원 중 보훈공단 업무와 연관성이 다소 낮은 정부부처 대신에 국가보훈처 소속 2급 이상 공무원을 추가하는 것으로 조정하여 이사회의 보훈업무 전문성과 국가보훈처의 관리감독 기능을 강화했다.

이사장	상임(3)	비상임(당연직, 5)
국가보훈처 차장	•보훈공단사장 •보훈병원장 •보훈공단부사장	•경제기획원·보건사회부소속 2급 이상 공무원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 각 1인과 국가보훈처의 2급 이상 공무원 중 국가보훈처장이 임명하는 자 3인 •경제기획원 예산실장, 보건사회부 기획관리관, 국가보훈처 기획관리실장·보훈국장·운영국장



정기이사회 모습, 김종성 당시 국가보훈처 차장 (공단 12대 이사장)이 이사장을 겸임하고 있는 모습

제2차 개편(1999.1.21)

보훈공단 이사진이 보훈공단 임원 및 고위공무원 만으로 구성되어, 의료분야 등에 대한 전문성 부족과 국가유공자 의견 반영기능 부재의 문제점이 대두되었다. 특히 IMF 이후 경영에 대한 투명성과 전문성 확보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증대됨에 따라,

당연직 공무원 이사를 줄이고 민간인을 이사로 선임할 수 있도록 이사회를 개편했다. 이로써 이사진에 ‘보훈공단 사업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와 ‘국가유공단체 등 관련단체’를 포함시킴으로써 전문성 부족 문제를 해소하고 국가유공자의 의견을 대표할 수 있게 되었다.

이사장	상임(3)	비상임 5(당연직 공무원 3, 외부 민간인 2)
국가 보훈처 차장	•보훈공단사장 •보훈병원장 •보훈공단부사장	•국가보훈처소속 3급 이상 공무원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 2인 및 예산청소속 3급 이상 공무원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 1인 : 국가보훈처 기획관·복지사업국장, 기획예산처 사회예산심의관 •보훈공단의 사업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와 국가유공자단체 등 관련단체 임원 중 국가보훈처장이 임명하는 자 각 1인

제3차 개편(2001.1.16)

최고 의결기구인 이사회를 대표하는 이사장을 국가보훈처 차장이 당연직으로 겸임하는 것이 공공기관의 독립성, 자율 및 책임경영 강화정책에 부합되지 않아 이사장 중심의 책임경영체제 정착을 위해 사장제를 폐지하고 이사장이 집행조직과 이사회를 대표하도록 이사회를 개편했다.

- 국가보훈처 차장이 당연직으로 겸직하던 이사장을 국가보훈처장 제청, 대통령이 임명하는 상임이사장제로 전환하고 이사장이 보훈공단을 대표하도록 했다.
- 상근이사 역할을 수행하던 사장, 부사장, 보훈병원장을 폐지하고, 4인 이내 상임이사를 이사장 제청으로 국가보훈처장이 임명토록 했다.
- 상임이사는 사업별로 상임이사를 두어 상임이사 책임경영체제를 강화했다.

이사장	상임(4)	비상임 5(당연직 공무원 3, 외부 민간인 2)
보훈 공단 이사장	•기획이사 •의료이사 •복지이사 •사업이사	•국가보훈처소속 3급 이상 공무원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 2인 및 예산청소속 3급 이상 공무원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 1인:국가보훈처 기획관·복지사업국장, 기획예산처 사회예산심의관 •보훈공단의 사업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와 국가유공자단체 등 관련단체 임원중 국가보훈처장이 임명하는 자 각 1인

제4차 개편(2006.3.13)

보훈공단 조직이 사업별 조직에서 기능별 조직으로 개편됨에 따라 사업별 상임이사에서 기능별 상임이사로 개편하고 이사별 업무분장을 조정했다.

이사장	상임(4)	비상임 5(당연직 공무원 3, 외부 민간인 2)
보훈 공단 이사장	•기획이사 •관리이사 •복지이사 •사업이사	•국가보훈처소속 3급 이상 공무원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 2인 및 예산청소속 3급 이상 공무원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 1인:국가보훈처 기획관·복지사업국장, 기획예산처 사회예산심의관 •보훈공단의 사업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와 국가유공자단체 등 관련단체 임원중 국가보훈처장이 임명하는 자 각 1인

제5차 개편(2006.11.29)

상임이사장이 집행조직 및 이사회를 모두 대표함에 따라 상임이사장에 대한 대표권 제한 필요성이 제기되어 외부 민간인 비상임이사를 2명에서 3명으로 확대하여 이사회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외부민간인 비상임이사 임명을 이사장 제청 없이 국가보훈처장이 직접 임명하도록 임명절차를 제도화함으로써 보훈공단 지배구조를 확립하는 방향으로 이사회를 개편했다.

이사장	상임(4)	비상임 6(당연직 공무원 3, 외부 민간인 3)
보훈 공단 이사장	•기획이사 •관리이사 •복지이사 •사업이사	•국가보훈처소속 3급 이상 공무원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 2인 및 예산청소속 3급 이상 공무원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 1인:국가보훈처 기획관·복지사업국장, 기획예산처 사회예산심의관 •보훈공단의 사업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2인 •국가유공자단체 등 관련단체 임원 중 1인

제6차 이사회 개편(2007.1.19)

조직체계가 기획 및 관리의 기능별 상임이사로 운영됨에 따라 부서 간 업무중복 등의 문제점으로 업무추진의 효율성이 저하되어 조직체계를 사업본부제로 전환했다. 이에 이사진도 본부장으로 개편했다.

이사장	상임(4)	비상임 6(당연직 공무원 3, 외부 민간인 3)
보훈 공단 이사장	• 기획본부장 • 의료사업본부장 • 복지사업본부장 • 수익사업본부장	• 국가보훈처소속 3급 이상 공무원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 2인 및 예산청소속 3급 이상 공무원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 1인: 국가보훈처 기획 관리관·복지사업국장, 기획예산처 사회예산심의관 • 보훈공단의 사업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2인 • 국가유공자단체 등 관련단체 임원 중 1인

제7차 이사회 개편(2009.3.30)

정부의 공공기관 경영합리화 계획으로 공단 조직 및 운영인력을 감축하게 됨에 따라 수익사업본부장을 폐지하고 복지사업본부장이 수익사업 분야를 통합 관리하는 것으로 이사진을 개편했다.

이사장	상임(3)	비상임 6(당연직 공무원 3, 외부 민간인 3)
보훈 공단 이사장	• 경영지원본부장 • 의료사업본부장 • 복지사업본부장	• 국가보훈처소속 3급 이상 공무원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 2인 및 예산청소속 3급 이상 공무원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 1인: 국가보훈처 기획 관리관·복지사업국장, 기획예산처 사회예산심의관 • 보훈공단의 사업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2인 • 국가유공자단체 등 관련단체 임원 중 1인

제8차 이사회 개편(2012.2.27)

현 보훈공단 이사장제에 부합하도록 본부기구 및 본부장 명칭을 경영지원 본부장을 기획이사, 의료사업본부장을 의료이사, 복지사업본부장을 복지의사로 개편했다.

이사장	상임(3)	비상임 6(당연직 공무원 3, 외부 민간인 3)
보훈 공단 이사장	• 기획이사 • 의료이사 • 복지이사	• 국가보훈처소속 3급 이상 공무원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 2인 및 예산청소속 3급 이상 공무원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 1인: 국가보훈처 기획 조정관·복지증진국장, 기획재정부 사회예산심의관 • 보훈공단의 사업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2인 • 국가유공자단체 등 관련단체 임원 중 1인

제9차 이사회 개편(2012.10.29)

보훈공단의 미션, 비전과 중장기 경영전략에 부합하는 능동적이고 효율적인 조직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유사업무통합 후 기능별로 분류 재설계하여 본사의 기획관리력 강화와 의료·복지통합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스템으로 개편했다. 이에 본사조직에 사업별로 운영 중인 상임이사를 기능중심으로 전환하여 기획·의료·복지이사를 기획·관리·사업이사로 개편했다.

이사장	상임(3)	비상임 6(당연직 공무원 3, 외부 민간인 3)
보훈 공단 이사장	• 기획이사 • 관리이사 • 사업이사	• 국가보훈처소속 3급 이상 공무원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 2인 및 예산청소속 3급 이상 공무원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 1인: 국가보훈처 기획 조정관·복지증진국장, 기획재정부 사회예산심의관 • 보훈공단의 사업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2인 • 국가유공자단체 등 관련단체 임원 중 1인

2012년 정기 이사회 모습



조직관리

조직은 조직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조직구성원에게 업무와 기능을 분담시키고, 업무와 기능이 유효하게 이루어지도록 통합하고 협동하는 시스템으로 성과와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구조로 설계되고 운영된다.

보훈공단은 일반 기업조직과는 달리 정부의 정책 사업을 위탁받아 수행하는 공공기관으로서 행정조직의 특성, 전문성과 기업조직의 특성을 동시에 갖고 있다. 따라서 보훈공단 조직은 성과와 효율성 향상을 중시하면서, 설립목적인 국가유공자 복지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제반 기능과 역할 그리고 보훈정책의 방향을 반영할 수 있는 최적의 조직시스템을 구축, 운영하여야 한다. 그동안 국가유공자의 수준 높은 서비스 요구와 수요 팽창에 따라 의료·복지시설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확충하는 과정에서 운영조직을 확대 또는 신규로 설치해 왔으며, 또한 정부의 공공기관의 경영 효율화 방침에 따라 조직을 재조정해 조직운영의 합리성과 효율성을 제고했다. 특히, 보훈공단의 新비전 ‘공공의료·복지를 선도하는 최고의 파트너’ 실행 일환으로 보훈병원 재활센터 확충 등 의료인프라 공공성 강화, 요양서비스 사각지대 없는 지역 균형적 요양체계 구축, 대내외 환경변화에 신속가능한 현장중심 조직 운영,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조직·인력 강화 및 감염병 등 안전 기능 강화를 위한 전담인력 지속확보 등 조직 및 인력운영체계를 재정립하여 합리적인 운영체계를 구축했다.

조직의 변천

1981년 설립 당시에는 보훈공단 설립목적인 의료·복지사업에 소요되는 재원이 근본적으로 부족하여 자체적으로 수익원 창출에 역점을 둘 수밖에 없는 여건이기에 조직체계도 본사 사장 밑에 영업상무 및 특수사업소와 생산공장을 두어 국가보훈처에서 인수한 중·소규모 제조업 운영과 신규수익사업 개발에 역점을 두었다. 2000년대에 이르러 국가유공자 고령화 추세로 의료수요와 복지욕구가 증가함에 따라 보훈병원이 대폭 확충되었고 복지시설건립이 착수됨에 따라 기존의 운영체계에서 탈피해 의료·복지 중심의 조직체계로 전환할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이에 2001년 책임경영체제 강화 일환으로

이사장 중심의 상임이사체제로 개편되었으며 그동안 성장기반 구축에 기여한 수익사업이 종료되면서 2012년 효율적인 기능 중심의 조직체계로 개편하여 오늘에 이르렀다. 1981년 설립 당시 3상무 5부 1실 12개과의 본사조직과 산하기구로 1보훈병원, 3수익사업소에 불과했으나, 2020년 현재 본사의 경우 3이사 9실 19부로, 산하기구는 6보훈병원, 11복지시설, 교육연구원으로 조직 규모가 크게 확장되었다.

1981년

보훈공단 설립 당시 조직은 본사에 사장, 부사장, 감사 등 임원 3인과 5부 1실 12개과를 두고 산하 소속기구로 원호병원과 인천사업소, 수원사업소, 특수사업소 등 3개 사업소를 두었다. 그리고 원호병원에 부원장, 관리실, 진료부, 재활의료부, 약제부, 간호부, 재활교육소를 두었다.

1982년

경영관리의 효율화를 통한 경영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본사 및 사업소의 기능을 개편했다. 본사에 감사실을 신설하고 기획예산과, 개발1과, 개발2과를 예산과, 개발과, 무역과로, 특수사업소를 특수사업본부로 각각 개편했으며 그해 7월 신규 수익사업이 개발됨에 따라 건설지원사업소, 합성수지사업소, 반월편직사업소를 신설했다. 특수사업본부 산하에 SOFA면세품양수영업소, 수원사업소 산하에 반월기계공장, 본사 기획부의 예산과를 기획예산과로 명칭을 변경했다.

1983년

원호병원이 신축 이전됨에 따라 원호병원의 소속기구를 개편했다. 관리실장 및 부원장 직급을 별정직 1급에서 별정직 1,2급으로 조정하고, 관리실에 관리부와 원무2과를 신설했으며 시설과를 관리과로 명칭을 변경했다. 또한 진료부서의 진료부원장, 제2정형외과를 폐지하고 순환기내과, 신경과, 동위원소과를 신설했고 간호부 및 약제부를 폐지하고 간호과와 약제과로 변경했다. 또한 특수사업본부 소속 SOFA영업소를 SOFA양수품판매사업소로 승격함에 따라 보훈공단 설립 당시 2개소에 불과하던 사업소가 7개소로 확장되었다. 이처럼 수익사업의 규모가 확대되고 사업종목이 다양화됨에 따라 1983년 7월 조직의

활성화와 부서 간의 책임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해 유사기능 통폐합 및 본사 중심 사업부제로 개편했다. 인천사업소와 수원사업소, 세관물품판매사업소와 SOFA양수품판매사업소를 각각 건제사업부와 관세품판매사업소로 통합하고 건설지원사업소를 특수사업본부장 관장 아래의 건재관리소로, 합성수지사업소와 반월편직사업소를 합성수지사업부와 봉제사업부로, 영업부와 생산부를 운영부로, 개발부를 연구개발실로 변경했다.

1984년

국가유공자 예우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한국원호복지공단이 한국보훈 복지공단으로, 원호병원이 보훈병원으로, 원호복지사업이 보훈복지사업으로 원호대상자가 국가유공자 등으로 명칭 및 용어가 변경되었다. 또한 부산보훈 병원이 개원됨에 따라 분원장, 관리부, 진료부, 약제과, 간호과를 신설했다.

1985년

능률적인 업무추진을 위해 상무별 관장 업무를 조정하고, 연구개발실, 건제관리소, 특수사업본부 업무2과의 기구를 폐지하고, 기획부에 복지사업과, 총무부에 관재과, 홍보담당, 비상계획담당기구를 신설했으며 연구개발실의 개발담당을 특수사업소 개발담당으로, 특수사업소를 관리상무 관장으로, 관세품판매사업소를 총무상무 관장으로 업무기능을 조정했다. 그리고 기획상무를 관리상무로, 사업부장(본부장)을 사업소장으로, 특수사업본부장(별정2급)을 특수사업소장(사무1급)으로, 기획부 기획예산과 및 경영관리과를 기획과와 예산관리과로, 특수사업소 업무1과를 특수사업소 관리과로, 운영부 운영1과와 운영2과를 운영부 운영과와 조달과로, 관세품판매사업소 판매1과 및 판매2과를 관세품판매사업소, 관세물품판매과와 미국면세품판매과로 각각 변경했다.

1986년

광주보훈병원의 개원으로 보훈병원이 3개 병원으로 확대됨에 따라 본사에 의료사업 전담기구인 의료사업본부를 설치했다. 광주보훈병원이 개원됨에 따라 분원장, 관리부, 진료부, 약제과, 간호과를 신설했다. 그리고 수익사업부서 중 건제사업소를 목제사업소와 철제사업소로 분리하고 총무상무가 송무업무를

관장토록 했으며 총무상무 관장 하의 관세품판매사업소를 영업상무가 관장토록 했다. 또한 신설기구의 기능과 중복되는 기획부의 복지사업, 합성수지사업의 생산관리과 및 대구공장, 총무부의 관재과를 폐지했다. 특수사업소 관리과를 특수사업소 특수사업과로, 운영부 운영과를 운영부 관리과로, 합성수지1·2과를 합성수지사업소 영업과로, 봉제사업소 봉제과를 봉제사업소 영업과로 각각 명칭을 변경했다.

1989년

경영여건 변화에 대처하고 책임경영체제를 확립하기 위해 각 상무별 업무기능을 조정하고 부서와 사업소의 유사기능을 통폐합했다. 총무상무를 기획상무로 명칭을 변경하여, 기획상무가 기획부, 총무부, 홍보담당, 비상계획담당을 관장토록 하고, 총무부의 송무담당을 폐지하고 노무과를 신설했으며, 관리상무 산하 관리사업소의 개발담당을 개발실로 확대 신설하고, 영업상무 관장 하의 관세품판매사업소를 관리상무가 관장토록 했다. 그리고 의료사업본부 산하의 의료기획부를 의료관리부에 흡수·통합하고 의료기획부의 경영분석담당을 의료기획과로 명칭을 변경했으며, 의료운영담당을 폐지하고 재활의료부장 관장 하의 의지창을 승격시켜 의료사업본부장이 관장토록 했으며 보장구 제작소와 보장구 연구소를 신설했다. 보훈병원 기획과를 운영과로, 원무1과, 원무2과를 원무과, 보험과로 각각 변경했다.

1990년

경영환경 변화에 대처하고 책임경영체제를 확립하기 위해 의료사업 조직을 합리적으로 조정했다. 먼저 보훈병원의 자율 책임경영체제를 확립하기 위해 본사 의료사업본부(의료관리부, 의료기획과, 의료지원과, 재활복지담당)를 폐지하고 보훈병원에 기획부(기획조정과, 운영지원과), 관리부(총무과, 운영과, 관리과, 원무과, 의료보험과)를 신설하여 기존 의료사업본부 기능을 이관했으며 본사 기획부에 복지사업과를 신설했다. 보훈병원 관리실장을 행정부원장으로, 진료부장을 진료부원장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행정부원장은 기획부와 관리부를, 진료부원장은 22개 진료과와 재활의료부, 약제과 및 간호과를 관장토록 했으며, 본사 의료사업본부 산하 의지창을 보훈병원으로 이관하고, 부산분원 및 광주분원을 부산병원 및 광주병원으로 명칭을 변경했다.

1991년

보훈병원 기획부에 노무관리과, 본사 개발실에 주택사업담당을 신설하고, 보훈병원 운영과, 관리과를 관리과, 시설과로, 원무과, 의료보험과를 원무1과, 원무2과로 명칭을 변경했다.

1992년

대구보훈병원이 개원됨에 따라 운영조직을 신설했으며, 기존 병원의 병상증설(서울 10, 광주 80, 부산 40) 등 의료시설 규모의 확충에 따라 관리체계를 일부 조정했다. 보훈병원 행정부원장 산하 기획부를 폐지하되, 보훈병원장 직속의 기획조정실(상무급)로 확대 개편하고 그 밑에 경영지도과를 신설하여 4개 병원의 기획·조정·지원·통제기능 등을 총괄 관리토록 했으며, 부산보훈병원 재활의료과 및 광주보훈병원에 피부과를 신설하고, 본사 기획부 복지사업과를 의료복지과로 명칭을 변경했다.

1993년

국가보훈처에서 운영하던 양로양육업무가 이관되어 복지사업 기능이 추가됨에 따라 공단 조직을 의료사업과 복지사업 전담체제로 개편하고, 유사 중복기능을 통합하는 방향으로 조직을 개편했다. 보훈공단 조직은 크게 의료사업과 복지사업체제로 개편되어, 부사장은 수익사업과 복지사업을 관장하고, 의료사업본부장(보훈병원장 겸임)은 4개 병원 및 의지창을 관장하도록 했다. 그리고 기획상무를 기획조정실장으로 명칭을 변경하여 기획·예산·자금·관리업무를 총괄하도록 했다. 관리상무를 복지상무로 명칭을 변경하여 신설 보훈원, 복지사업부 및 복지시설부를 관장하도록 했다.

보훈병원 기획조정실장과 행정부원장을 통합해 병원관리실장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4개 보훈병원 총괄 보좌 및 서울보훈병원의 행정 분야업무를 관장토록 했으며, 의지창을 지방병원과 같은 독립기구(상무급)로 상향 조정했다. 그리고 서울보훈병원의 재활의료부를 진료부로 전환하고, 수련의담당을 교육연구부로 조정했으며, 규모 확대에 따라 간호과, 약제과를 간호부, 약제부로 각각 상향 조정했다. 또한 본사 관리사업소를 과 단위로 축소·조정하고, 본사 홍보과, 보훈병원 경영지도과 및 기획노무과는 흡수·통합되었으며, 광주보훈병원은 수련병원 지정을 위해 해부병리과를 신설했다.

1994년

서울보훈병원 병원관리실장을 관리부원장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그 밑에 기획부를 신설하여 기획예산과, 운영지원과 및 신설 전산실을 관장하도록 했으며, 의료서비스 수준 향상을 위해 서울보훈병원에 한방진료과, 부산보훈병원에 해부병리과, 광주보훈병원에 재활의학과를 설치하고, 지방보훈병원에 관리과를 신설했다. 그리고 세관위탁물품 전량인수 판매계획에 따라 관세품판매 사업소를 유통사업단(상무급)으로 확대, 상향 개편하고 세관물품관리과, 세관 물품판매과를 두었으며 부산영업소를 신설하고 그 밑에 영업과와 판매과를 신설했으며, 유통사업단장이 개발실 및 신설 무역부를 관장하도록 했다.

1996년

작고 능률적인 조직 구현과 경영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본사기능을 대폭 축소하되 신규 노후복지시설 관리기능을 강화했다. 먼저 감량경영 일환으로 유통사업단을 부 단위로, 부산영업소를 과 단위로 각각 축소 조정하고 판매과, 영업과, 개발실을 폐지한 대신에 신규 수익사업인 보세사업 수행을 위해 유통사업단 산하에 보세영업소를 신설했으며, 유통사업단장이 관장하던 무역부는 영업상무가 관장하도록 조정했다. 그리고 복지상무 산하 복지사업부와 복지시설부를 복지사업부로, 복지사업부 산하 복지과와 운영과를 복지과로, 보훈원의 서무과와 보호과를 보호과로 각각 통합하고, 보훈원에 복지타운 관리를 위해 시설관리과, 충주보훈휴양원 및 산하 관리과를 신설하여 노후복지시설 관리기능을 강화했다. 또한 영업상무 산하 운영부의 운영지원과와 자재과를 운영지원과로 통합 조정했고 기획조정실장을 기획상무로 명칭을 변경하고 부사장 관장으로 조정했으며, 총무부 산하 총무과와 인사과를 총무과로 통합했다.

1997년

대전보훈병원이 개원함에 따라 운영조직을 신설했다. 이로써 보훈병원은 보훈공단 설립 당시 1개 병원에서 5개 병원으로 확충되어 전국 보훈의료망 체계를 갖추게 되었다. 그리고 경영여건이 악화됨에 따라 경영개선 일환으로 본사 관리기능을 재조정하고 인력을 감축하는 한편 부서 명칭을 변경했다. 서울보훈병원장이 겸임하던 의료사업본부장을 폐지하고 상무제도를 본부장

제도로 전환하여, 기획상무·복지상무를 복지기획본부장으로, 기획부·총무부를 기획조정실로 각각 통합하고, 복지사업부를 복지사업단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그 산하 건축과를 폐지했으며, 영업상무를 수익사업본부장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그 산하 운영부 및 무역부를 폐지했다. 사업소를 사업단으로 명칭을 변경했고 본부, 복지시설 및 사업소의 과를 부로 명칭을 변경했으며, 서울보훈병원 기획부 산하 운영지원과를 폐지하고 의지창장의 직위를 부장급으로 하향 조정하고 그 산하 연구실과 제작과를 제작과로 통합했다. 부산보훈병원에 피부과를 신설했다.

1998년

IMF 경영체제 하에서 작지만 경쟁력 있는 정부를 구현하려는 정부의 조직운영 방향에 적합한 조직운영시스템을 마련하기 위해 경영혁신 계획을 수립하고 그에 따라 관리기능 개편 및 부서통합, 정원감축 등 조직개편을 단행했다. 먼저 수익사업단 경영합리화를 위해 목제사업단과 철제사업단을 통합해 건제사업단으로, 목제사업단 영업부와 철제사업단 영업부를 통합 건제사업단 영업부로, 합성수지사업단 및 봉제사업단의 영업부와 공장을 영업부로 각각 통합하고, 유통사업단의 보세영업소를 폐지했다. 그리고 본사 복지기획본부장(별정)을 복지사업본부장으로 명칭을 변경하여 복지사업과 총무부 기능을 관장토록 하고, 기획조정실은 부사장이 직접 관장토록 했다.

복지사업단은 부 단위로 축소되고 그 산하 시설행정부를 폐지했으며, 송무부와 홍보부를 신설하여 각각 복지사업본부장과 기획조정실장이 관장토록 했고, 감사실은 감사1부와 감사2부로 확대했다. 또한 서울보훈병원의 기획부(1급)를 폐지하고, 기획예산 및 전산실은 관리부원장이 직접 관장하고, 관리과는 관리부에서 관장하도록 조정했으며, 간호부와 약제부를 1급 보직에서 2급 보직으로 하향 조정했고, 교육연구부를 폐지했다.

1999년

국가보훈처로부터 보훈연수원을 수탁 운영하게 됨에 따라 보훈연수원 직제를 보훈연수원장(별정직), 연수실장(1급) 및 산하 서무부, 교학부를 각각 신설했다. 그리고 격변하는 경쟁적 경영환경 변화와 국가유공자 의료수요 증가에 적극 대처하기 위한 경영혁신 추진계획의 일환으로 본사조직을 의료사업에 역점을 두는 조직으로 운영시스템을 정립하고 각 사업단위별 책임경영체제로

전환하는 방향으로 조직을 개편했다.

본사 복지사업본부장을 폐지하고, 의료지원실(별정직) 및 행정지원실(1급)을 신설하고, 복지사업부 폐지 및 비상계획부를 축소(4급) 조정했다. 서울보훈병원 관리부원장과 진료부원장은 부원장으로 통합하고, 부원장이 진료 각 과, 교육연구실(신설), 간호부 및 약제부를 관장하고, 관리실장은 행정관리 각 과 및 신설된 원무3과를 관장하도록 했으며, 진료부장 및 기획예산과를 폐지했다. 또한 보훈원을 복지단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충주보훈휴양원을 부 단위로 축소하고 복지단 산하 조직으로 편제했으며, 보훈연수원장이 복지단을 관장하도록 했다. 그리고 조합업무를 관리하는 관리부를 건제사업단으로 이관했다.

2001년

보훈공단법이 집행부와 의결기구의 이원화된 조직체계를 일원화해 책임 경영체제를 강화하고,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의료사업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상임이사장 체제로 전환하고 병원별 책임경영체제로 조직기능을 조정했다. 기존 사장, 부사장, 보훈병원장을 폐지하고 이사장제로 전환했으며, 상임이사로 기획이사, 의료이사, 복지이사, 사업이사를 신설했고, 본사의 명칭을 본부로 변경했다. 그리고 4개 지방보훈병원을 관장하던 한국보훈병원장을 지방보훈병원장과 같은 직위로 조정하여 이사장이 직접 5개 보훈병원을 관장토록 하고, 각 보훈병원은 개별 독립경영체제로 개편했다. 또한 기획이사 밑에 기획조정실, 행정지원실, 정보지원실(2급, 신설)을 두었으며, 송무부를 폐지하고 노사협력부를 신설했다. 의료이사 산하 의료지원실을 의료관리실로 명칭을 변경하고 그 직급을 1급으로 하향 조정했다. 의료관리실 산하 운영부를 운영관리부로, 시설관리부를 경영분석부로 각각 명칭을 변경했으며, 약무부를

신설했다. 복지이사 산하에 보훈교육연구원, 보훈원, 보훈휴양원을 두고 복지단 및 연수실을 관장하는 보훈연수원장을 폐지했으며, 연수실장(1급)을 보훈교육연구원장(별정)으로 조정하고, 보훈교육연구원 산하에 복지사업 정책을 연구하는 연구팀을 신설했다. 복지단을 보훈원으로, 충주 보훈휴양원을 보훈휴양원으로 각각 명칭을 변경했다.



2002년 폐지되기 전의 합성수지사업단

수익사업본부장을 폐지하고, 사업이사 산하에 유통·건제·합성·봉제사업단 및 개발팀(2급, 신설)을 두고, 건제사업단 목제공장과 철제공장을 1개 공장으로 통합했으며 관리사업부를 폐지하고 그 업무기능을 유통사업단 관리부로 이관했다. 유통사업단 판매부를 판매팀으로, 건제·합성·봉제사업단의 영업부를 영업팀으로 각각 명칭을 변경했다.

또한 서울보훈병원의 부원장을 폐지하고 관리실 업무를 원무부(신설)와 관리부로 기능별로 분리했으며, 진료부는 제1진료부(내과계열), 제2진료부(외과계열), 제3진료부(지원계열)로 분리하고 각 진료부장이 소속 진료 과를 분장 관장하도록 했고, 의지창을 보장구센터로 전산실을 의료정보과로, 관리과를 물류관리과로, 시설과를 시설장비과로, 핵의학과를 내분비내과로 명칭을 변경했다.

2002년

수익성이 악화된 합성수지사업 정리 방침에 따라 그 조직을 폐지하고 신규사업으로 개발 중인 복권사업의 안정적 수행을 위해 잠정운영 중이던 복권사업단을 정규 직제화했다. 또한 기획조정실 소속 홍보부를 홍보실로 명칭을 변경하고 이사장 직속으로 조정하여 홍보기능을 강화했다.

2003년

광주보훈병원이 500병상으로 신축 이전함에 따라 4개의 진료과를 신설하고 제2진료부와 교육연구부를 신설하는 한편, 간호과와 약제과를 각각 간호부, 약제부로 변경했다. 그리고 의료법 개정에 따라 진료과목의 명칭을 일반 외과를 외과로, 마취과를 마취통증의학과로, 방사선과를 진단방사선과로, 임상병리과를 진단검사의학과로, 해부병리과를 병리과로 각각 변경했다. 또한 기획이사 산하 행정지원실에 송무부(2급)를 신설하고, 기획조정실 예산부에서 복권수익금 운용을 전담하도록 지정했으며, 사업이사 산하 복권사업단을 1단 1부(복권사업부)에서 1단 2부(운영부, 영업부)로 확대 운영하고 개발팀을 사업관리팀으로 변경해 조직운영의 효율성을 기했다.

2004년

보훈교육연구원의 기능을 활성화하기 위해 복지이사 소속에서 별도 조직으로 분리시키고, 연구사업 수행을 위해 연구직을 신설했으며 복지이사가 복지시설 건립에 관한 업무를 관장토록 했다. 그리고 유통사업단의 부산영업소를 축소(2→4급부서)하고, 판매팀을 인수부와 판매부로 분리했으며 500병상 이상 보훈병원의 간호·약제부서장 직급을 조정하고 직명을 통일했다.

2005년

정부의 경영혁신 정책에 적극 부응하고 경영환경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조직을 재정비했다. 공정하고 객관적인 경영실적 평가 및 혁신업무를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이사장 직속으로 경영혁신실을 신설하여 경영전략 수립 및 신규사업 개발업무를 전담하게 했으며, 경영혁신실 신설에 따라 본부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조정하여 송무부, 노사협력부를 총무부로 흡수 통합하고 경리부에 관재업무를 추가했다.

그리고 의료이사 소속기구의 업무조정과 분야별 전문화를 통한 조직운영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운영관리부와 경영분석부를 의료지원부로 통합하고, 의약품, 의료장비 중앙구매를 위한 물류부와, 보장구 운영계획 및 재활서비스 개발을 위한 재활연구부를 신설했으며, 감사1·2부는 1부로 통합하고, 기획이사 소속의 정보지원실을 의료이사 소속 경영정보부로 변경했다. 또한 조직운영의 탄력성을 제고코자 팀제 운영을 위해 본부 및 병원의 신설부서인 경영전략팀, 기획혁신팀 등에 시범적으로 도입했다.

보훈병원의 고객센터 업무기능 강화를 위해 5개 보훈병원에 종합 고객센터 전담부서인 고객지원팀을 설치하고 부서 간 업무조정 및 기획업무 전담을 위해 기획혁신팀을 신설했다. 또한 보훈병원 장례식장 직영에 따른 특수사업소를 신설하고 서울보훈병원의 관리부를 운영부로, 물류관리과를 자재과로, 시설 장비과를 시설과로 명칭을 변경했으며, 부산보훈병원이 200병상 증축으로 500병상 규모로 확대됨에 따라 진료부를 진료1·2부와 교육연구부로 확대했다.

수익사업 여건이 악화됨에 따라 사업이사 소속의 사업관리팀을 폐지하고, 신규사업 개발업무는 경영혁신실로, 수익사업 지원업무는 유통사업단으로 업무를 이관했으며, 복권사업단 운영 축소에 따라 운영부, 영업부의 2부 체제를 운영부로 통합했다.

2006년

보훈공단 본부의 의료관리 기능을 통합·강화하고, 복지시설 확충 및 합리적 운영과 수익사업 규모의 경량화를 위해 조직을 개편했다. 먼저 보훈공단이 의료원 본부로서의 기능을 확대하기 위해 이사체계를 기획이사·의료이사에서 기획이사·관리이사의 기능별로 개편하고 기획행정실·의료관리실·경영혁신실을 기획조정실·경영지원실·혁신평가실로 조정했다. 잠정직제인 보훈중앙병원건립추진단과 건설사업본부의 업무 중요성을 감안하여, 보훈중앙병원준비단, 시설건립단으로 정규직제화 했다.

전반적 팀제 적용의 전(前) 단계로서 업무처리절차 중심으로 본부 내 부단위 업무를 통합·조정해 기획부, 경영전략팀, 의료지원부는 기획팀으로, 혁신인사팀, 총무부는 혁신팀, 인사총무팀으로, 총무부, 경리부, 물류부는 노사협력팀, 재무팀, 물류지원팀으로 변경 조정했다. 그리고 수익사업 여건변화에 따라 조직규모 경량화를 통한 비용감소를 위해 1급 복권사업단을 2급 복권사업부로 축소하고, 일상감사 강화를 위해 감사부는 감사 1팀, 2팀으로 확대했다.

2007년

기획과 관리의 기능별 본부 조직운영체계는 사업별로 운영되어 왔던 관행과 국가보훈처의 조직운영체계와 상충됨으로써 관리지휘계통에 혼선을 빚게 되었다. 이에 의료원 분리 독립요구 등 경영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사업별 전문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상임이사체제를 사업별 본부장제로 전환하고 업무효율 중심으로 조직을 통·폐합 조정했다.

이에 따라 기획·관리·복지·사업이사를 기획·의료사업·복지사업·수익사업 본부장으로 변경하고, 실(원, 단) 산하의 팀(부) 조직을 통·폐합 조정해 기획본부장 산하에 기획조정실과 행정지원실을 두고 기획조정실 밑에 기획예산팀(기존 기획+예산관리팀), 혁신관리팀(혁신팀), 성과관리팀(경영평가팀), 경영정보팀을 소속시키고, 행정지원실에 총무노무팀(노사협력팀), 인사교육팀(인사총무팀), 재무관재팀(재무팀)을 소속시켰다.

그리고 의료사업본부장 소관으로 의료지원실과 중앙병원건립단을 두고, 의료지원실에는 의료기획팀(신설), 운영지원팀(신설), 물류지원팀을 설치하고 중앙병원건립단에 병원건립지원팀(행정지원팀)을 설치했다. 복지지원실에 복지지원팀(신설), 시설건립팀(행정지원팀)을 두고, 유통사업단 밑에 판매팀

(운영부+판매부), 인수팀을 두었으며 기타 복지 및 수익부서는 기능조정 없이 부를 팀으로 명칭만 변경했다. 그리고 본부장제 전환에 따라 본부명칭을 본사로 변경했다.

대구보훈병원 증축에 따라 진료2부와 교육연구부를 신설하고, 진료과를 18개에서 22개로 증설했으며 지방보훈병원 의료전문성 강화를 위해 간호부장과 약제부장의 직급을 2급에서 1급으로 조정하고, 약제부 조제과장을 신설했으며, 원무과는 원무1과(국비)와 원무2과(사비)로 분리 개편했다. 그리고 수가관련 업무, QI업무지원 등 의료분야의 효율적 업무수행을 위해 본사 의무직(간호직)의 직급을 간호4급에서 3급으로 조정했으며, 보훈휴양원에 관리팀, 건제사업단에 건제사업팀을 신설했다. 또한 서울보훈병원 치과의 치과진료부 승격·확장에 따라 치과진료부와 그 밑에 5개 진료과를 설치했다.

2008년

장기요양성 환자를 보호하기 위해 수원 및 광주보훈요양원을 운영하게 됨에 따라 조직을 신설했다. 요양원장 밑에 시설운영 및 입소자 생활 지원 등 사회복지서비스를 담당하는 복지팀과 의무실장을 각 센터별 1팀씩 운영하고 원생 진료, 간호 및 재활치료 등 의료서비스를 담당하는 의무실을 두었다. 그리고 제주휴양시설 건립사업 추진을 종결함에 따라 복지지원실 업무분장 사항 중 제주휴양시설 기본계획 수립과 제주휴양시설 세부운영계획 수립 업무를 삭제하고 홈페이지 내용 수정 및 변경 등 효율적 관리를 위해 관리부서를 본사 홍보실에서 기획조정실 경영정보팀으로 업무분장을 조정했다.

2009년

김해보훈요양원을 신축 개원하고 요양원장 밑에 시설운영을 총괄하는 복지팀을 두었으며 요양원의 운영 효율성 제고를 위해 수원·광주보훈요양원의 의무실을 폐지하고 복지팀으로 통합했다. 그리고 정부의 공공기관 선진화 추진 관련 보훈공단 경영 효율화 계획이 확정됨에 따라 수익사업본부를 폐지하여 3본부로 축소하고 수익사업을 관리할 수익사업지원실을 신설했다. 본사조직이 3본부 체제로 조직됨에 따라 소관 업무관장을 조정하여 경영지원·의료사업·복지사업본부로 개편하고 본부별 2실(단)체계를 구성하여 업무의 균형 및 효율성을 제고했다.

이에 따라 경영지원본부 밑에 기획조정실과 행정지원실을, 의료사업본부 밑에 의료지원실과 시설건립단을, 복지사업본부 밑에 복지지원실과 수익사업 지원실을 두고 보훈교육연구원을 경영지원본부장 소속으로 변경했다. 그리고 5개 보훈병원은 의료사업본부장, 복지시설 및 수익사업부서(유통·봉제·건제)는 복지사업본부장 소속으로 변경했다. 또한 실·원·단장, 부장, 센터장 1급 보직 기준을 1급부터 3급까지, 팀장 및 과장 2~3급 보직은 2급부터 4급까지 확대했다.

또한 정부의 경영 효율화 정책에 적극 부응하고 조직운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상위직(1~2급) 정원을 감축하고 본사 계층구조를 축소(3단계 → 2단계)하는 등 조직구조를 재설계 개편했다. 먼저 본사의 계층구조를 3단계에서 2단계로 축소하여 본사 3본부 6실 1단 18팀에서 3본부 13팀(6실, 1단, 5팀 감축)으로 축소하고, 경영기획실, 성과관리팀, 총무인사팀, 노사협력팀, 재무관재팀을 경영지원본부장 관장으로, 의료기획실, 운영지원팀, 의료정보팀, 시설건립단을 의료사업본부장 관장으로, 복지기획실, 사업 지원팀을 복지사업본부장 관장으로 조정했다. 그리고 서울보훈병원에 보훈중앙병원개원준비단을 잠정 기구로 신설하고 교육연구부에 진료지원팀을, 원무부에 위탁관리팀을 각각 신설했다.

상위직 감축에 따라 봉제사업단장을 사무직 1급에서 사무직 2급으로 직급을 조정하고, 본사 의료정보팀장 및 서울보훈병원 의료정보과장을 기술직 2급에서 기술직 3급으로 하향 조정했으며, 서울보훈병원 고객지원팀장을 사무직 2급에서 사무직 3급으로 조정하되, 부산·광주·대구·대전보훈병원 고객지원팀장을 사무직 4급에서 사무직 3급으로 상향 조정하여 고객접점부서의 고객 서비스 지원기능을 강화했다.

2011년

국가유공자의 보훈의료 접근성 강화를 위한 민간위탁 진료확대로 보훈의료 재정부담이 급증함에 따라 위탁병원의 적극적인 관리를 위해 의료사업본부 내 잠정기구로 위탁병원관리단을 설치했고, 전국 단위의 주거복지서비스사업의 안정적 수행과 사업역량 극대화를 위해 본사에 주거복지사업팀을 잠정 운영했다. 종합재활체육시설이 완공됨에 따라 보훈재활체육센터 조직을 신설했고 대구·경북지역 장기요양성 보훈환자를 위해 대구보훈요양원이 신축 개원하여

요양원장 밑에 시설·운영을 총괄하는 복지팀을 두었다.

또한 중앙보훈병원이 신축 완공되어 기존 서울보훈병원이 800병상에서 1,003병상으로 확대됨에 따라 조직개편을 단행했다. 서울보훈병원 명칭을 중앙보훈병원으로 변경하고 부분별 책임경영체제 구축을 위한 부원장제를 도입하여 진료부원장, 행정부원장(사무직 1급 임기제)을 신설했으며 대형병원으로서의 관리기능 강화를 위해 병원장 직속으로 기획조정실을 신설하고 그 밑에 기획혁신팀, 경영관리팀, 의료정보팀을 두었다. 또한 특성진료 분야 육성을 위한 암·심혈관 센터를 신설하고, 진료부원장 지휘기능 강화를 위해 기존 진료지원팀을 교육연구팀과 적정진료팀으로 분리 설치하여 진료부문 행정조직을 확대했으며, 제1·2·3진료부를 제1·2진료부로 조정했다. 그리고 자금 및 회계 관리기능 강화를 위한 재무팀을 신설하고 기존 위탁관리팀을 폐지하되 심사팀을 신설했다.

2012년

현 보훈공단 조직인 이사장제에 부합하도록 본부기구 및 본부장 명칭을 변경했다. 경영지원본부장을 기획이사, 의료사업본부장을 의료이사, 복지사업본부장을 복지이사로 조직체계를 조정했다. 또한 의료법 개정 등 여건 변화에 따라 직종 구분 시 의무직에 포함되어 있는 약무직을 분리했다.

같은 해 9월 보훈공단의 미션, 비전과 중장기 경영전략에 부합하는 능동적이고 효율적인 조직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유사업무통합 후 기능별로 분류 재설계하여 본사의 기획 관리력 강화와 진료-재활-요양-재가에 이르는 의료·복지통합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스템으로 개편했다. 이에 본사조직에 사업별로 운영 중인 상임이사를 기능중심으로 전환하여 기획·의료·복지이사를 기획·관리·사업이사로 조정했으며 상임이사 산하 실장제 중심으로 중간관리기능을 강화했다.

이에 따라 기획이사 소속으로 기획 및 성과관리기능 강화를 위한 미래전략실(구 경영기획실) 및 산하 3팀(경영전략, 기획예산, 경영평가)으로 편성했으며, 중장기경영전략 및 본사 기획관리력 증대를 위한 경영전략팀, 기존 경영·의료·복지기획실의 기획기능을 통폐합한 기획예산팀, 평가기능 강화를 위한 경영평가팀을 신설했다.

관리이사 직제를 신설하고 경영 효율 향상 및 행정지원 기능 강화를 위한

행정지원실 및 산하 4팀(인재개발, 총무재무, 노사협력, 정보지원)을 신설했다. 기존 총무인사팀에서 인사·교육 강화를 위한 인재개발팀, 총무와 재무관재를 통폐합한 총무재무팀을 신설했으며, 노사협력팀은 사회적 기여활동, 내부평가 성과급 제도 등 일부 업무조정, 의료정보팀은 정보지원팀으로 명칭을 변경했다. 기존 의료이사와 복지이사를 통합한 사업이사 직제를 신설, 보훈공단 주요사업 관리기능을 강화하고자 사업지원실 및 산하 4팀(운영지원, 통합서비스, 물류지원, 시설건립)을 편성했다. 의료사업 현장업무 지원 강화를 위한 운영지원팀, 복지사업 현장지원 및 Bohun-This 전담을 위한 통합서비스팀, 각종 물품구매, 계약, 고정자산의 관리 집중화를 위한 물류지원팀을 신설했으며 감사실에 청렴감찰팀, 경영감사팀을 신설했다. 또한 대전보훈요양원이 신축 개원하여 요양원장 밑에 시설·운영을 총괄하는 복지팀을 두었다.

2013년

중앙보훈병원이 1,400병상 규모로 확대·운영하게 됨에 따라 진료기능 강화와 질환상태 및 서비스 체계 구축을 위해 조직체계를 정비했다. 중앙보훈병원 치과진료부의 시설 및 인력이 확충되어 치과병원으로 명칭을 변경했으며, 국내 최고수준의 로봇재활 등 특성 분야 육성 및 융합형 모델 정립을 위해 재활센터를 신설했고, 보훈의료연구기능 강화를 위해 보훈의학연구소를 신설했다. 보훈진료전달체계의 급성기·만성기 연계진료 일환으로 중앙보훈병원 내 보훈요양병원을 신설했다. 위탁병원 관리 업무의 효율화를 위해 이사장 직속의 위탁병원관리단을 신설하고 운영팀과 적정관리팀을 두었다. 또한 유통사업단 폐지 계획에 따라 외교관 면세 및 일반판매업무를 중단하고, 세관위탁물품판매업무를 건제사업단 소속(세관위탁물품판매팀)으로 이관했다.

2014년

보훈공단의 중장기적 비전인 의료복지통합서비스의 정착기반 마련, 의료·복지 분야의 책임역량 및 대외기관 연계성 보완 등 본사조직을 개편하여 기획관리기능을 강화했다. 기획이사 소속 미래전략실에 전략기획팀, 조직예산팀, 경영평가팀, 통합서비스팀을 두었으며 통합서비스업무 집중·육성 일환으로 사업지원실에서

미래전략실로 이관했다. 사업이사 소속 사업지원실에 의료운영팀, 의료관리팀, 복지운영팀, 구매관리팀과 인천보훈병원 건립을 전담하는 시설건립단을 잠정적으로 설치했으며, 자산관리 일원화를 위해 관리업무를 행정지원실로 이관했다. 보훈병원의 경우 중앙보훈병원 진료 각 과의 호스피스 관련 업무를 보훈요양병원으로 이관하고, 부산보훈병원의 중재방사선과를 폐지, 광주보훈병원의 핵의학과 및 흉부외과를 신설했다. 또한 남양주보훈요양원이 신축 개원하여 요양원장 밑에 시설·운영을 총괄하는 복지팀을 두었다.

2015년

수익사업 정리에 따른 건제·봉제사업단 기구를 폐지하고 핵심사업인 의료사업의 진료기능 강화를 위해 병원별 의사직 증원, 지방보훈병원의 간호등급을 상향 조정하고 통합서비스 업무기능 강화를 위해 케어매니저 신설 및 가정간호인력을 추가배치 했다. 또한 안전관리체계 및 재무관리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관리이사 소속 행정지원실의 총무재무부를 총무안전부, 재무관리부로 분리했다.

2016년

의료의 질 관리와 감염 관리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QI실, 감염관리실을 신설했으며, 의료법 개정에 따라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을 운영했다. 또한, 사업이사 소속의 인천보훈병원 개원준비단을 발족했으며 잠정운영 중인 시설건립단을 폐지하고 시설건립부를 정규직제에 반영하여 보훈공단 건축사업 및 시설관리 기능을 강화했다.

2017년

인천보훈병원 개원을 위한 조직을 신설하여 병원장 산하 진료실(15개 진료과), 간호실, 약제실 및 운영실(원무, 총무, 관리, 고객통합서비스)을 두었다. 또한 중앙보훈병원 내 보훈의학연구소를 신축해 업무분장 및 운영인력을 배정했고 진료기능 강화를 위해 안센터, 혈관인터벤션센터를 개설했으며, 정부감염관리정책에 따라 부산·광주·대전병원에 감염내과를 신설했다. 간호·

간병통합서비스 병동 확대에 따른 간호인력, 진료·검사대기 해소를 위한 보건직 및 적정성 평가 항목개선과 통합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전문인력을 증원했다.

2018년

국민참여혁신 확산을 위한 정부혁신 등 정책변화에 대응하여 본사 조직개편을 했다. 기획이사 소속 미래전략실을 경영혁신실로 재편하여 전사적 혁신활동을 주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일자리 혁신 등 정부정책의 체계적·효과적 대응 일환으로 전담조직인 사회가치혁신부를 신설했다. 전략기획부는 경영전략부로 명칭을 변경하고 정규직·무기계약직 정원통합관리에 따라 행정지원실에서 경영혁신실로 업무 조정했다.

사업이사 소속 사업지원실은 의료지원실, 복지지원실로 분리하여 의료지원실은 의료운영부, 의료관리부, 정보지원부, 복지지원실은 복지운영부, 통합서비스부, 계약관리부를 두었으며 관리이사 소속 행정지원실은 인재경영부, 총무안전부, 재무관리부, 노사협력부를 두어 전문성과 현장지원기능을 강화했다. 또한 이사장 직속의 위탁병원관리단·보훈교육연구원을 각각 사업이사와 관리이사 소속으로 변경했으며, 중앙보훈병원에 공공의료 강화를 위해 공중보건의료단을 신설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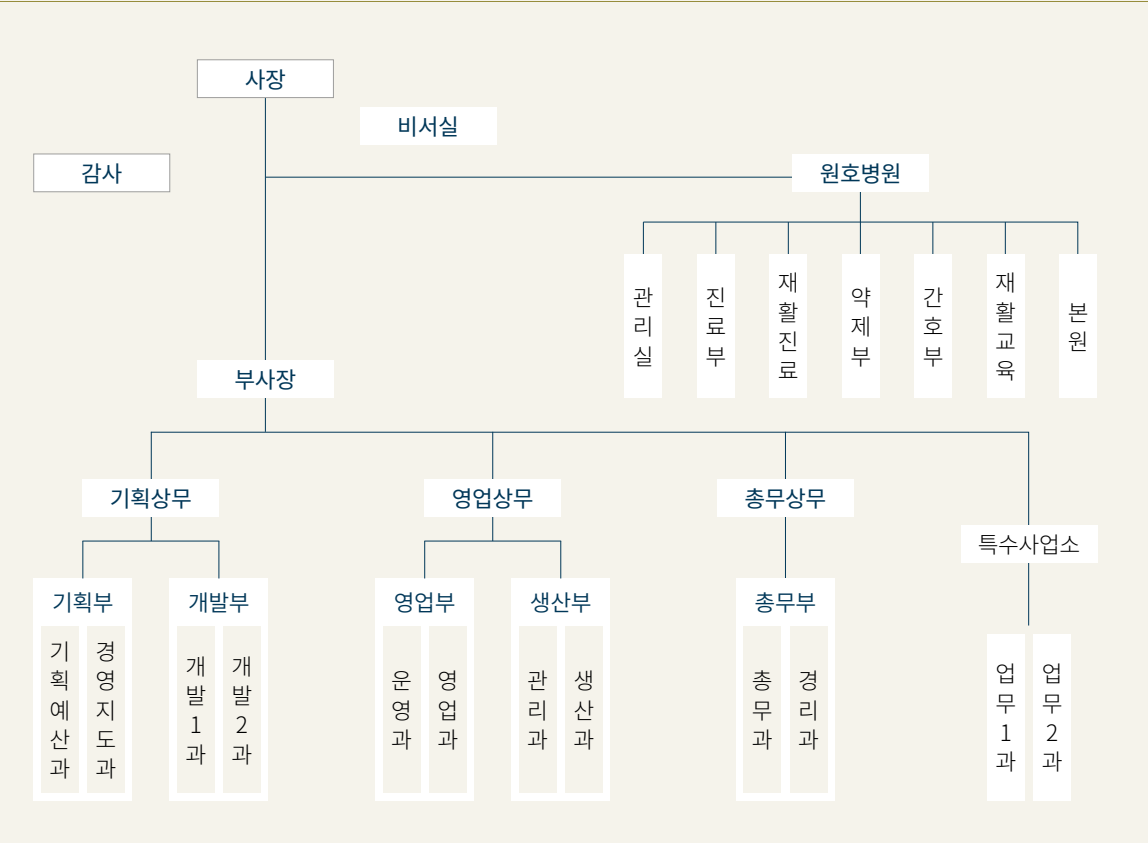
2019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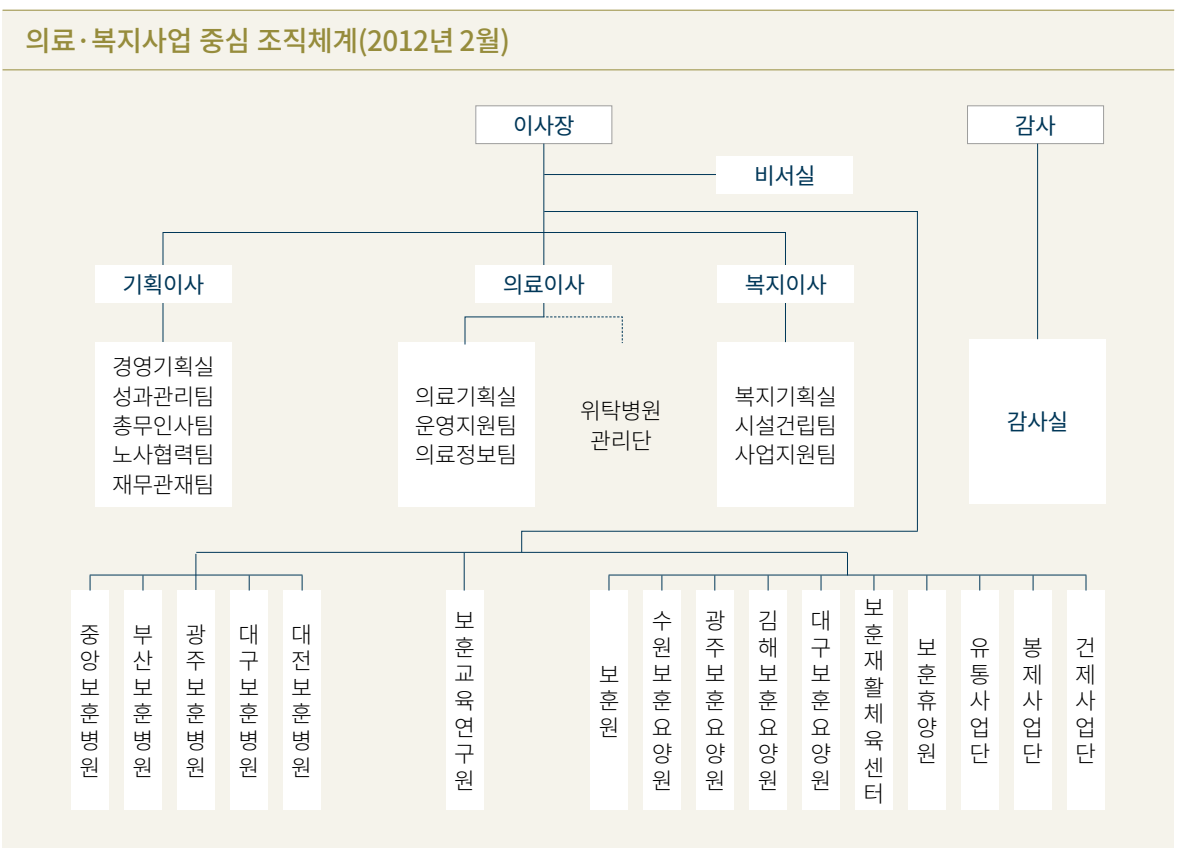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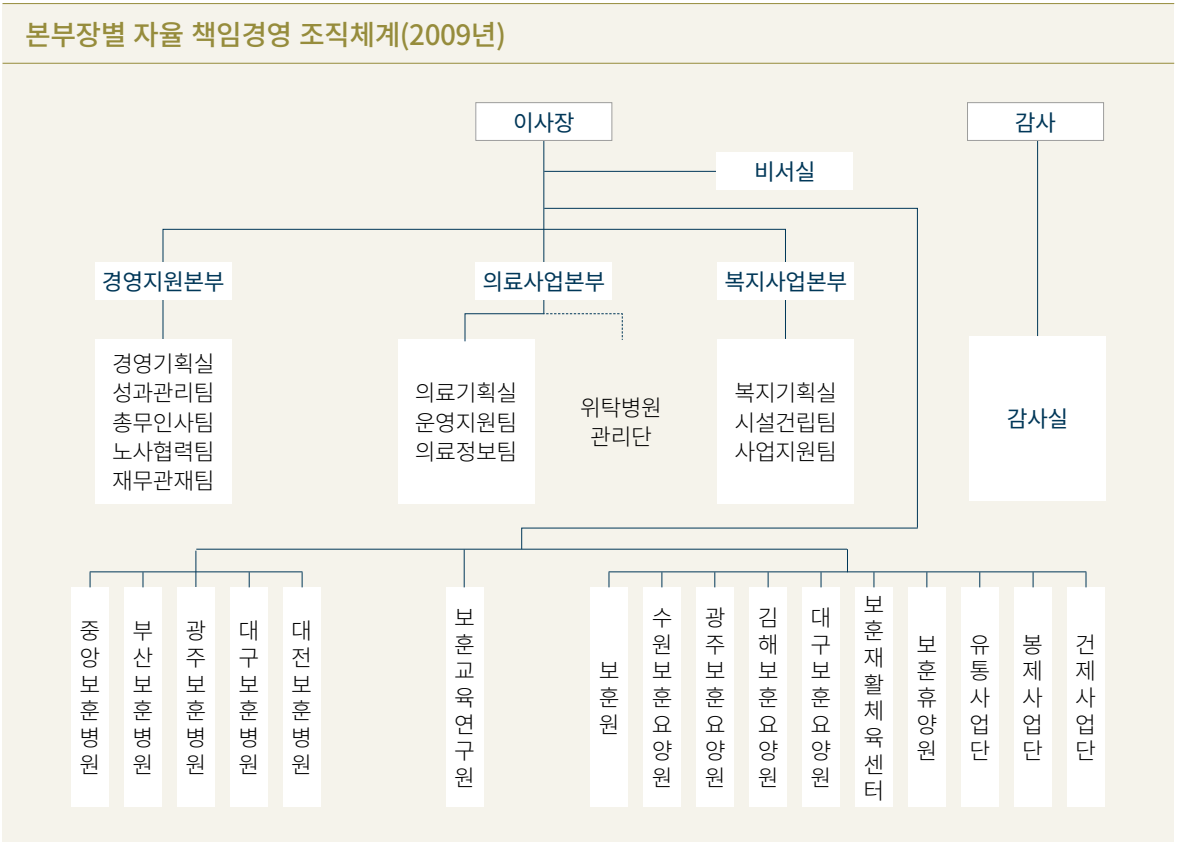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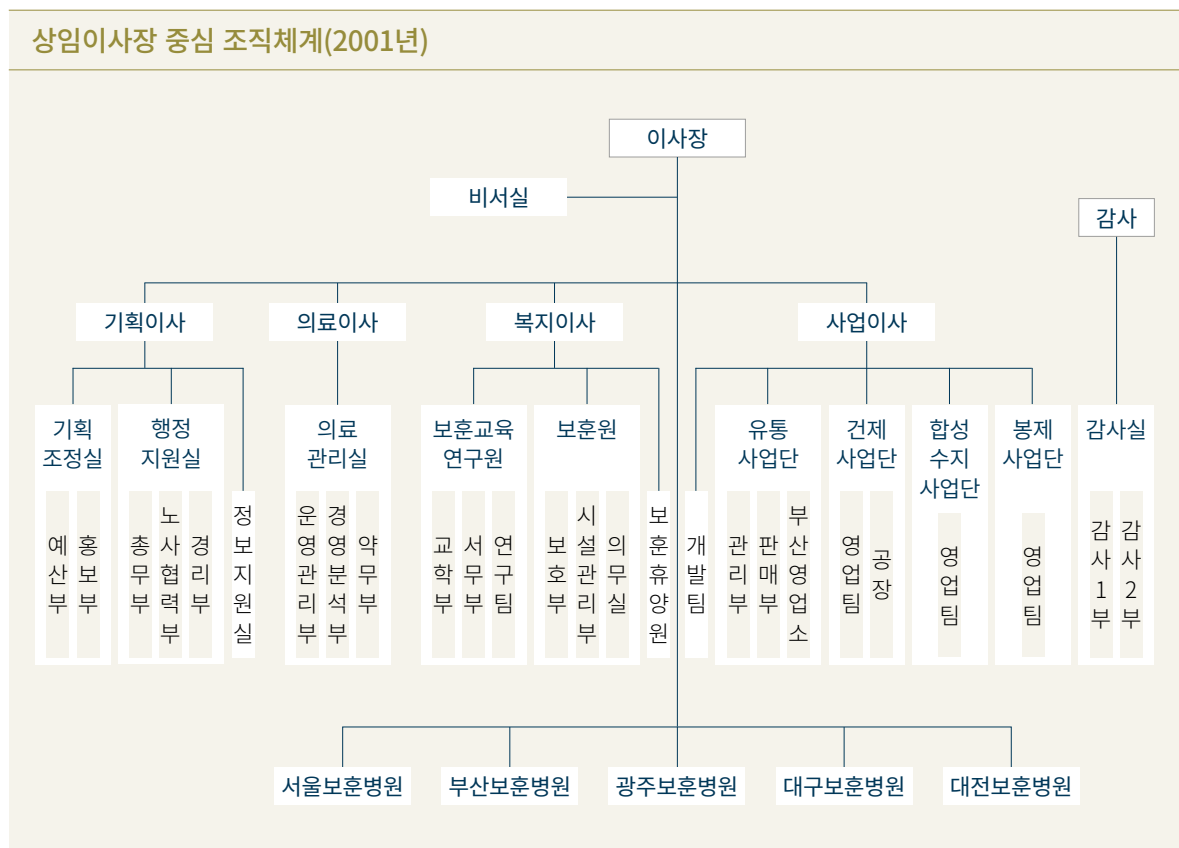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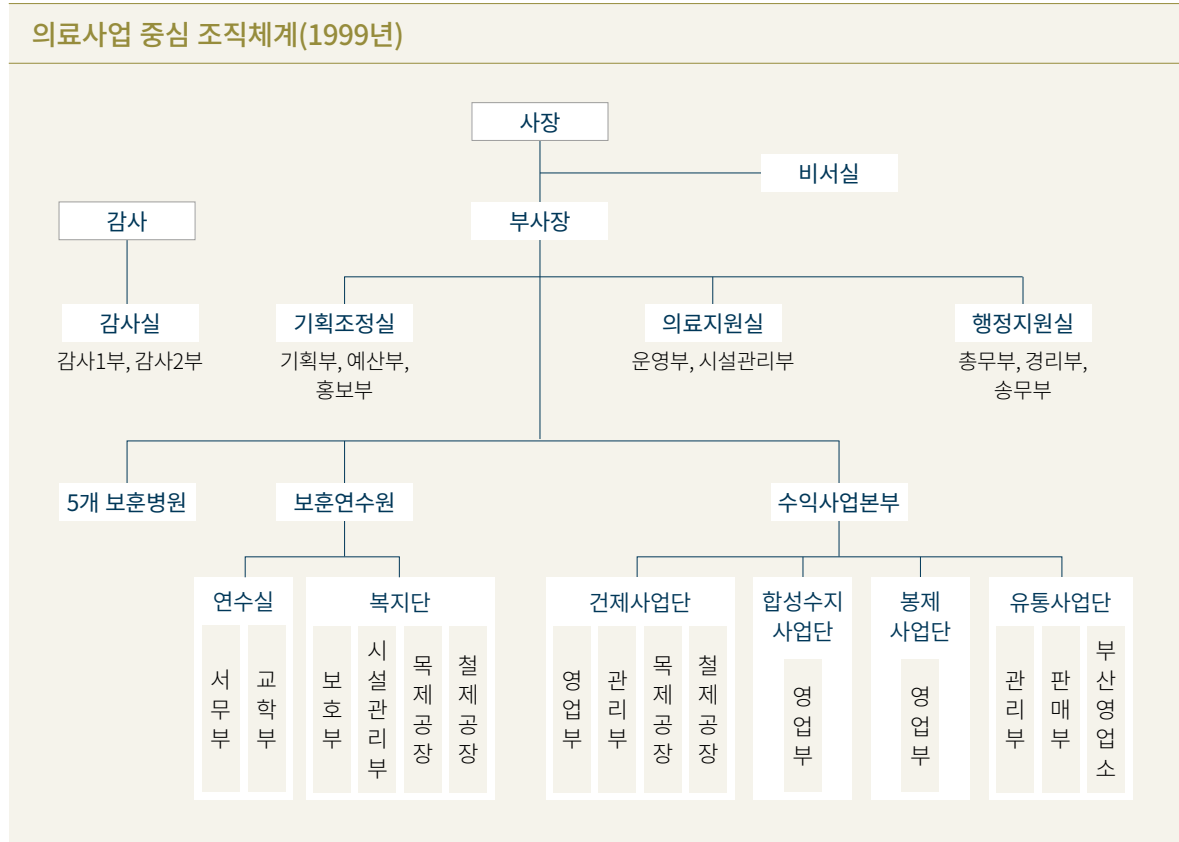
보훈공단의 정책추진 및 소속기구 사업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본사 운영조직을 개편했다. 사업이사 소속 정보지원부는 기획이사 소속으로 이관하여 정보지원실에 정보기획부·정보지원부를 두었으며, 홍보부를 홍보실로 격상했다. 관리이사 소속 법무실을 신설했고, 사업이사 소속으로 복지지원실 소속 시설건립부를 신설했으며, 감사실에 혁신감사부를 신설했다. 보훈병원의 의료의 질 평가 업무체계화와 운영활성화 일환으로 중앙보훈병원과 지방보훈병원(부산·광주·대구·대전)에 적정진료실과 감염관리실을 신설하여 의사직이 겸임토록 했으며, 또한 관리이사 소속 보훈교육연구원, 사업이사 소속 위탁병원관리단을 이사장 직속으로 변경해 핵심기능을 강화토록 했으며, 보훈공단 직원교육을 보훈교육연구원으로 이관했다.

2020년

지방보훈병원 의료진의 경영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병원 기획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부산·광주·대구·대전보훈병원장 직속의 기획조정실을 신설하여 의사직으로 운영하고, 기획조정실 내 기획혁신부를 설치하여 병원 내 기획과 고객통합서비스 업무를 총괄토록 했다. 부산·광주보훈병원은 재활센터 운영 조직을 신설하고 기존의 재활의학과를 폐지했으며 광주보훈병원 내 요양병원을 신설하고 하부조직으로 진료 각 과 및 간호부를 두었다. 대전보훈병원의 경우 진료실을 제1진료실(내과계)과 제2진료실(외과계)로 분리하고 원무부도 1, 2부로 분리하여 다른 지방보훈병원과 동일한 운영체계를 갖추었다. 원주보훈요양원이 신축 개원하여 요양원장 밑에 시설·운영을 총괄하는 복지부를 신설했으며, 또한 2022년 3월 개원예정인 전주보훈요양원의 직제를 신설했다.

창설 당시 조직체계(1981년)





기능중심의 조직체계(2012년 10월)



2020년 조직체계



정원관리

1982년~1992년

신규 수익사업소 개설에 따라 사무직 30명, 보건직 4명, 기능·고용직 17명 등 51명(세척정원 405명 제외)을 증원했으며 1983년 신축 원호병원 개원 대비 의사직 23명, 보건직 17명, 고용직 35명 등 75명을 증원했다. 또한 원호병원 신축이전과 세관위탁물품 판매사업소 신설 등에 따라 사무직 42명, 의무직 45명, 기능·고용직 85명, 보조직 5명 등 177명을 증원했다. 그리고 전국 광역시 보훈병원 건립 기본계획으로 인해 보훈병원이 신축개원됨에 따라 정원을 확보했다.

1984년 부산병원 개원으로 사무직 30명, 의사직 31명, 의무직 67명, 기능고용직 81명 등 210명을, 1987년 광주병원 개원으로 별정직 1명, 사무직 16명, 의사직 13명, 의무직 46명, 기능고용직 53명 등 129명을, 1992년 대구병원 개원으로 별정직 1명, 사무직 25명, 기술직 5명, 의사직 23명, 의무직 122명, 기능고용직 134명 등 310명을, 대전병원 개원으로 별정직 1명, 사무직 22명, 기술직 8명, 의사직 23명, 의무직 123명, 기능직 103명 등 280명을 각각 증원했다.

1993년

국가보훈처로부터 보훈원 인수에 따라 사무직 10명, 의사직 1명, 간호직 4명, 보건직 1명, 기능고용직 23명 등 39명을 증원하고 1994년 복지타운 및 충주휴양원 개원에 따라 18명을 증원했으며, 의료시설 확장 및 세관물품 판매사업 확대에 따른 기구개편에 따라 별정직 2명, 사무직 17명, 기술직 8명, 의사직 12명, 의무직 54명, 기능직 28명 등 121명을 증원했다.

1998년

IMF 경제체제하에서 강도 높은 구조조정과 경영혁신을 위해 부진사업 정리 및 유사기능 통폐합 등을 통해 사무직 21명, 기술직 12명, 의사직 4명, 의무직 20명, 기능직 135명 총 192명의 정원을 감축했다.

1999년

국가보훈처로부터 보훈연수원 인수 운영에 따라 별정직 1명, 사무직 13명, 기능직 11명 등 25명을 증원하고 경영개선을 위한 조직개편에 따라 7명, 경상이자 신체검사 전담인력으로 의사직 11명, 의무직 33명, 기술직 1명 등 45명을 각각 증원했다.

2000년

국가유공자 범위확대와 노령화에 따라 보훈병원 의료수요의 지속적인 증가를 대처할 의료인력 증원요인이 크게 증가한 반면 수익사업의 경영여건 악화로 합성수지사업단 정리 등 감원요인이 발생했다. 이에 따라 보훈공단은 의료서비스를 담당할 의료전문 인력을 신규로 총원하고, 수익사업 축소에 따른 구조조정과 보훈병원으로 전환배치를 도모해 인력운영의 유연성과 안정성을 동시에 고려했다.

2005년

조직재정비 및 부산보훈병원 200병상 증축 등에 따른 추가 소요인력으로 의사직 30명, 사무직 9명, 의무직 91명, 기술직 1명, 기능직 28명, 생산직 △58명 등 101명을 증원했으며, 2007년 대구보훈병원 200병상 증축에 따라 156명, 광주보훈병원 병상증설 및 간호등급상향에 따라 10명, 치과진료부 승격에 따라 필수 운영인력 31명을 각각 증원했다.

2008년

수원, 광주보훈요양원을 시작으로 보훈요양원이 개원되어 운영됨에 따라 정원을 확보했다. 2008년 수원보훈요양원 30명, 광주보훈요양원 30명, 2009년 김해요양원 29명, 2011년 대구요양원 29명을 각각 확보했으며 2011년에는 보훈재활체육센터 8명을 개원 운영인력으로 확보했다.

2009년

정부의 공공기관 선진화 정책에 적극 부응하고 경영 효율화를 위해 조직 재정비와 단순기능업무 외주화 방침에 따라, 본사 통폐합 및 유통사업 정리 39명, 전교환원·운정경비 56명, 취사원 117명, 간호조무사 51명, 중상이보조원 120명 등 총 383명을 정원감축하고, 2010년에 중앙병원 신축개원 등에 따라 의사직 44명, 의무직 202명, 기술직 4명 등 의료전문 인력 250명을 추가 확보하여 핵심인력 위주의 인력구조 선순환 개선을 추진했다.

2011년

중앙보훈병원 신축병동 개설과 전문진료센터 및 방사선종양학과 신설에 따른 의사직 37명 및 간호직 111명을 증원했고, 선형가속기 등 의료장비 확충 및 검사실 신설에 보건직 36명, 외래환자 원내조제에 약무직 20명, 시설확장 및 전산업무 증가에 기술직 4명을 증원했다. 부산보훈병원 외래 진료실, 수술실 확충과 수련병원 지정으로 의사직 5명을 증원했으며, 수술실·인공신장실 확장에 간호직 19명 증원, 치과 및 재활의학센터 활성화를 위한 보건직 6명을 증원했다. 광주보훈병원 심혈관센터 활성화를 위해 전문의 2명을 증원했고, 대전보훈병원 한방병원 병동 소요 인력으로 간호직 12명을 증원했다.

또한 보훈재활체육센터 개원으로 사무직 5명, 사회복지직 1명, 복지기능직 2명을 증원했다. 대구보훈요양원 개원에 따른 사무직 6명, 사회복지직 11명, 복지기능직 11명을 증원했다.

2012년

직제규정상 의무직에 포함되어 있는 약무직을 별도의 직종으로 분리했으며 보훈병원 간호등급 상향 조정으로 중앙보훈병원 2등급, 지방보훈병원 4등급 운영을 위해 간호직 70명을 증원했다. 대전보훈요양원 개원에 따른 사무직 6명, 사회복지직 12명, 복지기능직 10명을 증원했다.

2013년

위탁병원 관리, 위탁병원평가·점검, 사례관리를 위해 위탁병원관리단을 신설했으며, 사무직 4명과 간호직 3명을 증원했다. 또한 약사법 개정에 따른 법정 약사인력 확보 필요성에 따라 약사수급여건을 고려하여 약무직 20명을 증원했다.

2014년

중앙보훈병원 1,400병상으로 확대 운영, 요양병원 운영 및 지방보훈병원의 의료수요증가에 따라 의사직 27명, 간호직 131명, 보건직 39명, 사무직 11명, 기술직 2명을 증원했으며, 개정된 약사법에 따라 약무직 33명을 증원했다. 또한 남양주보훈요양원 개원에 따른 사무직 6명, 사회복지직 12명, 복지기능직 8명 총 26명을 증원했다.

2015년

건제·봉제사업 정리에 따라 생산기능직 50명을 사무직 21명, 간호직 29명으로 전환했고, 폐지되는 사업의 인력을 시설건립단 등 주요사업 역량 강화를 위해 재배치했다.

2016년

보훈공단의 수익사업 정리에 따라 본사 및 각 사업부서에 재배치했다. 사무직 7명 재배치와 일반기능직 13명과 생산기능직 25명은 재배치 또는 직종전환배치했으며, 일반·생산기능직 복수직제로 운영 중인 34명은 일반기능직으로 전환했다. 또한 증원인력 의사직 11명, 간호직 2명, 보건직 5명은 지방보훈병원과 통합서비스부서에 배치했다.

2017년

의료법, 환자안전법 등 의료사업 강화를 위해 의사직 25명, 간호직 117명, 간호조무사 및 일반기능직 53명, 보건직 94명 등 총 289명을 증원했다. 이를 보훈병원의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대, 환자안전 및 감염관리, 통합서비스 및 전문진료센터에 배치하여 의료서비스 수준 향상 및 역량을 제고했다.

2018년

인천보훈병원 개원에 따라 별정직 1명, 의사직 23명, 사무직 26명, 약무직 7명, 간호직 102명, 보건직 33명, 기술직 8명 및 기능직 42명 등 총 242명을 증원했다. 또한 전공의법 시행에 따른 의사직 19명 및 간호직 24명을 증원했다. 또한 중앙보훈병원의 의학연구소 신설에 따른 운영인력 24명을 증원하여 의사직 7명, 사무직 2명, 약무직 1명, 간호직 2명, 보건직 2명, 기술직 3명 및 연구직 7명을 배정했으며, 임상의학연구지원과 유전체·바이오 연구를 통한 보훈의료 수준 향상을 도모했다.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전환 계획에 따라 정원관리 일원화를 위해 무기계약 근로자 1,753명(일반직군 1,013명, 별도직군 740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하여 직제규정에 반영했다. 무기계약근로자 중 기존 동일 직종인 정규직 전환은 간호직 161명, 보건직 141명, 기술직 3명, 일반기능직 96명, 사회복지직 35명, 복지기능직 2명이다. 요양보호사 575명은 ‘요양보호직’직종을 신설하여 해당

직종으로 전환했다. 또한 무기계약 근로자 중 ‘별도직군’의 명칭을 ‘업무지원직’으로 명칭 변경했다.

또한 인천보훈병원 개원준비를 위해 추가인력 40명을 증원했다. 이와 같이 무기계약 근로자(일반직군, 별도직군)는 동일직종인 정규직으로 전환 또는 요양보호직, 업무지원직으로 직제규정에 반영했다.

2019년

본사 홍보실 신설 및 대내외 업무지원 강화 등을 위한 사무직 16명, 전산시스템 자체 개발을 위한 기술직 3명, 보훈병원 간호본부의 간호교육 강화, 응급의료 기능 강화, 의료장비 등 의료 인프라 확대, 외래진료 활성화 및 권역호스피스 센터 지정 등 의료사업의 지속적인 발전과 의료수준 향상을 위해 의사직 4명, 간호직 130명, 보건직 40명, 일반기능직 6명을 증원했다. 또한 중앙보훈병원 장례식장 직영을 위한 기능직 29명과 요양원 병상증설 및 주간보호 시행에 따른 요양보호직 12명 및 업무지원직 192명을 증원했다.

2020년

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을 위한 정보지원실과 법률지원을 위한 법무실 신설, 감사기능 강화 및 안전전담 인력 등을 위해 사무직 8명, 기술직 1명을 증원했다. 보훈병원의 의료품질 강화, 간호·간병통합서비스의 지속적인 확대 및 공공병원으로서의 역할 제고를 위해 의사직 45명, 약무직 1명, 간호직 61명, 보건직 2명, 기능직 71명 및 업무지원직 30명을 증원했다.

또한 원주보훈요양원 개원에 따른 운영인력 131명을 증원하여 사무직 5명, 사회복지직 17명, 복지기능직 12명, 요양보호직 92명, 업무지원직 5명을 배치했으며, 코로나19 대비 의료현장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간호직 15명을 증원했다.

연도별 정원 현황 (단위 : 명)

연도	계	임원	별정직	사무직	의사직	약무직	의무직	기술직	기능직	연구직	사회 복지직	복지 기능직	생산 기능직	요양 보호직	업무 지원직
1981	926	4	5	174	28		170		179				366		
1982	1,386	4	5	207	28		174		197				771		
1983	1,455	4	5	229	46		241		306				624		
1984	1,544	4	6	259	67		308		387				513		
1985	1,383	4	5	214	60		274		287				539		
1986	1,545	4	7	229	73		320	2	338				572		
1987	1,452	4	7	229	74		322	2	338				476		
1988	1,619	4	7	229	74		328	1	449				527		
1989	1,702	4	7	229	74		348	1	458				581		
1990	1,802	4	6	230	80		387	6	508				581		
1991	2,132	4	7	256	92		533	20	639				581		
1992	2,582	4	9	296	117		713	35	834				574		
1993	2,551	4	9	294	121		720	36	849				518		
1994	2,684	4	11	311	133		774	44	877				530		
1995	2,684	4	11	311	133		774	44	877				530		
1996	2,645	4	9	293	133		776	46	879				505		
1997	2,940	4	8	285	164		921	67	960				531		
1998	2,521	4	8	264	160		901	55	825				304		
1999	2,598	4	8	277	176		937	55	837				304		
2000	2,,598	4	8	277	176		937	55	837				304		
2001	2,552	6	6	277	176		937	61	831				258		
2002	2,652	6	6	277	187		1,054	61	848				213		
2003	2,755	6	6	276	204		1,144	65	841				213		
2004	2,925	6	6	271	204		1,279	65	876	5			213		
2005	3,026	6	6	280	234		1,370	66	904	5			155		
2006	2,991	6	6	286	234		1,370	70	914	5			100		
2007	3,234	6	6	288	250		1,524	71	975	5			109		
2008	3,333	6	6	303	259		1,557	76	978	5	12	22	109		
2009	2,979	5	6	296	257		1,544	72	616	5	36	33	109		
2010	2,979	5	6	296	257		1,544	72	616	5	36	33	109		
2011	3,265	5	6	310	301		1,746	76	614	5	47	46	109		
2012	3,363	5	6	316	301	87	1,729	76	614	5	59	56	109		
2013	3,390	5	6	320	301	107	1,732	76	614	5	59	56	109		
2014	3,659	5	6	337	328	140	1,902	78	614	5	71	64	109		
2015	3,661	5	6	360	328	140	1,931	78	614	5	71	64	59		
2016	3,679	5	6	360	339	140	1,963	78	646	5	71	66	-		
2017	3,968	5	6	360	364	140	2,174	78	694	5	76	66	-		
2018	6,071	5	7	389	413	148	2,639	92	823	12	111	77	-	575	780
2019	6,503	5	7	405	417	148	2,809	95	858	12	111	77	-	587	972
2020	6,868	5	7	418	462	149	2,887	96	929	12	128	89	-	679	1,007

2020년 부서별 정원 (단위 : 명)

계	본사	의료사업	복지사업	교육연구원	위탁병원관리단
6,868	182	5,553	1,066	37	30

제 3 절

예산관리

보훈공단은 국가유공자에 대한 진료와 중상이자에 대한 의학적·정신적 재활 및 직업 재활을 행하여 그 자립정착을 도모하고, 복지증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수행하는 의료사업의 국비진료비는 정부보상금과 그 부족분을 수익사업 수익금으로 충당했으나, 2008년부터 정산제 실시로 전액이 국고에서 지원됨에 따라 적자예산에서 수지균형 예산으로 전환되었다.

보훈공단의 예산은 예산총칙, 종합예산, 부문별 예산으로 구성되어 있다. 예산총칙은 예산편성 항목에 대한 총괄적인 규정과 경영지표, 예산집행의 기준 등 당해연도에 수행해야 할 제반 경영활동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으며, 종합예산은 회계연도 영업활동 성과를 나타내는 추정손익계산서, 회계연도 말 재무상태를 표시하는 추정재무상태표, 회계연도 중 자금의 원천과 용도의 흐름을 파악할 수 있는 자금수지계획으로 구성된다.

부문별 예산은 회계연도 중의 수익과 비용을 나타내는 손익예산, 자산 취득을 나타내는 자본예산, 물자 구매를 표시하는 구매예산으로 구성된다.

예산관리 조직은 조직예산부장이 예산관리자로서 예산의 편성, 배정, 조정 등 전반적인 업무를 총괄하는 기능을 수행하며, 본사의 각 부서의 장과 각 회계단위의 장은 소관예산의 집행과 운용업무를 수행한다.

예산의 편성

예산편성은 회계연도에 설정한 경영목표와 경영방침을 구체적으로 계수화하여 명시한 종합계획 활동으로 자원조달 측면에서 정부 보상금과 보훈공단 자체 수입예산으로 구분할 수 있다.

정부보상금 예산은 보훈병원 및 위탁병원 진료 등 의료지원, 재활체육시설관리 운영, 보훈병원 시설 설치 및 증축 등 의료환경 개선에 대해서는 정부로부터 국고에서 보상금을 지원받아 수익·자본예산으로 편성 운영하고 있다.

예산편성 절차는 보훈공단의 경영목표 및 기획재정부에서 배포한 예산편성 지침에 따라 경영혁신실에서 중장기 경영전략 등 경영목표와 사업별 여건을 감안한 예산편성 지침 및 기준을 작성하여 각 부서로 통보한다. 각 부서는

소관부문 예산을 편성하여 경영혁신실에 제출하고, 경영혁신실에서는 사업별 요구예산을 심의 조정하여 다음 회계연도가 시작되기 전까지 이사회 의결을 거친 후 국가보훈처장의 승인을 받음으로써 예산이 확정된다.

예산의 운용

보훈공단의 예산운용은 사업단위별로 실행예산을 편성하여 본예산 범위 내에서 사업운영계획과 연계한 분기별 집행계획을 수립함으로써 예산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배정 유보액 및 절감목표를 별도 책정하여 불요불급한 예산요인을 제거한다. 또한 예산을 편성한 후 사업계획을 변경하는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항목 간의 금액을 전용할 수 있게 하여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1989년부터 책임경영제가 도입되면서 종전 국가보훈처장으로부터 승인을 받던 예비비 사용, 자본예산 목간전용과 자본예산 이월사항이 이사회 의결사항으로 변경되었고, 경영여건의 변화에 대응하고 부서별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기 위해 비용예산 전용권을 일부 과목을 제외하고 사업부서장에게 위임했다. 자본예산 집행에 있어서도 소관 책정예산 중 자체 취득할 수 있는 한도액을 위임하여 책임경영제에 부응하는 예산운영방식을 채택해 자율권을 대폭 확대했다. 2018년에는 3억 원 미만의 자본예산 전용권을 소속기구장에게 위임해 자율권 보장을 통한 책임경영을 강화했다.

예산 운용	
구분	내용
예산의 전용	•자본예산 이사회 의결
예산의 이월	•원칙 : 이월사용 불가 •예외 : 공사 중 또는 구매 중인 자본예산은 이사회 승인, 건설중인 자산 중 당해연도에 지출하지 못한 금액은 공사 완성 연도까지 이월 사용
예비비 사용	•이사회 의결 및 국가보훈처장 승인

부문예산 운용	
구분	내용
예산의 전용	•부서 비용 예산 내 과목 간 전용 •예외 : 인건비, 인건비성 경비, 접대성(업무추진비, 개발비, 잡비)은 이사장 승인 •원칙 : 소속기구의 3억 원 미만 자본예산 전용 소속기구의 장에게 위임

예산의 규모

보훈공단 설립 첫해인 1981년(11.1~12.31), 원호병원과 수원사업소(철제), 인천사업소(목제) 그리고 특수사업소(관리) 등 4개 부서 18억 원으로 출발하여 1982년 182억 원에서 2021년도에는 1조 1,650억 원 규모로 1982년 대비 64배가 증가되었다.

한편, 사업부문별 예산규모에서 의료사업은 1981년 원호병원 한 곳에 두고 6억 2,000만 원으로 출발하여 1982년도 44억 500만 원, 2021년에는 서울, 부산, 광주, 대구, 대전, 인천 6개 보훈병원에 1조 975억 700만 원으로 1982년 대비 249배의 높은 증가를 나타냈다. 이는 국가유공자 등의 가료범위 확대와 고령화 추세로 인해 의료수요가 계속 증가하고 근접진료 편의를 제공하는 위탁진료의 확대와 종전 진료비의 70~80% 수준이던 국비진료보상금이 2008년부터는 정산제 실시로 전액 국고에서 배정받은 것에 기인한다.

보훈복지·교육사업은 1993년 양로·양육사업 2억 6,500만 원으로 출발하여 2021년에는 보훈복지사업에 보훈원, 수원·광주·김해·대구·대전·남양주·원주보훈요양원, 전주보훈요양원개원준비단, 보훈재활체육센터, 보훈휴양원 등 11개 부서 및 교육사업에 보훈교육연구원 등 12개 부서 653억 7,100만 원으로 1993년 대비 247배의 증가율을 보였다. 이는 국가유공자의 고령화에 따른 복지수요 증가와 다양한 보훈서비스에 기인한다.

연도별 예산의 주요특징		
구분	예산	내용
1981	•수익예산 : 18억 4,300만 원 •자본예산 : 8,400만 원	1981년 11월 2일 공단 설립으로 2개월 예산 반영
1982	•수익예산 : 182억 1,700만 원 •자본예산 : 13억 6,300만 원	건설지원사업, 합성수지사업, 편직사업 등 3개 사업이 신규로 확대됨에 따라 수익사업 수익규모가 182억 1,700만 원으로 증가되었으며 자본예산은 반월기계공장을 인수함에 따라 4억 800만 원, 반월편직공장 인수로 4억 2,000만 원, 수원시설 확장으로 2억 500만 원 등 총 13억 6,300만 원을 책정
1983	•수익예산 : 302억 3,200만 원 •자본예산 : 64억 8,600만 원	1983년 8월 서울원호병원이 강동구 둔촌동으로 이전 개원되어 250 병상에서 400병상 규모로 의료시설이 확충되고 세관물품판매사업이 신규사업을 추진함에 따라 수익규모가 증가되었으며 자본예산 증가는 서울원호병원 이전·개원에 따른 장비취득 9억 900만 원, (주)한성 인수계약금 9억 원, 부산철도병원 매수금 중 1983년도 해당분 및 개보수, 시설장비 구입비 등 21억 8,300만 원, 합성성남공장 매수 및 개보수비 19억 5,500만 원 등을 책정

구분	예산	내용
1984	•수익예산: 358억 6,800만 원 •자본예산: 23억 9,800만 원	1984년 4월 140병상의 부산원호병원의 개원으로 수익규모가 증가되었으며 주력사업인 목제 및 철제공장을 반월공업단지 내로 이전 현대식 설비의 양산체제공장으로 전환키 위한 부지확보 및 호남권 국비환자진료 수요에 대처하기 위해 120병상의 광주보훈병원 신축부지확보 등의 투자비를 자본예산에 책정
1985	•수익예산: 340억 8,200만 원 •자본예산: 40억 8,400만 원	목재와 합성수지사업의 물량감소로 수익규모가 감소되었으며 봉제사업은 1월 중 사업을 폐지할 예정이었으나 사업을 계속하게 되어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했으며, 자본예산은 계속사업비로 광주보훈병원 신축비 및 반월공장 부지매입비 30억 2,500만 원, 부산병원 매수금 3억 700만 원 등 39억 4,400만 원, 목제 및 봉제 기계장치 구입에 1억 4,000만 원을 추가경정예산에 반영
1986	•수익예산: 352억 6,900만 원 •자본예산: 49억 5,800만 원	광주보훈병원 신축공사의 계속비, 의료장비 구입 등 38억 1,100만 원이 책정되었으나 광주보훈병원 비품구입비 등 부족액과 반월공장 신축설계비 등에 5억 5,800만 원을 추가경정예산에 반영
1987	•수익예산: 400억 1,400만 원 •자본예산: 39억 4,900만 원	광주보훈병원 개원 및 관세품판매사업의 일반상품 판매장 신설로 수익규모가 증가되었으며 자본예산은 부산보훈병원 매수금 및 의료장비 취득, 수원공장 내 개인소유 토지 매입 등 18억 3,700만 원이 책정되었고, 광주보훈병원 진입로 확장매입비와 철제공장 건립비 등 21억 1,200만 원을 추가경정예산에 반영
1988	•수익예산: 465억 8,800만 원 •자본예산: 41억 5,800만 원	관세품판매사업의 면세담배 판매비 신설로 수익규모가 증가되고 자본예산은 반월목제공장 건립비 등 29억 1,300만 원, 서울보훈병원 보일러 교체 및 가스배관공사, 의료장비 보강 등 12억 4,500만 원 반영
1989	•수익예산: 523억 4,800만 원 •자본예산: 79억 8,900만 원	부산보훈병원 신설 이전을 위한 토지매입비 등 신축비 42억 5,600만 원과 서울장기병동 및 의지창 신축비 6억 9,600만 원, 의료장비 보강 등 7억 8,000만 원 등 71억 4,000만 원을 책정했으며 광주보훈병원 병상 증설(120 → 200병상) 및 목제사업도장설비 등 8억 4,900만 원을 추가경정예산에 반영
1990	•수익예산: 647억 6,800만 원 •자본예산: 137억 2,000만 원	광주보훈병원 병상증설(120 → 200병상)과 국비진료 보상금이 증가됨에 따라 수익규모가 증가했으며, 자본예산은 계속사업비인 부산보훈병원 신축, 서울보훈병원 장기요양병동 및 의지창 신축비가 59억 100만 원, 의료장비보강 27억 7,700만 원 등 101억 800만 원이 책정되었으나, 의료장비 현대화 계획에 의한 추가확보 22억 600만 원, 정신재활관 신축 2억 7,600만 원, 대구보훈병원 200병상 신축을 위한 부지매입비 등 11억 2,900만 원을 추가경정예산에 반영

구분	예산	내용
1991	•수익예산: 809억 7,900만 원 •자본예산: 223억 1,100만 원	서울보훈병원은 장기요양병동 개원으로 병상수가 440병상에서 740병상으로 300병상이 증설되어 수익규모가 증가되었으며 자본 예산은 계속 사업비인 서울보훈병원 장기요양병동 및 의지창 개원, 부산보훈병원 개원, 대구보훈병원 신축비 159억 2,200만 원, 광주 보훈병원 병상증설 2억 8,400만 원, 의료장비 보강 34억 9,000만 원 등 219억 1,800만 원이 책정되었으나 220병상의 광주보훈병원이 추가로 80병상을 증설함에 따라 3억 9,300만 원을 추가경정예산에 반영
1992	•수익예산: 945억 7,100만 원 •자본예산: 199억 5,300만 원	대구보훈병원이 완공됨에 따라 총 1,580병상으로 규모가 확대되어 수익규모가 증가
1993	•수익예산: 1,158억 900만 원 •자본예산: 101억 3,200만 원	의료사업 수익규모는 증가하고 자본예산은 감소했으며 무의탁 노령자 국가유공자 및 미성년자 보호시설을 국가로부터 위탁 운영
1994	•수익예산: 1,274억 4,300만 원 •자본예산: 291억 700만 원	의료사업 수익은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진료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 으로 규모가 증대했으며 자본예산은 340병상규모의 대전보훈병원 신축비 124억 3,600만 원을 책정
1995	•수익예산: 1,349억 1,000만 원 •자본예산: 328억 1,100만 원	자본예산은 본사 사옥구입비90억 3,000만 원이 확정되어 증가되었으며 관세품판매사업은 관세청 물량 전량인수에 따라 보세장치구입비 17억 2,000만 원을 추가경정예산에 반영
1996	•수익예산: 1,590억 9,700만 원 •자본예산: 199억 6,900만 원	수익예산은 의료수요증가와 수익사업 활성화로 증가되었으며 자본 예산은 대전보훈병원 신축비 80억 3,300만 원을 책정
1997	•수익예산: 1,769억 3,200만 원 •자본예산: 575억 9,600만 원	IMF 영향으로 수익사업이 침체됨에 따라 수익증대 일환으로 하나로통신(주) 주식을 매입·운영하기로 결정되어 이를 매입하기 위한 223억 5,000만 원을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했으며 대전보훈병원이 개원되어 전국 보훈의료망 구축
1998	•수익예산: 1,959억 4,900만 원 •자본예산: 166억 6,500만 원	대전보훈병원 운영과 고엽제환자의 신규검진 및 진료 그리고 통신사업 등으로 인하여 의료사업 수익규모가 증가했으며 고엽제검진 및 진료를 위해 수익예산 7억 1,000만 원, 자본예산 15억 원을 추가경정예산에 반영
1999	•수익예산: 2,005억 7,800만 원 •자본예산: 346억 9,900만 원	하나로통신의 유상증자로 145억 600만 원, 고엽제 검진기간 단축으로 20억 1,400만 원, 광주보훈병원 이전 신축 부지매입비 61억 9,100만 원 등을 추가경정예산에 반영
2000	•수익예산: 2,137억 2,900만 원 •자본예산: 422억 8,500만 원	중앙보훈병원 장례식장 신축부지 매입비 27억 7,000만 원과 광주 보훈병원 이전공사비 207억 3,800만 원을 자본예산에 책정
2001	•수익예산: 2,770억 4,800만 원 •자본예산: 420억 5,100만 원	신규 개발한 복권사업으로 수익의 증대가 기대됨에 따라 수익예산에 493억 4,000만 원과 자본예산 7,700만 원을 추가경정예산에 반영

구분	예산	내용
2002	•수익예산: 3,526억 8,600만 원 •자본예산: 449억 4,900만 원	인터넷 복권사업으로 수익규모가 확대되었으며 합성수지사업소는 정리계획으로 한시 예산만 책정하고 자본예산은 광주병원 신축비 등 의료시설 및 의료장비 구입 재원을 중점적으로 책정
2003	•수익예산: 4,101억 5,400만 원 •자본예산: 234억 5,100만 원	예산의 주요 재원인 복권사업 수익극대화를 위해 온라인 로또복권 사업비를 336억 5,900만 원 증액했으며 제주도에 국가유공자 휴·요양을 위한 시설 건립비와 서울·부산병원에 재활체육관을 신축하는 등 의료시설·장비 구입비를 자본예산에 책정
2004	•수익예산: 4,427억 7,700만 원 •자본예산: 552억 900만 원	2001년 이후 주 수익원인 복권사업을 4월 1일부터 정부에서 전담하게 됨으로써 복권사업비를 142억 8,500만 원 감액 편성했으며 자본예산은 부산·대구병원 요양병동 및 장례식장 신축, 광주·대전병원 재활체육시설 건립 등 의료시설·장비 구입 등에 책정
2005	•수익예산: 4,260억 6,300만 원 •자본예산: 716억 5,800만 원	복권기금법 시행으로 2004년 4월 1일부터 복권사업 중단으로 수익예산이 전년대비 4% 축소 편성되었으며 자본예산은 중앙보훈병원 건립공사비와 부산·대구병원 요양병동 및 장례식장 건립, 대구병원 재활체육시설 건립 및 보훈병원 EMR 시스템 구축비 등 필수 첨단 디지털 전산장비 등에 책정
2006	•수익예산: 4,229억 5,900만 원 •자본예산: 976억 1,400만 원	무역사업 중단 및 수익사업 수주물량 감소에 따라 수익예산이 감소 편성되었으며 자본예산은 중앙보훈병원, 대구병원 요양병동 및 재활체육시설 건립과, 양로 요양시설 건립, 의료장비현대화 등에 세출예산·복권기금 지원비를 책정
2007	•수익예산: 5,039억 700만 원 •자본예산: 744억 5,900만 원	2007년도 의료·복지사업의 고정경비 증가 등 재정운영 여건의 어려움을 감안한 예산절감 노력과 수익성을 고려한 자본투자로 경영개선에 역점
2008	•수익예산: 5,539억 3,000만 원 •자본예산: 865억 9,700만 원	의료사업 진료보상금 정산제 시행에 따른 수익예산을 편성했으며 중앙보훈병원, 보훈재활체육센터, 대구병원 요양병동 등 건설 중인 자산에 605억 8,000만 원을 책정
2009	•수익예산: 6,299억 9,000만 원 •자본예산: 693억 3,400만 원	인건비를 동결하고 경상경비를 5% 삭감했으며 자본예산은 중앙보훈 병원, 보훈재활체육센터 건립, 필수 의료장비 구입 등 세출예산·복권기금 지원 위주로 편성하고 기타 자본투자를 최소화
2010	•수익예산: 6,619억 5,600만 원 •자본예산: 1,019억 7,600만 원	경영여건을 감안하여 경상경비는 2009년도 수준으로 편성하는 등 경영수지 개선에 역점을 두고 손익예산을 편성했으며, 공단 본사 원주이전 부지매입비, 중앙보훈병원 건립, 부산병원 의료시설 확충 등 건설 중인 자산에 796억 2,400만 원을 책정
2011	•수익예산: 7,187억 6,820만 원 •자본예산: 1,021억 718만 원	정부의 공공기관 지방이전계획에 따라 2012년도에 강원도 원주시 혁신도시로 이전하는 보훈공단 사옥에 32억 원 예산이 책정되었고 8 월 개원하는 중앙보훈병원에 첨단 의료장비 총 125종 도입에 342억 원 책정

구분	예산	내용
2012	•수익예산: 7,669억 3,300만 원 •자본예산: 649억 7,726만 원	보훈환자 특성에 맞는 재활센터 200병상, 만성질환관리센터 500병상 운영을 위한 중앙보훈병원 기존 건물 보수에 488억 원 예산을 책정
2013	•수익예산: 8,166억 9,333만 원 •자본예산: 652억 8,890만 원	중앙보훈병원 리모델링 및 전문진료센터, 외래시설 배치와 대전보훈 병원 심혈관센터 증축에 310억 배정, 남양주보훈요양원 추정공사비 부족에 따른 47억 8,200만 원 예산을 기획재정부와 협의하여 추가로 확보하여 공사 착공
2014	•수익예산: 8,565억 9,433만 원 •자본예산: 386억 3,225만 원	광주보훈병원 진료센터 증축공사에 9억 원 책정했고 대전보훈병원 심혈관센터 개설을 위한 의료장비와 리모델링에 27억 원 배정, 복권기금 의료장비 선진화 예산 도입
2015	•수익예산: 8,589억 4,806만 원 •자본예산: 550억 2,908만 원	중앙보훈병원 외장교체공사와 치과 진료적체 해소를 위한 치과기공실 이전공사, 의료가기 구입 등을 위한 114억 원 책정과 부산병원 병동부 리모델링에 80억 원 책정
2016	•수익예산: 8,845억 6,588만 원 •자본예산: 644억 8,878만 원	중앙보훈병원 120병동 및 중환자실과 병동 음압병실 설치로 감염 관리를 강화하고 장례식장 증축 공사와 인프라 구축 등에 130억 원을 책정
2017	•수익예산: 9,321억 2,095만 원 •자본예산: 696억 7,660만 원	위탁진료 입원환자 증가와 영업 외 수익 분야에서 수익규모가 증가되었으며 보훈의학 연구협력 네트워크 구성 등 연구기능 특화를 위한 보훈의학연구소 건립에 133억 원 책정
2018	•수익예산: 1조 98억 2,906만 원 •자본예산: 675억 9,597만 원	중앙보훈병원 장례식장 증축 및 개소로 수익규모가 증대되었으며 인천보훈병원 건립과 의료가기, 비품 등 유형자산 구입에 179억 원 책정
2019	•수익예산: 1조 798억 1,813만 원 •자본예산: 900억 1,742만 원	광주보훈병원 재활센터 증축과 인공신장실 확장 공사 등에 279억 원을 책정했으며 환자 맞춤형 의료전달체계 확립을 위한 대전보훈병원 수술실 확장과 내과와 의료지원시설 확충, 장례식장 건립 등에 84억 원 책정 시설 노후화 및 진료수요 증가에 따라 진료시설 확충 관련 정부예산 175억 1,300만 원 확보 후 2020년 예산 반영
2020	•수익예산: 1조 1,204억 9,024만 원 •자본예산: 1,135억 6,810만 원	국가유공자의 고령화에 따라 증가하는 의료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중앙보훈병원 치과병원 증축으로 보훈의료서비스를 개선하고 지하철 9호선 중앙보훈병원역 연결통로 공사를 비롯한 유형자산에 210억 원 책정
2021	•수익예산: 1조 1,649억 8,798만 원 •자본예산: 1,047억 8,498만 원	중앙보훈병원 치과병원 증축 공사의 사업기간이 연장됨에 따라 총사업비를 조정하여 60억 원을 책정하고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공공의료기관으로서 대전보훈병원의 국가지정 음압병동과 재활센터 건립에 156억 원을 책정

복권기금 관리

보훈공단 설립 이후 기존 수익사업은 구조적인 한계와 1998년 IMF 영향 등 사업여건 변화로 더 이상 사업신장이 어려운 실정이었다.

반면, 보훈병원 시설확충 등 목적사업에 필요한 자원은 계속 증가하는 추세를 보임에 따라 기존의 수익사업 외에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수익이 보장되는 신규사업 개발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에 2000년 10월 복권사업을 신규사업으로 채택하고, 2001년 1월 16일 개정된 보훈공단법에 의거 본격적으로 복권사업에 참여했다.

복권사업에 참여하여 2004년 정부방침에 따라 복권사업이 종료될 때까지 총 1,998억 원의 수익을 창출했다. 그 수익금으로 의료시설 확충과 최신의료장비 확보, 복지시설 확충 및 재무구조 개선 등 경영 측면에서 획기적인 성과를 이루었다.

2004년 4월 1일 복권 및 복권기금법이 제정·시행됨에 따라 보훈공단 자체 복권사업은 종료되었으나 동법 제정 이전에 개별법에 근거한 복권 발행 기관으로서 매년 복권기금 법정배분사업 지원을 받아 의료장비, 의료시설 확충 및 복지시설 운영지원 등에 집행하고 있다. 또한 동법 제22조에 의거 복권기금의 효율적, 투명적 사용을 위해 기획재정부는 매년 성과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복권기금 법정배분사업 실적										(단위 : 백만 원)
구분	2004~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계	159,376	29,599	29,602	28,779	33,053	39,806	40,785	39,267	47,080	53,845
선진 의료장비	-	-	-	7,584	11,734	14,053	12,864	25,909	19,752	24,262
의료시설 건축 및 개보수 지원	37,123	29,599	21,525	9,380	11,449	15,683	17,851	3,288	16,428	11,775
보훈서비스 운영 지원	120,576	-	8,077	11,815	9,870	10,070	10,070	10,070	10,900	14,099
기타	1,677	-	-	-	-	-	-	-	-	3,709

제 4 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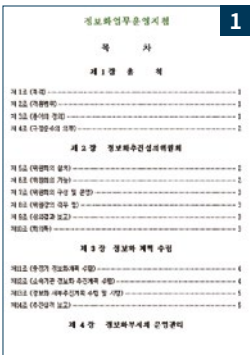
정보화 시스템

보훈공단의 정보화 업무는 1989년 서울, 광주보훈병원 등 환자접수, 원무수납 및 진료비청구를 위한 PM/PA(원무관리시스템) 도입·운전을 시작으로 OCS(처방전달시스템, 1998년), PACS(의료영상전송시스템, 2003년) 등 첨단전산화를 공공의료기관 중에서 선도적으로 구축하여 정보화 역량을 강화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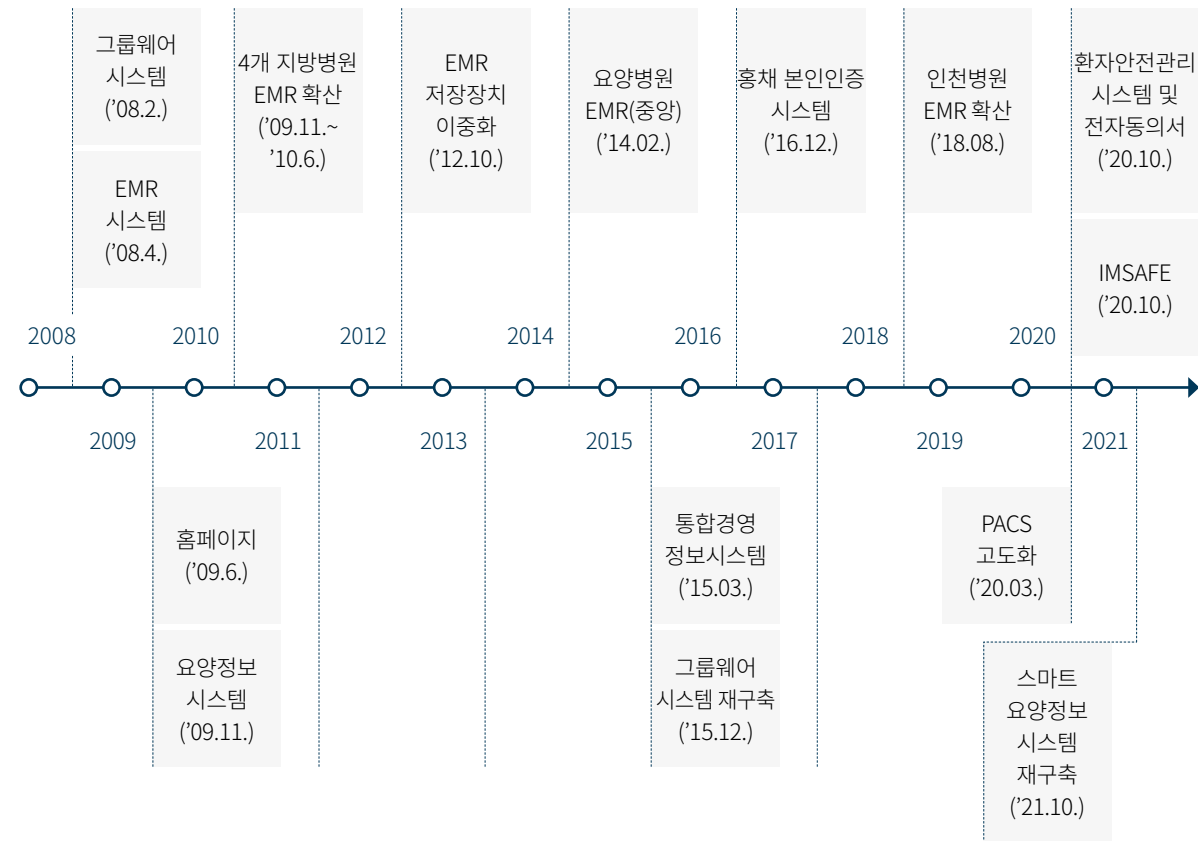
또한, 보훈병원 통합 EMR(전자의무기록 시스템, 2008년), 그룹웨어(2008년), 요양정보시스템(2009년), 통합경영정보시스템(2015년) 구축 등을 통해 의료·복지·경영 업무수행에 정보화는 핵심 요소로 성장했다. 디지털 뉴딜, 포스트 코로나 시대로 접어들며 보훈공단 정보화는 모바일, 클라우드, 빅데이터 등 ICT와 현업 업무의 융합으로 보훈의료·복지 통합서비스를 실현하려는 단계에 있다.

향후 변화하는 의료환경에 대응하여, 보훈공단 IT자원을 통합하고 4차 산업혁명 기반 기술 활용으로 IT 업무 고도화를 달성하여 보훈의료·복지 데이터 공유 등 공공의료·복지의 새로운 모델 창출이 필요함에 따라, 보훈공단은 ICT와 업무의 융합으로 국가유공자 중심의 의료·복지 통합서비스 실현 이라는 정보화 미션에 부합하는 통합정보시스템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 앞으로 노후화된 정보시스템을 재구축하고 보훈공단 내 산재한 정보자원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보훈공단 통합정보시스템 구축을 통해 보훈가족에게 최상의 의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기반을 구축할 것이다.

- 1 정보화 업무 운영지침
- 2 의료포털 메인화면
- 3 그룹웨어 메인화면



정보화 추진과정



구분	주요내용
1999	▪ OCS(Order Communication System) 처방전달시스템 - 환자의 진료정보 및 각종 의학정보를 보관한 데이터베이스와 환자를 진단한 처방 내역을 통신망을 통해 해당 진료부서로 전달해 주는 OCS는 1999년 서울보훈병원을 시작으로 2000년 4개 지방보훈병원으로 확산 구축했다. OCS는 처방을 전산화하여 수작업에 의존했던 이전보다 처리시간과 진료의 질을 높일 수 있었다. 또한 병원별로 상이했던 프로그램과 데이터 구조를 표준화하여 2004년 통합 OCS를 구축 완료했다. OCS 도입·확산 현황 서울보훈병원 도입 (1999년) → 4개 보훈병원 (부산·광주·대구·대전) 도입(2000년) → 5개 병원 OCS 표준화(2004년)

구분

주요내용

2003

■ 보훈공단 정보화업무지침 제정

- 보훈공단의 정보화가 빠르게 진행됨에 따라 정보화를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구축, 운영 및 관리하기 위해 정보화의 추진절차, 정보시스템의 운영관리 및 보안체계 구축 등의 내용으로 정보화업무운영지침을 제정했다.

■ PACS(Picture Archiving Communication System 의료영상전송시스템)

- 2003년 8월부터 PACS를 구축함으로써 의사가 환자 질환에 대한 진단업무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수행할 수 있어서 의료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기할 수 있게 되었다. (2020년 사용자 편의성 향상을 위한 고도화 수행)

- PACS는 의료 영상, 특히 방사선학적 진단 영상들을 디지털 형태로 획득한 후, 고속의 통신망(Network)을 통해 전송하고, 과거의 X-ray 필름 보관 대신에 디지털 정보 형태로 의료영상을 저장하며, 진단방사선과 의사 및 임상 의사가 기존의 필름 대신에 영상조회장치를 통하여 환자를 진료하는 포괄적인 디지털 영상관리 및 전송시스템을 의미한다.

- 각종 영상 촬영장치로 촬영 후 영상들을 CR(Computed Radiography)을 통해 디지털화하며, 하드디스크와 같은 저장매체에 저장, 통신망을 통해 각 단말기로 전송하면 진찰실, 병동 등에서 실시간으로 환자의 영상 수집이 가능하다.

PACS 도입·확산 현황

환자	병원	의사
- 신속한 진료 - 치료기간 단축 - 입원비용 절감 - 피폭량 감소	- 재원일수 단축으로 병상 증설 효과 - 필름관련 비용 절감 - 쾌적한 병원환경 유지 - 필름 분실 등 의료분쟁 소지 감소 - 병원 이미지 제고	- 판독의 정확성 제고 - 영상 접근성 용이 - 교육자료 활용성 확대 - 진료시간 단축 - 협진, 연구의 활성화

■ 휴양원 업무 전산시스템 구축

- 국가유공자 및 유가족을 위한 휴양시설 운영업무를 수작업으로 처리해 고객에게 불편함을 주었던 것을 객실 예약관리, 실적통계 등 업무의 전산화로 운영업무 효율화와 질적 서비스 향상, 휴양원 시설 이용 등 고객만족도를 향상시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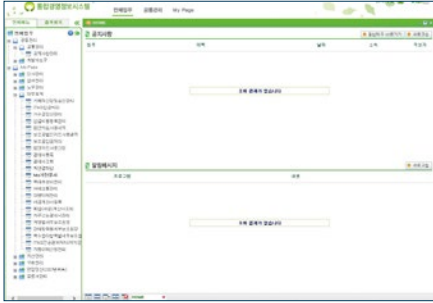
구분	주요내용												
2004	▪ DRS(Disaster Recovery System, 재해·재난복구시스템) - 2004년 9월 전국 5개 보훈병원에 분산된 데이터를 분당 데이터센터(IDC)에서 원격 복제방식의 DRS를 구축함으로써 공동 Back-Up 체계를 수립하여 업무의 연속성과 재해복구가 가능하게 되었다.												
2005	▪ EDW(Enterprise Data Warehouse, 전사적 데이터웨어하우스) - 보훈병원의 경영분석 및 진료분석을 일원화된 통계정보시스템인 EDW를 구축함으로써 통계 기반의 실적 산출 및 정량적 통계에 따른 정책결정의 기초자료를 제공할 수 있게 되었다. <table><tr><th colspan="2">EDW 개요</th></tr><tr><th>구분</th><th>주요내용</th></tr><tr><td>개요</td><td>• 업무처리를 위한 경영, 진료, 통계정보 구축</td></tr><tr><td>대상업무</td><td>• 진료, 진료지원, 원무, 일반업무</td></tr><tr><td>사용자수</td><td>• 약 300명 정도(파워유저와 일반유저)</td></tr><tr><td>분석영역</td><td>• 경영정보의 제공을 위해 정형화된 데이터를 분석하여 Data MART를 구성 • 정보를 다각적인 방법으로 분석하기 위해 부가적인 방법으로 정보의 추출이 가능하게 분석영역을 확대</td></tr></table>	EDW 개요		구분	주요내용	개요	• 업무처리를 위한 경영, 진료, 통계정보 구축	대상업무	• 진료, 진료지원, 원무, 일반업무	사용자수	• 약 300명 정도(파워유저와 일반유저)	분석영역	• 경영정보의 제공을 위해 정형화된 데이터를 분석하여 Data MART를 구성 • 정보를 다각적인 방법으로 분석하기 위해 부가적인 방법으로 정보의 추출이 가능하게 분석영역을 확대
EDW 개요													
구분	주요내용												
개요	• 업무처리를 위한 경영, 진료, 통계정보 구축												
대상업무	• 진료, 진료지원, 원무, 일반업무												
사용자수	• 약 300명 정도(파워유저와 일반유저)												
분석영역	• 경영정보의 제공을 위해 정형화된 데이터를 분석하여 Data MART를 구성 • 정보를 다각적인 방법으로 분석하기 위해 부가적인 방법으로 정보의 추출이 가능하게 분석영역을 확대												
2008	▪ 통합 EMR(Electronic Medical Record 전자의무기록) 시스템 - 2008년 4월 중앙보훈병원을 시작으로 보훈병원 통합 EMR시스템을 가동했으며,가동 후 지속적인 프로그램 개선을 통해 2009년 11월 부산보훈병원, 2010년 1월 광주보훈병원, 같은 해 4월 대구보훈병원, 6월 대전보훈병원에 도입했다. 2018년 8월 인천보훈병원이 가동됨에 따라 전국 6개 보훈병원이 통합 EMR시스템을 운영함으로써 국가유공자는 물론 일반 환자에게 최상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게 되었다. 이는 새롭게 출범한 신개념 종합 헬스케어서비스인 Bohun-THIS와 맞물려 정부 시책 사업인 보건의료사업 선진화 전략에도 발전적으로 접근할 수 있게 되었다.												

구분	주요내용
2008	EMR(Electronic Medical Record)System 개요 • 종이매체에 기록되어 온 환자의 모든 의무기록 또는 업무처리 형태를 정보내용에 변동 없이 동일한 효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전산매체를 통해 업그레이드 시킨 형태라고 볼 수 있다. • 환자 : OCS시스템 상에서 환자는 차트가 의무기록실에서 전달될 때까지 진료실에서 기다렸고, 또한 환자가 하루 동안 2개 이상 진료과에 접수했을 경우 차트를 직접 가지고 다니거나 다시 전달될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그러나 EMR시스템 상에서는 환자가 진료실에 들어가면 곧바로 의사가 컴퓨터에서 과거 진료기록이나 각종 검사기록을 조회할 수 있으며, 환자와 면담 후 그 결과를 토대로 진료기록을 작성하여 진료 대기시간이 단축되었다. 이와 같이 진료의 질 향상과 진료시간 단축으로 서비스 향상을 기대할 수 있다. • 진료의사 : 병동, 응급실, 의국, 외래진료실 등 병원 내 어디서든 기존 종이차트를 기다림 없이 환자의 진료내역이나 기록을 실시간으로 조회 후 곧바로 진료가 가능하다. 또한 종전에는 본인이 작성한 병록 외의 다른 진료과 병록을 참고할 때 내용을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으나 EMR 상에서는 전자차트로 디지털화되어 있으므로 인가된 사람은 누구나 해독 가능한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어 환자 진료 시 보다 정확한 처방이 가능하게 되었다. • 간호부 : 통합 EMR시스템에 대한 만족도가 가장 높은 부서이다. OCS 상에서 간호부는 수작업 위주의 업무 형태로 진행되어 왔지만 EMR 시스템에서는 각종 투약이나 주사, 처치 등에 대한 모든 행위의 시간이나 수행자 등이 전산으로 기록됨은 물론 이동식 카트를 이용해 노트북 컴퓨터 등을 직접 가지고 다니며 환자상태 체크 및 수행 기록이 가능하다. • 의무기록실 : 기존 종이차트 관리 시스템 상에서는 차트 작성과 보관에 이르기까지 많은 시간적, 물리적, 공간적 자원이 소요되었으나 EMR 시스템 도입 이후 저장 공간의 축소로 인한 공간 활용과 종이차트 배달 및 수거작업들을 하지 않아도 되며, 미비 기록에 대한 전산관리로 의무기록 완성도가 높아짐으로써 각종 환자분석 통계자료 및 연구자료 활용도가 높아졌다.

구분	주요내용
2008	• 약국 : 환자의 전산화된 의무기록을 참고하여 약처방이나 복약 상담 시 환자상태, 환자이력, 증세 등을 감안한 투약용량, 복용방법 등을 정확하게 환자에게 전달이 가능하다. • 진단검사의학과, 진단방사선과 등의 검사부서 : 각종 검사 동의서를 EMR 시스템 상에서 자동 출력하여 사용 가능하고 검사 항목별 검사결과 입력 및 조화가 편리하며 정도관리 메뉴 신설로 정도관리 데이터 관리가 용이하게 되어있다. • 원무 업무 : 환자 접수 시 보험정보 조회는 물론 국가유공자 자격정보, 감면정보, 원상질병 등이 실시간으로 조회가 가능하다. 또한 환자 내원 시 최초의 고객접점 부서인 원무창구의 접수화면에서 내원한 환자에 대한 외래 예약내역은 물론 검사 예약내역 등의 조회가 가능하여 환자에게 당일 방문 진료과 등에 대해 보다 친절하고 상세한 설명이 가능하다. ▪ 그룹웨어시스템 - 그간 수작업으로 처리해 오던 결재행위의 소요시간 단축과 표준화된 문서체계 정립을 이루고자 2001년 10월 본부 감사실 및 기획이사 소관부서(기획조정실, 행정지원실, 정보지원실)를 대상으로 전자결재 시범 시스템을 도입해 전자문서 처리에 대한 직원들의 점진적인 적응을 유도하면서 공단의 환경에 맞도록 결재시스템을 구축하고 내부분서 표준화 및 결재과정 간소화 작업을 병행 추진했다. - 2008년 2월 전자결재, 지식관리, 사내 메신저, 웹 메일을 한 번에 관리할 수 있는 지식경영 기반의 통합 그룹웨어시스템을 구축하여 전 기관이 사용 중이며, 2010년 7월 보훈공단과 정부부처 간의 전자결재 문서유통 시행으로 업무 효율성을 제고했다. 또한 시스템 노후화 및 운영 속도 개선을 위해 2015년 12월 재구축해 장애를 사전 예방하고 시스템 성능 향상으로 직원 만족도를 제고했다.

구분	주요내용
2009	▪ 요양정보시스템 - 보훈요양원의 수작업, 중복업무를 제거하여 업무 효율성을 제고하고 입소관리부터 서비스까지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요양정보시스템을 구축했다. - 국내 최초로 KOMI차트를 이용한 정보시스템 구축으로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맞춤형 케어관리 및 전국 보훈요양원 업무 표준화를 통한 선진적인 시스템 운영으로 보훈요양원에 대한 고객만족도 향상에 기여했다. 
2010	▪ e-감사시스템 - 2010년 감사 업무관리 전산화로 통합정보관리 운영에 따른 시스템 감사 기반을 확보하고, 사전예방 감사활동 강화로 감사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여 감사업무 효율성 및 생산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e-감사시스템을 구축했다. - 기존 감사업무 프로세스를 분석하여 감사실 사용자와 현업사용자를 구분하여 별도의 접근 경로를 사용했으며, 감사업무의 보안성 및 독립성 제공을 위해 모든 감사업무 기능을 e-감사시스템에 반영했다. e-감사시스템 구축을 통해 감사기획·실행·보고·처분·사후관리의 일관된 프로세스 관리가 가능해졌으며, 기존 그룹웨어의 일상감사 기능 및 감사관리 자료를 e-감사시스템으로 이관하여 모든 감사 업무기능은 e-감사시스템에서 독립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되었다. 공단 감사실은 e-감사시스템 활용을 통해 감사행정 업무의 체계적인 운영 및 효율적인 업무처리가 가능하다. ▪ 보훈교육연구원 홈페이지 및 교육관리시스템 - 2010년 12월 국가정체성 및 보훈가치 정립을 위한 나라사랑 선양교육 확산체계 구축의 일환으로 홈페이지 트렌드 변화에 맞추어 보훈교육연구원의 홈페이지를 개선 구축했으며, 제대군인, 교원, 학생, 공무원 중심의 현행 오프라인 연수교육 업무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 기본적인 신청, 접수 및 

구분	주요내용
	설문관리를 위한 교육관리시스템을 구축했다. 또한 2011년 개편된 CI를 반영해 보훈공단의 아이덴티티를 보여주는 세련된 디자인으로 메인화면을 개선하고, 사용자들의 흥미 유발과 효과적인 교육연구과정 소개를 위한 동영상 콘텐츠를 포함하여 언제 어디서든 보훈교육연구원의 교육 및 연구 소식을 접할 수 있게 되었으며, 새롭게 개편된 홈페이지와 교육관리시스템을 통해 백년대계를 위한 국가 정체성 확립과 호국보훈에 대한 대국민서비스 강화 및 효과적인 홍보활동으로 국가보훈에 대한 이미지 향상에 기여할 수 있게 되었다.
2011	■ 홈페이지 리뉴얼 - 2011년 보훈공단 30주년을 맞아 변경된 CI를 반영하여 보훈공단 및 보훈병원 통합홈페이지를 개편했고, 스마트폰에서 접속 가능한 모바일 홈페이지를 구축해 언제 어디서든 소식을 접할 수 있게 되었다. - 디자인,기능적인 개편 이외에도 웹 접근성 및 웹 표준 지침을 준수한 개발로 정보소외계층에 대한 접근성을 향상시켜 공공기관 홈페이지로서의 위상을 높이고, 고객을 위한 홈페이지로 발전하고 있다. 
2014	■ 요양병원 EMR시스템 - 보훈가족에게 예방, 치료 및 요양을 포함하는 개인별 맞춤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중앙보훈병원에 병원급의 요양병원 및 재활의학센터 운영으로 요양병원 업무 지원 및 요양병원과 중앙보훈병원 간의 위·수탁 관련 업무, 정산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2014년 2월 요양병원 EMR시스템을 구축했다. - 요양병원의 원무, 진료, 진료지원, 심사청구, 구매·재고 등의 업무기능 개발 및 EMR 등 타 시스템과의 유기적 연동으로 최적의 업무환경을 제공하여 요양병원 의료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했다.

구분	주요내용
2015	■ 통합경영정보시스템 -보훈공단의 경영정보는 본사 및 병원 등 소속기구별로 산재 되어 관리되고 있었고,이에 보훈공단 전사적 자원의 관리 체계가 미흡하고, 시스템별 동일 데이터 중복 입력 업무 등 업무 비효율성에 따라 경영정보 통합 개발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 본사 및 소속기구 간 업무 표준화를 하고, 산재 되어있는 경영정보(인사·급여·노무·재무회계·예산·자산)의 통합관리를 위해 2015년 3월 통합 경영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했다. - 시스템 구축을 통해 보훈공단은 인사, 급여, 재무회계 등 행정업무의 효율성을 개선했고, 본사 및 각 소속기구는 전사적 차원의 자원관리 기능이 강화되었다. 
개선효과	
구분	주요내용
인사	•통합인사DB 구축을 통한 데이터 정합성 및 일관성 확보 •인사정보 시스템 간 연계를 통한 중복업무 배제
급여	•표준화된 급여업무 수행 및 급여 계산을 위한 수당정보 등 자동 취합
노무	•노무관리 시스템 구축으로 업무의 적시성, 일관성, 연속성 확보
재무회계	•전 사업장 통합 회계정보 통합관리체계 마련으로 사업장별 회계 결산 및 통합결산 지원 •회계 계정과목 통합 및 표준화 •재무제표 및 각종 부속서류의 신속성, 정확성 제고
예산	•예산코드 표준화를 통한 계정과목 통합 및 일원화 관리 •회계시스템과 데이터 연계로 업무 효율성 제고 및 데이터 신뢰성 보장
고정자산	•자산의 효율적 관리 및 활용성 극대화
구매	•정부권장정책에 따른 분석,통계정보 제공 및 구매업무 실적 분석 강화

구분	주요내용										
2019	▪ 진료정보교류시스템 - 의료기관 간 환자진료정보교류 사업에 관한 의료법 시행('17.6.21)으로 4차산업혁명위원회의 주요 과제(진료정보 전자교류 체계)로 선정되었고, 보건복지부 주관으로 추진된 진료정보교류사업에 보훈공단도 협력병원으로 참여하여 진료정보교류시스템을 구축했다. - 진료정보교류시스템은 환자들이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을 때 발생하는 진료내역, 투약내역, 검사내역 등의 진료정보를 교류에 동의한 환자들을 대상으로 의료기관 간에 안전하게 전자적으로 전달하는 것이며, 전국 의료기관 간 어디서든 진료정보 교류를 통한 안전한 의료서비스 제공으로 고객 만족도 향상 및 각종 서식 미발행 등 병원의 행정업무 감소로 업무효율성을 제고했다.										
교류서식 <table><tr><th>서식명</th><th>내용</th></tr><tr><td>진료의뢰서</td><td>다른 의료인에게 진료 의뢰 시 송부</td></tr><tr><td>진료회송서</td><td>진료를 의뢰한 의료인이나 적절한 다른 의료인에게 회송 시 사용</td></tr><tr><td>진료기록요약지</td><td>의료인이 생성한 진료기록의 전체 또는 일부 내용을 교환 시 사용</td></tr><tr><td>영상의학판독소견서</td><td>CT · MRI 등 영상의학정보 판독결과 송부</td></tr></table>		서식명	내용	진료의뢰서	다른 의료인에게 진료 의뢰 시 송부	진료회송서	진료를 의뢰한 의료인이나 적절한 다른 의료인에게 회송 시 사용	진료기록요약지	의료인이 생성한 진료기록의 전체 또는 일부 내용을 교환 시 사용	영상의학판독소견서	CT · MRI 등 영상의학정보 판독결과 송부
서식명	내용										
진료의뢰서	다른 의료인에게 진료 의뢰 시 송부										
진료회송서	진료를 의뢰한 의료인이나 적절한 다른 의료인에게 회송 시 사용										
진료기록요약지	의료인이 생성한 진료기록의 전체 또는 일부 내용을 교환 시 사용										
영상의학판독소견서	CT · MRI 등 영상의학정보 판독결과 송부										
2020	▪ 건강복지안전망(IMSAFE) 시스템 - 건강복지안전망(IMSAFE) 시스템은 보훈가족 개인별 상황에 따라 필요한 서비스를 자동 추천하여 지역사회와 서비스계획을 공유함으로써 보훈가족 삶의 질과 건강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의료와 복지서비스가 누락되지 않도록 보장하기 위한 시스템이다. - 환자 진료기록을 EMR시스템과 연동하여 확인하고, 의료정보 확인 및 서비스 알고리즘으로 필요서비스를 자동 추천한다. 이 결과를 지자체(사회보장정보시스템)와 연계하여 복지대상자 의뢰, 업무처리결과 회신 및 서비스 제공 결과 등을 확인할 수 있다. - 건강복지안전망 시스템 구축으로 국가유공자 건강상태, 진료기록 등 빅데이터를 활용한 평생주기 건강관리체계 기반을 확립하게 되었다.										

구분	주요내용
2020	건강복지안전망(IMSAFE) 실행모델 • Identification(환자등록) : 통합서비스 대상자 등록(케어매니저) • Measurement(사정) : 사정도구(BCF, Bohun Classification of Functioning)를 통해 대상자의 의료적 상황과 사회적 상황 파악 • Service planning(케어플랜) : 케어매니저는 환자 맞춤형 케어플랜 수립 • Action(맞춤서비스 제공) : 케어플랜에 따라 내부 의료서비스 연계, 외부 복지서비스 연계, 케어 매니저 직접서비스 등 맞춤서비스 제공 • FEedback(성과평가 및 환류) : 환자 상태 변화분석과 서비스 조정 판단
고객 중심 맞춤형 통합서비스 실행모델(IMSAFE)	
▪ 환자안전관리시스템 및 모바일동의서 - 환자안전법 제정('15.1.28) 및 시행('16.7.29)에 따른 환자안전관리 강화와 종이 기반으로 운영되고 있는 각종 동의서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6개 보훈병원의 관련 업무를 모바일 정보시스템으로 구축하여 업무효율성을 기하고자 2020년 10월 환자안전관리시스템 및 모바일동의서를 도입했다. - 환자안전관리시스템은 바코드 등의 식별정보를 모바일 디바이스를 이용하여 투약, 채혈, 수혈 등을 시행하기 전 정확한 환자인식으로 잠재적인 환자 안전사고를 예방한다. - 모바일동의서는 종이기반 수기로 관리되는 각종 동의서를 전자문서화	

구분

주요내용

2019

■ 요양정보시스템 재구축

- 요양정보시스템은 최초 2009년 구축으로 시스템이 노후화되었으며, 시스템 구축 후 지속적인 요양원의 확산 개원·운영에 따른 성능 저하 발생으로 2021년 10월 시스템을 재구축해 운영하게 되었다.



운영 시기

수원	광주	김해	대구	대전	남양주	원주	전주
2009	2009	2009	2011	2012	2015	2020	2022

- 이전의 요양정보시스템 업무를 고도화하고 내·외부 시스템과의 연계 지원으로 업무효율성이 향상되었고 보호자 소통관리 앱 개발로 비대면 문화 확산에 따른 모바일 서비스를 신규 제공했으며 클라우드 기술을 활용한 IT인프라 구성으로 시스템 유연성 및 확장성을 강화했다. 또한, 수작업으로 진행하는 보훈원의 각종 업무를 전산화하여 보훈원 업무 효율성을 향상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주요 구축범위

구분	주요기능
요양원	• 입소자 관리, 정서지원/간호/기능회복 서비스 등 기존 업무 고도화 • 장기요양보험 급여청구의 전산화(청구 및 미수금 관리) • 입소현황, 청구현황, 자원관리 등의 통계산출 • 모바일을 활용한 보호자 방문 없이 서비스(정보) 제공 등
보훈원	• 전문요양센터: 입소자 관리, 상담, 생활지원서비스 등 • 양로시설: 입소자 이력 및 시설, 식수인원, 근무현황 관리 등 • 복지타운: 세대정보 관리 기능, 세대별·인원별 통계산출 등 • 보훈의원: 입소자별 간호일지, 상담 및 정보관리 등

제 2 장 경영관리

제 1 절 경영관리

제 2 절 성과관리

- 1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
- 2 기관장 경영평가 이행실적
- 3 내부 경영실적 평가

제 3 절 재무·자산관리

- 1 재무관리
- 2 자산관리

제 1 절

경영관리

보훈공단은 공공의료·복지를 선도하는 최고의 파트너로서 이를 실현하는 경영목표를 설정하고 사업부문별 운영실적과 분석 평가를 통해 전반적인 경영 상태를 파악하고 이에 대한 문제점 및 원인을 분석하며 개선대책을 강구한다. 경영분석은 각 분기별로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매년 종합경영분석 보고서를 발간한다.

사업부문별 중점분석사항

사업별	중점분석사항
의료사업	•운영수지 - 수익, 비용부문 계획대비 증감사유 분석 및 경영수지 개선대책 - 재료비, 인건비, 경비 등 비용 세부집행내역 분석
	•진료실적 - 보훈병원 진료실적 계획대비·전년대비 증감사유 분석 - 병상이용률, 병상회전율 등 전년 동기 비교 및 활성화 방안 - 평균재원일수, 입원 대 외래환자, 환자 수(입원, 외래) 전년 동기 비교 - 보훈병원 및 위탁병원 진료단가 비교 - 전문위탁 의료기관 종별, 질병별, 진료과별 진료실적
	•생산성 분석 - 조정환자 1인당 부가가치, 병상당 월평균 부가가치, 의료수익 부가 가치율, 인건비투자효율, 직원 1인당 인건비
	•성장성 분석 - 환자 수 증가율(입원, 외래) 및 의료수익
복지사업	•운영수지 - 수익, 비용부문 계획대비 증감사유 분석, 경영수지 개선대책
	•보훈원 - 양로양육 보호인원 입·퇴소현황, 보훈복지타운 입주현황 - 보호서비스 운영 프로그램
	•보훈요양원 - 입·퇴소현황(퇴소사유, 성별, 연령별, 질환별 등) - 요양프로그램 운영, 자원봉사자 관리 등 - 보훈기금, 보험수익, 본인부담금 등 수익 세부내역
	•보훈휴양원 - 객실가동률, 고객 유치프로그램, 시설환경 개선실적 등 분석
교육·연구사업	•교육 추진실적 및 연구실적
본사	•예산집행실적, 일반관리비, 보훈복지사업비 및 영업외손익 분석

사업운영실적(1981~2020)

구분		1981~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수익	합계	8,129,756	701,419	738,719	804,137	841,875	856,000
	의료사업	5,386,208	646,725	689,843	715,595	772,700	795,064
	- 진료보상금	3,205,029	426,156	467,740	505,150	517,640	533,411
	- 보훈·복권기금	116,065	13,067	1,991	2,294	3,146	2,529
	- 보장구수당	73,116	5,448	5,622	6,613	6,066	6,068
	- 사비진료 등	1,702,362	201,434	213,209	200,124	244,413	251,387
	- 위탁병원관리	-	620	1,281	1,414	1,435	1,669
	- 초과진료분	289,636	-	-	-	-	-
	복지사업	82,416	21,766	30,206	40,335	42,916	47,220
	- 정부지원금	44,425	6,528	12,305	18,102	19,198	18,575
	- 타운, 휴양원 등	37,991	15,238	17,901	22,233	23,718	28,645
	수익사업	2,661,132	32,928	18,670	48,207	26,259	13,716
	- 사업수익	2,504,515	30,097	15,854	24,913	23,024	10,716
	(복권사업)	△625,154	-	-	-	-	-
	- 본사업외수익	156,617	2,831	2,816	23,294	3,235	3,000
비용	합계	8,076,577	719,578	756,725	788,215	821,950	835,560
	의료사업	5,420,015	651,292	691,536	702,270	738,833	758,425
	- 병원운영비	5,037,201	643,515	683,563	693,885	729,563	749,830
	- 보장구사업비	93,178	7,777	7,973	8,385	9,270	8,595
	- 대손상각	289,636	-	-	-	-	-
	복지사업	171,203	30,148	38,792	45,475	46,249	51,618
	- 양로양육운영비	41,483	3,660	3,900	3,990	4,275	4,547
	- 보훈복지·주거사업비	39,405	2,511	3,908	4,388	4,722	4,995
	- 교육연구원	36,342	4,589	5,657	5,749	5,125	4,012
	- 타운, 휴양원 등	29,411	4,886	5,462	5,492	5,732	5,717
	- 보훈요양원	24,562	14,502	19,865	25,856	26,395	32,347
	수익사업	2,155,380	26,947	15,337	21,491	23,455	8,706
	일반관리비 등	329,786	11,191	11,060	18,979	13,413	16,811
	- 본사관리비	110,603	9,815	10,765	12,002	13,223	16,733
	- 본사업외비용	175,581	354	91	638	190	310
	- 법인세	43,795	1,022	204	6,339	-	△232
	과부족	53,179	△18,159	△18,006	15,922	19,925	20,440

(단위 : 백만 원)

구분		2016	2017	2018	2019	2020
수익	합계	903,391	935,837	988,405	1,077,272	1,065,301
	의료사업	849,461	881,460	930,122	1,014,771	1,009,623
	- 진료보상금	560,044	574,105	605,107	655,248	648,358
	- 보훈·복권기금	2,072	2,476	2,456	3,307	2,025
	- 보장구수당	6,066	6,066	6,074	6,065	6,064
	- 사비진료 등	279,303	296,796	314,453	347,999	351,024
	- 위탁병원관리	1,976	2,017	2,032	2,152	2,152
	- 초과진료분	-	-	-	-	-
	복지사업	50,124	50,389	53,833	58,112	52,730
	- 정부지원금	19,271	18,383	17,537	18,450	18,207
	- 타운, 휴양원 등	30,853	32,006	36,296	39,662	34,523
	수익사업	3,806	3,988	4,450	4,389	2,948
	- 사업수익	-	-	-	-	-
	(복권사업)	-	-	-	-	-
	- 본사업외수익	3,806	3,988	4,450	4,389	2,948
비용	합계	879,984	926,297	979,388	1,076,786	1,093,618
	의료사업	796,067	842,693	899,858	994,239	1,022,811
	- 병원운영비	787,953	834,016	890,917	984,362	1,014,194
	- 보장구사업비	8,114	8,677	8,941	9,877	8,617
	- 대손상각	-	-	-	-	-
	복지사업	53,312	53,338	56,785	63,066	61,349
	- 양로양육운영비	4,412	4,317	-	-	-
	- 보훈복지·주거사업비	4,719	4,434	4,622	5,312	5,514
	- 교육연구원	4,351	3,652	3,421	3,497	3,060
	- 타운, 휴양원 등	5,773	5,854	10,454	10,791	10,288
	- 보훈요양원	34,057	35,081	38,288	43,466	42,487
	수익사업	-	-	-	-	-
	일반관리비 등	30,605	30,266	22,745	19,481	9,458
	- 본사관리비	17,051	19,012	18,527	18,668	20,160
	- 본사업외비용	1,510	1,499	963	468	840
	- 법인세	12,044	9,755	3,255	345	△11,542
	과부족	23,407	9,540	9,017	486	△28,317

수익사업 이익금 사용내역(1981~2020)

(단위 : 백만 원)

구분		1981~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계
수익사업매출액		2,464,072	28,829	14,725	23,652	21,763	7,778	-	2,560,819
이 익	건제	51,121	1,923	220	2,123	568	△429	-	55,526
	봉제	23,233	471	△351	376	△1,988	89	-	21,830
	유통	45,985	723	774	923	989	2,349	-	51,743
	복권	199,752	-	-	-	-	-	-	199,752
	조합관리	24,381	△211	△126	-	-	-	-	24,044
	합성수지	4,808	-	-	-	-	-	-	4,808
	기타사업	481	-	-	-	-	-	-	481
	계	349,761	2,906	517	3,422	△431	2,009	-	358,184
본사일반관리비		110,134	9,570	10,765	12,002	13,223	16,733	17,051	189,478
본사업업외손익		7,444	2,477	2,725	22,656	3,045	2,690	2,296	43,333
수익사업이익금		247,071	△4,187	△7,523	14,076	△10,609	△12,034	△14,755	212,039
이 익 금 사 용	병원지원	33,805	4,567	1,693	△13,325	△33,867	△36,641	△53,394	△97,162
	복지사업지원	88,790	8,383	8,586	5,140	3,333	4,399	3,189	121,820
	- 주거복지지원	-	-	-	-	-	177	57	234
	- 보훈복지지원	39,405	2,511	1,802	1,776	1,773	1,818	1,662	50,747
	- 보훈원	14,275	940	993	690	247	370	306	17,821
	- 복지타운	10,837	1,700	1,846	632	77	△412	△177	14,503
	- 휴양원	7,085	753	772	△22	24	△36	△246	8,330
	- 연구원	15,618	1,274	1,281	1,360	1,511	1,989	1,596	24,629
	- 수원요양	59	208	174	64	△94	△56	14	369
	- 광주요양	900	545	404	228	△28	136	△55	2,130
	- 김해요양	611	221	273	170	△198	△59	12	1,030
	- 대구요양	-	299	528	337	115	139	△7	1,411
	- 대전요양	-	-	431	△95	△95	49	109	399
	- 재활체육	-	-	-	-	-	284	△72	212
	법인세	-	△68	82	-	-	-	△11	3
	보훈성금	40,963	1,022	204	6,339	-	△232	12,044	60,340
	자본증식	30,334	-	-	-	-	-	-	30,334

※ 경영분석 기준 작성
※ 수익사업 종료로 2016년 이후 실적 없음
※ 수익사업 이익금 : 이익 - 본사 일반관리비 + 본사 영업외손익
※ 수익사업 이익금 사용 : 병원지원 · 복지사업 지원 · 법인세 · 보훈성금 · 자본증식

제 2 절

성과관리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

공공기관 경영평가제도는 1984년 도입되어 그동안 공공기관의 경영 효율성 및 서비스향상에 기여해 왔으며, 또한 기관 간의 경쟁을 통해 지속적인 경영혁신을 유도하는 제도로 정착되었다. 1984년 24개 정부 투자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했으나 2004년 「정부산하기관 관리기본법」이 제정되면서 8개 유형의 84개 정부산하기관까지 확대 시행했다. 2007년부터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면서 정부 투자기관과 정부산하기관의 이원화된 경영평가시스템을 공기업·준정부기관 경영평가로 통합해 평가 기준과 방법을 일원화했다.

현재 공공기관의 경영평가는 일자리 창출, 안전경영, 윤리경영 등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 선도라는 정부방침을 반영한 평가와 공공기관 및 국민이 공감하는 맞춤형·체감형 평가 등 경영평가의 품질·신뢰 제고를 통해 국민에게 신뢰받는 공공기관으로 탈바꿈한다는 목표로 시행되고 있다.

1983년~2003년

보훈공단의 목적사업인 의료·복지 사업의 임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1983년 경영평가제도를 도입해 국가보훈처로부터 연 2회의 경영실적 평가를 받은 후 그 결과에 따라 성과급(인센티브)을 지급함으로써 경영 활성화의 기반을 조성했다. 공공기관의 자율성 확대와 경영개선을 위해 1985년부터 종전의 경영평가제도를 보완·개선해 연 1회 종합경영실적평가를 시행했고, 평가결과에 따라 200~300%의 성과급을 지급했다.

평가방법은 의료사업, 수익사업, 복지사업, 본사 운영으로 구분해 계량 지표 65%, 비계량지표 35%의 비율로 평가했으며, 평가지표는 의료사업 및 수익사업은 계량9개 지표, 비계량 5개 지표, 복지 사업은 계량 5개 지표, 비계량 4개 지표, 본사 운영은 계량 2개 지표, 비계량 5개 지표로 구분해 종합적으로 평가했다.

경영평가 성과급 지급률												
구분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지급률(%)	295	295	305	275	275	215	275	275	260	280	280	

2004년~2006년

2004년 4월 시행된 「정부 산하기관 관리기본법」은 정부 산하기관에 대한 사전 관여를 줄이고, 경영실적을 사후에 객관적으로 평가한 결과를 공개함으로써 자율, 책임, 효율, 투명경영 확립을 위해 제정되었다. 동법에 따라 주무부처 장관이 정부 산하기관에 대한 경영평가를 매년 시행, 87개 정부 산하기관들이 8개 유형으로 분류되어 경영평가를 받았고 보훈공단은 ‘건설시설관리’ 유형으로 분류되어 10개 정부 산하기관과 함께 평가를 받게 되었다.

평가지표는 종합경영, 주요사업, 경영관리 등 3개 부문으로 구분하고 계량 지표와 비계량지표 비중은 40% : 60%로 설정했다.

또한, 정부 산하기관 운영위원회에서 경영실적 평가방법 및 평가기준, 평가결과, 후속 조치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했다.

기획재정부는 공공기관 경영평가를 활용해 경영평가 성과급 지급을 확대 시행하고, 부진기관에 대해서는 경고 조치했다. 보훈공단의 경영평가 성과급은 기관장, 임원은 기준연봉의 0~100%, 직원은 기준월봉의 100~200% 범위에서 차등 지급했다.

경영평가 성과급 지급률 : (2004) 88%, (2005) 148%, (2006) 115%

2007년~2010년

공공기관에 대한 책임경영과 정부의 관리 감독 강화를 요구하는 국민 여론이 확산함에 따라 정부에서는 공공기관 운영시스템 개편을 위해 전문교수단 연구용역, KDI·학계·기획예산처 공동으로 지배구조혁신 TFT를 구성, 공공기관 설립에 대한 체계적 원칙과 기준을 마련하고, 설립근거, 정부 재정지원 여부, 정부출자 등 공공성 여부 등을 고려한 공공기관 분류기준 및 유형을 구분해 이를 법제화했다.

이를 통해 2007년 4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어 그간

※ MB(맬컴 볼드리지) 모델 : PDCA 사이클에 기반을 두고, 계획수립, 실행, 분석 및 피드백이라는 일련의 업무과정이 순환체계로 이어져야 한다는 관리이론이다. 평가관점을 관리방법, 실행방법, 학습과 혁신 등 3가지 관점을 기준으로 해 지표별 세부평가내용에 따라 각각 평가한다.

※ 주요 평가지표 변화 : 고객만족도 조사(5점), 총인건비 인상률(4점) 및 정부 권장정책 이행실적(2점) 등 신설

※ 계량 지표 비중 강화 (2008년) 40점 → (2009년) 45점 → (2010년) 50점

투자기관·산하기관으로 이원화된 경영평가시스템에서 공기업·준정부기관 경영평가로 통합해 평가 기준·방법을 일원화했다.

이에 따라 2007년 실적에 대한 경영평가부터 보훈공단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공기관 분류기준에 따라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으로 공익성을 반영한 문화 국민 생활유형 8개 기관과 함께 평가받게 되었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8조 1항에서 ‘기획재정부장관은 제31조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따른 계약의 이행에 관한 보고서, 제46조 규정에 따른 경영목표와 경영실적보고서를 기초로 해 공기업, 준정부기관의 경영실적을 평가한다.’라고 규정해 이 시기부터 경영평가의 주체가 기존 주무 부처인 국가보훈처에서 기획재정부로 이관되었다.

2007년까지 종합경영 부문, 주요사업 부문, 경영관리부문으로 구분해 오던 것을 2008년부터 MB 모델(맬컴 볼드리지 모형)을 적용해 리더십·전략범주, 경영시스템범주, 경영성과범주를 적용해 평가하고 있으며 주요 평가지표와 계량 지표 비중을 강화했다.

2011년~현재

2011년~2017년도는 공공기관의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평가 개념이 제기되어 사업의 다각화와 재무건전성 등에 대해 효율화·단순화·특성화를 목표로 평가제도가 개선되었다.

2008년~2010년 평가부문은 리더십·전략, 경영시스템, 경영성과 범주로 구분되었으나 2011년 리더십·전략, 경영효율, 주요사업 범주로 개편되었고 2014년부터는 리더십·전략과 경영효율을 통합해 경영관리, 주요사업 범주로 구분해 평가받고 있다.

또한 2012년 이후 준정부기관은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와 제5조의 공공기관 유형 구분 기준에 따라 기금관리형과 위탁집행형, 강소형의 세 가지 유형으로 분류되어 보훈공단은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으로 평가받고 있다.

2020년 경영평가 기준		
구분	경영관리	주요사업
주요지표	경영전략 및 리더십 등 5개 지표	보훈·의료 질 향상 사업 등 5개 지표

주요성과	
구분	주요내용
2018	•지속성장 가능한 신 가치체계 수립 - 주요사업 중심의 비전 재정립, 핵심가치(BEST-bohun) 설정 •보훈의학연구소 개소 - 보장구 기술 연구개발 - 국가유공자 맞춤형 - 벤처기업 입주, 공동연구 수행해 중소기업 성장 지원 •전문진료센터 운영 및 원스톱 시스템 구축 - 접수·진료·예약·관리 창구 일원화 - 진료 대기일 수 감소로 국가유공자 편의 제공
2019	•공공기관 최초 모성 정원제 도입 - 모성 정원 범위 내에서 육아휴직 대체인력 정규직 채용 •인사운영·교육·채용 업무 분화 및 조직 개편을 통한 전문성 제고 - 인재채용과 신설, 공정성 및 투명성 제고 - 교육업무 총괄기능 보훈교육연구원 이전 •노사관계 전달체계 및 노사 간 협력 채널 구성 - 노사관계 및 갈등관리 매뉴얼 제작
2020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공공의료기관 역할 선도 - 감염병전담병원(대구, 대전, 중앙) 운영, 243병상 확보해 확진 환자 7,552명 입원 치료 - 수도권 생활 치료센터 의료·시설지원, 경증환자 6,241명 신속 치료 - 코로나19 대응 매뉴얼 임직원 및 전국 129개 의원·병원 전파 •과제 POOL 매트리스 분석 통한 미래발전 6개 과제 도출

최근 5개년 경영실적 평가결과					
구분	2016	2017	2018	2019	2020
등급	B	B	B	D	C

기관장 경영평가 이행실적

공공기관의 기관장 경영평가(기관장 경영계약 이행실적평가)는 공기업의 경우 1999년부터 사장 경영 계약이행실적 평가를 시행했다. 보훈공단은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거 2007년 실적부터 적용해 2008년부터 평가가 시작되었으며, 2018년부터 기관장 평가는 기관 평가로 통합하면서 리더십 지표를 신설했다. 시행 초기인 2008년에는 기관 경영평가단에서 평가했으나, 2009년부터 기관장 경영평가단을 별도로 구성해 평가했다. 평가단의 구성은 기획재정부에서 지정 운영하고 교수 및 연구원 등 외부 전문가로 구성했다. 2007년 실적에 대한 평가내용은 기관장 역량평가와 기관 경영평가 결과를 각각 50%:50%의 비율로 반영했다. 기관장 역량평가 내용은 책임경영(20%), 혁신경영(15%), 윤리경영(15%)이며 기관의 경영평가 결과(50%)를 반영했다. 2008년부터 주무부처 장관과 이사장이 경영계약을 체결했으며 기관장 경영 평가 결과는 기관장 경영계약서의 성과급 지급기준으로 활용되었고 평가결과가 저조한 기관장은 공공기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기획재정부장관이 임면권자에게 해임건의를 할 수 있도록 했다. 2014년부터 단년도 성과를 중심으로 평가하는 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중장기적 관점의 평가방식으로 변경했다. 매년 이행실적을 평가하던 경영계약제를 변경해 임기 중 1회 평가했다. 기관장 평가는 기관 평가와는 구분된 별도의 평가편람에 따라 분리해 실시했다. 2018년부터는 경영평가 체계 등 전반적으로 개편해 효율성 지표를 삭제하고, 사회적 가치 구현 지표를 신설했다. 특히, 기관장 평가는 공공기관 평가로 통합되면서 리더십 지표를 신설했다.

기관장 경영계약 이행실적 평가결과					
2007	2008	2009	2010	2012	2015
66점 (15개 기관 중 8위)	보통	보통	보통	C	우수

내부경영실적 평가

내부경영실적 평가는 보훈공단 경영목표, 경영전략 달성을 위한 활동 과정과 성과를 객관적 기준에 따라 공정하게 평가하고 그 결과를 보수 및 인사에 연계함으로써, 성과 중심의 조직문화를 형성하고 경영성과의 지속적 향상을 유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보훈공단은 설립 이후 사업의 성격과 규모, 역할 등을 고려하여 평가군을 구분하여 조직 평가를 시행하는 한편 연봉제 보수체계를 개편해 개인 성과평가를 점차 확대하여 실시해 왔다. 또한, 다양한 평가방식을 채용하고, 지속적인 의견 수렴과 제도개선을 시행해 평가의 공정성과 수용도 제고를 위해 노력했다. 그 결과 공공기관 경영혁신, 공공기관 선진화, 공공기관 효율화, 사회적 가치 구현이라는 국정과제 이행은 물론 국가유공자 복지증진이라는 공단의 설립목적 달성에 견인차 역할을 해 왔으며 앞으로도 사업환경 변화에 대응한 평가제도 개선 및 고도화를 통해 경영성과 창출 유도라는 본연의 목적을 충실히 이행할 것이다.

1983년 이래 국가보훈처로부터의 경영평가 결과에 따른 내부평가 시행을 기점으로 2004년까지 국가보훈처에서 5개 보훈병원과 4개 수익사업단에 대한 계량과 비계량지표 평가결과에 따라 성과급을 102%~72% 차등 지급해왔다. 2005년부터는 「정부 산하기관 관리기본법」에 의해 현 기획재정부 주관으로 경영평가를 받고 그 결과에 따라 지급되는 성과급 지급률을 기준으로 자체적인 평가(조직 및 개인)를 실시하여 성과급을 차등 지급하는 절차로 이어지고 있다. 한편 이때부터 의료, 복지, 수익의 평가군으로 분류해 사업별로 계량과 비계량지표를 선정하고, 평가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계량평가의 비중을 70% 이상으로 배분하였다. 또한, 각 사업부서별 최우수부서를 선정해 부서 표창과 우수 직원 선발 표창 등을 실시했다. 2008년 평가부터는 평가군별 공통계량지표와 비계량지표로 구성된 평가체계에서 BSC(균형성과관리) 달성도라는 피평가기구(부서) 고유계량 지표를 추가로 반영했다.

BSC란 조직의 성장 등을 위해서는 기존의 대다수 기업이 목표로 삼았던 매출액, 영업이익률과 같은 재무적 관점 외에도 고객과 프로세스, 학습과 성장이라는

비재무적 관점의 지표에 대해서도 목표를 세워 실적을 균형이 있게(balanced) 관리(scorecard)하라는 개념이며 이는 과학적인 평가관리가 어려웠던 상황에서 진일보한 성과관리시스템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후 균형적인 성과관리 즉 BSC 내재화를 위해 관련 비중을 꾸준히 확대해 왔고 기관(부서) 고유지표에 대해 최소 10%로 운영했던 BSC달성률은 모든 계량 지표를 BSC 모델을 활용 및 개편하여 최소 52%~최대 75%까지 비중을 확대해 운영하고 있다.

한편 2012년 평가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Bohun-PMS라는 성과관리시스템을 구축했다. 이를 통해 평가부서와 피평가부서는 지표별 목표와 실적을 실시간 검색을 통해 확인하고 실적관리를 용이하게 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성과관리시스템 내에 조직 및 개인 비계량 평가 기능을 추가해 평가의 공정성과 평가과정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게 되었다. 2014년 부서별 사업 환경에 대한 고려와 정부의 열린 혁신 추진에 부응하기 위해 DBSC평가, 부서 간 성과목표협업 노력도 평가항목을 신설해 부서 사업의 난이도와 부서 간 협력도를 고려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했다.

연도별 평가대상은 최초 5개 보훈병원, 복지 부문(연구원·보훈원·휴양원·3개 요양원), 수익 부문(유통·봉제·건제) 및 본사 팀 등 사업 성격을 최대한 고려해 4개 평가군으로 설정했으나 사업환경 변화와 서비스 다양화로 인해 조직이 확대되면서 본사(경영관리, 주요사업, 전문지원군), 의료사업군(5개 보훈병원), 복지사업군(6개 보훈요양원), 별도평가군(인천보훈병원, 위탁병원관리단, 보훈교육연구원, 보훈원, 보훈재활체육센터, 보훈휴양원)으로 구분해 평가를 진행 중이다. 계량과 비계량으로 지표를 구분해 계량은 보훈공단 전략달성을 위한 전략지표, 경영평가와 연계한 지표 사업부서별 고유지표 등으로 선정하여 측정했다. 또한, 비계량지표는 부서장 리더십, 책임경영 활동, 주요사업 활동, 경영 효율화 활동 등에 해당하는 평가지표를 선정해 측정했다.

한편, 비계량지표는 지표의 성격상 평가의 공정성 및 신뢰성을 위해 각 사업에 전문성을 가진 외부 전문가(교수, 컨설턴트, 공인회계사 등)가 평가했고, 2007년부터는 외부 전문가 참여율이 전체 비중의 50%에 이르고 있다. 또한, 비계량지표 평가 시에 노조 추천인을 평가에 참여토록 하여 피평가부서와 직원들의 평가에 대한 신뢰성 제고에 역점을 두고 있다. 이는 평가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높이는데 중요한 요소이기도 하다.

이러한 내부평가 결과 지급되는 성과급의 차등 지급률은 30~40% 수준으로

유지하다가, 2010년 최고등급 기관과 최저등급 기관의 성과급 차등을 2배 이상(134%~67%)으로 대폭 확대했고, 2021년에는 중징계 대상자나 성범죄 등 공직자 윤리 규범에 어긋난 직원의 성과급을 제한하는 규정을 신설하여 경영진의 성과 중심 조직 구축 및 정착, 윤리 경영에 대한 의지를 반영했다.

2007년부터 실시하고 있는 개인 평가는 2010년 연봉제 보수체계 개편에 따라 도입된 성과연봉제로 인해 그 대상자가 의사직과 3급 직원까지 확대되었다. 성과연봉제의 도입으로 개인별로 성과연봉의 차등이 최고 2배 이상 이루어지고 그 성과연봉의 차등 규모가 기존에 비해 높아짐에 따라 개인성과평가체계의 재정립이 요구되었다. 이에 2010년 이후 개인성과평가체계를 조직성과와 개인 노력을 평가에 반영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즉 상위부서 및 소속부서 평가결과와 개인업적평가, 이사장 평가로 구성했는데 상위부서와 소속부서 평가결과는 피평가자의 소속부서 평가결과를 반영했고, 개인 업적은 피평가자의 지난 1년간의 업적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받아 이를 평가했으며 이사장 평가는 개인업적평가 결과를 기반으로 업무난이도, 이사장 경영방침 이행도 등 다양한 성과를 고려해 평가했다. 또한, 개인업적보고서 평가를 위해 개인평가 내부평가단을 구성했고 2-3급 실무경험자의 평가단 참여 비중 확대 및 외부위원 확대와 이의신청제도를 개선했다. 또한 의료사업군 재직자의 경우 병원장 평가 비중을 확대하여 평가의 공정성과 신뢰도 제고 및 병원장 책임경영을 강화했다.

제 3 절

재무·자산관리
재무관리

보훈공단은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회계규정을 제정·시행하고 있으며, 1997년 국제 통화기금(IMF) 지원체제에서는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회계기준을 도입하려는 움직임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기업회계기준서를 적용했다. 2013년 재무관리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국제회계기준(K-IFRS: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도입했으며 2019년 K-IFRS에 따른 리스회계를 선제적으로 도입해 공공기관 회계기준 준수 및 이해관계자에게 재무적으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 K-IFRS에 따른 리스회계 도입
지급하거나(리스 이용) 지급 받는(리스 제공) 임대료 또는 임대보증금의 미래 현금흐름을 현재가치로 평가 후 관련 자산·부채 및 기간 경과분 손익 인식



1 경영평가 실시
2 정부 경영평가 관련
보고회

회계처리
시스템 구축

통합재무예산관리시스템

2011년 전사적 경영관리시스템 구축을 통한 자금의 거래내역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및 감시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함에 따라 금융기관 बैं킹시스템과 보훈공단 회계·예산시스템을 연동하는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업무시스템을 구축해 EMR·Wquest·ABC와 유기적으로 데이터를 연계했다.

통합경영정보시스템

2012년 정보화전략계획(ISP) 용역 결과, 전사적인 측면에서 경영자원을 효과적으로 이용·관리해 경영을 효율화하는 미래지향적인 통합경영정보시스템 구축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2016년 기존 EMR과 이원화되어 연계 곤란의 문제 및 데이터 집계와 가공에 많은 시간과 휴먼에러를 발생시켰던 시스템을 개선한 통합경영정보시스템을 구축해 인사, 회계, 예산, 자산 등 모든 항목을 한 시스템에서 구현함으로써 데이터 신뢰성 및 업무 효율성을 제고했다. 또한 2020년 요양원의 재무업무 지연현상 방지와 재무안정성을 위해 보훈요양원 통합회계시스템을 시범가동 했다.

세무구조 개선

변화하는 세무환경에 대응해 법인세 경정청구를 통한 재정이익 증대 및 불필요한 재정손실을 최소화했다. 의료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설비투자를 목적으로 취득한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법인세법상 비용으로 인정하는 유권해석을 확인하고 2013년도분 기납부한 법인세부터 2019년부터 유권해석으로 환급 가능해진 법인세에 대해 경정청구를 진행한 결과 2013~2018년도분 법인세 220여억 원을 환급받았다. 또한 정부보조금 취득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 비용인정으로 재무구조를 지속적으로 개선할 수 있게 되었다.

연도별 법인세 환급액						(단위 : 억 원)
계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1,786	398	5,835	4,179	4,421	2,215	4,738

퇴직연금
운용관리

보훈공단 임직원의 퇴직급여 지급권 보장을 위해 퇴직연금제도(확정급여형·확정기여형) 제도를 도입했다. 기존 퇴직금 제도에서는 지급능력(자금보유) 저하 시 퇴직금 지급불능사유가 발생할 수 있으나 퇴직연금제도 도입으로 인해 임직원 퇴직급여 보장액을 안정적인 외부금융자산(사외자산)으로 예치해 근로자 퇴직급여를 보장하고 있다. 2012년 확정급여형(D/B)제도를 선도입하고, 2013년 6월 확정기여형(D/C)제도를 도입했다.

확정급여형

2,836억 원(2021년 12월), 누적수익 330억 원

사업자 : 신한은행(663억 원), 국민은행(278억 원), 기업은행(366억 원), 하나은행(139억 원), 농협은행(20억 원), 삼성생명(139억 원), 교보생명(33억 원), 한화생명(309억 원), 삼성화재(37억 원), 미래에셋생명(121억 원), 미래에셋증권(121억 원), 한국투자증권(207억 원), 삼성증권(56억 원), KB증권(256억 원), 신한금융투자(91억 원)

확정기여형

누적가입 301명, 총 358억 원 규모로 제도 가입(제도전환), 누적수익 9억 원

- ※ 퇴직연금제도 : 기업이 퇴직급여 지급재원을 외부 금융회사(퇴직연금사업자)에 적립하고 퇴직연금 사업자가 이를 기업 또는 근로자의 지시에 따라 운용해 근로자 퇴직 시 일시금 또는 연금으로 지급하는 제도
 - 2014년 8월 ‘사적연금 활성화 대책’ 中 퇴직연금 의무가입 대상 사업장은 (2016년) 300인 이상 (2017년) 100~300인 (2018년) 30~100인 (2019년) 10~30인 (2022년) 10인 미만 사업장까지 전면 의무화
- ※ 확정급여형(D/B-Defined Benefit) : 회사가 금융기관에 퇴직적립금을 예치해 운영하고 근로자는 정해진 퇴직금을 받는 제도
- ※ 확정기여형 (D/C-Defined Contribution) : 회사가 정기적으로 금융기관에 직원 명의로 쌓아준 부담금을 근로자가 직접 운용해서 퇴직금을 받는 제도

재정분야 사회적
가치 창출

공기업 준정부기관예산지침 등 정부정책에 따라 영세업체 및 소상공인과 함께
상생할 수 있는 다양한 제도를 실행하고 있다.

공공기관 하이브리드형 체크카드 제도 도입

가맹점 카드수수료율(1.6%→1.2%) 절감으로 소상공인 등 업체부담을 경감해
매년 1,200만 원 수수료 절감액 사회 환원

대금지급 기일 단축

지급 기일 최근 3개년 대비 평균 2.25일 단축해 거래처에 자금유동성 즉시 제공

구분	2017	2018	2019	평균	2020	단축일
평균	6.49	3.59	3.48	4.52	2.27	2.25
공사·구매	7.02	3.58	3.19	4.60	2.63	1.97
백만 원 이하	6.71	3.73	3.60	4.68	2.29	2.39
백만 원 초과	4.36	2.65	2.89	3.30	1.87	1.43

사회적 가치 실현 금융사 위주의 자산운용

사회적 약소기업에 대한 금융수수료 할인 등 사회적 기업 배려제도를 시행
중인 퇴직연금사업자에 대해 자산 차등배분 운용(14사업자)

자산관리

자산(회계)관리는 보훈공단법과 정부기관회계처리준칙 및 기업회계기준과
세법(稅法) 등을 기초로 관리되고 있으며, 2013년 IFRS(한국채택 국제회계기준)
을 도입했다. 2020년 현재 20개 회계단위별로 작성된 각 사업의 결산자료를
종합해 보훈공단 종합결산서를 작성하고,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다음연도 2
월 말까지 결산서 및 감사의견서를 국가보훈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또한
세무조정계산서를 3월 말까지 완료해 법인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이익금 처리에 관하여는 보훈공단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하며, 매 사업연도의
잉여금은 보훈병원의 손실금 및 직업재활교육비 부족액 보전과 보훈병원의
자본적 투자에 우선 충당하고 차년도 사업을 위한 유보액을 제외한 금액은
보훈기금법에 의해 기금의 수입으로 하며 보훈기금은 국가유공자 등 복지
증진을 위한 보조금으로 사용된다. 한편, 결산 순손실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임의적립금에서 충당한다.

설립 당시의 기본재산(자본금)은 정부출연 재산인 국립원호병원 귀속재산 32억
9,000만 원, 국립직업재활원 귀속재산 16억 9,600만 원, 원호장학회 귀속재산
11억 7,600만 원, 원호단체후원회 귀속재산 8,400만 원, 전 서울목공분조합
기부재산 32억 4,800만 원 등 총 94억 9,400만 원으로 출발했으며, 인천목공
조합의 소유권 반환청구소송 및 복권사업 수령 등 일련의 변경과정이 있었으나,
2013년 IFRS를 도입하며 기본재산은 94억 9,400만 원으로 확정했다.

특히 보훈공단의 재산은 2001년~2004년 복권사업의 수행을 통해 2,000억 원
수준의 자산을 증가시켰으며, 그 이후 복권기금의 법정배분사업지원을 받아
의료장비, 의료시설 확충 등에 집행하고 있다.

또한 2008년부터 국비진료보상금에 대한 정산제도를 실시, 국비진료 초과
비용에 대한 비용보상체계가 마련됨에 따라 보훈공단의 병원운영에 대한
재정건전성이 확보되었다. 2000년대에는 중앙보훈병원 신축 및 노인요양시설
(수원·광주·김해·대구·대전) 건립, 2010년대에는 인천보훈병원 건립 및
노인요양시설(남양주·원주) 건립 등 의료·복지시설의 확충과 최신 의료장비를

확보했다.

또한 자기자본비율은 설립 초기 72%에서 2010년 77%로 높아졌고 위 수준을 지속적으로 유지했으나 2020년에는 코로나19 영향으로 소폭 감소했다. 보훈공단의 자산규모는 설립 첫째 136억 원에서 사업규모 확대, 신규수익 창출 등에 의한 외형적 성장으로 2000년 2763억 원, 2010년 6,837억 원으로 증가했으나 2020년은 2013년에 도입한 IFRS의 변경된 산출기준을 적용함에 따라 3,458억 원으로 측정되었다.

타인자본(부채)은 보훈공단 설립 초기에는 81년 38억 원, 2000년 1,287억 원, 2010년 1,568억 원으로 증가했으며 2020년 915억 원으로 감소했다. 이는 IFRS 기준 도입과 기타 재무환경 변화에 따른 결과이며 감소한 부채 및 안정적인 재무구조 유지로 금융기관 차입금이 없는 재정 건전성을 유지하고 있다.

연도별 자산현황		(단위:억 원)							
구분		설립 시	1991	1995	2000	2005	2010	2015	2020
자산	유동	79	314	364	707	1,090	2,285	2,063	1,689
	투자	13	122	202	479	182	111	51	65
	유형	45	543	1,037	1,573	2,661	4,241	1,292	1,553
	무형	-	-	1	4	9	46	41	21
	기타	-	-	-	-	-	154	181	130
	계	137	979	1,604	2,763	3,942	6,837	3,628	3,458
부채·자본	부채	유동	38	302	387	611	585	882	882
		비유동	-	164	329	676	544	686	33
		계	38	466	16	1,287	1,129	1,568	915
	자본	자본금	95	327	712	1,294	2,193	4,737	96
		자본잉여금	-	40	40	40	-	-	-230
		이익잉여금	4	146	136	142	620	534	2,677
		합계	99	513	888	1,476	2,813	5,271	2,543
	계	137	979	1,604	2,763	3,942	6,837	3,628	3,458

신사옥 건립

1981년 보훈공단 설립 시 본사 사옥은 서울시 강남구 소재 대남빌딩 사무실을 임차 사용했으나 사업규모가 확장되어 사옥 확보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1995년 서울시 서초구 소재 대동빌딩을 52억 원에 매입(지하 1층, 지상 7층, 연면적 3,224㎡)했으나 경매를 통해 매입한 대동빌딩은 입주업체의 명도거부로 소송과정을 거쳐 1997년 9월 입주했다. 그 과정에서 본사는 서울시 신대방동 업무시설(한성아파트 내 상가)로 잠정 이전하기도 했다.

2004년 정부공공기관 지방이전 방침에 따라 2013년 12월 원주 혁신도시로 신축 이전했다. 현 사옥 규모는 공공기관 지방이전 계획수립 지침에 따라 지하 1층, 지상 6층, 연면적 6,779㎡, 계획인원 116명 규모로 신축했다.

이전 후 보훈공단의 사업규모는 전국보훈의료망(6개 보훈병원) 및 복지시설(11개 요양시설)이 대폭 확장되어 이에 따른 업무증가로 본사 근무요원이 이전 당시 112명에서 197명으로 증가했으며, 업무시설과 회의실, 강당, 휴게실, 주차장 등 제반 지원시설이 절대적으로 부족했다.

또한 2022년부터 착수하는 통합정보센터 구축에 따른 전산장비, 운영인력 배치 및 업무지원시설 등이 부족해 신사옥 건립이 불가피했다.

이에 2021년 이사회 및 정부 승인 절차를 받아 2024년 준공 목표로 지하 2층, 지상 9층, 연면적 15,700㎡ 규모에 약 460억 원 신사옥 건립비가 투입될 예정이며, 소요재원은 현 사옥 매각 및 자체예산으로 조달할 예정이다.

제 3 장 의료지원사업

제 1 절 의료지원

- 1 국비진료
- 2 위탁진료
- 3 감면진료

제 2 절 보훈의료망 구축

- 1 중앙보훈병원
- 2 부산보훈병원
- 3 광주보훈병원
- 4 대구보훈병원
- 5 대전보훈병원
- 6 인천보훈병원

제 3 절 의료수준 향상

- 1 전문진료기능
- 2 미래지향 의료서비스
- 3 의료의 질

제 4 절 보훈재활 특성화

- 1 재활의료
- 2 보철구 지급
- 3 재활체육

제 5 절 의학연구

- 1 보훈의학연구소
- 2 보훈의료학회
- 3 의사직 국내·외 학회 및 연수
- 4 SCI(과학기술 논문인용 색인)지원
- 5 대학병원 간의 교류협력

제 6 절 환자중심 맞춤형 의료서비스

- 1 보훈요양병원
- 2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 3 가정간호 서비스
- 4 호스피스
- 5 간호인력 운영
- 6 환자안전 관리
- 7 감염예방 관리
- 8 제도 개선

제 7 절 운영관리

- 1 보훈의료수가
- 2 원가계산 시스템
- 3 의료물류 지원
- 4 신체검사·고엽제 검진

제 8 절 공공의료기관 역할

제 1 절

의료지원

보훈공단 설립 이전

국가를 수호하다 부상을 입었거나 가족을 잃은 사람들에 대한 의료지원사업은 세계 각국에서 공히 국가의 기본 의무로 인식, 추진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6·25 전쟁을 겪으면서 수많은 군경들이 부상을 입었으나, 국가보훈처 창설 이전에는 나라의 재정이 취약해 희생에 상응한 보상은 물론 상이처에 대한 치료조치 제대로 실시하지 못한 실정이었다.

이 시기 상이군경에 대한 진료는 1953년 2월 23일 설립된 사회부 산하 대구 구호병원에서 담당하다가 1957년에 구로구 궁동에 200병상 규모의 구호병원을 건립한 후 여기에서 담당했다. 당시 전국에 11개의 정양원이 있었으나 시설·장비의 부족, 계획성 없는 운영 등으로 본래의 기능을 수행하지 못했고 이에 상이군경에 대한 가료 보호는 공립병원과 적십자병원에서 상이처 또는 재발된 상이처를 치료하는 단순한 수준에 머물렀다.

1961년 군사원호청이 출범하면서 상이군경 등 국가유공자에 대한 의료보호 사업은 새로운 전기를 맞이하게 되었다. 1961년 군사원호청에서 서울시 구로구 궁동 소재 보건사회부 산하 구호병원을 인수해 1962년 원호병원으로 개편했고, 1969년 250병상 17개 진료과 규모의 국립원호병원으로 발전했다. 1974년에는 대통령 훈령 제37호「원호대상자 자립지원에 관한 지침」에 따라 종합병원으로 확대 개편되었다.

원호병원에서 종전에는 상이군경, 4·19혁명 상이자, 애국지사과 반공포로 상이자의 상이처 치료만을 국가가 지원했으나, 1974년 이후부터 상이처 이외의 일반 질병에 대해서도 진료비의 60%를 지원했다. 또한 종합병원 승격 이전에는 원호병원에서 입원 진료만을 담당하고 14일 이내의 응급·통원 가료는 거주지 인근 병원에서 실시했으나, 1974년부터 원호병원에서도 외래 진료가 가능하게 되었다. 그러나 원호병원은 시설·장비의 노후와 의료진 부족으로 양질의 의료를 제공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 1979년에 서울시 강동구 둔촌동에 현대식 종합병원 건립을 추진하고, 프랑스 차관(CLB)을 도입해 최신 의료장비를 설치하는 등 향후 보훈병원 진료체계가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한편, 기존 국립병원 관리체제로는 예산 운영의 경직성 등으로 우수한 의료진 확보가 어렵고 병원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이에 1981년 11월 2일 국립원호병원 체제에서 법인체제의 한국원호복지공단을 발족해 원호병원을 공단 산하기관으로 개편하면서 상이군경에 대한 양질의 의료보호와 재활사업 등을 수행할 수 있는 전기를 맞이하였다.

보훈공단
설립 이후

1983년 8월 16일 서울시 강동구 둔촌동에 최신시설을 갖춘 440병상 규모의 서울보훈병원(현 중앙보훈병원)이 준공되어 궁동 소재의 구 병원에서 이전·개원하면서 국가유공자 상이처 질환에 맞춘 체계적인 진료를 시작했다. 이후 1984년 4월 3일 부산보훈병원을 개원하고 1987년 4월 25일 광주보훈병원을 개원해 영·호남지역에도 국비진료가 가능한 보훈의료시설의 건립으로 국가 유공자의 진료편의를 도모했다.

1985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어 국비가료 범위가 대폭 확대됨에 따라 국가상이유공자 및 애국지사 모두에 대해 상이처 뿐만 아니라 모든 질환을 국비가료에 포함시켜 국가유공자에 대한 실질적인 의료보장책이 제도화되었다.

1993년 2월 12일 대구보훈병원, 1997년 11월 5일 대전보훈병원을 개원했으며, 2000년대에는 광주보훈병원이 500병상 규모로 신축·이전했고 부산·대구 보훈병원의 병상을 500병상 규모로 증축했다.

이어서 2018년 11월 7일 인천보훈병원이 개원함에 따라 지방보훈병원이 권역별 거점 병원 역할을 수행할 수 있게 되었다. 특히, 중앙보훈병원이 보훈 의료전달체계상 3차 의료기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2007년부터 대규모 시설 확충을 추진해 2014년 1,400병상 규모로 확대했다. 그 결과 보훈공단 설립 당시 1개 병원 250병상에서 현재 6개 병원 3,417병상 규모로 획기적인 발전을 이루어 전국적인 보훈 의료망을 구축했다.

연도별 보훈병원 병상 운영									(단위 : 병상)
구분	1982	1983	1984	1987	1993	1997	2002	2010	2021
중앙	250	400	400	400	740	740	800	820	1,370
부산	-	-	150	150	340	340	340	540	499
광주	-	-	-	120	300	300	500	558	553
대구	-	-	-	-	300	300	300	511	475
대전	-	-	-	-	-	350	350	378	383
인천	-	-	-	-	-	-	-	-	137
계	250	400	550	670	1,680	2,030	2,290	2,807	3,417

보훈병원 국비진료 대상 및 예산									(단위 : 명, 백만 원)
구분	1962	1972	1982	1990	1995	2000	2005	2010	2021
대상인원	25,051	34,065	42,479	48,537	56,841	115,316	196,080	250,685	249,617
예산	19	197	2,625	18,976	45,891	76,002	132,388	177,739	298,089

국비진료

국비진료의 목적은 국가를 위해 희생, 공헌한 분들 중 신체적 부상을 입은 보훈대상자의 상이처 및 질병에 대해 보훈병원 또는 위탁병원에서 진료를 실시하고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국가가 지원함으로써 이들의 건강한 생활 유지와 복지향상을 도모하는 데 있다.

국비가료 범위

1953년 전상자 및 애국지사의 상이처에 한해 국가 부담으로 진료한 것을 시작으로 1962년 응급 및 통원가료를 실시했고, 1974년에는 상이처 외에 일반 질병에 대해서도 진료비의 60%를 감면했다. 1980년 상이 1급~2급 국가유공자에 대해 진료비 감면범위를 전 질환으로 확대한 이후, 1985년 「국가유공자 예우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어 국비가료 범위가 대폭 확대됨에 따라 국가유공상이자와 애국지사 모두에 대해 상이처뿐만 아니라 모든 질환을 국비가료 범위에 포함시켜 국가유공자에 대한 실질적인 의료보장을 제도화했다.

국비가료 대상

1953년에는 전상자 및 애국지사에 한정되었으나, 1968년 반공포로상이자, 1975년 공상공무원까지 확대되었고, 1992년 상이등급을 받지 못한 제대 군인의 상이처 진료, 1993년 고엽제후유(의)증환자, 2000년 신설된 상이 7급 국가유공자, 2002년 5·18 민주화운동 부상자, 2005년 특수임무부상자 등으로 확대됨에 따라 의료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에 있다.

현재 국비진료 대상은 애국지사, 전상군경, 공상군경, 4·19혁명부상자, 공상 공무원, 특별공로상이자, 6·18자유상이자, 5·18민주화운동부상자, 재해부상 군경, 재해부상공무원, 특수임무부상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고엽제 후유증 2세환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급기준 미달판정자(인정 질환에 한해 지원), 상이등급 기준 미달판정을 받은 전·공상 제대군인(인정 상이처에 한해 지원)이다.

진료의 종류

국비진료 대상자에게 실시하는 진료에는 보훈병원 진료, 위탁병원 진료와 민간 의료기관에서 실시하는 전문위탁·응급·통원진료가 있다.

- **보훈병원 진료** : 보훈병원(중앙·부산·광주·대구·대전·인천)의 입원·외래 진료비 전액 국비 지원
- **위탁병원 진료** : 보훈병원과 원거리에 거주하는 의료지원 대상자의 진료편의를 위해 각 시·군에 민간 의료기관을 지정하여 진료를 받게 하는 제도
- **전문위탁 진료** : 특수질환 또는 중증질환자 등 보훈병원에서 진료가 곤란하다고 보훈 병원장이 인정하는 환자에 대해 국내의 전문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게 하는 제도
- **응급진료** : 불의의 재해나 그 밖의 위급한 상태에서 즉시 필요한 처치를 하지 않으면 생명을 보전할 수 없거나 중대한 합병증을 초래할 것으로 판단되는 응급증상이 발생한 경우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응급실을 통해 진료를 받은 후 그 진료비를 환급하는 제도
- **통원진료** : 보훈병원 또는 위탁병원이 없거나 해당 진료과목이 없는 경우 주소지 인근 의료기관에 입원하지 않고 왕래하면서 진료하는 제도

또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이 되기 위해 등록 신청을 하고 신청한 날로부터 등록 결정 이전까지의 상태에 있는 자에게 보훈병원 및 위탁병원에서 진료를 받게 하고 보훈대상자로 등록이 결정되면 진료비를 환급하는 제도를 운영해 국가를 위해 희생·공헌하신 분들에게 실질적인 의료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보훈병원 진료

보훈병원 진료는 전국 6개 보훈병원(중앙, 부산, 광주, 대구, 대전, 인천)에서의 입원 및 외래진료가 있으며, 보훈병원 진료가 어려운 고난도 난치성 질환은 타 전문 의료기관에 진료를 위탁하는 전문위탁 진료가 있다. 또한 응급증상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민간 의료기관에서 응급진료를 받을 수 있으며, 보훈병원이나 위탁병원이 없는 지역에 거주하는 대상자는 민간 의료기관에서 통원진료를 받을 수 있다. 이와 같이 국비진료 대상자에게는 보훈병원 진료와 타 의료시설에서의 전문위탁 진료, 응급 및 통원진료가 있으며 이에 소요되는 진료비를 국가가 지원하고 있다.

국가보훈처는 1989년부터 국비가료 대상자에 대한 진료비 전액을 국가가 부담하고, 보훈공단의 수익금은 전액 병원 시설 확충에 투입하도록 하는 운영개선지침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국비진료예산은 매년 국가보훈처의

과거 원호병원 시절의 병상모습



세출예산 범위 내에서 책정했으나, 국비진료 대상자의 범위 확대와 고령화에 따른 만성·복합질환으로 의료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당초 책정된 진료비 예산 보다 초과진료를 할 수밖에 없었으며, 일부 과잉진료의 사례가 지적되기도 했다. 이에 2006년 감사원은 국비진료비 운영개선 일환으로 적정의료수가 마련과 국비진료비 집행에 대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심사를 거친 후 국비진료비를 보상받도록 하는 국비진료비 정산제 도입을 제기했다. 이와 관련해 2008년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연구용역 결과에 의거 새로이 국비의료수가를 제정했으며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심사결과에 따라 진료비 정산을 실시했다. 이와 같이 진료비 정산제를 실시함에 따라 진료의 오·

보훈병원 국비진료 실적								
(단위 : 명)								
구분	1962	1972	1982	1987	1988	1989	1990	
실인원	300	264	30,696	184,411	198,238	216,894	344,979	
연인원	13,000	59,000	306,000	734,000	858,000	968,000	1,126,000	
(단위 : 천 명, 백만 원)								
구분	2001	2010	2015	2017	2019	2020	2021.8	
계	인원	5,042	2,461	2,653	2,694	2,676	2,404	1,556
	금액	124,053	273,711	374,662	410,494	431,232	422,776	288,619
입원	인원	507	729	757	743	690	596	375
	금액	65,868	128,003	175,366	191,020	206,410	200,796	134,328
외래	인원	4,535	1,732	1,897	1,951	1,986	1,808	1,181
	금액	58,185	145,708	199,296	219,474	224,822	221,980	154,291

국비 입원 환자										(단위 : 명, 연도말 기준)
구분	1980 이전	1985	1990	1995	2000	2005	2010	2015	2020	2021.8
중앙	149	215	326	503	524	571	525	796	433	530
부산	-	61	102	185	223	354	341	407	205	265
광주	-	-	88	129	173	337	321	300	268	241
대구	-	-	-	138	179	194	305	314	251	275
대전	-	-	-	-	190	228	246	274	207	167
인천	-	-	-	-	-	-	-	-	27	36
계	149	276	516	955	1,289	1,684	1,738	2,091	1,391	1,514

전문위탁 진료실적											
(단위: 천 명, 백만 원)											
구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8
인원	263	275	297	279	290	279	273	294	316	287	193
금액	19,308	23,807	25,349	24,862	23,622	23,389	22,968	23,271	25,727	23,618	16,903

응급·통원 진료실적											
(단위: 천 명, 백만 원)											
구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8
인원	66	65	75	70	75	76	85	94	96	93	60
금액	6,569	6,653	8,200	7,877	8,524	8,356	9,855	10,550	11,200	10,788	7,721

남용 관리 및 적정 진료수가 운영으로 국비진료비 예산의 합리성과 투명성이 확보됨과 동시에, 적정 진료체계를 정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전문위탁 진료

전문위탁은 특수질환 또는 중증질환자 등 보훈병원에서 진료가 곤란하다고 인정된 환자에 대해 국내의 전문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게 하는 제도이며 진료비는 본인부담급여 또는 법정비급여진료비(임의비급여 제외)를 지원한다.

응급진료

응급진료는 불의의 재해나 그 밖의 위급한 상태에서 즉시 필요한 처치를 하지 않으면 생명을 보전할 수 없거나 중대한 합병증을 초래할 것으로 판단되는 응급증상이 발생한 경우,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응급실을 통해 진료를 받은 후 그 진료비를 환급하는 제도이다.

통원진료

통원진료는 보훈병원 또는 위탁병원이 없거나 해당 진료과목이 없는 경우 주소지 인근 의료기관에 입원하지 않고 왕래하면서 진료하는 제도이다. 또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이 되기 위해 등록 신청을 하고 신청한 날부터 등록 결정 이전까지의 상태에 있는 자에게 보훈병원 및 위탁병원에서 진료를 받게 하고 보훈대상자로 등록이 결정되면 진료비를 환급하는 제도이다.

위탁진료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진료는 전국 보훈병원과 거주지 인근 병원에서 제한적으로 실시하는 응급 및 통원진료를 통해 이루어졌지만, 보훈병원과 원거리에 거주하는 대상자들에 대한 의료지원이 상대적으로 미흡한 실정이었다. 이에 보훈병원과 원거리에 거주하고 있는 의료지원 대상자들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대상자의 거주지와 인접한 민간 의료기관을 활용한 위탁진료 제도를 시행하게 되었다. 위탁진료는 국가와 민간 의료기관과의 진료 계약을 통해 위탁병원으로 지정된 기관에서 의료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이다.

1986년 제주특별자치도에 위탁병원을 지정한 이후 지속적으로 각 지역에 위탁병원을 지정해 2010년에는 전국에 약 300여 개 민간 의료기관을 위탁진료 병원으로 지정했다. 2021년에는 고령 및 만성질환의 증가에 따른 의료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위탁병원을 439개소로 확대해 근접의료 서비스를 강화했다.

위탁병원에서 진료를 받기 위해서는 위탁 지정병원에 국가유공자증, 신분증을 제시하여야 하며, 국가보훈처는 위탁병원 진료비 중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에서 부담하는 비용을 제외한 금액을 국가예산으로 지원하고 있다.

이와 같이 위탁병원이 전국 각 지역에서 만성질환 및 경미한 질환을 치료하는 1차의료기관으로 자리매김하게 되었고, 수술 및 고난도 처치 등을 필요로 하는 중증 질환의 경우는 2차적으로 지역별 보훈병원에서 진료를 담당하고, 고난도 질환일 때에는 3차적으로 중앙보훈병원에서 치료 받을 수 있도록 전국 권역별 보훈의료망 구축과 연계해 효율적인 보훈의료전달체계를 운영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제도 변천

1986년 보훈병원과 원거리 지역 의료대상자의 근접 진료를 실시하기 위해 제주 지역에 2곳의 위탁병원을 최초로 지정해 운영했는데, 당시에는 보훈병원 자체 예산으로 위탁 진료를 실시했다. 이후 1987년 강릉과 안동으로 위탁병원을 확대했고, 1990년 함양과 도서지역에 위탁병원을 추가해 위탁병원 확산의 기틀을 마련했다. 1990년 국가 세출예산에 위탁병원 진료비를 편성했고 1994

년 국가유공자 등 가료보호처리요령을 제정해 입원은 20일 이내, 통원은 완치될 때까지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했으며, 국가지원금은 200만 원으로 정했다. 1996년에는 위탁병원지정기준을 제정했고, 제주 지역의 상이가 없는 자와 유가족에게 감면비율 40%의 위탁감면진료를 실시했다. 위탁병원 진료는 원칙적으로 상이가 있는 자에게 실시했으나 보훈병원의 이용이 어려운 제주 지역의 실태를 고려한 조치였다. 1998년에는 강원도와 도서지역으로 위탁병원 진료를 확대하고 1999년에는 국가유공자 등 가료보호처리요령을 개정해 위탁병원 감면비율을 60%로 조정했다.

2000년에 이르러서는 국가지원금을 300만 원으로 인상했으며, 상이등급 7급 대상자에게도 위탁병원 진료비를 지원했다. 2002년에는 5·18민주화운동 부상자에게 위탁병원 진료비를 지원했고 위탁병원 지정을 전국 130곳으로 확대했으며, 2003년 고엽제 환자가 지닌 모든 질환 치료를 지원했다.

이어서 위탁진료적정 운영방안으로 2005년 위탁진료비 비급여 수가 표준화를 시행했고, 위탁진료병원 진료비 및 약국약제비의 청구·심사·지급 등 업무처리 기준(고시 2005.9.5)을 제정했다. 같은 해 10월 위탁진료비 심사를 진료비 평가 전문기관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위탁했다.

2007년 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 규정을 제정했고 2008년에는 국가유공자 위탁병원 확대 및 예산절감 방안에 대한 연구용역 결과 위탁병원 지정 및 관리제도 내실화의 필요성이 제기되었으며 위탁병원 제도가 보훈의료 전달체계와 연계해 근접진료 1차 진료기관으로 자리매김했다. 2009년에는 「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에 관한 규칙」(총리령 2009.6.26)을 제정했으며 2009년 7월부터 위탁병원 진료를 75세 이상 참전유공자, 선순위 유족 1명, 무공수훈자 등으로 확대하고 약국 약제비를 제외한 진료비의 60%를 지원했다. 또한, 동일질환으로 의료기관을 달리해 동일 성분 의약품을 중복해 처방·조제 받는 행위를 금지하는 법적 근거(국가 보훈대상자 의료지원규정, 총리령 제905호 2009.6.28.)를 마련했으며 2010년 10월부터 위탁병원에 대한 의료서비스 적정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2012년 7월에는 75세 이상 보상금을 수령하는 독립유공자 유족 1명, 보훈보상 대상자 배우자 1명까지 위탁병원 지원 대상 범위를 확대했고, 2018년 75세 이상 참전유공자의 위탁병원 진료비 감면율을 60%에서 90%로 확대했다. 또한 2020년 9월에 중증·난치성 질환자에 대해 본인 부담 진료비의 50%

위탁병원 지정

를 지원했다. 2021년 8월 현재 위탁병원 439개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정부 위탁병원 확대 정책에 따라 2022년까지 640개소로 대폭 확대할 예정이다.

위탁병원 지정 기준은 시(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포함)군에 근접의료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1개를 지정해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보훈병원이 소재하는 지역은 위탁병원 지정 대상 지역에서 제외했다. 다만 보훈병원의 진료 적체 등으로 위탁병원을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지정을 허용해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위탁병원은 공개모집을 통해 지정 신청을 받은 후 지방보훈관서의 지정대상 심사와 보훈병원의 적격성 심사를 거쳐 최종적으로 국가보훈처장이 승인하며 위탁병원장, 보훈병원장, 관할 보훈(지)청 간의 계약을 통해 지정하고 있다. 계약 기간은 2년이며 위탁병원의 휴·폐업 또는 일부 진료과목의 폐지로 진료가 곤란하거나 기타 계약을 유지하기 곤란한 경우 계약이 해지된다. 관할 보훈관서장과 해당 보훈병원장은 위탁병원을 교체할 경우 진료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기에 교체해야 하며, 보훈병원장은 위탁병원의 적정 진료를 유도하고 위탁진료 계약을 성실히 이행하도록 주기적으로 위탁병원을 관리하고 있다.

위탁진료관리

위탁진료제도를 통해 근접 진료편의를 제공함에 따라 의료수요가 급격히 증가해 위탁진료비가 급증한 반면에 이용실태 분석결과 일부 위탁병원의 과잉진료사례와 이용자의 중복투약사례가 지적됨에 따라 근본적인 개선책을 강구했다. 2011년 2월 국가보훈처와 보훈공단 간에 국가유공자 위탁 진료관리 약정서를 체결하고 2012년부터 위탁병원관리단을 신설 운영하고 있다.

위탁병원관리단에서는 위탁병원 의료서비스 적정성 평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심사하는 진료비 이외의 위탁병원 진료내역 심사 및 분석,

위탁병원 이용자의 중복투약·과다의료 이용을 예방하기 위한 사례관리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관리단은 위탁병원 적정성 평가 결과 하위기관, 진료비가 급증하는 병원에 대해서는 현지 점검과 코칭을 실시하는 등 의료서비스 향상과 적정 진료 문화 정착에 노력하고 있다. 한편 위탁병원 이용 보훈환자의 약물 오·남용 등으로 인한 건강악화를

2011년 위탁병원관리단 발족



연도별 위탁병원 지정 현황											(단위 : 개소)
구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8
계	307	310	310	312	309	309	309	314	320	364	439
종합병원	86	87	89	87	85	87	87	87	89	88	87
병원	147	145	144	144	145	141	141	143	142	142	148
의원	74	78	77	81	79	81	81	84	89	134	20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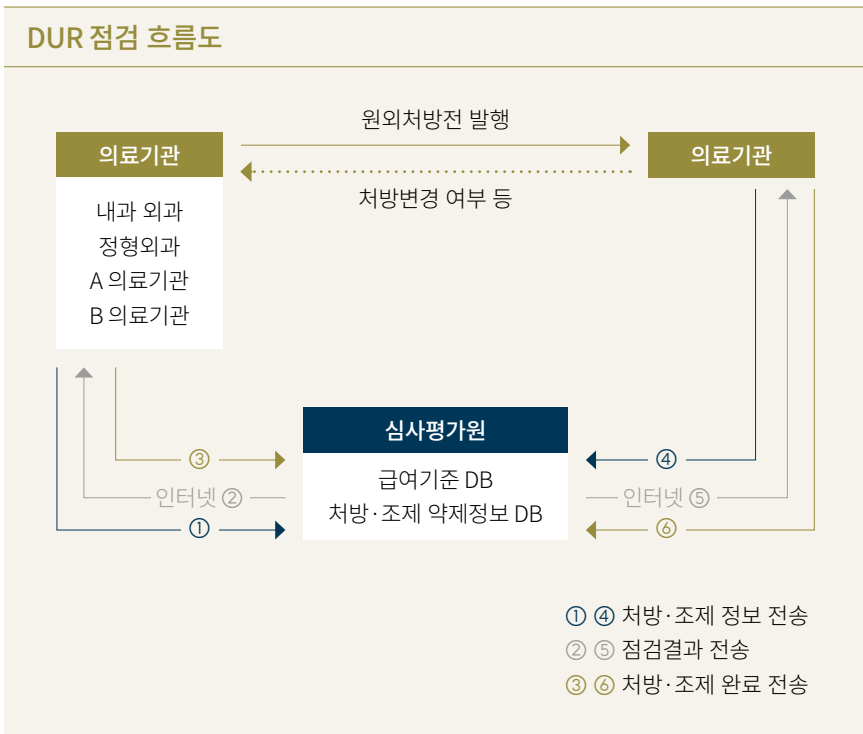
권역별 위탁병원 지정현황							(단위 : 개소)
구분	계	중앙	부산	광주	대구	대전	인천
계	439	152	74	85	54	58	16
종합병원	87	28	14	17	8	12	8
병원	148	47	35	25	19	16	6
의원	204	77	25	43	27	30	2
진료권역	서울·경기·강원		부산·경남·제주·울산	광주·전남·전북	대구·경북	대전·충남·충북·세종	인천·경기서북부

위탁병원 진료실적											(단위 : 천 명, 백만 원)	
구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8
계	인원	3,506	3,813	4,075	4,214	3,902	4,141	4,159	3,965	4,360	3,977	2,378
	금액	184,524	181,850	180,579	194,403	193,450	204,282	213,196	218,503	243,190	234,555	158,055
입원	인원	1,038	1,154	1,310	1,295	1,180	1,249	1,263	1,227	1,363	1,243	718
	금액	31,613	33,635	35,151	37,675	36,936	39,537	41,161	44,140	55,818	55,228	33,696
외래	인원	2,468	2,659	2,765	2,919	2,722	2,892	2,896	2,738	2,997	2,734	1,660
	금액	152,910	148,216	145,428	156,728	156,514	164,745	172,034	174,363	187,372	179,327	124,359



1 보훈병원에서 진행중인 복약상담
2 의약품 처방, 조제

예방하기 위해 의약품 중복투약자, 과다의료 이용자를 선별해 대면·전화 상담, 서신 발송, 집합·동영상 교육 등 다양한 방법으로 사례관리를 실시하고 있으며,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약품 안심서비스(DUR)를 활용해 보훈환자의 안전한 약품 사용을 모니터링하고 있다. 위탁병원 관리 업무 효율화를 위해 2012년 위탁병원 진료내역 확인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위탁병원 적정진료, 이용자 사례관리를 통해 국가유공자 건강증진에 노력한 결과 2020년에는 국가부담 위탁진료비 약 52억 원을 절감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감면진료

감면진료는 독립유공자 유·가족, 상이를 입지 않은 국가유공자(무공수훈자, 참전유공자 본인 등), 상이를 입은 국가유공자의 유·가족, 특수임무공로자, 5·18민주화운동부상자의 유가족, 5·18민주화운동희생자 및 유가족, 10년 이상 장기복무 제대군인 등이 보훈병원 또는 위탁병원에서 진료를 받을 경우 진료비 중 본인 부담금의 30~90%를 국가가 지원하는 제도이다.

제도 변천

보훈병원 감면진료는 1974년 국가유공자 유족에 대해 진료비의 50% 감면, 애국지사 및 상이유공자의 가족에 대해 진료비의 40%를 국가가 지원하는 것에서 시작했으며, 1975년 공상공무원 유가족을 지원대상에 포함한 이후 1990년에는 유가족 모두 진료비의 60%를 감면하는 것으로 확대되었다. 참전유공자 및 제대군인에 대해서는 1992년 30% 감면에서 1998년 50%로 감면율을 확대했고, 이후 참전유공자는 2005년 60%로 확대했다가 2018년 90%로 감면율을 확대했다.

이후 감면진료 대상자에 2000년 신설된 상이 7급의 유가족, 2002년 5·18 민주화운동유공자의 유가족, 2005년 특수임무유공자의 유가족 등이 편입되었다. 2006년에는 20년 이상 장기복무 제대군인에서 10년 이상 장기복무 제대군인으로 대상이 확대되고 2008년 7월부터 군 복무 중 발병자(군 복무 중 발병·악화된 제대군인으로서, 해당 질병이 국가유공자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결정된 중증질환자)를 50% 감면 대상으로 편입시켰다. 2012년에는 7급 상이자가 상이처 외 질환 진료 시 20%의 본인 부담금이 발생했으나, 2018년에는 본인 부담금을 10%로 완화했다. 이와 같은 감면진료 대상자 확대로 인해 연간 보훈병원 감면진료 인원은 연간 1980년 9만 2,000명에서 2020년 136만 8,000명으로 증가했다.

또한, 보훈병원에서 먼 곳에 거주하는 대상자를 위해 1986년 제주특별자치도를 시작으로 1998년 강원도 및 도서·벽지 위탁병원에서 감면진료를 실시했으며, 2009년 7월부터는 75세 이상 선순위 유족 1명·무공수훈자·참전유공자 등에

보훈병원 감면진료 대상 및 감면율	
진료비 감면대상	감면비율(%)
6·25 참전 재일학도 의용군인	100
참전유공자	90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국가사회발전특별공로자, 4·19혁명 공로자	60
독립유공자의 유가족(손자녀 포함)	60
국가유공자의 배우자 또는 선순위유족 1인(선순위유족이 부모인 경우 모두) ※2012.7.1 전에 등록 신청한 사람은 유가족 모두 지원	60
보훈보상대상자의 배우자, 6·18 자유상이자 배우자나 유족	60
특수임무공로자, 특수임무유공자의 배우자 또는 선순위유족 1인(선순위유족이 부모인 경우 모두) ※2016.6.23 전에 등록신청한 사람은 유가족 모두 지원	60
5·18 민주화운동 사망자, 행방불명자, 부상자의 배우자 또는 선순위유족 1인(선순위유족이 부모인 경우 모두) ※2016.6.23 전에 등록신청한 사람은 유가족 모두 지원	60
그 밖의 5·18 민주화운동 희생자	50
그 밖의 5·18 민주화운동 희생자의 배우자 또는 선순위유족 1인(선순위유족이 부모인 경우 모두) ※2016.6.23 전에 등록신청한 사람은 유가족 모두 지원	30
10년 이상 장기복무제대군인, 군 복무 중 발병 또는 악화된 질병을 앓고 있는 제대군인	50

연도별 감면진료 대상인원 및 예산									(단위 : 천 명, 백만 원)
연도	1962	1980	1990	2000	2010	2015	2020	2021.8	
대상인원	620	523	676	1,191	1,630	1,669	1,547	1,528	
예산	-	-	-	2,557	32,688	32,300	91,432	109,666	

보훈병원 감면진료 실적										(단위 : 천 명, 백만 원)
구분		1980	1990	2000	2005	2010	2015	2020	2021.8	
인원	계	92	261	898	1,001	1,221	1,188	1,690	1,172	
	입원	26	79	266	263	281	250	355	244	
	외래	66	182	631	738	940	938	1,335	928	
금액		732	7,109	48,775	73,574	126,551	129,558	200,283	149,487	

도서·벽지 지역 감면진료

대해 위탁병원에서 진료비 60% 감면(약제비 제외) 제도를 시행했다. 2012년 7월부터는 75세 이상 보상금을 수령하는 독립유공자 유족과 보훈보상대상자의 배우자로 지원범위를 추가 확대했고, 2018년에는 75세 이상 참전유공자의 위탁병원 감면율을 60%에서 90%로 확대했다.

제주특별자치도와 강원도 및 기타 도서·벽지 지역 등 보훈병원과 멀리 떨어진 지역에 거주하고 있어 보훈병원의 진료를 받기 곤란한 국가보훈대상자의 진료 편의를 위해 국가보훈처장이 별도로 지정한 위탁병원에서 감면진료를 실시하고 있다.

위탁병원 감면진료

2009년 7월부터 75세 이상 보상금을 수령하는 선순위 유족 1명, 참전유공자, 무공수훈자, 재일학도의용군인, 6·25전몰군경유자녀 수당 대상자 등에 대해 요양급여 진료비(약제비 제외)에 한해 60% 감면을 실시하고, 2018년부터 75세 이상 참전유공자의 요양급여 진료비(약제비 제외)는 60%에서 90%로 감면율을 확대해 지원하고 있다.

위탁병원 감면진료 실적												(단위 : 천 명, 백만 원)
구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8	
	인원	금액	인원	금액	인원	금액	인원	금액	인원	금액	인원	금액
계	인원	560	675	953	931	883	977	1,078	953	1,288	1,100	622
	금액	9,575	9,410	12,897	13,036	13,119	14,635	17,044	18,142	29,097	27,525	16,509
입원	인원	253	330	478	452	432	476	518	480	619	543	300
	금액	5,617	5,549	7,684	7,542	7,588	8,362	9,864	10,757	17,438	16,838	9,741
외래	인원	307	345	475	479	451	501	560	473	669	557	322
	금액	3,958	3,861	5,213	5,494	5,531	6,273	7,180	7,385	11,659	10,687	6,768

국가사회기여자 감면진료

2012년 이후 국가사회기여자를 대상으로 의료지원 협약을 체결해 보훈병원 진료 시 본인부담금액의 30% 감면 혜택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PTSD(외상후 스트레스증후군) 검사, 치료 및 예방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으며, 이후 진료실적이 점진적으로 증가해 2020년 기준, 국가사회기여자 5,095명에게 의료 혜택을 지원함으로써 공공의료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제고했다.

제2절

보훈의료망 구축

보훈병원은 1981년 보훈공단 설립 이후 250병상 규모의 원호병원에서 출발해 정부의 보훈대상자 의료지원 범위 확대 및 고령화에 따른 복합·만성질환으로 의료수요가 증가하자 의료시설을 단계적으로 확충했다.

중앙보훈병원은 1983년 서울시 강동구 둔촌동에 최신 시설을 갖춘 440병상 규모의 서울보훈병원(현 중앙보훈병원)이 준공되어 구 원호병원에서 이전 개원했다. 그 후 순차적으로 장기요양병동, 종합재활센터 등을 증축해 1990년 800병상 규모로 확충하였으며, 이어서 2011년 600병상을 신축하고 기존 800병상을 리모델링하여 2014년 1,400병상 규모의 대형병원으로 발전했다.

지방보훈병원은 1984년 부산보훈병원, 1987년 광주보훈병원, 1993년 대구보훈병원, 1997년 대전보훈병원에 이어서 2018년 인천보훈병원이 개원함으로써 보훈공단 설립 당시 1개 병원 250병상에서 6개 병원 3,417병상 규모의 전국 권역별 보훈의료망을 구축했다.

이와 같이 보훈의료망이 구축됨에 따라 전국 각 지역의 민간 위탁병원이 1차 진료기관 역할을 담당하고, 2차적으로 5개 지역 및 보훈병원에서 진료를 담당하는 한편, 고난이도의 난치성 질환 등은 3차적으로 중앙보훈병원에서 진료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보다 효율적인 보훈의료전달체계의 기반을 구축했다.

중앙보훈병원

중앙보훈병원 신축

국가유공자 등의 가료대상 범위확대에 따른 의료수요 증가와 고령화 추세로 대부분이 복합·만성질환(평균 5.8개)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만성요양성환자의 장기입원이 증가하고 신규 입원할 환자의 적기가료가 어려운 실정에 이르렀다. 이에 입원대기 적체 해소와 만성요양성환자에 대한 효율적인 가료체제 정립이 시급해 2002년 서울보훈병원 부지 내 300병상 규모의 요양병동 추가건립(재활체육관 포함) 계획을 확정하고, 총사업비 250억 원(세출예산) 중 1차 연도 사업비로 2003년에 24억 9,000만 원이 정부세출·예산에 반영됨에 따라 보훈공단은 2002년 12월 30일 이사회(2003년 사업계획 및 예산안)의결을 거쳐 2003년부터 설계를 착수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향후 의료수요 증가에 대비하고 수준급 대형 보훈병원 신축의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2003년 6월 국가보훈처는 대통령 업무보고 시 중앙보훈병원 신축계획을 보고해 당초 요양병동 신축계획은 보류되고, 중앙보훈병원 신축이 본격적으로 추진되었다. 이에 3차 진료기능을 가진 중앙보훈병원을 건립,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의뢰해 사전타당성을 조사한 결과, 기존 병동은 철거하고 2,000병상을 신축하는 것으로 보고되었으나, 기획예산처는 2003년 12월 기존 병동 800병상은 리모델링하고

보훈병원						
구분	중앙	부산	광주	대구	대전	인천
개원	1981. 11	1984. 4	1987. 4	1993. 2	1997. 11	2018. 11
병상수	1,370	499	553	475	383	137
진료과	31	21	24	22	20	15
진료권	서울·경기 강원	부산·경남 제주·울산	광주·전남 전북	대구·경북	대전·세종 충남·충북	인천 경기서북부

1 과거 수술실 모습
2 서울보훈병원 전경(과거)



1,200병상을 신축하는 것으로 수정해 예비타당성 조사를 한국개발연구원(KDI)에 의뢰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이 2004년 7월 31일 ‘신축 600병상, 기존 병동 리모델링 800병상 건립 시 경제성분석(B/C) 비율이 1.03으로 경제적 타당성이 인정되며, 정책적 종합분석(AHP) 비율이 0.656으로 사업을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예비타당성 조사결과를 공단에 통보함에 따라 2005년 7월 이사회 의결과 국가보훈처 승인을 받았다. 사업규모는 건축 연면적 86,413㎡, 1,400병상(신축 600병상 건립, 기존 800병상 리모델링)이며 신축병동 사업비는 1,764억 원이다.

한편, 중앙보훈병원 건립부지는 개발제한 구역 내에 위치해 2004년 6월 강동구청에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 변경신청을 했으며, 같은 해 12월 서울시

중앙보훈병원 신축병동 시설			
층별	면적(㎡)	용도	비고
옥탑	-		옥상
13층	1,289	전공의 숙소, 공조기실	기타
12층	2,192	예비실(의사연구실) 등	
11층	2,194	입원실(91)-특실 1, 2인실 5(10B), 5인실 15(75B)	병실동
10층	2,194	입원실(89)-격리실 2(4B), 무균실 2(2B), 2인실 4(8B), 5인실 15(75B)	
9층	2,194	입원실(91)-1인실 1, 2인실 5(10B), 5인실 16(80B)	
8층	2,194	입원실(91)-1인실 1, 2인실 5(10B), 5인실 16(80B)	
7층	2,194	입원실(92)-2인실 6(12B), 5인실 16(80B)	
6층	2,194	입원실(91)-특실 1, 2인실 5(10B), 5인실 16(80B)	
5층	2,194	원장실, 간호부, 병동약제부, 행정사무실 등	
4층	4,643	진단검사의학과, 병리과, 검사실, 욕창치료실 등	외래병동
3층	6,155	중앙수술부, 외래수술부, 중환자실, 혈관조영촬영실	
2층	7,194	응급의료센터, 로비, 영상의학과, 원무과, 외래진료실 등	
1층	12,596	외래진료실, 약제부, 인공신장실, 외래진료과, 주차장 등	
지하1층	13,872	주차장(205대), 중앙소독부, 중앙창고, 식당, 핵의학과, 편의시설 등	주차장,
지하2층	9,418	주차장(202대), 방사선중앙학과, 대강당, 의무기록실, 방제센터 등	외래동
지하3층	10,075	주차장(210대), 기계·발전기·전기실, 오수정화조 등	주차장,
지하4층	3,290	주차장(98대)	기계실
계	86,071		

시설 확충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쳤다. 그러나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사업이 서울시에서 건설교통부로 이관됨에 따라 2005년 5월과 10월에 건설교통부, 환경부 및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위원이 현장을 방문해 심의했다.

2005년 5월 재해나 전시상황에 대비한 비행안전구역 및 대공방어 협조구역에 대한 협의를 거쳤으며, 같은 해 12월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건설교통부에서 건물 층고 수 13층으로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변경을 승인했다.

한편, 인근 아파트 주민 등이 일조권 침해와 조망권 장애 등을 이유로 민원을 제기하여 2007년 2월 기본설계를 수정해 서울시의 건축심의 및 환경영향평가 심의, 교통영향평가 심의, 문화재 지표 및 발굴 조사완료 절차를 거쳐 2007년 7월 서울시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았다.

중앙보훈병원 신축은 서울보훈병원 운동장 부지 및 재활체육관, 보장구센터 등을 철거한 위치에 26,446㎡의 부지(전체 면적 66,519㎡ 중 26,446㎡)를 확보해 2005년부터 2013년까지 9개년 사업으로 사업비 2,577억 원을 투입해 지하 4층(PC+RC구조) 지상 13층(SRC구조)의 연면적 86,071㎡의 600병상 신축공사와 기존 병동 800병상을 리모델링하는 사업이다.

신축병동의 연면적은 86,071㎡로 옥내 841대, 옥외 271대 등 총 1,112대의 주차시설과 외래·입원환자 및 가족들의 편의를 위해 엘리베이터 18대를 설치했다. 또한 중앙로비 1, 2층에는 에스컬레이터 4대를 설치하여 보훈가족들이 이용하는 데 불편이 없도록 했다. 신축병동 건립 공사는 2011년 4월 완료되어 9월 개원했다.

이어서 기존 병동 800병상은 신축병동 공사 준공 후 순차적으로 리모델링 공사(33,032㎡)를 착수해 2013년에 마무리함으로써 1,400병상 규모의 중앙보훈병원이 건립되었다.

보훈공단 설립 이전의 둔촌동 신축병원은 68,174㎡ 부지를 매입해 1979년 3월 3일 공사를 착공하고 1983년 12월 31일 준공했으며, 총공사비는 세출예산 138억 원과 외자 25억 원 등 총 163억 원이 투입되었다. 이 중 공사비는 120억 원, 의료장비 구입비 43억 원(세출 18억 원, 외자 25억 원)으로 지하 1층 지상 7층의 연면적 20,736㎡의 본관동이 준공되었다. 그 후 본관동은 부족한 외래병동(신경과, 안과) 및 신검장 등 1,480㎡를 증축했으며, 부족한 병상을 확보하기 위해 1991년 11월 신관동 7,517㎡에 330병상을 증축해 747병상의 규모를



중앙보훈병원 전경(현재)

갖추었다. 1996년 7월 의료지원시설인 별관동 4,379㎡를 증축했고, 1998년 11월 재활병동(6,137㎡ 73병상), 2002년 5월 장례식장(2,467㎡)을 신축했으며, 2018년에는 장례식장을 지하 2층 지상 3층(5,310㎡) 규모로 증축했다. 2007년 4월 보장구센터(1,235㎡), 같은 해 8월 치과진료센터를 증축·리모델링했다. 보훈재활의료 특성화 일환으로 국내 최고 수준의 로봇재활 등 특성화 분야 육성 및 융합형 모델을 구축하기 위해 2013년 지하 1층 지상 7층 187병상 규모의 재활센터를 개설했다.

또한 신축병동에 이어 기존 800병상의 리모델링 공사가 마무리됨에 따라 국가유공자 고령화에 따른 요양수요증가 및 보훈의료전달체계(급성기·재활·요양) 구축과 관련해 2014년 399병상 규모의 보훈요양병원을 개설했다.

이후 보훈의료대상자 특성에 맞는 진료 및 질병 연구기능 수행을 위해 2014년부터 2018년까지 238억 원을 투입해 지하 2층 지상 5층 연면적 6,525㎡ 규모의 보훈의학연구소를 건립했다.

한편 보훈대상자 고령화 및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로 증가하는 치과수요를 해소하기 위해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중앙보훈병원 치과병원 증축공사를 추진하고 있다. 기존의 치과병원 건물을 철거하고 지하 4층 지상 5층 연면적 10,503㎡ 규모로 사업비 412억 원을 투입해 새 건물을 건립하는 사업으로, 진료환경 개선을 통해 진료 적체 해소와 전문진료시스템 강화로 의료수준의 질적 향상을 기대할 수 있게 되었다.

부산보훈병원

1983년 부산시 동구 범일동 소재 구 철도병원을 인수(18억 원)해 1983년 8월부터 1984년 3월까지 개보수공사(개보수공사비 6억 원)를 실시한 후, 1984년 4월 3일 지하 1층 지상 4층, 150병상 규모로 출발했다.

1992년 5월 기존 건물이 노후한데다 소음 공해가 발생하는 철도변에 위치해 병원시설로는 적합하지 않아 사상구 주례동 66,764㎡ 부지에 151억 원을 투입, 16개 진료과 240병상 규모로 건물(연면적 14,572㎡)을 신축하여 이전했다.

국가유공자 등 진료대상 범위 확대와 고령화로 장기입원 환자의 증가, 정신과 입원환자의 의료수요 등으로 1994년 27억 원을 투입해 정신과 병동 40병상을 포함한 100병상을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의 별관동으로 증축했다. 이후 요양병동 및 고엽제후유(의)환자 등 의료수요 증가로 2004년 195억 원을 투입해 200병상 및 기숙사동 일부와 장례식장을 증축하여 540병상 규모로 확장했다.

2011년 지하 1층 지상 6층 90,955㎡ 규모의 건물 1동과, 3층 4단의 철골주차장 1,322㎡(162대 주차), 본관동 1~3층 리모델링, 외래진료시설 리모델링 공사 120억 원, 2014년 병동시설 리모델링 공사에 129억 원을 투입해 진료환경을 개설했다. 또한 급성기 환자들의 재활치료 연계를 위해 2018년부터 2021년까지 234억 원을 투입해 지하 1층 지상 6층, 80병상 규모의 재활센터를 건립하고 있으며, 국가유공자 고령화에 따른 요양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2019년부터 2022년까지 418억 원(복권기금)을 투입해 지하 1층 지상 5층 180병상 규모의 요양병원을 건립하고 있다.

1 부산보훈병원 전경(과거)

2 부산보훈병원 전경(현재)



광주보훈병원

1987년 국가보훈처에서 부지를 제공하고 보훈공단이 건축비 44억 원을 투입해 광주시 서구 주월동에 지하 1층 지상 6층, 120병상 규모의 광주보훈병원을 건립했다. 1990년 9월 80병상을 증축하고, 1991년 11월 100병상을 증축해 총 300병상을 운영하다가 의료수요 증가에 대처하고 쾌적한 진료 환경조성을 위해 2000년 8월부터 2002년 12월까지 광주시 광산구 산월동 887-1번지 74,103㎡ 대지에 건물을 신축·이전했다. 신축병원은 지하 1층 지상 8층 연면적 36,208㎡의 500병상 규모로 건립했다.

2004년 국가유공자의 재활훈련과 신체기능 회복을 위해 16억 원을 투입해 1,969㎡ 규모의 재활체육관을 건립했으며, 2005년 재활체육시설 보강공사 및 연결통로공사 증축(5억 원, 1,730㎡), 2006년 MRI실 및 진료지원시설 증축(6억 원, 628㎡), 2007년 전공의 숙소 증축(10억 원, 2,004㎡), 2008년 중환자실을 증축(6억 원, 254㎡)했다. 2009년 재활센터를 증축(11억 원, 1,482㎡) 운영하다가 급성기 진료가 끝난 환자들의 재활치료 연계를 위해 2018년부터 2021년까지 221억 원을 투입해 지하 1층 지상 7층, 114병상 규모의 재활센터를 건립했다. 또한, 국가유공자 고령화에 따른 요양 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2019년부터 2021년까지 복권기금 214억 원을 지원받아 지하 1층 지상 6층, 120병상 규모의 요양병원을 건립하고 있다.

- 1 광주보훈병원(과거)
- 2 광주보훈병원(현재)



대구보훈병원

1991년 대구시로부터 10억 원 상당의 31,346㎡ 병원 건립부지를 제공받고, 보훈공단에서 1991년 6월부터 1993년 2월까지 220억 원을 투입해 지하 1층 지상 6층, 300병상 규모의 대구보훈병원을 건립했다.

대구·경북지역 보훈대상자에 대한 의료서비스 개선을 위해 2005년 8월부터 2008년 11월까지 동관 및 재활체육관 증축 공사와 본관동(서관) 리모델링 공사를 실시했다. 동관 증축공사는 2005년 8월부터 2007년 12월까지 387억 원(세출예산 255억 원, 보훈공단 107억 원, 복권기금 25억 원)을 투입해 지하 1층 지상 8층 18,674㎡의 규모로 병동, 수술실, 중환자실, 재활의학과를 배치하여 475병상 규모로 확장하였으며, 재활체육관은 지상 1층 743㎡ 규모로 탁구, 배구, 배드민턴 경기가 가능하도록 증축했다. 서관 리모델링 공사는 2007년 12월부터 2008년 11월까지 113억 원(세출예산 60억 원, 보훈공단 53억 원)을 투입해 완공했으며 2020년 9월 심혈관센터를 확충하고 검진실을 리모델링했다.

또한 급성기 진료가 끝난 환자들의 재활치료를 원활히 연계하기 위해 2021년부터 2022년까지 171억 원을 투입해 지하 1층 지상 4층 40병상 규모의 재활센터를 건립하고 있다.

- 1 대구보훈병원(과거)
- 2 대구보훈병원(현재)



대전보훈병원

1997년 대전·충청지역 거주자의 진료 편의를 도모하고 전국적인 보훈의료망 구축을 위해 대전시 대덕구 신탄진동 113,449㎡ 부지에 지하 1층 지상 5층, 300병상 규모의 대전보훈병원을 건립했다.

2001년 의료지원시설 1,911㎡를 증축했으며, 국가유공상이자의 재활체육 활동을 통한 신체기능 회복을 위해 2005년 복권기금 24억 원을 투입해 지하 1층 지상 3층, 2,745㎡ 규모의 재활체육관을 증축해 론볼링장, 사격장, 농구 경기장 등을 설치했다.

또한 2020년부터 2022년까지 본관동 건물 리모델링 사업(지하 1층 지상 5층 연면적 14,523㎡)에 230억 원을 투입해 내원 환자에게 쾌적한 환경에서의 진료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아울러 2020년부터 2022년까지 171억 원을 투입해 지하 1층 지상 5층 40병상 규모의 재활센터를 건립하고 있다.

1 대전보훈병원(과거)

2 대전보훈병원(현재)



인천보훈병원 건립

중앙보훈병원이 서울 등 수도권과 인천, 강원도 등에 거주하는 국가유공자 및 유가족을 담당하다 보니 이용자들이 많아 장시간 진료 대기가 발생하고 있었다. 한편 인천권역 대상자는 왕복 4~6시간의 원거리를 통원해야 하는 불편이 있어 인천권역(경기서북부지역 포함)의 취약한 보훈의료시설을 강화할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2013년 1월 제18대 대통령 인수위원회 업무보고와 2013년 4월 국정과제 선정 연두 업무보고에서 인천보훈병원 건립을 검토해 1,013억 원, 300병상 규모로 인천 남구(현 미추홀구) 용현동 국방부 부지에 건립을 추진했다.

그러나 2014년 4월 정책용역 결과 및 관련 부처 등에서 ‘인천권역 보훈병원 건립의 필요성은 인정되나, 중앙보훈병원 병상 확대, 보훈대상자의 고령화 및 인천권역 보훈의료 수요 등을 감안, 규모를 축소해 전문병원으로 건립하는 것이

인천보훈병원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의견이 제시되어 최종 130병상(437억 원) 규모의
고령자 전문병원을 건립하는 것으로 결정되었다. 2014년 11월 25일 조달청과
맞춤형 서비스 약정을 맺고 12월에 건립 예정지 소유자인 국방부에 건립 부지
매수 신청을 했고, 2015년 4월 감정평가를 거쳐 9월에 매입이 완료되었다.
2015년 7월부터 2016년 6월까지 설계가 진행되었고, 이후 시공업체 선정 등을
거쳐 2016년 10월에 착공, 2018년 6월 준공해 2018년 11월 개원했다.
사업규모는 2015년부터 2018년까지 441억 원을 투입해 인천광역시 남구(현
미추홀구) 용현동 450-5 외 5필지 28,724㎡ 부지에 지하 1층 지상 8층 연면적
11,183㎡, 130병상 규모로 건립되었다.
그러나 건립 당시 응급실을 설치하지 않아 응급환자 진료가 어렵고 외래
진료대기실 등 협소한 진료공간 개선을 위해 2020년부터 2021년까지
57억 원을 투입해 응급실 설치 및 외래진료공간 확충공사(지상 3층 연면적
1,528㎡)를 추진하여, 11월 준공했다.

보훈병원별 시설현황					
구분	대지	건물	병상수	진료과	소재지
중앙	88,473㎡	133,832㎡ (중앙관 지하4층~지상13층)	1,370	31	서울특별시 강동구 진행도로61길 53(둔촌동)
부산	66,764㎡	41,374㎡ (본관 지하1층~지상6층)	499	21	부산광역시 사상구 백양대로 420(주례동)
광주	67,997㎡	44,631㎡ (본관 지하1층~지상8층)	553	24	광주광역시 광산구 첨단월봉로 99(산월동)
대구	31,346㎡	37,632㎡ (동관 지하2층~지상7층, 서관 지하 1층~지상7층)	475	22	대구광역시 달서구 월곡로 60(도원동)
대전	40,944㎡	38,541㎡ (본관 지하1층~지상5층)	383	20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청로 82번길 147(신탄진동)
인천	28,724㎡	12,581㎡ (지하1층~지상8층)	137	15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인주대로 138(용현동)

※ 병상수 : 허가병상기준

제 3 절

의료수준 향상 전문진료기능

국가유공자 고령화로 만성·복합질환 등 다빈도 질환 및 뇌혈관 질환 등
중증질환의 증가 추세에 따라 전문 진료기능을 강화했다. 2000년대에는
의료수요가 많은 진료과 중심으로 특성진료 분야를 선정·운영했으나 2011
년 중앙보훈병원 신축·확충 이후에는 보훈의료전달체계와 연계해 병원별로
전문진료센터 및 클리닉을 개설해 의료수준의 질적 향상을 도모했다. 특히,
상급병원을 지향하는 중앙보훈병원은 암환자 빠른 진료(패스트트랙)와 여러
진료과 협력(다학제 진료협력)으로 최상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최신형 로봇수술 도입 및 고난도 심장·혈관 수술 활성화 등 공공병원 최고
수준의 진료서비스를 실현하는 성과를 이루었다.

중앙보훈병원

- 암 전문진료센터(2012.11 개설)
- 암 다학제 협력진료
 - 국가유공자 고령화로 인한 복합질환 및 합병증 등으로 단일 진료과에서
치료계획 수립 및 관리에 어려움
 - 다양한 진료과 전문의 협력 및 협진으로 개인별 치료계획을 수립·
관리하는‘암 다학제 협력진료 시스템’운영
 - 6개 진료부서 의료진 구성 : 혈액종양내과, 영상의학과, 방사선종양학과,
핵의학과, 외과 등
 - 암환자 진료 패스트트랙
 - 신속한 치료가 필요한 암환자를 위한 EMR 시스템 구축으로 수술 우선도가
높은 환자에게 당일 진료검사 및 신속한 수술로 적기에 치료
 - 진료 프로세스 시스템(다학제 협력진료·패스트트랙·로봇수술)으로 환자
중심 암 진료
 - 보건복지부 암질환 분야 적정성 평가 2018년 이후 1등급 달성

로봇수술 전문진료센터(2020.10 개설)

전립선암, 직장암 등 32종 암 수술 시 최소 절개와 안전하고 효과적인 수술 제공

- 최소 침습 수술로 출혈 및 감염위험을 방지하고 수술 후 통증이 적고 회복이 빨라 조기 퇴원 가능하며 고령환자에게 합병증을 최소화하는 수술 방법
- 로봇수술 실적 (단위: 건)

진료과	수술분야	2020	2021.9	계
비뇨의학과	전립선암, 신장암 등	11	132	143
외과	직장암, 위암, 간암 등	6	23	29
산부인과	자궁암, 자궁탈 등	-	2	2

재활 전문진료센터(2014.2 개설)

국내 최대 규모의 170병상 재활병상 운영 및 특성화된 11개 분야 전문 재활 클리닉 운영

- 전문의,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인지치료사, 언어치료사, 사회복지사, 체육교사로 이루어진 치료팀이 환자상태에 따라 맞춤형 서비스 제공
- 치료분야: 뇌졸중 및 뇌손상재활, 퇴행성뇌질환재활, 척수손상재활, 절단재활, 통증 및 근골격계재활, 호흡재활, 연하재활, 장애인스포츠재활, 노인재활 등

심혈관 전문진료센터(2012.12 개설)

- 다학제 통합진료 시스템
 - 심장통합진료: 순환기내과, 흉부외과, 마취통증의학과, 영상의학과
- 심장질환 전문 클리닉 운영
 - 협심증·부정맥·심부전 및 판막질환·고혈압 클리닉, 심혈관 영상의학팀, 심폐소생술팀 등
- 대동맥판막치환술(TAVI) 및 2020년 심박세동 최신 치료법인 풍선냉각도자 절제술 시행
- 심혈관센터 중재시술 인증기관 선정
 - 의료기술적으로 급속히 발전하는 심장·혈관질환 중재 시술영역의 전문적인 고난이도 의료를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임상기관에 부여

혈관인터벤션 전문진료센터(2017.11 개설)

- 혈관질환 치료의 핵심 센터
 - 뇌혈관조영술(TFCA) 등 신경외과 관련 혈관 검사 대기 적체 해소
 - 혈관 인터벤션은 최소침습 비수술적 방법으로 다양한 혈관질환 치료
- 환자 맞춤형 다학제 통합진료 시스템
 - 영상의학과, 신경외과, 흉부외과, 소화기내과, 혈액종양내과, 외과, 응급의학과 등

안 전문진료센터(2017.6 개설)

- 안과질환 치료의 체계화 및 전문화
 - 안과 각 파트별 특화 전문진료 실시
- 진료·검사·시술을 센터에서 받을 수 있는 One-stop 진료시스템 구축

통합치매 전문진료센터(2018.12 개설)

- 치매질환의 전문치료를 위한 다학제 진료 시스템 구축
 - 8개 진료과 협진 체계: 신경과, 정신건강의학과, 재활의학과, 영상의학과, 핵의학과, 신경외과 등
- 기본진료팀(신경과, 정신건강의학과) 치매 상담, 선별 검사 및 진단까지 One-Stop 진료
- Central Lab(플랫폼)을 통해 정밀검진 및 다학제 협의진료, 자원연계팀 연계
- 통합치매환자등록·관리 및 건강복지안전망 등록·관리로 맞춤형 건강관리

당뇨내분비 전문진료센터(2018.12 개설)

- 특화진료: 당뇨병, 갑상선기능항진증 등
- 당뇨내분비 전담 간호사가 환자 맞춤형 당뇨·인슐린 교육 실시
- 빠른 검사를 위해 필요시 전문의가 직접 갑상선 초음파와 세침 시술 시행

통증 전문진료센터(2017.12 개설)

- 통증질환 환자의 집중치료를 위한 다학제 협진체계 구축
 - 진료과 협진 체계: 마취통증의학과, 신경외과, 정형외과
- 초음파 유도하 블록, 풍선확장술, 중재적 신경 차단술 등 실시
- 접수-진료-외래시술까지 One-Stop 진료 실시

욕창 전문진료센터(2018.12 개설)

- 욕창환자의 질병을 전문적으로 케어
- 욕창 치료 및 수술뿐 아니라 화상, 피부암, 만성창상 등 전문적 치료와 수술 실시
- 욕창성형클리닉, 외과, 감염내과, 정형외과, 피부과, 산부인과 등 협진시스템
- 변연절제술, 악안면외상, 화상치료, 양성 및 악성 종양 제거술, 피부이식술, 피판재건술 등 실시
- 진료-수술-처치 One-Stop 진료 실시

응급의료 전문진료센터(2004 개설)

- 국가유공자 및 지역사회의 응급의료를 책임지고 촌각을 다투는 응급환자를 정확하고 신속하게 진단 치료하는 여러 임상 진료과와 협진체계 구축
- 독립된 음압 격리병상을 갖추어 전염성 감염병에 체계적으로 대처
- Hot-line 운영 : 지역 내 다른 응급의료센터와 유기적 협력하여 중증응급환자 바로 진료 가능

TAVI 시술 및 풍선·냉각도자 절제술

▪ 경피적 대동맥판막 치환술(TAVI, Transcatheter Aortic Valve Implantation)

대동맥 판막협착증 환자에게 가슴을 열지 않고 작은 절개만으로 카테터를 동맥에 삽입해 기존 대동맥 판막부위에 인공판막을 위치시켜 대체하는 시술이다. 풍선을 대퇴부에 있는 혈관을 따라 판막까지 도달하게 한 다음, 좁아져 있는 판막 사이에 풍선을 위치시켜 부풀린 후 판막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물망을 대동맥 판막에 적절하게 고정시키는 방식으로, 이 시술은 임상 시험 단계를 거치며 안전성과 유효성이 입증되어 보건복지부 신의료기술로 공식 인정을 받았다. 특히 이 시술은 고령 환자의 대동맥 판막 협착증 치료에 있어 새로운 치료 방안을 제시해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 2017년 TAVI 실시기관으로 보건복지부 지정

▪ 풍선냉각도자 절제술

심방세동 환자를 치료하는 방법으로 심장에 가느다란 관을 밀어넣은 뒤 심방세동을 일으키는 이상부위를 찾아 이를 영하 75℃로 냉각시켜 그 부위에 조직괴사를 일으킴으로써 심방세동을 치료하는 방법으로, 시술 시간이 짧고

전신마취 없이 진행이 가능하다. 시술 후 환자 회복이 빠르다는 장점이 있어 의료 선진국에서는 심방세동의 안전하고 효과적인 치료법으로 부각되고 있다.

※ 2020년 심방세동의 최신 치료인 풍선냉각도자 절제술 시행

시술명	2017	2018	2019	2020	2021.7
경피적 대동맥판막치환술(TAVI)	1	3	1	3	6
풍선냉각도자절제술	-	-	-	10	18

장기이식(신장이식)

- 신장이식은 생명을 위협할 정도로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신장을 대신하도록, 기증받은 건강한 신장을 환자의 동맥, 정맥 및 방광에 연결해 정상적으로 기능하도록 수술하는 치료 방법으로 신장이식은 말기 신부전 환자에게 있어 신대체요법 중 가장 이상적인 치료법이다.
- 육체적, 정신적인 행복감을 찾게 하고 일상생활로의 복귀를 가능하게 해주며, 투석으로 회복되기 어려운 요독 합병증을 개선시키기 위해 2015년 첫 신장이식을 시작했다. 향후 신장이식뿐만 아니라 현재 다른 대체 요법으로 치료가 어려운 말기 간 질환자에 대한 간이식 수술도 시행할 예정이다.

※ 수술실적(2015~2011년) : 11건

청각재활장치 이식수술

이비인후과에서는 2011년 인공와우 수술을 시작해 2013년 인공중이 수술, 2017년 골전도 보청기 수술을 시행했으며 최근 10년간 인공와우 162건, 인공중이 85건, 골전도 보청기 수술 58건을 시행해 국내의료기관 중에서 최상위 수준급의 성과를 이루었다.

(단위: 건)

구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인공와우	7	24	26	18	14	12	7	1	15	22	16
인공중이	-	-	6	9	10	18	5	-	11	14	12
골전도 보청기	-	-	-	-	-	-	4	20	10	14	10

▪ 인공와우

인공와우는 청신경에 전기적 자극을 직접 제공해 줌으로써 손상되거나 상실된 청신경세포의 기능을 대행하는 장치이다. 말소리를 전기적 신호로 바꾸어 달팽이관에 있는 청신경세포를 자극해 대뇌에 소리를 전달해 듣게 해준다. 달팽이관(와우, 蝸牛)의 손상이 심한 경우에는 보청기로 아무리 소리를 증폭시켜도 어음 변별이 어려우며, 이런 경우 달팽이관에 청신경을 자극할 수 있는 장치를 삽입해 소리를 청신경에 직접 전달하게 되는 데 이를 인공와우(인공달팽이관)라고 한다. 인공와우 이식을 받은 사람들은 청각기능을 다시 사용하게 되므로 의사소통에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며, 인공와우 이식은 고도 감각신경성 난청을 앓고 있는 성인과 어린이들에게 있어 안전하고 믿을 수 있으며 매우 효과적인 치료방법이다.

▪ 인공중이

중등도의 감각신경성 난청의 가장 일반적이고 효과적인 치료는 보청기를 이용한 청각 재활법으로 기존의 보청기는 쉽게 탈착이 가능하며 난청의 정도와 형태에 따라 조절해 맞춤형 처방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매우 큰 이점이 있다. 그러나 일부 환자에서는 외이도가 막히는 불편감이나 소리가 울리는 폐쇄효과 등의 문제로 적응에 실패하는 경우가 있으며, 인공중이이식은 기존의 보청기와 달리 외이도를 막지 않고 폐쇄효과나 되울림 현상 등이 없다는 점에서 장점이 있다. 또한 보청기보다 소리가 또렷하고 자연스럽게 들려 어음이해 능력이 향상된다고 알려져 있고, 국내에도 보청기 적응에 실패한 중등도 감각신경성 난청 환자에 대해 건강보험 요양급여가 적용되면서 시술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 골전도 보청기

골전도 임플란트는 외이 및 중이를 통하지 않고 뼈를 통해 소리를 내이로 직접 전달하게 하는 의학적 장치로 골전도 시스템은 작은 티타늄 임플란트, 접합부 및 음향처리기로 구성되어 있다. 소리는 뼈를 통해 내이로, 음향처리기에서 임플란트에 진동으로 전달된다. 외이 또는 중이에 문제가 있는 경우, 시끄러운 환경에서 더 잘 들을 수 있고 소리의 위치를 파악할 수 있다. 골전도를 통해 듣기 때문에 어음 이해도가 향상될 뿐 아니라 일반적인 보청기에 비해 왜곡과 잡음이 적어 자연스러운 소리를 들을 수 있다. 외이도가 열려 있어 만성 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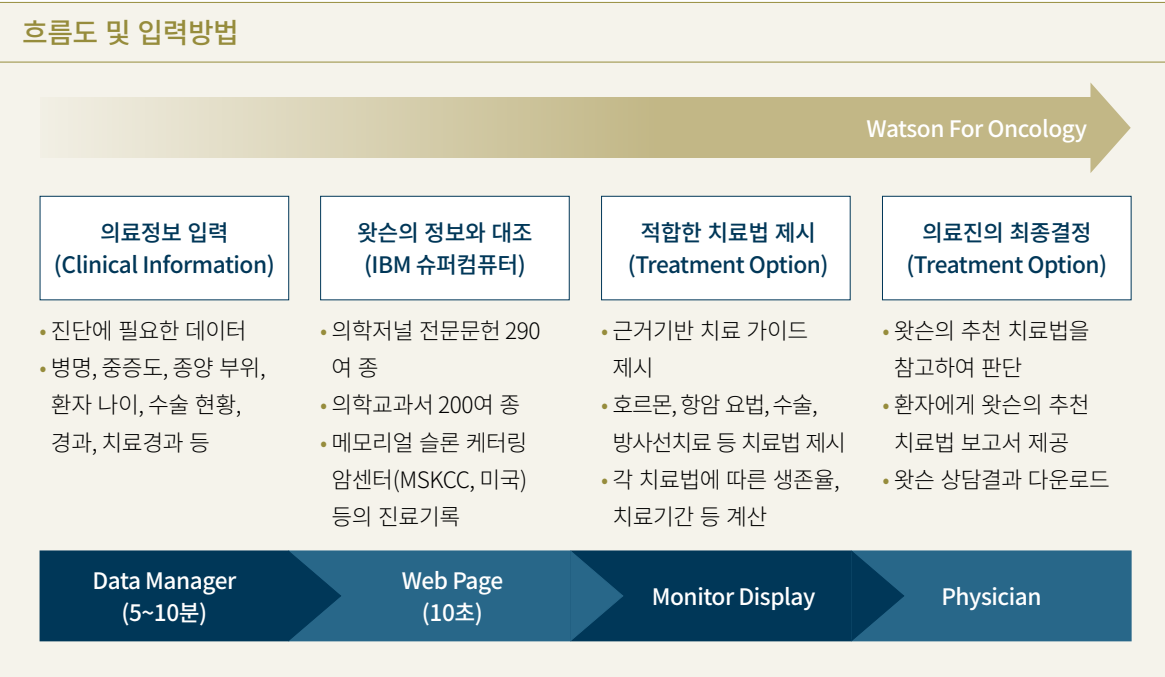
감염이나 알레르기로 인한 문제를 줄일 수 있다. 한쪽 귀가 완전히 들리지 않는 경우, 골전도 임플란트는 소리가 들리지 않는 쪽의 두개골을 통해 소리가 들리는 내이 쪽으로 소리를 전달한다. 이렇게 소리를 전달하면 360도 주변의 소리를 감지한다.

왓슨 포 온콜로지(Watson for Oncology)

공공의료기관 최초로 빅데이터 기반 최첨단 의학지식을 적용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여 치료의 적합성을 높이고자 2년간(2017.12~2019.12)「왓슨 포 온콜로지」를 도입했다.(계약업체 : 미국 IBM, 471백만 원)

▪ 개요

- 의학문헌, 진료 가이드라인 및 우수 사례를 학습해 데이터에 근거한 의료 서비스를 암환자들에게 제공하기 위한 인공지능(AI) 진료지원 시스템
- 복잡한 암 진단 및 치료 과정 등 32개 항목을 입력하면 최신정보 및 임상 가이드라인에 기초해 신속하고 개인화된 방식으로 맞춤형 치료를 할 수 있도록 지원
- 2012년부터 IBM社와 美 MSK(Memorial Sloan Kettering Cancer Center)가 공동 연구개발



- MSK의료진과 IBM팀이 1만 5,000시간을 투자해 트레이닝 및 검증 (1,500만 pages 종양학 정보, 290개 저널 및 수천 개 MSK 자체 연구 cases)
 - 텍사스 베일러의대(BCM), 클리블랜드 클리닉 등과 협력해 Cancer Genome 분석영역 연구 확대
 - 서비스 이용을 위해 8개 부문 32개 항목을 입력(암 종류에 따라 상이)
 - 환자 특성, 검사 결과, 질병 진행, 질병 시나리오, 치료 기간, 합병증, 전이성 부위, 병기 특징 등
- ※ 자연어(NLP)인식 기능 포함(진료내용을 자연어로 입력 시 자체 해독)

■ 암 제공범위(Cancer Coverage) 결과

구분	현재(7)	진행중(3)	향후(6)
Cancer Coverage	• Gastric(위)	• Esophagus(식도)	• Acute Leukemia (급성백혈병)
	• Lung(폐)	• Prostate(전립선)	• Liver(간)
	• Breast(유방)	• Non-Hodgkins Lymphoma (림프종)	• Bladder(방광)
	• Ovarian(난소)		• Pancreas(췌장)
	• Cervical(자궁)		• Kidney(신장)
	• Colon(대장)		• Thyroid(갑상선)
	• Rectal(직장)		

- 입력된 질의 결과로 추천, 고려, 비추천의 관련 리포트를 제시하며, 치료법에 따른 생존율과 근거자료도 함께 제시(PDF 출력 가능)

■ 운영결과

- 기간별 적용 : 1,400명(2018년 706명, 2019년 694명)
- 진료과별 적용

혈액종양내과	비뇨의학과	흉부외과	외과	이비인후과	소화기내과	호흡기내과	산부인과
940	275	109	39	23	9	3	2

- 암종별 적용

폐	전립선	위	대장	직장	갑상샘	간	식도	방광	난소	유방
728	269	124	120	68	24	22	15	11	2	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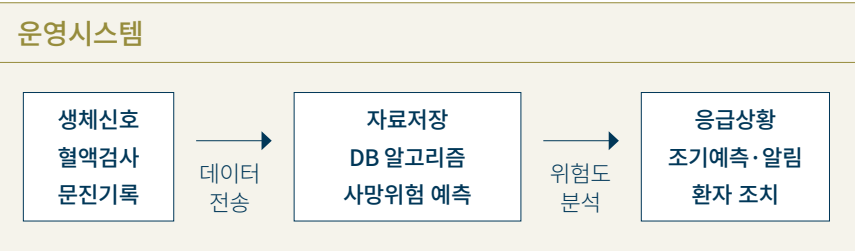
- 추천율

Recommended(강력추천)	For consideration(고려)	Not Recommended(비추천)	기타
773(55%)	460(33%)	154(11%)	13(1%)

※ 기타: 왓슨에서 제공하는 솔루션 범위를 벗어나는 경우(환자 사망, 타 병원 전원, 왓슨에서 제공하는 치료 거부)

중환자실 사망예측모델 개발

중환자실 입원환자는 사소한 징후에도 환자의 상태가 급격히 나빠질 수 있어 조기 예측을 위해 외국 개발 사망예측모델(APACHE II 모델 등)을 활용 중이나 예측률이 80% 초·중반에 불과했다. 이에 환자 상태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중환자실 사망예측모델 개발을 추진해 생체신호 등 환자상태 기반 빅데이터 분석으로 환자의 응급상황을 조기에 예측하고 개발된 모델을 서울대학교 환자 데이터를 활용해 모델 검증 및 완성도를 높였다.(예측도 84% → 92%)



항생제 오남용 방지 시스템

수술별 항생제 사용에 대한 정확한 용법·용량의 기준이 상이했으나 항생제 오남용 방지 시스템 구축으로 수술별, 환자상태별, 항생제 투여율, 투여일수, 처방률 등 적정성을 확보해 수술 후 예방관리가 향상되었다. (적정성 평가97.3점)

낙상예방클리닉



낙상예방클리닉

국가유공자 고령화 등으로 인해 빈번하게 발생하는 노인 낙상은 골절, 뇌손상 등 각종 중상해를 야기하므로 보훈환자 특성에 맞는 전문적인 예방대책이 필요하여 2015년 5월 국내 최초로 낙상예방클리닉을 개설했다. 낙상위험도가 높은 환자를 선별해 낙상예방 운동교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입원환자

대상으로는 낙상예방 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하고, 외래환자 중에서 낙상 위험성이 큰 환자(뇌졸중, 요통) 대상으로 낙상예방클리닉을 실시하고 있다. 그 결과 치료중심에서 예방영역으로 노인의료의 패러다임이 전환되어 낙상예방의 중요성에 대한 환자 및 보호자의 인식이 제고되었다.

낙상예방운동교실
- 주 2회(수·금요일), 회당 40분, 총 8주 운동 프로그램
- 하체와 체간의 근력강화와 균형감각 향상 도모

낙상 클리닉
- 진료 대상 : 뇌졸중, 파킨슨병 등 퇴행성 운동질환, 하지절단, 요통 등
- 진료 절차 : 낙상위험도 평가 → 고위험군 선별 → 맞춤형 교육 및 운동 → 낙상예방교육 실시 및 자료 제공 → 사후 관리

운영실적 (단위 : 명)							
구분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계
상담인원	56	75	56	32	23	31	283
운동프로그램	296	1,073	1,670	1,469	1,323	1,149	6,080

우수내시경 인증평가

대한소화기내시경연구재단이 권장하는 질 관리지침으로 내시경을 시행하는 의사가 어느 정도 수준의 자격을 갖추고 있는지와 의료의 질과 환자 안전에 연관된 시설, 장비 및 표준화된 검사과정과 내시경 소독지침 등 제반사항을 준수하는지를 평가하고 있다. 평가주기는 3년이며, 평가내용은 6개 영역으로 내시경실 근무자의 자격, 시설 및 장비, 시행과정, 성과지표, 소독 및 감염관리, 진정내시경 등이다.

평가결과			
구분	평가일자	인증기간	평가결과
1주기	2014. 7.25	2014. 8~2017. 7	인증획득
2주기	2017. 8.25	2017. 8~2020. 7	인증획득
3주기	2020.11.24	2020. 11~2023. 10	인증획득

치과진료기능 강화

국가유공자 고령화 및 치과 건강보험 적용 확대 등으로 의료수요가 급증해 진료 적체가 발생하고 기존 치과병원이 노후화해 환자중심의 대학병원급 치과병원을 신축하게 되었다. 신축공사는 중앙보훈병원부지 내 기존 치과병원을 철거하고 2021년 착공해 2023년 완공할 예정이다. 시설규모는 연면적 10,503㎡, 지하 4층 지상 5층이며, 사업비는 414억 원(국가 50%, 보훈공단 50%)이다.

신축 치과병원은 추가로 임플란트 수술센터와 디지털 보철실이 설치되는 등 대학병원급 수준의 전문치과병원으로 면모를 갖추게 될 것이다.

신축 치과병원			
구분	기존건물	신축건물	비고
연면적	1,931㎡ (584평)	10,543㎡ (3,189평)	5.5배(연면적)
층수	지상 3층	지하4층, 지상 5층	지하철 9호선 연결통로 설계
진료과	진료과 6개	진료과 6개, 센터 2개	센터 2개소 추가
Unit Chair	76대	110대	1.5배 (34대 증가)
체어당 연면적	25㎡	49㎡	2배
1일 치과환자 수	580명	870명	1.5배

부산보훈병원

심혈관센터

- 고령 국가유공자의 심근경색, 협심증, 고혈압, 당뇨병 등 심혈관계 질환 환자가 급증함에 따라 순환기내과(정확한 진단 및 중재적 시술)와 흉부외과(외과적 수술) 등의 진료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전문의 2명, 간호사 6명을 확보해 2006년 3월 심혈관센터를 개설했다.



부산보훈병원
심혈관센터



평가결과 3주기 인증서

- 2014년 심혈관센터 Veterans Live Course를 개최해 양산부산대병원, 동아대 병원, 부산백병원 등 3개 대학병원 및 부산, 울산, 경남지역 말초혈관질환을 진료하는 의료진에게 말초혈관질환 중재시술 및 교육을 실시했다. 같은 해 일본 국립 심·뇌혈관센터의 우수 의료진을 초청해 한·일 의료진 공동 관상동맥 및 하지동맥 중재시술을 했으며 한·일 의료진 간 중증 하지 허혈 및 당뇨병성 족부 질환의 진단 및 예방, 치료에 대한 실질적이고 심도 있는 교류를 시행했다. 또한 일본 심혈관치료학회 말초혈관 중재시술부문 포스터 세션에 참석했다.
- 경피적 관상동맥중재술(PCI)에 대해 심사평가원 3년 연속 1등급 평가

PTSD(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클리닉

소방공무원 등 PTSD 환자 진료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커짐에 따라 공공의료 기관으로서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2014년 PTSD 클리닉을 개설했다.

▪ PTSD 클리닉 운영

- 인력확보 : PTSD 임상심리사 확보
- 제공방법 : 부산지방경찰청 협업을 통한 마음동행센터 운영으로 PTSD치료 등이 필요한 수요자를 적극 발굴하여 PTSD 진료제공

의·한 협진 시범사업

국가유공자 고령화에 대응해 환자 개인별 질병 및 상태에 따른 맞춤형 의료 서비스 제공의 일환으로 보훈병원 최초로 2019년부터 보건복지부 주관 시범사업에 참여하고 있다. 의·한 협진서비스는 환자의 질환(건강상태)에 대해 의사와 한의사가 의료정보를 공유하고 의회·회신을 통한 협의진료 행위이다.

- 시범사업 TF운영 : 협진관리서식 제정, EMR 등 시스템 보완, 심사·청구 프로그램 수정, 시범사업 선정기관 견학
- 환자만족도 조사 : 치료효과(91%), 시범사업 필요성(92%), 권유 의사(91%)
- 다빈도 질환 치료기간 단축 및 치료비 감소 효과 기대

광주보훈병원

심혈관·심장센터

호남지역 의료기관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전남대병원과의 의료진 교육 및 학술강좌 개최 등 유기적인 교류협력체제로 의료서비스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보훈병원 최초로 2004년 5월 심혈관센터를 개설했다. 이어서 흉부외과를 개설했고, 심장센터를 운영하여 수준급 의료기관으로 자리매김했다.

▪ 1단계(2004)

- 특성진료과 선정
 - 심혈관센터 개소 : 2004년 5월 21일(개소식 및 학술강좌 개최)
 - 심장내과 전문의(Angio), 방사선기사, 간호사 보강
 - 의료장비 : CARDIAC ANGIO 도입(2004.5.1, 11억 6,000만 원)

▪ 2단계(2008)

- 심혈관센터 전문화
 - 시설확충 : 136㎡ → 301㎡(증 165㎡)
 - 흉부외과 개설 : 외래진료, 센터운영 참여
 - 전기적 심장생리 검사·도자 절제술(부정맥 검사 및 치료), 관상동맥 우회술·심장판막 치환술
 - 2009년 관상동맥 조영술 5,000례 달성
 - 제4회 심장학 심포지엄 개최(2009.4.3)



광주보훈병원 심혈관센터

▪ 3단계(2010)

- 심장센터 운영
 - 시설확보 : 992㎡(ANGIO실, 검사실, 입원실)
 - 심장관련 진료, 검사·시술을 총괄하는 센터. 입원 후 치료를 완료하는 One-Stop 체제

재활센터

2010년부터 지방보훈병원 최초로 재활전문치료를 시행하고 있으며 전문의를 보강하여 진료기능을 강화했다. 또한 새로이 재활센터 건립을 추진(2018~2021년)함에 따라 신규장비 도입과 전문프로그램 특수 클리닉 및 전문 치료실(상·하지 로봇 치료실 등 6개 분야) 신설로 수준급 재활의료서비스를 제공하게 되었다.

뇌신경센터

2020년 10월부터 광주치매코호트연구단·광주보훈병원이 치매국책 공동연구를 착수했으며 협업을 통한 치매 고위험군의 라이프로그, PET/CT를 통한 데이터 수집으로 AI 기반 치매조기 예측모델 개발 임상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 2021년 7월 현재 연구대상자 15명 PET/CT 검사 실시

비뇨의학과 클리닉

수술영역을 확대하여 요도절개술, 연성요관경 신결석 제거술, 복강경하 신장종양절제술 등 새로운 진료·시술을 시행했다. (2021.7월 현재 55건)

심뇌혈관센터

의료수요 및 의료수준 향상을 위해 2020년 심혈관센터를 개설해 외부기관의 우수 의료진을 초청해 고난도 수술을 실시하고 있으며, 경북대학교병원 대구·경북 권역 심뇌혈관질환센터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심뇌혈관질환 진료 협진체계 및 예방관리사업에 공동 참여했다.

시설 및 장비

- 시설 : 심장초음파실 및 순환기내과 통합이전, Angio실 확충(2실)

- 장비 : 심혈관촬영기 및 이동식 심장초음파 진단기(2억 원) 도입
- 시스템 : 순환기내과 분과 운영 진료 전문성 제고(전문의 4명)

초청수술

- 분당서울대병원 순환기내과 전문의 초청 냉각풍선절제술 시행
- 서울아산병원 순환기 전문의 초청 ‘만성폐쇄성 관상동맥 스텐트시술’

내과 진료기능 강화

- 2020년 : 소화기, 호흡기, 신장내과 인프라 확대

구분	추진내용
소화기내과	• 전문인력 : 전문의 총원(3명→4명), 내시경센터 확장, 회복실(3병상→12병상), 진료실 확충 (3실→4실)
호흡기내과	• 통합 음압진료실 구축 : 복도구분, 진료실내 검사실 마련
신장내과	• 투석 세션 확대 : 주5일 → 주6일(1일 2세션)

대전보훈병원

- 1 대전보훈병원 혈액종양내과 분과 개소
- 2 대전보훈병원 내분비내과 분과 개소



인천보훈병원

- 2021년 : 내과 분과로 맞춤형 진료 전문화·세분화

(기존) 6진료과 10명	(개선) 8진료과 13명
소화기내과, 심장내과, 호흡기내과, 신장내과, 일반내과, 류마티스내과	소화기내과, 심장내과, 호흡기내과, 신장내과, 일반내과, 류마티스내과, 혈액종양내과, 내분비내과

통증클리닉

2020년 수술 및 고령, 만성 통증 환자 의료수요 증가에 대비해 통증클리닉을 개소해 전문의 총원 및 수술센터, 진료공간을 확충하고, 최신 시술경향 및 술기습득을 위한 마취통증의학회 연수교육 및 충남대학교 통증외래 참관, 윤통증의학과 수련 등 파견 수련을 진행했으며, 초음파 영상장비, C-arm 등 통증클리닉 전용장비를 도입해 진료기능을 강화했다.

2018년 개원해 제반여건이 부족한 점을 고려하여 2021년 진료기능을 활성화 하고 중앙보훈병원 경증환자 분산 및 경기·서북권 거주 국가유공자의 진료편의 제공의 일환으로 진료협력 체계를 구축했다.

외래진료

- 중앙병원 순환기내과 전문의 : 인천보훈병원 진료
- 진료분야 : 협심증, 심부전, 판막질환, 고혈압, 고지혈증, 말초혈관질환 등
- 진료인원(2021년 1~9월) : 1,587명(일평균 45명)
- 중앙보훈병원 검사 대기자 등 인천보훈병원에서 MRI 및 CT 검사 및 판독

미래지향 의료서비스

디지털 비대면 의료서비스

- 코로나19 등 감염병 확산에 대비해 국가유공자 의료이용 공백을 방지하고, 감염병 위험으로부터 의료진·환자를 보호하기 위해 디지털 기반 비대면 의료서비스 시범사업을 도입했다. 향후 보훈의료·복지통합서비스와 연계해 일반진료뿐만 아니라 ICT활용 상시 건강모니터링, 보훈 PHR(개인평생 건강관리) 시스템 등 차세대 사업연계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
- 2020년 3월 코로나19와 관련해 보건복지부의 한시적 승인에 따라 경증 만성질환 및 반복처방 국가유공자에 대해 전화상담·처방 서비스를 제공 했다. 2020년 10월에는 비대면 의료서비스 시범사업에 대해 보건 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관련기관의 유권해석, 법률검토를 거쳐 거동이 불편하거나 반복적으로 투약처방을 받는 국가유공자를 대상으로 현재 한시적으로 허용된 전화상담·처방(보건복지부 공고 제2020-177호)에 근거해 시범사업 추진 후, 확대할 예정이다.

※ 법률자문 : 코로나19 상황으로 2020년 2월 24일부터 한시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전화상담 및 처방 한도 내에서 실시 타당(보건복지부 공고 제2020-177호)

- 서비스 대상 : 보훈원 및 보훈복지타운 입주자 중 보훈병원 이용자, 가정간호, 가정호스피스 방문환자 대상으로 검사, 주사 및 중증질환자로서 보훈병원에 내원이 필요한 인원을 제외하고, 반복 투약 및 거동이 불가능한 환자에게 건강상담, 검사결과 설명 및 필요약품 처방
- 전문의 진료 : 진료희망 명단을 보훈병원에 통보하고 최초 진료 시 환자 상태의 상세 파악을 위해 대면진료를 실시하고 처방약품은 매주 1~2회 간호사가 대리수령하며, 사용장비는 노트북 또는 태블릿PC로 전문의와 환자(간호사 동석) 간에 1:1 화상 통화방식으로 진행

진료 절차



진료시설

대상자 확정 ▶ 접수준비 ▶ 비대면 진료서비스 ▶ 처방 ▶ 환자 피드백



복지시설

- 사전협의한 시간에 비대면 진료서비스
- 필요시 약처방, 검사처방 등 실시

스마트병원 구축

구분	다학제 원격협진 시범모델 개발	최단시간 격리병실 전환 모델 개발
필요성	• 의료인력의 지역적 불균형으로 지방 특수 전문분야(감염, 혈액종양 등) 전문의 만성적 부족 - 중앙병원과 연계하여 지방병원 결원 전문의로 인한 지역 간 격차 해소 필요	• 일반병상에서 격리병상으로 전환 시 장비·시간·인력 등 제약 사항이 많아 장시간 소요 - 유사시 격리병실로 사용가능한 가변성 병실 설계 및 운영 필요
추진내용	• 기존 플랫폼 활용한 원격 협의 진료 시스템 시범 모델 개발 추진 - 지방환자 암 치료 시 중앙보훈병원 전문의와 실시간 협의진료 - 코로나19 관련 감염내과 전문의 부재에 따른 지침·기준 등 확립 시 활용	• 가변형 하이브리드 병실 구축 계획 수립으로 비상시 일반병실에서 격리병실로 전환가능한 병실모델 개발 추진 - 환자 맥박, 산소포화도 등 환자 상태를 원격으로 실시간 확인이 가능한 비대면 환자케어 시스템 도입

※ 스마트병원 시범모델 개발 완료: 중장기적 보훈병원 시설 개선 추진

AI로봇 헬스케어

- AI로봇을 활용한 헬스케어 서비스로 독거노인 등 소외된 취약계층의 건강을 증진하고 코로나19 감염병 확산에 따른 만성질환자의 감염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한시적 비대면 진료를 실시했다.
- 지역 유관기관과 협력, 대상자 발굴 및 케어매니저의 주기적 방문으로 AI로봇 활용방법 교육과 업무 프로세스 안내, 적극 홍보로 전화처방, 약품택배 및 대전보훈요양원과 연계해 화상 원격진료(건강보험공단 시범사업)를 시행했다.



AI로봇(다숨이) 돌봄서비스



AI로봇 다숨이 관련 (대전보훈병원)

AI 진단시스템 「닥터 앤서」

AI 영상 자동판독 시스템

- 재가 돌봄체계 강화로 AI로봇 지원 대상자 지속관리를 위한 유선 및 방문 서비스 증가: 140건
- 비대면 전화처방 및 약품 택배서비스 : 월평균 23건
- 대전보훈요양원 입소자 대상으로 대전보훈병원 전문의 원격 화상진료 : 54건(2017.3~2021.8)

AI로봇(다숨이) 주요기능(예시)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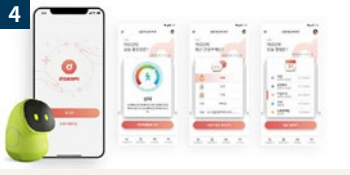
2



3



4



1 소통기능

보호자 영상통화

2 돌봄기능

일상 스케줄 체크, 복약알림, 위급상황 시 보호자 알림

3 건강지킴기능

치매체조프로그램

4 데이터분석기능

환자활동 및 관심사 분석

- 2018년 보훈병원에 도입한 미국 IBM 암 진단 프로그램은 치료에 제한적 이어서 중앙보훈병원은 2020년 공공의료기관 최초로 대장암,치매, 뇌동맥류 3종의 국산 AI 진단시스템을 도입해 대장암, 치매 등 국가유공자 607명에 대해 진단분석을 실시했다.
- 향후 전 질병 AI 진단시스템 도입 시 고령 국가유공자 특성에 맞는 정확한 진단이 가능하게 되었다.
- 국가유공자 고령화로 각종 검사 증가 및 진료 전문화·세분화로 인한 검사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정확하고 신속한 영상 판독 보조 프로그램을 도입 했다. 빅데이터에 기반한 진단 보조로 정확도 향상과 X-Ray 일반촬영 판독 소요시간이 단축되었다.
- 국산 AI 영상판독 시스템을 활용한 판독으로 99% 정확도를 확보했고 X-Ray 자동판독 시스템 활용으로 소요시간을 34% 단축했다.

심장질환자
재택의료 시범사업

- 2020년 10월 보훈병원이 보건복지부 심장질환자 재택의료 시범사업 기관으로 선정되어 국가유공자 및 유가족 등 1,708명 대상으로 재택관리를 추진했다.
- 심장질환으로 심박기 등 심장 보조 장치를 삽입한 환자의 경우 자택에서 이상징후 전조증상 발생 시 대응이 제한되어 비대면 서비스 도입이 필요한 만큼 삽입형 제세동기(ICD), 심박기, 재동기화치료기(CRT) 삽입 국가유공자 및 유가족 등 심장질환자를 대상으로 원격 진료·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 재택 심장질환자 임상 정보 관리 및 비대면 상담 등 예방관리 강화
- 심정지 등 응급상황 발생징후를 사전 인지해 위급상황 발생 사전 차단
- 중앙병원: 일반건강보험환자, 차상위 및 의료급여 환자 6명 대상 재택관리 추진

진료 네비게이션
시스템

- 2017년 의료품질 혁신 선포에 따라 대형병원 규모에 상응하는 고객접점 진료프로세스 혁신을 위해 국내 의료기관 최초로 종합 진료안내 및 환자 네비게이션 시스템을 구축했다.
- 중앙보훈병원은 1일 외래인원 5,000명에 이르러 진료대기가 길어짐에 따라 환자가 외래 진료일정 및 진료대기까지 한 번에 파악할 수 있도록 대형 모니터를 설치하고 당일 진료대기시간을 모니터에 구현해 환자가 진행상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 종합진료안내 시스템을 운영해 종합진료안내(진료과별 일정표)와 환자 네비게이션(의사별 휴진 현황·대기시간 실시간 안내)을 대형 멀티비전을 통해 교대화면으로 안내했고 진료대기자 수, 평균 진료시간을 신호등식으로 제공했다.

DID(Digital Information Display) 시스템 설치

- DID 모니터 6대를 유동인구가 많은 지점 위주로 설치
- 병원 홍보사항, 공지사항 안내 등 원내 홍보물 게시공간 일원화



진료 네비게이션 시스템

치매질환 맞춤형
서비스

- ICT활용 치매질환 단계별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ICT 특성화 프로그램 및 민·관 치매관련 기관과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KT와 협업해 ICT 활용 뇌활력 프로그램을 실시했다.
- 교육 수료 강사의 치매예방 프로그램 및 BT-care 장비를 활용한 프로그램 체험교육을 실시했다.

프로그램		
1회차	2회차	3회차
• 프로그램 진행 준비 및 치매선별 검사 • 치매 예방 프로그램 소개 및 일정 안내 • 치매예방교육 및 체조 • 손으로 하는 두뇌운동 • 스마트폰을 활용한 뇌운동 프로그램	• 색칠놀이를 통한 손운동 • 스마트폰을 활용한 증강현실(AR) 체험 • VR을 활용한 치매 가상 체험	• 생활 속 인지강화 프로그램 • 오조봇(코딩로봇)을 이용한 길찾기 • BT-care 체험

- 재가 대상 찾아가는 치매서비스: 가상현실(VR) 기기를 활용한 Brain Touch-Care 프로그램 도입
- 재가 서비스 대상 찾아가는 치매초기선별검사(KDSO) 실시
- 치매 위험군 사후관리 프로그램 : 경찰서와 연계 지문사전등록제, 119 안심콜 등록서비스
- 초기선별검사 결과 고위험군은 보훈병원 정밀검사 실시 및 진료과 연계

스마트 LED
고독사 방지

- 코로나19 장기화로 돌봄이 필요한 취약계층이 제때 돌봄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해 기관 간 공조로 스마트 LED를 활용한 IoT 기반 스마트 케어서비스 운영체계를 구축했다.
- 국가유공자 고독사 예방사업의 일환인 ‘스마트 LED 고독사 방지’사업으로 재가방문해 건강측정 및 상담, 치매예방 운동법, 인지강화 프로그램을 제공했다.

고독사 방지: 스마트 LED

- KT 협업 IoT 동작 인식기능 탑재 실내 LED 전등 개발
- 독거 고위험 국가유공자 보급



의료의 질

QI(Quality Improvement)는 의료의 질 평가를 기반으로 교정이 필요한 부분을 개선하는 활동으로써 업무가 이루어지고 있는 환경, 결과 등 문제점을 체계적으로 개선해 향상된 업무를 유지해 나가는 과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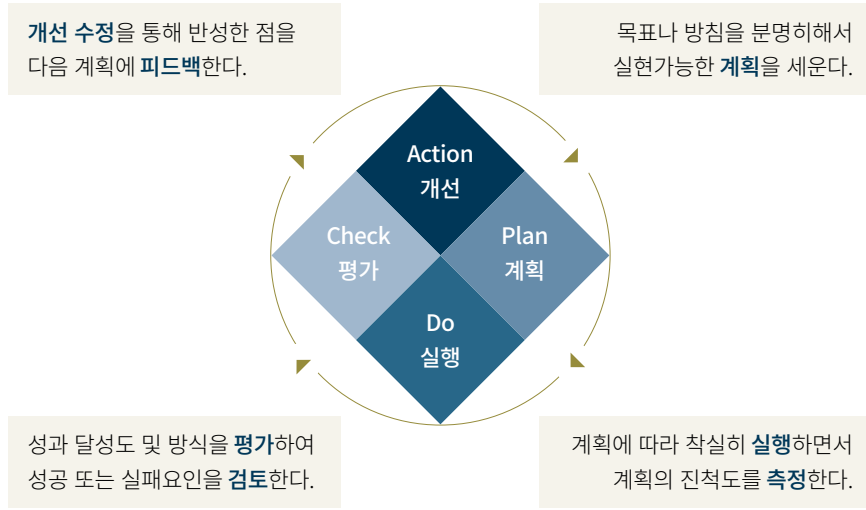
QI 활동의 목적은 양질의 진료제공(good quality care), 만족도 향상(increase patient satisfaction), 동시적 사고파악(concurrent risk identification), 감염률 감소(decrease infection rate), 의무기록 향상(increase documentation), 합리적 재정운영(cost effective), 자원의 적절한 배치(appropriate resource allocation), 환자 안전관리(risk management)에 있다.

보훈병원은 진료, 행정, 환자안전, 비용 발생 등의 문제점을 파악해 개선활동을 하고 그 효과를 지속적으로 관리해 피드백하고 있으며, 질 향상 활동계획의 우선순위에 따라 주제를 선정하여 PDCA방법을 통해 다학제 간 팀을 구성해 활동하고 있다.

QI 활동의 단계적 접근(PDCA)	
구분	내용
실행계획(Plan)	현재 수행하고 있는 업무향상을 위해 무엇이 잘못되고 있는지 발견하고, 문제를 기회로 인식하고,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개선하기 위해 구체적인 변화계획을 세우는 단계
개선활동실행(Do)	자료수집 및 기초자료를 측정해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활동을 실행하는 단계
결과평가(Check)	선별된 변화 업무 프로세스를 면밀히 검토하고 모니터링해 변화수행을 관찰하는 단계
조정(Act)	분석결과 등을 바탕으로 활동을 재평가해 유지 방안을 결정하고 조정, 보완하는 단계

※ PDCA

- 계획을 세우고(Plan), 행동하고(Do), 평가하고(Check), 개선한다(Act)는 일련의 업무 사이클
- 미국의 통계학자 W.Edwards Deming이 체계화한 이론



QI 관련 용어 정의

- Quality : 진료서비스, 진료절차, 진단 및 임상 문제에 따른 예기된 결과에 대해 수용 가능한 성취의 정도
- QA(Quality Assurance) : 과거에서 현재까지 수행한 어떤 업무에 대한 소급검토 (Retrospective inspection) 개념으로 단순한 조사 또는 감사하는 개념으로 활용되어 끝나는 지점(End point)이 있고, 업무수행자인 사람을 대상으로 평가해 문제점을 개선, 질 향상을 관리하는 기법(질 보장, 적정진료보장)
- QI(Quality Improvement) : 현재의 문제점을 인정하고 같은 문제들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는 예방측면의 활동이며, 문제에 대한 동시검토가 가능하고, 전체의 체계(System)와 업무 진행과정(Process)을 조사해서 업무수행 능력을 향상 시켜 나가는 한 단계 발전된 활동(QA보다 포괄적 개념)
- CQI(Continuous Quality Improvement) : 지속적(endless)인 질 개선 활동
- TQM(Total Quality Management) : 과정, 결과, 서비스 전반에 걸쳐 지속적인 향상을 추구하는 질 관리 기법
- PI(Performance Improvement) : CQI의 더 발전된 수행 활동의 의미
- COPQ(Cost Of Poor Quality) : 낮은 질로 인해 발생하는 비용
- Indicator(평가지표) : 질적 수준이나 목표의 달성정도를 나타내는 측정 가능한 객관적인 변수(예 : 결과 수정률, CBC 검사 소요시간)
- Criteria(세부기준) : 현존지식과 경험을 토대로 지표를 계수화해 측정할 수 있는 객관적이며 합리적인 평가기준(예: 결과 확인 후 수정한 건수를 전산통계 자료로 분석, 검체가 임상병리 전산에 접수된 후 결과·확인까지의 시간을 측정)
- Standard(표준) : Criteria를 기초로 달성 가능한 성과의 기대수준. 정량화가 가능한 형태로 표시(예 : 0.02%, 20분)
- Risk management(위험관리) : 환자와 직원의 위험을 최소화하는 실무차원의 관리 프로그램
- Utilization review(의료이용 감사) : 자원의 적절성과 활용도를 평가하는 활동

표준진료지침
(Critical
Pathway)

진료절차 표준화, 자원의 효율적 사용 및 시의적절한 임상진료를 제공하기 위해 표준진료지침(CP)을 개발, 운영하고 있다.

표준진료지침 운영은 의료 측면에서는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진료과정의 오류나 합병증을 감소시키며 환자에게 치료과정에 대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만족도 향상 및 알 권리를 충족시킨다. 업무효율성 측면에서는 업무의 안정성 확보, 불필요한 중복업무의 최소화, 의료진 간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가능하게 하며 재원기간 단축, 병상가동률 향상, 삭감률 감소 등 병원경영관리의 효율성을 높인다.

구분	표준진료지침(CP)	
중앙병원(12)	•외과 : 담낭절제술(cholecystectomy), 국소마취 탈장봉합술(L/A herriorrhaphy), 척추마취 탈장봉합술(S/A herriorrhaphy), 치핵절제술(hemorrhoidectomy), 충수절제술(appendectomy), 동정맥루(AVF, arteriovenous fistula), 동정맥이식(AVG, arteriovenous Graf), 하지정맥류 수술(varicose vein) •안과 : 백내장 수술(cataract) •산부인과 : 경관 확장 자궁소파술 및 생검(DCB, dilatation curettage biopsy), 무긴장성 테이프 술식(TOT, Trans Obturator Tension), •정형외과 : 인공 슬관절 치환술(TKR, Total Knee Replacement)	
부산병원(7)	•외과 : 치핵절제술 •안과 : 백내장(Cataract), 유리체절제술 •신경과 : 급성기뇌졸중	•정형외과 : 견봉성형술 및 회전근개파열 복원술 •비뇨의학과 : 광선택적 전립선절제술 •순환기내과 : 심혈관조영술(CAG & PCI)
광주병원(8)	•외과 : 충수절제술(Appendectomy), 서혜부 탈장 근본수술 •안과 : 백내장(cataract) •신경과 : 뇌졸중(Stroke)	•정형외과 : 인공 고관절 반치환술(BPHA) •신경외과 : 척추후방유합술(PLIF) •비뇨의학과 : 전립선 수술(Holep) •순환기내과 : 심혈관조영술(CAG)
대구병원(6)	•외과 : 탈장(Hernia) •안과 : 백내장(Cataract)	•정형외과 : 슬관절전치환술(TKRA), 회전근개복원술(RCR) •비뇨의학과 : 경요도전립선절제술(TURP), 전립선 조직검사
대전병원(6)	•외과 : 탈장(Hernia), 치질(Hemorrhoid) •안과 : 백내장(Cataract)	•정형외과 : 경피적경막외신경성형술(PEN) •심장내과 : 심혈관조영술(CAG) •소화기내과 : 대장내시경

임상질 지표

임상의 질을 관리할 수 있는 지표를 정량적으로 개발해 의료의 질을 평가하고 개선활동을 수행하고 있으며, 임상질 지표에는 환자안전지표, 진료영역지표, 관리영역지표 등이 있다.

질 지표 관리 과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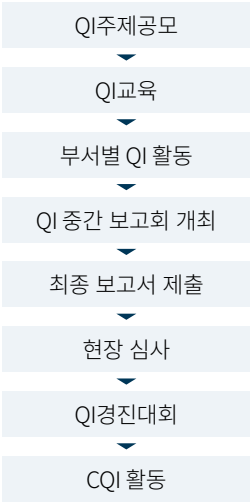
- ① 부서별 지표 선정
- ② 지표담당자 교육
- ③ 지표관리(지표결과 산출, 목표달성여부 평가, 개선활동 수행)
- ④ 지표관리 보고 및 직원공유

지표 관리										(단위 : 건)
구분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중앙	65	62	61	64	80	71	64	60	51	
부산	17	16	17	33	34	42	44	44	31	
광주	13	14	22	30	37	37	40	42	40	
대구	3	6	17	17	24	33	59	72	73	
대전	17	21	22	34	36	38	39	39	41	

QI 활동

QI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하고 QI전담자를 배치해 부서별 QI 활동을 지원하고 있으며, 연 1회 QI경진대회를 개최해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있다.

QI 활동 과정



활동 실적											(단위 : 건)
구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중앙	42	38	46	54	59	63	71	76	68	65	
부산	26	26	26	26	26	26	26	26	27	28	
광주	22	20	20	21	22	23	24	25	26	27	
대구	11	12	10	12	11	12	13	14	14	15	
대전	20	20	21	19	19	18	18	20	19	19	
인천	-	-	-	-	-	-	-	-	-	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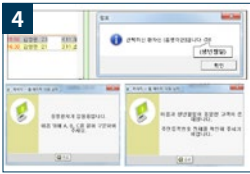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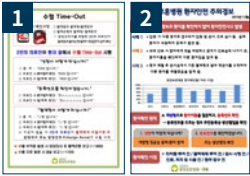
의료기관
인증평가

2010년 6월 「의료법」 개정으로 의료기관 평가가 인증제로 변경됨에 따라 의료서비스의 질과 환자안전수준에 대해 자체평가를 실시하고 인증을 받는 제도(의료기관평가인증원 주관)

※ 상급종합병원, 전문병원, 수련병원 등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의료기관은 필수사항

- 평가주기 : 인증 유효기간 4년
 - 중간자체조사 : 인증 유효기간 동안 의료기관이 매년 자체적으로 조사를 시행하여 그 결과를 인증원에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인증 유지
 - 중간현장조사:인증 후 24~36개월 사이 인증원 조사팀이 방문하는 현장조사
- 평가기준 : 환자의 권리와 안전, 의료기관의 의료서비스 질 향상 활동, 의료서비스의 제공과정 및 성과, 의료기관의 조직·인력관리 및 운영, 환자만족도를 포함한 4개 영역, 13개 장, 91개 기준, 520개 조사항목(3주기 급성기병원 인증 기준)으로 인증기준 충족 여부를 절대평가로 실시

인증평가 결과 인증 획득					
구분	중앙병원	부산병원	광주병원	대구병원	대전병원
1주기	2013.02.06	2013.04.16	2012.12.1	2013.11.06	2013.07.02
2주기	2017.02.13	2017.03.28	2016.12.1	2017.07.04	2017.07.04
3주기	2021.02.13	2021.03.30	2020.12.1	2021.07.04	-



- 1 수술 Time out
- 2 원내 환자안전주의경보
- 3 고위험의약품 분리보관
- 4 동명이인 내원 시 EMR popup
- 5 치과병원 중앙공급실 환경개선

인증평가 결과 개선사항	
■ 중앙보훈병원	
구분	개선사례
환자안전 체계강화	•환자확인 시스템 개선(외래 환자확인증 도입, 동명이인 내원 시 EMR 전 분야 Pop up 시스템 개발) •수술실 입실 전, 수술 전, 절개 전 Time out 시스템 강화 •낙상 고위험환자 환자인식팔찌 및 표지판 부착 등을 통한 전 부서 관리 강화 •수혈 Time out 시스템 개발 •위험관리체계 구축을 통한 위험요인 파악 및 우선순위에 따른 FMEA, RCA 활동으로 개선활동 실시 •환자안전사건 발생 시 원내 주의경보 발령을 통한 직원 공유
화재관리 강화	•소화기, 소화전 안내판 및 시각경보기 부착 •피난안내도 부착, 방화셔터 주변 관리 등 화재 관련 시설 재정비 •부서 내 화재대처 매뉴얼 마련 및 숙지 •화재 발생 시 환자/보호자 대처요령 안내
의약품 관리강화	•고위험 의약품 분리보관 •주사실, 소아청소년과 백신냉장고 설치 •병실약국 Pass box 관리를 위한 보안키 설치 •의약품 안전보관을 위한 응급카트 의약품 표준화 및 봉인 •필요시 처방 의약품 모니터링을 통한 목록 관리 및 적응증 오류 최소화 •병동 의약품 준비구역 개선을 통한 감염관리 강화
시설 및 환경개선	•시술장 내 세척실 분리(내시경실, 인터벤션실, 치과병원 등) •시술장 내 foot switch 시스템 마련 •휴게실 내 x-ray 촬영 시 병실 피폭 예방을 위한 차폐벽 설치 •병동 내 오물처리실 세탁물과 세척공간 분리 •치과병원 중앙공급실 환경 개선 •세탁물 집하장 기타/오염구역 격벽 구획
기타사항	•영양집중지원팀(NST) 구성을 통해 다 직종 간 협력체계 구축 •이상검사 발생 시 해당 의사에게 SMS 발송 및 확인 시스템 개발 •원내 비상상황 발생 시 방송코드 표준화(화재 : 코드레드, CPR : 코드블루, 유괴 : 코드핑크)

■ 부산보훈병원

구분	개선사례
환자안전 보장활동	• 환자확인 과정 업무 표준화 • 낙상예방 표지판 개선 및 낙상예방 설명문을 EMR 동의서 양식으로 개선 • 환자안전 관련 예방활동으로 FMEA활동 • 적신호 사건이나 위해사건 발생 시 예방활동으로 RCA활동 시행 • 환자안전라운딩 및 리더십 라운딩 실시 • 화재안전관리활동을 위한 화재대피 매뉴얼 현행화 • 화재대피로 및 대피도 점검 및 일체 점검 • 소화기, 소화전 등 화재대피 물품에 대한 정기적인 점검관리활동 시행
규정· 프로세스 통한 업무표준화	• 규정의 개정 및 제정으로 업무 표준화 • 각종 진료, 검사, 간호 행위에 대한 표준 매뉴얼 마련 • 각종 사고 등 보고 체계 확립 및 세부 업무 행위 결과 체계화
의약품 관리강화	• 외래 진료구역 백신냉장고 설치(소아청소년과, 주사실) • 고위험 의약품 표지설치, 약품관리구역 입출입 제한 실시 • 응급의약품 표준화 및 봉인시행관리 • 의료진 간 정확한 의사소통을 위한 PRN 처방 목록관리 • 의약품 부작용 모니터링 실시 • 병동 의약품 준비구역 개선을 통한 감염관리 강화
시설 및 환경 개선	• 시설물의 환자안전을 위한 구획 및 관리(복도 계단 보안장치 설치) • 감염예방을 위한 스크린 도어 설치 및 병문안 제한 • 사각지역의 CCTV설치 강화로 감염 및 보안강화 • 세탁물 운반함 및 청소도구 보관실 개선 • 위험물질 점검 리스트 개선으로 환자 및 직원안전강화
기타사항	• 폭력예방 관리를 위한 신속대응체계 구축 • 의무기록 관리를 위한 EMR개선활동 • 감염관리 예방을 위한 입출입 통제 시스템 개편

■ 광주보훈병원

구분	개선사례
환자안전 체계강화	• 환자확인 시스템 개선(동명이인 내원 시 EMR 전 분야 Pop up 시스템) • 수술실 입실 전, 수술 전, 절개 전 Time out 시스템 강화 • 낙상 고위험환자 환자인식팔찌 및 표지판 부착 등을 통한 전 부서 관리 강화 • 수혈환자 알림 시스템으로 안전하고 신속한 수혈 시스템 구축 • 심폐소생술을 위한 필요물품 및 의약품 서식 변경을 통한 관리 강화 • 전 직원 심폐소생술 교육을 통한 응급상황 대처 능력 강화 • EMR 내 입원환자 재평가 과별서식 수정을 통한 재평가 기록 향상 • 수술실 퇴실 전에 수술에 대한 내용을 기록하도록 교육과 지표관리 강화 • 고위험 및 예방점검 의료기기 관리대장을 통한 관리 강화 • 리더십 워크라운드를 추진하고 낙상 캠페인 등 환자 안전문화 강화 • 환자안전사건 발생 시 원내 주의경보 발령을 통한 직원 공유
화재관리 강화	• 소화기, 소화전 안내판 및 시각경보기 부착 • 피난안내도 부착, 방화셔터 주변 관리 등 화재 관련 시설 재정비 • 부서 내 화재대처 매뉴얼 마련 및 숙지 • 화재 발생 시 환자·보호자 대처요령 안내 • 화재 발생 시 식별 가능한 표지판 부착으로 신속한 대피유도
의약품 관리강화	• 고위험 의약품 분리보관, 주사실, 소아청소년과 백신냉장고 설치 • 의약품 안전보관을 위한 응급카트 의약품 표준화 및 봉인 • 필요시 처방 의약품 모니터링을 통한 목록 관리 및 적응증 오류 최소화 • 의약품의 이중 감사를 통한 투약오류 감소 • 병동 의약품 준비구역 개선을 통한 감염관리 강화
시설 환경관리	• 시술장 내 세척실 분리(내시경실, 인터벤션실 등) • 시술장 내 foot switch 시스템 마련 • 휴게실 내 x-ray 촬영 시 병실 피폭 예방을 위한 차폐벽 설치 • 병동 내 오물처리실 세탁물과 세척 공간 분리 • 치과외래 감염예방을 위한 수전 환경 개선 • 세탁물 집하장 기타/오염구역 구획 • 응급실 triage room, CPR room 등 시설개선 • 화장실 안내표지판 개선 및 가림막 설치 • 외래 대기모니터 설치
기타사항	• 영양집중지원팀(NST) 구성을 통해 다 직종 간 협력체계 구축 • 조리장의 유증상 직원 관리 체계를 마련해 관리함 • 이상검사 발생 시 해당 의사에게 SMS 발송 및 확인 시스템 구축

■ 대구보훈병원

구분	개선사례
환자안전 체계강화	• 정확한 환자 확인, 필요시 처방, 구두처방 목록 및 절차 마련 • 수술 시술 전 환자확인 절차 통일 • 낙상 평가방법 및 절차를 정하고 부서별 낙상 예방활동 마련 • 손위생 수행 방법 및 시점 통일, 손위생에 필요한 소독제 및 시설 마련
진료전달 체계	• 외래환자 및 응급환자 등록 절차 통일 • 입원 수속절차 및 중환자실 입실 절차 재정비 • 외래 및 입원환자, 응급환자 초기평가, 재평가 기준 및 시점 마련 • 진단검사의학과, 영상의학과, 핵의학과 검사 체계 정비 및 검사 결과 이상치 보고 기준, 보고 방법 마련 • 이상검사 발생 시 해당 의사에게 SMS 발송 및 확인 시스템 개발 • 방사선 안전관리 절차 정비
환자진료	• 통증 및 영양 평가 방법 마련 • 영양집중지원팀 구성 및 영양평가 의뢰 등 절차 마련 • 욕창평가 기준 및 절차 점검 • 원내 심폐소생술 절차 및 기준 마련 • 심폐소생술 물품 통일 및 술기 실습교육 • 신체보호대 사용 절차 및 기준 마련
의약품, 수술 마취	• 의약품 보관 및 투여 절차 정비 • 고위험 의약품 분리보관 • 병동 의약품 준비구역 개선 • 의약품 부작용 모니터링 절차 마련 • 수술 시술 중 환자안전 보장 활동 강화 방안 정비
환자권리 존중·보호	• 환자권리장전 마련 • 사생활 보호 및 취약환자 권리 보호방안 마련 • 불만 및 고충처리 방법 정비 • 동의서 작성 범위 및 작성시기 등 정비 • 장기기증 절차 마련
질 향상 및 감염관리	• 질 향상 환자안전 운영체계, 위험관리 체계 마련 • 환자안전 사고 보고체계 및 개선활동 시행 • 질 향상 활동 체계 정비 • 의료기구 등의 세척, 소독, 멸균 방법 및 시행절차 정비 • 오염구역, 청결구역 시설 및 환경 구분 • 수술실, 중앙공급실, 시술실 등 감염관리 위한 시설 공사 시행 • 세탁물, 청소, 환경 소독 등 절차 정비 • 감염성 질환자 및 면역 저하 환자 관리 방법 정비 • 세탁물 운반함 및 청소도구 보관실 개선
시설 환경관리	• 유해화학물질 및 폐기물, 의료기기 안전관리 수칙 정비 • 화재 및 대피방법 정비,금연 관련 흡연 구역 정비 • 유행성 감염병 대응체계 마련

■ 대전보훈병원

구분	개선사례
환자안전 체계강화	• 환자안전 사고 예방을 위한 의료진 간 정확한 의사소통을 위해 필요시 처방 실시기준, 투여량, 투여 간격이 정확하지 않은 경우 재정비 및 동일 효능의 약물을 삭제해 약사심의위원회를 통한 규정 개정 및 해당부서 교육 시행
직원안전 및 감염관리강화	• 진단검사의학과 채혈 시 장갑 착용은 모든 채혈과정의 엄격한 규정으로 실행도가 낮아 자상 방지 대책 및 손위생을 대신 할 수 없어 규정 개정 및 직원교육을 통해 개선 활동 수행 • 세탁물 집하장 내 오염세탁물 관리 개선 및 수거과정의 개선
의약품 관리강화	• 약국에서 조제된 의약품이 담긴 봉투에는 병원에서 사용하는 약품코드가 라벨링 되어 있고 의약품이 담긴 환자별 봉투에는 의약품 상품명(이름)이 라벨링 되어 있어 약포와 약봉투의 라벨링 내용을 약품코드로 통일해 표기하도록 인쇄기능 설정
프로세스에 맞는 규정 개정	• 고위험의약품 중 항암제와 항혈전제를 투여하는 경우 동의서를 받고 있으나 규정 동의서 작성 범위에 누락되어 프로세스대로 규정 개정

의료질평가

보건복지부는 2015년 선택진료비 제도를 단계적으로 축소·폐지하고 대안으로 선택진료비 제도하에서 배분하던 재원을 활용하는 의료질평가 지원금 제도를 도입했다.

의료질평가는 국민에게 수준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목적으로 의료기관의 질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기관별 차등보상 적용, 외래 및 입원 진료 건당 수가에 반영하는 제도로써 의료질평가를 통한 지원금의 지급규모는 선택진료제도가 전면폐지된 2018년부터는 7,000억 원이다.

- 평가대상 : 종합병원
- 평가지표 : 환자안전, 의료 질, 공공성 등 6개 영역 53개 평가지표
- 평가방법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청구 및 신고자료를 바탕으로 의료기관 평가인증원,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국민건강보험공단, 중앙응급의료센터, 국가응급진료정보망, 질병관리청, 한국보건의료정보원, 대한병원협회, 식품의약품안전처 자료 등 기존 자료 활용 및 증빙자료 제출 시 평가 점수에 따라 등급화하며 상대평가를 실시한다.

진료의
적정성 평가

의료질평가(2021년)					
평가영역	중앙병원	부산병원	광주병원	대구병원	대전병원
의료질, 환자안전, 공공성, 전달체계 및 지원활동	3	4	4	4	4
교육 수련	2	3	2	3	3
연구개발	2	3	3	3	3

※ 5단계 구분 : 1등급이 우수한 평가

의료서비스의 적정성 및 질적 수준 확보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증가함에 따라 건강보험으로 제공하는 의료서비스 전반에 대해 요양기관별, 상병별, 진료과목별로 구분해 의약학적 측면과 비용 효과적 측면에서 요양급여를 적정하게 행하였는지를 평가해 요양기관의 자율적인 의료 질 향상을 지원하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평가결과를 공개해 국민의 의료이용선택권을 보장하는 제도이다.

2000년 7월 「국민건강보험법」에 적정성 평가 기능을 도입 후 2001년 항생제 처방률 평가 등을 시작으로 과거 질병 수술 중심에서 중증 만성질환 및 일반 질 지표를 통한 기관 단위 포괄 평가(급성기 질환, 만성질환, 환자 경험 등)로 매년 평가영역을 확대하고 있다. 평가항목은 총 35개 항목, 52개 세부 평가항목으로 되어 있다.

중앙보훈병원은 2015년부터 평가별, 지표별 TFT-평가관리단 구성과 전담 인력을 배치해 개선 활동을 추진하고 적정성 평가의 효율적 관리 및 질 개선을 목적으로 평가별·지표별 평가관리단을 구성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e-평가시스템을 활용한 적정성 평가지표 상시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했다.

또한, 적정성 평가 기준에 부합하도록 EMR개발 및 보완(폐렴, 중환자실, 혈액투석, 4대 암 평가, 뇌졸중, 마취, 수혈, 상병조절 프로그램 등)하고 등급 상향 및 유지를 위한 부진지표 분석 및 개선 활동을 추진해 매년 우수한 평가를 받고 있다.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2021년)						
구분	중앙병원	부산병원	광주병원	대구병원	대전병원	인천병원
1등급 평가항목	19	5	7	7	6	2

환자 경험평가

진료과정에서 환자 관점의 의료 질 향상과 환자중심 의료 문화 조성을 위해 의견 청취의 필요성이 증가하자 의료의 질 평가항목에 환자 경험평가가 추가되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주관으로 2017년과 2019년 시범실시했다.

중앙보훈병원	
구분	내용
2017	• ‘항상 감사합니다’ 캠페인 실시 - 환자경험평가 인식제고·홍보를 위한 배지 제작 및 배부 • 환자경험평가 대비 예비조사(찾아가는 고객의 소리) 반기별 실시
2019	• 환자경험평가 TFT 운영(진료, 간호, 원무, 약제 등) - 평가 관련 내용 공유 및 전파교육 실시 - 영역별 미진 사항 공유 및 개선 • 환자경험평가 대비 예비조사(찾아가는 고객의 소리) 반기별 실기 지속

평가결과							
평가 영역		간호사 서비스	의사 서비스	투약 및 치료과정	병원 환경	환자권리 보장	전반적 평가
2017	중앙병원	91.35	84.47	84.60	89.46	85.73	86.91
	전체병원	88.81	82.29	82.29	84.07	82.80	83.16
2019	중앙병원	86.75	81.93	84.90	85.87	84.33	87.27
	전체병원	86.11	81.56	82.79	82.57	80.23	82.47

제 4 절

보훈재활 특성화 재활의료

재활(Rehabilitation)은 신체적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의 신체적·감각적·심리적 및 사회적 기능을 최상의 상태로 향상시키는 일련의 과정으로 정의(WHO)한다. 선진국의 보훈정책은 재활분야를 주요사업으로 격상해 상이처 치료에서부터 재활과정을 거쳐 사회복귀까지의 체계적인 재활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국가보훈정책의 목표가 ‘국가를 위해 헌신한 분들에게 끝까지 책임진다’는 데 있는 만큼, 앞으로 의료에서부터 직업, 사회재활서비스까지 One-Stop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종합재활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최근 고령화에 따른 의료·복지수요 증가와 젊은 상이군경의 증가로 연령구조가 다양화됨에 따라 이들에 대한 보상금의 적절한 지급과 사회서비스 제공 등 복지혜택을 넓혀가는 것도 필요하지만, 또 다른 측면에서 평생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하므로 생애 주기별 맞춤형 재활시스템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특히 정상적인 활동을 하다가 군 복무 등으로 상이를 입은 경우 초기치료 상황에서부터 재활과정을 거쳐, 향후 사회적응까지의 체계적인 프로그램 실행이 현안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현재의 보훈재활은 보훈재활영역(의료재활·사회재활·직업재활) 중 기본이 되는 재활의료 분야에서 국가유공자의 고령화와 상이처 등 복합질환으로 인한 의료수요 증가에 대한 대처 및 질환특성에 맞는 전문적·체계적인 재활의료시스템이 필요한 실정에 있다.

재활의학(Rehabilitation Medicine 또는 Physical Medicine & Rehabilitation)은 물리학에서 출발해 재활의 개념이 포함되어 하나의 독특한 의학 분야로 발전해 왔음을 나타내는 것이다. 이는 재활의학의 범주가 반드시 장애를 가진 환자들뿐 아니라 다양한 질환군이 당연히 포함됨을 의미한다. “재활의학은 치료의학과 예방의학에 이은 제3의 의학(The third phase of medicine)”이라고 제창한 재활의학의 창시자 러스크(Howard A. Rusk) 교수는 “의학적 치료 후 환자가 장애를 갖게 되었을 때 남아있는 기능으로 일상생활은 물론

직장생활도 할 수 있도록 훈련시켜 최선의 상태로 회복하고 유지하는 데 목적이 있다”라고 했다.

각종 질병 및 사고로 인해 장애가 생긴 사람을 대상으로 최대한의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능력과 잠재능력을 발달시켜 가능한 정상에 가까운 또는 남에게 도움을 받지 않는 생활을 할 수 있게 해주는 분야로서 단순한 질병치료 이외에 삶의 질을 만족시키는 의학적 수단으로 인간생명 존중을 중시하는 특성이 있다. 따라서 재활의학은 질환, 외상 또는 노인성 변화로 인해 신체적 및 사회적 기능이 떨어져 사람의 신체적, 정신적 능력을 최대로 회복시키는 의학 분야이며, 뇌졸중·척수손상뿐만 아니라 각종 통증으로 인해 보행 및 일상생활 동작에 지장을 받는 모든 환자가 치료 대상이 된다.

※ Howard A. Rusk, MD(1901~1989) : The Rusk Institute Of Rehabilitation 설립자로 Comprehensive Rehabilitation Medicine 제시. 재활치료의 목적은 환자의 건강 및 생명을 최선의 상태로 회복하고 유지하는 데 있으며 재활의학은 치료의학, 예방의학에 이은 제3의 의학(The third phase of medicine)이라고 제창. “의사가 더 이상 해줄 것이 없을 때 재활치료는 시작된다.”고 주장. 1951년 뉴욕 중심 맨해튼에 세계 최초의 재활병원인 러스크 재활병원이 설립되었음.

중앙보훈병원 재활센터

보훈공단은 재활분야를 전략적 사업단위(Strategic Service Unit)로 설정하고 체계적인 보훈재활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재활시스템의 기본이 되는 재활의료 기능 강화를 최우선 과제로 삼았다. 국가유공상이자에게 치료에서부터 재활과정을 통한 사회적응까지 평생 삶의 질을 향상할 수 있도록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시스템 운영의 기본방향(Vision)은 중앙보훈병원의 재활의학센터를 명실상부한 국내 최고 수준으로 발전시키는 것으로 설정했다. 1998년 73병상 규모의 재활센터를 개설한 이후 중앙보훈병원이 1,400병상 규모로 확충됨에 따라 2014년 국내 최초로 급성·재활·요양까지 가능한 융합형 진료체계를 갖춘 재활센터를 개설했다. 국내 최고수준의 의료진과 187병상 규모의 재활센터 단일병상을 운영함으로써 보다 전문적인 재활케어가 가능해 9개 분야 재활전문클리닉과 인지재활, 수중재활, 로봇치료프로그램 등 7개 분야 재활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또한 재활센터·보장구센터·방문재활 각 분야의 전문 의료진이 협력해 입원부터 퇴원까지 토털 케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입원 후 정서치료와 동시에 전문 재활치료사와 함께 상·하지 로봇재활치료, 보행분석, 수중재활치료 등 첨단 장비를 통해 맞춤형 재활훈련을 실시하고 있으며 재활센터 전문의와 보장구센터의 전문가로 구성된 의지보장구

클리닉을 통해 맞춤형 보장구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퇴원 후에도 연속성 있는 치료를 위해 방문재활팀이 가정방문해 재가 AI 인지재활서비스 및 물리치료 등을 추가적으로 제공해 빠른 회복을 통한 일상 복귀를 지원하고 있다.

시설배치	
구분	배치
재활관	• 지상 2층~6층 : 재활병동(187병상) • 지상 1층 : 재활체육시설, 체력단련실 • 지하 1층 : 수중재활치료실
3관	• 지상 3층 : 재활체육시설(론볼링장) • 지상 2층 : 보행로봇치료실, 상지로봇치료실, 동작분석실, 재활체육실, 방문재활실, 일상생활동작훈련실, 입원집중운동치료실(I), 입원집중운동치료실(II), 재활기능치료실(입원), 작업치료실(입원), 통증치료실(입원), 인지검사실, 인지치료실, 언어치료실, 연하치료실, 소아치료실, 부종치료실, 특수치료실 • 지상 1층 : 외래진료실, 초음파실, 근전도 검사실, 집중운동치료실(외래), 재활기능치료실(외래), 작업치료실(외래), 통증치료실(외래), 보장구센터

운영인력									(단위 : 명)
전문의	전공의	보건의							계
		낙상전문간호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언어치료사	체육교사	응급구조사		
7	12	1	46	14	3	5	1		89



재활 프로그램		
프로그램	개요	적응증
인지재활	• 전산화 평가 및 전문화된 진단도구를 이용해 진단 후 인지저하에 대한 약물치료 및 인지재활 전문가에 의한 전산화 인지치료를 시행하는 프로그램	뇌졸중, 외상성 뇌손상 등 중추신경계 질환, 파킨슨병, 치매 등 퇴행성질환
수중치료	• 물의 부력, 온도, 수압, 저항 등의 물리학적 특성을 이용해 관절의 통증감소, 순환의 증가, 신진대사 증가 효과로 인해 관절가동범위, 근력, 유연성, 균형 등의 기능을 증진시키는 프로그램 • 훈련하기 어려운 환자에게 혼자서기, 체중이동, 균형잡기, 걷기 등의 훈련을 물속에서 실시	뇌졸중, 외상성 뇌손상, 척수손상 등의 중추신경계 질환, 근골격계 환자의 수술 후 치료, 골관절염과 류마티스 관절염 등의 근골격계 질환환자
로봇치료	• 보행을 촉진하기 위한 보행로봇 치료와 상지기능의 회복을 위한 상지로봇 치료 실시 • 보행로봇 치료는 견인장치를 이용해 환자의 체중을 지지해 주고 로봇 자세제어장치에 하지를 고정해 미리 프로그램된 정상적인 생리적 보행양식에 따라 환자의 하지 움직임을 유도해줌으로써 맞춤형 보행훈련 실시 • 상지로봇치료는 안전하고 효율적이며 뇌가소성을 증진시켜 독립적 일상생활과 상지의 기능회복에 효과가 입증된 로봇치료기 이용	뇌졸중, 외상성 뇌손상, 척수손상, 뇌성마비 등 보행장애와 상지기능장애를 가진 환자
재활체육치료	• 중추신경계 손상, 근골격계 질환, 노화 등으로 신체적 능력이 저하되어 운동능력이 부족한 환자들을 대상으로 여러 인솔자의 지도에 따라 단체로 체육활동 실시	-
스마트병원 체험관 (일상생활 체험실)	• 스마트병원체험관은 병실 2개 크기의 공간으로써, 전동침대가 구비되어 있는 침실, 거실, 월푼이 포함된 욕실, 높낮이 주방 및 전동 싱크대와 세면대 등 특수한 28종의 장애인용 가구뿐만 아니라 최첨단 인공지능을 탑재한 음성인식 스피커, 스마트 TV, 공기청정기, 블라인드 등이 설치되어 있는 독립 생활 체험 공간 • 입실 시 환자의 일상생활 수행정도를 평가하고, 주거환경을 파악해 최소한의 도움으로 독립적인 일상생활을 수행할 수 있도록 교육 • 환자 및 보호자와의 상담을 부가적으로 시행해 퇴소 후 환자의 주거 상황 및 장애 정도에 맞게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함	-
방문재활	• 신체적 제약으로 인해 내원치료가 어려운 환자에게 집으로 찾아가는 재활치료 서비스를 제공 • 만성기 환자의 퇴원 유도로 가정으로의 복귀율을 높이며, 중증장애인들의 병원 방문 부담을 줄여 환자 및 보호자의 만족도를 증진시키는 효과	-

재활치료 장비	
	상지 로봇 재활시스템(Shoulder-elbow robots for rehabilitation) 장애환자의 운동능력 실시간 추적과 반복 치료를 통한 뇌손상환자의 상지기능 회복을 촉진시켜주는 기기
	하지 로봇 재활시스템(Robotic training system) 중추신경계 손상환자에게 로봇보조장치를 이용한 운동학습 과정을 통해 뇌의 재조직화 및 신경가소성 촉진으로 보행 동작 개선
	수중운동 치료 풀(Therapy Pool) 체중부하가 불가능한 환자들의 근력강화, 유연성 향상, 보행훈련 등에 필요한 수중치료 시설
	동작분석시스템(Gait analysis system) 인체 동작 분석 후 적절한 보행패턴 및 수술, 의지 착용전후 예측에 사용

IT와 의료 융합
재활서비스

AI 재활치료 시스템

- 재활치료자의 역량에 따라 재활서비스의 질이 좌우되는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AI 스마트글러브를 도입, 환자상태에 맞춘 최상의 재활치료서비스 제공
 - 태블릿과 재활치료 글러브를 통해 환자별 맞춤형 치료 프로그램 분석·제공으로 재활 효과 제고
 - 재활 프로그램 이용 시 환자의 손동작을 AI가 실시간 분석·평가해 재활정도 및 치료계획 수립 지원
- 수부(手部) 재활 대상 환자 1,568명에게 스마트글러브 활용 AI 재활 제공

재가 AI 인지 재활 서비스

- 거동이 불편한 중증 치매 환자 치료방안으로 스마트 디바이스를 활용해 검사부터 재활, 훈련 모든 과정을 병원에서 받는 것과 동일하게 가정에서 받는 재활훈련

- 태블릿PC를 이용해 전산화 인지재활 프로그램 Cotras-M 활용 검사 및 재가 치료를 동시에 실시
 - 인지검사 및 반응속도, 위치 기억, 작업기억, 계산, 언어 유창성, 청각 기억 등 훈련을 통한 인지 재활치료 시행
- 거동 불가 치매 환자 306명에게 이동형 AI 인지재활 서비스 제공

가상현실형(VR) 운전 재활치료

- 재활 이후 사회복귀를 위한 맞춤형 치료가 필요함에 따라 VR기술을 활용해 실제 운전환경을 재현한 운전재활 시뮬레이션 시스템 도입으로 재활환자의 치료 집중도 향상
- 먼저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환자를 대상으로 장애인용 운전 재활 시뮬레이터를 이용해 환자의 인지 및 운동능력 향상
- 뇌졸중 등 운전 재활치료 활용을 통해 연간 1,224명에게 VR재활 제공

- 1 상지로봇장비
- 2 가상체험재활치료
- 3 하지로봇장비
- 4 운전재활치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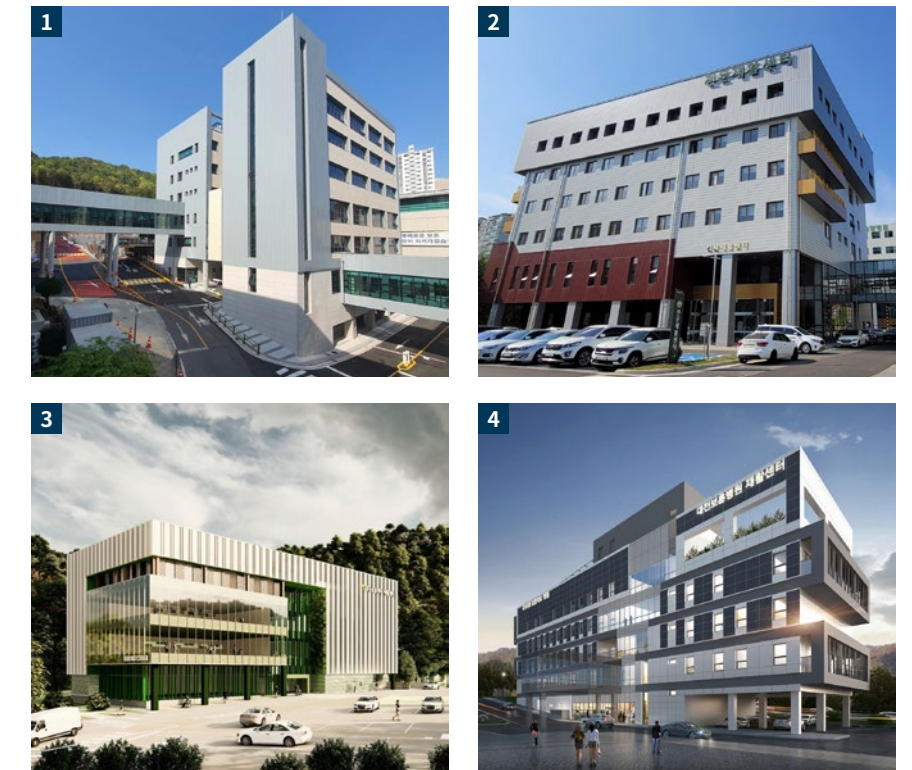


지방보훈병원
재활센터 건립

중앙보훈병원 재활센터에 이어서 지방보훈병원에서 전문재활서비스 제공을 위해 재활센터 건립을 추진하고 있다. 총사업비 776억 원을 투입해 2018년부터 광주·부산보훈병원 재활센터 건립을 시작으로 2022년까지 대구·대전보훈병원 재활센터를 건립해 전문재활서비스를 통한 건강한 사회복귀를 지원할 계획이다.

구분	부산	광주	대구	대전
위치	교육연구동 부지	볼링경기장 부지	재활체육관 부지	보훈동산 부지
규모	지하 1층, 지상 6층 (7,466㎡)	지하 1층, 지상 7층 (8,460㎡)	지하 1층, 지상 4층 (5,027㎡)	지하 1층, 지상 4층 (4,510㎡)
주요시설	80병상 재활치료실 등	108병상 재활치료실 등	40병상 재활치료실 등	40병상 재활치료실 등
사업비	235억 원	221억 원	171억 원	143억 원
사업기간	2018~2021	2018~2021	2021~2022	2020~2022

- 1 부산병원 재활센터
- 2 광주병원 재활센터
- 3 대구병원 재활센터 조감도
- 4 대전병원 재활센터 조감도



보철구 지급

보철구는 신체기능 장애나 활동력이 상실된 부분을 대체 또는 보완해주는 보조기기이다. 보철구 지급사업은 국가를 위해 희생한 국가유공상이자들에게 신체적 기능의 보완뿐만 아니라 개인 능력을 극대화하고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해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재활 사업으로, 전동 의수족 등 첨단 보철구 제작 지급 및 신규 품목을 확대해 보상금 성격의 현물로 지급하고 있다. 우수한 보철구 제작을 위해 중앙보훈병원 보장구센터 및 부산·광주·대구·대전 등 4개 보훈병원 내 지방분소를 두고 직접 제작해 보급하고 있으며, 제작이 불가능한 기성품 등은 최상의 제품을 구입 또는 수입해 지급하고 있다. 사용 도중 고장 및 파손된 것은 찾아가는 서비스 등을 이용해 수리해주고 있으며, 현재 지급하고 있는 보철구 품목은 52종이다.

보장구센터

1964년 1월 원호처 국립직업재활원 내에 보철구 공장을 운영하다가 1970년 1월 국립원호병원 소속의 의지창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업무를 이관하였다. 1981년 보훈공단 설립과 함께 보훈병원 의지창으로 개편하였고, 부산(1985)·광주(1987)·대구(1989)·대전(1989) 등 지방에도 분소를 설치·운영해 왔다. 1991년 11월 700평 규모로 확장 신축하고 2001년 보장구센터로 명칭을 변경했다. 2007년 중앙보훈병원의 신축 추진으로 철거 후 병원 내 임시 시설로 운영하다가 본관동 리모델링 공사가 끝난 2013년 제3관으로 이전하여, 현재 보장구센터는 제작과(행정), 의지보조기1·2과, 보조화과, 실리콘과, 의안·

지역별 보장구센터							
구분		계	서울	부산	광주	대구	대전
규모(㎡)		2,708	1,560	387	331	188	242
보유장비	수량(개)	233	164	16	16	24	13
	금액(백만 원)	927	666	77	54	74	56

보청기와, 보훈의학연구소 내 연구개발과, 휠체어 행복나눔센터와 지방 4개 분소를 운영하고 있다.

보철구 지급 대상

1964년부터 신체장애로 인해 보철구를 필요로 하는 전·공상군경, 4·19 혁명부상자, 6·18자유상이자 등에게 지급해 왔으며, 1974년 12월 공상공무원, 1985년 1월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및 전투종사 군무원 중 상이자까지 확대 지급했다. 2002년 7월 5·18민주화운동 부상자, 2005년 7월 특수임무부상자, 2012년 4월 고엽제후유(의)증환자와 상이등급 미달 전·공상 제대군인 중 해당 질병 또는 상이처로 보훈병원에서 수술한 사람에게도 지급하고, 2012년 7월 재해부상군경 및 재해부상공무원에게도 지급하기 시작했다.

현행 보철구 지급대상은 전상군경, 공상군경, 4·19혁명부상자, 공상공무원, 6·18자유상이자,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및 전투종사군무원, 재해부상군경 및 재해부상공무원, 5·18민주화운동 부상자, 특수임무 부상자, 고엽제후유(의) 증환자, 상이등급 미달 전·공상 제대군인 중 해당 질병 또는 상이처로 수술한 사람이다. 애국지사에게는 보철구 지급규정에 전·수동 휠체어를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다.

보철구 공급품목 및 사용연한

1989년 지팡이, 1998년 약시용 안경, 2000년 비데 및 욕창방지용 방석을 지급하고 있으며, 특히 하지계통 상이자에게 처음으로 전동휠체어를 지급해 이동의 편의를 도모했다. 2002년 양안 실명자의 정보교환 등 의사소통을 위해 시각장애인용 컴퓨터를 지급하고, 2004년 전자의수를 독일 오토복사로부터 구입해 지급했다. 2007년부터 욕창 방지를 위한 매트리스, 2011년 광학 문자판독기 등 2종, 2013년 전동침대 등 6종, 2020년 손목관절 의지, 전동유닛 2종, 2021년 오토박스, 트랜스퍼보드 2종을 추가해 총 52종(제작품 26종, 기성품 26종)의 보철구를 공급하고 있다.

공급 재원은 일반적인 보철구는 세출예산에 반영되어 있으며, 휠체어 구입 예산은 2004년부터 복권기금에서 구입하다가 2007년 보훈기금에 반영해 구입했고, 2011년부터 다시 복권기금으로 공급하고 있다. 세출예산 보철구는 보장구센터에서 제작하는 제작품과 시각장애인용 컴퓨터 등 기존제품을 구입해 보급하는 기성품이 있다. 휠체어는 보장구센터에서 지방 보훈병원별로 순회 제품설명회를 거친 후 실태조사를 거쳐 본인들의 선호와 체형에 맞는



- 1 척추보조기
- 2 다리보조기
- 3 의족
- 4 의수
- 5 의안
- 6 손가락

제품을 선택하도록 하고 있다. 보철구 사용 연한은 품목별로 상이하나 주로 의지 계통은 5년, 보조기는 2~3년, 전동휠체어는 6년, 수동 휠체어는 5년, 기성품은 주로 5년, 구두·지팡이 등은 1년이다.

보철구 품목 및 사용연한							
보철구명	연한	보철구명	연한	보철구명	연한	보철구명	연한
어깨관절의지	5	전자의수	5	인공후두	5	의치	5
위팔의지	5	팩시밀리	5	인공요장	1	비데	6
팔꿈치관절의지	5	중상이자 리프트	5	수동휠체어	5	욕창방석	3
아래팔의지	3	샤워형 휠체어	5	독서확대기	5	전동휠체어	6
엉덩이관절의지	5	팔보조기	2	욕창 매트리스	3	시각장애인용 컴퓨터	5
넓적다리의지	5	다리보조기	3	자세유지 보조기(inner)	5	광학문자 판독기	5
무릎관절의지	5	척추보조기	2	다리의지 실리콘 커버	5	점자정보 단말기	5
종아리의지	5	맞춤형 교정용신발	1	보청기	5	홍채렌즈	6개월
손목관절의지	1	철크릿치	3	시각장애인용 시계	5	전동침대	10
손의지	1	목발	2	저시력 보조안경	3	종아리 의지 실리콘 슬리브	5
손가락의지	1	지팡이	2	의이	1	전동유닛	5
발의지	1	흰지팡이	1	의안(고정)	5	오토박스	5
발가락의지	1	시각장애인용 안경	3	의안(동작)	영구	트랜스퍼 보드	5

보철구 지급 절차



- 1 실리콘형 종아리의지
- 2 전동휠체어

보철구·휠체어 공급실적					
(단위 : 개, 백만 원)					
구분	구분	2005	2010	2015	2020
		수량	금액	수량	금액
보철구	수량	10,960	10,523	8,852	7,182
	금액	4,544	4,998	6,068	6,064
휠체어	수량	620	532	1,131	565
	금액	1,595	1,849	2,529	2,025
계	수량	11,580	11,055	9,983	7,747
	금액	6,139	6,847	8,597	8,089

※ 2020년부터 샤워형 휠체어, 전동침대 공급

보철구 지급 절차는 국가보훈처 훈령(국가유공자 등 보철구 지급규정)에 의해 해당 보훈(지)청에서 해당 국가유공자에게 보철구 지급기준 해당여부 및 사용 연한 종료 여부 등을 확인·심사하고 지급품목과 시기를 안내하고 있다. 보철구 취형 및 장착은 매 분기별로 보훈병원 보장구센터에서 실시하고 있으며 지급 완료 후 전산입력 등 사후관리 서비스도 보장구센터에서 하고 있다.



보철구 품질개선

보장구센터는 국가유공상이자의 장애 기능 보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품질의 고급화를 추구하는 한편 첨단보철구 및 신규 품목을 확대 지급했다. 1980년대 이전의 낙후된 국산 재래식 부품 및 제품에서 탈피해 1984년부터는 대만 덕립의지회사의 골격식 의지 부품을 매년 450세트씩 수입해 공급했으며 세계 각국의 보장구에 대한 자료수집 및 연구기능을 보완하기 위해 1987년부터 1997년까지 보장구연구소를 개설 운영했다.

1995년 11월 독일 오토복사와 기술협정을 체결해 의지 부품을 첨단 제품으로 교체했으며 1999년 10월 미국 스타키사와의 기술협정으로 보청기 제작 기술을 전수받았다. 또한 보철구 제작 기술력을 높이기 위해 의지 기사의 해외 기술연수(오토복사)를 실시하는 한편 독일·미국 등 보철구 제작 선진국의 의지 기사를 초청하여 기술전수를 받았다.

제작과 연구개발(R&D)의 균형 발전을 위해 2013년 6월부터 보장구 연구개발을 담당하는 보장구 품질연구과를 운영해 오다가 2018년 보훈의학연구소 개소와 함께 보훈의학연구소 내 보장구연구개발과를 운영하고 있다.

2014년 고체형 실리콘의수 제조방법에 관한 특허를 취득해 연구개발에 대한 기반을 조성했으며, 2015년 비무장지대(DMZ) 목함지뢰 폭발 사고로 다리를 상실한 부사관 2명에 대한 성공적인 재활은 중앙보훈병원과 보장구센터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는 계기가 되었다. 이후 국군의무사령부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해 현역 부상 장병에 대해 사고발생 초기부터 보철구 전 주기를 관리할 수 있게 되었다.

2014년 보철구 제작 체계화를 위한 보장구 제작 매뉴얼을 완성했으며, 국가유공자 개인별 맞춤형 보철구를 제작, 적기에 공급하고 보철구 품질

1 목함지뢰 하재헌 중사 퇴원

2 (주)하우메디케어 기술이전



한국과학기술연구원-
보훈병원 협약식



개선과 연구역량을 강화했다. 2015년부터 보훈의학연구소 연구과제 수행을 통해 보행 중 무릎 각도 측정 시스템 개발, 다리 의지 소켓 내부압력 센서 시스템 개발, 다기능 미관용 의수개발 등 보철구 관련 첨단기술 연구를 지속적으로 수행했으며, 실리콘 의수 제작기법, 전동휠체어 안전장치, 요천추 척추보조기 등 지식재산권을 확보해 보장구 관련 기술개발에 앞장서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2018년 환자 회복주기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변형이 가능한 다기능 요천추 척추보조기 개발 및 특허 등 지식재산권을 확보했으며, 2019년 중소기업(오소피아) 기술이전을 통한 상용화에 성공해 개선된 척추보조기를 지급하고 있다. 2020년에는 기능성 어깨보조기를 개발해 중소기업(하우메디케어)에 기술이전하는 방식으로 상용화했다.

4차 산업혁명 등 첨단기술 발전에 따라 보철구 제작 첨단화를 위한 방안으로 2018년부터 3D프린팅 기술을 도입해 의수족 대상자를 위한 미관용 커버, 의수 손톱제작, 맞춤형 전동휠체어 조이스틱, 손 보조기 개발 등 첨단기술을 적용한 다양한 품목의 보장구를 제작하는 데 활용하고 있다.

정부의 한국판 신뉴딜 사업에 발맞춰 국가 연구과제 수행에 참여하여 2020년 정형·재활 의료기기 사업화 인증 및 실증지원 사업을 수주해 국내 의료·보철구 관련 중소기업에 병원 차원의 임상 및 인증평가를 위한 지원을 확대하고 있으며, 범부처 전주기 의료기기 연구개발 사업에 민·관·연 컨소시엄을 구성, 2개 연구 과제에 선정됨에 따라 파킨슨병 환자를 위한 보행 보조 장치 연구 및 스마트 전자제어식 다리 의지 신제품 국산화 개발에 착수했다. 2021년 1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같은 해 6월에는 한국과학기술연구원과 협약을 통해 첨단기술이 적용된 다양한 신제품 개발을 위한 기반도 마련했다.

한편 보장구센터는 한서대학교, 나사렛대학교, 한국복지대학교와 보장구 전공 학생들에게 임상실습과 기술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한국보건의료인 국가시험원과는 의지보조기사 실기 국가자격시험 시설과 장소를 제공하고 있다. 국군의무사령부와는 현역 군장병 보장구 제작 및 AS 관련 협약을 맺었으며, 한국교통안전공단과는 교통사고 피해 아동·청소년 지원 등에 관한 업무협약을 맺고 의지를 지원한 바 있다. 그 밖에 (주)오소피아, (주)하우메디케어 등 중소기업과는 보장구 기술이전 협약을 맺고 자체 개발한 보장구 기술을 전수하는 등 외부연구기관·기업 간의 업무협약(MOU)을 통해 보장구 품질 개선과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있다.

국책연구과제				
구분	내용	기간	병원연구비	총연구비
범부처 전주기 의료기기 연구개발 사업 (국가연구개발사업)	•파킨슨병 환자의 보행증진을 위한 스마트 외부자극 시스템 개발(주관기관)	3년 (2020.9~)	4억 원	7.5억 원
	•양측하지 절단환자에게 적용 가능한 스마트 전자 제어식 하지의지 제품 및 핵심부품 국산화 개발(참여기관)	6년 (2020.9~)	11억 원	67억 원
의료기기사업화 인증 및 실증사업 (산업통상자원부)	•산업통상자원부 주관 정형·재활 의료기기 임상실험 및 컨설팅(주관기관) - 4개 기업 신제품 사업화 추진	5년 (2020.4~)	21억 원	69억 원
산업혁신기반 구축사업 (산업통상자원부)	•지능형의지보조 및 의료용 자동이동기기 트랙 레코드 구축(참여기관)	5년 (2021.4~)	10억 원	275억 원
민·군기술 이전사업 (국방과학연구소)	•신축 스트랩을 구비한 착용 로봇	2년 (2021.10~)	4억 원	20억 원

- 파킨슨병 환자의 보행증진을 위한 스마트 외부자극 시스템 개발 : 파킨슨 환자 (국내 11만 명)의 불규칙한 보행에 따른 낙상 등 2차 사고를 방지할 수 있는 스마트 외부자극 시스템을 개발해 한국인에 적합한 표준 제시
 - 외부자극 종류(시각, 청각, 촉각)를 필요에 따라 선택적으로 사용하며 높은 보행 검출률과 정확한 외부자극을 제공할 수 있는 핵심기술 확보

- 스마트 전자제어식 하지의지제품 및 핵심부품 국산화 개발 : 국내 최초 전자 제어식 로봇 의지 개발 및 무릎관절 상용화 기술 개발
 - 개발된 다리의지 임상시험을 통한 검증 및 보장구센터의 다리의지 소켓제작 기술력을 바탕으로 최첨단 다리의지에 적합한 맞춤형 소켓 개발

휠체어
행복나눔센터

국가유공자가 사용하던 사용연한이 경과된 휠체어를 기증받아 보장구센터에서 수리(Recycle)한 후, 보훈가족, 장애인, 노인 등에게 공유(기부, 대여)하기 위해 2020년 6월 휠체어 행복나눔센터를 개설했다. 같은 해 7월 행정안전부의 「광화문 1번가 행복 이음터」에 참여해 민간·공공기관 협업의 찾아가는 휠체어 공유서비스를 제공했으며 2020년 11월 사회보장정보원과 업무협약을 체결, 전국사회복지통합전산망(행복e음)에 탑재해 전국으로 서비스를 확대했다. 그간 휠체어 공유(기부)서비스 38대, 무상수리 서비스 290대의 행복나눔을 실천했으며 2020년 행정안전부 행복나눔 협업 우수성사 매칭기관으로 선정되었다.

발전방향

그동안 보장구센터는 1·2급 중상이자, 고령자 등 거동이 불편한 국가유공자의 불편을 해소하고 고객만족도 제고를 위해 찾아가는 서비스 즉 가정을 방문해 보철구 취형·장착 및 수리하는 서비스에 초점을 맞추었다. 앞으로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최첨단 기술을 이용해, 기존 재래식 보철구에서 위험 감지 센서, AI기능을 탑재한 첨단 보철구를 민·관·연 협업체계를 통해 개발 지원해 국가유공상이자가 더 나은 일상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특히 보장구 제작방식은 3D모델링과 3D프린터를 활용해 개인별 맞춤형 제작방식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국가유공자의 초고령화 사회 진입에 따라 고령친화 보철구 수요의 지속적 증가가 예상되므로 첨단 감지 센서·AI 딥러닝 등 첨단기술이 포함된 의수족, 휠체어 등 국가유공자들의 높아진 생활수준 및 욕구에 맞는 우수한 품질의 개인 맞춤형 보철구를 지급하여 보훈가족의 건강과 행복한 삶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최고 수준의 보장구센터가 될 것이다.

재활체육

21세기를 맞이해 장애인 체육의 진흥은 사회변화의 주요한 동력이자 장애인의 사회참여 기회 확대와 삶의 질 향상의 주요 요건의 한 분야로서 사회 전반적으로 중요성이 지속적으로 부각되고 있는 추세이다.

장애인에 대한 다양한 재활체육과 건강증진 활동의 참여기회 확대는 신체적, 심리적 기능향상을 통해 풍요로운 삶을 살 수 있게 하고 사회적 기능향상으로 사회참여 촉진 및 자립생활 증진, 역량 강화, 정상화 실현에 기여한다. 뿐만 아니라 장애로 인한 질병과 상해를 예방하고 사회적 의료비용을 절감하며 장애인에 대한 비장애인들의 인식을 변화시킴으로써 장애인 복지의 궁극적 목표인 사회통합 실현에 긍정적으로 작용한다.

장애인 복지의 선진국인 독일에서는 장애인 체육을 재활체육·전문체육·생활체육·특수학교체육으로 분류해 체계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 재활체육의 개념은 재활치료의 연장선상에서 신체활동을 통해 신체적·심리적·사회적 영역의 향상을 도모하고 사회통합을 이루기 위한 체육활동을 의미
- 재활체육은 전문체육·생활체육 활동을 위한 전(前) 단계로서 그룹형태의 정기적인 스포츠 활동으로 자아의식을 강화시키고 자발적인 자립을 통해 사회 통합의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필요한 체육활동의 종합

보훈재활체육

전·공상군경 등의 신체기능을 회복시키기 위한 재활체육지원을 위해 보훈 병원에 체육관을 건립해 재활의료와 연계해 추진해왔다. 1967년 국립 보훈원에서 국내 최초로 대한민국상이군경회 주관 척수장애인체육대회를 개최했으며, 이 대회는 장애인체육 보급 및 활성화에 큰 역할을 했다. 현재 국내 척수장애인체육대회는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누어 연 2회에 걸쳐 개최하고 있으며, 동 대회는 선진국과 같이 선수와 그 가족이 함께하는 축제로 발전했다. 선발된 우수선수는 장애인올림픽 등 각종 국제대회에 참가하여 국위를 선양하고 있다.

특히 1988년 10월 15일부터 24일까지 우리나라에서 개최된 제8회 서울 장애인올림픽대회 유치에 결정적 역할을 했고, 동 대회에서 국가유공자 선수가 상위에 다수 입상함으로써 우리나라가 종합 4위를 하는 데 큰 역할을 했다. 2017년 IWAS 월드컵 등 각종 국제대회에 참가해 우수한 성적을 거두었으며, 2018년 평창 동계패럴림픽 아이스하키 종목에 참가해 동메달을 획득하는 등 국위를 선양했다. 또한, 2022년에는 국가보훈처 지원으로 ‘인빅터스게임’에 참가할 예정이다.

※ 인빅터스게임 : 영국 해리왕자가 상이군인 재활을 돕기 위해 2014년 발족한 상이군인 올림픽

장애인올림픽 대회 입상							
(단위 : 개)							
연도	대회명	한국선수단 입상			국가유공자 입상		
		금	은	동	금	은	동
1968	제3회 텔아비브 장애인올림픽	-	-	-	-	-	-
1972	제4회 하이델베르크 장애인올림픽	4	2	1	1	-	-
1976	제5회 토론토 장애인올림픽	1	2	1	-	-	-
1980	제6회 네덜란드 장애인올림픽	2	2	1	-	-	-
1984	제7회 스토크맨드빌&뉴욕 장애인올림픽	-	2	2	-	2	1
1988	제8회 서울 장애인올림픽	40	35	19	7	12	1
1992	제9회 바르셀로나 장애인올림픽	11	15	18	1	2	8
1996	제10회 애틀랜타 장애인올림픽	13	2	15	5	-	4
2000	제11회 시드니 장애인올림픽	18	7	7	6	2	3
2004	제12회 아테네 장애인올림픽	11	11	6	5	5	2
2008	제13회 베이징 장애인올림픽	10	8	13	2	1	4
2012	제14회 런던 장애인올림픽	9	9	9	-	3	3
2016	제15회 리우 장애인올림픽	7	11	17	1	1	2
2018	평창 동계 장애인올림픽	1	-	2	-	-	1

아시안게임 입상							
(단위 : 개)							
연도	대회명	한국선수단 입상			국가유공자 입상		
		금	은	동	금	은	동
2014	제11회 인천 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	72	62	77	3	5	1
2018	제12회 인도네시아 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	53	45	46	-	3	4

또한 2019년부터 공공기관 최초로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기관(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지정되어 공무원, 공공기관, 학교, 체육단체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했다.

보훈재활체육센터

전·공상군경 등의 신체기능 회복을 위해 1983년 8월 16일 서울시 강동구에 원호병원을 신축하면서 국내 최초로 병원시설 내 종합체육시설을 건립했다. 이어서 2004년 광주보훈병원, 2005년 부산·대전보훈병원, 2007년 대구보훈병원 내에 재활체육시설을 건립했다. 한편 서울보훈병원 체육시설은 2007년 중앙보훈병원 신축공사 추진으로 철거됨에 따라 종합재활체육센터 건립을 추진하게 되었다.

수원 보훈교육연구원 내 부지 16,655㎡에 2008년부터 2011년까지 207억 원을 투입해 국내 최대 규모의 사격장 및 론볼링장, 탁구, 배구, 농구, 배드민턴 등 실내경기를 할 수 있는 종합재활체육관 및 양궁장 등 종합운동장과 체력단련실, 수(水)치료실, 생활관 등을 마련했다.

1 탁구
2 보훈재활체육센터



보훈재활체육센터 시설배치						
층별	체육관		생활관		종합운동장, 양궁장	
	면적(㎡)	주요시설	면적(㎡)	주요시설	면적(㎡)	주요시설
4	2,545	론볼장, 상군체육회	429	운영 사무실		
3	1,076	탁구장, 방송실	799	숙소(4인*8실)		
2	1,433	실내트랙, 체력단련실, 세미나실	799	숙소(4인*8실)	사열대(671) 양궁장(980) 운동장(9,557)	사열대, 양궁장, 종합운동장
1	2,887	종합실내체육관	758	식당, 휴게실		
B1	5,050	사격장, 기계실, 주차장	-	중앙감시실		
계	12,991		2,785		11,208	

지방보훈병원 재활체육시설					(단위 : ㎡)
구분		부산	광주	대구	대전
개관연도		2005	2004	2007	2005
실외	양궁장	-	2,519	-	-
	테니스장	-	1,685	-	-
실내	체육관	777	903	736	734
	론볼장	-	1,743	876	876
	사격장	-	176	251	145
	체력단련실	9	-	-	-
	재활운동실	129	-	-	228
	기타지원실 등	423	56	-	562

제5 절

의학연구

보훈의학연구소

보훈공단은 국가유공자에게 최상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보훈의료의 연구기능을 강화하고 공공성 있는 의학연구를 통해 공공의료발전과 사회적 가치 실현에 기여할 목적으로 2013년 12월 중앙보훈병원 소속 보훈의학연구소를 개설했다. 2018년 6월 사업비 214억 원을 투입해 중앙보훈병원 내 지하 2층, 지상 5층(연면적 6.525㎡)규모로 신축했다.

국가유공자를 위한 바이오뱅크와 보훈환자 질환 중심의 연구특성화를 위해 4개 연구부(보훈유전체연구부, 중개임상연구부, 뇌의학연구부, 재활·보장구 연구부)를 운영하고 있다. 운영인력은 의사직, 연구직, 간호직, 보건직, 약무직 등 22명이다.

내·외부 연구과제 지원

보훈의학연구소 운영 지침 및 연구비 관리 지침에 의거 기관소속 연구자의 연구역량을 제고하고 연구 참여 확대 및 보훈 특화연구분야를 발굴, 육성하기 위해 의료진 및 연구자의 의학 연구 등에 대해 연구비를 지원하고 있다.

지원내용 : 지원액 10억 원, 연구기간 1년				
구분	자유 과제		지정 과제	
연구분야	기본연구	심화연구	핵심·중점	정책연구
연구내용	• 질환 관련 임상연구 등 • 신진연구자 연구지원	연구장비, 재료를 활용한 실험, 전향적 연구 등	질환 중심의 특성화 연구	중장기 발전 수립을 위한 정책·임상 연구
과제 수	50	10	4	2
과제당 지원	8백만 원 내외	2천만 원 내외	5천만 원 내외	1억 원 내외

내·외부 연구과제 수행				
구분	2018	2019	2020	2021
국책과제	10	9	15	17
내부과제	42	44	55	67

2021년 국책연구과제						(단위 : 천 원)
구분	주관기관	과제명	연구기간	참여형태	연구책임자	총연구비
1	한국연구재단	MicroRNA 발현분석을 통한 지루피부염의 병인분석 및 새로운 치료 표지자 발굴	2018.6~2021.11(4년)	개인	주민숙 (피부과)	150,000
2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딥러닝 기반 독거 노인의 상태 실시간 인지 및 지역사회 이종 의료/복지 서비스 연계 자동 플래닝과 수행시스템 개발	2019.4~2021.12(3년)	공동세부	김춘관 (감염내과)	170,000
3	한국연구재단	18F-FDG PET/CT판독에 있어 기계학습을 이용한 비소세포성 폐암의 종격동 림프절 전이 및 환자예후 예측 모델 개발	2019.6~2022.2(3년)	개인	유 장 (핵의학과)	137,500
4	한국연구재단	혈액 기반 파킨슨병 조기 진단을 위한 엑소좀 유래 알파-시누클레인 측정 기술 개발	2020.6~2023.2(3년)	개인	강민주 (신경과)	137,500
5	한국연구재단	뇌졸중 후 발생한 장애의 유형별 회복기전 규명	2020.6~2022.2(2년)	개인	김대현 (재활의학과)	87,500
6	한국연구재단	특발성 폐섬유증 병리기전에서 오탄당 경로의 역할 규명	2020.6~2023.2(3년)	개인	김학수 (연구소)	137,500
7	정보통신산업진흥원	(닥터앤서) 뇌영상 수치 자동분할 · 뇌동맥류 병변 진단 SW실증연구	2020.6~2021.3(10개월)	공동세부	김인중 (영상)	315,000
8	범부처전주기사업	콜라겐 함유 블록형 골이식재(LEGOGraft)를 이용 ‘간편화골유도재생술’의 유효성 검증 다기관 임상시험	2020.9~2022.12(3년)	공동세부	이동운 (치주과)	130,000
9	범부처전주기사업	양측 하지 절단환자 적용 가능한 스마트 전자제어식 하지의지 제품 및 핵심부품 국산화 개발	2020.9~2025.12(6년)	공동세부	채수정 (보장구센터)	1,140,000
10	범부처전주기사업	파킨슨병 환자의 보행 증진을 위한 스마트 외부자극 시스템 개발	2020.9~2022.12(3년)	공동주관	심우섭 (보장구센터)	400,000
11	한국연구재단	폭염 영향예보를 위한 노출 및 취약성 위험지수 개발 및 모델구축	2020.9~2023.2(3년)	공동주관	민진령 (연구소)	236,400
12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인지장애 정도에 따른 뇌영상 및 임상 정보 기반 평가기준 개발	2020.12~2023.5(3년)	공동세부	하상원 (신경과)	130,000
13	정보통신산업진흥원	(닥터앤서) 전립선암 진단 분석 SW	2021.2~2021.3(2개월)	공동세부	정태영 (비뇨의학과)	22,500
14	한국보건산업진흥원	감염병 치료제 백신의 신속개발 지원을 위한 고려대학교 의료원 중심 임상시험 지원체계 구축	2021.3.~2022.2.(1년)	공동세부	김춘관 (감염내과)	70,000
15	한국보건산업진흥원	60GHz 데이터 기반 고령자 수면 및 생활패턴 분석을 통한 개인 맞춤형 시돌봄 서비스 개발	2021.4.~2023.12.(3년)	공동세부	최하연 (정신건강의학과)	369,000
16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지능형 의지보조 및 의료용 자동 이동기기 트랙 레코드 구축	2021.4.~2025.12.(5년)	공동세부	양희승 (재활의학과)	1,000,000
17	한국연구재단	바이오 3D프린트 기반 미세유체 신장암모사체를 통한 신장암 치료제 스크리닝 모델 개발	2021.6.~2024.2.(3년)	개인	최종원 (비뇨의학과)	147,707
18	민군협력진흥원	스마트 스트랩을 이용한 첨단 보조기 개발	2021.9~2023.8.(2년)	공동세부	채수정 (보장구센터)	400,000

임상시험 연구과제 지원

보훈의학연구소는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지정한 의약품 임상시험 실시기관 (2004년 4월), 의료기기 임상시험 실시기관(2013년 9월)으로 지정되어 주로 제약회사 등 외부기관과 계약체결을 통해 임상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임상시험연구 신규과제					(단위: 건)
구분	2018	2019	2020	2021	계
과제건수	36	22	22	28	108

실험 및 통계 지원

연구자의 연구성과를 창출하기 위해 실험기법 교육, 연구장비 및 연구재료 활용방안 상담, 각종 실험 분석 및 연구결과 통계 분석 등을 지원하고 있다.

실험 및 통계 지원 수행 절차

① 연구지원 신청접수

- 실험연구 연구자 대상 연구지원 신청 접수
- 통계분석 대상 연구지원 신청 접수

② 연구지원 계획 수립

- 연구자-연구원 상담
- 연구지원 내용 확정(실험 및 통계분석 내용, 연구원 배정 계획 등)

③ 실험 등 연구지원

- 연구소장 승인 및 연구책임자 통보
- 연구원 배정 확정, 실험 및 통계지원 실시

④ 연구지원 경과공유

- 실험 종료 후 연구진행 상황 공유
- 통계 지원 실시 후 분석자료 통보

기초 실험교육 및 실험 지원

- 분자실험: DNA, RNA, PCR methods, Cloning, Transfection, Transduction
- 단백질 분석: Western blot, ELISA, FACS, IHC
- 실험실습: PCR, Real-time PCR, Western blot

의학연구 통계분석 지원

- 기초 통계 분석
- 고급 통계 분석: 선형회귀분석, 로지스틱회귀분석, 생존분석, GWAS

실험 및 통계 지원					(단위: 건)
구분	2019	2020	2021	계	
실험지원	14	14	6	34	
통계지원	137	161	133	431	

280

기관생명윤리위원회 (IRB, Institutional Review Board)

IRB위원회 기능

중앙보훈병원 IRB는 본원에 소속된 연구자에 의해 수행되는 연구계획의 윤리적·과학적 타당성을 심의하고, 연구진행 과정 및 결과에 대한 조사·감독 기능을 수행하는 독립적 위원회로 2004년 7월 의약품 임상시험 기관 지정을 시작으로 2013년 7월 인간대상연구, 인체유래물 기관 등록, 2013년 9월 의료기기 임상시험 기관 지정, 2019년 3월 인체유래물은행 기관 등록, 2021년 6월 체외진단의료기기 임상적 성능시험기관으로 지정되어 6개의 IRB를 통합 운영하고 있다.

구분	대상 위원회	등록 및 지정 기관
2004년 7월	의약품 임상시험	식품의약품 안전처
2013년 7월	인간대상연구, 인체유래물연구	질병관리본부
2013년 9월	의료기기 임상시험	식품의약품 안전처
2019년 3월	인체유래물은행	질병관리본부
2021년 6월	체외진단의료기기 임상적 성능시험	식품의약품 안전처

IRB위원회 운영

IRB위원회의 위원은 28명이며 과학계 위원 24명, 비과학계 위원 4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직종별로는 의사 17명, 약사 4명, 간호사 1명, 물리학자 1명, 사무직 3명, 외부위원 2명이다. 2개의 소위원회(패널A·B)로 나뉘어 각각 격월로 정규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있으며, 신속심의는 온라인으로 진행하고 있다. 2014년 2월부터 eIRB 시스템 구축 및 홈페이지 개설로 과제 접수, 심의, 통지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2004년 IRB 운영 이후 신규과제를 포함해 심의 건수가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에 있다. 현재는 평균적으로 신규과제 연 100건 이상, 총 심의 1,000여 건을 수행하고 있다. 향후 임상시험에 참여하는 시험대상자의 안전과 권리의 보호 및 복지향상을 위해 임상시험 및 대상자보호프로그램 (Human Research Protection Program)을 구축할 계획이다.

제 3 편 부 문 별 보훈공단 40년

281

지적재산권 특허
지원

IRB 등록 신규과제 심의 (단위 : 건)									
구분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신규과제	47	43	62	89	100	94	130	116	125
IRB 심의 (단위 : 건)									
구분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계	305	359	438	664	850	1,098	975	1031	900
정규심의	78	57	71	88	94	94	128	132	140
신속심의	227	302	367	576	756	1,004	847	899	760

내·외부 연구 과제 수행 관련 지식재산권(특허권) 출원 및 취득 절차 지원을
통해 연구 성과 관리 및 의료 질 평가(연구영역) 등에 활용하고자 한다.

관련 근거 : 공단 지식재산권관리 및 보상지침(2019.12.27제정)

- 제9조(발명의 신고) 직원이 제2조 제3호의 발명을 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발명신고서(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해 소속부서의 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진행 절차

① 지식재산권(특허) 등록 검토

- 발명당사자: 지식재산권(특허) 등록 가능 여부 검토 및 보훈의학연구소로 문의
- 특허법인에 자문, 보훈의학연구소 자문료 지급

② 발명신고서 제출

- 발명당사자 발명신고서 작성 제출 → 보훈의학연구소
- 보훈의학연구소 : 병원장 및 본사보고(지식재산권 심의위원회)

③ 지식재산권 심의위원회 개최결과 통보

- 본사 심의위원회 개최 결과에 따라 특허 출원 진행(특허법인 계약 등)

④ 특허 출원 계약 및 업무 진행

- 계약의뢰 : 발명 당사자 → 보훈의학연구소
- 발명 당사자 : 계약 특허법인과 협조 특허 진행
- 출원 경비 처리 : 보훈의학연구소

⑤ 특허권 등록 : 보훈의학연구소

특허 출원·등록 현황					
제목	출원·등록국가 (국내/국외)	출원·등록 일자	소속	대표 발명자	출원·등록 인명
고체형 실리콘 의수의 제조방법	국내 (출원·등록)	2013.09.06 2014.07.04	보장구 센터	성우성	보훈공단
전동 휠체어의 위험감지장치 및 방법	국내 (출원·등록)	2018.08.29 2019.05.07	보장구 센터	조민	보훈공단
요천추 척추 보조기	국내 (출원·등록)	2018.10.16 2019.08.28	보장구 센터	조규직	보훈공단
의료용 베드	국내 (출원·등록)	2019.01.11 2020.10.16	방사선 종양학과	박소연	보훈공단
의료복지서비스 제공 장치, 방법 및 시스템	국내 (출원·등록)	2019.08.06 2020.05.13	고객통합 서비스부	김봉석	보훈공단
IMSAFE (상표)	국내 (출원·등록)	2019.08.06 2020.08.12 2019.08.06 2020.08.10	고객통합 서비스부	보훈공단	보훈공단
의료영상에서 딥러닝에 기반한 종양 자동분할 방법	국내 (출원)	2019.08.16	혈액종양 내과	김봉석	보훈공단
의료 영상에서 듀얼 윈도우 설정에 기반한 딥러닝을 이용한 종양 자동분할 방법	국내 (출원)	2019.12.03	혈액종양 내과	김봉석	보훈공단
의수외피 제작을 위한 환측 부위의 음성 형틀 제작 방법	국내 (출원·등록)	2020.01.14 2020.09.04	보장구 센터	김현조	보훈공단
어깨 외전 보조기	국내 (출원·등록)	2021.03.19 2021.11.10	보장구 센터	갈원국	보훈공단
글리코톡신, 글리코톡신에 결합된 특정 단백질 또는 글리코톡신-특정 단백질 복합체를 포함하는 신경퇴행성 질환용 바이오마커	국내 (출원)	2021.04.09 -	신경과	강민주	보훈공단
18F-FDG PET/CT의 머신 러닝에 기반한 비소세포성 폐암에서 종격동 림프절 진단 방법	국내 (출원)	2021.03.09 -	핵의학과	유장	보훈공단
코골이 방지기구	국내 (출원)	2021.06.07 -	보철과	이용상	보훈공단

연구협력 협약		
협력 기관	체결일자	협력 범위
경희대학교의료원 경희의과학연구원	2018.09	• 교육, 훈련 및 자문을 위한 교류 • 공동 발전을 위한 인적 교류
질병관리본부	2019.01	• 한국인 맞춤형 유전체 분석용 칩 이용 업무협약(기술실시계약)
서울아산병원 임상의학연구소	2019.10	• 공동 연구 과제 발굴 및 추진 • 연구 관련 시설, 자원, 인력 등의 교류 등 • 협력연구 수행(2020년 내부연구과제) - 멀티오믹스를 이용한 근감소증 바이오마커 발굴
노동환경건강연구소	2019.10	• 소방관 코호트 구축 등 연구개발 • 연구관련 시설(중앙보훈병원 인체유래물은행, 노동환경건강연구소 분석실) 자원 및 인력 교류
SK바이오 사이언스(주)	2019.10	• 백신 임상 시험 분야 협력 • 혈청 바이오 뱅크 업무 협력
국립소방연구원- 노동환경건강연구소	2020.11	•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관련 연구 • 코호트 구축 등

유전체기반
정밀의료

보훈병원 환자에게 첨단 기술을 통한 진단 및 치료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차세대 염기서열분석(NGS) 임상검사를 진행할 수 있는 기관으로 등록해 다양한 질환의 차세대 염기서열분석 유전자 검사를 내부적으로 운영 또는 위탁할 수 있는 업무적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

유전자 바이오마커 검사를 통해 정밀의료의 근거를 명확히 제시해, 임상의학의 임상시험 연구의 질을 향상시키고, 정밀의료를 위한 새로운 유전자 바이오마커를 발굴해 암 질환을 포함한 다양한 질환의 진단과 치료에 의학적으로 기여할 수 있다.

주요성과

- 2020년 8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NGS 기반 유전자 패널검사 실시기관등록, 같은 해 10월 NGS 기반 유전자 패널검사를 도입해 혈액암 대상 임상검사(12건), 차세대염기서열 분석 소프트웨어를 개발(2건)했다.

- 차세대염기서열분석 기반(NGS) 유전자 패널검사 실시 조건에 따라 시설, 인력, 장비, 유전자 패널에 대한 요건을 갖춘 기관
- 점 돌연변이 및 RNA 발현량 분석 소프트웨어
- 2021년 1월 질병관리청과 유전체칩 기술 실시 계약을 맺고 유전체칩을 활용한 유전정보 분석(1,244건), 차세대염기서열분석기(Next Generation Sequencing, NGS) 기반 유전자 패널 정밀의료 검사(혈액암 대상 임상검사 45건)를 시행해 NGS 기반 유전자 패널 정밀의료 검사 절차의 최적화 및 검사 정확도 향상기술을 마련했다.
- 급성 골수성 백혈병, 골수 이형성 증후군, 급성 림프구성 백혈병, 림프종, 다발성 골수
- 2020년 NGS 기반 유전자 패널검사 실적자료를 2021년 3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제출했다.
- NGS 기반 유전자 패널 정밀의료 검사 실적 : 2020년 12건, 2021년 45건

바이오뱅크
프로젝트

보훈의학연구소 바이오뱅크는 보훈환자의 인체유래물(혈액 등)과 유전정보를 수집, 보관해 임상연구의 자료로 제공함으로써, 신약 및 의료기술 개발, 개인 맞춤형 정밀의료구현 등을 통해 보훈 의학발전 및 의료산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 보훈의학연구소 바이오뱅크의 장점은

- 첫째, 환자집단의 보훈병원 이용률 및 추적 관찰률이 매우 높기 때문에 장기적인 질병관련 검사결과 데이터를 쉽게 얻을 수 있다.
- 둘째, 지역단위 모집이 아닌 전국의 환자를 대상으로 보훈병원에서 주도해 모집하기 때문에 분석에 필요한 질병 군별 환자 수를 충분히 확보 가능하다.
- 다른 상급종합병원에서 구축한 바이오뱅크의 경우 질병별로 환자로부터 유래된 조직 및 혈액 샘플에 대한 데이터 축적은 가능하나, 환자로부터 얻은 장기적인 검사결과 및 생활 습관 등에 대한 데이터는 축적에 어려움이 있다.
- 즉, 특정 시점의 환자 대조군 연구는 가능해도 유전체, 환경, 질병의 인과관계를 분석하기에는 제한점이 있다. 이에 비해, 보훈의학연구소의 바이오뱅크 사업은 환자 데이터의 장기적인 추적 관찰 자료와 연계하면 높은 수준의 데이터 생성이 가능하다.

셋째, 보훈의학연구소 바이오뱅크의 운영과 연구가 안정화되면 다음 단계로 잠수함 근무자, 해상 근무자, 항공기 근무자, 해외파병 군무원 등 현역 군인



대상으로 바이오뱅크를 확대함으로써 보훈병원에서 검진할 경우 맞춤형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본 바이오뱅크 사업에서는 개별 연구자가 관심이 있는 질병군 환자를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등록하게 유도하고, 포괄적으로 국가유공자 가족을 대상으로 한 등록을 통해 건강한 대조군에 대한 모집과 함께 공개된 타 바이오뱅크의 건강인을 대상으로 대조군을 추가 설정해 활발한 연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질병중심 바이오뱅크 코호트 중점 추진과제 수행	
구분	주요내용
보훈의학연구소 치매 코호트 (KODIVA)	•경도인지장애환자의 멀티모달신경 신호기반 알츠하이머성 치매조기 진단 예측 기술 개발 •주관기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보건복지부 •연구기관 : (주관)서울대학교 (공동)중앙보훈병원·와이브레인(주) •연구기간 : 2020년 12월 ~ 2023년 5월
소방관 바이오 모니터링 코호트 (FOBP)	•바이오 모니터링을 통한 소방공무원의 유해물질 노출 수준 평가 •주관기관 : 국립소방연구원 •연구기관 : (주관)노동환경건강연구소 (공동)중앙보훈병원 •연구기간 : 2020년 4월 ~ 2021년 9월
혈액질환 코호트	•골수성 및 림프구성 혈액암 환자를 대상으로 치료 및 예후향상을 위한 정밀 의료연구기반 코호트로 차세대 염기서열분석 등의 검사로 대량 유전·임상 정보 확보 •2020~2021년 다양한 혈액암성 질환(급성골수성백혈병, 급성림프구성백혈병, 림프종, 골수증식성 종양, 골수이형성증후군, 클론성혈액질환 등)에 대해서 골수 및 혈액 검체 확보

바이오뱅크 기증자 및 인체자원 보유 현황				
구분	기증자 수 (명)	자원 보유 현황		
		Plasma	Serum	DNA
2018	209(기증 209)	1,254	-	1,218
2019	2,634(기증 2,460, 연구 174)	13,269	4,147	13,504
2020	2,634(기증 1,603, 연구 1,031)	8,641	8,576	9,328
2021	1,955(기증 1,709, 연구 246)	5,550	5,401	5,921

설계할 계획이다. 또한 설문지와 원내 진료정보를 활용해 국가유공자 및 가족 집단에 대한 환경 노출정보, 유전체 정보, 환자 질병정보의 연계를 통해 정보를 수집하는 것을 1차 목표로 하며, 향후 국가 정책적으로 정밀의료 중점 추진과 포스트게놈 다부처 유전체사업 등의 연구 동력이 성숙하면, 수집한 바이오뱅크를 활용해 유전자 연구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러한 인체 자원 기반의 빅데이터의 플랫폼을 구축하면, 노인성 만성질환과 관련된 유전적 소인 및 치료반응을 발굴해 맞춤의학 방향을 선도할 수 있을 것이며 그 결과 보훈병원 의료의 질적 향상을 기대할 수 있다.

추진사항

바이오뱅크 운영 초기에는 자발적 기증자를 대상으로 인체자원을 수집했으나 임상연구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질병 기반 중심의 인체자원 축적 및 연구기반 마련의 중요성을 인식해, 2020년 1월부터 질병 중심형 바이오뱅크 코호트 구축으로 전환했다.(2021년 7월 총 4,350명 인체 자원 확보)

기대효과

보훈의학연구소 바이오뱅크는 고품질의 인체자원·유전체 정보에 임상·예후 정보 및 의학 통계적 고찰을 통한 코호트 데이터 생산을 통해 글로벌 수준의 보훈질환 코호트 빅데이터 정보를 구축해 정밀의료 구현을 위한 기반을 마련할 수 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헬스케어 중심에는 정밀의료가 있으며, 그 핵심 인프라가 바이오뱅크에 있으므로 차세대 보건의료연구의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질병 중심 코호트 과제 목록				
구분	과제명	진료과	기증자수	설문지
2020	① 수술장환자 코호트 - 다양한 질환자들의 수술 관련 마취전·후 부작용 및 변화 연구 (K-chip 분석 관련)	마취통증 의학과	317	-
	② 혈액질환 코호트 - 혈액질환자 정밀의료 골수 활용 연구	혈액종양 내과	139	-
	③ 진드기병관련 코호트 - 진드기매개 감염질환의 혈청학적 역학 연구	감염내과	22	뱅크
	④ 류마티스환자 코호트 - 류마티스관절염, 통풍 환자 혈액 지표 변화 관련 연구	류마티스 내과	14	-
	⑤ 치매환자 코호트(알츠하이머치매) - 알츠하이머치매환자 바이오마커 연구	신경과	43	-
	⑥ 뇌혈관질환자 코호트 - 뇌혈관질환자(경동맥협착 및 폐쇄 등) 관련 연구(K-chip 분석 관련)	신경외과	591	-
	⑦ 간질환환자 코호트 - 간암,간경화,지방간,B형·C형간염,그밖의 간질환 환자별 관련 연구	소화기내과	315	-
	⑧ 근감소증환자 코호트 - 일반인과 당뇨 환자군 간의 근감소증 여부 관련 연구	내분비내과	456	연구자
	⑨ 만성콩팥병환자 코호트 - 만성 신장질환 관련 연구	신장내과	680	연구자
	⑩ 대장암 환자 코호트 - 대장암 환자와 건강인 혈액내 백혈구를 이용한 RNA expression 유전 차이 분석연구	일반외과	10	-
2021	① 심혈관질환 코호트 - 고혈압, 고지혈증, 협심증, 심부전, 관상동맥질환 환자들을 중심으로 향후 연구 추진을 위한 코호트 구축	순환기내과	838	-
	② 소방관 바이오 모니터링 코호트 - 소방공무원의 화학물질 노출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	보훈의학 연구소	361	연구자
	③ 보훈의학연구소 치매코호트 - 경도인지장애 환자의 멀티모달 신경신호 기반 알츠하이머성 치매 조기 진단 예측기술 개발	보훈의학 연구소 신경과	298	연구자
	④ 혈액질환 코호트 - 혈액질환자 정밀의료 골수 활용 연구	혈액종양 내과	81	-

보훈의료학회

보훈의료와 관련된 임상연구 등 각 분야별 연구발표를 통한 의료수준의 질적 향상 목적으로 1994년 보훈의학회를 발족해 매년 개최하고 있다. 2006년 보훈의료학회로 명칭을 변경했고, 2009년 보훈의료학회운영 지침을 지식경영 관리지침으로 통합 조정했다. 또한 학회장은 6개 보훈병원장 중에서 선출하고, 진료·간호·약제·관리·보건 등 5개 분야의 분과를 두었다. 본사에서는 지침 관리와 학회운영을 지원하고, 중앙보훈병원에서는 운영위원회를 운영하며, 학회장이 소속된 병원에서는 상임위원회 운영, 학회홈페이지 관리, 학술대회 관련 계획수립 및 진행을 하고, 각 분과에서는 논문작성과 심사를 하고 있다. 추진일정은 매년 8월 논문 등록, 9월 분과별로 논문심사, 10월 학술대회 세부계획 수립을 거쳐 11월에 보훈의료학회 종합학술대회를 개최하고 있다. 1994년부터 2021년까지 903건의 논문이 발표되었다.

운영체제

학회장

상임위원회

운영위원회

6개 보훈병원장 등

각 분과장 및 교육연구실장 등

진료분과

간호분과

약제분과

관리분과

보건분과

진료업무 근무자
학회장 소속병원
제1진료본부장

간호업무 근무자
학회장 소속병원
간호본부장

약제업무 근무자
학회장 소속병원
약제실장

행정업무 근무자
학회장 소속병원
운영실장(중앙
원무실장)

보건업무 근무자
학회장 소속병원
영상의학과기
사장

발표논문

(단위 : 건)

1994~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357

51

49

45

51

60

51

58

44

45

44

48

288

289

의사직 국내·외 학회 및 연수

의사직 해외학회 및 연수

해외학회의 대상은 1년 이상 근무자 중 근무 성적이 우수한 자로서 책정된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한다. 개인별 연간 통산 1회, 10일 이내로 하며 학회에서 구연, 포스터 발표를 하거나 학회좌장 또는 사회자에게는 연간 2회(단, 학회비 지원은 연 1회), 14일 이내로 한다. 지원기준은 참가지역별로 개인별 1회 300만 원까지 지급하며 제1저자로 구연발표 시 실등록비와 여비 별도지원 및 제1저자 포스터 발표 시에는 실등록비를 별도로 지원하고 있다.

해외연수의 대상은 해외 연수기관과 협의해 그 기관의 연수동의서 또는 초청장을 받은 자 중 6년 이상 근무자로서 근무성적이 우수한 자를 원칙으로 한다. 연수 기간은 3개월 이상 1년 이하로 하며, 병원장이 그 사유 및 근거자료 등을 첨부해 이사장의 승인을 받을 경우에는 특별히 제한을 두지 않을 수 있다. 체재비와 항공료는 여비규정 및 교육훈련지침을 따르며 연수기간 중 보수는 직무급 및 진료성과급을 제외하고 지원한다.

해외연수자는 복귀한 날로부터 1~2년 이상 근무해야 하며 재직의무 미이행 시 지급된 제경비 일체를 변상해야 한다. 또한 국내·외 연수기회를 공평 투명하게 관리하기 위해 병원별 자체 심의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하고 있다.

해외학회 및 연수												(단위: 명, 백만 원)
구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계
학회	인원	68	90	95	97	113	125	114	116	153	15	986
	지원액	140	147	158	153	187	196	261	267	349	18	1,876
연수	인원	7	4	5	2	4	4	4	1	4	-	35
	지원액	91	54	53	24	49	55	49	13	55	-	443

※ 2020년 지원저조 : 코로나19 영향

의사직 국내학회 및 연수

국내학회 대상은 보훈병원 소속 직원 중 보수교육을 의무적으로 하는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춘·추계 연 2회 지원한다. 국내학회 지원금은 실등록비 및 여비규정에 의한 여비로 하며, 학회 등록비 상한액은 의사직은 1회당 17만 원, 의사직을 제외한 직원은 1회당 12만 원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논문 구연발표자의 경우에는 등록비 상한액 적용 없이 지원한다.

국내연수 대상은 연구기관 및 대학병원 등에서 전문의 분과과정 등을 이수하고자 하는 자 중 병원장 추천 후 이사장의 승인을 득한 자로서 해당분야별 연수기간은 1년 이하를 원칙으로 한다. 지원기준은 3개월 이하의 단기연수의 경우 보수와 출장비, 거주지 이외 체재비를 월 50만 원 지원하며, 1년 이하는 보수 중 직무급과 진료성과급을 제외하고, 단기연수와 동일하게 지원하고 있다.

국내학회 참석												(단위: 건)
구분	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계	11,091	1,024	1,054	992	1,067	1,178	1,260	1,106	1,188	1,311	911	
중앙보훈병원	6,951	666	665	588	622	741	778	676	811	869	535	
부산보훈병원	1,140	87	54	128	155	159	163	115	86	113	80	
광주보훈병원	1,488	115	174	166	160	143	164	166	140	136	124	
대구보훈병원	718	76	82	68	68	61	63	71	77	72	80	
대전보훈병원	728	80	79	42	62	74	92	78	74	82	65	
인천보훈병원	66	-	-	-	-	-	-	-	-	39	27	

SCI(과학기술 논문인용 색인) 지원

보훈병원 의료수준의 질적 향상을 위해 의료진 연구활동을 장려하고, 보훈병원 위상 제고의 일환으로 국내외에서 인정하는 SCI(E)논문 등재 시 지원지침을 마련해 시행하고 있다. 지원 대상 논문은 SCI(E)등재 논문 중 보훈병원을 주요 연구기관으로 한 논문으로 주요 연구대상이 보훈병원의 환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타 병원을 포함하되 저자소속에 보훈병원이 표기된 논문으로 제1저자와 교신저자 중 1인이 반드시 보훈병원 소속이어야 한다. 논문종류는 원저(reserch article), 종설(review article) 및 증례(case report)이며, 지급대상은 주저자인 제1저자(first author)와 교신저자(corresponding author)중 신청자 1인에게만 지급한다. 2006년부터 2020년까지 총 345건, 4억 8000만 원을 지원했다.

SCI(과학기술 논문인용 색인 Science Citation Index)

- 미국 과학정보연구소(SI)가 과학기술분야 학술잡지에 게재된 논문의 색인을 수록한 Data Base
- 다수의 과학관련 저널(CELL, NATURE, SCIENCE 등)중 중요저널 3,500여 종을 색인한 것으로 특정논문이 얼마나 인용되었는지 어떤 논문에 인용되었는지 등 인용정보 검색 DB를 말함
- SCI급 논문이란 과학기술분야 국제논문 중 최우수논문을 상징하는 등급으로 매년 전체 국제논문 중 15%만이 이 범위에 포함될 정도로 심사통과가 어려운 등급
- SCI의 수록 논문 수 및 인용도는 국가 및 기관 간 연구수준을 비교하거나 연구비 지원, 학위인정 심사 등 반영자료로 활용
- IF(논문 영향력 지수 Impact Factor) : 전 2년간 특정학술지에 수록된

하나의 논문이 다른 논문에 인용된 평균 횟수로서 학술지 중요도 또는 영향력을 의미

- SCI 논문의 저술 및 채택과정 : SCI 학술지는 그 채택과정에서 대부분 2~3명의 국제적으로 인정된 논문 심사위원이 해당 논문을 심사 한 뒤, 그 내용을 편집자에게 보내면 편집자가 심사위원의 심사평을 종합한 뒤 자신의 의견을 반영하여 최종적으로 채택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그 결과는 채택, 기각, 혹은 수정 후 재 제출의 세 가지로 결정되며, 논문의 교신저자에게 통보된다. 논문 수정에 관한 최종적 책임은 교신 저자가 담당하고 수정된 논문이 다시 심사위원들에게 보내지면 그 중 일부는 채택되기도 하고 나머지는 기각된다. 보통 바로 채택되는 경우는 거의 없고 최종적으로 채택되는 논문들도 수차례의 대폭 수정을 거치게 된다

지원실적(2006~2020년)

(단위: 천 원)

구분		계	중앙병원	부산병원	광주병원	대구병원	대전병원
계	건수	345	300	1	19	15	10
	지원액	477,408	431,158	1,000	22,750	13,750	8,750
SCI	건수	317	293	1	11	7	5
	지원액	458,658	427,908	1,000	17,000	8,250	4,500
SCI(E)	건수	28	7	-	8	8	5
	지원액	18,750	3,250	-	5,750	5,500	4,250

대학병원 간의 교류협력

의료수준 향상을 위해 보훈병원별로 대학병원과 협약을 체결해 의료진 파견, 초청진료, 초청수술 등을 시행하고 있으며 주요 협약내용은 의료진 상호초청 파견 진료·수술, 최신의료정보 공유와 의료진 연수교육 지원, 학술적인 자문 및 의학적인 지식과 기술지원, 진료 각과 전문의 임상외래 교수 위촉, 환자진료에 관한 협조 및 환자수송체계 구축 등이다.

의료협력체결

(단위: 명, 건)

보훈병원	협력병원	협약체결	의료진교류	초청수술	초청진료
중앙	아산병원(모자)	2013.03.01	145	-	-
	서울대병원	2016.03.28	-	4	24
	삼성서울병원	2016.11.15	-	10	-
	가천대학교길병원	2017.02.23	-	156	51
	고려대학교의료원	2019.07.24	1	8	-
부산	부산대학교병원	2010.03.05	-	28	47
	양산부산대학교병원	2010.03.05	-	41	-
	고신대복음병원	2019.04.17	4	-	-
	울산대병원	2019.06.03.	-	-	-
	부산백병원	2019.07.31	-	4	27
	경상대학교병원	2019.08.30	-	-	-
광주	전남대병원	2011.04.01	-	81	34
	조선대학교병원	2015.05.01	297	-	-
대구	경북대학교병원(모자)	2008.05.29	698	5	259
	칠곡경북대학교병원	2019.03.20.	-	1	43
대전	충남대학교병원(모자)	2007	142	129	253

※의료진 교류 : 전공의 파견, 외래교수 위촉

제6 절

환자중심 맞춤형 의료서비스 보훈요양병원

보훈병원의 특성화 일환으로 국가유공자 고령화에 따른 요양수요 증가 및 보훈의료전달체계(급성기·재활·요양) 구축과 관련해 2014년 2월 중앙보훈병원 내에 보훈요양병원을 개원했다.

시설규모는 중앙보훈병원 600병상 신축 및 기존 800병상의 리모델링 공사를 거쳐 보훈요양병원에 396병상(격리병실 포함)을 확보하게 되었다.

운영체계는 요양병원장 소속 진료부, 간호부, 운영부 및 약제과를 두었으며 운영인력은 의사직 13명 등 170명이다. 또한 급성기병원, 재활센터와 진료 전달체계 구축, 욕창관리 및 환자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다양한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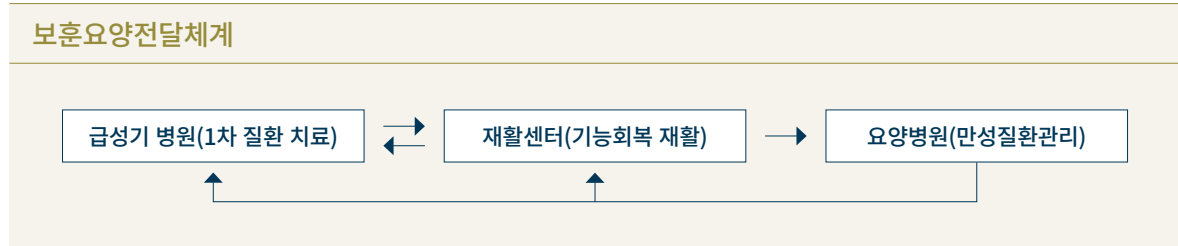
이어서 부산요양병원은 2019년부터 2022년까지 418억 원(복권기금)을 지원받아 지하 1층 지상 5층, 180병상 규모로, 광주요양병원은 2019년부터 2021년까지 193억 원(복권기금)을 지원받아 지하 1층 지상 6층, 120병상 규모로 요양병원을 건립하고 있다.

시설배치									
지하 1층	1층	2층	3층	4층-7층					
영양실	원무과, 입원상담실, 방사선실	사회사업실	전문의실, 간호부, 약국, 물리치료실, 보건의료정보관리과	4인실(300병상) 5인실(95병상) 1인실(1병상)					

운영인력									
계	의사직	간호직	조무사	약무직	보건직	사무직	기능직	기술직	업무지원직
170	13	67	30	3	14	3	3	2	35

※전문의(9) : 내과(2), 가정의학과(3), 신경외과, 외과, 이비인후과, 응급의학과

※인력산정등급(2020년) : 의사 1등급, 간호사 1등급



욕창관리

요양병원에서 많이 발생하고 있는 욕창을 예방하기 위해 욕창치료팀(상처전담 간호사 2명)을 운영하고, 욕창 고위험대상자에게 개별적인 욕창관리교육을 하는 등 체계적인 치료 및 예방으로 욕창발생이 감소하고 있다.

환자안전관리

2016년 7월 「환자안전법」 시행으로 요양병원에서도 안전한 병원환경을 제고하기 위해 환자안전위원회를 설치하고 전담인력을 배치했다. 환자안전 보고학습시스템(KOPS)을 통해 병원 간 환자안전 주의경보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낙상, 욕창 신체보호대, 환자확인 지표 분석 및 그룹웨어(EP)를 통한 정보공유와 환자안전 캠페인을 실시하고 있으며 2019년 10월 안전한 병원환경을 위한 출입통제시스템(스크린도어)을 설치했다.

보훈요양병원 욕창관리



부산보훈병원
간호간병통합서비스병동
개소



간병인 관리

간병인업체 등록에 관한 지침근거에 의해 간병인업체는 간병인의 활동을 자체 점검 및 지도하고 간병인 업체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간병인 제도 심의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 개인 간병인과 공동병실 간병인을 운영하고 있으며 50% 이상을 공동간병 병실로 운영하고 있다. 또한 병동 내 간병인 신고절차에 의해 간병업무 시작 전 간병인에게 간병업무 표준지침 및 준수사항을 교육하고 있다.

사회복지서비스

사회복지서비스를 위해 심리사회적상담과 자원연계상담, 퇴원계획상담을 실시 하고 있으며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해 여가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요양프로그램 운영 (단위 : 명)							
구분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사회복지상담	357	409	350	296	287	446	500
미술치료	367	662	637	846	896	882	847
인지자극훈련	324	714	735	746	804	892	452
재활웃음 치료	-	-	-	762	755	899	405
노래교실	494	1,057	1202	1,065	1,194	1,287	643
음악치료	337	615	735	835	906	997	57
힐링요법	96	346	394	318	339	25	-
ROM댄스	-	-	-	-	-	344	18
실버벨 프로그램	-	-	-	-	-	-	800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보훈가족 건강보장 확대 및 입원환자의 간병 부담 경감과 환자안전 체계구축, 병문안 문화 개선을 위해 간호간병 통합서비스를 도입했다.

간호간병 통합서비스는 보호자 없는 병원으로, 간호사와 간호조무사 등이 한 팀이 되어 간병인이나 가족 대신 간병과 간호서비스를 제공한다. 간호사가 입원 병상의 전문 간호서비스를 24시간 전담하고, 간호조무사와 간병지원 인력 등이 간호사와 함께 보조 역할을 수행해 개인적으로 간병인을 두거나 보호자가 환자를 돌보지 않고도 입원생활을 안전하고 편안하게 유지할 수 있다.

서비스 운영은 간호인력의 추가배치와 전동침대 및 낙상방지시스템 설치 등 안전한 통합병동 환경을 조성하고 전문교육 실시와 진료과·원무 입원 담당·병동 간의 실시간 정보공유로 원활한 입원 연계, 환경개선 등으로 높은 환자 만족도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 만족도 : 광주병원 99점, 부산병원 98점, 대구병원 97점, 대전병원 96점, 중앙·인천병원 90점

중앙보훈병원과 광주보훈병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주최한 간호간병통합 서비스 병동 체험수기 UCC공모전과 간호서비스 디자인 QI경진대회에서 각각 최우수상과 대상을 수상했으며, 대구보훈병원은 2021년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우수 운영사례 경진대회에서 우수상을 수상했다.

또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중앙보훈병원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시설개선에 1억 4,000만 원을 지원했다.

병원별 운영현황(2021년 8월 기준)							
구분	계	중앙	부산	광주	대구	대전	인천
병상수(병상)	581	181	48	89	90	85	88
병상가동률(%)	88.2	90.0	93.3	94.7	89.4	93.0	69.6

가정간호 서비스

인구의 고령화로 만성 퇴행성 질환 증가 및 각종 사고와 재해로 인하여 거동 불편 인구가 증가하고 있으나, 산업화 및 핵가족화 등으로 가족들의 수발능력이 감소함에 따라 국민의 가정간호 요구가 급증하였다. 이에 국민의 요구에 부응하여 의료 이용의 편의를 도모하고 의료비 부담을 절감할 수 있는 수요자 중심 보건의료제도 도입의 필요성이 커졌으며 의약 분업, 진료비지불제도의 변화로 인해 보건의료제도의 대변혁에 대처할 수 있는 보건의료 제도로써 장기입원이나 불필요한 입원으로 인한 의료자원 낭비를 줄이고 자원 활용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입원 대체 서비스의 도입이 요구되었다.

가정간호 서비스의 효과는 수요자 측면에서는 가정간호로 치료의 연속성 유지 및 심리적 안정감 도모 등을 통해 삶의 질 향상, 국민의료 이용 편의 제고 및 가계 부담을 절감할 수 있고, 공급자 측면에서는 조기 퇴원을 통한 재원 기간의 단축으로 병상 회전율을 높이고, 병원의 인적·물적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정부 측면에서는 국민의 편의를 도모하고, 의료비 절감과 보건 의료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1990년 1월 「의료법」 개정으로 가정전문간호사 자격 기준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으며, 「의료법」 시행규칙 제24조에 따라 업무 분야별 간호사 자격 기준에 가정간호 분야의 ‘전문 간호사’조항이 신설되었다.

2000년 1월 「의료법」이 개정되어 「가정간호사법」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의료법」 제33조에 의거 의료기관 외에서 행할 수 있는 의료행위

범위에 가정간호가 포함되었고 가정간호 대상자, 업무 범위, 담당 인력 등 가정간호 사업의 세부 사항이 시행규칙 제24조에 명시되었다. 한편 병원 중심 가정간호 사업이 시범적으로 시행되어 1차 시범사업(1994.9~1996.12)은 3차 진료 기관 4개소 (세브란스 병원, 강동성심병원, 원주 기독교 병원, 영남대 의료원)에서 실시하였고, 2차 시범사업은

(1997.5~2000.12) 전국 37개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서 실시하였다.

중앙보훈병원은 1993년 7월부터 국가유공자가 단체로 거주하는 용사촌을 중심으로 가정간호 서비스를 실시했으며, 1997년 진행된 2차 시범사업에서 전국 37개 병원급 의료기관 가운데 하나로 지정되기도 했다.

병원 중심의 가정간호 시범사업은 2차에 걸쳐서 평가하였다. 1차 시범사업 평가에서는 의료비 절감 효과와 병상 회전율 및 이용 환자의 편의 제고 효과는 높은 것으로 평가되었으나, 사업 시행 기관이 매우 적었고, 시범사업 기간도 매우 짧아서 사업을 전국적으로 확산하기 위해서는 시범사업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결정되었다. 2차 시범사업 평가에서는 국민의 의료 수요 충족과 이용 환자의 만족도 제고라는 성과를 입증함으로써 가정간호 사업의 제도에 기여하였으며, 가정간호 사업의 확대를 위한 구체적인 사항을 제시하였다.

2014년에는 요양시설에도 가정간호 요양급여가 가능해짐에 따라 수원보훈 요양원(2014년), 남양주보훈요양원(2015년), 민간요양시설 및 사회복지시설(2016년) 등 기관 가정간호 서비스를 확대 실시하여 편의성 제공과 지역사회 주민의 건강증진 및 관리에 기여하였다. 또 2014년에 방문 횟수도 96회 제한 조항이 삭제되면서 환자 상태에 따라 맞춤형 가정간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되었다.

가정간호 운영 프로그램

기본간호로 간호 사정 및 간호진단 외에 온·냉 요법, 체위 변경 등은 가정간호사 독자적인 판단하에 시행하고 있으며 치료적 간호로는 비위관 교환, 유치 도뇨관 교환, 기관절개관 교환 및 관리, 산소요법, 욕창치료, 단순 상처치료, 염증성 처치, 봉합사 제거, 방광세척 등을 시행하고 있다. 또한 가정간호 서비스를 제공하는 동안 환자 상태 변화를 파악하는 데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혈액, 소변, 객담, 대변 등의 검사, 투약 및 주사를 수행하고 있다. 가정에서의 환자 및 가족의 건강관리에 필요한 식이요법, 운동요법, 치료법, 기구·장비 사용법 교육, 환자 상태 변화 시 대처방법, 질병의 진행과정 및 예후설명, 가족문제, 환경관리, 완화의료간호 이용 등에 대한 상담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그리고 환자와 보호자 요청에 따라 타 가정간호 실시 기관, 보건소, 종합 사회복지관, 주간 보호시설, 아동 목욕센터, 호스피스 등 연계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 또한 가정간호 대상자 중 중증환자 및 취약가구를 파악해 집중 관리하고 있으며, 저소득층에 대한 의료장비 무상임대 및 의료소모품을 지원하고 있다.

광주보훈병원
가정간호서비스



(최근 3년간 3만 건) 또 가정에서도 쉽게 적응할 수 있도록 가정이라는 특수 환경을 고려해 환자와 보호자 눈높이에 맞춘 교육 자료를 개발해 교육함으로써 건강관리 능력을 향상시켜 재입원율을 낮추고 병상회전률 향상과 만족도 증진에 기여했다. 특히 중앙보훈병원 간호부장(윤영미)은 대한간호협회 가정간호사회 회장(2014~2018년)을 역임하면서 수가인상 및 방문횟수의 제한을 없애고 요양원 방문서비스를 시행했으며,가정간호 서비스의 표준 마련, 가정간호 수가개발 및 서비스의 질적 향상으로 국내 의료기관의 가정간호사업 정착과 보훈의료·복지사업의 가정간호 서비스 수준 향상에 크게 기여하였다.

제도 변경	
구분	주요 내용
2011	보훈의료복지통합서비스(Bohun-THIS) 사업 참여 - 보훈가족에게 찾아가는 맞춤형 서비스 정착에 기여 - 생활편의 시설 및 주거환경 개선 연계 및 지역사회 지원 연계
2013	가정간호 대상 증가로 맞춤형 방문 확대 실시
2014	요양시설의 가정간호방문 확대(2014.05)에 따라 수원보훈요양원 실시 가정간호 연 96회 방문 횟수 제한 폐지로 환자상태에 맞는 방문 강화 가정간호 수가인상으로 가정간호 경제성 강화
2015	남양주요양원 개원과 동시 가정간호방문 실시
2016	민간요양원 및 노인종합복지관 방문 확대 실시
2017	가정간호 중증환자 방문 확대 실시
2018	취약가구 집중관리 및 지역사회 연계사업 확대 실시
2019	의료급여 환자의 가정간호 방문 제한 및 교통비 본인부담 폐지

가정간호 실적(2020년)						
구분	등록환자				방문횟수	전문간호사
	국비	감면	일반	계		
중앙병원	415	188	104	707	17,463	14
부산병원	84	24	8	116	2,152	2
광주병원	89	210	52	351	4,229	3
대구병원	79	48	19	146	2,500	3
대전병원	39	6	6	51	2,342	2
인천병원	11	9	-	20	94	2

호스피스

호스피스(Hospice)는 라틴어의 Hospitals와 Hospitium 즉, 주인과 손님 사이의 따뜻한 마음과 그러한 마음을 표현하는 장소에서 변천되어 왔다. 보훈병원 호스피스사업은 국가유공자들의 암 질환 발생이 증가하면서 현대 의학으로 더는 치료가 불가능한 말기 환자들을 대상으로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경제적, 영적 돌봄을 통해 이들이 마지막 순간까지 인간답게 가치 있는 삶을 유지하고 남은 가족은 고통과 슬픔을 덜 수 있게 하고 있다.

보훈병원에서는 호스피스팀을 전문의, 호스피스 간호사, 약사, 영양사, 성직자 등으로 구성된 의료인팀과 사회복지사, 호스피스 자원봉사자, 환자가족 등으로 구성된 비의료인팀으로 구분해 돌봄을 수행한다.

호스피스팀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전문의(의사)는 호스피스 의료 책임자로서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환자의 증상을 관리하며, 완화치료와 증상관리 전문가로 다른 팀원들에게 의학적 교육과 자문을 제공한다. 자격은 암 전문의, 내과 전문의, 가정의학 전문의로서 말기환자 치료나 임종환자에 대한 경험, 종양학과 말기 환자 관련 통증과 증상조절에 대한 전문지식을 갖고 호스피스 완화의료 표준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간호사는 환자와 가족에대한 평가에 근거하여 환자와 가족의 요구에 일차적으로 대응해 신체적 돌봄을 제공하고, 가족 교육과 상담을 실시하며, 말기환자의 통증과 증상 조절에 대한 투약, 관찰, 기록 등 간호서비스와 사별가족 돌봄을 제공한다. 자격은 호스피스전문간호사이거나 호스피스 완화의료 표준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사회복지사는 임종환자와 그의 가족을 돕기 위해 재정적, 법적, 보험관계 등의 문제해결과 사회심리적인 측면의 도움을 주기 위해 상담자 역할을 수행하며, 사별가족이 환자의 죽음으로 인한 슬픔과 상실에 대한 고통을 극복하도록 지원한다. 자격은 사회사업가로 건강관리 전달체계 또는 지역사회 내에서 상담자로서의 경험과 호스피스에 대한 사회복지사 원칙과 실무적인 지식을 보유하고 호스피스 완화의료 표준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다학제팀을 통한 초기 산재형 호스피스 운영

자원봉사자는 호스피스 프로그램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며 호스피스 완화의료 병동이나 가정에서 환자와 가족에게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직접적인 환자수발, 이·미용 봉사 및 목욕, 환자와의 대화, 영적 지지 및 가족지지, 장례식장 참여, 사별가족 돌보기 등 환자와 가족을 돕고 지지하는 역할을 한다.

보훈병원 호스피스 운영은 1999년 중앙보훈병원에서 지역사회 종교단체 후원으로 호스피스 봉사자를 결성하고, 간호부 소속 호스피스 활동을 시작했다. 2001년 호스피스 사업실이 신설되어 내과 암 병동 위주의 산재형 호스피스로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영양사, 성직자 등 다학제팀을 구성하면서 활발한 호스피스사업을 전개했으며, 암 병동 내 호스피스 병실(1병실)과 호스피스 임종방을 별도로 운영하였다. 2007년 호스피스 전문간호사를 배출했으며, 2012년 호스피스 병동(24병상)을 개설하여 2014년 요양병원 호스피스 병동(33병상)으로 이전했다.

2015년 보건복지부는 중앙보훈병원을 완화의료 전문기관으로 지정했으며 2018년 가정형·자문형 호스피스 시범사업 기관으로 선정하였다. 또한 중앙보훈병원에 이어서 2003년부터 부산·광주·대구병원 등 지방보훈병원에서 호스피스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이와 같은 호스피스운영 활성화로 보건복지부 평가 결과,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2016년부터 매년 국고보조금을 교부받고 있다.

호스피스 환자와 가족을 위해 의사와 간호사, 자원봉사자가 매일 각 병동에 흩어져 있는 환자병실을 방문해 기본적인 환자의 신체간호와 통증관리를 하면서 병실 주변 환경을 청결하게 관리하며, 개인위생을 위해 주기적으로 목욕과 이발봉사를 실시하고, 보호자 상담과 간호 및 처치행위를 하고 보호자를 위로한다. 그리고 말기 암환자와 보호자 등을 대상으로 호스피스 월례강좌를 개최하고, 자원봉사자 질적 수준향상을 위한 재교육, 자원봉사자 양성을 위한 일반인 대상 자원봉사자 교육, 호스피스 실무자와 자원봉사자의 역량강화를 위한 학술세미나 및 워크숍, 수발 보호자와 환자 돌봄 교육을 수시로 실시한다. 더불어 자원봉사자 팀 모임과 호스피스 전문팀 모임, 호스피스 운영위원회, 호스피스 환자를 위한 의사와 간호사 콘퍼런스를 열어 환자정보를 상호 공유한다. 또한 자원봉사자의 질적 향상을 위한 팀 모임과 자원봉사자 팀워크를 위한 수련회 실시 등을 통해 자원봉사자를 관리한다. 대전 현충원 방문과 추모의

날 행사를 열어 사별가족을 위로하고 지지하며, 안부전화를 하거나 내원하는 사별가족과 상담을 하고 장례식장 방문을 한다.

호스피스완화의료 전문병동 운영

중앙보훈병원 호스피스완화의료병동에서는 매주 보호자를 대상으로 가족 교육을 진행하고 있으며 생일 및 기념일 축하행사, 절기행사(설, 추석, 복날, 대보름 등), 소원성취프로그램, 힐링밥상 등 다양한 돌봄 행사를 통해 지속된 투병생활로 인해 지친 환자와 가족을 위로하고 환자와의 소중한 추억을 만들 수 있도록 돕고 있다. 또한 전문 강사를 통한 미술, 아로마, 원예 등 다채로운 수업을 진행해 환자와 보호자의 스트레스 완화 및 심리적 안정을 도모하고 사별가족을 대상으로 정기적인 위로편지 발송 및 자조모임 등을 통해 가족이 애도과정을 잘 극복하고 사별 전 안녕상태로 회복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호스피스완화의료병동은 매년 호스피스 전문기관평가를 통해 교부받은 국고 보조금으로 시설 및 장비를 개선하고 있으며, 이는 환자 및 보호자들에게 안락함을 제공하고 호스피스완화의료에 대한 긍정적인 이미지를 심어주는 계기가 되고 있다. 또한 원내 성직자 방문, 영적 예식 지원이나 도서·음반 구입 등을 통한 환자나 보호자의 영적 돌봄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다.

코로나19가 지속되고 외부인의 방문이 제한된 환경에서, 환자와 보호자를 위한 호스피스서비스 활동에도 다양한 변화를 주어, 요법프로그램 진행의 새로운 방법으로 줌(zoom)을 통한 온라인 음악요법과 미술요법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자원봉사활동이 중단된 상황에서도 호스피스 자원봉사자의 역량개발과 소속감 고취를 위한 온라인 보수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부산보훈병원은 2018년부터 2021년까지 보건복지부로부터 완화의료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되었다. 국립암센터와 연계해 완화의료기관 멘토링 제공을 하며 선도적으로 완화의료전문기관 역할을 하고 있다. 사별가족모임에서는 지역사회의 자원을 연계해 사상구 정신건강복지센터와 함께 전문적인 사별가족 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부산지역에 있는 의료기관에 호스피스완화医료를 알리고 있다.

광주보훈병원은 완화의료서비스 제공을 통한 말기 환자의 품위 있는 임종 여건을 위해 통증캠페인을 실시하고, 죽 나눔 행사, 어버이날 절기행사, 초복 맞이 삼계죽 나눔, 소확행 프로그램(꽃다발, 꽃병 선물)으로 마음의 안정을 유도한다. 코로나19로 인한 언택트 면회‘땡땡! 사랑의 배달부’ 프로그램을

실시해 사진이나 환자가 가족에게 남기고 싶은 영상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으며, 캠페인을 통해 다양하게 홍보활동을 하고 있다.

대구보훈병원 호스피스완화의료팀은 2013년 국가암관리사업 평가대회 최우수상, 2015년 국가암 관리사업 정부포상 국무총리표창(기관포상), 2017년 국가암관리사업 평가대회 우수상을 수상하였으며 TBC(대구방송) 리얼인터뷰通, TBC 8시 뉴스, KTV 이슈본, 메디컬tv 특선다큐 등 TV와 기사를 통한 매체 홍보 및 통증캠페인, 호스피스 완화의료주간 캠페인 등에도 적극 참여하고 있다. 대전보훈병원은 보건복지부 주관 2020년 국가 암 관리사업 우수사례에서 장관상(존엄한 생애말기 지원 사업 활성화), 지역암센터 주관 2020년 암 관리사업 우수사례평가대회에서 존엄한 생애말기 지원사업 ‘당신 곁에 호스피스’로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가정형·자문형 호스피스를 통한 수요자의 선택권 존중으로 호스피스 이용률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1 대구보훈병원 호스피스완화의료
2 대전보훈병원 호스피스완화의료



호스피스 운영						
구분		중앙	부산	광주	대구	대전
전용병상수		28	20	29	18	16
환자수(연인원)		9,379	6,196	9,658	5,427	4,651
인력	의사	3	2	3	2	2
	간호사	15	15	16	11	11
	사회복지사	3	2	2	2	2
	자원봉사자	44	116	40	50	11

가정형 호스피스 운영

보훈병원은 완화의료의 연속적인 제공 및 가정에서의 호스피스완화의료에 대한 요구 증가에 따라 말기암 환자와 가족의 선택권 보장을 위해 가정형 호스피스를 시행하고 있다.

중앙보훈병원은 2016년 12월 전담간호사를 배치해 가정방문 호스피스를 시작했으며, 2018년 사회복지사를 배치해 서비스를 강화했고, 2018년 9월 가정형 호스피스 시범기관으로 선정되어 가정형 호스피스팀(의사, 간호사 2, 사회복지사)을 구성해 운영하고 있다. 2020년 9월에는 5개 보훈병원(중앙, 부산, 광주, 대구, 대전)이 보건복지부가 선정한 가정형 호스피스 전문기관으로 지정되어 지속적인 가정방문 호스피스를 제공하고 있다.

가정 호스피스는 통증관리, 상처 및 욕창관리, 튜브류 교환 및 관리, 채혈 및 검사, 교육 및 상담, 영적돌봄 제공, 호스피스프로그램(아로마요법, 원예요법, 절기행사 등) 제공, 자원봉사자 연계, 24시간 상담 및 방문 등을 시행한다.

중앙보훈병원 (단위: 건)					
구분	2016	2017	2018	2019	2020
환자등록	2	38	53	138	121
간호사 방문	4	451	679	1,645	1,367
이벤트 및 행사	-	-	35	118	126
입원연계	-	-	-	59	52
주·야간 전화상담 서비스	-	-	500	2,053	2,550
임종돌봄 서비스	-	-	-	18	22
사별가족 관리	-	-	62	277	201

지방보훈병원(2020년)					
(단위 : 건)					
구분	부산	광주	대구	대전	인천
환자등록	41	40	44	51	-
간호사 방문	634	414	508	699	-

권역별
호스피스센터 지정

중앙보훈병원은 호스피스완화의료의 권역 대표 주자로서 주도적 역할을 수행 하며 국가유공자의 존엄한 삶을 마무리하고 웰다잉을 위한 전인적 돌봄실천을 위해 2017년 12월 보건복지부로부터 권역별 호스피스센터로 지정됐다.

권역별 호스피스센터는 해당 권역의 호스피스 사업지원·교육·훈련 및 호스피스 전문기관들에 관한 의료·사업지원 등을 통해 권역 내 호스피스서비스의 체계적인 제공 및 질 향상을 도모하는 것으로 2021년 현재 전국 권역 호스피스 센터는 10개소이다.

권역별 호스피스센터의 필수인력 기준은 센터장·실무책임자·권역별센터 사업 업무 총괄을 위해 팀장급과 2명 이상의 팀원을 배치하고 있다.

권역별 호스피스센터 운영				
구분	2018	2019	2020	비고
표준교육(회/명)	2 / 82	2 / 72	1 / 21	코로나19로 인한 사업의 축소 및 폐지, 비대면 교육 및 홍보 프로그램 개발
전문인력 보수교육(회/명)	-	2 / 68	1 / 31	
질 향상교육 및 심화교육	-	2 / 66	-	
돌봄제공자 양성교육(회/명)	-	-	1 / 13	
가정형/자문형 추가교육	-	1 /(39/25)	1 /(28/37)	
홍보사업(홈페이지/유튜브)	-	-	제작 및 개설	
홍보사업(홍보제작/지하철광고)	1	3	4	
연계사업 및 지원사업 (정례회의 개최 및 참석)	5회	18회	5회	
통증캠페인 및 완화주간행사	2회	2회	2회(5월/11월)	

연명의료결정제도

「연명의료결정법」은 국가유공자 및 가족, 지역주민이 죽음과 임종과정에서 연명의료에 대한 결정을 스스로 내릴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2016년 「연명의료결정법」이 제정되고 2018년 시행됨에 따라 중앙보훈병원은 내부위원 13명과 외부위원 3명을 포함한 의료기관 윤리위원회를 구성하고 보건복지부 산하 연명의료 관리기관에 등록했다. 그리고 「연명의료결정법」 도입과 관련된 의료진 교육(의사직 75명, 간호직 465명)을 실시했다.

2018년 중앙보훈병원-보훈요양병원 의료기관 윤리위원회 업무위탁 협약을 체결했으며, 2019년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으로 지정되었다. 2020년부터는 「연명의료결정법」 관련 수가 시범사업에 참여하고 있으며, 지방보훈 병원(광주, 대구, 대전병원)도 시범사업에 참여하고 있다.

중앙보훈병원 연명의료 서비스 제공			
(단위 : 건)			
구분	연명의료 상담	연명의료 계획서	연명의료 이행서
2019	28	10	8
2020	55	13	25

호스피스 보조활동
인력제도

중앙보훈병원은 2015년 7월 호스피스완화의료전문기관으로 지정됨에 따라 수가 도입으로 대상자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전문적인 호스피스 간병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2016년 완화의료 돌봄 도우미 제도를 도입했으며, 한국 호스피스완화 의료학회와 완화의료 돌봄도우미 기관 실습협약을 체결 했다. 2018년 호스피스 보조활동 인력 36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했으며, 돌봄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정기적인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지방보훈병원 (부산, 광주, 대구, 대전)도 완화의료 도우미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민간병원 완화의료 도입기관 교육

「연명의료결정법」 제21조, 제25조에 의거 호스피스전문기관 종사자는 의무 사항으로 기본교육(표준교육, 이러닝 교육)을 60시간 이수해야 한다.

중앙보훈병원은 2001년부터 실시하던 호스피스 봉사자 양성교육의 노하우를 바탕으로 양질의 호스피스 자원봉사자의 원활한 수급을 위해 자원봉사자 재교육 및 심화교육 등을 실시하고 있다.

호스피스완화의료
평가

「연명의료결정법」 제29조(호스피스전문기관의 평가),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시행규칙 제23조에 근거해 보건복지부 지정 호스피스전문기관은 매년 기관 평가를 위한 사업실적보고서 및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기관운영의 적정성과 사업실적 내용을 평가받는다. 보훈병원은 평가 결과에 의거해 2016년부터 호스피스사업 국고보조금을 교부 받고 있다.

구분	2017	2018	2019	2020	비고
중앙	최우수	최우수	최우수	충족	※ 2016~2019년 평가기준 - 최우수(90점이상) - 우수(80점이상 90점미만) - 보통(65점이상 80점미만) - 미흡(65점 미만)
부산	최우수	최우수	최우수	충족	
광주	우수	우수	우수	충족	
대구	최우수	최우수	최우수	충족	※ 2020년 이후 평가기준 - 충족 / 미충족
대전	우수	우수	최우수	충족	

2016년부터 호스피스완화의료 전문인력 표준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국립암센터와 권역별 호스피스센터에서 실시하는 표준교육 과정생 기관실습도 실시하고 있다.

2018년 국립암센터 이러닝 호스피스교육과정생의 호스피스전문기관 실습을 위한 협약을 체결하고, 이러닝 과정 기관실습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4개 보훈병원(중앙, 광주, 대구, 대전)이 완화의료 교육기관을 운영해 공공기관의 위상을 높이고 자원봉사자 재교육 및 심화교육 등을 통해 호스피스 서비스 질 향상에 기여하고 있다.

중앙보훈병원						
구분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표준교육	-	1회(35명)	1회(40명)	2회(82명)	2회(72명)	1회(21명)
자원봉사자교육	1회(43명)	1회(44명)	1회(20명)	2회(60명)	2회(71명)	-
표준교육 기관실습	-	38	46	43	20	21명
이러닝과정 기관실습	-	-	-	2	22	3명
완화의료도우미 실습교육	-	12	33	33	31	-

간호인재개발센터



간호인력 운영

간호인력 등급제

간호인력 등급제(간호관리료 차등제)는 간호인력 확보 수준에 따라 기본진료비 중 입원료를 차등 지급하는 제도다. 적정수준의 간호인력을 확보함으로써 환자들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기 위한 목적으로 1999년 11월 15일 시행되었다. 간호인력 등급제는 일반병동과 중환자실이 달리 적용되며, 일반병동의 경우 최상위 등급인 1등급부터 최하위 등급인 7등급까지 7단계로 구분되어 상위등급을 운영할수록 간호서비스의 질이 높아진다고 볼 수 있다. 보훈병원은 의료의 질 향상을 통한 만족도를 높이고자 간호등급 상향조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상급종합병원 수준에 이르는 간호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종합병원 간호인력 등급기준		
구분	병상 수 : 간호사 수	입원료 가산
1등급	2.5 : 1 미만인 경우	2등급 입원료 소정점수의 10% 가산
2등급	3.0 : 1 미만 2.5 : 1 이상인 경우	3등급 입원료 소정점수의 10% 가산
3등급	3.5 : 1 미만 3.0 : 1 이상인 경우	4등급 입원료 소정점수의 15% 가산
4등급	4.0 : 1 미만 3.5 : 1 이상인 경우	5등급 입원료 소정점수의 10% 가산
5등급	4.5 : 1 미만 4.0 : 1 이상인 경우	6등급 입원료 소정점수의 10% 가산
6등급	6.0 : 1 미만 4.5 : 1 이상인 경우	입원료 소정점으로 산정
7등급	6.0 : 1 이상인 경우	입원료 소정점수의 5% 감산

간호인력 등급(일반병동)											(단위: 등급)	
구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중앙	4	2	2	2	2	2	2	2	2	2	2	
부산	5	4	4	4	4	3	3	3	3	2	2	
광주	5	4	4	4	3	3	3	3	3	2	2	
대구	5	4	4	4	4	4	4	3	3	2	2	
대전	5	4	4	4	4	4	3	3	3	2	2	
인천	-	-	-	-	-	-	-	3	1	1	1	

간호인재 개발

간호인재 개발센터는 2019년 4월 4일 개소하여 간호업무 표준화와 간호사의 역량강화 및 임상적응을 위한 시뮬레이션 교육을 시행하고 있으며, 교육전담 간호사는 간호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지속적인 이론과 실습교육을 통해 환자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전문 간호인을 양성하고 있다.

간호인재 개발센터 교육 시설 및 장비



1 간호인재 개발센터
2 시뮬레이션실 1
3 시뮬레이션실 2
4 EMR 실습 강의실

교육프로그램		(단위 : 명)		
구분	교육	교육인원		
		2018	2019	2020
신규간호사 실습 시뮬레이션 교육	신규간호사 2주 직무교육(기본간호, 핵심술기)	133	178	163
	10주차 신규간호사 형성평가 및 피드백 간담회	79	143	125
	신규간호사 현장 모니터링 교육	-	1275	1304
	입사 6개월 임상간호 실무과정	-	-	16
	SBAR를 활용한 치료적 의사소통	-	-	70
	의료기기 교육(Ventilator, CRRT, High flow)	-	34	42
	수술전 진단 검사간호	-	-	29
경력간호사 실습 시뮬레이션 교육	자기주도학습(Self Directed Learning)	-	-	906
	병동별 심화 CPR 시뮬레이션 교육	-	141	110
	프리셉터 및 경력간호사 역량강화 교육	-	80	70
관리자 리더십 교육	간호 관리자 역량강화 교육	-	36	26
	승진자 및 관리자 리더십 교육	39	29	45
간호·간병통합 서비스 직무교육	간호·간병 통합병동 임상실무 직무교육	-	-	15
감염병 전담병동 간호사 교육	감염병 전담병동 간호사 임상간호 교육	-	-	47

FMEA(Failure Mode Effect Analysis)

시스템 사용고정 중에 발생하는 사고에 대해 사고와 원인의 관계를 계열적으로 해석하는 신뢰성 해석수법

환자안전 관리

의료기관의 환자안전 문화가 환자에게 긍정적 영향을 미치므로 환자안전 저해요인을 사전에 관리하고 환자안전을 최우선으로 하여 사고 예방 및 유사 사고 재발 예방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주요내용은 환자안전위원회를 운영해 낙상사고, 화재사고, 감염사고, 통증관리, 합병증관리, 진단오류, 환자확인, 투약오류, 의료사고 등 각종 환자안전 사고 예방과 개선 활동을 시행하고 있다.

환자안전 문화 확산을 위해 환자안전 리더십 워크라운드, 환자안전 주간행사 실시, 환자안전의 날 우수사례 발표, 환자안전 문화 향상제도, QPS뉴스레터 발행 등을 추진해 환자안전에 대한 인식과 문화에 긍정적인 변화를 보이고 있다. 낙상 재교육 활동(Teach Back), 낙상예방 라운딩, 낙상사고 분석 및 개선활동을 통해 낙상예방을 강화하고 있으며, 고장유형 및 영향분석(FMEA), 안전사고별 고장유형에 따라 원인을 분석하고 문제점을 개선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있다.

고장유형 및 영향분석(FMEA) 활동					
구분	중앙병원	부산병원	광주병원	대구병원	대전병원
2016	투약오류	낙상예방	투약오류	-	낙상예방
2017	낙상예방	낙상예방	조제오류	낙상예방	투약오류
2018	욕창예방	투약오류	낙상	환자확인	수혈오류
2019	검체오류	환자확인	낙상	환자확인	검체오류
2020	환자확인	검체오류(채혈)	환자확인 오류	투약오류	영상오류

추진사항	
구분	개선사례
환자안전 체계강화	• 환자확인 시스템 개선(외래 환자확인증 도입, 동명이인 내원 시 EMR 전 분야 Pop up 시스템 개발) • 수술실 입실 전, 수술 전, 절개 전 Time out 시스템 강화 • 낙상고위험환자 환자인식팔찌 및 표지판 부착 등을 통한 전부서 관리 강화 • 수혈 Time out 시스템 개발 • 위험관리체계 구축을 통한 위험요인 파악 및 우선순위에 따른 FMEA, RCA 활동으로 개선활동 실시 • 환자안전사건 발생 시 원내 주의경보 발령을 통한 직원 공유
화재관리 강화	• 소화기, 소화전 안내판 및 시각경보기 부착 • 피난안내도 부착, 방화셔터 주변 관리 등 화재 관련 시설 재정비 • 부서 내 화재대처 매뉴얼 마련 및 숙지 • 화재 발생 시 환자/보호자 대처요령 안내
의약품 관리강화	• 고위험 의약품 분리보관 • 주사실, 소아청소년과 백신냉장고 설치 • 병실약국 Pass box 관리를 위한 보안키 설치 • 의약품 안전보관을 위한 응급카드 의약품 표준화 및 봉인 • 필요시 처방 의약품 모니터링을 통한 목록 관리 및 적응증 오류 최소화 • 병동 의약품 준비구역 개선을 통한 감염관리 강화
시설 및 환경개선	• 시술장 내 세척실 분리(내시경실, 인터벤션실, 치과병원 등) • 시술장 내 foot switch 시스템 마련 • 휴게실 내 x-ray 촬영 시 병실 피폭 예방을 위한 차폐벽 설치 • 병동 내 오물처리실 세탁물과 세척공간 분리 • 치과병원 중앙공급실 환경 개선 • 세탁물 집하장 기타/오염구역 격벽 구획
기타 사항	• 영양집중지원팀(NST) 구성을 통해 다직종 간 협력체계 구축 • 이상검사 발생 시 해당 의사에게 SMS 발송 및 확인 시스템 개발 • 원내 비상상황 발생 시 방송코드 표준화(화재 : 코드레드, CPR : 코드블루, 유괴 : 코드핑크)

환자안전
관리 시스템

- 응급·중증질환자의 경우, 환자 의식 불명 등으로 신속한 본인확인이 곤란함에 따라 스마트 디바이스(PDA)를 활용한 차세대 안전관리 시스템을 2020년 도입하여 입원환자관리를 자동화했다.
 - 입원환자 QR코드, EMR, 휴대 스마트 디바이스 연계시스템으로 환자 확인, 투약관리(주사, 마약 등), 수혈, 채혈, 처치, 기록 전자동화

전자동의서
시스템

- 종이 기반의 수기로 작성하고 있는 각종 동의서를 모바일 디바이스(Tablet pc)를 통해 병원정보시스템과 연동해 one-stop 업무처리 기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기존 1065종 → 624종 표준서식 적용)
- 환자안전관리 및 전자동의서 시스템 운영을 위한 무선 네트워크를 구축했다.
 - 랜 공사, 무선AP(650대), 중간통신장비(30대), 인증시스템(1식, 관리S/W 1식) 등

자동 약제
배분시스템(ADS)

- 약물 오용으로 인해 환자 생명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정확성을 높이는 체계적 방안으로 자동 약제 배분시스템을 도입해 고위험 약제 조제 및 배분을 자동화했다.
- 약국의 조제·검수·배송 3단계를 1단계로 간소화해 오류를 사전예방하고 약제 조제 시간을 63% 단축했다.

치매환자
보호구 개발

- 치매 등 거동이 불편한 환자가 결박억제대를 착용했을 경우 화재 등 재난 상황 시 구조가 어려워 피해가 우려됨에 따라 사내벤처 학습동아리에서 공기튜브형 치매환자보호구를 개발했다.(시제품 개발완료, 특허출원)
- 자해행위를 예방하면서 환자이동을 보장하는 에어튜브타입 억제대를 사용함으로써 환자 편의 및 안정성을 높일 수 있다.

감염예방 관리

보훈병원은 환자, 내원객, 직원 간에 감염전파를 최소화하고 지역사회 전파를 예방하기 위해 감염 관리실을 설치하고 감염 예방시설을 확충했으며, 효율적인 감염 관리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특히 메르스, 코로나19 등 신종감염병 유행 시에는 공공의료 역할을 수행해 병원유입과 지역사회 전파 차단에 주력했다. 감염 관리시설 확충으로는 음압격리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법정감염병, 다제내성균이 검출되는 환자의 격리병실을 별도 운영하고, 출입통제 시스템 (스크린도어 59)을 설치해 관리하고 있다. 전국 보훈병원에 감염 관리실을 운영하고 있다.

보훈병원 음압병실						(단위 : 병상)
구분	계	중앙병원	부산병원	광주병원	대구병원	대전병원
계	22	9	3	4	3	3
병동	12	7	1	2	1	1
중환자실	5	1	1	1	1	1
응급실	5	1	1	1	1	1



대전보훈병원 국가직정음압병상

감염관리실							(단위 : 명)
구분	계	중앙병원	부산병원	광주병원	대구병원	대전병원	인천병원
계	35	11	6	6	5	5	2
의사	13	4	2	2	2	2	1
전문간호사	10	5	1	2	1	1	0
일반간호사	12	2	3	2	2	2	1

감염관리 프로그램

감염예방 활동으로는 질병관리청, 대한의료관련감염관리학회가 주관하는 전국 의료 감염감시 체계에 참여해 중환자실 요로감염, 혈류감염, 폐렴, 수술부위 감염 감시를 하고 있으며, 질병관리청 의료관련감염병 표본감시체계에 참여해 다제내성균 분리율의 대외적 비교 분석과 의료 질 평가의 항생제 내성감시 체계 평가지표에 반영하고 있다. 중환자실 감염예방 개선활동, 다제내성균 관리를 위한 감염예방활동, 감염전파 경로별 감염관리, 손위생 증진활동과 교육을 통해 체계적으로 감염예방을 위한 관리를 하고 있다.

중앙보훈병원은 2018년 의료관련감염병 표본감시 워크숍에서 우수사례를 발표했으며, 질병관리청 의료관련감염병 예방·관리사업에 참여해 서울시, 권역 중심병원, 권역 참여병원과의 네트워크를 통해 의료관련감염병 예방관리 증진 활동을 하고 있다.

신종감염병 대응체계

신종감염병 위기대응 모의훈련을 매년 실시해 매뉴얼을 제작·보완하고 신종감염병 방역활동으로 감염병 비상대책단을 편성했다. 병원장을 단장으로 환자진료반, 감염관리반, 행정지원반, 진료지원반을 운영해 유행성 감염병 위기경보 발령 수준에 따른 대응체계를 구축했다.

메르스 대응체계

2015년 5월 메르스 환자 국내 발생으로 보훈병원은 메르스 대책단 편성과 병원 출입구 통제, 선별진료소 설치, 메르스 대응매뉴얼을 제작해 관리했으며, 보건복지부 국민안심병원으로 지정되었다.

메르스 환자가 확산하면서 보훈병원 인근 의료기관이 폐쇄(서울삼성, 강동경희 등)되는 등 위기감이 커졌다. 특히, 국가유공자 내원환자 대부분이 65세 이상 고령·복합만성질환자로 보훈병원 내 확산 시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었다. 이에 ‘단 1명의 환자도 발생, 유입되어서는 안된다’는 전사적(본사, 보훈병원, 보훈요양원 등) 대응체계를 가동해 적극 대처한 결과, 2015년 12월 24일 메르스가 종식될 때까지 메르스 확진자가 단 1명도 발생하지 않은 서울동부권역 유일한 종합병원으로서 언론매체 및 국가유공자의 격려가 쇄도했다.

코로나19
대응체계

2019년 12월 중국 후베이성 우한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코로나19)가 발생하여 2020년 1월 국내에서도 첫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진자가 발생했다. 이에 보훈병원은 감염병 전담병원 운영, 의료진 파견, 백신접종 실시 등 급변하는 코로나19 위기 상황 속에서 공공의료기관으로서 감염병 확산 대응 및 예방관리에 전사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위기대책본부 운영

대구지역 확진자 발생 등 지역사회에서 코로나19 바이러스가 확산됨에 따라 병원의 현장을 지원하고 비상상황 시 대응체계를 가동하고자 2020년 2월부터 위기대책본부를 본사 주도로 설치·운영하고 있다.



감염병 확산에 대비한 선제적인 대응체계 구축

• 시설확충 : 메르스 등 신종 감염병이 지속적으로 출현함에 따라 보훈병원은 병원 방문 환자 및 직원의 안전을 강화하고자 음압격리병실 및 입원병동 출입통제시스템(스크린도어)을 설치했다. 대전병원은 2020년 8월 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 음압병실 확충사업에 선정되어 신축예정인 재활센터에 음압 병실을 추가 확보할 예정이다.

- 호흡기 전담 클리닉 : 코로나19 등 감염병 대비 급성 호흡기 유증상자들을 일반 환자와 상시 분리해 진료하는 호흡기 전담 클리닉을 설치해 안심진료를 도모했다.
 - 보훈병원 이용 호흡기 질환자 진료 : 연 9만여 명
 - 호흡기 질환자를 위한 별도 출입구 및 진료시설 설치로 동선 완전 분리
 - 환기 설비 구축, HEPA필터 설치 등 외래 진료환자 원내 감염위험 최소화
- 인력충원 : 신속한 감염업무 대응과 전문성 강화가 요구되어 병원장 직속으로 감염관리실을 개설해 감염과장 직제 신설 및 전담인력 18명을 배치했으며 원내 긴급상황 발생 시 병원별 현장 중심의 대응팀 구성을 통해 효과적인 위기관리 체계를 유지해오고 있다.
- 코로나19 확산 초기 보훈병원 의료진 재난지역 파견
 - 광주지역 : 2020년 2월 광주 ○○병원 확진환자 대규모 접촉으로 격리 사태가 일어나, 광주소방학교가 격리 치료시설로 전환되었다. 의사 1명, 간호사 8명을 파견했고, 의료진은 2주간 격리되어 환자를 진료했다.
 - 대구지역 : 2020년 2월 대구·경북지역 확진자가 무더기로 발생해 특별 재난지역으로 선포되었다. 대구의료원·국립정신건강센터·대구동산병원에 의사 2명, 간호사 31명을 긴급 파견했다.

구분	계	국립정신건강센터	대구의료원	대구동산병원	광주소방학교
계	42	2	6	25	9
의사	3	2	-	-	1
간호사	39	-	6	25	8

대구보훈병원 감염병 전담병원 운영



국가 감염병 전담병원 운영

코로나19 유행 초기 대구지역 등 대규모 집단감염으로 확진환자 전용 병상이 부족하게 되어, 대구·대전보훈병원이 우선적으로 2020년 2~3월 감염병 전담병원을 운영했다. 이후 2차 대유행으로 수도권 지역에 코로나19가 재확산 되자, 중앙보훈병원도 수도권 지역의 병상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자 2020년 12월부터 감염병 전담병원을 운영했다. 2021년 코로나19가 지속적으로 확산됨에 따라 지자체 요청으로 2021년 2월 광주보훈병원, 2021년 8월부터 부산보훈병원이 감염병 전담병원을 운영하고 있다. 중앙보훈병원은 2021년 9월부터 중증환자 전용 10병상을 추가로 확대·운영하고 있다.

감염병 전담병원 운영(2021.8월)					
(단위 : 명)					
구분	병상	지정일	운영기간	실인원	연인원
계	359			2,800	27,336
대구보훈병원	89	2020.2.23	2020.2.27 ~ 5.18	211	4,359
대전보훈병원	64	2020.3.7(1차)	2020.3.17 ~ 8.4	847	7,649
		2020.8.26(2차)	2020.8.26 ~		
중앙보훈병원	120	2020.12.13	2020.12.19 ~	1,437	12,637
광주보훈병원	30	2021.1.25	2021.2.5 ~	251	2,423
부산보훈병원	56	2021.8.11	2021.8.23 ~	54	268

생활치료센터

중앙보훈병원은 수도권 지역의 코로나19 전용 병상 부족에 따라 서울시 생활치료센터 운영 요청으로 2020년 9~10월까지 경기도 용인 삼성국제 경영연구소의 생활치료센터에 의료진을 파견했다. 이후에 수도권 지역에 코로나 19가 재확산 됨에 따라 2020년 11월~2021년 1월까지 코로나19 확진환자를 치료했다.

대구보훈병원은 대구시 요청으로 2021년 8월부터 경주시 현대자동차 인재개발원(200병상)에 의료진을 파견했다.

생활치료센터 운영실적(2021년 8월 기준)				
(단위 : 명)				
구분	생활치료센터	운영기간	실인원	연인원
중앙보훈병원	용인(212병상)	1차 2020.9.7 ~ 10.13	735	6,786
		2차 2020.11.18 ~ 2021.1.27		
대구보훈병원	경주(200병상)	2021.8.24. ~	177	907

국민안심병원 운영

중앙보훈병원은 2020년 2월부터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호흡기 환자를 비호흡기 환자와 분리하고, 호흡기 외래 전용 진료구역을 운영하는 국민안심 병원을 운영해오고 있다. 입원환자 또한 층·병동을 철저히 분리하고, 폐렴 환자는 별도 격리해 감염 확산을 사전에 예방하고 있다.

보훈병원 대응 매뉴얼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기존의 병원별 매뉴얼로는 대응에 한계가 있어, 정부 지침을 토대로 상황별 대응체계를 담은 보훈병원의 통일된 매뉴얼을 제작했다(2020년 10월). 대응 매뉴얼은 직원들이 휴대하기 쉽도록 핸드북 형태로 제작·배포해 본사 및 소속기구의 직원들이 상황별로 맞춤 대응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중소병원에 매뉴얼을 배부(129병원)해 보훈병원의 효율적인 코로나19 대응 방법을 전수했다.

모범사례

대전보훈병원
김성덕 간호사



수상

- 대한간호협회 이달의 간호사 영웅(2020.06.30.)
- 국가보훈처 창설 59주년 계기 코로나19 유공직원표창(2020.08.05.)
- MBN 대한민국 안전 영웅상(2020.10.27.)

언론보도

- 수도자처럼... 대구 갔던 간호사, 산골빈집서 감염 차단(조선일보, 2020.04.05.)
- 대구 달려가 의료 봉사 후 산골 빈집서 자가 격리한 간호사(SBS, 2020.04.07.)
- 병상의 코로나 전사...“감염됐지만 후회없어요”(MBC, 2020.05.12.)
- 헌신과 땀방울로 만들어낸 ‘그대들의 기적’(KBS, 2020.05.13.)
- 대전보훈병원도 ‘덕분에 챌린지’(연합뉴스, 2020.06.08.)
- 일본 음압병실 확충사업 공모 대전 의료기관 2곳 선정(KBS, 2020.08.14.)
- 정세균 총리, 대전보훈병원 현장 방문(대전일보, 2020.09.02.)
- ‘서로 위로해요’코로나19 극복은 ‘연대’(대전MBC, 2020.09.09.)
- 대전보훈병원, ‘핸드인핸드’ 캠페인 동참 (충청일보, 2020.11.23.)
- 대전시 “코로나19 확진 수험생은 보훈병원서 시험”(연합뉴스, 2020.11.26.)
- [공익광고]확신자(김성덕 간호사) (공익광고협의회 주관, 2020.11.23.)
- 대전보훈병원, 감염병 전담 치료 병상 6병상 추가(충남일보, 2020.12.23.)

※ 중도일보(2020.4.30)

자가격리 모범 대전보훈병원 김성덕 간호사 ‘국민포장’ 수상

지난해 3월 대구동산병원 2주간 의료지원 2번 음성에서도 발열 느껴 스스로 격리생활

철저한 격리생활로 주변 의료인 감염을 예방한 대전보훈병원 김성덕 간호사가 제49회 보건의 날을 맞아 지난 27일 국민포장을 받았다. 김성덕 간호사는 지난해 3월 대구·경북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다수 발생할 때 대구동산병원에 근무했다. 2주간 확진자를 돌보는 의료봉사 후 대전 집으로 돌아오지 않고 전북 장수의 친정 인근 빈집에서 2주 간 자기격리를 실천했다. 의료 지원근무를 마칠 때 코로나19 검사를 하고 자가격리를 시작할 때 각각 검사했으나 음성이었다. 김 간호사는 몸에서 발열을 이상이 여겨 스스로 격리를 실천했고, 격리 며칠 후 검사에서 코로나19 양성이 확인됐다. 김 간호사의 철저한 자가격리가 아니었다면 가족이나 주변에 확산할 수 있는 상황으로 모범사례로 평가받았다.

김성덕 간호사는 "코로나19 확진자 치료를 위해 감염병 전담병원으로서 책임을 다한 대전보훈병원 직원을 대표해 상을 받았다고 생각한다"며 "감염병 종식까지 국민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제도 개선

제도 개선

「보훈공단법」·「의료법」 개정

「의료법」상 진료기록 열람·사본 교부를 엄격하게 제한하는 관계로 보훈가족이 외부 위탁병원 이용 시 서류발급을 위해 수차례 재방문하는 불편이 발생함에 따라 타 기관(건강보험관리공단, 심사평가원 등) 사례를 들어 「의료법」 예외 조항에 보훈공단이 포함되도록 2020년 「의료법」과 「보훈공단법」을 동시 개정했다. 그 결과 보훈병원과 일반병원 간의 정보공유가 확대됨에 따라 보훈가족(11만 명)이 진료기록을 직접 제출하는 불편을 해소함과 동시에 위탁병원의 과다 의료이용 등 점검 강화로 보훈의료비 재정 절감(연 36억 원)효과를 기대할 수 있게 되었다.

진료정보교류시스템

- 의료기관 간 환자진료정보교류 사업에 관한 「의료법」 시행(2017.6.21.)에 따른 보건복지부 주관 진료정보교류사업에 보훈공단도 협력병원으로 참여해 진료정보교류시스템을 구축했다.
- 진료정보교류시스템은 환자들이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을 때 발생하는 진료내역, 투약내역, 검사내역 등의 진료정보를 교류에 동의한 환자들을 대상으로 의료기관 간에 전자적으로 전달하는 것이며, 전국 의료기관 간 어디서든 진료정보 교류를 통한 안전한 의료서비스 제공으로 고객 만족도 향상 및 각종 서식 발행에 따른 행정업무 감소로 업무효율성을 제고했다.

교류서식	
서식명	내용
진료의뢰서	다른 의료인에게 진료 의뢰 시 송부
진료회송서	진료를 의뢰한 의료인이나 적절한 다른 의료인에게 회송 시 사용
진료기록요약지	의료인이 생성한 진료기록의 전체 또는 일부 내용을 교환 시 사용
영상의학판독소견서	CT·MRI 등 영상의학정보 판독결과 송부

제 7 절

운영관리

보훈의료수가

보훈의료수가는 1992년 7월 1일 국가보훈처 훈령에 의거, 보훈공단 규정으로 제정해 기준이 수립되었다. 제정기준은 「국민건강보험법」 요양급여 기준에 일정률을 가산하며, 행위별 진료료 가산제도를 도입하는 것을 골자로 했다. 이후 2005년 진료비 심사제도를 도입하며 위탁병원 진료비부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심사를 위탁하기 시작했고 2008년 보훈병원 총 진료비까지 확대했다. 2006년 2월 감사원은 국비진료비 운영개선의 일환으로 적정의료수가 마련과 국비진료비 집행에 대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심사를 거친 후 국비진료비를 보상받도록 하는 국비진료비 정산제 도입을 제기했다. 이와 관련해 전문기관인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연구용역 결과에 의거 보훈병원의 특수성을 고려한 가산율을 도출해 2008년 1월 정산제를 시행하도록 의료수가 기준을 개정했다. 또한 같은 해 8월에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심사위탁을 체결해 투명성과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전문심사제도를 도입해 진료비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심사결과에 따라 정산하고 과부족액은 차차연도에 차감 또는 보전하도록 했다.

2009년 6월 「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에 관한 규칙」(총리령 제905호)을 제정 하고, 이듬해 2010년 보훈병원 의료수가 산정기준 및 보훈병원 비급여 수가 코드를 정비하며 의료비 관리체계를 구축했다. 또한, 같은 해 12월 28일에는 보훈병원 의료수가 기준(국가보훈처 고시)을 제정했으며, 2014년 1월 14일 보훈 요양병원 개원에 맞춰 연구용역 결과를 반영한 요양병원 의료수가를 정비했다.

보훈병원은 일반병원과 달리 국가유공자 신체검사업무, 위탁병원관리 등 국가위임사업을 수행하고 보훈환자 고령화 및 만성질환으로 장기입원이 많다는 특수한 성격이 있다. 보훈의료수가는 이러한 특수성을 감안해 경영 적자를 보전하기 위해 연구용역 결과에 따라 적정 의료수가를 도출했고, 이러한 의료수가는 기본진료료, 진료행위료, 약제비, 치료재료비로 구성되어 있다. 보훈의료수가의 인정범위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요양급여 비용에 따른다. 다만, 국가보훈처장이 건강보험기준과

달리 정하거나 건강보험기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보훈병원 의료수가 기준(국가보훈처 고시 제2021-5호, 2021.6.7. 일부개정)에 따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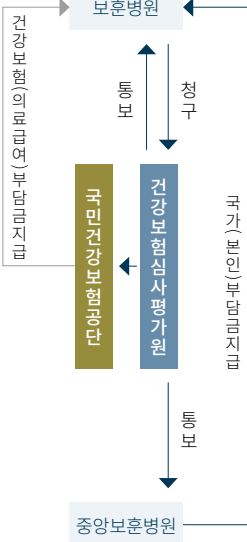
보훈병원 요양급여 기준		
구분	건강보험	건강보험 비급여
적용 기준	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 준용 (행위료에 보훈가산율* 산정)	보훈병원 의료수가 기준
예외 적용	보훈병원 의료수가 기준 (보훈환자 특성 반영)	• 보훈병원 의료수가 기준 • 6개 보훈병원 공통 수가 운영 ※ 보훈병원 규모와 시설 등 고려 동일 운영이 곤란할 경우 국가보훈처장 승인 후 달리 적용

건강보험기준과 달리 적용하는 사항(보훈병원 의료수가 기준 제5조의2) 중 입원료체감제는 입원대기 및 적체 해소를 위해 2010년 7월 1일부터 건강보험 기준 대비 입원기간 및 입원료를 완화해 장기 요양성 질환이 많은 보훈환자 특수성을 반영했다. 이는 결과적으로 상급병실 차액 보전의 성격이 강하다고 볼 수 있다. 그 외 비급여 수가는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4항,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9조에 따른 비급여 대상 진료에 대한 수가로 신설·조정 등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국가보훈처장의 승인이 필요하며, 보훈 병원이 공통된 코드와 수가를 적용해 2021년 7월 현재 행위 910항목, 치료재료 약제 245항목, 총 1,155항목을 운영하고 있다. 또한 비급여 수가 공개 및 목록의 상시 현행화를 통해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민원의 소지를 불식시키는 등 국민으로부터의 신뢰 형성에 기여하고 있으며 이에 그치지 않고 정부의 보장성 강화 정책에 따라 급여전환 및 비급여 표준화 등 상시 정비를 통해 국가재정 절감 및 공공의료기관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비급여 수가 목록(2021년)							
합계	행위				치료재료 및 약제		
	계	의과	치과	계	치료재료		약제
					의과	치과	
1,155	910	713	197	245	121	28	96

보훈의료수가 체계

보훈병원 청구·심사 지급 업무흐름도



가정간호 관련 제도 개선 통해 활성화 기여해 보람



중앙보훈병원
윤영미 간호부장

보건의료제도 도입 이전인 1993년부터 가정간호서비스를 하신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선도적으로 가정간호서비스를 도입하시게 된 배경에 대해 말씀 부탁드립니다.

1990년대 초에는 전쟁 상해로 거동이 어려운 마비 환자들이 국가유공자 집단촌을 이뤄 자활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욕창, 소변관, 기관관, 비위관 등 다양한 의료적 문제도 스스로 해결해야 했습니다. 마침 1993년 대한간호협회 소속 서울시 간호사회에서 집으로 찾아가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가정간호제도를 시범사업으로 운영하기 시작했고, 중앙보훈 병원에서도 의료 사각지대에 있는 국가유공자들의 의료적 문제를 해결하고 보훈의료 시혜정책을 확대하기 위해 가정간호서비스를 하게 되었습니다.

국가유공자들에게 굉장히 반가운 소식이었을 것 같은데요. 당시 가정간호 서비스 대상이었던 국가유공자들의 반응은 어땠나요?

당시 서비스 대상이었던 국가유공자분들은 안양, 수원, 인천, 고양, 구리 등 먼 곳에 거주하시는 분들과 와상환자와 휠체어에 의지해야 하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저희가 집으로 찾아가 정체도뇨관, 비위관, 기관관, 욕창관리, 주사, 투약, 건강관리교육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면 국가유공자분들께서 매우 고마워하고 감동하셨습니다.

2014년부터 4년간 대한간호협회 가정간호사회 회장을 역임하셨습니다.

역임 당시 어떤 일들을 추진하셨는지요.

가정간호회장 부임 당시 가정간호사회는 다양한 문제점이 산재하여 가정간호가 하락기에 접어들고 있었습니다. 전국 병원 가정간호사업소가 200여 곳에서 120곳으로 줄어든 상황이었습니다. 또 가정간호방문 횟수가 연 96회로 제한돼 있어 환자 상태에 맞춰 적절한 방문을 통해 관리할 수가 없었습니다. 가정간호 수가도 낮아 가정간호를 운영하는 병원도

많지 않았습니다. 가정간호가 발전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기 위해 유관단체인 보건복지부, 대한간호협회, 가정간호학회, 호스피스간호사회 등과 정책활동을 공유하고 가정간호를 활성화할 수 있는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첫째, 가정간호학회와 연계해 가정간호학회 당연직 부회장을 역임하면서 2곳이던 대학원을 확대하기 위해 노력해 2018년 5곳으로 늘렸습니다. 둘째, 가정간호 수가 및 방문횟수 등의 인상을 위해 유관단체, 보건복지부를 방문해 정책 활동을 펼쳤습니다. 그 결과 2014년에 가정간호 기본방문료 30% 인상으로 가정간호 수가를 인상했고 96회로 제한했던 방문횟수는 무제한으로 개선했습니다. 가정간호 수가가 인상되면서 2018년에 가정간호사업소를 운영하는 병원이 160 곳으로 증가했습니다. 셋째, 의료 사각지대에 있던 요양원 환자의 편의를 위해 제도를 개선했습니다. 요양원에 계신 환자에게 검사나 소변줄, 기관절개관 등의 의료처치를 하기 위해서는 환자를 병원으로 모시고 와야 했습니다. 보건복지부와 이런 문제점에 대해 지속 논의해 2014년, 가정전문간호사가 요양원을 방문해 의료처치를 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습니다.

앞으로 가정간호서비스를 발전시키기 위해 공단이 어떤 노력을 하면 좋을까요?

가정간호는 전문간호사 영역으로 무엇보다 좋은 인력을 유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전문간호사로 근무하기 위해서는 대학원 교육과 전문간호사 자격(보건복지부)을 갖추어야 합니다. 현재 대학원 지원자가 적고 가정전문간호사로 근무하려는 사람이 없어 사업소가 축소되고 가정간호를 받으려는 환자들은 대기 중인 상태입니다. 이를 위해 좋은 인력을 유치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 입원에서 퇴원 후까지 환자의 치료 계획에 가정간호를 꼭 포함해 가정간호가 필요한 경우 적절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마련해야 합니다. 더불어 서비스의 질을 지속 향상하고, 홍보를 활성화해 환자들이 적극적으로 가정간호 제도를 활용하도록 유도해야 합니다.

원가계산 시스템

보훈공단은 급변하는 경영환경에 미래지향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보훈병원 의료행위에 대한 활동기준 원가계산을 실시해, 경제가치(원가) 계산으로 원가 및 이익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적절한 경영의사결정을 지원해 경영효율을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선진원가관리시스템을 도입했다. 또한 경영투명성 요구에 부응하고, 다양한 의료서비스 제공체계에 따른 세부적인 재무정보 요구 증대를 위해 ABC 도입을 추진하게 되었다.

※ ABC(활동기준 원가계산) : Activity Based Costing

2011년 7억 7,000만 원을 투입해 5개 보훈병원에 운영프로그램(병원용 원가계산 솔루션, 의사성과급 계산용 솔루션)과 보고서 프로그램(보고서 개발 및 정보분석 솔루션, 경영자정보시스템 EIS)을 개발했다.

개발 이후 운영을 통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합리적 보건의료 정책을 위한 원가자료 제공으로 자료제출 인센티브(2021년 1억 9,800만 원)를 수령했으며 진료과 미시행 수가발굴, 경영수지개선과 의료장비구입평가지표 및 우수전문의 포상 시 기본자료로 활용하고 있다.

인센티브 (단위 : 백만 원)						
구분	계	고정비용	변동대가	질평가	지속성	추가장표
중앙·부산 광주·대구	160	60	24	24	32	20
대전	38	15	4	6	8	5
계	198	75	28	30	40	25
운영실적						
간담회 개최		경영수지 개선		건보공단 인센티브		
20회(병원별 각 4회)		3,566 백만 원		198 백만 원		

의료물류 지원

보훈병원 환자진료에 필요한 의약품, 의료장비, 진료재료의 조달방법은 그동안 각 병원별로 구매해 왔다. 그러나, 병원규모가 확대되어 사용물량이 대폭 증가하고 병원별 구매로 인해 사용품목, 구입가격에 격차가 발생하였다. 보훈병원은 투명성 확보와 동 업무수행의 전문화 필요성이 커짐에 따라 2001년부터 공공의료기관으로서 선도적으로 물류관리시스템을 개선했다.

제도변경에 따른 대내·외적인 반발이 야기되기도 했으나 종전의 각 병원별 구매방법에서 본사의 중앙구매방법으로 변경함으로써 사용물품의 표준화와 대량구매에 따른 예산 절감 및 구매행정의 집중·전문화로 경영개선 효과를 거둘 수 있게 되었다.

또한, 2019년부터 최저가 낙찰제에서 납품실적·기술능력·경영상태 등 계약 이행능력과 가격을 종합적으로 심사해 낙찰자를 결정하는 적격심사 낙찰제를 도입함으로써 계약이행의 적정성 확보 및 최저가 투찰을 방지해 업체가 동반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 의약품 중앙구매는 2020년부터 실적제한 없는 공개경쟁 입찰로 전환해 신생·중소기업의 진입장벽을 완화하는 등 공공 의료기관으로서 모범적인 물류관리 및 상생문화 정착에 기여하고 있다.

의약품

중앙구매 기준

구분	내용
공통의약품	보훈병원 전체에서 환자의 일반적 진료에 사용할 수 있는 약품으로, 중앙의약품 심의위원회에서 의결된 품목
중앙구매 (본사)	병원별 예정량을 토대로 중앙에서 일괄 계약하는 품목 - 예정량 다량으로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고, 중앙에서 품목관리가 용이 - 지역별로 수급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중앙 계약·공급이 효율적일 수 있음
자체구매 (각 병원)	마약, 백신류, 기타 사용규모 등의 사유로 약심에서 자체구매로 의결된 약품 - 백신류 중 인플루엔자, 대상포진은 중앙구매
긴급의약품 (자체구매)	특정 환자 치료에 응급투약을 목적으로 사용되는 의약품 - 공통의약품 중 동효제제 또는 동일 약리제가 없어야 함

중앙구매 절차

- ① 병원별 약사심의위원회 : 병원별 연간 소요의약품 산정 및 신규의약품 선정 등 자체 심의
- ② 중앙의약품 심의위원회 : 각 병원 부의 안건 및 신규의약품 신청 건, 공통 품목 선정 등 심의
- ③ 예정량 산정, 사전규격공고 및 입찰: 병원별 예정량 산정 후 사전규격공고 및 공개경쟁입찰 진행(조달청 나라장터)
- ④ 개찰 및 적격심사, 낙찰자 선정 : 개찰 1순위 업체 대상 적격심사 진행, 낙찰자 선정 후 12일 이내 계약품목 선정
- ⑤ 계약체결 및 사후관리 : 조달청 나라장터(G2B)를 통한 전자계약 체결 및 연간 의약품 사후관리

구매현황

(단위 : 개, 억 원)

구분	종수	상한금액	낙찰금액	낙찰률(%)	상한가대비 절감
2011	1,247	1,130	552	48.82	578
2012	1,311	1,310	710	54.21	600
2013	1,292	1,295	663	51.21	632
2014	1,326	1,504	470	31.25	1,034
2015	1,402	1,578	639	40.51	939
2016	1,479	1,673	694	41.49	979
2017	1,489	1,617	707	43.70	910
2018	1,525	1,818	665	36.55	1,153
2019	1,576	2,177	825	37.88	1,352
2020	1,607	2,058	784	38.09	1,274
2021	1,562	2,178	802	36.82	1,376

중앙구매 기준

2,000만 원 이상 품목(2020년까지는 1,000만 원 이상)

중앙구매 절차

- ① 자체의료장비 심의위원회 ▶ ② 심의자료 제출 ▶
- ③ 중앙의료장비 심의위원회 ▶ ④ 이사회(3억 원 이상) ▶ ⑤ 입찰, 계약체결

주요장비 도입

구분	주요장비
2011	선형가속기(중앙병원), Angio(중앙·부산병원), MRI(중앙·광주병원)
2012	Angio(광주병원), 디지털유방촬영기(광주병원)
2013	CT(부산·광주병원), 수중재활치료기(중앙병원), 디지털엑스선기(부산병원)
2014	Angio(대전병원), 디지털엑스선기(중앙·부산·광주병원), 로봇재활기(중앙병원)
2015	MRI(중앙·대구병원), CT(대구병원), Angio(중앙병원)
2016	MRI(부산·광주병원), CT(중앙병원), C-arm(대구·대전병원)
2017	CT(부산병원), Angio(중앙병원), 디지털엑스선기(대구·광주병원)
2018	CT(중앙·인천병원), MRI(인천병원), 감마카메라(중앙병원)
2019	PET/CT(중앙병원), MRI(중앙·대구병원), 디지털유방촬영기(대구병원)
2020	로봇수술기(중앙병원), MRI(부산·광주·대전병원)

구매현황

(단위 : 개, 억 원)

구분	종수	예산금액	계약금액	절감액	절감률
2011	208	363	303	60	16.53%
2012	115	100	81	19	19.00%
2013	87	89	73	16	17.98%
2014	92	132	106	26	19.70%
2015	95	189	151	38	20.11%
2016	110	133	107	26	19.55%
2017	152	205	166	39	19.02%
2018	285	304	252	52	17.11%
2019	137	221	192	29	13.12%
2020	128	306	242	64	20.92%

의료장비

진료재료

중앙구매 기준

2개 병원 이상 사용하며 2,000만 원 이상 진료재료 품목

중앙구매 절차

- ① 각 진료재료 종류별 계약기간 2~3개월 전부터 예정량 수합
- ② 중앙구매 품목 검토, 선정, 사전규격공개, 구매계획, 입찰 진행
- ③ 품목별 기간 내 계약체결 완료

중앙구매 범위

구분	입찰 품목
치과합금	인레이, 크라운, 포세린 등 치과 보철재료
Angio	스텐트, 카테터 등 혈관 조영술 재료
핵의학재료	뇌혈관, 파킨슨 등 진단방사성 의약품
검사재료	소변, 혈액 내 병원균, 혈소판 등 검사시약재료
수술재료	뼈, 관절 고정 플레이트, 스크류 등 수술재료
의료가스	액체산소, 혼합가스 등 마취, 중환자실 의료용 가스
치과재료	어버트먼트, 픽스처 등 임플란트 교합재료
위생재료	주사기, 바늘, 드레싱 재료 등 진료 소모 전반 재료
기타	성인용 기저귀, 관 급식, 약 포장지 등

구매현황 (단위 : 개, 억 원)

구분	종수	예산금액	계약금액	절감액	절감률
2011	2,138	24,324	22,953	1,371	5.64%
2012	1,534	26,761	26,438	323	1.21%
2013	2,079	29,242	29,525	△283	△0.97%
2014	2,198	33,804	32,977	827	2.45%
2015	2,546	38,922	38,513	409	1.05%
2016	2,475	53,481	42,756	10,725	20.05%
2017	1,920	39,391	37,780	1,611	4.09%
2018	1,508	38,359	35,704	2,655	6.92%
2019	2,106	48,605	43,244	5,361	11.03%
2020	2,045	53,799	47,351	6,448	11.99%

※ 2011~2015년까지는 전년도 계약금액 대비 절감률 적용

신체검사·고엽제 검진

신체검사제도

상이등급 분류제도란 전투 또는 공무 수행 중에 상이를 입고 전·퇴역한 군인 등에게 일상생활에 있어서의 활동기능 장애 정도를 고려해 신체의 각 부위별로 일정한 기준을 정해 상이등급을 분류하고, 그 기준에 따라 보상과 예우의 대상 여부를 결정하며, 대상으로 결정된 사람에게는 신체적 희생의 정도에 상응한 보상을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현행 상이등급 분류를 위한 신체검사제도는 1961년부터 시행되어 오고 있다. 신체검사 시기는 전상군경·공상군경·공상공무원, 재해부상군경·재해 공상공무원 등의 경우 보훈심사위원회에서 국가유공자로 심의·의결될 때에, 특별공로상이자는 추천서류가 국가보훈처장을 거치는 때에, 4·19혁명 부상자는 등록신청을 할 때에 실시하게 된다. 또한 신체검사의 종류로는 신규·재심·재확인·재분류신체검사가 있다.

신체검사 실시기관의 장은 관할 보훈청장이며, 상이군경 등에 대한 신체검사에 관한 사무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훈병원의 장에게 위탁되어 있다. 보훈병원장은 해당 분야 전문의 등 의사를 위촉하고 관할보훈청장과 협의해 신체검사를 실시하며, 보훈심사위원회는 심의·의결을 통해 상이등급을 판정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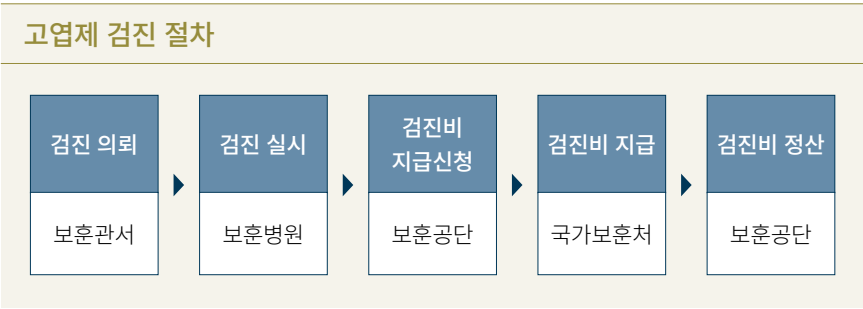
고엽제 검진

보훈병원에서는 보훈(지)청에서 검진을 의뢰한 자에 대해 신청 질병에 따른 정밀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의해 신청인의 질병이 후유(의)증인지 여부를 확인해 보훈(지)청에 통보, 법 적용 대상 여부를 결정하고 있다. 보훈병원에서 실시한 고엽제 검진 비용은 보훈공단의 청구에 따라 매월별로 국가보훈처에서 지급하고 있다.

제도 개선사항으로는 1998년 2월 보훈병원 검진기준을 마련해 보훈병원 검진의사의 개별적 판단에 의한 검진 관행을 표준화했다. 1999년 1월 종합 전문요양기관 최종진단서 제출 시 보훈병원의 검진 절차를 생략하도록 했고, 2002년 1월 보훈심사 심의를 생략, 해당 보훈관서에서 법 적용 대상 여부를

결정하도록 했다. 2008년 6월 고엽제 검진 적체 해소를 위해 재검진기관을 중앙보훈병원에서 지방보훈병원으로 확대 실시했다.

2017년 8월부터 국가보훈처는 고엽제환자 검진비 산정지침을 마련하고 보훈공단에서 청구된 검진 비용의 적정성을 심사하고 정산하는 정산제를 시행하고 있다.



고엽제 검진 실시현황						(단위 : 명, 백만 원)	
구분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검진인원	자연인	13,391	12,556	11,548	13,910	13,318	9,628
	연인원	37,293	33,093	30,522	30,792	32,973	22,865
검진예산	집행	4,894	4,444	3,872	3,130	3,044	2,252
	예산	4,871	4,494	4,263	4,228	3,305	2,990

공공의료기관 역할

국가사회기여자 의료지원

공공의료기관으로서 대국민 건강안전망 확충의 일환으로 2012년 이후 국가 사회기여자를 대상으로 의료지원 협약을 체결해 보훈병원 진료 시 본인 부담 금액의 30% 감면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또한, PTSD(외상후스트레스증후군)검사, 치료 및 예방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으며, 2012년 이후 지원실적이 점진적으로 증가해 2020년 국가사회기여자 5,095명에게 의료지원함으로써 공공의료기관의 역할을 제고했다.

※ 의료지원 대상 : 소방공무원, 병역명문가 병역이행자, 해양경찰, 군장병, 경찰공무원, 경찰 소속 행정공무원, 교정공무원, 20년 이상 근속 퇴직 경찰공무원, 퇴직 해양경찰공무원, 퇴직 소방공무원, 퇴직 교정공무원. 장기복무(10년 이상 현역복무) 제대군인은 50% 감면

공공보건의료 시행 및 평가

공공보건의료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통해 공공의료를 선도하고,공공보건의료 지원기반을 견고히 해 취약계층을 위한 건강안전망 기능을 확대하는 한편, 민간에서 시행하지 못하는 필수의료로 수행함으로써 의료사각지대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매년 영역별 공공보건의료 계획 수립 및 시행 결과 보고서를 제출해 평가받고 있는데 그 결과 대구보훈병원은 5년 연속, 중앙보훈병원은 4년 연속 최우수상 등급과 보건복지부 장관상을 수상했다.

공공보건의료 사업단 직제 신설(2021)

- 6개 보훈병원 병원장 직속 공공보건의료사업단 직제 편성
- 기능
 - 정부·지자체의 보건의료정책 및 시책사업의 적극적 참여
 - 공공병원 평가업무의 효율적이고 효과적 추진 등
 - 공공보건의료 사업의 유기적 연계 및 컨트롤타워 강화

평가결과										
구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중앙병원	-	-	84.6	78.8	85.7	85.3	92.8	95.3	93.3	95.5
부산병원	76.0	67.3	84.5	76.9	78.4	73.7	83.3	82.2	84.8	91.2
광주병원	-	-	-	65.9	81.5	87.4	92.3	92.5	90.2	94.0
대구병원	95.2	79.6	84.6	80.5	87.8	90.7	92.8	95.0	90.3	92.8
대전병원	55.6	72.2	78.8	79.0	81.3	77.7	80.8	87.6	90.9	91.6

※ 평가기준 : 90점 이상 최우수, 80~89점 우수, 70~79점 양호, 60점~69점 보통, 60점 미만 미흡

중앙보훈병원				
구분	공공성 강화	양질의 적정진료	건강안전망	미충족보건의료
'15	-	•의료 질 관리 사업 •질병관리 및 예방을 위한 감염관리 사업	•의료취약계층을 위한 사회복지 사업 •BCF기반 기능생활 건강분류 개인맞춤형 통합의료복지서비스	•재활치료-보장구연계 토털케어서비스사업 •임종 앞둔 암환자를 위한 호스피스 사업 •신속한 메르스 대응 시스템 구축, 강동 유일 국민안심병원
'16	•진료-재활-연구 융합 활동을 위한 보장구 서비스 강화 •5개 보훈병원 네트워크 활성화를 통한 특수병원 역할 확대	•2주기 인증획득 등 의료 질 향상 •음압병실 개설 등 감염관리시스템 개선	•찾아가는 치매예방서비스를 통한 노인층 건강안전 확보 •사회복지서비스를 통한 저소득 보훈가족의 건강안전 강화	•중증·만성질환자의 원스톱 퇴원관리시스템 개선 •완화의료도우미 제도 운영으로 가족부담 경감 선도
'17	•진료-재활-보장구 연구 융합 활동 강화 •C그룹 네트워크 제안	•의료 질 관리사업 •감염관리시스템 강화를 통한 안전한 병원환경 조성	•보훈가족을 위한 사회복지서비스 •행복한 섬김을 위한 사회공헌 활동체계 정비	•중증·만성질환자의 One-Stop 퇴원관리 등록시스템 구축 •보훈가족을 위한 찾아가는 서비스 확대
'18	•역량강화를 통한 공공보건의료 지원기반 확충 •4차 산업혁명 대비, 스마트 헬스케어 인프라 구축	•걱정 없는 안전병원 으로 의료품질 혁신 •감염병 위기 대응체계 강화	•지역자원연계 파트너십을 통한 취약계층 건강안전 강화 •지역사회 인지건강 거버넌스 구축을 통한 '치매국가책임제' 선제적 대응	•뉴스타트 '건강복지안전망' •권역 호스피스센터 지정 등 말기암 환자를 위한 호스피스 거점병원 역할 선도 •국가사회기여자 및 국가유공자의 PTSD 등 통합지원 선진화
'19	•공공보건의료 강화를위한 교육·훈련확대 •보훈의학연구소의 특수대상 연구기능 강화	•의료품질 관리 및 평가대응 강화 •감염전파 경로별 감염관리 강화	•의료취약·노년층·소외계층을 위한 사회복지서비스 •치매환자를 위한 통합 치매전문센터 기능 강화	•맞춤형 재활서비스 선도 •퇴원환자를 위한 서비스 자동추천 시스템 구축
'20	•전문교육을 통한 공공보건의료 수행체계 강화 •거점병원 진료협력기능 확대	•인증과 평가관리 강화를 통한 의료 신뢰도 제고 •최고수준의 감염관리 프로그램 운영	•소외계층 의료지원 강화 •휠체어 행복나눔센터 개소 및 보장구 공유서비스 실천	•퇴원환자 지역연계를 통한 AIP 증진 •연명의료중단 등 자기결정 호스피스 완화의료 제공체계 확대

공공보건의료 역량강화교육

- 보훈병원 공공보건의료 콘퍼런스 개최

구분	주제	참석인원
2018	•건강복지안전망과 커뮤니티케어 - 공공보건의료의 최근 이슈 - 중앙보훈병원 건강복지안전망의 커뮤니티케어 플랜	201명
2019	•공공병원의 발전과제 - 책임의료기관의 책임성 강화 - 특수대상 공공병원의 책임성 강화 방안 - 지역사회통합돌봄(커뮤니티케어)을 위한 공공병원의 역할	170명
2020	•한국판 뉴딜정책 방향에 따른 공공병원 역할 변화 - 디지털 뉴딜과 공공병원의 역할 변화 -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공공병원의 대응	86명 (온라인)

- 강사초청 등 원내 공공보건의료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개최(연 4회)

- 보건복지부의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 및 추진방향
- 공공의료기관 평가지침 및 평가결과 분석 공유
- 평가보고서 작성 요령 등 공유
- 지표별 담당자 개별교육 실시

- 국립중앙의료원 공공보건의료지원센터 교육훈련프로그램 참석

- 의사, 간호사 교육
- 거점병원 공공보건 담당자 교육
- 지역사회통합돌봄(커뮤니티케어) 실무자 교육 등

중앙보훈병원 콘퍼런스를 통해 특수대상 공공병원 및 지방보훈병원의 공공 보건의료 역량강화에 중심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외부 공공병원 간, 특수대상병원 간, 보훈병원 간, 그 외 기관 간 정보교류 및 사업공유, 인프라 확대를 함으로써 직원의 역량강화를 통한 의료서비스 질 향상에 기여하고 있다.

제 4 장 복지지원사업

제 1 절 양로보호

- 1 보훈원
- 2 보훈복지타운
- 3 보훈휴양원

제 2 절 요양보호

- 1 보훈요양원
- 2 요양정보시스템
- 3 요양보호서비스
- 4 대외기관평가
- 5 복지시설 만족도 조사

제 3 절 주거 환경개선 사업

제 4 절 보훈복지사업비 지원

국가보훈처는 1963년 무의탁 고령유족과 유자녀의 생활 보호를 위해 종합 원호원을 설립하여 이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터전을 마련했다.

종합원호원은 1969년 국립원호원으로, 1985년에는 국립보훈원으로, 1993년에는 보훈연수원과 보훈원으로 명칭과 업무를 분리하고, 보훈원의 양로·양육보호 업무를 보훈공단에 위탁함으로써 보훈공단의 설립목적인 국가유공자의 복지지원 사업을 본격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시발점이 되었다.

양로보호는 무의탁 고령 보훈대상자 본인 및 유족을 보호하여 여생을 편안히 보내도록 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 1993년 국가보훈처에서 인수한 보훈원 시설이 낙후되고 열악해 1997년 보훈기금을 재원으로 현대식 건물에 의료시설 등 다양한 시설을 갖추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또한, 고령화된 국가유공자들의 복지 욕구 해소를 위해 1996년에는 부양 의무자가 없는 무주택자들이 거주할 수 있는 주거용 보훈복지타운을 건립했으며, 보훈가족의 여가 선용을 위한 보훈휴양원을 충북 충주시에 건립해 운영하고 있다.



요양보호는 2000년대에 이르러 고령 국가유공자에 대한 노후 복지지원 제도의 필요성이 본격 대두되었다. 치매·중풍 등 장기요양 보호 수요는 증가하고 있는 반면에 핵가족화로 노인 부양기능은 크게 약화됨에 따라 수발 장애를 겪고 있는 고령 국가유공자의 간병·간호 지원서비스 등 복지시책을 강화하기 위해 국가보훈처는 2005년 국가유공자 노후복지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2006년부터 요양시설 건립을 추진했다.

이와 같은 요양시설 건립추진은 2006년 3월 국가보훈처와 보훈공단이 위탁 약정을 체결하여 보훈공단에서 전담 수행하게 되었다.

보훈공단은 2006년 5월부터 국가유공자 특성에 맞는 보훈요양시설 건립을 추진해 2008년 수원·광주, 2009년 김해, 2011년 대구, 2012년 대전, 2015년 남양주, 2020년 원주요양원을 개원했으며, 2022년에는 전주보훈요양원을 개원할 예정이다.

또한 2010년부터 요양원에서 직접 프로그래밍한 요양정보시스템은, 요양원이 계속 확충됨에 따라 서비스 질, 프로그램 개선 및 업무 효율성 강화를 위해 2021년에 재구축했다. 향후 병원정보시스템과 연계하여 보훈공단의 통합의료·복지정보시스템이 구축되면 입소자 개개인에게 맞는 보다 나은 과학화·선진화된 요양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된다.

한편, 고령사회에 진입한 선진국의 트렌드는 단일서비스가 아니라 보건, 의료, 복지서비스가 결합된 복합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스템으로 변화되고 있다. 전국보훈의료망과 양로·요양시설을 갖추고 있는 보훈공단은 예방·치료·요양·양로·휴양·주거·재가서비스에 이르는 의료복지 통합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최적의 공공기관이기도 하다.

이와 같이 보훈공단은 설립 당시부터 보훈단체 지원, 국가유공자 자녀 장학금 지원 등 보훈복지 사업비 지원에서 양로보호, 요양보호뿐만 아니라 보훈의료복지 통합서비스 등 다양한 노후복지 지원사업을 체계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제 1 절

양로보호

보훈원



1 종합원호원 개원

2 보훈원 전경

국가보훈처는 6·25전쟁 중 국가를 위해 헌신한 전사자의 유족과 상이군경 등을 비롯하여 무의탁 고령 유족과 어린 유자녀를 양로·양육하고 직업을 갖지 못한 보훈가족들에게 기능훈련을 실시하여 자활과 자립의 길을 열어주기 위해 1963년 1월 종합원호원을 설립(교육훈련, 양로·양육)했다.

종합원호원은 1969년 국립원호원으로, 1985년에는 국립보훈원으로, 1993년에는 보훈연수원과 보훈원으로 명칭과 업무를 분리하고, 보훈원의 양로·양육 보호업무를 보훈공단에 위탁함으로써 다양한 복지지원 사업을 수행하는 시발점이 되었다. 보훈공단 운영근거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2조 및 「보훈공단법」 제6조이며 보호대상은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9조 내지 제21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3조 내지 제65조,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55조 내지 제57조,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4조 내지 제56조,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 2이다. 그러나 국가보훈처로부터 인수한 양로·양육시설이 낙후되어 보훈공단은 1997년 6월 양로소(사랑의 집)와 양육소(청운사)를 통합해 현재의 위치인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에 지하 1층 지상 3층의 현대식 건물을 신축했다.

양로보호는 무의탁 고령 보훈대상자 본인 및 유족을 보호하여 여생을 편안히 보내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다. 요양보호자에게는 부부실, 독신실, 요양실을 두어 개인의 사생활 보호 및 요양환자를 배려하고 있다.

2009년 전문요양센터를 개설하여 간호사·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로부터 전문적인 요양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했고, 2010년 진료와 재활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보훈의원을 개설하여 전문의·간호사·물리치료를 배치했으며, 보훈병원에서 정기적인 진료를 실시해 건강상태를 면밀히 체크하고 있다. 또한, 치매예방을 위해 농작물 재배 및 화초 관리 등 여가 선용을 적극 권장하여 소외감을 해소하게 하는 동시에 경로대학을 운영하여 각자의 취미생활과 레크리에이션을 통한 정신적 위안과 위로를 받도록 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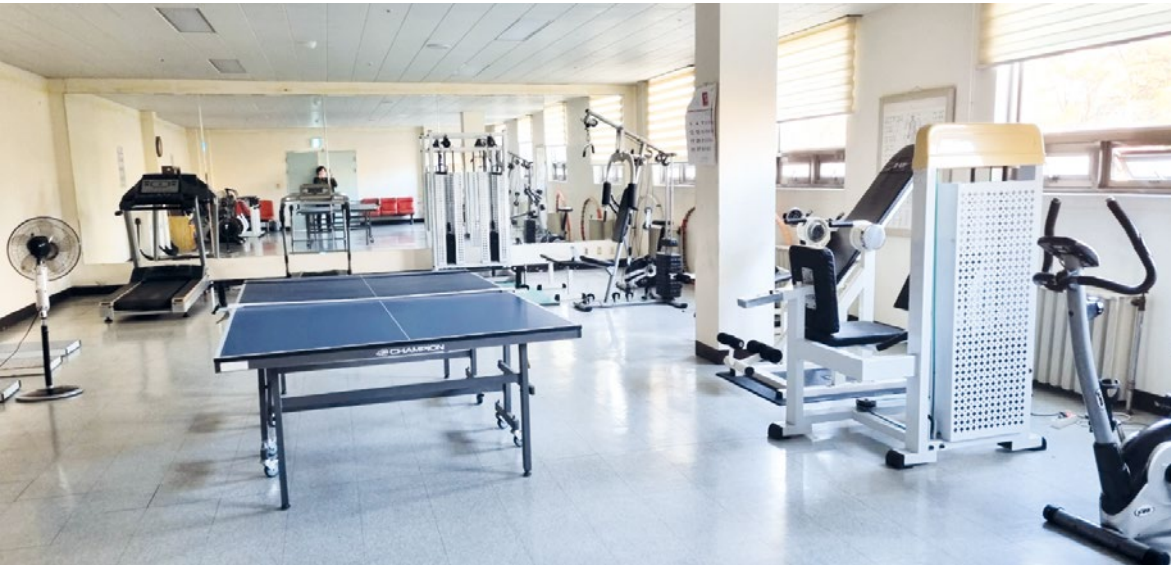
시설현황

1963년 개원한 종합보훈원에 속해 있던 양로·양육소의 시설이 낙후되고 열악하여 1997년 6월 현재 위치인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에 대지 13,481㎡, 건축 연면적 10,341㎡의 지하 1층 지상 3층의 현대식 건물로 신축 이전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보훈원은 주거시설 127실과 부대시설로 의무실, 체력 단련실, 독서실, 목욕탕, 강당, 식당, 노래방, 탁구장, 취미오락실, 이·미용실, 영안실, 종교집회실, 프로그램실이 있고 옥외에는 게이트볼장, 휴게소, 산책로가 마련되어 있다. 2009년 보훈원에 입소해 있는 치매, 중풍환자 중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분들을 보살피기 위해 장기요양시설로 등록했으며, 노인성 질환 등을 가진 장기요양보험 수급자를 대상으로 전문요양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2010년 1월 보훈원과 보훈복지타운, 수원보훈요양원 입소자를 대상으로 진료 및 재활서비스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보훈원 내에 보훈의원을 개설했다.

2015년 환경개선 일환으로 보훈원 내 유휴부지를 활용하여 총면적 2,820㎡에 소나무동산, 자작나무숲, 벚꽃산책로, 단풍입구마당, 휴게벤치 등 테마공원을 조성했으며, 수원시에서는 체력단련 야외운동기구를 설치하고 쌈지공원으로 관리하고 있다.

또한, 2016년 수원시 시민의 숲 대상지로 선정되어 무궁화 쉼터를 조성했다. 수원시에서 2억 5,000만 원을 지원하여 태극기 조형물 1세트, 태극기 등 조형물 88개, 무궁화 4,443주를 조성하여 편안한 쉼터 제공과 인근 지역 주민의 나라사랑 정신을 거양하는 효과를 거두었다.

체력단련실



입주자 중 사망한 분들의 사후 예우를 위해 경기도 화성시 봉담읍 왕림리 산 72-1번지에 5,653㎡ 규모의 285기 안장이 가능한 공원묘지인 창훈묘원을 운영하고 있으며, 2015년부터 장례문화 개선 추세에 따라 평장묘를 시행하여 320기까지 안장이 가능하게 되었다. 현재 230기가 안장되어 있으며 연 2회 정기 벌초 및 환경정리를 하고 있다.

양로시설 및 전문요양센터						
구분	보훈원	양로시설			전문요양센터	
		계	1인실	2인실	3인실	4인실
침실	126	119	56	58	5	7
인원	215	187	56	116	15	28

주요시설		
구분	주요내용	비고
체력단련실	탁구대, 런닝머신기, 근력강화기 등 14종	수시
취미교실	컴퓨터시설, 발리댄스, 각종 만들기 등	수시
공용목욕탕	운동시설이용 후 목욕	수시
이·미용실	이·미용사 주기적 방문	월 1회
교회	보훈교회 목사 별도 운영	수시
기도실	천주교인 기도실 운영	수시
노래방	어르신들 노래방 이용	수시
세탁실	세탁기 등 설치	수시
산책로	건물 주변 산책로에서 여가활동	수시
강당	경로대학, 어린이 재롱 잔치 등	경로대학 주 1회
게이트볼 장	수원시 주최 각종 행사 참여	수시
영안실	어르신 사망 시 안치 및 발인	사망 시

입소대상

입소대상은 무의탁 국가유공자 본인 및 고령 유족이며, 부양의무자가 있으나 부양의무자가 불구폐질·장기질환·장기복역 등 부양능력이 없는 경우는 입소대상이 될 수 있다.

입소연령은 전·공상군경 본인은 남자 60세 이상, 여자 55세 이상, 기타 본인과 유족은 남자 65세 이상, 여자 60세 이상이다.

보호실적

1962년부터 2020년까지 양로보호 인원은 총 1,182명이며, 이 중 사망자가 713명, 연고자 인수 등으로 퇴소한 자가 289명으로 2020년 155명을 보호하고 있다. 양육보호 인원은 총 971명이 입소했고, 그중 취업 510명, 연고자 인수 등으로 461명이 퇴소했으며, 2007년 이후에는 양육보호자가 발생하지 않고 있다.

보호프로그램

어르신들의 무료함 해소 및 건강증진과 정서적 안정을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안락하고 편안한 여생과 보훈가족이라는 자부심 속에서 생활하도록 지원하고 있다. 보훈원 내에 12개 주요시설을 운영하고 있는데 체력단련실에는 런닝머신 등 14종의 운동기구를 설치하고 이·미용실, 목욕탕, 종교 공간, 오락실 등을 마련해 다양한 취미생활로 여가를 즐길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대보름행사, 어버이날 행사, 효도관광, 경로대학 등 맞춤형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호국보훈의 달이나 명절, 연말연시에는 각계각층에서 방문하여 어르신들을 위로하고 있으며, 지역사회와 연계해 정부 각 부처, 지방자치단체, 군부대, 학교, 기업체 등에서 자원봉사와 위문공연 등을 하고 있다.

- 1 실버요가 프로그램
- 2 대보름행사 프로그램



건강관리

어르신들의 초고령화(평균 85세) 및 복합·노인성질환 증가로 전문요양센터, 보훈의원을 개설했고 치매관리, 감염병 방역대책으로 디지털 주치의 비대면 서비스, 코로나19 극복 자율프로그램 등을 실시해 건강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또한어르신의 심리적 고립감 완화 및 신체건강 관리를 위해 보훈재활체육센터와 협업으로 홈트레이닝 건강생활체조를 실시하고 있다. 또한, 경기도 정신건강 복지센터와 연계해 자살을 암시하는 언어, 행동 등 위기징후를 감지하여 상담하는 기법 등을 교육하는 ‘게이트 키퍼(생명사랑지킴이)’양성 교육을 실시해 자살 고위험군 조기 발견 및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상담을 통해 자살 예방 조치를 하고 있다.

맞춤형 프로그램	
프로그램	주요내용
대보름행사 (척사대회)	과거 전통 놀이를 통해 옛 추억을 되살리며 친목과 화합 도모
봄, 가을 효도관광	봄, 가을을 맞이하여 일상에서 벗어나 상쾌한 나들이로 심신 회복을 돕고 활기찬 원내생활과 건강한 삶을 도모
요양센터 나들이	일상에서 벗어나 요양실 어르신들의 원내 생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함
어버이날 행사 (가든파티)	어르신들을 부모와 같은 마음으로 공경하며 효를 생각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다짐
작품전시회	일년 동안 다양한 프로그램 활동의 결과물을 전시하여 어르신들의 자긍심 고취
경로대학 노인교실	노인들의 평균수명 연장으로 인해 무료한 말년을 경로대학을 통해 지적 욕구를 충족시키고 구성원들의 활발한 교류를 통한 삶의 질 향상
영화상영	영화감상을 통한 정서적 안정을 기대할 수 있고, 생활의 활력소와 문화생활을 접하기 힘든 어르신들에게 특별한 즐거움 제공
실버요가교실	다양한 요가동작을 익히고 근육의 긴장과 이완을 반복하여 건강한 신체유지
그림 그리기	그림 그리기를 통한 치매예방 및 치유와 실력향상에 따른 자존감 고취
꽃꽂이 수업	다양한 프로그램 도입으로 삶의 질 향상

전문요양센터

2009년 보훈원 부설 전문요양센터를 개설하여(보호인원 28명)「노인장기요양
보호법」에 따라 맞춤형 케어서비스 및 여가·특별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 맞춤형 케어서비스 : 매 분기 사례관리 회의를 통해 입소자 선정 및 맞춤형
솔루션 제공과 개별욕구를 파악해 간호사·사회복지사·요양보호사가 참여해
집중 서비스 제공
- 인지검사도구(K-MMSE) 활용 대상자별 맞춤 프로그램 제공

프로그램	횟수	인지그룹	활동내용
아침건강체조	일 1회	A, B	신체자극을 통한 치매예방
신체활동	주 1회	B	가동 가능한 범위 내 신체기능 유지
미술활동	주 1회	B	소도구 이용 및 작품 만들기
사랑방교실	주 1회	A	인지활동지 이용하여 인지기능 유지
전통놀이	주 1회	A	전통놀이를 통한 과거기억 향상
영화감상	월 2회	A	다양한 주제의 영화 관람
드라마 감상	주 1회	B	과거 드라마로 인지력 자극

- 특별프로그램 : 각종 기념일 행사(추석, 설, 국경일 등)에 대보름 연 그리기,
단오 부채 만들기 등 특별 프로그램 제공
- 지역사회 연계 프로그램 운영:네트워크 구축 맞춤형 프로그램 진행(외부강사
초빙)

프로그램	봉사단체	내용
발마사지봉사	따수미 봉사단, 발사랑회	발마사지 봉사(월 1회 제공)
안마봉사	대한안마사협회	안마봉사(월 1회 제공)
이미용봉사	울전동자원봉사단 등	컷, 파마, 염색(월 3회 제공)
건강생활체조	전문 개인강사	건강생활체조로 활력 증진(월 3회)
공연	참여율 봉사단, 효사랑 봉사단 등	문화공연을 통한 정서 지원(수시)
전통놀이치료	수원시실버인력뱅크	전통놀이를 통한 추억회상(월 2회)
동화 구연	수원시실버인력뱅크	동화 구연(월 4회 제공)

보훈의원

2010년 보훈원 부설 보훈의원을 개설하여 전문의, 간호사, 물리치료를
배치해 맞춤형 의로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2011년 예방접종 위탁의료기관
지정, 2017년 건강보험공단 진료비 청구로 진료수익이 발생하고 있으며, 매년
결핵검진과 치매인지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또한, ‘디지털주치의’ 비대면 의료 시범서비스를 도입하여 코로나19 확산에
대응, 보훈원·중앙보훈병원 간의 비대면 의로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치매관리

치매국가책임제 시행에 따라 고령의 보훈가족에게 치매 조기발견 및 치매 예방
증진을 위한 특화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 2016년 수원시 노인정신건강복지센터와 협업으로 K-MMSE(한국형 간이
정신상태검사)를 실시하여 치매 위험환자는 중앙보훈병원에서 정밀검사를
실시하고, 치매증상 및 종류에 맞는 맞춤형 프로그램을 실시하여 담당
간호사의 주기적인 K-MMSE 검사 및 생활 모니터링
- 2017년 치매전문기관과 협업으로 인지건강마을을 조성(조성비 8,000만 원)
하여 건강체조길 조성 및 CRF 표준 검사지(중앙보훈병원 신경과 전문의 개발,
치매효과 검증검사지)로 개선효과 검증 및 분석
- 2018년 치매안심학교를 개설하여 동수원병원, 노인정신건강복지센터 등의
전문가가 참여하여 공개강좌 및 뇌운동, 인지증, 보드게임, 퍼즐운동 등
프로그램 운영
- 2019년 아주대 간호학과와 협업하여 치매어르신 약복용, 건강상담, 산책 등
노인건강지킴이 양성 및 청춘 친구 활동 운영

보훈복지타운

1990년대 들어 고령 인구의 급격한 증가와 핵가족화에 따른 노인세대의 독립이 증가했다. 노년기에는 사회활동이 축소되고 일상생활능력이 저하돼 가정에서 보내는 시간이 증가하기 때문에 노인 특성에 맞는 주거시설 마련이 필요했다. 1996년 고령화된 국가유공자의 복지욕구에 부응하고, 무주택 국가유공자의 거주지 마련을 위해 수원시 장안구 조원동에 보훈기금 150억 원을 투입해 대지 20,962㎡에 아파트 7개 동을 건립했다. 세대 규모는 독신세대를 위한 26㎡(8평형) 240세대, 부부세대를 위한 45㎡(13평형) 212세대, 총 452세대이다. 편의 및 부대시설로는 각 동마다 빨래방, 휴게실, 담소실이 있으며, 상가동에는 슈퍼마켓, 식당, 목욕탕, 건강상담실, 노인정, 취미교실, 시청각실, 관리사무실이 있다. 이후 입주한 어르신들의 불편사항들을 지속적으로 수렴, 노후시설을 개선·보완(2011~2020: 16억 원)하여 생활편의를 도모했다.

입주대상 및 입주절차

보훈복지타운 입주자격은 국가유공자 본인은 65세 이상, 함께 입주 가능한 배우자는 남자 60세, 여자는 55세 이상이며 무주택자로 독립유공자 및 유족과 손·자녀, 그리고 국가유공자, 5·18민주화운동부상자 및 5·18민주화운동 희생자, 특수임무부상자 및 특수임무공로자의 자녀를 제외한 선순위 유족 등이 입주할 수 있다. 2021년 5월부터 자녀가 있어도 입주가 가능하도록 규정이 완화되어 자녀의 돌봄이 없어 어렵게 생활하는 국가유공자의 입주가 가능하게 되었다.

입주신청은 그동안 거주지 관할 보훈지청에서 입주 상담 및 입주신청을 받았으나 2017년부터 보훈복지타운에서 직접 입주신청서 접수 및 운영위원회 심의 등 입주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입주신청자는 거동능력이 있는 독신 또는 부부세대로 입주 당시 취사, 세탁 등 일상적인 신변관리를 독자적으로 할 수 있어야 하고, 부부세대인 경우에는 어느 일방이 거동능력이 있어 배우자의 신변보호가 가능하여야 한다.

입주보증금은 8평형 150만 원, 13평형 250만 원이며, 복지타운 내 거주자의

안녕과 질서유지 및 단지 환경보전을 위해 입주자 친목단체인 입주자 자치회를 운영하고 있다.

입주현황

시설규모는 452세대(8평형 240세대, 13평형 212세대)이며, 1996년부터 2020년까지 863세대가 입주, 526세대가 퇴거해 337세대(8평형 144세대, 13평형 193세대)가 거주하고 있으며, 상이군경과 미망인이 73% 차지하고 있다.

보호서비스

2010년 4월 복지타운 입주민들의 고령화(평균연령 81세)에 따라 취사생활이 어려운 세대를 대상으로 저가급식 및 도시락 배달서비스를 시행했다. 전문급식 업체를 선정해 양질의 급식을(1일 2식 연중급식) 제공하고 있으며 2013년부터 본인부담금(1,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비용은 복권기금에서 지원하고 있다. 또한 거동이 불편하여 병원 왕래가 어려운 입주민을 위해 중앙보훈병원 이용을 위한 셔틀버스를 주 2회 운행하고 있으며, 건강상담실에 간호사가 상주하여 혈압, 당뇨 등 기본적인 건강상태를 확인하고, 정신건강 관리를 위해 치매안심학교 운영과 세대 방문을 통한 심신 및 정서적 안정을 도모하는 등 입주민의 건강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특히 독거세대 증가로 고령, 질병으로 인한 고독사 문제가 대두됨에 따라 ICT 기술을 접목한 입소자 위험 사전경보 시스템을 도입, 활동감지센서, 화재·가스 감지센서, 응급호출기(219세대)를 설치하여 안전사고 예방 및 신속한 대응체계를 가동하고 있다.

운영수지(보훈원, 보훈복지타운) (단위 : 백만 원)								
구분	보훈원				보훈복지타운			
	2005	2010	2015	2020	2005	2010	2015	2020
수익	1,486	2,118	4,178	4,156	418	901	2,845	2,329
비용	2,937	3,750	4,548	4,331	1,546	2,503	2,433	2,412
손익(공단부담)	△1,451	△1,632	△370	△175	△1,128	△1,602	412	△83

보훈휴양원

미망인 및 국가유공자와 그 유가족들의 노후 여가 선용과 안락한 휴식처를 제공하기 위해 콘도형 휴양시설 건립을 추진했다. 1996년 충북 충주시 가금면 봉황리에 보훈기금 70억 원을 투입해 60실 규모의 현대식 콘도형 3층 건물을 신축하고 국가유공자 및 그 유·가족 등이 저렴한 가격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보훈휴양원의 편의 및 부대시설로는 휴게실·노래방·슈퍼마켓·강당·조류농원·산책로 등이 있다. 주변에 충주호, 월악산, 고수동굴 등 관광명소가 있고 경관이 수려한 쾌적한 환경에서 휴양과 여가를 보낼 수 있다.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인 점을 감안해 2004년 보훈기금 20억 원을 투입해 리모델링 공사를 실시했으나, 그 후 시설노후화로 2018년 보훈기금 10억 원을 투입해 2차 리모델링 공사를 했다.

시설이용

시설이용은 미망인 본인,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순으로 하고 잔여 객실이 있을 경우 일반인도 이용이 가능하도록 했다. 객실 이용료는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의 경우는 최소한의 실비만 부담하도록 했다.



1 보훈휴양원 프로그램
2 보훈휴양원



보훈휴양원 객실현황				
(단위 : 실, 명)				
구분	합계	39.6㎡(12평형)	49.5㎡(15평형)	75.9㎡(23평형)
객실 수	60실	20실(2인용)	20(3인용)	20(5인용)
수용가능 인원	200명/1일	40명	60명	100명

보훈휴양원 이용요금(2021년)				
(단위 : 원)				
구분	미망인	국가유공자 및 유족	참전유공자 및 장기복무제대군인	일반인
39㎡	24,000	32,000	40,000	80,000
49㎡	33,000	44,000	55,000	109,000
76㎡	47,000	63,000	79,000	158,000
평균할인율	30%	40%	50%	100%

보훈휴양원 이용				
(단위 : 명)				
구분	계	미망인	유공자	일반인
2005	62,485	28,057(45%)	19,116(30%)	15,312(25%)
2010	61,727	25,897(42%)	29,446(48%)	6,384(10%)
2015	60,502	21,219(35%)	32,654(54%)	6,629(11%)
2020	17,495	2,996(17%)	11,667(67%)	2,832(16%)

보훈휴양원 운영수지							
(단위 : 백만 원)							
구분	2005	2010	2015	2017	2018	2019	2020
수익	331	480	1,237	1,345	1,363	1,426	444
비용	890	1,204	1,200	1,388	1,421	1,480	1,331
손익(공단부담)	△559	△724	37	△43	△58	△54	△887

※ 2020년 : 코로나19 영향 임시휴업 장기화로 수입 감소

제2절

요양보호

2000년대에 이르러 고령화 현상에 따라 치매·중풍 등 장기요양보호의 수요는 날로 증가하는 데 비해 핵가족화와 여성의 사회활동 증가 등으로 노인 부양기능은 크게 약화되었다. 이에 국가보훈처는 수발 장애를 겪고 있는 고령 보훈대상자의 복지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2005년 국가유공자 노후복지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복권위원회로부터 복권기금 사용승인을 얻어 2006년 2월 국가유공자를 위한 요양시설 건립을 추진했다. 이 계획에 따라 보훈공단은 2006년 3월 국가보훈처와 위탁약정을 체결하고 요양시설 건립사업을 전담 수행하게 되었다. 2006년 12월 수원·광주 요양시설이 착공되었고, 부산지역은 도시계획시설 변경승인 신청을 했으나 당초 건립부지인 부산보훈병원 인근 주민들의 반대로 2007년 9월 김해시 진영읍의 농원 부지를 매입, 경남지역 요양시설 건립을 추진해 2008년 2월 착공되었다. 그 결과 2008년 7월 수원과 광주보훈요양원을 개원했고, 2009년 8월 김해보훈요양원을 개원했다.

대구보훈요양원은 2007년 12월 부지 매매 계약이 체결되어 대구광역시 달성군 하빈면에 2010년 3월 착공해 2011년 11월 개원했다. 대전보훈요양원은 2009년 12월 한국토지주택공사의 대전 죽동지구 도시계획시설 부지를 매입하고 2010년 12월 착공해 2012년 10월 개원했다. 남양주보훈요양원은 복권기금 310억 원을 지원받아 2015년 2월 개원해 수도권 요양시설 대기 해소에 기여하고 있다. 강원지역의 원주보훈요양원은 복권기금 366억 원을 지원받아 2019년 3월 착공하여 2020년 12월 개원했다. 또한, 전주보훈요양원은 전주시 완산구에 복권기금 345억 원을 지원받아 2020년 6월 착공해 2022년 4월 개원할 예정이다.

한편, 요양시설 운영과 관련하여 2008년 1월 국가보훈처와 보훈공단은 요양시설 운영에 대한 위탁약정서를 체결했으며, 같은해 4월 공모를 통해 ‘보훈요양원’으로 명칭을 선정하는 한편 6월에는 요양원의 입소대상과 입소 순위, 요양비의 감면 내역 등을 규정한 보훈요양원 운영지침을 제정했다.

보훈요양원은 당초 노인성 질환자뿐만 아니라 보훈병원 병상회전율, 중상



개원 순

- 1 수원보훈요양원
- 2 광주보훈요양원
- 3 김해보훈요양원
- 4 대구보훈요양원

이자의 요양 등을 고려하여 건립·운영 계획이 수립되었으나, 2008년 7월 1일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시행에 맞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1조에 따른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받아 장기요양에 사용된 비용 중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부담하는 비용과 본인 일부 부담금 등을 재원으로 확보하여 운영하고 있다.

요양원은 일광욕실, 재활치료실, 요양실, 프로그램실, 치유정원, 중앙정원과 자동승강 옥조실 등이 완비된 것은 물론이고 ‘나라사랑, 가족사랑, 자연사랑, 지역사랑’을 콘셉트로 한 인테리어 환경을 갖췄다. 요양원 직원들은 입소하는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들에게 정성을 다해 안락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안내센터는 보호자들이 편안하게 상담할 수 있도록 설치되어 있으며, 종사원들은 정기적으로 친절교육을 받고 있다. 요양실 앞에는 입소자의 사진을 찍어 인지능력이 떨어지는 이들도 방을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했고, 고객 소리함을 설치해 보호자들의 각종 건의사항에도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운영프로그램은 정서지원 프로그램, 기능회복 프로그램, 건강관리 서비스, 영양서비스 등 각 요양원별로 운영프로그램을 다양화, 특성화하여 일반 요양시설과 차별화했다. 정서 기능 회복을 위한 미술치료·원예치료·레크리

에이션·노래교실 등의 활동 프로그램과 생활요가, 발마사지, 침·뜸 서비스, 종이접기, 꽃북주머니 만들기, 태극기 그리기 등의 특별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어린이집 운영, 자원봉사자와 정기·특별·결연후원 등으로 지역사회와 함께 어우러진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다.

입소자의 다빈도질환은 치매, 뇌졸중, 고혈압, 파킨슨, 고관절 골절 순이며 다빈도질환자의 증상을 분석해 QI활동을 통한 맞춤형 요양케어 및 인지·신체기능 개선을 위한 재활 프로그램, IT기반 인지훈련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전문요양실을 운영하여 영양·배설·호흡·상처 등 별도처리가 필요한 1~2등급 입소자 또는 시설급여자에게 집중의료·간호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비대면 원격협진시스템을 운영하여 진료편익을 도모하고 있으며 ICT기술을 접목한 낙상위험조기발견시스템을 운영해 안전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다.

특히, 2009년부터 통합요양정보시스템인 Bohun-Care를 구축하고 요양 서비스를 표준화해 입소한 어르신 개개인에게 맞는 체계적인 맞춤형 요양 서비스를 제공해왔으나, 요양시설 확충으로 시스템 운영의 안정성과 프로그램

- 5 대전보훈요양원
- 6 남양주보훈요양원
- 7 원주보훈요양원
- 8 전주보훈요양원



개선 및 업무효율성 강화가 시급해 2021년 복권기금 18억 원을 지원받아 시스템을 재구축했다. 향후, 병원정보시스템과 연계한 보훈공단의 통합 의료·복지 정보시스템이 구축되면 보다 나은 과학화 선진화된 요양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된다.

보훈요양원							
구분	수원	광주	김해	대구	대전	남양주	원주
위치	경기 수원시 장안구	광주광역시 광산구	경남 김해시 진영읍	대구광역시 달성군	대전광역시 유성구	경기도 남양주시	강원도 원주시
규모	대지 13,744㎡ 건물 7,934㎡ (62실) 지하 1층, 지상 3층	대지 6,106㎡ 건물 7,563㎡ (56실) 지하 1층, 지상 3층	대지 29,104㎡ 건물 7,619㎡ (59실) 지하 1층, 지상 4층	대지 19,987㎡ 건물 7,490㎡ (59실) 지하 1층, 지상 3층	대지 7,700㎡ 건물 7,378㎡ (60실) 지하 1층, 지상 4층	대지 5,006㎡ 건물 9,320㎡ (59실) 지하 1층, 지상 4층	대지 9,785㎡ 건물 10,515㎡ (60실) 지하 1층, 지상 4층
건립비	160억 원	151억 원	231억 원	216억 원	230억 원	310억 원	336억 원
개원	2008.8.26	2008.9.4	2009.9.30	2011.11.7	2012.10.30	2015.2.27	2020.12.16
수용 인원	222명 (주간보호 28명)	200명 (주간보호 28명)	200명 (주간보호 28명)	200명 (주간보호 28명)	200명 (주간보호 39명)	206명 (주간보호 36명)	200명 (주간보호 25명)
종사원	142명	131명	131명	131명	134명	131명	131명

※ 전주요양원 : 전북 전주시 완산구, 사업비 345억 원, 2020년 6월 착공, 2022년 4월 개원 예정

보훈요양원

입소대상

보훈요양원에 입소할 수 있는 대상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등 관련규정에 의거 시설입소 대상으로 결정된 자로서 65세 이상인 자와 65세 미만인 자는 해당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장기요양등급 판정신청을 하고, 시설입소가 확정된 자인 경우 희망하는 보훈요양원에 입소신청을 하면 접수순으로 입소가 가능하다. 주간보호센터의 경우는 재가급여가 가능한 등급판정을 받은 자이다. 또한 보훈요양원 운영규정 제12조에 의거한 65세 미만 국가유공상이자로서 노인성 질병에는 해당되지 않으나 장기요양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해당 질병이 시설입소 장기요양등급 정도에 해당하는 자이다.

입소절차

보훈요양원 입소를 희망하는 사람은 입소신청서류를 해당 보훈요양원에 제출하고, 요양원 사회복지사와 상담 후에 입소 여부에 따라 신청서를 접수하면 보훈요양원 운영규정 제17조에 의거 우선순위에 따라 결정된다.

보훈요양원의 장기요양보호시설 이용료는 보건복지부가 고시하는 장기요양 보험 급여수가와 비급여수가로 구분하고 있다. 관할 시·군·구청장이 서비스 이용계약을 승인한 기초생활수급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장기요양 보험 급여수가 중 본인부담금의 전액, 의료급여수급자 및 감경대상자는 60, 40%를 각각 감면하고, 건강보험가입자 중 국가유공자 및 유족 등에게는 장기요양 급여부분 중 본인부담금 감면율을 적용하여 국비(보훈기금)로 처리하고 있다. 유족의 범위는 선순위로 등록된 수권 배우자, 수권 부모(부 또는 모인 경우 배우자 포함)를 말한다. 식비, 간식비, 상급 침실료 등 비급여 부분은 본인이 부담한다. 비급여 부분 중 경관영양 유동식은 별도 소요비용(재료비)을 본인이 부담하고, 기저귀 등 위생재료비, 이·미용비, 프로그램비, 단체 외유교통비, 상담치료비, 욕창 처치비 등 간호재료비는 예산범위 내에서 국비부담하며, 환자상태로 보아 위급한 환자나 타인과의 공동생활이 어렵다고 요양원장이 판단한 경우에는 상급침실을 사용토록 하며, 그 비용은 비급여로 본인이 부담한다.



장기요양급여 대상별·생활정도별 지원기준		
구분	지급대상	본인일부부담금에 대한 보조비율
• 독립유공자 • 전·공상군경 • 4·19혁명부상자 • 공상공무원 • 특별공로상이자 • 5·18민주화운동부상자 • 특수임무부상자	국가보훈처장이 정하는 생활수준에 해당하는 자	100분의 80
	「의료급여법」 제3조제1 항제2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수급자, 본인일부부담금 감경대상자	100분의 80
• 무공·보국수훈자 • 6·25참전재일학도의용군인 • 4·19혁명공로자 • 특별공로자 • 5·18민주화운동희생자 (부상자를 제외한 유공자 본인) • 특수임무공로자 • 독립유공자의 배우자 • 국가유공자, 5·18민주유공자 • 특수임무유공자의 배우자 (참전유공자 배우자 제외) 및 유족 중 부모	국가보훈처장이 정하는 생활수준에 해당하는 자	100분의 40
	「의료급여법」 제3조제1 항제2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수급자, 본인일부부담금 감경대상자	100분의 60
•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중 장애등급판정자 • 참전유공자	「의료급여법」 제3조제1 항제2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수급자, 본인일부부담금 감경대상자	100분의 60

요양시설					
구분		장기요양보호		주간보호	
		정원	침실수		
			1인실		4인실
계		200인	8실	48실	28인
국가유공자 및 유족	국가유공자 본인	140인	4실	34실	28인
	국가유공자 유족 등	40인	4실	9실	
지역주민(일반인)		20인	-	5실	

요양보호 (단위 : 명, 2020년 기준)								
구분	계	수원	광주	김해	대구	대전	남양주	원주
장기요양	1,108	164	188	193	179	180	178	25
주간보호	96	13	17	14	17	24	11	-

운영수지 (단위 : 백만 원, 2020년 기준)									
구분	수익				비용				손익 (공단 부담)
	보훈기금	복권기금	자체수익	등 계	재료비	인건비	경비	등 계	
계	1,240	5,463	33,506	40,209	564	29,727	13,026	43,317	△3,108
수원	229	866	5,527	6,622	113	5,137	2,167	7,417	△795
광주	179	866	5,658	6,703	83	5,025	2,043	7,151	△448
김해	196	866	5,421	6,483	85	4,661	2,162	6,908	△425
대구	140	866	5,449	6,455	70	4,541	2,028	6,639	△184
대전	128	934	5,302	6,364	77	4,717	1,993	6,787	△423
남양주	331	866	5,430	6,627	122	4,570	2,094	6,786	△159
원주	37	200	718	955	14	1,076	540	1,630	△675

보훈요양시설 : ‘수용’중심에서 ‘생활공간’ 개념으로 전환

밝고 안락한 가족생활형 거주환경

100%南向의 요양실
지인실 내 기밀성 제공실, 사생활 보호경계(에드거튼)

공동생활 유니트
가족생활 분위기, 사회적 교류지속

자연과 빛을 접촉하는 치유환경

자유롭게 활용하는 선택마당
요양보호사의 안전관, 자연을 만나는 옥외 활동공간

빛이 드는 백화공간
음향의 자유로운 선택, 창시로의 일대일 선택

안전하고 명료한 보호환경

사각없이 안전한 관찰관리
일대일 돌봄인식과 신속이 대응하는 안전시스템(에드거튼)

간결하고 명료한 동선
신체적·정신적 부담 최소화, 자연스러운 일대일

요양정보시스템

보훈공단은 2009년 통합요양정보시스템인 Bohun-care를 구축하여 요양 서비스를 표준화하고 개개인에게 맞는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했다. 현 시스템 구축 당시에는 3개 요양원(수원, 광주, 김해)을 대상으로 개발했으나 요양원 건립이 계속 확대됨에 따라 서버 부족 및 시스템 노후화로 인해 요양서비스 프로그램 개선 및 업무 효율성 강화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한편 보훈공단에서는 2019년 IT 경쟁력을 강화하고 의료 빅데이터로 보훈 가족에게 최상의 보훈 의료·복지 통합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보훈공단 정보시스템 통합 구축 기본 방향을 수립했다. 구축 방향은 병원정보시스템, 요양정보시스템 및 홈페이지 재구축과 함께 경영정보시스템 등 정보연계 및 공유 플랫폼을 만들어 보훈병원, 보훈요양병원, 보훈요양원, 위탁병원 간의 정보연계 및 공유가 가능한 플랫폼을 구축하는 데 있다.

그 일환으로 2020년 통합 의료·복지정보시스템 구축을 위한 ISMP(정보시스템 마스터 플랜 : 각 단위 프로젝트의 기능·기술·비기능 요구사항 등 상세설계) 컨설팅을 추진한 결과,요양정보시스템과 병원정보시스템은 사용자가 분리되어 있어서 별도의 시스템으로 구축이 가능하다는 결론이 나와 2020년 8월 이사회 의견을 거쳐 요양정보시스템을 우선 추진, 복권기금 18억 원을 지원받아 2021년 10월 재구축했다. 향후 동 시스템을 병원정보시스템과 연계하여 보훈공단 통합 의료·복지정보시스템이 구축되면 보다 나은 과학화, 선진화 된 요양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된다.

통합요양정보시스템					
내부연계	新 통합요양정보시스템(2020.5~2021.6)				외부연계
	기존활용	기존개선	신규개발		
•통합경영 •보훈자격조회 •건강복지안전망	•입소자 정보관리 •운영지원	•간호서비스 •주기적 평가 •주간보호 •영양관리	•일상생활 •정서지원 •기능회복	•요양급여 청구 •보호자 소통관리 •보훈원, 복지타운, 양로보호 지원	•건보공단 장기요양 급여 •국세청 •CMS기관

정서지원
프로그램

복지 선진국형 설계를 반영한 일광욕실 등 친환경시설과 텃밭, 가족실 등 친환경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1·3세대 사회통합 HAPPY TOGETHER’로 요양원 어르신과 지역사회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이는 핵가족화로 접촉기회가 적은 1세대(어르신)와 3세대(어린이)가 함께 하는 프로그램으로 어르신에게는 정서적 안정을, 어린이에게는 경로효친 사상 함양의 기회를 준다. 또 지역사회 교류를 강화하고 사회참여를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어르신의 사회통합 활동을 돕는 내용이다. 또한 어르신들이 평생 동안 살아오면서 체득한 계절적 변화에 맞추어 요양원에서는 주기적인 계절행사를 프로그램화했다.

나라사랑교육 및 청소년자원봉사활동

- 하계방학 기간에 지역 내 중고생 대상으로 나라사랑교육(보훈처 동영상 등 활용), 모듬 활동(자원봉사활동 및 나라사랑의 의미 자유 토론), 자원봉사 기본 교육 이수, 자원봉사활동, 국가유공자 어르신과의 대화, 어르신과 유대의 시간(어르신 편지 읽어드리기 등), 소감문 및 설문지 작성, 수료식 등 프로그램과 나라사랑체험교실을 운영해 청소년에게 나라사랑 정신을 함양하는 계기를 마련했다.
- 경기도 청소년활동진흥센터 주관 경기도 청소년 자원봉사대회 우수 프로그램 지도자 경기도의회 의장상(나라사랑 체험교실 운영 우수사례)
- ‘청소년자원봉사학교’는 경기도 청소년자원봉사자대회 5년 연속 우수기관 선정

보훈 시니어 합창단

- 장기입소에 따른 우울감 완화 및 자존감 제고를 위해 ‘합창음악은 치유와 웰빙에 적절한 정서적 치료에 도움이 된다.’는 광주대학교 논문을 근거로 시니어 합창단을 구성해 음악을 활용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 구성원 : 어르신 20명(간이정신상태검사 10점 이상, 일상생활동작 73점 이상) 및 지휘자(성악전문 대학교수)
 - 진행방법 : 선호하는 노래 선별 후 다양한 장르의 곡을 선정, 개인별 악보



1 힐링 음악회
2 지역사회 연계 공연
3 언론보도

- 제공, 악기연주(젓가락, 우드블록, 탬버린) 등 신체활동을 병행
- 진행횟수 : 매주 실시(연인원 1,000여 명 참여)
- 특별공연 : 어르신, 보호자, 남부대 평생교육원 등 지역사회를 연계한 콜라보레이션 공연(상·하반기 2회)

보훈 홈 스테이

-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청소년들의 노인경시 풍조와 관련하여 세대 간의 갈등을 해소하고 가족이 없거나 가족과의 관계가 소원한 어르신들의 면회와 정서적 교류에 대한 욕구를 해소하기 위한 통합프로그램 운영
- 매월 셋째 주 토요일에 프로그램을 정기적으로 진행함으로써 어르신들이 결연 청소년들을 인지하게 되어 프로그램 만족도가 높아졌다. 결연 청소년들의 학교에서는 연말에 우수 참가자 시상 등을 통해 프로그램 참여에 대한 확실한 동기부여를 하고 있다.(매년 말 우수자원봉사자 30여 명 시상)

老·老 케어·재능나눔

- 시니어 클럽을 모티브로 어르신에게 사회적 역할을 부여하는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정기적인 참여와 경제적 보상을 통한 자존감과 성취감을 고취하고 있다.

추진방향	① 老-老 케어: 건강한 어르신이 도움이 필요한 어르신에게 정서 지원 서비스 제공 ② 재능 나눔: 과거 본인의 직업 경험을 토대로, 다른 어르신에게 프로그램 제공 ③ 활동 보조: 본인 개인용품(수건·양말·위생용품 등) 정리정돈		
일거리 제공	老-老 케어 요양원 어르신들이 서로를 위한 교감을 나눔 손 마사지·말벗 진행	재능 나눔 기자(소식지 원고작성), 목사(예배지원), 농부(과실 수확) 전업을 토대로 역할제공	활동 보조 빨래개기, 1회용품 정리 등 요양실 내 간단한 활동 보조
경제적 보상	즐거운 월급날 요양원용 화폐 지급 (시급 1만 원 상당)	소비활동 본인이 필요한 물품 구입 (보훈장터, 마트를 통한 구입)	개별 통장, 저축활동 요양원용 통장으로 저축 (입출금 수시로 가능)



효(孝) 사랑, 나라사랑 세대공감 스쿨링

- 전(全) 세대 간 교류를 통한 요양원의 사회적 역할을 수행하고 활발한 지역사회 연계를 통해 다양한 세대가 참여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입소생활 만족도를 높이고, 효 사랑 교육과 자원봉사교육을 통해 시혜적 의미의 자원봉사에서 벗어나 입소자 존중에 바탕을 둔 자원봉사활동으로 자존감 제고에 기여했다.
- 차별화된 세대공감 프로젝트의 개발과 도입
 - Kids Club : 취학 전 연령(0~7세) 활동형 프로그램 도입
 - Child Club : 초등학생(8~13세) Co-teaching 본격 도입
 - Youth Club : 중·고등학생(14~19세) 학부모세대의 동참을 통한 전(全) 세대 교류 활성화
 - Adult Club : 성인(20세~) 정규프로그램 도입을 통한 시너지 효과창출

인수타그래! 프로그램

- SNS(Social-Network-Service) 활동이 어려운 어르신을 대상으로 사람이 직접 만든 공감 활동으로 전문자원봉사자가 참여해 운영하고 있다.

개요	SNS 활동이 어려운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사람이 직접 만든 공감 활동		
	인(人) 사람이 직접 만들어	수타(手打) 손을 '탁' 칠 정도로	그래 '그래!' 하고 공감하는 이야기
진행	SNS게시물 만들기 10~20대 자원봉사자 연계 어르신이 하고 싶은 이야기로 게시물(동영상) 제작	좋아요/댓글달기 방문객들에게 가장 공감을 얻는 게시물 (동영상) 선정	파워 '인수타그래' 최다 좋아요를 받은 게시물(동영상)에 포상하여 성취감 증가
결과리뷰	• 1·3세대 및 외부 지역주민과의 소통을 통한 입소 어르신 자존감 향상 도모 • 프로그램 활동 시 어르신 욕구를 파악하여 소규모 프로그램 활동 추가 진행 - '내가 아직 준비를 못하고 왔어. 예쁘게 사진 하나 남겨줘' → 영정사진촬영 : 전문 포토그래퍼 섭외로 사진촬영 - '내가 농사를 지었었는데 흙 묻은 것들 좀 만지고 싶어.' → 자연물활동 : 산림교육전문가 연계 '인생숲길' 프로그램 - '유치한 거 말고 좀 어려운 게임 같은 것 좀 없어?' → 소근육활동 : 보드게임 지도사와 연계한 '신체자극 보훈운동회'		

새시(새롭게 시작하는) 학교 프로그램

- 학교를 다니고자 하는 욕구 증가(86세 만학도 할머니의 초등학교 졸업 사례)로 요양원 입소 어르신들의 욕구충족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인지기능 향상이 필요하여 프로그램 참여자를 선정하고 학습수준별 반 편성 및 수준별 교수법을 연구하여 학교와 동일한 시스템으로 수업과 하루 일과를 구성했다.
- 학생 및 지역사회 봉사팀과 연계해 눈높이에 맞는 학습과 받아쓰기 대회, 소풍, 입학식 및 졸업식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인지기능 및 자존감을 제고했다.
- 2018년 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 급여제공 우수사례 경진대회 최우수상 수상

존엄케어 선포식

- 어르신 존엄가치 제고의 일환으로 요양원 종사자, 시민참여혁신단 등 외부 인사가 참여한 가운데 존엄케어 선포식을 거행했다.
- 존엄케어 실천선언문 낭독, 존엄케어 우수사례 동영상 시청, 섬김과 존중의 의미로 세족식 등을 실시하여 자긍심을 갖도록 했다.

지역사회 상생·협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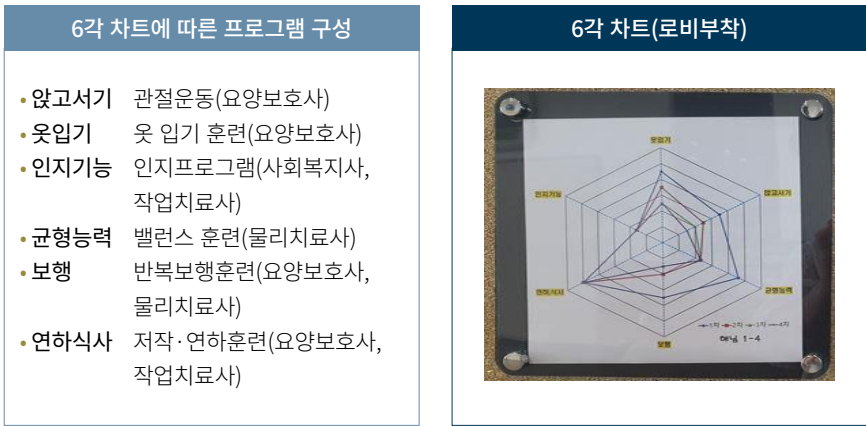
- 요양원의 축적된 노하우와 우수사례를 동종 관계자, 민간시설 등에 전파·공유함으로써 공공기관으로서 사회적 가치 증진과 지역사회 요양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 2014년 멘토링 사업에 참여했다. 멘토기관의 현장 및 프로그램 견학과 신체기능 증진 및 치매 예방을 위한 체조 (중앙보훈병원 전문의 자문)를 개발해 40여 개 요양기관에 배포했다. 이에 2014년 장기요양서비스 멘토링 사업 우수운영기관으로 선정되어 지역사회에 장기요양기관평가 통합 컨설팅 및 주간보호센터 운영 노하우를 전수했고, 언론보도(문화일보 2020.6.29)를 통해 우수한 성과를 공유했다.
- 2018년 공유가치 창출을 위한 주간보호센터 창업 컨설팅을 추진하여 결과물을 대신요양보호사교육원 등 10개 기관에 배포했으며 2021년 우수요양서비스 사례 전파를 위한 공모전 개최 및 사례집을 발간하여 배포했다.

특성화 프로그램

ADL 빅데이터 기반 맞춤형 프로그램

- 일상생활 기능 유지를 위해 빅데이터 기반 6개월 단위로 주기적인 차트관리 및 개인별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간호·복지 서비스 동시 제공으로 ADL 기능 제고 및 장기요양등급유지·호전을 기대할 수 있다.

※ ADL: 일상생활동작(식사,배설,목욕,옷 갈아입기,보행 등 일상생활의 기본적인 동작)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 평가



등급관리 프로그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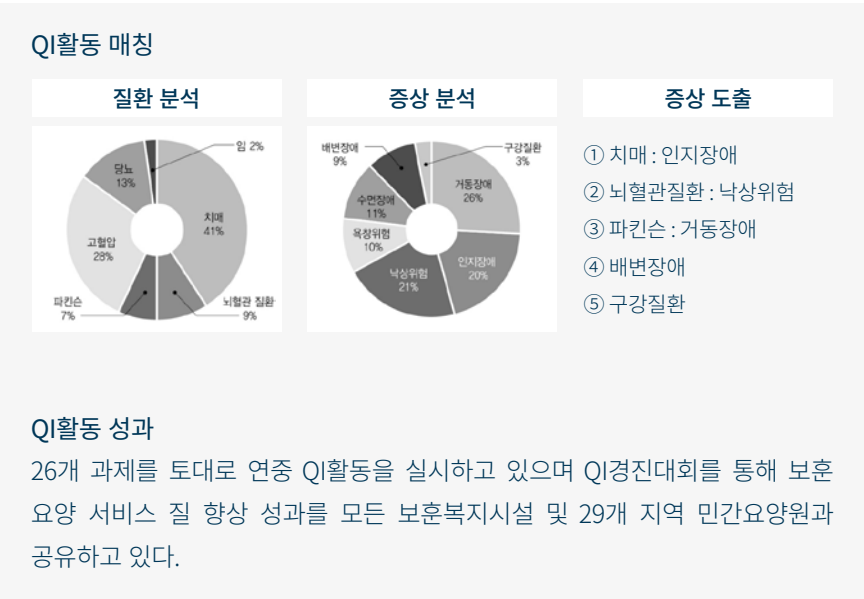
- 등급관리 프로그램으로 인지, 신체기능 회복 및 정서 안정 중심의 영역별 프로그램(IT인지훈련·실버순환·재활훈련·심리안정치료·보훈멘토링)을 운영하고 있다.
- 워킹레일을 설치(복권기금 지원사업)하여 독립보행훈련과 걷기 실천 프로그램 ‘의미 있는 배회’ 및 휠체어 안전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 보훈의식함양 ‘보훈회상 프로그램’과 지역 군부대 등과 연계하여 1·3세대 통합 프로그램인 ‘세대공감 OLD&NEW’ 및 명절행사, 요리교실, 텃밭 가꾸기 등 가정회상 프로그램인 ‘보훈빌리지’를 운영하는 등 체계적인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과 평가관리를 통한 지속적인 서비스 관리로 인지기능 및 사회성 향상에 기여하고 있다.
- 2016년 건강보험공단 우수사례 프로그램 경인지역 최우수상, 전국대회 장려상 수상

※ 사전·사후 평가관리(ADL, BBS, 낙상위험도 측정)
- 기능적 독립성 호전율 33%, 보행능력 호전율 33%, 낙상 위험도 훈련율 29%

건강관리 프로그램

다빈도질환 요양케어

- 입소자의 다빈도질환 및 주요증상을 분석, QI활동을 통한 맞춤형 요양보호 서비스를 제공하여 인지기능 호전 및 우울성향 감소로 삶의 질이 향상되었다.



구분	요양케어
치매 (인지장애)	- 의료: 권역별 보훈병원·계약의사 연계 치매진단·치료 및 약물처방 - 재활: K-MMSE 인지능력검사 결과를 통해 치매증상 정도(초·중·말기)에 따라 브레인닥터(인지재활 APP), AI 스피커 활용 스토리텔링 등 검증된 인지재활 프로그램 맞춤형 처방 - 인원별 인지개선 프로그램 제공 주기 단축(월 1~2회 → 주 1회)
뇌혈관질환 (낙상위험)	휠체어·보행보조도구 이용·자립보행 가능 등 신체기능별 그룹화·맞춤 워킹 프로그램 처방으로 신체활력 유지 및 낙상사고 예방 유도
파킨슨 (거동장애)	- 항파킨슨 약물치료 및 거동가능 입소자 대상 '프렌켈' 운동 재활 실시 - 전동·수동 상하지 운동치료, 평균대·워크메이트 보행훈련 격주 순환
배변장애	- 배뇨장애로 인한 유치도뇨관 삽입 증가로 요로감염 발생증가 - 소변량·색 모니터링을 통한 유치도뇨관·소변주머니 교체주기 단축
구강질환	- 치위생사 경력의 요양보호사가 잇몸 마사지 등 전문 구강케어 교육 - 스스로 입을 벌리지 못하는 어르신의 효과적 구강관리를 위한 덴탈 팁, 가느모칫솔 등 구강재료 활용을 통한 상처 없는 안전한 구강관리 실시

전문요양실 운영

- 영양·배설·호흡·상처 등 별도처치가 필요한 1~2등급 입소자에게 집중의료·간호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별도의 전문요양실을 운영하고 있다. 전담간호인력(5명), 영양보호사(11명) 등 전문요양팀을 운영하고 있으며 촉탁의사 방문진료 및 간호지시서 발급으로 간호처치·관리가 필요한 중증입소자에게 전문적인 케어를 실시하고 있다.
- 이와 같은 체계적인 전문요양실 집중케어로 욕창발생, 낙상, 응급진료 등 건강악화사례가 대폭 감소되었다.
 - 전문간호처치 : 진료영역 간호처치 시행
 - 영양간호처치 : 간호배치인력 상향조정에 따른 모니터링 강화로 영양간호처치 확대
 - ※ 전문·요양간호처치 : 경관영양공급, 도뇨관리, 산소흡인, 욕창드레싱 등

스마트 원격협진 프로세스

- 와상 등 거동이 불편한 입소자 및 코로나19 등 감염에 대응하여 2016년 11월 건강관리보험공단 시범사업으로 계약의사와 요양원 간 원격협진을 실시했다. 그러나 원격협진 시 「의료법」 제한으로 처방 없이 의료상담수준으로 진행되어 실효성이 감소된 실정이었다.
- 2020년 3월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원격협진 시 원외처방이 가능한 건강관리 시범사업이 실시됨에 따라 수원보훈요양원이 참여한 데 이어 2021년 7월부터는 6개 보훈요양원이 참여하고 있다. 그 결과 원외처방전이 도입되어 원격협진이 전년대비 58% 증가하고 외래병원이동이 70% 감소하는 등 진료편익이 향상되었다.

인지·신체기능 개선 프로그램

인지·기능훈련 프로그램

장기요양등급호전·유지를 위한 프로그램으로 IT인지훈련, 실버순환 재활, 심리안정치료실(스노젤렌), 보훈애국 멘토링 등 재활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또한 국내 장기요양시설 최초로 신체·인지기능을 실시간 측정, 건강상태를 관리할 수 있는 첨단 재활장비를 도입해 인지능력, 근력, 자립보행 능력이 향상되었다.

기존재활	신규장비	프로그램
태블릿PC (인지재활 APP)	인지훈련시스템 Cog-Trainer 2.5 (대당 15백만 원)	•치매 경증 및 중기 입소자 대상 •게임과 연계된 인지재활 프로그램 4종 -레이싱, 벽돌깨기, 기억력 훈련 등 •재활이력 자동저장·능력별 난이도 조절
전동·수동 상하지 운동치료	등속성 운동치료 Upper Limb System (대당 27백만 원)	•뇌졸중·편마비 증상자 신체재활 •여가·게임형식의 운동치료 프로그램 -상체강화운동 등 신체근력 활성화 •재활이력 자동기록·스마트 운동 처방
트레드밀 보행훈련	천장 자립보행 Walkmate (대당 18백만 원)	•자립보행 불가능 입소자 신체재활 •고정형 루프를 이용한 하지근력 강화훈련 및 슬링운동 병행 가능 -균형감각 훈련 등 자립보행강화 지원

기능성 질환(뇌졸중, 파킨슨, 기타 질환 등)을 가진 입소 어르신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기존 프로그램과 연계성을 강화하여 통합적인 Cross-Fit (순환)재활 운동 프로그램을 제공하고자 지역 내 대학의 물리치료학과와 업무협약(MOU)체결·학술 교류를 통해 다양한 운동 프로그램을 구성·운영하여 치료실 내 장비와 도구의 활용률이 증가했다. 운동구간 동안 치료사와의 1:1 밀착으로 인해 어르신과의 친밀감 및 신뢰감 형성으로 기능훈련 만족도가 제고되었으며, MOU 체결 대학과 학술적 교류를 통해 프로그램 개발 자문 및 연구를 수행했다.

- 김해·인제 대학교 물리치료학과 논문 공동 연구 참여(4편)
- 김해대학교 물리치료과 외부 출강(2012년~2014년)
- 동주대학교 물리치료학과 MOU 체결(2014년)



직립보행 프로젝트(Walking senior)

보행훈련 증가를 위한 자체 프로젝트 ‘보행을 위한 예상회복척도’를 개발해 보행능력 향상가능성이 높은 어르신 위주로 지속 시행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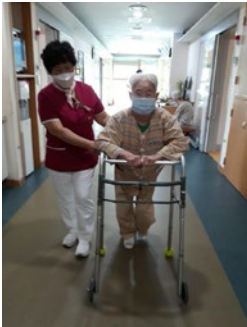
구분	주요내용
사전 기능평가	‘보행을 위한 예상회복척도’를 활용 상위 5% 대상자 선정 - 프로젝트 적용 및 회복 가능성이 높은 어르신 위주 - 균형, 감각, 근력, 통증, 인지 등 보행에 필요한 5가지 항목
기능상태 회의	- 물리·작업치료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조장으로 구성 - 어르신 현 기능상태에 대한 분야별 공유를 위한 회의 실시 - 사례관리회의 및 KOMI와 연계, 과거, 현재 상태를 바탕으로 활용
보행훈련	보다 많은 보행의 기회 제공
사후 기능평가	보행을 위한 예상회복척도와 KOMI 차트를 이용하여 기능 상태변화 확인 및 환류

근력 향상 보행운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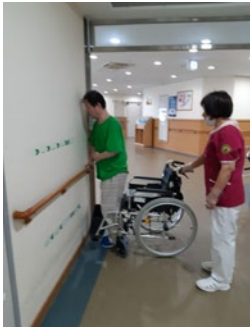
입소 어르신은 중증 노인성 질환으로 인해 근육 기능 저하, 근육량 소실에 따라 낙상사고의 위험에 늘 노출되어 있다. 규칙적인 보행운동 및 근력운동을 통해 하지근력을 향상시켜 일상생활 능력 증진, 낙상사고 예방, 보행능력 향상 및 근육기능을 강화하도록 훈련하여 낮 시간에 에너지 소모를 늘림으로써 야간 배회증상 및 불면증상과 낙상사고가 감소되었다.



(1단계)
휠체어 탄 채 운동



(2단계)
봉 잡고 일어나기



(3단계)
도움받아 걷기

치매 개선 프로그램

낙상방지시스템

퇴행성 질환 및 노화는 낙상사고 위험을 초래한다. 요양원은 낙상 고위험군 입소자 침상에 ICT 낙상 방지 매트를 설치하고 움직임 감지 시 요양보호사가 인지할 수 있도록 위험을 경보하여 낙상위험을 예방할 수 있었다. 또한 하지근력 정도에 따라 단계별 맞춤형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낙상 고위험군 입소자 침상에 ICT 낙상 방지 매트 설치



낙상방지매트 설치
낙상고위험군 사용



이동 시 감지 휴게실 내
설치된 호출벨로 알림



해당 어르신 상태 확인
(보행여부, 낙상여부)

낙상위험이 높은 어르신의 하지근력 정도에 따른 단계별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

구분	앉기 가능	하지근력 적정보유	일어서서 10초 유지	변갈아가며 한 발 떼기	보조하에 3미터 보행	보조하에 10미터 보행
1단계	관절유연성					
2단계	근지구력 집중운동 필요					
3단계	앉기·서기 등 밸런스 훈련					
4단계	평행봉 보조, 워커보조훈련 진행					
5단계	보행보조 훈련 필요					

- 2015년 치매 유형별 맞춤형 프로그램을 개발, 국내 최초로 9개군 그룹별 (3대 원인질환, 3단계 진행법)로 분류하여 중앙보훈병원 치매 전문의를 통한 상태 별 진단처방과 ‘비약물적 접근’ 맞춤형 케어 기법을 도입했다. 전문요양보호사가 치매 증상에 따라 케어 요령 매뉴얼을 활용해 효과적인 의사소통을 하며 상황에 대처하고 있다.
- 2015년 IT기반 인지 훈련 프로그램(CBCT 프로그램)을 도입해 치매예방 및 두뇌 활성화 프로그램을 운영함에 따라 치매대상 프로그램 참여율이 대폭

증가했으며, 1인당 제공 횟수도 월 1~2회에서 주 1회로 증가했다.

- 치매어르신의 지속적인 배회행동과 그로 인해 발생하는 스트레스를 해소하지 않을 경우, 치매증상의 악화를 초래할 수 있다. 문제행동을 보이는 어르신이 환경을 인지하고 방향감각을 갖도록 유도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적용하자 증상완화에 도움이 되었다.

문제행동 욕구 전환 프로그램(뉴스포츠)

- 플라잉디스크 던지기: 폼 재질의 원반을 활용한 던지기 운동
- 플라잉디스크 윷놀이: 폼 재질의 원반 던지기를 활용한 윷놀이 게임
- 자석다트게임: 자석으로 만들어진 다트를 활용한 과녁 맞추기 게임

방향감각 향상 프로그램

- 보물찾기: 지도를 보고 숨겨진 보물을 찾아 방향감각 향상
- 우리동네찾기: 다음 로드뷰를 활용, 자신이 살던 동네에 대한 추억 공유
- 우리나라 지도 채우기: 우리나라 지도를 보고 행정구역 맞추기(ex: 강원도, 제주도)

- 치매 인식개선 활동으로 경기도 광역 치매센터와 업무협약을 체결해 치매 파트너 양성교육을 실시하고 치매·실종 예방인식표 부착, 지문 사전등록, 치매예방 지중해식 맞춤형 영양 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 보훈 시니어 합창단을 구성해 가족초대행사 및 찾아가는 공연을 수시로 실시하고 있으며, 2019년에는 치매 어르신 놀이형 인지 개선 프로그램, 지역 내 중·고등학교, 대학동아리와 연계한 전담봉사단을 운영하는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인지기능 향상 및 치매진행속도 완화 효과를 보이고 있다.

K-MMSE (인지 지능검사)		
구분	프로그램	운영방법
치매초기	치매 인지 훈련 앱	작업치료사 지시에 따라 스스로 수행
치매중기	컴퓨터 기반 인지훈련	작업치료사 및 사회복지사와 일대일 적용(화면 보고 행동 모방)
치매말기 (와상)	치매 인지 훈련 앱, VR기기, AI 스피커 활용	일대일 진행 및 그룹 활동 병행

인지기능 향상 및 진행속도 완화

- GDS(치매속도완화), NPI(치매행동평가척도) : 호전 99~100%
- K-MMSE(인지기능검사), S-ADL(일상생활활동수행능력) : 호전 90~94%
- 인지 기능 유지 호전율 32%, 우울 성향 감소율 47%

- 국민 행복 치매 파트너 양성, 치매인식 개선에 선도적 역할을 수행하여 치매인식 개선 봉사우수기관 선정(한국 청소년 활동 진흥원 이사장상) 및 2016년 국민건강보험공단 웹진 최우수 프로그램에 선정되었다. 2017년 MBC ‘생방송 오늘저녁’에도 수원보훈요양원 및 치매 프로그램이 소개되었다.

연하곤란
예방 프로그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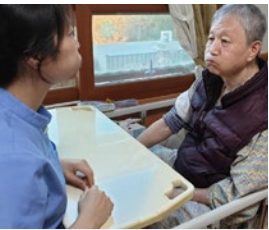
- 어르신의 노인성 질환 등 연하기능 지속저하로 흡인성 폐렴, 영양장애 등의 합병증이 발생됨에 따라 요양원 실정에 맞는 연하장애 증상조사지를 개발하여 쉽게 따라 할 수 있는 연하운동 개발 및 동영상 제작해 어르신의 흥미를 유발하고 전기 자극치료를 병행하고 있다.
- 2017년 건보공단 급여제공 우수사례 경인지부 최우수상 및 보건복지부 장기요양 어울림 축제 장려상 수상

방문재활치료

와상 어르신은 재활치료실 이동이 어려워 재활작업치료사가 방문하는 방식으로 기존 뇌신경 운동 및 연하자극 운동을 강화하였다. 흘림증상 감소, 불불기영역 점수 향상 및 일상생활동작독립기능평가(FIM) 결과 기능이 향상되었다.



연하전기치료기
전기자극을 통한
안면근 삼킴근 기능 회복



구강운동조절
턱과 혀, 구강운동을
통한 씹기 능력 향상



감각자극
진동 및 아이스스틱으로
안면근 감각자극

맞춤형
언택트 프로그램

영양서비스

1:1 영양상담 후 일반식과 노인성질환 어르신들을 위한 치료식으로 구분해 제공하고 있다. 특히 치매어르신들을 위한 별도 영양관리와 간식은 개인이 선택하도록 했다. 어르신 생신일 때는 영양사가 직접 미역국을 제공해 친밀감을 쌓고 월 1회 어르신이 직접 음식을 만들 수 있도록 했으며, 정월대보름 오곡밥과 동지 팔죽 등 절기음식을 제공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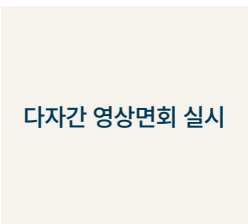
호스피스

개인별 특성에 맞춘 구강위생관리, 어르신 안전을 위한 아이디어 케어, 낙상예방 간호 등을 운영하고 있으며 삶의 마지막인 죽음을 가족과 함께 의미 있고 편안하게 요양원에서 맞이하길 원하는 어르신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또한 임종 후 장례식장 방문과 사별가족을 돌보는 호스피스실을 운영하고 있다.

비접촉 안심면회



-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보호자 면회 제한으로 시설 내 전면창 설치공간 활용, 비접촉 안심면회 국내 최초 실시(2020년 3,494건 실시)
- 신문, 방송사 등 언론보도 및 EBS 다큐프라임 코로나 19 극복 우수사례 전국 공유



- 입소자 시력·청력 약화로 태블릿 PC 면회 한계 - 70인치 스마트TV 활용 가족 다자간 화상면회 실시
- 명절·생일 등 온 가족이 함께하는 다자간 영상면회 등 영상기기 활용 면회 3,749회 제공

※ 보건복지부 노인요양시설 코로나19 대응지침(6판)의 면회지침으로 수록되어 ‘비접촉 안심면회’가 전국으로 확산되었으며, 코로나19 극복 우수사례 장려상(국민건강보험공단)을 수상했다.

※ 언론매체 54건 보도 및 EBS 다큐프라임 코로나19 극복우수사례

전문봉사단 비대면 프로그램

비대면 자원연계 프로그램	• 코로나19 입소자 안전을 위해 공연, 체조, 강연 등 대면 위주 전문자원봉사자 프로그램 진행 제한 - 비접촉 대면 및 실시간 방송 프로그램 제공 • 종교활동, 공연, 스트레칭 체조 등 전문봉사자가 함께하는 언택트 프로그램 진행
전문봉사자 영상콘텐츠 활용	• 실시간 방송 진행 제한 시 촬영된 영상 콘텐츠를 제공받아 프로그램 활용 • 영상 콘텐츠의 전 보훈요양원 공유로 활용도 제고

ICT 맞춤형 요양서비스

가상현실(VR), 스마트 빔, 스마트폰, 태블릿 PC 등 ICT 기술을 활용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스마트폰을 활용한 다양한 소통 채널을 강화하여 네이버 밴드, 영상통화, 카카오톡 등을 통해 보호자, 입소자, 요양원이 공유했다.

가상현실(VR)	스마트빔, 스마트폰	태블릿 PC
• 디스플레이 디바이스 - 입소자 시각에 맞는 가상세계 체험의 기회제공 - 시각적 효과의 극대화 - VR 시네마 등 다양한 콘텐츠 제공	• 스마트폰을 활용한 소통채널 강화 - 영상통화, 보훈통신 • 스마트 빔 - 해피빈 지원을 통한 기능보강 - 고화질의 질적 서비스 제공	• ICT 활용 프로그램 운영 - 수리, 언어영역 등 난이도 고려 • 치매예방을 위한 인지치료 - 낱말맞추기 등의 활동을 어르신 수준에 맞춰 제공

가족과 함께하는 ‘보훈라방’(라이브 방송)

우울감 해소를 위해 가족과의 교류의 장을 마련했으며, 인터넷 네트워크 기반 스마트 기기를 활용한 언택트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합동생신잔치	개별생신잔치	만족도조사

대외기관평가

보건복지부·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주관하는 장기요양기관의 평가목적은 요양기관의 수준 향상을 확인·평가 후 우수기관에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요양급여의 질을 높이는 데 있다. 평가결과를 공개해 장기요양기관 이용 희망자에 대해 장기요양기관 선택권을 보장하면서 고객의 알권리를 충족시킨다. 관련 근거는「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38조(재가 및 시설 급여비용의 청구 및 지급), 제54조(장기요양급여의 관리·평가)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시행규칙 제38조(장기요양기관 평가방법 등)에 장기요양기관 평가방법 등이 규정되어 있다. 평가주기는 급여 종류별(시설급여, 재가급여) 3년 주기로 시행하고 있다. 평가의 객관성과 일관성 등을 위해 고시 제3조 제2항에 따른 평가지표의 판단 기준을 정한 장기요양기관 평가조사표를 기준으로 실시하며, 지표별 평가방법·세부영역·근거자료 등을 정한 ‘장기요양기관 평가 매뉴얼’을 공개한다. 평가결과 우수기관 인센티브는 시설규모별 상위 20% 범위에 속한 A등급 기관만 지급한다. 평가받은 기관에 평가결과통보서(양호한 점, 미흡한 점을 포함)를 통보하고, 지방자치단체(광역시·도, 시군구)에 대해서도 전체 평가기관의 평가결과(양호한 점, 미흡한 점 포함)를 통보한다. 또한 평가기피 및 거부기관, 평가기간 중 휴·폐업, 지정취소 기관의 명단을 노인 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에 공개하며, 상위 10%의 우수기관은 우수기관 표식을 제작해 수여하고, 장기요양기관 정보검색 시 기관 명칭에 ‘우수기관’임을 알릴 수 있는 표시를 등재(등급 및 영역별 평가결과 등)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시행하는 우수사례 발표는 타 기관에 전파해 서비스 질 상향평준화를 도모하고 있다.

장기요양기관 평가결과(2017~2019)						
구분	수원	광주	김해	대구	대전	남양주
장기요양	A	A	A	A	A	A
주간보호	B	B	A	A	B	A

복지시설 만족도 조사

공공서비스의 실질적 수요자인 국민(고객)이 공공기관이 제공하는 서비스의 질을 평가하기 위해 1999년도부터 도입(공기업 : 1999년, 준정부기관 : 2004년, 기타 공공기관 : 2005년)된 고객만족도 조사는 공공서비스의 질적 수준 제고를 통한 국민편익 증진, 서비스 품질의 객관적인 측정과 국민의 만족·불만족 요인 분석·환류를 통해 기관의 고객중심 경영전략 수립 지원, 고객만족도 수준을 객관적으로 평가·공개함으로써 공공기관 간 서비스 품질 경쟁을 유도하는 효과가 있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13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를 조사 근거로 하여 공기업·준정부기관은 조사결과를 비교할 수 있도록 기획재정부가 주관하여 연 1회 통합조사를 실시하며, 기타 공공기관은 기획재정부 주관 통합조사기관과 주무부처 주관기관으로 구분해 실시한다. 기획재정부 주관 고객만족도 조사는 2004년에 처음 도입되어 매년 실시해 오고 있으며, 보훈원과 보훈복지타운, 보훈휴양원은 2009년부터, 보훈요양원은 2010년부터 고객만족도 조사를 시작했다. 조사방법은 서비스현장에서 일대일 현장조사(전화조사)로 진행하며, 조사내용에는 만족지수, 품질지수, 성과지수, 사회적 책임, 서비스비교평가 등이 포함 되어 있다. 조사결과 2008년부터 2019년까지 12년 연속 고객만족도 우수기관(고득점 기관)으로 선정되었다. 2020년은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 현장조사에서 전화조사로 변경되었고, 보훈공단은 현장조사가 불가능한 사업이 기관 전체 사업의 70% 이상인 경우에 해당하여 조사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제3 절

주거 환경개선 사업

2000년대 이르러 사회복지 패러다임은 시설중심에서 재가(在家)중심으로 바뀌고 있으며, 선진 복지국가에서도 지역사회와 주거생활 중심의 보호정책과 정주성(定住性) 패러다임의 정착으로 노인들이 자신의 집과 지역사회 속에서 계속 살아갈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고 있다. 이는 수동적 시설복지 중심에서 능동적 맞춤형 복지인 생활편의시설 개선 등 찾아가는 서비스를 통해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으로 노후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의미가 있다.

찾아가는 복지서비스는 당초 보훈공단이 제한적인 복지시설운영에서 탈피하여 장애나 고령으로 인해 일상생활에 불편함이 많은 국가유공자를 찾아가서 문턱 낮추어주기, 경사로 설치, 화장실과 주방 등 생활편의시설 설치 서비스 혹은 가옥구조개선 서비스(HAS : Home Adaptation Service)를 하는 개념으로 개발되었다. 이 사업은 신체적으로 어려운 여건에 있는 국가유공자의 삶의 질을 개선하자는 데 1차적인 목적이 있었지만, 보훈공단의 비전 재구축을 위한 사업구조개편과도 관련되어 건제사업단의 수익사업을 정리하되 그 축적된 기술과 경험을 살려 국가유공자 복지사업으로 전환하는 것이기도 했다.

또한 보훈의료복지통합서비스가 개발되면서 병원과 가정이 결합된 복지 서비스의 전형적인 형태로 이에 포함되도록 했으며, 병원에서 퇴원계획 수립 시에 가정의 생활환경을 상담하여 서비스 대상자를 발굴해 복지사업부서로 연계하는 방식으로 시행했다. 이는 보훈공단에서 시설 간·서비스 간을 연계하는 최초의 통합서비스라는 의미가 있다. 이후 ‘국가유공자 사랑의 집 고쳐주기’라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이 개발되어 주거복지사업은 자체사업인 생활편의시설 설치서비스와 민·관·군(民·官·軍) 협력사업인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나름대로 체계를 갖추게 되었다.

보훈공단은 이러한 국가유공자들의 복지서비스 수요증가로 찾아가는 복지 서비스 강화 필요에 따라 2009년 9월 주거복지 전담조직을 보훈원 소속 재가복지센터로 편성해 생활편의시설과 주거환경개선, 방문요양·급식지원 업무를 수행했다. 이후 보훈공단의 주력사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2011년 본사



1 나라사랑 행복한집 506호 준공식
2 나라사랑 행복한집 5500호 준공식

복지기획실에 주거복지사업단을 잠정 편성하고, 2012년 복권기금의 재원을 확보해 보훈공단과 이원화 구조로 추진해오던 국가보훈처의 주택편의시설 지원사업을 이관 받아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운영했다.

2016년 「보훈공단법」에 주거환경개선사업을 고유목적사업으로 명시함으로써 안정적인 사업 기반을 확립했고 현재는 복지지원실 통합서비스부 소속으로 6개 보훈병원과 의료 및 복지서비스 연계 체계를 활용한 통합서비스 개념의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지원 절차는 보훈지청 및 보훈병원에서 대상자를 추천하면 현장 실사와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대상 가구를 선정, 지원하고 있다.

주요성과

주거환경개선사업은 보훈공단의 ‘나라사랑 행복한 집’이라는 브랜드를 개발해 생활편의시설개선과 주택구조개선 서비스를 실시했다.

생활편의시설개선 서비스는 장애·치매 등으로 거동이 불편한 국가유공자 가구를 대상으로 가옥 내 소규모 생활 시설인 욕실, 화장실, 문턱 제거, 안전 손잡이, 경사면 설치 등 가구당 600만 원 한도 내에서 개선하는 것이다. 주택구조개선 서비스는 민·관·군(民·官·軍) 등 다수의 협의체가 참여해 국가유공자 가구를 대상으로 리모델링 급의 생활편의시설 및 가옥구조 개선을 가구당 2,000만 원 범위 내에서 개선하는 서비스이다.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질적 향상을 위해 서울시와의 협업으로 인지건강 디자인을 도입해 치매 예방 및 인지력 향상까지 꾀했고, 한국장애인개발원의 안전설계 기술 자문을 통해 생활공간에서의 낙상 등 안전사고 예방과 일상생활의 불편을 해소하는 맞춤 디자인을 적용하여 시공했다. 2019년에는 고령·독거 세대의 응급상황 대처를 위한 IoT 응급안전시스템을 구축해 설치하는 등 협력사업의 확대로 개인 맞춤식 서비스를 지원했다.

특히 2015년 광복 70주년 기념사업 일환으로 신한은행 기부금 5,500만 원을 활용하고 중국 현지 한중우의공원(韓中友誼公園)과 협업하여 중국 하이린(海林)시 조선족실협소학교에 위생시설(화장실) 신축 및 의료봉사 등을 진행함으로써 독립운동 후손을 위한 환경개선 서비스를 지원했다.

또한, 육군 및 지자체와의 협업과 직원 봉사활동 등을 통해 지진(경주, 포항), 태풍(울산), 집중호우 등으로 인한 재난지역에 긴급 지원활동을 진행함으로써 국가유공자가 빠르게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은 다각적인 협업 추진으로 2020년 행정안전부 주관 협업 성공사례 영상 공모에서 우수상을 받았고 강원혁신도시 공공기관 사회적 가치 확산 경진대회에서 2019년, 2020년 2년 연속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보훈공단은 2009년부터 2020년까지 생활편의시설개선 서비스 4,743가구, 주택구조개선 574가구 등 총 5,317가구에 사업비 277억 원을 지원했다.

지원내용		
구분	나라사랑 행복한 집	
	생활편의시설개선	주택구조개선
지원대상	독립·국가유공자 본인·유족	독립·국가유공자 본인 및 독립유공자 유족
지원내용	화장실 개조, 문턱제거, 안전손잡이, 경사면 설치 등	생활편의시설 및가옥구조 개선
지원금액	가구당 600만 원 한도	가구당 2,000만 원 한도

지원실적														(단위 : 가구, 억 원)	
구분	계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지원가구	5,317	72	219	250	380	474	542	544	599	574	540	544	579		
생활편의시설	4,743	65	199	205	320	422	485	487	537	534	490	489	510		
주택구조	574	7	20	45	60	52	57	57	62	40	50	55	69		
•지원액	277	1	4	6	21	26	30	31	31	30	30	32	35		



제4 절

보훈복지사업비 지원

보훈공단 설립 이전부터 「원호대상자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설립된 원호단체후원회와 재단법인 원호장학회 등에서 수익사업을 통해 장학사업 등 복지사업을 수행하여 왔다.

1981년 보훈공단이 설립되면서 위 단체들은 해산되고, 「보훈공단법」 제6조와 부칙 제7조에 따라 위 단체에서 운영하던 재산과 수익사업을 승계받아 국가유공자 등 단체지원, 국가유공자 자녀 학비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되었다.

사업내용은 보훈공단 수익금 중 일부를 보훈기금으로 전입하여, 보훈기금 사용계획에 따라 국가보훈처에서 집행하는 것과 보훈공단 자체지원계획에 따라 보훈공단 수익금에서 자체적으로 집행하는 것으로 구분된다.

국가유공자 보훈복지사업의 일환으로 지원한 사업비는 1981년부터 2020년까지 국가보훈처의 보훈기금 전입지원 385억 5,000만 원과 보훈공단 자체지원 187억 원을 합해 총 572억 5,000만 원을 지원했다.

보훈복지사업비 지원 실적												(단위: 억 원)
구분	1981~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계
•보훈기금전입지원	324	9	8	7	6.3	6.2	5	5	5	5	5	354.3
단체지원비	137				0.1	0.2						137.1
장학금 및 건전활동지원비	134	9	8	7	6.2	6	5	5	5	5	5	164.2
호국정신함양사업비	28											28
의료 및 재활체육지원비	4											4
복지시설관리비 등	21											21
•보훈공단 자체지원	67	16	10	10	11	12	12	9	11	15	14	114
재활체육지원비	20	3	3	3	3	3	3			1		32
국가유공자행사지원	35	9	4	3	4	5	5	5	7	10	10	55
호국정신함양사업비	1											1
보훈단체간담회	1											1
국가유공자선도비	10	4	3	4	4	4	4	4	4	4	4	25
계	391	25	18	17	17.3	18.2	17	14	16	20	19	572.5

제 5 장

보훈의료복지통합서비스

보훈의료복지통합서비스는 환자 개인적 질환 특성에 맞게 예방에서 임종까지 필요 서비스를케어매니저가 제시하고, 가정간호 등과 병원 진료를 연계시켜 과잉 진료와 약물 오남용 방지를 통해 환자 건강에 기여하는 서비스이다.

보훈공단은 1981년 설립 이후 외형상으로는 방대한 조직과 인력을 가진 굴지의 공공기관으로 성장했다.

그러나 의료, 복지, 수익사업 등 여러 사업들이 혼재되어 있고 시설들이 전국에 산재해 있다 보니, 하나의 조직체로서 통합성과 체계성이 부족하고 서비스의 연계가 이뤄지지 않은 채 분절된 조직들이 느슨하게 얹혀있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보훈공단의 획기적인 발전을 위해 보훈의료 및 복지사업을 전담하는 보훈복지서비스 전문조직으로 위상을 재정립하고, 보훈가족을 위한 복지서비스를 개발·제공하는 데 집중할 수 있도록 사업 구조를 개편하고 조직 역량을 집중할 필요가 있었다. 이에 따라 1차적으로 수익사업 정리 계획을 포함한 경영효율화 계획을 수립 추진했으며, 2차적으로 서비스 일류화에 착수했다. 서비스 일류화는 단순히 의료시설이나 복지시설을 건립하고 운영하는 데 그치지 않고, 예방·치료·재활·요양·양로·주거·휴양·재가서비스에 이르는 토털케어를 의미한다. 국가유공자를 비롯한 보훈가족이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빠짐없이 갖춘 촘촘하고 세밀한 맞춤형 통합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것이다.

그동안 중앙보훈병원을 비롯한 전국 권역별 보훈의료망 구축, 보훈요양원 건립 및 위탁지정병원 확대 등으로 선진 의료복지기관 비전 달성을 위한 인프라를 구축했다. 이제는 이들 인프라와 서비스를 하나로 묶어 통합운영함으로써 보훈가족이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언제 어디서나 원하는 곳에서 이용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춰야 한다.

이미 고령사회에 진입한 선진국의 트렌드는 단일 서비스를 넘어 보건, 의료, 복지서비스가 결합된 복합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스템으로 변화되고 있다. 그런 면에서 보훈공단은 의료복지 융합서비스가 가장 필요한 기관일 뿐만 아니라 이를 선도할 수 있는 최적 기관이기도 하다. 따라서 예방·치료·재활·요양·양로·주거·휴양·재가서비스에 이르는 보훈의료복지통합서비스 구축사업을 추진하게 되었다.

통합서비스는 보훈공단이 추진해야 할 보훈병원의 발전전략이기도 하다. 중앙보훈병원을 중심으로 지방보훈병원 및 위탁병원과의 체계적인 보훈의료 서비스망을 통한 전문성과 접근성을 동시에 갖춘 편리한 보훈의료 전달체계를 정립하는 것이다. 또한 보훈병원의 발전전략의 하나로서 서비스에 대한 인식의 변화를 찾아야 한다. 인식의 변화는 병원 안에서만 사고하는 고정관념을

벗어나 내원환자 중심에서 가정에서 대기하는 재가환자를 포함한 개념으로, 시설중심에서 찾아가는 서비스 중심으로, 치료중심에서 예방을 포함한 개념으로, 의료서비스 중심에서 복지서비스와 결합된 복합서비스로 전환되는 신개념의 서비스로 보훈병원을 특성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같이 보훈의료복지통합서비스는 보훈공단의 비전이자, 고령사회 의료 복지융합서비스 선도전략으로, 보훈병원의 서비스 경쟁력 제고방안으로서 개발되었다. 요체는 내원환자에 대한 치료를 넘어 진료대기자 및 퇴원자에 대한 적절한 상담서비스, 위탁병원 이용, 가정간호, 원격진료, 재활 및 영양서비스, 재가복지, 심리상담 카운슬링 등의 토털케어를 보훈병원을 통해 구현하자는 데서 출발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의료서비스만으로는 목적달성을 하기 어렵기 때문에 의료와 복지서비스를 복합적으로 또한 맞춤형으로 제공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는 장애나 고령으로 일상생활이 불편한 국가유공자를 위한 가옥구조 개선 및 편의시설 설치서비스를 통해 ‘찾아가는 복지서비스’로 가정에서 편안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건강상 장애요인을 미리 예방하자는 것이다. 이는 또한 지금까지의 복지시설 운영에 국한된 제한된 복지에서 탈피해 보훈공단의 서비스 영역을 확장하는 측면도 있다.

이와 같은 보훈의료복지통합서비스는 1차적으로는 앉아서 기다리고 찾아오는 고객에게만 서비스하는 지금까지의 수동적이며 소극적이고 단절된 서비스에서 능동적이고 적극적이며 통합된 서비스로의 전환이라는 의미가 있다. 아울러 종래의 진료와 보호라는 단순서비스에서 탈피해 예방·치료·재활·요양·양로·주거·휴양·재가서비스에 이르는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서 가정과 시설, 시설과 시설의 경계를 뛰어넘는 전방위적 서비스라는 뜻을 담고 있다. 2차적으로는 시설의 한계를 뛰어 넘어 원격진료, U-healthcare 등의 신기술과 결합해 병원과 가정이 연결된 서비스망을 구축하는 것이다. 3차적으로는 국가유공자의 평생건강관리서비스(EHR)를 제공하는 것이다. 이러한 서비스는 다른 기관에서 제공할 수 없는, 보훈공단만이 할 수 있는 차별화된 것이며 공단이 일류 서비스 브랜드를 창안했다는 의미가 있다.

보훈의료복지통합서비스의 개발 배경을 요약하면 첫째, 보훈공단의 새로운 비전을 구현하기 위한 발전전략의 하나다. 보훈가족이 필요로 하는 복지 서비스를 촘촘하게 구성해 제공하는 토털 의료복지 전문기관으로 자리

매김하자는 것이다.

둘째, 고령사회 의료복지 융합서비스를 보훈공단이 선도하자는 것이다. 국가유공자의 고령화로 인한 노인성 만성질환자의 증가에 대응해 의료·요양·양로·재활·휴양 등 다양한 인프라를 가진 장점을 잘 살리면 최고의 의료복지 융합체로 발전할 수 있다.

셋째, 보훈공단의 가치와 경영이념을 실천하기 위한 것이다. 통합서비스는 보훈가족의 건강과 행복한 삶을 위한 섬김 경영, 행복한 섬김을 구체적으로 실천하는 서비스 운영체계인 동시에 보훈공단의 새로운 서비스 브랜드를 개발한 것이라는 의미가 있다.

넷째, 보훈병원의 발전전략은 시설, 장비, 인력의 경쟁이 아니라 고객중심의 맞춤형 서비스 전략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큰 틀에서 병원과 복지시설 그리고 가정이 결합된 Total Healthcare Network를 구축하고 그 안에 6개 보훈병원을 ONE-Hospital 개념으로 발전시키며 병원치료서비스뿐 아니라 가정간호, 재활치료, 복약지도, 의료장비 및 보장구 지원 등의 맞춤형 서비스를 통해 차별화, 특성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서비스는 공공의료기관으로서 보훈병원이 가장 잘 할 수 있는 분야이다.

보훈의료복지통합서비스는 2009년 처음 도입되었고, 진료부장(팀장)을 중심으로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물리치료사 등 12명으로 구성 운영했으며, 주요 내용은 찾아가는 서비스와 의료서비스로 구분할 수 있다. 찾아가는 서비스는 전화 진료상담, 가정간호서비스, 방문재활치료서비스이고, 의료서비스는 입원대기 상담서비스, 외래진료대기 상담서비스, 퇴원환자 상담서비스이다. 시범실시로 개인별 맞춤서비스와 찾아가는 서비스를 제공해 고객만족도가 향상되는 성과를 가져왔다. 2010년에는 통합콜센터 구축을 통해 진료상담 및 예약, 전화안내 및 교환, 응급콜 등 전국 보훈병원에서 통일된 의료서비스를 중점적으로 제공했다.

2015년에 그간 운영과정을 반영한, 통합의료복지서비스 종합계획을 수립해 치매예방서비스, 가정호스피스, 방문재활치료 등 재가서비스를 운영했으며, 2019년부터는 공공복지서비스 지원확대를 위해 사회보장정보원과 협약을 체결하고 주거환경개선에 IoT 응급안전시스템을 도입했다.

특히 2020년 국내 최초로 건강복지 안전망(IMSAFE) 전산시스템을 구축해 국가유공자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양방향 서비스 의뢰 시스템을 갖추었다.

건강복지안전망은 개인별 의료·사회적 상황에 따라 필요한 통합서비스를 자동 추천하여 지역사회와 서비스 계획을 연계하는 통합서비스 실행시스템으로 특허권과 상품권을 취득했으며 공공부문에서 유일하게 제14회 대한민국 우수 특허 대상을 수상했다. 이와 같이 보훈가족의 특성에 맞추어 의료·복지·지역사회 서비스를 연계하여 예방에서 임종에 이르기까지 보훈공단이 제공하는 고유의 고객중심 맞춤형 통합서비스는 다음과 같다.

통합서비스 실행 체계도



의료서비스	복지서비스	연계서비스
•보훈공단 보유자원 활용 직접 서비스 제공 •보훈병원 서비스(방문재활, 전화 상담 등), 신체건강 및 보건의료 (가정간호 등), 정신건강지원 등	•보훈공단 보유자원 활용 직접 서비스 제공 •주거개선지원, 보호·돌봄·요양, 권익보장지원 등	•보훈공단 미보유 서비스 지역사회 연계 •일상생활, 문화 및 여가지원, 일자리지원 등

■ 평생건강관리를 위한 건강복지 안전망 IMSAFE 운영

① 건강복지 안전망(IMSAFE) : 개인별 의료·사회적 상황에 따라 필요한 통합서비스를 자동추천, 연계하는 통합 서비스 실행 시스템

서비스 절차

환자 등록·사정

I dentification

M easurement

케어플랜 수립

S ervice Planning

통합서비스 제공

A ction

성과평가·환류

F E edback

건강복지안전망(IMSAFE) 구축

•의료적 상황(검사기록 등) EMR 연동한 자동 의료기록 조회로 상담시간 단축

•사회적 상황(가족력, 경제력 등) 위주 케어매니저 등록 및 상담 실시

•의료정보 확인 및 케어매니저 상담을 통해 BCF 항목별 점수 산출

※ Bohun-CF(보훈생활건강분류) : WHO가 삶의 질 분류체계 표준으로 개발한 ICF(국제기능생활건강분류) 1,424개 항목에서 보훈환자 특성에 맞는 98개 문항으로 재구성한 통합사례 평가도구

•항목별 점수 기반, 서비스 제공 알고리즘에 의한 필요 서비스 자동추천

의료서비스

치매예방서비스, 만성질환예방서비스, 방문재활, 가정간호, 전화진료, 복약상담 등

+

복지서비스

주거환경 개선, 보훈요양원 연계 등 보호, 돌봄, 요양 지원 등

+

연계 서비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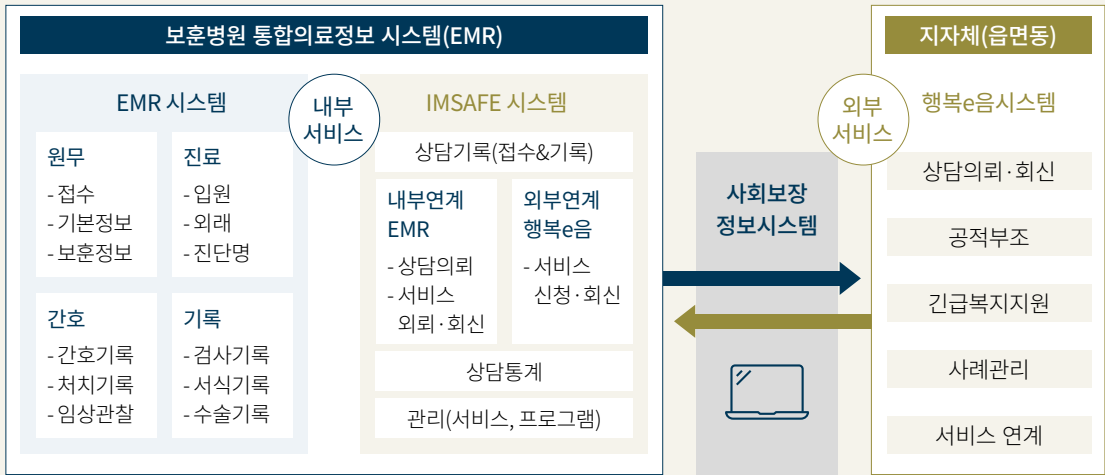
가사, 식사 등 일상생활 지원 등 지자체, 복지관 연계

※정부전산망 행복e음 연계

•EMR과 연계한 통합서비스 분석을 통한 맞춤형 1:1 서비스 조정 판단

- 일상생활 수행능력, 투약일수, 재원일수, 응급실 내원횟수, 의료비 등 분석

IMSAFE 시스템



케어플랜 지역전송시스템(사회보장정보 시스템)

- 퇴원예정자 상담 중 대상자에게 필요한 지역의 서비스 발생 시 즉각 의뢰
-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자동 접속 및 대상자 주소지 지자체에 의뢰서 자동 전송
- 해당 지자체에서 업무처리결과 회신 및 서비스 제공결과 확인

지자체 신청 서비스 목록	생계지원	임대주택	집수리	의료비	교육비	양육비
	직업훈련 및 취업	진로지도	재무상담	돌봄 서비스	쉼터/시설입소	상담치료
	급식지원	건강 및 보건	학습지원	법률지원	후원금지원	기타

② 자동조회·자동추천·자동연계를 통한 서비스 제공 확대

기존	개선
☑ 의료정보 수기조회 및 관리 ☑ 케어매니저 개별 역량에 따른 자의적 서비스 추천 ☑ 케어매니저 개별 역량에 따른 외부서비스 개별 탐색	☑ EMR 연동 의료기록 자동 조회 ☑ 알고리즘에 의한 표준화된 서비스 자동 추천 ☑ 사회보장정보원과 협업 통해 지자체 복지전산망과 건강복지안전망 자동 연계

- 주요성과
- 1인당 상담 소요시간 단축 : (2019)190분 ▶ (2020)104분
 - 1인당 서비스 추천 증가 : (2019)6.6건 ▶ (2020)7.7건
 - 1인당 관리 환자 증가 : (2019)67명 ▶ (2020)72명
 - 1인당 서비스 제공 증가 : (2019)1,265건 ▶ (2020)1,661건
 - 중앙병원 통합서비스 수혜인원 증가 : (2019)96,837명 ▶ (2020)99,975명

■ 예방에서 임종까지 맞춤형 통합서비스

① 예방 : 찾아가는 치매예방서비스 및 만성질환관리

찾아가는 치매예방 서비스	
구분	서비스 내용
초기 검사	• 직접 방문을 통해 치매위험군 선별을 위한 초기 검사 제공 - 치매검사 창구, 병동, 가정간호, 방문재활 시 검사
맞춤형 치료	• 초기검사 중 위험군 판별 → 고위험군 병원 원스톱 검사 연계 → 경도·초기치매 조기발견 → 맞춤형 치매치료 및 예방서비스 제공 • 치매판정 시 치매원인 분석 및 진행단계에 따른 악화 방지 프로그램 제공
치매예방	• 보훈병원 및 지역복지관 등 ICT 치매예방 프로그램 제공 • 경찰청 협업, 치매 노인등록 서비스 제공

‘QR코드’ 활용한 만성질환 예방서비스	
구분	서비스 내용
필요성	• 고령자를 대상으로 알기 쉬운 질환 및 예방관리
서비스 내용	• 고혈압, 당뇨병, 치매, 전립선 비대증 질환의 진료과별 전문의(고혈압, 당뇨, 치매, 전립선 비대증)를 선정해 인터뷰 형식 동영상 제작 후 QR 연결
제공방식	• 내 손안의 QR코드 리플릿 제공 • QR코드 촬영 시 보훈공단 유튜브, SNS 등 활용한 동영상 제공

② 퇴원 후 치료 : 찾아가는 방문의료서비스

구분	서비스 내용
재활 서비스	• 거동이 불편한 보훈대상자 가정 방문, 전문재활치료제공 • 전문재활치료 - 기능적 재활 전기치료 : 전기자극을 통해 신체부위, 삼킴장애 재활 등 신경반응 활성화 - 복합 및 특수작업치료 : 중추신경장애, 뇌손상마비 환자 근력 및 기능향상 재활치료 - 일상생활 동작훈련 치료 : 일상동작 적응훈련 통한 근육·관절 기능 장애 및 기능 회복 치료 • 일상생활 지침서(자가인지훈련, 자가신체재활 등), 낙상예방관리 책자 제공 등 자가관리 교육 유도

구분	서비스 내용
가정간호 서비스	•이용고객 및 국민 대상 건강육구 조사 및 분석 결과, 더 제공받고 싶은 서비스로 가정간호 1순위 •가정방문 시 신체 불편뿐만 아니라 주거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욕구 등 종합적 문제 관리 요구 대치 •전문의, 간호사, 케어매니저, 주거복지담당으로 구성된 다학제 방문으로 진료, 기본검사, 재활, 영양상담, 치매검사, 주거환경 상담 등 토탈케어 실시 •병원이동이 어려운 중증환자는 주 3회 방문하여 수액공급, 튜브 교환, 욕창치료 및 관리
사후관리	•감염확산 차단의 일환으로 전화상담 등 퇴원 후 사후관리 강화 •퇴원 후 투약관리 - 약물상담 전문의 지정확대 : 진료-처방-사후관리 - 약물 오남용 예방교육 및 복약상담 실시로 투약일수 감소 •퇴원 후 만성질환관리 - 혈액, 소변, 내시경, 초음파, 심전도 등 검사결과 전화 안내 및 전문의 건강상담 운영 •공공의료기관 간 퇴원환자 공동관리 - 국립중앙의료원 공공의료연계망을 통해 전남대학병원이 수립한 퇴원 이후 케어플랜 (진료계획)을 보훈병원에서 확인하고 연속적 치료제공

③ 일상생활 지원 : 고령·장애 보훈가족 맞춤형 주거환경 개선

구분	서비스 내용
주거환경개선	•환경미화 개선 위주에서 고령자 특성을 감안한 시공 기준 및 생활공간 설계 •치매 예방 및 완화를 위한 생활공간 조성 등 맞춤 시공 •낙상 경험, 집안 내 두려운 장소 개선을 위한 설계 반영 및 시공 •주거약자법 안전 설계 기준 및 서울시 인지건강 디자인 적용 •‘나라사랑 행복한 집’ 11년간 5,317가구 277억 원 지원
안전관리 강화	•집중호우피해 긴급복구 등 국가적 위기상황에 대처하여 봉사활동 및 민·관·군 협업으로 복구 •고령·장애·독거 등 응급상황에 대응하여 취약가구에 대한 자동원격 - 서비스 제공(벤처기업과 협약 IoT 응급안전기기 공동개발) - 심박체크, 동작센서, 응급호출, 화재감지 등 IoT기기(7종) 설치 •보훈병원(부산, 광주) 거점 다학제팀 운영 - 대상자 특성 반영, 주거상담 및 IoT 서비스 확대
사회적가치 실현	•협업매치 : 행정안전부, LH공사, 코레일 등 15개 기관 참여 •협업을 통한 공사비·기술봉사 등 지원 : 1억 4,000만 원 •2020년 행정안전부 협업사례 영상 공모 우수상 및 강원도 혁신 경진대회 2년 연속 최우수상 수상

④ 임종 : 가정호스피스 및 장례지원 서비스

구분	서비스 내용
가정호스피스	•말기 암환자 75% 이상 가정에서 가족들과 함께 편안한 임종 소망 •가정에서 삶의 마지막 순간을 편안하게 맞이할 수 있도록 방문 후 심리, 치료적 통합돌봄 •매주 방문하여 통증관리, 증상관리, 욕창관리, 영적돌봄 등 수행(2020년 1만 2,800명) •전문의, 간호사, 성직자 등 가정호스피스팀(2020년 423회 방문)
임종서비스	•생애 마지막까지 최상의 예우로 보답하기 위한 장례의전·상담 등 지원 •국가유공자 전례의전단 운영으로 안치에서 발인까지 의전 서비스 - 대통령근조기 전달, 발인 운구 등

⑤ 지역사회 연계로 통합서비스 제공

구분	서비스 내용
지자체 연계	•보훈섬김이, 자원봉사자 연계로 가사 지원(국가보훈처, 보훈지청) •저소득층 환자 대상으로 무료 간병인 제공(지역자활센터) •주간보호, 단기보호 등 시설보호 서비스 연계(복지재단, 지역요양원) •사회교육 프로그램 연계 및 생활용품 지원 등(지자체) •자가부담이 어려운 환자에게 후원금 등 연계를 통한 의료비 지원(지자체 등) •기초생활수급자, 기초장애태복지 등 사회보장제도 연계(보훈지청관할 주민센터)
소방청 연계	•응급상황 발생 시 119 안심콜 등록 지원(소방청)
경찰청 지원	•치매노인 실종대비 지문등록 서비스 제공(경찰청)

※ 4년 연속 공공보건 의료계획 시행평가 최우수기관 선정 및 2020년 공공보건 의료역량 강화 활동 사례 공모전 보건복지부 장관상 수상

※ 지역사회 필수 의료안전망 구축 ‘보훈-지역-미래를 잇다’(대전보훈병원)

추진실적		(단위 : 명, 건)				
분류	서비스명	2016	2017	2018	2019	2020
의료·복지 서비스	퇴원계획상담	114,154	121,122	127,728	130,113	142,933
	치과전화상담	19,190	20,347	20,098	21,946	21,813
	복약상담	7,274	7,788	7,166	7,625	7,763
	임종정보서비스	2,037	2,139	2,154	2,233	2,181
	소계	142,655	151,396	157,146	161,917	174,690
재가 서비스	전화진료상담	1,118	1,430	985	1,041	1,068
	가정간호	32,273	33,868	33,405	33,143	31,306
	가정호스피스	5,740	6,942	7,833	11,582	12,800
	방문재활	11,912	11,970	15,024	21,044	20,847
	방문보장구	412	560	633	681	744
	치매예방	2,573	3,849	4,023	4,241	5,355
	주거환경개선	599	574	540	544	579
	소계	54,627	59,193	62,443	72,276	72,699
지역사회 서비스	지역사회자원연계	6,709	8,372	8,726	8,703	6,723
	소계	6,709	8,372	8,726	8,703	6,723
총 계		203,991	218,961	228,315	242,896	254,112



1 IMSAFE 서비스 모형 관련 특허증



2 2020 제14회 대한민국 우수특대 대상 선정



제 6 장 보훈교육연구원

제 1 절 교육사업

제 2 절 연구사업

6·25전쟁 중 전사자 유족과 상이군경, 무의탁 노령유족, 유자녀들의 항구적인 자립터전을 마련해 주고자 1962년 3월 당시 국가재건최고회의에서 이들에 대한 수용보호 및 자활연수를 위해 종합원호원을 건립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같은 해 4월 수원에 있는 국유지 183,140㎡ 대지 위에 국고금 6,000만 원, 특별 지원금 2,000만 원 등 총 8,000여만 원의 사업비를 투입, 건물 40여 동을 건립하여 1963년 1월 종합원호원을 개원했다.

개원 이후 상이군경과 미망인, 유자녀들에게 직업알선과 기술교육 등을 실시했고, 항구적인 자립·자활능력을 길러 주고자 종합원호원 내에 직업보도소와 농사 보도소를 설립했으며, 무의탁 노령유족들과 유자녀의 보금자리인 양로소와 아동보육소를 두었다. 당시 직업보도소 및 농사보도소에서의 기술습득 교육은 초창기 보훈대상자 가족의 자립·자활에 크게 기여했으며, 1976년부터는 사회환경 등의 변화에 따라 기술교육 대신 자립의욕 고취와 국가유공자로서의 자긍심을 심어주기 위한 새마을 정신교육과정으로 전환해 자활의욕 고취와 올바른 국가유공자상 정립에 중점을 두었다.

종합원호원은 1969년 8월 국립원호원으로 명칭이 변경되었고, 대통령령 제 11594호(1984.12.31)에 의해 원호 명칭이 보훈으로 바뀌게 됨에 따라 1985년 1월 국립보훈원으로 명칭이 다시 변경되었다.국립보훈원은 1993년 연수기능인 교육부문과 복지기능인 양로·양육보호부문으로 분리하여 운영하였으며 양로·양육보호부문은 1993년부터 국가보훈처에서 보훈공단에 위탁했다.

보훈교육연구원 전경



교육부문은 1993년 2월 보훈연수원으로 개칭되었고, 그 후 보훈연수원은 정부소속 교육훈련기관의 통·폐합계획에 따라1999년1월부터 국가보훈처에서 보훈공단에 위탁했다. 2001년 2월 보훈연수원을 보훈교육연구원으로 명칭을 변경했으며, 보훈정책 연구기능의 필요성이 대두되어 2003년 12월 국가보훈처의 보훈교육연구원 활성화계획에 따라 연구부 신설방안을 검토 후 2005년 3월 「보훈공단법」을 개정하여 보훈정책관련 연구기능의 근거를 마련했다. 2006년 2월 복권기금 150여억 원을 지원받아 지상 4층 지하 1층 규모의 현대식 건물(10,782㎡)로 신축 이전하여 열악한 교육환경을 개선하고, 교육생들에게 기숙사를 제공했다.

보훈교육연구원은 국가유공자와 그 가족, 공무원, 초·중등교원, 보훈공단 직원 등을 대상으로 보훈가족으로서의 자긍심 제고와 보훈문화 확산 교육, 호국정신 계승발전과 나라사랑 선양교육, 직무교육 등을 실시한다. 또한 나라사랑 정신 함양 연구 및 선양프로그램 개발, 국가유공자 복지제도 및 보훈의료 전달체계 연구, 제대군인 지원정책 연구 등 보훈문화 기틀 조성을 위한 연구와 보건·복지분야 연구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보훈교육연구원 조직은 원장(별정직) 소속 연수부·운영부·연구부를 두고 있으며 운영인원은 연구직 5명을 포함하여 37명이다.

연혁
1963.1 종합원호원 개원(직업보도교육, 농사보도교육, 양로·양육 보호)
1969.8 국립원호원으로 명칭 변경
1985.1 국립보훈원으로 명칭 변경
1993.2 보훈연수원으로 명칭 변경
1999.1 보훈연수원 교육업무 국가보훈처에서 보훈공단에 위탁
2001.2 보훈교육연구원으로 명칭 변경
2006.2 보훈교육연구원 신축 이전

시설현황			
부지	건물	강의시설	부대시설
25,378㎡	10,782㎡	5,803㎡ (강당, 강의실, 분임토의실, 세미나실, 온라인스튜디오)	4,979㎡ (기숙사, 구내식당, 인터넷실, 다용도실, 체력단련실, 주차장)

제 1 절

교육사업

교육사업은 1963년 1월 군사원호처에서 종합원호원을 개원하면서 시작하였다. 개원 당시에는 6·25전쟁으로 인한 절대적인 빈곤 속에서 전사자의 유족이나 상이군경들의 생계문제를 해결하고, 자립과 자활능력을 길러주는 것을 최우선 목적으로 직업보도소와 농사보도소를 설립했고, 이를 통해 직업알선과 기술 습득교육을 실시했다. 1970년대에는 영농기술의 발전과 보급으로 농촌 생활 여건이 호전되고, 또한 일반 직업훈련원 확대 등 여건변화로 직업보도소와 농사보도소를 폐지하는 대신 국가유공자와 가족으로서 자긍심과 자립의욕을 높이고 바람직한 국가유공자상 정립을 위한 정신교육과정으로 전환했다. 그 후 1980년대에는 공직자 정신교육과 공무원 직무교육을 추가하였으며, 1990년대에는 국가유공자 및 가족 정신교육, 공무원 직무교육, 장기복무제대군인 교육을 중심으로 실시했다.

1998년 6월 정부조직 구조조정에 따른 교육훈련기관 통폐합 지침(기획예산위원회, 1998.6.13)과 대통령령 제15997호(1998.12.31)인 「행정권한의 위임

최근 10년간 교육실적										
(단위 : 명)										
구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보훈정신 계승연수	2,210	8,691	9,088	7,243	8,105	16,615	9,050	5,151	5,066	8,699
보훈공단 직무교육	124	593	103	154	761	658	740	675	663	653
공무원 교육	2,757	2,574	1,210	1,286	1,523	1,360	1,269	1,179	1,322	118
전역예정 군인	2,789	2,718	2,615	2,993	209	209	-	-	-	-
소방공무원, 해군	-	316	995	1,255	2,429	2,490	3,590	4,230	5,120	880
보훈문화 강좌 등	694	549	574	1,245	1,297	2,247	6,031	766	805	-
계	8,574	15,441	14,585	14,176	14,324	23,579	20,680	12,001	12,976	10,350

※ 2020년 공공부문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 9년 연속 인증취득(교육부, 인사혁신처)

및 위탁에 관한 규정」제41조 제2항에 따라 1999년 1월 보훈연수원 운영을 국가보훈처가 보훈공단에 위탁했다. 보훈공단이 교육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국가보훈처 훈령 제1320호인 「국가유공자 및 그 가족 등의 연수에 관한 업무지침」,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8조의 2,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제6조, 그리고 2005년 5월에 제정된 「국가 보훈기본법」 제23조 등이다.

그동안 국가유공자와 그 가족, 제대군인, 공무원, 보훈공단 직원, 초·중등학교 교사, 해외동포 학생, 다문화 가정, 전역예정군인, 소방공무원, 해군 등을 대상으로 수요자 특성과 요구를 반영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다양한 교육을 실시했다. 특히 변화관리, 소통·공감 중심 리더십 및 직무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하고 비대면 교육의 수요 증가에 따라 대상별 맞춤형 온라인 교육 및 온·오프라인 융합형 교육을 활성화했다.

교육과정

보훈정신계승 연수

•보훈대상자 자긍심 UP(오프라인)

- 국가유공자 본인, 배우자, 독립유공자 유족 등을 대상으로 한 3일 교육 과정이며 자긍심 고취와 명예회복, 희생정신을 존중하고 독립·호국·건강·힐링 연수를 통해 보훈문화를 확산하고 자긍심을 높이기 위한 연수이다.

•초·중·고 대상 보훈교육(온·오프라인)

-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1일 씩씩 보훈체험’, ‘초·중·고 보훈 스토리 편 러닝’ 등 청소년 교육은 미래세대가 보훈의 중요성을 깨닫고, 보훈정신을 내재화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한 교육이다. 독립·호국·

- 1 1일 씩씩 보훈체험
- 2 초중고 보훈스토리 편 러닝



학생군사교육단 대학생
보훈스토리 편 러닝



민주화 등 근·현대사에 대한 흥미를 유발하기 위해 독립기념관, 전쟁기념관 등 현충시설 탐방과 참여·체험형 프로그램을 접목하여 실시하고 있다. 또한 2020년부터 온라인 과정까지 확대했다.

•대학생 보훈스토리 편 러닝(온·오프라인)

- 학생군사교육단(ROTC)과 예비교사 등 대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대학생 보훈스토리 편 러닝 교육은 2012년 신설된 과정이다. 2013년 학생 군사학교, 2014년 서울교육대학교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했으며, 우리 사회의 리더로 성장할 대학생들에게 국가유공자의 희생정신을 알리고, 보훈정신을 계승하여 올바른 국가관을 형성하기 위한 교육으로 전쟁 기념관, 서대문형무소역사관 등 현충시설 탐방과 보훈문화 확산 방안 등의 조별토의를 실시(2박 3일)하고 육군 ROTC 및 해군 ROTC까지 확대했다.

•유·초·중등 교원 직무연수(온·오프라인)

- 전국 교원을 대상으로 청소년 교육의 주역인 교사들의 역사인식과 보훈 의식을 고취하고 일선 학교현장의 보훈정신 계승교육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교원 직무연수 과정이다. 독립·호국·민주화에 대한 강의와 함께 교육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보훈관련 참여·체험형 교수법 소개 등이 이뤄지며 2017년부터는 유치원 교사까지 확대했다. 또한 나라사랑 선양 특수분야 직무연수로서 교장, 교감 및 교사 대상의 연수 과정인 ‘보훈을 만나다’는 5일 과정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우수 수료자에게는 국가보훈처의 국외 독립운동사적지 탐방 기회를 부여한다. 2012년부터 교원 사이버

원격연수는 쉽고 재미있는 나라사랑 교육, 함께하는 나라사랑교육 등 e러닝 과정을 제공하고 있다.

•가족단위 교육(부모님과 떠나는 보훈여행 등)

- 보훈문화교실은 전국의 초등학생 자녀와 어머니가 함께 참여하여 강의와 현장학습을 통해 나라사랑을 체험하는 3일 과정으로, 2017년에는 중학생, 2018년에는 아버지까지 대상을 확대하여 실시했다. 2020년에는 온라인 강의와 가족단위 역사현장체험을 병행하는 온·오프라인 융합형 교육방식을 새로이 도입했다. 또한 초등학생 다문화 가족을 대상으로 다문화 가족이 함께하는 아름다운 동행을 2017년까지 운영했다.

•일반인·공무원 과정(랜선으로 떠나는 보훈 역사여행 등)

- 보훈 테마활동 운영기관 및 보훈관서 담당자에 대한 보훈문화체험활동 역량강화 과정으로 2019년부터 보훈 업무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실무 강의와 현충시설 현장학습을 병행하는 프로그램으로 운영하고 있다. 2020년에는 유튜브 실시간 스트리밍 방식인 랜선으로 떠나는 보훈 역사여행 과정을 신설했다. 또한 나라사랑 정신과 보훈문화 확산을 위한 오피니언 리더, 보훈정신함양과정 등을 운영했다.



1 랜선으로 떠나는 보훈 역사여행
2 보훈을 만나다
3 부모님과 떠나는 보훈여행

교육실적 (단위 : 명)										
구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보훈대상자	231	254	85	78	79	160	169	160	160	-
초·중·고	872	1,085	899	1,021	482	2,114	1,267	1,896	1,928	3,518
대학생	-	1,762	1,601	1,496	1,719	2,718	1,612	734	544	287
가족단위	866	974	1,044	516	492	699	421	199	207	316
교원직무연수	241	3,963	4,912	4,132	5,333	10,728	5,279	2,162	2,151	3,031
기타 교육	-	653	547	-	-	196	302	-	76	1,547
계	2,210	8,691	9,088	7,243	8,105	16,615	9,050	5,151	5,066	8,699

보훈공단
직무교육

조직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자기개발에 적극적인 교육 문화 조성을 위해 다양한 온·오프라인 교육과정을 제공하고 있다. 계층별 중점 역량강화를 위해 가치창출리더, 성과지향리더, 자기개발리더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점차 그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또한 2006년부터 시작한 1년 단위 장기위탁교육은 의료복지 분야의 전문 경험 및 글로벌 리더십 확장을 위해 관리자를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지원 기관(대학)을 확대해 운영하고 있다. 2015년부터 보훈 의료·복지 수준 향상을 위한 전문가(Specialist)를 집중 육성하기 위해 석·박사 전문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감염관리 등 13개 전문간호분야의 전문간호사 양성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한편 공단은 인적자원개발 관리를 일원화하면서 구성원 역량 강화를 위해 2020년 교육업무를 보훈교육연구원으로 이관했다. 2021년에는 환경 변화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고 지속가능성장 기반 구축을 위해 중장기 교육훈련체계를 재설정하며 향후 구성원의 체계적인 역량강화를 위하여 다각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전문 인재 양성 (단위 : 명)							
구분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계
석·박사	18	15	19	14	13	18	52
전문간호사	7	7	7	3	15	2	21

의료·복지·행정 분야 관리자 양성			
구분	국방대학교	서울대학교	세종연구소
시작년도	2006	2009	2012
인원(명)	13	22	6

교육실적 (단위 : 연인원, 명)										
구분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계	161,512	97,660	105,580	123,465	195,506	166,891	166,403	178,152	155,837	
자체교육	126,090	69,538	78,056	83,731	146,911	121,366	116,775	116,412	104,131	
위탁교육	35,263	28,011	27,407	39,611	48,463	45,399	49,492	61,579	51,693	
해외연수	159	111	117	123	132	126	136	161	13	



공무원 교육

- 전국 공무원을 대상으로 우리역사를 재조명하여 올바른 역사관을 확립하고 보훈의식을 강화함으로써 공직자로서의 소명의식 함양, 미래세대의 정체성 확립을 위한 3일 과정으로 독립·호국·민주·근현대사, 인문학 등 다양한 분야의 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 보훈공무원 교육(직무교육, 보훈핵심가치)
 - 보훈공무원 대상 직무역량향상 교육으로, 급변하는 행정환경변화에 대처하고 행정실무에 필요한 전문지식습득, 관리능력향상, 새로운 업무적응 등을 위해 신규교육, 기본교육, 전문교육, 특별교육 등으로 구분하여 실시하고 있다.

교육실적 (단위: 명)											
구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전국 공무원	횟수	25	21	9	11	18	16	16	13	13	1
	인원	2,186	2,176	881	861	998	952	851	792	917	82
보훈 공무원	횟수	18	14	13	18	18	17	17	13	13	1
	인원	571	398	329	425	525	408	418	387	405	36

전역예정
군인 교육

제대군인 및 전역예정자 교육은 일반사회로 진출하는 제대군인의 원활한 사회복귀 지원을 목적으로 1993년부터 실시했다. 10년 이상 복무한 장기복무 전역자를 대상으로 사회적응교육을 실시했으며 1997년 국방부의 위탁으로 교육대상을 전역예정자로 확대해 직업보도교육을 실시했다. 2004년 사회적응교육을 확대 실시했으며, 창업 희망자를 대상으로 배우자와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소자본창업 교육과정을 신설했다. 2005년 취업소양교육과정을 신설했고 2009년 교육대상을 장기복무 전역자에서 중·장기복무 전역자로 확대했으며 2010년 직업보도교육, 사회적응교육과 취업소양교육을 전직기본교육으로 통합 실시했다. 2015년 전직기본교육은 국방부로 이관되었고, 소자본 창업교육은 2017년 국가보훈처 제대군인지원센터로 이관되었다.

교육실적 (단위: 명)											
구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전직 기본교육	횟수	12	18	18	12	-	-	-	-	-	-
	인원	2,376	2,373	2,204	2,596	-	-	-	-	-	-
소자본 창업교육	횟수	6	6	6	6	6	6	-	-	-	-
	인원	413	345	411	397	209	209	-	-	-	-

소방공무원
심리안정 프로그램
및 해군캠프

2012년 국가보훈처로부터 위탁받아 시작한 소방공무원 심신건강 힐링캠프는 산림치유 걷기 명상, 리프레싱 마사지 등 소방공무원의 외상 후 스트레스(PTSD) 예방 및 사후 치료 프로그램을 제공했다. 2013년 전국 5개 권역, 2014년 충청권과 강원권, 2015년 전국 5개 권역 소방공무원 184명을 대상으로 마음열기 및 관계형성 등 심리안정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전문강사를 초빙해 교육을 실시했다. 2014년 해군2함대 장병을 대상으로 시범운영한 필승! 해군캠프는 국가안보관 강화를 위한 정신교육과 힐링프로그램의 접목으로 PTSD 예방 및 국가안보관 재정립을 교육목표로 운영했다. 2015년 해군본부와 업무협약(MOU)을 맺고 민·군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해군본부 예하 전 부대 장병(작전사령부, 교육사령부 등)을 대상으로 교육을 확대 실시했으며, 교육내용도 국가·안보관에 대한 강의식 교육에서 부대의 소통과 화합을

위한 레크리에이션, 역사문화탐방 등 체험형 프로그램과 인문학 강연 등을 추가해 교육생들이 원하는 방식의 힐링 프로그램으로 운영했다. 연수장소도 수원 보훈교육연구원, 강릉 한국여성수련원, 부산은행연수원, 부산 아르피나 등 교육대상별로 다양하게 마련했다. 2018년 부산관광공사 아르피나와의 업무협약(MOU) 체결로 교육 활성화 기반을 마련했으며 해군본부와 협력해 64차까지 교육을 실시했으나 2020년 코로나19로 집합교육이 축소 운영되었고, 이후 해군본부 각 사령부 교육으로 전환되었다.

교육실적		(단위 : 명)									
구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소방 공무원	횟수	-	8	25	12	4	-	-	-	-	-
	인원	-	316	995	371	184	-	-	-	-	-
해군 캠프	횟수	-	-	-	12	30	33	47	53	64	11
	인원	-	-	-	884	2,245	2,490	3,590	4,230	5,120	880

보훈문화강좌

- 2014~2019년 보훈원과 복지타운에 거주하는 국가유공자 및 유가족을 초청 하는 지역주민행사로 보훈문화강좌를 개최하여 치매예방 교육 및 문화 행사를 진행, 지역주민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국가유공자로서의 자긍심 고취 및 보훈정신 함양에 기여했다.

1 소방공무원 심리안정 프로그램

2 필승! 해군캠프



나라사랑 꿈나무 이동교실

- 교원 직무연수과정 우수 수료자를 대상으로 국가보훈처와 협업하여 국내·외 독립운동 사적지 탐방을 진행, 생생한 역사체험을 통해 우리 역사에 대한 관심을 제고하고 보훈정신을 계승·발전시키기 위한 사적지 탐방을 매년 이어오고 있다.
- 2016~2019년 수원시와 민·관 협업하여 1일 역사문화 탐방으로 지역의 초·중·고등학생에게 나라사랑과 보훈정신을 함양하기 위한 현장체험 학습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 국가유공상이자의 자활·재활·힐링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뉴스타트 교육은 2015년까지 실시했다.
- 2016~2017년 나라사랑 꿈나무 이동교실은 대형버스를 교육 공간으로 개조해 체험기회가 적은 소외지역의 초등학교 및 아동 복지시설, 지역 보훈행사 등을 직접 찾아가는 체험형 나라사랑 교육으로 실시했다.

교육실적		(단위 : 명)									
구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8	2019	2020	
횟수		11	12	13	14	13	35	13	11	-	
인원		694	549	574	1,245	1,297	2,247	766	805	-	

제2절

연구사업

국가보훈처 시절인 1993년 2월 보훈연수원으로 명칭을 변경했다. 이때 연수원에 보훈연구실(연구관 3명 등 15명)을 두어 민족정기선양 방안 연구, 보훈대상자 복지시책·제도 및 제대군인 사회정착방안 연구, 통일대비 보훈정책 연구기능 등을 수행했다.

보훈연수원은 1999년 보훈공단으로 소속이 변경되었으며 2001년 2월 명칭을 보훈교육연구원으로 변경해 연구기능이 제도화되었다. 2003년 12월 수립한 보훈교육연구원 활성화계획에 따라 2004년 9월 연구직을 신설했으며 2005년 3월 「보훈공단법」을 개정하면서 보훈정책관련 연구기능의 근거를 마련해 연구직 5명(2급 1명, 3급 2명, 4급 2명)을 반영했다.

보훈교육연구원은 보훈정책 전문연구기관으로 보훈가족의 삶의 질 향상과 국민의 나라사랑정신 함양을 위한 국가보훈처의 정책개발, 보훈공단이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중·장기 경영전략을 수립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수행하는 연구는 나라사랑 국민정신체계연구 및 선양 프로그램 개발, 복지제도 및 보훈의료 전달체계 연구, 보훈정책 관련 수탁 연구·조사, 제대군인 지원정책의 연구·개발, 외부용역과제 및 외부기관과의 공동연구, 국내외 연구교류협력 및 보훈학술행사 개최와 보훈학술지, 연구보고서 발간 및 대외홍보 등이다. 연구직은 기본업무와 개인연구업무를 수행하며, 기본업무는 기본연구과제와 용역연구과제가 있고, 개인연구업무는 학술논문 발표, 저서, 언론 기고 등이 있다.

그동안 연구실적은 국가보훈처에서 의뢰하는 보훈정책연구가 주를 이루었으나 최근에는 보훈공단의 의료와 복지분야의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보건·복지분야 연구를 강화하기 위해 2020년 보건학 전공 연구원을 채용하고 보건의료분야에서는 보훈의료서비스 효율성 강화, 보훈병원 응급의료체계 구축방안, 디지털헬스와 보훈의료 전달체계, 의료복지사업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중장기 계획 수립 등을 수행하고 있다.

복지분야에서는 보훈복지 상담프로그램 개발에 관한 연구, 현행 보훈복지서비스 활성화 방안 및 중장기 보훈복지정책 발전방향 연구, 고령 보훈대상자 노후복지 서비스 수요분석 및 활용방안, 의료복지통합서비스 사업 운영체제 고도화, 국가유공자의 복지증진 확대를 위한 방안 등을 수행하고 있다.

보훈문화 총서 발간

공동체를 위한 헌신이라는 가치를 중심으로 보훈문화의 사회적 이해도모 및 대중적 인식을 제고하기 위해 ‘보훈문화총서’를 발간했다. 보훈정책 전문 연구기관으로는 최초로 보훈 연구 성과물을 대중과 공유함으로써 보훈의 의미를 알리고 보훈문화를 사회 전반에 확장하기 위한 의미있는 시도이다. 우선 2020년 보훈문화총서 7권을 발간해 대중과 직접 소통하는 기회를 마련했다. 보훈문화총서를 보훈공단 소속기구에 배포해 홍보용으로 활용할 수 있게 했으며 보훈문화총서 발행 이후 프레시안, 일간투데이, 나라사랑신문 등 언론매체와 페이스북 등 각종 SNS에 소개되었다.

보훈문화 기틀 조성을 위한 보훈연구

보훈정책의 연구영역은 보상정책, 보훈선양, 보건의료, 보훈복지, 국립묘지, 제대군인 등 광범위하다. 최근에는 IT기술과 접목한 연구 발전을 위해 빅데이터, 데이터사이언스, 인공지능 분야로 연구를 확대할 필요가 있지만 2005년 이후 고정된 5명의 연구직 인원으로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향후 분야별 연구직 인력 확보와 연구환경 개선이 필요하다.

연도별 연구실적										(단위 : 건, 백만 원)	
구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계	건수	18	18	12	8	7	6	9	9	11	11
	금액	440	522	383	169	137	86	78	131	84	149
용역 연구과제	건수	17	15	12	8	7	6	5	5	7	4
	금액	428	462	383	169	137	86	78	131	84	110
기본 연구과제	건수	-	-	-	-	-	-	4	4	4	7
	금액	-	-	-	-	-	-	-	-	-	39
군사 학술연구	건수	1	3	-	-	-	-	-	-	-	-
	금액	12	60	-	-	-	-	-	-	-	-

※ 기본과제는 2017년도부터 시작, 군사학술연구과제는 2007~2012년간 연구수행, 용역연구과제는 외부연구과제와 보훈공단연구과제, 2020년도 기본연구과제는 보훈문화총서 7권 발간

보건복지분야 연구

연구과제(2011~2020년)		
구분	연구과제	주요내용
'11 공역과제 (17건)	나라사랑정신 함양을 위한 국가보훈 상징기능 관리방안 연구	보훈정책의 상징적 차원, 외국 보훈의 상징정책 사례연구, 국가보훈상징 기능의 현황 및 실태, 그리고 상징 기능 통합관리 방안 연구
	보훈복지 상담프로그램 개발에 관한 연구	국가유공자 현황분석, 상담프로그램 사례분석 및 현황, 상담프로그램 도입방안 연구
	국제보훈동향 연차보고서 -제1차 대만-	대만 보훈정책과 관련하여 일반 현황, 교육지원 및 직업기술훈련, 취업지원, 의료지원 등을 확인하여 제시
	제대군인 생활안정 지원방안 연구	제대군인의 안정적인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국내·외 정책을 살펴보고 설문조사를 통하여 욕구를 분석하여 개선방안을 마련한 연구
	「호국과 보훈」 기본교재 개발	국가보훈과 국가안보, 북한의 대남전략 실체, 국가안보능력 향상대책, 북한의 최근 실상과 대북정책 추진방향, 남북한의 정체성, 그리고 대한민국의 성취와 정통성 연구
	「나의 몸에는 대한국민의 DNA가 흐르고 있습니다」 보조교재 개발	의병부터 아덴만까지, 교육 강국, G20 의장국의 영예, 한류 열풍, 드릴십, 한주호 준위, 그리고 한국 여성들의 당당함을 기술
	미국의 애국심 고취정책 연구 (교육·문화 중심)	애국심 관련 이론, 미국의 애국심과 교육정책, 미국 애국심과 문화정책, 그리고 미국의 애국심과 보훈정책 연구
	보훈복지 사례관리 모델 구축에 관한 연구	보훈복지 사례관리 이론, 보훈복지 기관별 사례관리 분석, 그리고 통합사례관리 시스템 구축 연구
	교육·취업지원 성과분석 및 제도개선 방안 연구	보훈대상자에 대한 국내·외 교육 및 취업지원제도, 보훈대상자 및 기업체 관계자 1,041명에 대한 설문조사, 교육취업제도의 성과지표 개선, 보훈대상자 고용비율표 개선, 그리고 교육 및 취업지원제도의 종합 개선방안 연구
	교육용 리플렛 제작	보훈교육용 리플렛 내용 작성 및 제작
	제대군인 교육훈련 프로그램 교육효과 측정 및 분석	2011년 제대군인 전직지원서비스 프로그램 수료자에 대한 교육내용, 교육과정, 교육성과 설문조사분석을 통하여 교육프로그램 개선방안을 제시한 연구
	2010 보훈선양사업 성과분석 연구	보훈선양사업 성과분석 모형구축, 보훈선양사업 개요 및 사례, 그리고 보훈선양사업 성과분석 연구
	2011년 의료지원사업 성과분석 연구	보훈의료지원현황, 의료분야 사업평가 사례, 그리고 비용효과분석 연구
	고엽제환자지원사업 성과분석 연구	고엽제환자 관련 정책 및 사업현황, 성과분석모형 구축, 그리고 고엽제환자 성과분석 연구
	공단 특성에 맞는 핵심인재 육성방안	인재육성 관련 이론고찰, 핵심인재의 정의, 선발방법, 육성방안, 그리고 경력개발 프로그램 개발 연구

구분	연구과제	주요내용
'11 공역과제 (17건)	사회공헌활동 방향 및 체계구축	사회공헌활동을 전략적으로 접근하기 위한 방안으로써 공기업경영평가 틀에 적합한 사회공헌활동 체계 및 사회공헌활동 아이템 개발, 참여자 동기부여 인센티브 개선방안 등을 강구
	위탁병원 의료서비스 적정성 평가의 효율적 운영방안에 관한 연구	보훈의료지원사업, 위탁병원평가의 적정성 분석, 그리고 위탁병원 평가 개선방안 연구
	군사학술 (1건)	전장환경에 부합된 표준 훈련장 설계방안
'12 공역과제 (15건)	국제보훈동향 연차보고서 (프랑스)	프랑스 국가 개관 및 보훈제도, 보상지원정책, 의료 및 복지지원정책, 기념추모사업 및 나라사랑정신 고양정책, 제대군인 지원제도 연구
	현행 보훈복지서비스 활성화 방안 및 중장기 보훈복지정책 발전방향 연구	국내 및 국외 보훈복지서비스 동향, 보훈복지서비스 욕구 변화, 보훈복지서비스와 타 부처 유사 복지서비스와 비교분석, 정당별 보훈정책 연구
	보훈복지센터 운영 및 구성에 관한 연구	보훈사회복지 관련 업무 대상자에 대한 인터뷰 및 설문조사를 통하여 보훈복지센터 설립 타당성 및 운영방안 모형을 제시한 연구
	외부자원연계를 통한 보훈 나눔프로그램 개발	보훈대상자 생활실태와 보훈복지서비스, 외국사례, 기업 사회공헌활동 현황과 추세, 기업 연계형 보훈 나눔 프로그램 개발 전략, 그리고 보훈복지재단 설립방안 연구
	보훈의료서비스 효율성 강화 방안 연구	보훈의료체계 유지 필요성 및 발전방향, 보훈의료서비스 비용효과성 강화방안 연구
	2012년 국제보훈워크숍 자료집 발간	미국, 호주, 뉴질랜드, 캐나다, 터키 등 5개국을 대상으로 하여, 각국의 보훈제도에 대한 국제비교 및 시사점 연구
	한·미·일·중 4개국 청소년의식 비교조사	이 연구에서는 청소년의식 관련 환경요인으로 국가관, 역사관, 다문화 등 영역을 선정하고 이를 근거로 청소년의식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고 있음
	현충시설의 관광자원화 전략 모델 개발에 관한 연구	현충시설관련 이론고찰, 해외사례연구, 현충시설 관광자원화 전략 연구
	학교 나라사랑교육 체계화 방안	민주시민교육으로서의 나라사랑교육, 나라사랑정신 선양정책, 정부부처의 나라사랑교육, 나라사랑교육 인식분석, 그리고 나라사랑교육 체계화방안 연구
	제대군인 교육훈련 프로그램 교육효과 측정 및 분석	2012년 제대군인 전직지원서비스 프로그램 수료자에 대한 교육내용, 교육과정, 교육성과 설문조사분석을 통하여 교육프로그램 개선방안을 제시한 연구

구분		연구과제	주요내용
'12	용역과제 (15건)	복권기금 운용 및 활용방안	복권기금 성과분석, 보호자 없는 병원, 진료이동 지원서비스, 주거 및 휴양시설 등 의료복지사업 우수사례 분석, 복권기금 운용 및 활용방안을 제시한 연구
		공단직원 집합교육 보훈교육연구원 연계 활용 방안	공단 및 보훈교육연구원의 집합교육 체계, 집합교육 체계 개발 연구
		Bohun-THIS 성장발전 활성화 방안	Bohun-THIS 운영인력 부족문제와 이에 대한 개선방안, 경영평가 등에서 활용할 수 있는 질적 측정지표 개발 등을 주요 연구대상으로 함
		국가유공상이자 전용휴양시설 건립	국가유공자 특성 및 보훈여가복지 현황분석, 휴양시설 관련 국내외 현황분석, 그리고 국가유공자 휴양시설 대안을 탐색한 연구
		위탁병원관리단 비용편익 분석에 관한 연구	위탁병원관리단 현황 및 비용편익 모형구축, 비용편익분석을 실시한 연구
	군사학술 (3건)	미래 소부대 정보통신 기반체계의 효율적인 설계를 위한 전주소부대 첩보요구분석	
		장비 대량 피해 시 복구절차 연구	
		정부기능체계에 기초한 육군 기록관리기준표 표준안 연구	
'13	용역과제 (12건)	나라사랑교육 프로그램 분석 및 개발	본 연구는 나라사랑교육 프로그램의 분석 및 개발을 모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국제보훈동향 연차보고서 제3차 (캐나다)	캐나다의 국가 개관 및 보훈제도, 보상지원정책, 의료 및 복지지원정책, 기념 및 추모사업 등 나라사랑 고양정책, 제대군인정책 연구
		나라사랑교육 지침서 개발	이 책은 각 교육기관의 선생님이 왜 나라사랑교육을 해야 하고, 또 어디에 비중을 두고, 무엇을 가르쳐야 하는가를 제시한 하나의 참고자료임
		제대군인 힐링프로그램 개발에 관한 연구	제대군인 특성 및 전직지원 프로그램 분석, 힐링프로그램 유사 사례연구, 힐링프로그램의 요구분석, 그리고 힐링프로그램을 개발한 연구
		경찰·소방공무원에 대한 보훈지원 방안 연구	경찰소방공무원 보훈지원제도 분석, 설문조사, 정책적 시사점 도출, 그리고 지원방안 연구
		국가유공자증 등 발급 및 관리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국가유공자 등 신분증의 실태분석, 설문조사를 통한 활용실태 및 요구분석, 신분증 발급 및 관리 개선방안 연구
		보훈학사 건립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연구	보훈학사 건립을 위한 기초자료 조사, 기본계획 수립, 입지분석, 건립타당성 조사, 효율적인 운영방안 연구

구분		연구과제	주요내용
'13	용역과제 (12건)	제대군인 교육훈련 프로그램 교육효과 측정 및 분석	2013년 제대군인 전직지원서비스 프로그램 수료자에 대한 교육내용, 교육과정, 교육성과 설문조사분석을 통하여 교육프로그램 개선방안을 제시한 연구
		보훈공단의 효율적 인력관리 방안에 관한 연구	보훈병원 인력운영실태, 타 의료기관 인력운영 사례, 보훈병원 의료진의 인력관리 실태 및 요구, 그리고 우수 의료진 확보방안 연구
		보훈병원 응급의료체계 구축방안 연구	보훈의료지원 현황, 응급의료 실태분석, 그리고 응급의료 구축방안 연구
		공단 주요사업별(의료·복지) 글로벌 성과지표 개발	보훈공단의 설립목적과 주요사업 경영지표, 국가별 주요사업의 성과지표 사례연구, 그리고 보훈공단의 성과지표를 개발한 연구
		Bohun-THIS 업무 프로세스 개선에 관한 연구	이 연구에서는 먼저 현행 Bohun-THIS 업무 프로세스에 따른 문제점을 검토하고 이에 따른 Bohun-THIS 업무 프로세스 개선방안을 강구하고 있음
'14	용역과제 (8건)	대한민국 정부수립기 국가발전 기여활동 공훈선양방안 연구	국가형성과 정부수립의 역사, 광복과 대한민국 정부수립, 대한민국 정부수립기의 국가발전 기여활동, 발전 기여자에 대한 공훈선양 방안 연구
		국가유공자 등 노후복지지원 사업평가 및 개선방안	국가유공자 노후복지사업 현황, 국내외 노후복지제도, 국가보훈처의 노후복지사업 평가와 개선방안 연구
		중등 역사교과서 국가유공자 공헌 내용 분석	이 연구는 후세대들에게 보훈의식을 고취하기 위하여 중고등학교 역사교과서의 내용을 검토하고 역사교과서 내 보훈 관련 내용에 대한 현황을 합리적으로 분석하고 있음
		현충시설 통합관리체계 구축방안 연구	현충시설 운영관리 현황분석, 현충시설관리 사례분석, 설문조사, 그리고 통합관리체계 구축방안 연구
		2014년 제대군인 교육훈련 프로그램 교육효과 측정 및 분석	이 연구는 2014년에 운영된 국가보훈처 제대군인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대상으로 객관적인 성과를 측정·평가하였음
		주거복지서비스사업 발전방안 수립	주거복지서비스사업 추진 현황을 파악하고, 타 기관 사례를 분석하여, 현 사업의 지속가능성 확인 및 향후 주거환경개선사업의 발전방안을 도출함
		강원보훈요양원 건립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연구	보훈대상자 현황, 보훈요양원 건립과 관련한 이해당사자 설문조사, 요양원 입지분석, 그리고 강원권 요양원 설립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한 연구
'15		보훈교육연구원 활성화 방안 연구	보훈교육연구원 운영현황분석, 운영수지분석, 그리고 활성화 방안 연구
		보훈외교의 성과와 발전방안 연구	보훈외교의 이론과 역할 기능, 보훈외교의 효과분석, 국제보훈사업의 평가지표를 개발한 연구
		군복무대상자를 위한 나라사랑정신 교육방안 연구	이 연구에서는 군 입대를 앞둔 군복무대상자를 위한 나라사랑정신 교육 방안에 대한 기본적 내용을 제안하고 있음

구분		연구과제	주요내용
'15	공역과제 (7건)	국가유공자 문패 달아주기 등 예우방안 연구	상징물을 이용한 선양사업, 문패 달아주기 사업 현황 및 개선방안, 지방자치단체의 국가유공자 예우사업 현황 및 개선방안 연구
		국립묘지 안장수요 및 안장 추계 분석 연구	국립묘지 현황, 해외의 국립묘지 사례연구, 설문조사를 통하여서 국립묘지 중·장기 수급계획 연구
		직업재활 재정립 및 수행방안 마련 연구	직업재활 개념 및 법령, 직업재활 현황 및 사례분석, 직업재활 역할 및 기능 재정립 방안 연구
		성과연봉제 확대 및 임금피크제 운영 방안	성과연봉제 도입 배경 및 필요성, 임금피크제 운영방안을 보훈공단에 도입하는 방안 연구
		공단 일반기능직 등 효율적 운영 방안	경영환경 변화에 맞추어 기능직종의 일반직 전환을 위한 대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기능직종의 인력운영 현황을 살펴보고 그 외 직종의 인력현황의 특징과 문제점을 살펴보고 있음
'16	공역과제 (6건)	보훈네트워크 활용을 통한 호국보훈정신 함양방안 연구	‘보훈네트워크’라는 개념을 정립하고 그 활용 가능성을 타진함으로써 호국보훈정신 함양의 실천적 기제로 제시한 연구
		조직진단과 직무분석을 통한 전문사료발굴분석단 운영 합리화 방안	조직진단 및 직무분석을 통한 주요 이슈 도출, 전문사료발굴분석단 운영 합리화 방안 연구
		2016년도 보훈선양 문헌발간 사업	이 책은 광복 이후 우리사회에서 보훈선양의식이 어떤 모습을 보여왔고, 이런 현황을 토대로 향후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지를 고려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복권기금 종합평가 및 자체 성과평가 방안 연구	공단의 복권기금사업 성과평가 개요 및 현황진단, 국내외 공공사업 성과관리의 내용과 시사점, 공단의 복권기금사업 성과평가 개선방안 연구
		연봉제대상자 역량평가제의 진단·점검을 통한 발전방안 연구	보훈공단 경영환경분석, 역량평가대상자에 대한 인터뷰를 통하여 드러난 문제점을 분석하여 평가지표, 평가군, 평가자, 평가시기, 평가방법, 그리고 평가결과 활용방안을 개선한 연구
		전문직종의 효율적 인력운영 방안	이 연구는 전문직종의 효율적 인력운영 방안을 강구하고자 했으며, 특히 간호직, 약무·의무직 등 전문직종의 효율적 인력운영 방안을 검토해 보았음
'17	공역과제 (5건)	현충탑 등 전적지 집단화를 통한 추모공원 조성 타당성	가평군 관내 여러 지역에 산재되어 있는 보훈기념시설의 집단화를 통한 추모공원 조성 필요성에 대한 검토와 방안 제시
		성 고충전문 상담관 자격기준에 관한 연구	국방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성고충전문상담관 제도 분석, 성고충전문상담관 21명에 대한 설문조사분석, 타 기관 전문인력선발 사례를 통하여 성고충전문상담관 자격기준 개선을 제시한 연구
		제대군인 일자리 선순환 방안 연구	제대군인이 취업한 일자리 5만여 개를 표준직업분류에 따라 재분류하고 평가하여 일자리 선순환 방안을 제시한 연구

구분		연구과제	주요내용
		나라사랑교육 지침서 개발	국가보훈의 개념, 보훈정신함양교육의 내용체계, 교수학습방법 및 유의사항 등을 연구
		영주귀국 독립유공자 후손 생활실태 조사 결과분석	이 조사는 「독립유공자법」 제5조에 의한 독립유공자 유족인 영주귀국가 전체 512명과 제16조 제2항 제3호에 의한 대리지정 취업자로서 보훈처에서 관리되고 있는 증손자녀 11명 등 총 523 명을 대상으로 하였음
	기본과제 (4건)	보훈문화 확산을 위한 보훈단체 역할방안 연구	보훈단체 관련 이론 및 현황, 보훈단체의 사회적 인식평가 및 활동분석, 그리고 보훈문화 확산을 위한 보훈단체의 역할 연구
		2017년 새 정부 시대 보훈정책의 전망과 과제 -보훈복지정책을 중심으로-	역대 정부의 보훈정책 특징 및 가치, 보훈관련 새 정부의 공약, 분야별 보훈정책 전망과 과제 연구
		독립운동가 관련 홍보정책에 대한 국민인식 분석	이 연구에서는 독립운동가와 관련하여 현재 진행 중인 주요 홍보방안들에 대한 수요자 측면에서의 인식을 분석하여 정책적 함의를 도출하여 보았음
	공역과제 (5건)	미국 보훈병원의 질 평가제도 및 평가결과 분석	미국 보훈병원의 질 관리시스템을 살펴보기 위하여 미국의 보훈의료제도 및 보훈병원 평가제도, 분야별(급성기 사망, 합병증 및 감염사고, 재원일수, 환자경험, 직원 만족도 등) 평가결과를 분석한 연구
		국내 독립유공자 등 산재묘소 관리방안	국내의 국립묘지 외 독립유공자 합동묘역 등 산재묘소를 국가에서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관리방안 모색
		비공개) 00학교 전통계승 및 발전방안 연구	
		보훈심사 행정역량 강화를 위한 조직진단 및 직무분석 연구	보훈심사 관련 환경분석, 보훈심사위원회 조직진단 및 직무분석, 행정역량 강화방안 연구
		고령 보훈대상자 노후복지서비스 수요분석 및 활용방안 연구	보훈재가복지서비스와 요양환경의 변화, 보훈 및 일반 재가복지서비스 비교분석, 보훈복지서비스 대상자 및 전문인력 추계와 운영방안, 보훈재가복지서비스의 경제적 효과분석, 그리고 효율적인 보훈복지 전문인력에 대한 운영방안 연구
	'18	공공데이터 개방 활용을 위한 데이터 발굴	우리나라의 보건의료분야 데이터 공개 및 활용현황, 보훈공단의 데이터 제공 및 활용방안을 연구한 내용
		지방화시대 보훈문화 확산방안 연구	보훈문화의 패러다임, 보훈문화의 개념, 보훈기념행사, 현충시설 활용, 지방화시대의 보훈문화 미래 연구
		국가유공자 돌봄 연속성 확보를 위한 사례관리 체계 마련 방안	사례관리의 이론적 이해, 의료보건복지 연계의 필요성과 이동보훈복지서비스와 보훈의료통합복지서비스에 대한 사례 연구
	기본과제 (4건)	민주화운동에 대한 우리 사회의 인식 분석	이 연구에서는 민주화운동에 대한 우리 사회의 인식을 분석해 보고 이를 통하여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 발전을 위한 보훈정책에서의 의미를 도출해 보았음

구분		연구과제	주요내용
'18		대만 건강보험제도 및 보훈의료제도	대만과 우리나라의 건강보험제도 및 보훈의료제도를 비교분석한 연구
'19	용역과제 (7건)	국가보훈대상자 예측모형 개발 및 보훈급여금 전망 연구	향후 30년간(2020-2050) 우리나라의 보훈대상자별 인구추계 모형개발 및 보훈급여금 재정추계 모형을 개발한 연구
		제대군인 생활실태 분석에 관한 연구	20018년 국가보훈대상자 생활실태조사의 항목인 문화/여가, 사회참여, 가족관계, 경제활동 등 9개 분야에 대하여 심층분석한 연구
		디지털헬스와 보훈의료 전달체계	디지털헬스케어 동향 및 국내·외 실제사례분석, 보훈의료전달체계 현황, 디지털헬스케어 도입 및 보훈의료체계 개편방안 연구
		보훈의료복지통합서비스 사업 운영체제 고도화에 관한 연구	보훈통합의료복지서비스 현황, 조직 재구성 방안, 성과를 분석하고 성과지표를 제안한 연구
		간부직 보직임기제 실행방안 연구	보훈공단의 간부직 인력운영 현황을 분석하고 보직임기제 기본방향을 설계한 연구
		수원지역 보훈통합케어타운조성 종합방안 연구	수원지역 보훈자원현황 및 실태조사, 국내·외 커뮤니티케어 유사 사례분석, 수원지역 보훈통합케어타운 조성방안 연구
		사회적 협동조합 설립지원 및 구매연계 플랫폼 구축의 타당성 검토 및 공단 도입 가능범위에 대한 분석	이 연구는 사회적협동조합이라는 형식을 이용하여 공단이 사회적 약자의 자생력 강화를 돕고 지속가능한 사회적 공유가치 창출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보고자 하는 것임
	기본과제 (4건)	국가보훈의 역사와 가치에 관한 연구	보훈의 역사, 의미와 가치, 보훈의 개념, 이념, 발전과정을 살펴보고 보훈의식의 수준과 보훈정신 함양을 연구한 내용
		다크투어리즘을 활용한 보훈자원 활성화 방안	다크투어리즘의 이론적 배경과 사례분석을 통하여 보훈 다크투어리즘 운영방안을 제시한 연구
		우리 사회의 4차 산업혁명 인식과 보훈공단에서의 시사점 연구	이 연구는 우리 사회의 4차 산업혁명 전망 및 인식을 현 시점에서 확인해 보고, 이를 우리 사회의 공공기관과 우리 공단에 주는 시사점과 대응방안을 중심으로 연구
		재가급여 사례연구 및 운영방안 연구	보훈공단의 의료복지통합서비스사업과 일본의 재가복지사례 비교를 통하여 의료급여·재가급여 사업모델 및 운영방안 연구
'20	용역과제 (4건)	공단 인사제도 개선방안 연구	공단 인사제도와 관련하여 기존 승진·역량평가, 전보제도 등을 객관적 진단으로 문제점을 도출하고 전보 절차 및 기준 등 개선방안 제시
		국가유공자의 복지증진 확대를 위한 방안 연구	본 연구는 보훈급여금과 기초연금제도의 성격, 다른 공적이전소득과의 관계를 고찰하고, 소득공제 모델 비교연구를 통하여 적절한 수준의 기초연금수급권 보장을 위한 보훈급여금 소득공제제도 도입기준을 제시함으로써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한 연구

구분		연구과제	주요내용
'20	기본과제 (7건)	공단 명칭 변경 타당성 및 효과성 분석	보훈공단 명칭 변경에 대한 타당성 및 효과성을 분석하여 이 시점에 맞는 적절한 대안을 제시하는 것을 연구의 범위로 함
		비공개)의료복지사업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중장기 계획 수립 연구	보훈공단의 중·장기적인 안전활동 계획을 수립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나아가 안전활동 수준평가 시 우수한 평가를 획득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안을 제시한 연구
		복지로 읽는 보훈	보훈은 복지다, 복지에는 날개를, 보훈은 비상을, 선진 강대국의 보훈복지와 대한민국, 우리의 꿈, 보훈이 당당한 복지국가, 한국 보훈제도의 발전과 보훈복지의 미래에 관해 서술한 연구
		보건으로 읽는 보훈	보훈대상자의 건강과 보장, 마음 건강을 위한 준비: 보훈과 정신건강, 보훈대상자의 장애 개념과 장애인 복지정책 과제, 보훈대상자를 위한 미국의 통합의료 프로그램을 서술한 연구
		보훈의 여러 가지 얼굴	한국적이면서 세계적인: 평화적 보훈의 가능성/정의와 보훈/보훈법의 범주와 새로운 도전/보훈을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2030세대의 통일의식과 보훈, 애국심의 의미와 역할 탐색을 서술한 연구
		남에서 북을 다시 보다	탈북 박사들이 북한의 보훈정책과 제도, 북한의 보훈과 영웅 상징화를 서술한 연구
		통일로 가는 보훈	보훈, 통일에 기여하기 위하여/북한 애국심의 의미와 성격 탐색/ 북한의 남한 민주화 운동에 대한 평가와 통일정책 변화/북한의 보훈, 그리고 한반도 통일/남한의 보훈과 한반도 통일/보훈과 통일의 공동 지향에 대한 모색/통일을 내다보는 보훈을 서술한 연구
		보훈 3.0: 시민과 함께하는 보훈 읽기	보훈학과 보훈문화, 보훈법제와 선양, 보훈복지와 의료, 독립/ 호국/민주를 서술한 연구
		가족과 함께하는 보훈교실	우리 사회 공동체 일원으로 가족이 어떤 생각과 행동을 하는 것이 옳은지 생각해 보는 계기를 제공하는 연구

※ 2020년 기본과제(7건) : 보훈문화총서

1 보훈총서 1판

2 보훈총서 2판



제 7 장 운영관리

- 제 1 절 인사관리
- 제 2 절 복리후생
- 제 3 절 홍보활동
- 제 4 절 법무관리
- 제 5 절 노사협력
- 제 6 절 안전관리

제 1 절

인사관리

인사관리는 모든 경영관리의 기본을 이루는 축으로 한 조직을 효율적이고 합리적이며 또한 체계적으로 끌여가기 위해서 필요한 경영지원 분야이다. 보훈공단은 목적사업의 성공적 수행과 성과극대화를 위해 개인의 창의성과 성장을 존중하는 인재육성을 기반으로 윤리경영을 선도하는 인사원칙을 지향한다. 인재상(보훈인, 봉사인, 전문인, 화합인)을 기반으로 역량과 성과중심, 인재 우선주의, 열린 인사를 기본 원칙으로 해 성과는 공정하게 평가·보상하며, 모든 구성원들이 수용할 수 있는 인사 구현을 목표로 한다.

대내외적인 환경요인은 지속적으로 변화하고 있다. 공공부문 인사혁신을 통한 경영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경영환경 변화, 학력차별 완화 등을 통한 능력중심사회로 전환, 청년·여성·장애인·취업보호·지역인재 등 사회형평적 인력채용 확대 등이 인사운영에 반영되고 있으며 내부적으로는 주요업무 인력조정, 핵심역량강화, 능력과 실적 중심의 성과주의 조직문화 내재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환경 속에서 보훈공단은 인재상에 부합하는 핵심 전문인력을 확보하고 양성하는 체계, 능력과 성과중심의 인사시스템을 구축해 나가고 있다.

현행 인사시스템은 보직, 승진, 육성, 보상의 성과향상을 위한 사이클을 통해 능력과 성과중심 평가 보상이 이루어지고 있다. 경쟁력 있는 조직문화 구현을 위해 보직심사제도를 활성화하고, 업무능력에 따른 성과기준 직위 승진·보직을 운영하며 지속적인 성과평가를 하고 있다. 또한 상시 모니터링 및 설문조사 등을 통한 점검 환류를 통해 직원들이 참여하는 인사를 시행하고 있다.

신규채용

공정채용 확립과 직무능력 중심의 선발제도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2019년 채용업무시행세칙을 제정해 평가위원제척·회피·채용비위 처리·징계 기준 등을 반영했으며, 불필요한 스펙 제거 및 면접방식 고도화를 통한 블라인드 채용으로 공정성을 강화했다. 또한 채용정보 공개범위 확대로 투명성을 확보했으며 외부전문가 영입 및 성과 창출을 위해 개방직 직위를 확대 운영하고



신입직원 임명장 수여식

있다. 2020년 정규직 채용규모(340명)는 공공기관 중 상위 5% 이내로 공공
부문 일자리 창출에 선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채용정보 공개			
구분		기존	개선
채용 단계	사전	오프라인 채용설명회 위주 참여	유튜브 채널 활용 채용정보 동영상
	채용실시	필기점수 및 합격점 공개	면접점수 및 최종점수까지 공개
	사후	예비합격 여부 비공개	예비합격자 명단 및 순번 공개

간호사 직무능력 평가		
구분		추진내용
채용 공고	직무이해도	• 간호직무 필요지식, 필요기술 등 필요역량을 명시한 NCS 기반 직무기술서 게시 - 외래·입원·특수간호 구분(직무기술서 보훈공단 자체 개발)
필기 전형	직무맞춤형	• 노인환자가 많은 보훈병원 특성을 반영해 출제과목 비율 조정 • 현장적응력 평가를 위해 의학용어(영문) 혼용 출제
면접 전형	면접기법 다양화	• 임상술기 면접 신규 도입으로 실무능력 및 위기 대처능력 등 평가
	면접위원 전문성	• 임상술기·인성면접 특성에 따른 면접위원 위촉으로 직무전문성 평가
	언택트·면접	• 심층 평가를 위해 언택트·다대일 화상면접 도입

전보

직원의 보직관리는 인사방침에 따라 개인의 적성·능력·경력 등을 종합해
실시한다. 능력과 실적 중심의 조직문화 구현을 위해 조직의 역량강화 및
성과창출을 위한 공정하고 투명한 보직심사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전보
희망수요 조사와 함께 전보 마일리지제도 신설, 간부직 보직 임기제도 도입 등
직무중심능력 강화를 위한 인사제도를 정립했다.

전보마일리지 제도 : 연고지·근무지 거리에 따라 1개월 단위 점수 부여			
마일리지 부여	전보희망 조사	전보순위 결정	마일리지 사용
근무거리에 따른 등급별 점수부여	개인별 전보희망 의견 수렴	전보마일리지 점수에 따른 우선순위 결정	희망 근무기관 전보로 마일리지 점수 차감

연도별 전보										(단위 : 명)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136	183	150	153	145	162	158	257	188	242	

승진

승진은 실현된 성과와 능력중심의 공정한 승진, 합리적 기준과 절차에 따른
인사운영으로 신뢰도를 제고하고 여성승진 등 양성평등 균형인사의 실질적
정착을 위한 기반을 마련했으며 승진역량평가 기법 고도화로 인사제도
만족도가 향상되었다.

- 승진시험 개편 : 중간 간부(4급) 역량 향상을 위해 암기식 시험 개선, 변별력 강화
- 근무성적평정 합리화 : 승진시기(6월, 12월)에 맞춰 최근의 근무성적평정이
승진서열명부에 반영되도록 근무성적평정 시기 조정

- 역량평가 강화 : 3급 이상 승진역량평가 기법 고도화 및 엄격한 평가를 통한 역량 우수관리자 선발

연도별 승진 현황										(단위 : 명)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71	122	107	66	97	158	121	174	179	159	

표창·징계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모범이 되는 직원에 대해 포상을 실시해 사기와 자긍심·애사심을 높이고 있다. 징계는 법령 및 제규정에 의한 준수사항과 서약사항에 위배한 경우,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보훈공단에 재산상의 손해를 끼쳤을 경우에 징계 처분함으로써 사내기강을 확립하고 있다.

연도별 표창 현황										(단위 : 명)
구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계	184	170	181	248	245	196	230	239	215	286
처장	25	23	10	14	25	33	15	15	14	64
이사장	73	64	73	108	92	87	101	103	92	114
소속 기구장	86	83	98	126	128	76	114	121	109	108

승진 임명장 수여식



연도별 징계 현황										(단위 : 명)
구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계	28	4	34	13	14	27	21	26	32	45
파면	4	1	2	1	-	1	-	1	2	-
해임	3	-	3	1	3	1	2	1	2	1
정직	4	1	3	3	1	1	2	2	8	9
감봉	14	2	17	1	1	15	3	14	7	17
견책	3	-	9	7	9	9	14	8	13	18

사회형평적 채용

청년·장애인·이전지역인재·국가유공자·경력단절여성 등 사회적 약자 채용을 통한 열린고용 실현 및 공공기관의 사회적 책임을 이행하기 위해 균형인사 정책의 4대 추진과제를 시행하고 있다.

- 청년채용 확대 : 청년 의무채용비율 초과 달성, 사무직 최대 규모 채용
- 장애인 일자리 확대 : 장애인고용공단 협업, 휠체어관리 등 장애인 친화직무 (12개) 발굴 및 장애정도에 따른 적합 직무 채용(39명)
- 우수지역인재 채용 : 사무직 의무 채용목표보다 초과 및 지역고교 체험학습, 온라인 취업컨설팅 등 지역인재 역량강화 지원
- 사회 소수자 채용 : 저소득층·북한이탈주민·다문화가족 가정제도 운영
- 경력단절여성 채용 : 보훈병원 간호사 10% 할당채용 및 필기전형 5% 가점 부여, 경력단절여성 간호조무사 등 적합 직무(2개) 발굴

수상

- 고용노동부 주관 ‘트루컴퍼니’(장애인고용 신뢰기업) 은상(2020년 9월)
-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 주관 2020년 대한민국 일자리 우수사례 선정

사회형평적 채용					(단위 : 명)
구 분	청년	청년인턴	장애인	비수도권인재	지역인재
채용기준	3%	5.5%	3.4%	35%	24%
채용비율	10.2%	6.1%	3.9%	74.7%	32.3%

여성인력 양성

여성 관리자 확대를 통한 실질적 양성평등 구현 및 여성인재 활용 수준을 제고하기 위해 공단은 여성인력의 체계적 양성 및 채용을 확대하고 있다.

•여성인력의 체계적 양성

- 임원추천위원회 여성위원 비율 확대 등 여성임원 선임 환경 구축
- 여성관리자 : 여성관리자 비율 64% 수준 유지
- 승진 : 승진 양성평등 제도 활용으로 사무직 여성관리자 비율 증가
※ 양성평등 비율 고려해 승진배수 내 여성직원 근무평정 우대
- 보직 : 여성인재 핵심업무 배치, 각종 위원회 개최 시 여성위원 필수 참여
- 교육 : 여성 행정·간호리더 육성, 여성 중간관리자 리더십 교육 운영으로
여성 관리자의 조직 내 핵심인재(임원, 실·부장급) 성장 기반 마련

•전문인재 개방형직위 등 여성채용 적극 확대

- 블라인드 채용으로 성(性)차별 없는 인재 선발
※ 최근 3개년(2018~2020) 평균 사무직 여성채용 비율 51%
- 2020년 신설한 개방형직위(요양원 복지부장 등)에 여성 임용 등 여성
개방형 직위 비율 확대(18%→29%)

•여성친화적 제도 운영으로 안정적 근무환경 제공

- 자녀돌봄휴가 범위 확대(2자녀 이상 시 최대 3일), 육아휴직 부부 동시 사용
허용, 휴직기간 인사상 불이익 방지(승진소요기간 인정) 등

여성고용촉진, 여성승진 우대정책 성과(2020년 기준)	
구분	추진내용
여성고용 촉진	여성고용비율 75%(정규직 신규채용 904명 중 677명)
여성승진 비율	4급 승진 65%(전체직종 4급 승진자 57명 중 37명)
핵심업무 배치	본사 핵심부서(인사·평가 등) 과장급 여성인력 31%(52명 중 16명)
여성관리자 비율	64.6%(312명 중 201명)
여성임원 비율	18.2%(임원 8명 중 여성 비상임이사 2명)

제 2 절

복리후생

복리후생제도

기업이 근로자에게 제공하는 보상은 금전적 보상(pay), 복리후생과 같은 비금전적 보상(benefit) 및 기타 근로조건적 보상(working conditions)으로 이루어진다고 볼 수 있다. 보훈공단은 노동조합 등 근로자 대표와 지속적인 소통을 통한 복리후생제도 개선으로 복지만족도를 높였다. 그 결과 공단은 2018년 고용노동부 주관 노사문화 우수기업으로 선정되었다. 향후 기존의 금전적 보상을 넘어 복리후생 및 근로조건적 보상 강화로 일과 삶의 조화를 기반으로 한 근로자 주도의 인생 설계를 지속적으로 지원할 것이다.

현행제도

영유아 보육 위탁 지원

- 직원의 자녀 중 취학 전에 있는 영유아 아동의 심신을 보호하고,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건전한 교육을 받도록 성장지원
- 지원대상 : 재직 중인 직원 자녀 중 초등학교 취학 전 영유아
- 지원기준 : (유치원)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원받는 경우 지원금을 공제한 금액의 80%
(어린이집) 정부보육료 지원단가의 50%

출산장려금

- 사회적 문제인 저출산 극복을 위한 정부정책에 부응하고자 직원 및 직원의 배우자가 자녀를 출산한 경우, 출산장려금 명목으로 소정의 금원을 지급하는 복리후생제도 운영
- 지원기준 : 첫째 30만 원, 둘째 60만 원, 셋째부터 80만 원 지원

임·직원 일반건강검진 및 특수건강검진 등

- 산업안전보건법 제129조에 근거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건강관리를 위해 (특수)건강검진 실시 의무 이행으로 정기적으로 임·직원 건강검진 실시 (암검진, 복부초음파, 독감예방접종, 결핵검진 등)

- 지원기준
 - (일반검진) 사무직 2년 1회, 비사무직 매년 지원
 - (암·콜레스테롤검진) 홀수 해는 홀수연도, 짝수 해는 짝수연도 출생자 지원, 각 병원별 기본 검진단가를 적용해 지원
 - (특수건강검진) 야간근무자 등 대상 지원
 - (복부초음파) 만 35세 이상 2년 1회 지원
 - (독감) 전 직원 대상 매년 지원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

- 직원에게 복지점수를 부여하고, 사전 설계되어 제공하는 복지항목 중에서 개별적으로 부여된 복지점수를 사용해 본인의 선호에 따라 자신에게 적합한 복지항목을 선택하는 제도
- 지원기준 : 1년 이상 재직 직원 대상 지원(650~850점), 1점당 1천 원

임·직원 학자금대부

- 임직원 본인 및 대학생자녀 학자금 대부 실시
- 지원기준 : 1년 이상 근속한 직원 및 자녀 대상
 - 대부이율 : 무이자
 - 대부금액 : 실등록금 납부액(입학금)

사내근로복지기금운영

- 임·직원 복리 증진을 위한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으로 생활안정자금, 주택 임차 및 주택구입 자금 대부, 경조사 화환 및 위로금 지원
- 운영사업
 - 목적사업 : 기금수익금 중 당해 연도 출연금의 50%를 사용해 생활원조 등 직원복지를 위한 경비 지급
 - 대부사업 : 생활안정자금, 주택임차자금 등 대부

각종 기념품 지급

- 명절(설, 추석), 근로자의 날, 가족친화(5월 가정의 달), 생일 등 기념일 관련 기념품 지급

- 지원기준 : 명절 각 6만 원, 근로자의 날 1만 원, 가족친화 10만 원, 생일 2만 원 상당의 기념품 지급

휴양소 운영

- 임직원 휴식 및 재충전을 위한 휴양소 위탁운영

피복지급

- 직원의 편안하고 안전한 근무 수행을 위해 사업장 특성을 감안 근무복 등 지급
- 지원기준 : 근무복 및 근무화 등 매년 1~2회 지원

국민건강보험

- 전 임직원이 국민건강보험에 가입하고 있으며, 건강보험료 부담은 임금 총액의 6.86%이며, 본인이 3.43%, 보훈공단이 3.43% 부담

국민연금

- 전 임직원이 국민연금에 가입하고 있으며, 연금보험료 부담은 임금 총액의 9%이며, 본인이 4.5%, 보훈공단이 4.5% 부담하고 있음

고용보험

- 고용보험 중 실업급여 보험요율은 보수총액의 0.8%를 부담하고 있으며, 나머지는 보훈공단이 부담

산업재해보상보험

- 모든 직원이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하고 있으며, 전액을 보훈공단이 부담

동호회 지원

- 부서 및 직종 간 이해·소통 창구로 화합과 단결 도모 및 취미 생활 영위에 따른 만족도 제고
- 지원기준 : 인원에 따라 10~25만 원 분기별 지원

복리후생 제도 확대로 복지만족도 향상		
구분	제도 도입	개선 내용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 제공	•코로나19 대응매뉴얼 발간 •건강검진 항목 확대 •산업재해 예방 국제 안전보건경영시스템 구축 •대민부서 보호체계 마련	•대응방향, 관리정책, 상황별 프로세스 구축 •콜레스테롤 4종 검사 검진 추가 •사업장 위험성평가 및 자체 안전관리전산시스템 구축 •전화폭력 예방 및 자동응답시스템 구축
일·가정 양립 및 모성보호	•코로나19 관련 자녀돌봄휴가 범위 확대 •모성보호 강화 •유연근무 신제도 도입	•3자녀 이상 3일·2자녀 이상 3일 •유·사산 직원 배우자 대상 휴가(3일) 신설 •임신초기(11주 내) 유·사산 시 휴가일 확대(5일~10일) •모성정원제 정착 및 인력 사전 배치 •가족돌봄 근로시간 단축제 신설
일하기 좋은 직장	•직원 근태관리 공정성 확보 •교대근로자 지원강화 •하계 휴양소 운영기간 조정 •직원 의견 수렴을 통한 개선과제 도출 •감정노동자 소진예방 프로그램 및 심리상담	•전산 출퇴근 관리시스템 시범 도입 •간호사 교대제 근무표 작성 프로그램 도입 •지원범위 확대(명절 근무자·관공서 휴일) •노사 협의를 통한 운영기간 자율조정 •학자금 선대부, 보육지원자 확대, 복지포인트 소명제도 간소화 •산림치유, 힐링캠프 및 소통간담회 등 제공

※ 고용노동부 주관 ‘일·생활 균형 캠페인’ 인증 연장(2020년 11월)

동호회 운영						
구분	본사	보훈병원	요양원	보훈원 등	교육연구원	계
동호회	2	32	6	3	1	44
회원(명)	21	850	82	117	10	1080

동호회 지원 기준				
10인 이상~20인 이하	20인 이상~30인 이하	30인 이상~40인 이하	40인 이상	대외행사
10만 원	15만 원	20만 원	25만 원	50만 원까지

제 3 절

홍보활동

보훈공단
대국민 인지도
제고

보훈공단은 1985년 본사에 홍보 담당을 두어 소식지를 발간했으며 점차 홍보 분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1998년 홍보부를 신설해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또한 2001년 복권사업을 착수하면서 매체 광고(TV, 라디오, 신문 등) 등 홍보활동을 강화했다.

2000년대 중반부터는 업무 범위가 인쇄매체를 통한 홍보, 사보 발간, 기존 일간지 및 방송매체 위주에서 인터넷 매체, 온라인 홍보(블로그, SNS채널 등)로 점차 확대되었다. 이에 따라 보훈공단 전체의 홍보 컨트롤 타워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2019년 조직체계를 조정해 기획이사 소속 홍보실로 격상하고, 2020년 홍보실장을 개방형직위로 전환해 공공기관 정부헤드헌팅을 통해 전문인력을 확보하는 등 강화된 홍보시스템을 구축했다.

보훈공단 CI

1981년 한국원호복지공단으로 출범한 공단은 1985년 한국보훈복지공단, 2001년 현재의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으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보훈공단의 업무와 사업내용을 효율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CI(Corporate Identity)를 1991년 처음 도입했다. 보훈병원과 보훈공단의 경영이념에서 이미지화하여 유사한 형태의 각기 다른 심벌마크와 로고를 개발했다. 보훈 정신을 타원 형태로 표현하고 보훈공단 마크에는 무궁화와 불꽃을, 보훈병원에는 십자가를 담았다. 또한, 보훈공단과 보훈병원의 이미지 연결을 위해 사각형을 공통요소로 넣어 디자인했다. 이렇게 탄생한 첫 CI는 20여 년 동안 보훈공단을 대표하는 이미지로 사용되었다.

그러나 2000년대에는 의료뿐 아니라 복지의 중요성이 부각되었고 보훈공단 목적사업을 함께 아울러 보훈공단의 미래를 담아낼 CI 개발이 필요했다. 기존 보훈공단 본사와 보훈병원으로 이원화된 심벌마크를 하나로 통합해 일체감과 공감대 형성을 유도하고,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명칭을 간소화해 표현을 용이하게 하고자 2010년 통합 CI 개발을 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새로운 CI는 선진의료복지기관이라는 성격과 국가유공자에 대한 섬김 봉사의 철학을 담고

현대적 이미지로 대국민 인지도와 호감도를 높여야 했다. 보훈공단의 새로운 비전과 경영철학을 담아 새로운 심벌마크가 디자인되었고 ‘보훈공단’이라는 간결한 명칭과 ‘행복한 섬김’의 슬로건을 함께 사용해 희망과 믿음을 주는 존재로서의 보훈공단 CI를 담아내 현재까지 사용하고 있다.

보훈공단 배지(Badge) 변천



- 1 한국원호복지공단 (1981~1985)
- 2 한국보훈복지공단 (1985~1991)
- 3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1991~2010)
- 5 행복한섬김 보훈공단 (20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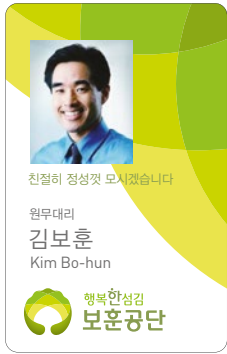
심벌 및 로고 형태		
1981 심벌마크	• 하트모양 2개가 겹쳐진 모습의 심벌마크 사용	
1985 심벌마크	• 1985년 한국보훈복지공단으로 명칭 변경 - 무궁화를 상징하는 그림에 '福'을 새겨 넣음	
1991 CI개발	• 심벌 : 보훈 정신을 타원 형태로 표현 - 공단마크 : 국가공익단체로서 보훈공단 역할을 형상화해 무궁화와 민족·국가를 위해 헌신한 정신을 불꽃에 담음 - 병원마크 : 보훈병원을 상징하는 십자가를 담아 디자인 • 시그니처 	
2010 CI통합	• 직원 간의 일체감 조성과 공감대 형성을 위해 CI통합 - 심벌마크, 로고, 슬로건, 시그니처, 엠블럼, 캐릭터 개발 • 시그니처 	

심벌마크 및 슬로건	
심벌마크	심볼 Symbol은 공단의 본질과 지향하는 가치를 시각적으로 형상화한 것으로서 공단의 아이덴티티를 1차적으로 전달하는 Main Identifier이다. • 기댈 수 있고 희망을 주는 믿음직한 존재로서의 보훈공단을 아름드리 나무의 모티프로 표현 • 나무 형상 뒤로 보이는 Green Rainbow는 아우르고 감싸는 형상으로, 보호하고 섬기는 공단의 역할 상징. • Green Rainbow를 상징하는 멀티 컬러 레이어는 상쾌하고 친근한 이미지 표현.
기관명칭(국·영문)	• 공식 명칭 • 커뮤니케이션 명칭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Korea Veterans Health Service 보훈공단 Veterans Health Service
슬로건(국·영문)	행복한섬김 Very Happy Service 슬로건은 Verbal Identifier의 일부로서, 심볼이 담고 있는 가치에 대한 보완 설명, 또는 추가적 가치의 커뮤니케이션을 위해 사용한다. • 〈행복한 섬김〉, 또는 〈행복 한섬김〉으로 커뮤니케이션될 수 있는 중의적 슬로건 • 병원을 비롯한 모든 공단가족들이 하나의 마음이 되어 섬긴다는 〈한섬김〉의 의지 전달
엠블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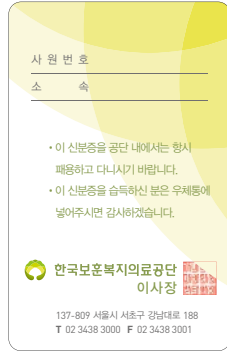
소속기구 명칭			
	국문	영문	국·영문 혼합
본사	행복한섬김 보훈공단	Veterans Health Service	행복한섬김 보훈공단 Veterans Health Service
병원	보훈공단 중앙보훈병원	VHS Medical Center	보훈공단 중앙보훈병원 VHS Medical Center
요양원	보훈공단 수원보훈요양원	VHS Suwon Nursing Home	보훈공단 수원보훈요양원 VHS Suwon Nursing Home
보훈원	보훈공단 보훈원	VHS Senior Care Center	보훈공단 보훈원 VHS Senior Care Center

신분증

앞면



뒷면



적용예시



증명서



표창장 등



적정 배경색상 활용



사보

조직문화는 그 조직에서 발간하는 사보를 통해 알 수 있다. 조직 내부 의사소통의 중요한 창구이자 기업문화와 관련한 이슈들을 꾸준히 창출하는 매개체로 정보 및 지식전달은 물론, 기업을 통합하고 신나는 일터를 만드는 오락적 기능을 하는 것이 바로 사보의 역할이다.

사보는 1986년 1월 제호 ‘보훈공단 소식’(월간)으로 처음 출발했으며 보훈공단 목적사업인 의료·복지사업의 규모와 조직이 확장되어 대내·외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1999년 11월 2일 제18주년 창립기념일을 맞아 ‘한국보훈복지공단소식’(월 2회) 이 발간되었다. 이후 소식지의 제호, 발간주기, 사이즈 등의 변천을 거듭하다가 2009년부터 사내 커뮤니케이션 매체로서의 기능과 대외홍보 기능을 강화하고자 기존 타블로이드판(신문형)에서 잡지형인 ‘가슴에 피어나는 꽃’으로 전환했다. 연간 테마를 선정해 매호(격월 간 6,000 부 발행) 일관성 있는 콘텐츠 및 디자인으로 사보의 수준이 향상되었다. 또한 2021년부터 웹진을 구축해 누적방문자 2만여 명으로 내·외부 독자 접근성이 확대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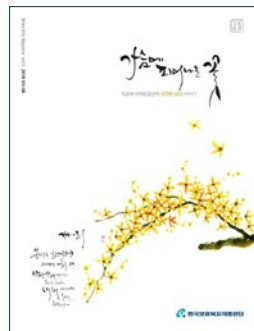
2009년 창간호·2010년 표지



창간호



통권 2호



통권 3호



통권 4호

2021년 표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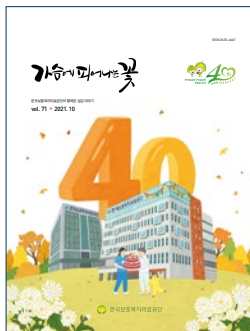
통권 68호



통권 69호



통권 70호



통권 71호

온라인 홍보

온라인 홍보는 온라인상에서 다양한 채널을 활용해 국민과 쌍방향 소통을 하며 정책을 알리는 일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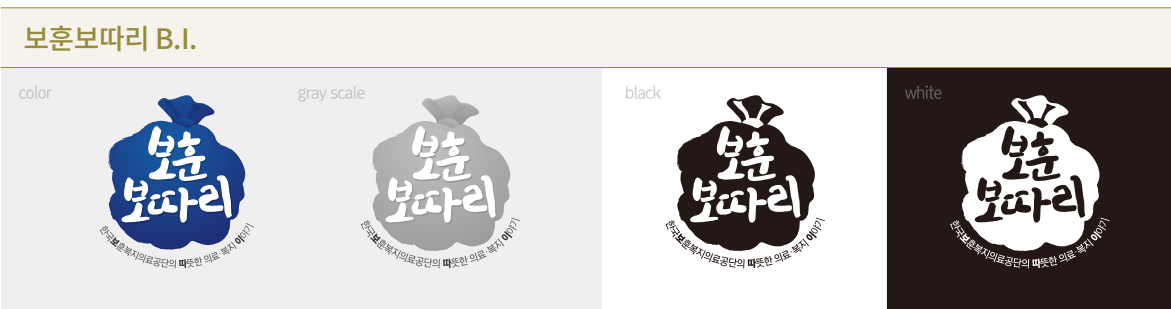
2015년부터 온라인 홍보업무를 포함한 종합홍보 용역업체를 선정해 보훈공단의 목적사업인 보훈의료·복지사업에 대해 쉽게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도록 국민 눈높이에 맞는 온라인 콘텐츠를 제작하고 있다. 또한 국민참여형 캠페인과 이벤트를 통해 관심과 참여를 유도하고 있다.

특히 창립 40주년을 맞은 2021년에는 포털 사이트 다음(Daum)과 함께하는 공익 캠페인을 진행해 21만 4,164명이 방문하고, 3만 846명이 퀴즈 등 관련 이벤트에 참여했다.

소셜미디어 채널 운영

보훈공단은 2012년 10월부터 페이스북과 유튜브를 시작으로 2014년 네이버 블로그, 트위터 등을 개설했다. 2015년 7월 ‘국가유공자와 보훈가족을 섬긴다’라는 콘셉트로 소셜미디어 채널 통합 브랜드 ‘섬남섬녀’를 만들었다. 2016년 6월 ‘섬남섬녀’ 명칭이 타 부처와 중복되고 보훈과 연계한 의미 전달이 미흡하다는 의견에 따라 소통채널 새 이름 찾기 공모전을 통해 보훈가족의 헌신 愛, 희망을 가져다 드리는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의 (따)뜻한 의료·복지(이)야기라는 의미를 담은 ‘보훈 보따리’ 소셜미디어 채널 브랜드명으로 변경해 현재까지 사용하고 있다.

또한 2017년 6월 모바일에 최적화된 플랫폼인 네이버 포스트 채널을 개설했으며, 2019년에는 이용률이 저조한 트위터 계정을 폐지하고 20~30대 이용률이 높은 인스타그램을 개설해 현재 운영 중이다.



블로그



- 1 2015년 블로그
- 2 2017년 블로그
- 3 2021년 블로그

유튜브



유튜브 보훈공단 채널

홍보실은 2014년 9월 26일 포털사이트 네이버에 보훈공단 공식 블로그를 개설 (blog.naver.com/bohun1102)하여 운영하고 있다.

대표 블로그인 ‘보훈 보따리’는 주요사업 및 정책소식, 건강정보 등 7년간의 보훈의료복지 관련 기록과 자료들이 총망라되어 있는 온라인 정보 저장소로 국민과의 쌍방향 소통 중심 채널로 운영 중이다.

예방·치료·요양·재가·임종까지 아우르는 보훈의료복지통합서비스를 제공하는 보훈공단의 주요사업에 대한 정확한 정보 전달은 물론 실제 보훈 현장에서 섬김을 실천하고 있는 임직원들의 스토리, 국민 누구나 알아두면 쓸모 많은 건강 정보까지 다양한 콘텐츠로 이용자와의 소통 접점을 넓히고자 힘쓰고 있다. 블로그 메인페이지는 이용자들이 정보를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보다 직관적이고 편의성 높은 홈페이지 형태로 2021년 새롭게 개편했다. PC와 스마트폰 어느 쪽으로 접속하더라도 쉽고 편리하게 정보 취득이 가능하도록 가독성 높은 레이아웃으로 변경했다. 또한 심층 정보를 얻고 싶은 이용자들이 전국 보훈병원 및 보훈요양원 홈페이지에 쉽게 접속할 수 있도록 위젯을 연동 배치함으로써 잠재 고객(블로그 이용자)의 편의성을 높였다.

보훈공단 블로그 이용자들은 주로 모바일을 통한 포털검색으로 블로그로 유입, 2020년에는 총 56만 2,764건, 2021년에는 총 35만 5,980건의 조회 수를 기록했고, 12월까지 1,552개의 콘텐츠가 게시되어 있다.

보훈공단은 2011년 11월 1일 동영상 공유 플랫폼인 유튜브 채널을 개설 (www.youtube.com/user/bohun119)하여 운영하고 있다. 영상을 통해 정보를 얻고자 하는 이용자 증가에 따라 보훈공단 사업소개, 주요행사 생중계 및 전문의 건강 정보 등을 제작·게시해 전 국민에게 노출하고 콘텐츠를 저장하는 아카이브 채널로 운영 중이다. 또한 영상에도 서포터즈제를 도입·운영함으로써 다양한 보훈공단 소식을 인지도가 낮은 젊은 층 시선에 맞춘 친근한 콘텐츠로 제작해 확산하고 있으며, 의료·복지 전문 정보를 원하는 이용자의 니즈를 충족시키기 위해 보훈병원의 전문의와 보훈요양원의 사회복지사 등 의료·복지 전문가 및 코미디언 박미선·김경아, 유튜브 1인 크리에이터 등을 섭외해 영상콘텐츠를 제작·확산해 나가고 있다.

‘보훈 보따리’ 공식 유튜브는 약 5,500여 명의 구독자를 보유하고 있으며, 약 250개의 영상을 게재, 총 155만 조회 수를 기록하고 있다.

공공의료복지를 선도하는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조회 수 97만 1,953회), 치매 예방을 위한 3분 건강체조(조회 수 34만 6,485회), 국가유공자를 위한 특별한 혜택·서포터즈 취재영상(조회 수 2만 7,967회) 등 인기 콘텐츠들이 다수 있으며, 2020~2021년은 보훈공단 창립 40주년 기념식, 부산보훈요양병원 착공식 등 비대면 행사와 청렴챌린지 캠페인, 직장 문화배달 교육 등이 유튜브를 통해 실시간 중계되었다.

SNS



- 1 인스타그램
- 2 페이스북
- 3 카카오톡 채널

보훈공단은 저비용, 고효율 매체인 소셜미디어 채널을 통해 국민과 실시간 소통하며 보훈공단사업 홍보를 확대하기 위해 블로그, 유튜브 외에도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네이버포스트, 카카오톡 채널 등 파급력 있는 뉴미디어 매체를 전략적으로 활용해 공공의료·복지사업을 홍보함은 물론 이용자들이 보훈공단 정보를 쉽게 찾아보고 소통할 수 있도록 운영 중이다.

보훈공단 페이스북, 네이버포스트, 인스타그램, 카카오톡 채널은 블로그와 같은 명칭인 ‘보훈보따리’를 사용해 일관성을 주었다.

페이스북은 2012년 11월 2일 개설(www.facebook.com/bohun112)되어 콘텐츠 확산 채널로 운영 중이다. 주요 키워드 콘텐츠는 보훈, 보훈병원, 보훈요양원, 보훈공단소식, 보훈복지, 보훈의료, 시존 건강 등을 중심으로 하며 국민들이 보훈공단의 의료·복지서비스와 시존 건강 정보 등을 쉽게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도록 국민 눈높이에 맞는 콘텐츠를 제작해 제공하고 있다. 또한 광고 및 이벤트를 진행해 홍보+마케팅 채널로 활용되고 있다. ‘좋아요’ 팬수 1만 8,567명을 보유하고 있으며, 2021년 12월 기준 총 2,195개의 이미지·영상 등 홍보 콘텐츠가 게시되었다.

인스타그램은 2019년 6월 30일 개설(www.instagram.com/kvhs_story/)했으며, 팔로워 6,224명, 콘텐츠는 433개가 게시되었다. 젊은 층을 대상으로 공감형 동영상과 사진 콘텐츠, 참여형 이벤트, 광고 등 보훈 섬김을 알리는 확산 채널로 운영하고 있다.

네이버포스트는 2017년 6월 개설(post.naver.com/bohun1102)하고, 블로그 콘텐츠와 연계해 모바일에 최적화된 보훈공단 사업 안내 및 전문의 건강정보 등을 제공하고 있다. 팔로워는 3,463명이고 포스트 806건이 게시되었다.

카카오톡 채널은 2020년 8월 25일 개설(pf.kakao.com/_sxbxbEK), 현재 친구 3,509명을 보유하고 있다. 구독자에게 소셜 콘텐츠 및 뉴스레터 등을 전달하는

방식으로 활용하고 있다.

향후 소셜미디어는 국민과 쌍방향 소통하며 보훈공단 사업을 전략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채널로 더욱 활성화해 운영할 계획이다.

온라인
서포터즈단 운영

보훈공단은 보훈이라는 딱딱한 이미지를 벗어나는 방법으로 대학생들의 관점에서 보훈의료·복지서비스와 보훈의 가치 등을 소개하는 콘텐츠를 발굴·확산해 젊은 층과 소통하는 대학생 서포터즈단을 모집해 운영 중이다.

이들은 각 지역 보훈병원과 보훈요양원 행사나 시설 등을 취재해 기사형 온라인 콘텐츠를 제작하고 보훈공단 공식 블로그 및 SNS 채널에 게시하고 있다. 매년 약 20여 명을 선발해 발대식과 해단식, 교육 및 워크숍, 팀별 미션 등 활발한 온·오프라인 활동 등을 진행하고 있다.

보훈공단 SNS채널 활성화를 위해 2016년 ‘제1기 대학생 SNS 서포터즈, 보훈 보따리꾼’을 구성했다. ‘보훈 보따리꾼’은 소셜미디어 채널 브랜드명과 연계해 보훈가족의 헌신 愛, 희망을 가져다 드리는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의 (따)뜻한 의료·복지 (이)야기 준말인 ‘보따리’와 재주꾼의 ‘꾼’을 합성한 명칭이다. 온라인 홍보 영역이 다양하고 폭넓어지면서 ‘온라인 서포터즈단, 보훈 보따리꾼’으로 발전시켰다.

2016년 ‘제 1기 대학생 SNS 서포터즈단’ 출범 이후 2019년까지 총 4기의 대학생 서포터즈단이 출범했으나 2020년부터 코로나19 확산, 병원·요양원 현장 취재 어려움 등으로 활동이 중단된 상태이다.

온라인 서포터즈단으로 위촉된 사람은 총 94명이며, 2016년 20명 중 17명, 2017년 28명 중 25명, 2018년 30명 중 27명, 2019년 16명 중 15명이 수료했다. 2018년까지 오프라인 캠페인 및 현장취재 83건을 통해 블로그 기사 및 UCC 영상 콘텐츠 391건 제작, 소통지수(공감, 댓글, 공유 등) 27만 6,175회, 콘텐츠 바이럴 확산 1,621회, 포털사이트 검색 시 서포터즈 콘텐츠 1면 노출 등 뛰어난 성과를 거두었다.

2019년 유튜브 채널 이용 증가에 발맞춰 영상 콘텐츠 제작 서포터즈제를 도입·운영함으로써 보다 친근하고 젊은 기관 이미지를 보여줄 수 있는 흥미 유발형 영상 콘텐츠를 제작했다. 이때 활동한 ‘보훈 보따리꾼 4기’는 총 16개 영상을 만들어 유튜브 조회 수 1만 2,436회를 기록했다.



제 4 절

법무관리

보훈공단은 의료사업 및 수익사업에 대한 관재 및 송무업무를 본사 재무 관재팀에서 담당했으나, 2020년 전담조직인 법무실을 신설하고 전문인력을 배치하는 법무시스템을 구축했다.

의료사고는 의사 및 의료사고 배상책임 보험가입으로 보험 주관사에서 처리 하고 있으며, 일반소송업무는 법무실에서 주관하고 있다. 또한 분쟁의 사전 예방과 업무 적합성을 도모하기 위한 법률자문서비스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법률자문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전담조직

2020년 1월 법무실을 신설하고 법무실장을 임명했다(변호사 1명, 직원 2명). 향후 의료·복지사업 확충에 따른 분쟁요인이 커질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법무수요가 많은 중앙보훈병원에 변호사 인력을 포함한 법무조직을 신설하고, 순차적으로 권역별 법무전담 직원을 배치해 신속하고 상황에 맞는 법무 대응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소송관리

1980년대에는 귀속재산과 기부재산으로 출범한 보훈공단 자산과 골재수익 사업관련에 대한 소유권 반환을 주장하는 국가소송이 10여 건 제기되었으며, 인천 소재 공장용지와 주택을 판결에 따라 반환하기도 했다. 2000년대에는 합성수지사업단 정리에 따른 매매대금 청구소송, 복권사업단 관련 판매대금 청구소송, 무역사업 관련 손해배상 청구소송 등 주로 수익사업과 관련한 소송이 주를 이루었다. 2010년대 주요 소송에는 의사직 퇴직금 청구소송, 중앙병원 장례식장 관련 부가가치세 경정거부처분취소소송, 건강보험공단 진료비 반환청구소송 등이 있다.

2021년 8월 현재 26건의 소송이 진행 중이며 이 중 의료사고 관련 소송은 8건, 일반소송은 18건이다. 직원 징계 등 인사처분 관련 소송, 임금청구 소송, 거래처와의 채권채무 관련소송, 병원 의료사고 분쟁 관련 소송이 주기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전반적인 권리의식 향상과 법률지식의 보편화로 증가추세에 있다.

소송현황		
구분	주요 소송	비고
2016	건강보험공단 부당이득반환소송, 부산병원 도시가스요금 부당이득반환소송,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소송 등 19건	
2017	광주병원 전공의 임금청구 소송, 중앙병원 전공의 임금청구 소송 등 9건	
2018	부산병원 지방세 부과처분 취소소송, 중앙병원 토지 소유권 이전등기 소송, 과밀부담금부과처분 무효확인 소송 등 6건	
2019	물품계약 보증금채무 부존재확인소송, 중앙병원 환자 보호자 민원 관련 소송 등 13건	
2020	보훈요양병원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소송, 안산사업소 임차업체 상대 명도 및 손해배상소송 등 14건	
2021	보훈요양원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 취소소송 등 11건	진행

법률자문

분쟁의 사전예방과 업무 적합성을 도모하기 위한 법률자문서비스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법률자문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2006년까지는 소송 관련 쟁점사항 위주로 법률자문이 이루어졌으나, 2007년 이후 법률수요 확대와 업무적법성 향상을 위해 업무자문 위주로 변화되었다. 2009년 이후 법무부 산하 정부법무공단을 자문기관으로 선정하면서 공신력과 전문성 제고에 기여했으며, 최근 의료법, 국가계약법, 노동법 등 전문분야 자문사 추가 지정으로 사안의 다양성 증가 추세에 대응하고 있다. 향후 의료·복지사업의 확충에 따른 분쟁요인이 더욱 커질 가능성이 높음에 따라 전문인력의 자체자문을 강화해 현장밀착형 자문제도를 운영해야 한다.

자문현황			
구분	자문변호사(법인)	법률자문 내역	비고
2016	정부법무공단, 법무법인 백석	업무분장 조정 관련, 그룹웨어 고도화 전산장비 구축 사업 관련 등 80건	
2017	정부법무공단, 법무법인 백석	중앙병원 형사고발 관련, 비상대비 업무담당자 임용 관련 등 64건	
2018	정부법무공단, 법무법인 백석	보건소 처분사전통지서 관련, 낙상예방지침 동의서 관련 등 68건	
2019	정부법무공단, 법무법인 태인, 법무법인 호민	영유아 보육위탁 이행 관련, 보훈병원 장례식장 운영 관련 등 79건	
2020	정부법무공단, 법무법인 태인, 법무법인 호민	대구병원 환자 퇴원거부 관련, 진료동의서 표기 관련 등 110건	
2021	정부법무공단, 법무법인 태인, 법무법인 호민, 법무법인 원주	지방보훈병원 장례식장 관련, 보훈병원 재심청구 관련 등 62건	진행

제 5 절

노사협력

보훈공단의 노동조합은 복수노조체제이다. 의료 및 복지시설 등에 다양한 직종이 산재되어있어 노·노·사 간의 원활한 관계구축에 어려움이 있으며 대외적으로는 노동환경변화, 범국가적 경제 살리기, 사회적 요구 등에 대응하는 포용적 노·노·사 관계 구축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에 공동목표의 실질적 이행을 위한 노사 간 협의체 구축 일환으로 이사장·노조별 대표자로 구성된 노사미래발전위원회를 발족했다. 동 위원회에서는 참여·협력에 기반한 합리·적법한 노사 간 협의체계 운영을 통한 현안사항 해결을 위해 노사 공동 T/F 운영, 복수노조 참여에 기반한 근로조건 개선위원회 및 노사 공동 근로 감독관

운영 등 주요과제를 선정해 협의 해결하는 성과를 이루었다. 또한 범국가적 경제 살리기를 위한 임원임금 반납, 임금인상분을 활용한 온누리 상품권 구매로 경제위기 극복 동참, 코로나19 감염병 전담병원 운영, 근로자 이사회 참관제 도입, 노동이사제 도입 등에 대해 노사 합의를 완료했다.

노사문화 우수기업 현판식



노동조합				
구분	병원노조	복지노조	대전노조	의사노조
상급단체	민주노총	한국노총	한국노총	-
명칭	전국보건의료산업 노동조합보훈병원지부	한국보훈복지의료 공단노동조합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 연맹보훈병원노동조합	중앙보훈병원의사 협의회노동조합
설립일	1987.8.18	1988.6.1	2018.7.17	2020.8.7
대표자	보건직	기능직	보건직	전문의
가입대상	보훈병원	보훈요양원 등	보훈병원	중앙병원 전문의
조합원수 (가입률)	3,402명 (61%)	527명 (43%)	116명 (2%)	114명 (61%)
교섭체계	교섭창구단일화(대표교섭노조 : 병원노조)			별도교섭

제6 절

안전관리



- 1 남양주보훈요양원
국내요양원 최초
공간안전인증 획득
- 2 안전경영선포식
- 3 안전관련 업무협약

보훈공단은 국민, 임·직원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 경영가치로 두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안전중심 경영체계를 확립하고 있다. 매년 ‘공공기관 안전관리 지침’ 및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에 맞추어 안전경영, 현장안전관리 강화를 담은 ‘안전경영책임계획’을 이사회 승인을 통해 수립하고 있다.

공단은 총무안전부를 컨트롤 타워로 하여 보훈병원, 요양원 등 소속기구와 유기적으로 안전활동을 추진하고 있으며, 사업장별 안전경영체계 인증과 함께 지속적으로 안전인력을 확충하고 있다. 2018년 신설된 국제안전보건 경영시스템(ISO45001)을 본사부터 시작해 중앙, 대구, 대전, 광주, 부산 순으로 종합병원급 보훈병원의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을 완료하였으며, 인천보훈병원은 2022년 인증을 추진하고 있다.

보훈요양원은 대부분의 활동이 요양원 안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공간안전 인증을 추진하고 있으며, 2020년 남양주보훈요양원을 시작으로 전국요양원 인증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최근 급증, 복잡해지는 재난상황에서 공단이 주요사업을 중단없이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기능연속성계획(Business Contingency Plan)을 2020년에 수립하였으며 관련 계획은 행정안전부 평가 후 재해경감우수 기업으로 인증을 받았다. 공단은 지속적으로 다중이용시설인 보훈병원·요양원 등 소속기구의 안전관리 체계 및 현장을 점검해 안전을 강화할 예정이며, 보훈대상자를 위한 복지·의료 전문기관으로서 국민과 서비스의 직접 대상자인 보훈대상자, 공단에 노무를 제공하는 직원 그리고 협력사 근로자 모두가 안전할 수 있는 공단을 만들고 있다.

안전인증현황

구분	본사	중앙·부산·광주·대구·대전보훈병원	남양주보훈요양원
인증명	국제안전보건경영시스템 재해경감우수기업	국제안전보건경영시스템	공간안전인증

제 8 장 사회공헌활동

- 1 일자리 창출
- 2 상생협력
- 3 윤리경영
- 4 사회공헌활동

공공의 이익과 공동체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국민체감 사회적가치 창출을 위해 보훈공단은 ‘보훈의료·복지서비스 선도기관으로서 보유자원과 역량을 결집시켜 혁신성장 및 일자리 창출 등에 앞장서야 한다’는 기치 아래 2018년 미래전략실을 경영혁신실로 개편하고 전담부서인 사회가치혁신부를 신설했다. 이후 사회적 가치 구현 일환으로 분야별 과제(일자리 창출·상생협력·윤리경영)를 선정하여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또한 보훈공단은 지역사회와 함께 할 수 있는 자원을 공유하고 있으며 더 나아가 지역사회와 함께 더 큰 가치를 창출하기 위해 ‘행복한 섬김으로 아름다운 세상’이라는 슬로건을 앞세워 사회공헌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치고 있다.



- 1 수해지역 복구작업 사회공헌활동
- 2 일사일촌 일손돕기 사회공헌활동

근로형태 개선을
통한 일자리 창출

일자리 창출

다양한 근로형태 제도 운영

구분	주요내용	실적
시간선택제	• 신규 직무 발굴 및 야간 전담 간호사 활용	
단축근무제	• 모성보호를 위해 임신기 근로 시간단축 • 임금피크제 직원 근로시간 단축	49명
교대제 근로개선	• 교대제 근로자 탄력적 근로시간제도 도입 노사합의	

탄력적 모성정원제 운영

추진배경	추진내용	실적
• 여성 직원 70% 이상, 모성보호 필요 • 육아휴직 대체인력 채용 시까지 동료 업무부담 가중 • 비정규직 채용으로 고용불안 발생	• 모성정원제 노사합의 • 간호직 통합채용 연계, 결원발생 시 적시 정규직 채용으로 업무공백 방지 • 인사제도개선으로 고용안정성 강화	231명

※ 대통령 직속 일자리 위원회 주관 2020년 대한민국 일자리 우수사례 선정

정규직 전환 조기달성

	전환 결정(2017)	전환 완료(2019)	고용의 질 개선
전환	• 정규직전환심의 위원회, 노·사 협의회 운영 • 대상자 전원 직접고용으로 전환결정	• 목표 1,005명(기간제 232, 파견·용역 773) 전환 완료 • 동일 노동·동일 임금 적용 및 전환자 처우 개선	• 노·사 의사소통 창구 마련 → 전환직원 만족도 조사 정례 실시 • 우수 멘토기관 선정
확산	정규직 전환 노하우 전파	일자리 창출 협의회	사회가치 뉴스레터
	• 전환 조기 완료 노하우 (전환·채용방식, 급여 체계 등) • 타 기관 컨설팅 – 서울대병원(2019년), 대한적십자사(2020년)	• 전 소속기구 분야별 담당자로 구성, 추진사항 점검 및 우수사례 공유·확산 (4회)	• 사회가치혁신 게시판 운영 및 일자리업무 관련 공유 사항 월 2 회 게시

※ 공공병원 최초 정규직 전환 목표 100% 달성, 적십자사 등 전환 노하우 컨설팅으로 우수사례 확산

전환직원 업무정착지원

구분	정규직 전환 직원 만족도 조사	인권취약계층 인권영향평가 실시	노사공동 협의체 (근로조건개선 위원회) 운영	공감-소통 한마당 (익명게시판) 운영
개선	• 명절 상여금 지급 • 업무지원직 212명 채용, 결원 시 즉시 충원	• 전용 휴게공간 및 샤워실 확충 • 경비직 안전조끼 경량형 모델로 교체	• 근무복 지급기준 마련 및 근무화 확대 지원 • 위험성평가-유해요인 제거, 보호장구 지급	• 국립공원공단 협업, 생태탐방원 힐링캠프 • 격리병동 근무직원 특별 포상금 지급

※ 정규직 전환 만족도 향상: 2019년 82.3점 → 2020년 84.8점

핵심업무 기반
민간일자리 창출

국가유공자 의료·복지서비스 확대

구분	추진내용
의료장비 유지보수, 노후시설 개선	•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위해 노후화 의료장비 유지보수 • 10~20년 이상 지난 노후시설 단계적 현대화 추진
국가유공자 편의 향상을 위한 민간병원 진료위탁 확대	• 44개 위탁병원 확대 - 2019년 320개·2020년 364개 / 투자비 2,660억 원
핵심서비스(간병, 치과 보형물, 방사선 판독) 수행	• 간병부담 감소 : 간병업체 다양화, 간병인 선택권 ↑ • 치아형태 맞춤제작, X-Ray 판독 용역 등

※ 민간 일자리 창출 : 1만 1,496명

보훈 의료·복지시설 확충

의료·복지시설 건립	시설 증·개축	시설 운영 고용 창출
• 원주·전주요양원 건립 • 부산·광주 요양병원, 재활센터 등	• 인천보훈병원 응급실 증축 • 대전보훈병원 장례식장, 부산보훈병원 주차장 조성	• 부산·광주 요양병원, 재활센터 운영 • 원주·전주요양원 운영

※ 민간 일자리 창출 : 1,517명

간접 민간
일자리 창출

사내벤처동아리 활성화

	사내벤처동아리(19개) 자원배분	특허취득(4건) 사업수행	민간기업 기술이전 환류
내용	•사내벤처 전담조직 운영 •관련규정 정비, 운영비 지원	•자율동아리 형식 운영 •의료진 등 다양한 직종 참여	•분기 실적 점검, 과제 코칭 •부진동아리 활성화 등
실적	•사업화 가능한 지식재산권은 기술이전으로 소상공인 지원 : 3개 업체		

전문업체에 조달 및 위탁사업

구분	사업명	추진내용
전문 업체	코로나19 방역, 시설유지보수 등	•코로나19 관련 체온측정, DUR조회, 방역 등 전담인력 필요 •엘리베이터 유지보수, 무인경비시스템 등 전문업체 협력
부대 사업	장례식장 운영 위탁 등	•마지막 가시는 길까지 섬김·예우 위해 품격 높은 장례서비스 제공 •일반식당, 매점, 주차장 등
정보화 사업	전산장비 유지보수	•정보시스템 통합추진, 인사운영 통합정보시스템 구축 등

※ 민간 일자리 창출 : 1,202명

온라인컨설팅 신설 및 대면 등 양방향 창업지원

	카카오톡 채널 신설	홈페이지·유튜브 개설	맞춤형 1:1 영상컨설팅
내용	1:1 채팅을 통한 실시간 컨설팅 상시 제공	홈페이지 창업정보 및 유튜브 컨설팅 영상 제공	온-나라 PC영상회의 활용 컨설팅 실시
	6개 보훈요양원 내 주간보호 창업지원센터 설치, 설명회, 컨설팅, 멘토-멘티제도 등 운영		
실적	보훈공단 보유 핵심역량, 주간보호센터 창업 컨설팅 147건 제공 (2020년 온라인 62건, 대면 85건)		

지역 일자리 유지

경영진 출신	이사장 등 본사 임원, 병원장 등 10명 급여 반납, 51백만 원 기부로 전사 확산 유도		
	착한 선결제 (507백만 원)	임대료 인하 (642백만 원)	협력업체 상생 (29,531백만 원)
피해 극복	•식당, 슈퍼마켓, 소모품 생산업체 등 지역 소상공인에게 고른 혜택이 가도록 업체 선정 •매주 현황 점검 및 신규 업체 발굴 노력 •전국 10개 지역, 114 개 업 체, 507백만 원 선결제	•안산사업소 14개 입주업체 임대료 인하 - 인하율 30~50%, 총 463백만 원 - 14개 업체, 141명 근무 •보훈병원 장례식장 위탁수수료 인하 - 인하율 30~50%, 총 158백만 원 - 3개 장례식장, 40명 근무 •보훈휴양원 식당·매점 등 임대료 인하 - 인하율 40~100%, 총 21백만 원 - 3개 업체, 5명 근무	•납품대금 선지급 - 신속한 선금집행절차 마련, 공사선금 지급률(70%~80%) 확대(25,000백만 원) •보증금 경감 - 우수신용기업 불필요 규제인 입찰보증금 50% 경감 조치 4,531 백만 원 절감

※ (선결제) 114개 업체, 직원 114명, (임대료) 20개 업체, 직원 186명, (상생노력) 29,531백만 원

첨단기술보유 협력기업과 신제품 개발

구분	주요내용
공공기관 연계 지역 의료기기 산업 육성	•원주시 소재 민간 의료기기 업체 대상 기업지원 - 공공조달 맞춤형 컨설팅, 사업화 지원
관·산·학 협동연구	•정부 주관 의료기기 연구개발 사업 참여, 외부과제 수주(2건) - 파킨슨 환자 보행증진 스마트 시스템 개발(3년, 연간 3억) - 하지절단 환자 스마트 의지 국산화 개발(6년, 연간 12억) •협력기관 : 한서대학교, 국립재활원, 한국기계연구원
스마트 LED 고독사 방지 솔루션 도입	•LED 등을 통한 움직임 감지: 화재, 가스 누출 시 쿨(119, 보호자) •협력기관 : (주)고그린테크, (주)레이저라इट
3D 프린팅 의수 개발	•의수족 개발 스타트업 2개 업체와 보급형(저가형) 스마트 의수족 공동연구 및 산업화 추진 : 3D 프린터 전동의수 미관용 커버 및 의수 개발 •협력기관 : (주)만드로, (주)레그온

※ 일자리 창출 : 25명, 24백만 원 매출

벤처기업과 성과공유

구분	컨설팅(2019)	공동개발(2020)	기술보호(2022)
내용	- 성과공유 중소기업 제안과제 모집 - 보훈병원 자원개방, 공개모집 - 의료인참여 현장 설명회·컨설팅 - 중소기업&의료현장 VOC 수렴	‘AI를 활용한 간호사 스케줄링 서비스 개발’ - 성과공유제 추진 -(공단) T/B 제공, 기술제안 -(카이엠) 프로그램 개발	- 개발제품 성과공유 인정 및 기술임치 등록 - 신제품 판로연계 협력 - 종합병원 300여 개소
실적	- 민간기업 : 아이디어, 기술의 제품화 → 보훈공단 우선구매, 판로연계(16백만 원 매출) - 의료현장 : 신제품 현장적용 → 3교대 간호인력 스케줄표 관리 전산화 등 업무화		

청년취업을 위한 협업

구분	추진내용	실적
강원혁신포럼 참여 (더 슬기로운 생활 협업)	- 청년 취업 등 지역정보 제공 플랫폼 구축 (원주청년생활연구회) - 플랫폼 이용자 대상 뉴스레터 발송 및 네트워킹데이 운영(비대면)	715명 (플랫폼 이용자) 73명 (뉴스레터 구독자)
산학협력 현장실습 (약학·간호·보건대 학생 등)	코로나19 영향, 실습 어려움 中, 전문학과 (간호, 물리치료, 사회복지 등) 프로그램 제공	953명 (현장실습)
온라인 취업 컨설팅 (연세대, 상지대 등 5개 대학)	- 멘토-멘티 매칭으로 취업 준비사항 지원 - 오프라인→온·오프라인 병행 등 확대 실시	80명 (취업 컨설팅)
지역 고교 바이오 산업 (취업 특강)	원주의료고 학생 대상으로 보훈의학연구소 현직 연구원이 연구 전문성 활용 취업 및 진로 상담	90명 (취업연계)



1 온라인 취업컨설팅



2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업무협약

취약계층 민간일자리 지원

구분	추진내용
장애인 적합 직무 발굴 (장애인고용공단 협업)	- 휠체어 마스터, 자판기 관리 등 적합 직무 도출 - 장애인고용공단 : 직무분석 및 적합자 매칭
요양보호사 민간 취업 지원(광주시 협업)	- 광주요양원 : 면접탈락자, 퇴직자 취업 연계, 간담회 등 - 여성새로일하기센터 : 탈락자 상담·취업프로그램 제공 및 취업연계
지역희망 일자리 사업 (부산·인천시 협업)	- 부산·인천병원 : 방역인력 근무여건 마련, 근무조 편성 등 - 부산시청·미추홀구청 : 희망일자리 및 임금 지급
노인요양 사업 공동 참여(태백시, 강원랜드 협업)	- 태백시에 지자체-공공기관 협업형 사업모델 제안 - 의료복지시설 운영 노하우 전파 & 입지선정 연구용역 - 태백시, 강원랜드 : 80병상 규모 노인요양시설 건립 추진

※ 직접일자리 : 강원랜드 협업 노인요양시설 건립 참여 등 146명 창출

※ 간접일자리 : 멘토·멘티 매칭 취업컨설팅, 산학협력 현장실습 등 1,911명 창출

상생협력

동반성장이란 공공기관과 중소기업 간의 상생협력관계를 공고히 하여 경쟁력을 높이고 양극화를 예방하여 국민경제의 지속적인 성장기반을 마련하는 것을 의미한다. 보훈공단은 의료·복지 인프라를 활용해 공정거래 문화조성, 성과 공유 및 기술혁신 지원 등 상생협력을 다각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성과공유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8조에 근거, 보훈공단은 2018년 동반성장평가 비평가기관 최초로 성과공유제를 선도적으로 도입해 중소기업 판로 연계 등 다양한 성과공유를 추진하고 있다.

※ 공공기관 동반성장평가(중소기업 벤처부 주관) : 2021년부터 평가기관 포함

성과공유제 세부내역 : 26건, 공유성과 5,626백만 원

수탁기업명	과제명	계약기간	공동노력		공유성과 (백만 원)
			위탁	수탁	
(주)대원크리닝	세탁물 용역 서비스 개선	2018.9.21~ 2019.9.20	과업컨설팅 교육지원등	서비스 품질개선	238
(주)오소피아	요천추 보조기 기술이전	2018.12.19~ 2023.12.31	기술이전 판로지원등	제품개발 사회공헌	진행
(주)인산MTS	의약품 계약 수행 서비스 품질개선	2019.7.1~ 2021.6.30	과업컨설팅 교육지원등	서비스 품질개선	1,460
(주)디엘팜	의약품 계약 수행 서비스 품질개선	2019.7.1~ 2021.6.30	과업컨설팅 교육지원등	서비스 품질개선	732
(주)동진팜	의약품 계약 수행 서비스 품질개선	2019.7.1~ 2021.6.30	과업컨설팅 교육지원등	서비스 품질개선	133
(주)대영메디칼	의약품 계약 수행 서비스 품질개선	2019.7.1~ 2021.6.30	과업컨설팅 교육지원등	서비스 품질개선	313
(주)웰팜코리아	의약품 계약 수행 서비스 품질개선	2019.7.1~ 2021.6.30	과업컨설팅 교육지원등	서비스 품질개선	136
(주)카이엠	AI를 활용한 간호사 스케줄링 서비스 신제품 개발	2019.9.10~ 2021.2.28	기술제안, 현장 (병원) 테스트베드 제공 등	신제품 개발	21

수탁기업명	과제명	계약기간	공동노력		공유성과 (백만 원)
			위탁	수탁	
장흥산업(주)	세탁물 처리 용역 서비스 품질개선	2019.11.1~ 2021.10.31	과업컨설팅 교육지원등	서비스 품질개선	377
(주)대원크리닝	세탁물 처리 용역 서비스 품질개선	2019.11.1~ 2021.10.31	과업컨설팅 교육지원등	서비스 품질개선	232
(주)새보람메디칼	의약품 계약 수행 서비스 품질개선	2020.7.1~ 2022.6.30	과업컨설팅 교육지원등	서비스 품질개선	86
(주)아남약품	의약품 계약 수행 서비스 품질개선	2020.7.1~ 2022.6.30	과업컨설팅 교육지원등	서비스 품질개선	443
(주)힐링스팜	의약품 계약 수행 서비스 품질개선	2020.7.1~ 2022.6.30	과업컨설팅 교육지원등	서비스 품질개선	77
명준약품(주)	의약품 계약 수행 서비스 품질개선	2020.7.1~ 2022.6.30	과업컨설팅 교육지원등	서비스 품질개선	1,378
(주)한국메디칼	세탁물 처리 용역 서비스 품질개선	2020.11.1~ 2022.10.31	과업컨설팅 교육지원등	서비스 품질개선	진행
(주)대원크리닝	세탁물 처리 용역 서비스 품질개선	2020.11.1~ 2022.10.31	과업컨설팅 교육지원등	서비스 품질개선	진행
넬스노트(주)	간호사 스마트 노트 플랫폼 신제품 개발	2020.11.16~ 2022.11.15	교육콘텐츠, 현장테스트 베드제공등	신제품 개발	진행
넬스노트(주)	간호사 스마트 노트 플랫폼 신제품 개발	2020.11.16~ 2022.11.15	교육콘텐츠, 현장테스트 베드제공등	신제품 개발	진행
넬스노트(주)	간호사 스마트 노트 플랫폼 신제품 개발	2020.11.16~ 2022.11.15	교육콘텐츠, 현장테스트 베드제공등	신제품 개발	진행
넬스노트(주)	간호사 스마트 노트 플랫폼 신제품 개발	2020.11.16~ 2022.11.15	교육콘텐츠, 현장테스트 베드제공등	신제품 개발	진행
제일치과 기공소	치과 보철 외주 가공 서비스 품질개선	2021.1.4~ 2022.12.31	과업컨설팅 교육지원등	서비스 품질개선	진행
엠제이팜	의약품 계약 수행 서비스 품질개선	2021.7.1~ 2023.6.30	과업컨설팅 교육지원등	서비스 품질개선	진행
(주)동진팜	의약품 계약 수행 서비스 품질개선	2021.7.1~ 2023.6.30	과업컨설팅 교육지원등	서비스 품질개선	진행
다원파마	의약품 계약 수행 서비스 품질개선	2021.7.1~ 2023.6.30	과업컨설팅 교육지원등	서비스 품질개선	진행
(주)힐링스팜	의약품 계약 수행 서비스 품질개선	2021.7.1~ 2023.6.30	과업컨설팅 교육지원등	서비스 품질개선	진행
(주)대일양행	의약품 계약 수행 서비스 품질개선	2021.7.1~ 2023.6.30	과업컨설팅 교육지원등	서비스 품질개선	진행

성과공유제는 위·수탁기업 간 사전 약속된 공동혁신 활동을 통해 성과를 도출하고 이를 사전 합의한 방법으로 공유하는 제도로, 도입 이후 현재까지 총 26개의 과제 등록, 13건의 과제를 최종 인증 받아 중소기업 판로연계, 계약연장 등 약 56억 원의 공유이익을 창출했다. 특히, 보훈공단의 의료 자원 인프라를 제공해 기업의 제품 개발 및 판로 연계를 지원하는 간호사 스케줄링 서비스 개발 등 신제품 개발형 과제 적극 참여로 보훈공단과 중소기업 간 상생 환경을 구축했다.

상생결제시스템

보훈공단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에 근거, 협력 기업의 대금결제 환경 개선을 통해 불공정 거래 환경을 차단하고 협력기업 동반성장을 실현하는 상생결제시스템을 도입했다.

2018년 도입된 상생결제시스템은 기업 간 결제환경 개선을 위한 정부 정책 중 하나로, 거래기업이 결제일에 현금지급을 보장받고 결제일 이전에도 대기업·공공기관 수준의 낮은 금융비용으로 결제 대금을 현금화할 수 있는 결제 제도이다. 보훈공단은 국민, 우리, 하나, 농협은행과 협약을 체결해 시스템을 갖췄고, 지속적인 홍보, 교육 등으로 실적(약 16억 원)이 점차 증가 추세에 있다.

상생결제시스템 협약				
구분	국민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농협은행
협약명	상생결제론	우리상생파트너론	동반성장론	NH다같이성장론
협약일자	2018.10.01	2019.08.19	2019.08.20	2019.08.20

혁신조달
환경 조성

정부의 혁신조달 환경 조성 추진에 따라 보훈공단은 의료·복지 인프라를 활용한 중소기업 테스트베드(Test Bed)기관으로 선정되어 스마트병동 헬스케어시스템, 임플란트 치과 의료기기 등 중소기업 판로 연계를 제공했다. 또한 기술개발제품 시범구매 확대 및 동반성장몰 도입으로 중소기업 물품 구매 확대를 위한 판로연계에 적극 동참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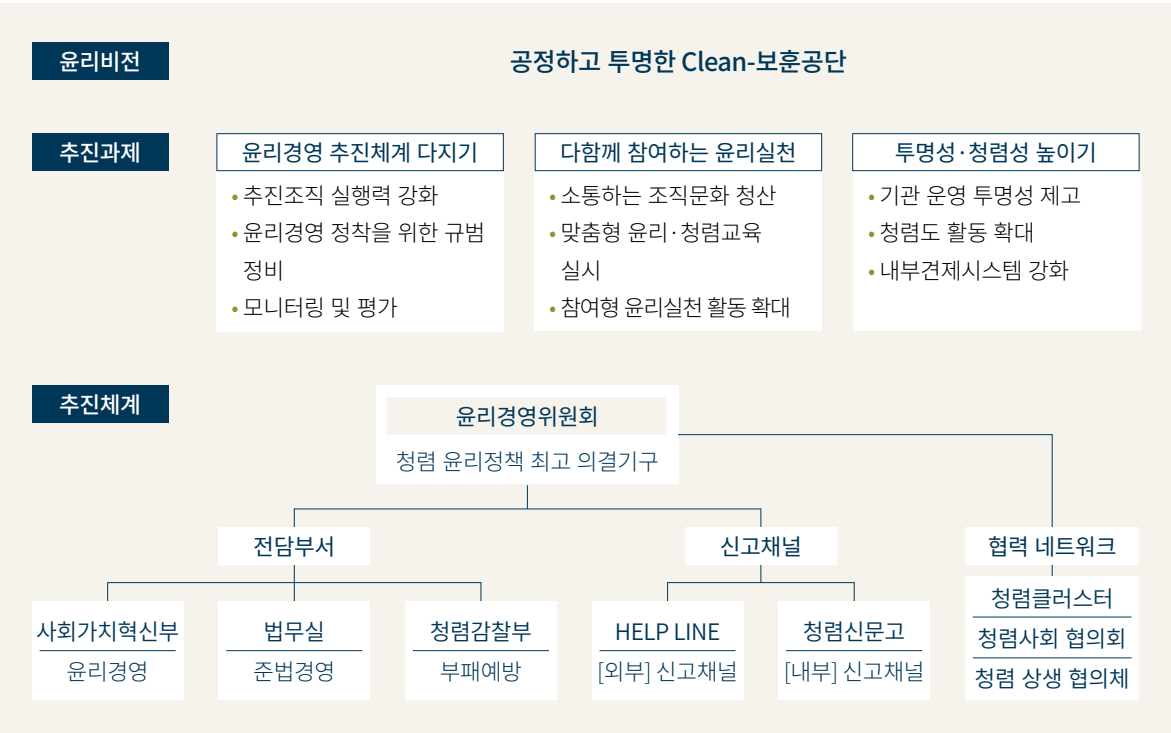
윤리경영

윤리경영 체계

윤리경영에 대한 국민들의 높은 관심과 내부적으로 관행적 부정행위에 대한 척결 인식확산 및 부당지시·갑질 등 경직된 조직문화 개선에 공감대가 형성되었다. 이에 따라 공단은 ‘공정하고 투명한 Clean-보훈공단’ 실현을 위한 윤리경영 체계를 구축했다. 추진과제로 윤리경영 추진체계 다지기, 다함께 참여하는 윤리실천, 투명성·청렴성 높이기를 선정했으며, 추진체계로 청렴·윤리정책 최고 의결기구인 윤리경영위원회를 구성하고 전담부서와 신고채널을 구축했다.

법률 위반에 대한 사전점검 및 효과적 대응의 일환으로 법무실장이 법률전문가 준법지원인 역할을 수행토록 하여 중요사업 추진 전 법률 위반 여부를 사전검토 한다. 불필요한 소송의 사전예방과 법적 분쟁에 대한 명확한 해석이 가능해졌다.

회계 투명성·공공성 강화를 위해 통합재무시스템을 도입해 중복집행, 예금주



투명성 제고

불일치 등 회계오류를 자동검출하고 있다. 매년 전문회계법인을 통한 외부 회계감사를 실시하고 결산이사회에 회계관련 정보를 정기적으로 보고하는 통제 장치가 마련되어 회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있다.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 일환으로 정부차원의 공공기관에CP(공정거래 자율준수) 도입이 요구됐다. 보훈공단은 대내외적으로 공정거래자율준수를 선포하고 선제적으로 CP를 도입했으며, 중소기업 핵심기술 보호를 위한 비밀유지협약(NDA : Non-Disclosure Agreement)을 신설해 공정경제 구현에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했다.

또한 우수인재 확보를 위해 블라인드 채용제도를 도입했고, 직원들의 근무여건, 복리후생,인사제도,감사제도 등에 대한 생생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익명성이 철저하게 보장되는 공감·소통 게시판을 운영하고 있다.

내부건제 시스템 구축

코로나19 발생으로 대외적으로는 공공의료복지기관으로서 역할과 인권·안전 등 사회가치 창출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으며, 대내적으로 사전예방·컨설팅 중심 감사로 패러다임이 전환되었다. 공단은 자율과 통제에 기반한 촘촘한 내부건제 시스템을 구축했다.

추진목표	자율과 통제에 기반한 촘촘한 내부건제 시스템 구축으로 사회적 가치 구현		
추진과제	자율적 위험 관리 강화	예방적 내부통제 강화	사회적 가치 제고
	•리스크 기반 감사 고도화 •컨설팅감사 기능 강화 •윤리적 가치 준수 제고	•윤리경영 점검체계 고도화 •현업·감사 환류체계 강화 •방만경영 국민신뢰 회복	•사회적 가치 실현 감사 •적극행정면책 활성화 •인권 리스크 관리 강화
운영체계	시스템 : e-감사시스템, 통합경영정보시스템, 헬프라인 시스템, EMR·요양정보시스템		
	사전예방 : 일상감사실시간 모니터링, 행동강령 이행, 현업 자율점검		
	사후점검 : 종합감사, 재무감사, 복무감사, 특정감사		

• 위험도별 체계적 관리 체계

위험형태별	핵심위험	위험유발요소
재무 위험	미수금 및 국고보조금 관리 등	병원·요양원의 미수금 관리 소홀, 보조금 계좌관리 미흡 등
비재무 위험	진료관리, 불공정거래 등	적정 약품 사용 미흡, 법령 미비에 따른 상대방 부담 가중 등

※ (고위험) 실지감사 등 집중관리, (중위험) e-감사시스템 상시 모니터링, (저위험) 자율점검 체계운영

• 안전관리 취약분야 점검 : 전문기관 공동 점검

구분	점검내용	개선조치
전기	전기장비·설비측정 도구 점검 및 전기관리 규정 검토	점검주기 및 자체규정 개선
가스	병원별 고압가스 안전관리 규정 적정성 여부 확인	수리·보수일지 작성비치
공사	공사현장 안전점검 및 하자보수 처리 진행상황 점검	안전난간 설치 등 미비점 개선
승강기	승강기 고유번호 표지 및 응급통화 안내문 부착 점검	표지 및 안내문 100% 부착
산업안전	산업재해 예방 활동 및 산업안전 보건위원회 운영 실태 점검	사망 등 중대 재해사고 zero

인권경영

• 인권경영 전략 시스템

비전	인권이 보장되는 행복한 보훈공단				
실행체계	인권관련제도		추진조직		
	• 내부 : 인권경영 운영지침 • 외부 : 인권경영 이행서약서 • 공통 : 인권침해 신고센터 (온라인, 모바일)		• 심의 : 인권경영 위원회 • 전담 : 사회가치 혁신부 • 협의 : 강원지역 공공기관 인권경영 협의체		
인권침해 구제 절차	신고	접수	조사 및 심의	결과 확정	환류
	• 신고센터 • 온라인 모바일	• 인권담당 부서 • 인권경영 책임관	• 책임관 사건 조사 • 위원회 사건 심의	• 가해자 인사조치 • 피해자 보호	• 신고 만족도 조사 실시

• 맞춤형 인권교육

교육대상자	필요분야	주요내용
전 직원	인권 기초지식	인권 감수성 및 인권에 대한 이해 의무교육 지정
간부진	갑질예방, 소통	‘90년생 공무원이 온다’ 교육 실시
전문의	전공의, 환자인권	전공의 인권보호 필요성, 환자 심리상태 교육

※교육인원 : (2019) 7,242명, (2020) 8,152명

• 인권 취약계층 대상 평가 실시

내부이해 관계자	경비· 청소직원	• 적정 휴게공간 확보 등 인권 친화적 근무조건 점검 • 코로나19 대응 관련 애로사항 청취 및 특별수당 지급 요청
	신규 입사자	• 입사 후 근무 생활에 대한 애로사항 청취 및 상담 • 상급자와 원활한 소통을 위한 환경조성 필요성 논의
외부이해 관계자	사설 간병인	• 급여체불 여부, 적절한 복리후생 제공 등 점검 • 병원 생활 중 불편·부당 사항 발생여부 확인
	콜센터	• 고객 : 욕설·폭언 등 고객에 대한 인권침해 사례파악 • 직원 : 내부직원 콜센터 직원에 대한 비인격적 모독 행위

개선 이전	개선 이후
• 간병인 식사·휴식 등 편의공간 부족 • 민원인 욕설·폭언에도 지속적으로 민원 대응 • 경비직 무거운 안전조끼로 인한 고충 • 휴게실 협소 및 냉장고 등 비품 부족	• 병원 식당 및 휴게실 이용 가능토록 조치 • 욕설·폭언 1차 경고 후 계속될 경우 상담 종료 • 경비 안전조끼 경량형 모델로 교체 추진 • 휴게실 협소 및 냉장고 등 비품 부족

• 코로나19 위기계층 및 최일선 노동자 인권 보호

구분	위기상황	인권보호 활동
방문돌봄	• 주간보호 운영 정지로 인해 이용대상자 및 독거노인 돌봄 사각지대 발생	• 긴급 돌봄 필요 대상자 적극 발굴 • 찾아가는 돌봄활동 제공으로 복지 사각지역 해소
문화케어	• 외부인 출입 금지 및 외출 차단으로 인한 단절된 시설 생활로 피로감 호소	• 찾아가는 문화 배달 활용, 비대면 문화활동 전개 • VR 활용 외부 나들이(광릉 수목원) 프로그램 진행
아동지원	• 취약계층 아동 건강지원·구호활동 단절 • 학교운영 중단으로 학교 건강검진 미실시	• 취약계층 아동 대상 의료지원(8명, 1,723천 원) 및 장학금 지급 (61명, 12,200천 원) 등 적극 지원
심리치료	• 코로나19 감염자, 사회적 비난 우울증 발생 • 거동 불편자 장기간 고립으로 심리적 위축	• 심리재활 프로그램 등 능동적 대처 관리 교육 • 사회복지 상담 및 임상심리 검사 등 정서적 지지

사회공헌활동

나라를 위해 헌신한 국가유공자와 그 유가족 등에 대한 진료와 중상이자의 자립정착을 돕고, 복지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설립된 보훈공단의 목적 자체가 사회공헌이라 할 수 있다. 지역사회와 함께 할 수 있는 자원을 공유중인 공단은 더 나아가 지역사회와 함께 더 큰 가치를 창출하기 위해 ‘행복한 섬김으로 아름다운 세상을’이라는 슬로건을 앞세워 사회공헌활동을 펼치고 있으며, 그 중심에는 ‘행복한 섬김이 봉사단’이 있다. 봉사단은 지역사회 참여 및 상생을 통한 사회가치 실현을 활동 목표로 생명나눔, 재능나눔, 희망나눔의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꾸준히 펼치고 있다.

생명나눔

보훈공단 의료 자원을 활용한 의료봉사활동이다. 대표적으로는 해외의료봉사, 해외거주 국가유공자 후손 의료지원, 학교 밖 청소년 건강지킴이, 사랑나눔 헌혈이 있다. 보훈공단은 중국, 베트남 등 해외 지역에 봉사단을 파견해 독립유공자 후손을 포함, 도움이 필요한 지역 동포, 주민의 건강을 돌보고 있다. 또한 의료지원이 필요한 학교 밖 청소년들의 건강을 돌보기 위해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과 협약을 맺고 전국 6개 보훈병원을 통해 학교 밖 청소년의 진료를 돕고 있다. 또한 혈액수급 안정화를 위하여 전 직원이 헌혈에 참여하는 등 노력을 이어나가고 있다.

재능나눔

보훈공단 자원과 임직원 역량을 활용한 봉사활동이다. 취약 계층 주거환경개선 활동, 불용 의료기기·PC 나눔 활동을 통한 자원재활용, 휠체어 행복나눔 활동 등이 있다. 휠체어 행복나눔은 중앙보훈병원 보장구센터에서 국가유공자가 사용하다 내구연한이 지나거나 고장난 휠체어를 무상으로 수리해 휠체어가 필요한 기관과 취약계층에게 지원하고 있는 활동이다.

희망나눔

지역사회와 함께 펼치는 사회공헌활동으로 농촌 마을과 협약을 맺고 펼치는 1사1촌이 있다. 농번기에 일손 돕기 활동, 마을의 특산물을 직원들이 구매하는 직거래 장터를 활발히 펼치고 있다.

공공기관 이전지역 지원

2013년 12월 본사 사옥을 강원도 원주로 이전한 이래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펼치고 있다. 지역 내 장애인복지관 등 사회복지시설에 물품 후원은 물론, 도시락 배달 등 매월 정기적으로 꾸준히 봉사활동을 실시하고 있으며 또 국가사회기여자를 위해 원주경찰서에 PTSD 힐링쉼터를 설치, 기증했다.

또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원주중앙시장, 자유시장과 1사 2전통시장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매월 방문하고 있다. 코로나19로 지역경제가 침체되자 원주혁신도시에서 가장 먼저 임원들이 나서 임금을 반납하고, 임직원의 자발적 참여로 모인 성금을 지역사회에 기부했다.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 등 지역에서 열리는 행사의 성공 개최를 위해 지역 복지관 및 소외계층에 평창동계패럴림픽 입장권을 후원했으며, 미리내도서관에 지역주민을 위한 도서 300여 권을 후원했다. 또한 원주혁신도시 공공기관 합동 헌혈활동을 주도하는 등 이전지역과 상생을 위해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지역상생의 사회공헌

경찰, 소방공무원 등 국가와 사회를 위해 헌신하는 국가사회기여자의 스트레스 경감 및 재충전을 위해 본사와 소속기구가 위치한 지역 경찰서와 소방서에 힐링쉼터를 기증했다. 2016년 서울 고덕, 개포 119안전센터를 시작으로 2019년 12월 인천보훈병원 인근 미추홀경찰서 등 총 27개의 힐링쉼터를 기증했다. 또한 지역의 학교 밖 청소년들의 건강한 삶을 위해 학교 밖 청소년 건강지킴이 활동을 꾸준히 펼치고 있다. 2018년 중앙보훈병원에서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2020년 전국 보훈병원에서 218명을 진료하는 등 점차 확대해 나가고 있다.

사회공헌활동

사회공헌활동 수상내역

- 2014년 도농교류 활성화 대통령 표창
- 2020년 ‘지역사회공헌 인정기관’선정
- 2020년 지역사회 학교 밖 청소년 의료문제해결 보건복지부 장관상
- 2020년 원주시 혈액사업 유공기관 표창
- 2021년 제9회 원주시 사회공헌장

생명나눔(8)	재능나눔(9)	희망나눔(15)
의료봉사	기관자원 및 직원역량 봉사	지역사회 봉사
• 해외의료봉사활동 • 해외 의료지원 (보훈단체 등) • 해외거주 국가유공자 후손 의료지원 • 국내의료봉사활동 • 국내 의료지원(국제·지역 경기대회, 보훈단체 등) • 국내 취약계층 의료지원 • 학교 밖 청소년 건강지킴이 • 사랑나눔 헌혈	• 무료강좌(건강, 인문학 등) • 취약계층 주거개선 • 불용 의료기기·PC 등 나눔 • 지역아동 키다리센터 운영 • 장애인 일자리 체험 • 청소년 진로체험 교실 • 기관 시설개방(강당, 회의장, 체육관 등) • 나라사랑(호국보훈) 교육 • 휠체어 행복나눔	• 재난구호 봉사 및 후원 • 직원 위문성금 후원 • 보훈취약계층 (보훈지청 등) 후원 • 지역복지시설 봉사 및 후원 • 지자체 지역행사 활동 및 후원 • 1사 1촌(도농교류) 활동 • 직원 직거래장터 운영 • 1사 1전통시장 방문 • 행복나눔 김장 후원 • 온기나눔 연탄 후원 • 다문화·새터민 등 후원 • 저소득 청소년 장학금 후원 • 문화를 함께 즐겨요 • 국토 대청결운동(현충시설 등) • 직원 행복의류·도서 등 나눔

- 1 1사 1촌 일손돕기
- 2 다문화 가족과 김장행사
- 3 문화를 함께 즐겨요
- 4 원주경찰서 힐링쉼터



제 9 장 감사제도

- 1 자체감사
- 2 외부감사

감사란 일반적으로 어떤 조직이나 개인이 수행하고 있거나 수행한 업무에 대해 독립적이고 중립적 위치에 있는 제3자가 업무처리에 대한 적부(適否)를 조사해 그 결과를 보고 및 처리하는 일련의 과정을 뜻한다. 감사의 목적은 업무상 독립적이며 전문적인 기관이 감사대상 기관의 회계 등의 업무를 검사·감독하고 그 사무와 소속 직원의 직무를 감찰함으로써 공공부문의 책임성 확보와 성과를 높이고 공공정보의 이용자가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있으며, 특히, 자체감사 등 공공감사의 목적은 감사대상 기관의 문제점을 예방하고 발견된 문제점을 효과적으로 해결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보훈공단 감사실에서 행하는 감사는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자체 감사로, 주체가 감사대상기관의 내부에 속한 내부감사에 속한다. 자체감사의 역할은 시대적 상황에 따라 변화해 왔다. 과거 개별 지출행위에 대한 회계검사 등 합법성 감사에서 점차 정부의 정책·사업 등 제반활동에 대한 경제성·효율성·효과성에 대한 성과감사로 전환이 이루어짐에 따라 보훈공단의 감사 또한 업무프로세스를 사전에 점검하고 리스크에 기반한 체계적 관리·점검을 통한 위험 예방감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적극행정이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적극행정면책 및 사전컨설팅 제도를 도입·운영하는 등 조직문화 개선에도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또한, 감사결과 처분 시 외부전문가의 활용 및 자문을 통해 감사 전문성을 강화하고 감사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및 재심의 제도, 내부변호인 제도 등을 활용해 감사처분의 신뢰성을 높이고, 객관적이고 일관된 감사품질을 유지하고자 매년 IPPF(국제 내부감사 직무수행 기준) 내부감사 품질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감사자문위원회



자체감사

보훈공단의 자체감사기구는 보훈공단 설립 시 1981년 11월 2일 제1차 이사회 의결에 따라 별도의 독립된 보조기구 없이 감사 1인을 두고 기획부의 경영지도과에서 감사업무를 담당해 보훈공단 업무와 회계에 관한 감사를 하는 과도기적 감사체제로 출발했다.

그 후 1981년 12월 29일 제2차 이사회 의결로 1982년 2월부터 독립된 감사 보조기구인 감사실을 설치해 감사실장 소속 감사과장 및 감사인을 두었고, 감사업무가 기획부 경영지도과에서 감사실로 이관되어 본격적인 업무를 수행하였다.

한편, 감사의 직무수행기준과 절차를 정해 보훈공단의 내부감사기능을 강화하고 보훈공단의 자율적인 경영합리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감사규정은 1981년 11월 4일 제정되어 2020년까지 15회에 걸쳐 개정되었다. 감사규정시행세칙은 1982년 3월 제정 후 2020년까지 22회에 걸쳐 수정·개정의 과정을 거치며 감사 제도를 정비했다.

또한 감사의 임명절차는 1981년 4월 4일 제정된 「한국원호복지공단법」에는 이사회의 추천에 의해 원호처장이 임명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으나, 이후 4회에 걸쳐 개정되었으며, 현재는 2007년 4월 1일 시행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을 반영해 2008년 12월 31일 개정된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에 따라 감사는 임원추천위원회가 복수로 추천하여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기획재정부 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감사의 종류

감사실에서 실시하는 감사의 종류는 감사규정 제3조에 의거 종합감사, 특정감사, 재무감사, 컨설팅감사, 기강감사, 일상감사 등으로 구분한다.

종합감사는 보훈공단의 기능·임무 및 조직·인사·예산 등 업무 전반의 적법성, 타당성 등을 점검하기 위해 실시하며 기관별로 연 1회 정기적으로 실시하나 점검주기를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으며, 감사사항 등을 표본 추출해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특정감사는 특정한 업무·사업·자금 등에 대해 문제점을 파악해 원인과 책임소재를 규명하고 개선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부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감사로 국가보훈처장 또는 이사장이 요청하는 사항이나 비상임이사2명 이상이 연서로 요청하는 경우에도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재무감사는 예산의 활용·관리실태 및 회계처리의 적정성 여부에 대한 감사이며 결산 확인, 회계 위험 발견 등 감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수시로 실시한다.

컨설팅 감사는 현업에서 추진하는 사안이 법령 또는 규정에 위배될 소지와 기준과 상이한 경우 등 사후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개선이 필요할 때 현지에서 선제적으로 컨설팅을 제공한다. 주로 컨설팅을 통한 적극적인 행정지원이 필요한 경우 실시한다.

기강감사는 복무의무 위반, 비위사실, 근무실태 점검 등을 목적으로 실시하는 감사로 취약시기 등 감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복무상황 점검, 특별감찰 등을 실시한다.

일상감사는 보훈공단의 회계 및 이와 관련되는 주요업무에 관해 최종 결재자의 결재에 앞서서 내용을 검토하고 의견을 첨부하는 방법으로 실시한다.

감사대상 및 감사주기

보훈공단 산하 자체감사 대상기관은 본사,보훈병원(서울,부산,광주,대구,대전,인천), 보훈요양원(수원, 광주, 김해, 대구, 대전, 남양주, 원주), 보훈교육연구원, 보훈원, 보훈재활체육센터, 보훈휴양원 등이다.

감사 주기는 전 소속기구(본사제외)에 대해 연 1회 감사 실시를 정례화하고 있으며 종합감사를 실시하지 않는 기간에도 수시 특정감사, IT감사, 자율감사 등을 실시해 종합감사 미실시에 따른 문제점을 보완하고 있다.

감사 처분

감사실은 지난 40년간 합법성 감사뿐만 아니라 사전예방적인 감사시스템을 구축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비능률적인 요소를 사전에 점검·개선함으로써 경영혁신을 달성할 수 있도록 지원해 왔다. 또한 감사원, 기획재정부, 국가보훈처, 감사협회로부터 우수기관 및 감사인 표창을 받았다.

자체 감사 처분									(단위 : 건, 백만 원)	
연도	합계	행정			재정	신분			적극행정 면책	모범사례
		계	시정 개선	권고 통보		계	징계	주의, 경고		
2011	287	55	32	23	3,989	224	15	209	-	8
2012	610	278	243	35	228	319	1	318	-	13
2013	610	318	132	186	1,269	276	6	270	-	16
2014	676	359	112	247	669	308	5	303	-	9
2015	809	395	165	230	1,262	391	14	377	-	23
2016	990	485	162	323	3,491	474	12	462	-	31
2017	966	532	160	372	4,379	401	7	394	2	31
2018	994	529	135	394	2,415	427	20	407	2	36
2019	1,065	567	157	410	1,777	464	18	436	4	40
2020	799	481	141	340	1,742	273	23	250	5	40

일상 감사 (단위 : 건, 백만 원)						
구분	2011	2015	2017	2018	2019	2020
감사건수	512	558	521	618	618	763
의견제시	155	217	216	182	252	259
금액	1,208	4,255	6,792	7,585	8,834	8,913

자율시정 프로그램 (단위 : 백만 원)						
구분	2011	2015	2017	2018	2019	2020
항목	10	21	22	20	21	15
금액	223	54	158	218	134	173

제도 개선

구분	제도 개선	주요 내용
2011	- 감사 전문성 강화를 통한 효율적 감사체계 구축 - 5개 공공기관 감사협력체계 구축(한마음감사협의회) - 감사 마감회의, 감사 공모제, 감사심의위원회 등 감사 수용성 강화	- 청렴도 0.11점 향상(8.65→8.76점) - 외부청렴도 13위(32위 ↑), 내부청렴도 44위(22위 ↑) - 감사 핫라인 개설, 청렴옴부즈만 구성 - 경영수지 개선 - 감사 기관별 순회, 자율적 절감목표를 설정하고 관리하도록 독려(절감액 126억 원) - 약품구매 입찰정보 적극 제공을 통한 다수업체 참여로 예산절감(56억 원, 낙찰률 54%→49%)
2012	- 선택과 집중을 통한 감사운영 효율성 도모(자율시정프로그램, 운영) - 상시모니터링을 통한 예방감사 체계 구축(통합재무시스템 구축, e-감사시스템 운영)	- 청탁등록시스템 구축, 청렴 순회교육 실시 - 직원참여 청렴 UCC공모(수상작 교육자료로 활용) - 클린신고 포상제 신설(130만 원 포상) - B2B전자결재시스템 도입에 따른 대금지급 내부통제 강화 및 대금집행액의 1% 수수(69백만 원)
2013	- 감사역량 자가진단 프로그램 고도화 - 감사 만족도조사 관리체계 개선 - 감사 전문교육 다변화 - 자율시정 프로그램 확대운영	- 감사자원 운용, 종합감사 수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연간 3~4회 특정감사 실시 원칙화 - 청렴도 및 반부패평가 1등급 상승(2등급)
2014	감사독립성 확보를 위한 노력으로 감사정원 확보(14명→17명)	- 내부 신고채널 개선 및 홍보 강화를 통한 내부신고 건수 증가(92건→132건) - 청렴문화 향상 경진대회 및 윤리경영 표어 공모 - 청렴교육(1,826명), 간부직 간담회(85명) 실시
2015	- 계약사전심사제 및 사전컨설팅 감사 - 집행과 회계 내부통제 내실화	- 내부통제수준 외부평가 실시 및 중장기 개선계획 수립 - 전 직원 메르스 사태 신속한 대응 - 감염률 제로, 안심병원 지정 - 사례집, 매뉴얼 발간, 공청회 등 실시로 이행률 100%
2016	보훈공단 특성을 반영한 방만경영 위험 요소 검토, 분석을 통해 체크리스트 마련 등 관리시스템 마련	- 내부감사 품질평가 실시로 내부통제 활동 고도화 - 내부감사 최우수기관, 부패방지시책평가 1등급 - 청탁금지법 시행 대비 제도정비, 현장 교육 등 제도정착 기반마련 - 청렴 옴부즈만 및 보훈어사 활동 강화, 치악골 청렴한마당 개최 등

구분	제도 개선	주요 내용
2017	- 감사자문위원회 전면 개편 및 운영 활성화를 통한 감사의 공정성 확보 - 내부직원의 익명신고 활성화를 위한 신고채널 통합 및 보안성 최고 등급의 익명신고 시스템 (레드휘슬) 도입(2016년 23건→2017년 48건, 25건 ↑)	- 감사인 전문역량 진단체계 확립을 통한 역량관리 체계화 - 중장기 감사전략 재수립 및 리스크 재정립을 통한 내부통제 시스템 강화
2018	- 감사변호인제 도입으로 처분에 있을 경우 소명의견 진술 기회 부여 - 무기별 설문조사, 익명신고시스템 구축, 갑질 행태 특정감사 실시	- 청렴도 조사 결과 2등급 달성(2017년 기준 1등급 ↑) - 구매업무 투명성 강화를 위한 청렴 콜 운영 - 사회적 책무 우수사례 경진대회 개최를 통한 우수사례 발굴 및 전파
2019	- 감사실 3부 체계(기존 2부, 정원 5명) 등 인프라 확충 - 계약사전예고제 신설해 공사, 용역 등 사업계획 사전 공개로 계약 투명성 및 공정성 강화	- 청렴 자가진단 시스템 도입 - 직원 의견 수렴을 통한 갑질 근절 소통·공감 캠페인 - 퇴직 예정자 청렴 옴부즈만 직무 신설 - 학습동아리 활동(5회)으로 감사제도 개선 (적극행정면책 요건 완화) 등
2020	- 감사자문위원회 인력 확대 및 다면화 - 감사 인력 풀을 선정해 실지감사 투입 및 전보인사 시 활용 - 현지 컨설팅 도입으로 현업부서 지원	- 공공기관 및 의료기관 업무협약(5건) 체결로 감사역량 강화 및 네트워크 구축, 우수 감사사례 공유 - 반복지적사항 유형 Top20 공유 및 교육 실시 - 지역사회 클러스터와 협업으로 갑질 문화 개선 활동전개

외부감사

보훈공단에 대한 외부감사는 감독기관인 국가보훈처 및 감사원 등에서 실시 감사를 실시하고 있다. 국가보훈처 감사는 2008년까지는 거의 매년 보훈공단 소속기구 1~2개에 대해 종합감사를 실시하였으나 2009년부터 보훈공단 전체를 대상으로 격년으로 감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감사원에서는 「감사원법」에 따라 보훈공단을 선택적 검사 및 직무감찰 대상기관으로 분류해 2년마다 1회 감사원 감사를 실시(특별감사는 사안 발생시)하고 있다.

외부 감사 처분 (단위: 건)								
구분	2012	2013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감사원	20	17	2	19	11	-	-	-
보훈처	-	47	23	2	5	7	31	8

제4편

보훈공단의 발전방향

- 제 1 절 환경변화
- 제 2 절 정부정책
- 제 3 절 발전방향

제 1 절

환경변화

보훈공단은 시시각각 변화하는 경영환경에 대응하여 2021년 경영전략을 재설정하고 정부의 정책환경변화 추이와 보훈공단 관련 보건의료정책과 보훈 의료복지 정책을 분석해 향후 보훈공단이 나아갈 방향을 중·장기 경영목표에 반영했다.

정책환경

기획재정부는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 수립 1주년을 맞아 그동안의 성과를 돌아보고 이를 발전·보완한 한국판 뉴딜 2.0을 제시했다. 한국판 뉴딜정책은 국가발전 전략인 ‘혁신적 포용국가’를 발전·보완한 거시경제 정책으로 디지털 뉴딜, 그린 뉴딜, 사회안전망 강화, 지역균형 뉴딜 등 4가지 정책을 근간으로 하고 있다.

첫째, 디지털 뉴딜 분야는 공공부문의 민간 클라우드 전환 촉진, 6G 기술을 선도, 대규모 블록체인 확산 프로젝트 추진 등으로 구성되어 디지털 시대 핵심 기반기술을 육성하려는데 있으며 특히, 2.0에서는 초연결, 초지능, 초실감 시대를 선도할 ICT융합 신산업을 적극 육성한다는 분야가 신설되어 메타버스 등의 플랫폼 산업을 적극 지원한다.

둘째, 그린 뉴딜 분야는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실천하기 위해 온실가스 측정 평가시스템을 정비하고, 탄소국경조정제도 등 국제질서 수립에 대응할 기반을 마련하며 생활 분야 온실가스 감축 실천 운동, 취약계층 기후변화 적응 지원 등 국민이 주체가 되는 탄소중립 체계를 추진한다.

셋째, 휴먼 뉴딜 분야는 불평등과 격차를 완화하고 포용성을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고용·사회안전망을 강화한다. 이를 위해 청년 정책과 격차해소 부분을 신설해 인력수요가 급증하는 디지털과 그린, 소프트웨어 등 핵심분야에 대한 집중적인 인재양성을 적극 뒷받침한다.

넷째, 지역균형 뉴딜 분야는 중앙·지방간 밀접하고 견고한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민간 자생적 투자 생태계를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해 민간투자 확대를 유도하여 자생적 투자 생태계를 조성하고, 관련 법 제도를 보완하는 등 추진 기반을 강화한다.

경제환경

2021년 4%대의 경제성장과 대면 서비스업을 제외한 산업 전반에서 고용 증가세를 보였으나, 2022년에는 중국경제의 성장세 둔화 및 글로벌 공급차질 회복 지연에 따라 경제성장률이 다소 감소할 전망이다. 한편 기존 선형경제의 한계점을 극복하기 위해 생산·소비·관리·재생 등 전 과정에서 폐기물 발생을 줄이고, 발생한 폐기물은 최대한 생산에 재투입하는 저탄소 순환경제에 대응하여야 한다.

사회환경

2000년에 이미 출생아 수가 사망자 수보다 적어지는 인구 데드크로스가 최초로 나타났으며, 2025년부터 초고령화 사회에 진입 예정이다. 초고령사회가 임박하여 점차 노년부양비 부담이 증가되어 미래에는 노년부양비 세계 1위 국가가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또한 MZ세대가 사회의 주요 구성원으로 등장함에 따라 직업 선택 기준 중 워라밸(Work & Life Balance)이 높은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어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한 제도적인 방향 설정과 세대갈등을 선순환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조직문화 개선이 요구되고 있다.

기술환경

의료분야에 비대면 서비스가 등장하였다. 비대면 서비스가 보조적 수단이던 데서 벗어나 비대면이 메인채널로 변화하고 있다. 4차 산업혁명은 특정 기술의 발달이 아닌 다양한 혁신기술의 발달 및 융합을 통해 이뤄지고 있으며, 이전의 산업혁명에 비해 매우 빠른 속도로 기술의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사람과 유사한 로봇이 개발되고 인공지능(AI)기술 개발되어 향후 로봇 및 프로그램이 사람의 역할을 대체하게 될 것이다.

산업환경 변화

바이오헬스산업 혁신 및 스마트병원 구축 등의 보건의료산업 환경의 변화가 두드러진다. 의료기기 규제혁신, 보건의료데이터 혁신, 원격 진료, 연구중심 산학협력단 및 의료기술지주회사 설립 등이 검토되거나 시행되고 있다. 빅데이터, 인공지능, ICT 융합기술, 바이오 융합 신기술 등을 통해 종전 진단 및 치료 중심에서 예방, 맞춤형 의료서비스 제공 영역으로 전환되고 있어 이에 대한 선제적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다.

앞으로 의료기관은 정밀의료 등으로 의료의 질을 향상시키고 다양한 기술과 빅데이터의 적극적인 활용을 통해 예방과 사후관리까지 의료서비스 영역을 확대하는 환자 중심의 의료체계를 운영해야 할 것이다.

정부정책

보건의료 정책

보건복지부는 코로나19 극복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여 집단면역 달성까지 방역 역량을 극대화하고 충분한 병상 및 의료인력 확보로 국민이 누구나 신속·정확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를 위해 공공의료 인프라를 확충해 국가감염병 대응체계를 강화하며, 의료전달체계, 자원관리 개편으로 지역 간 의료격차를 해소하는 방향을 제시했다. 또한 초고령사회에 대비한 돌봄 시스템을 마련하고 치매국가책임제를 강화할 계획이다.

보훈복지정책

국가보훈은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분들을 끝까지 책임진다는 국가와 국민의 약속이자 국민통합과 국가발전의 정신적 토대로서의 의미를 갖는다. 2005년 제정된 「국가보훈기본법」을 통해 국가보훈의 기본 이념과 국가, 지방자치단체, 국민의 책무가 설정되었고, 국가보훈발전 기본계획을 수립, 시행하고 있다. 2018년 수립된 제4차 국가보훈발전 기본계획은 ‘국가를 위한 헌신이 정의롭고 당당한 대한민국’을 최상위 비전으로 하고, 정책목표에는 ‘언제 어디서나 든든한 보훈의료·복지’분야가 명시되어 있다.

이와 관련하여 국가보훈처에서 분석한 보훈대상자는 2020년 61만 명에서 2040년 50만 명, 2060년 40만 명으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2040년대까지 고령의 6·25와 월남전 참전 세대 본인 인구가 급격히 소멸하고, 그 과정에서 이를 승계한 유족 인구가 급증하면서 2027년경에는 유족이 보훈대상자 본인의 인구를 추월하는 보훈대상자 인구 구조의 변화가 예상된다.

보훈대상자의 연령 구조 특징은 60세 이상 고령층 비율이 높다는 것이다. 2020년 일반 국민 중 60세 이상이 24%인 데 비해 보훈대상자는 88%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2032년에는 전체 대상자의 90%에 다다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특히 요양 수요가 높은 80세 이상 본인 인구가 2030년까지 40% 급증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는 향후 의료지원, 재가복지, 요양시설 등과 관련하여 중장기적으로 차별화된 정책 대응이 필요함을 시사하고 있다.

이와 같이 보훈대상자 중 60세 이상이 80% 이상을 차지하는 만큼 고령의

국가유공자가 건강한 삶을 영위하실 수 있도록 예방·치료·재활·요양·양로·재가서비스 등에 이르는 맞춤형 의료복지 체계를 강화해야 할 것이다.

보훈병원은 상급 종합병원의 수준으로 의료서비스 질을 강화하는 한편, 거주지 인근 위탁병원을 지속 확대하여 국가유공자들이 만성질환은 가까운 병·의원의 의료서비스를 편리하게 이용하고, 급성·중증 질환은 보훈병원을 이용하는 의료전달체계가 확립되어야 한다.

또한 스마트 보철구 개발 추진 등 국가유공자 재활에 첨단 과학기술을 선도적으로 도입하고 보훈요양원은 고령화에 따른 요양 수요의 지속적인 증가 및 지역별 대기 수요 등을 고려하여 권역별로 요양시설의 추가 확충이 필요하다.

발전방향

보훈공단의 비전은 ‘공공의료·복지를 선도하는 최고의 파트너’이다. 따라서 보훈공단의 역할은 대내외 환경변화에 대응하여 예방·치료·재활·요양·재가·임종을 연결하는 최상의 보훈가족 맞춤형 공공의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있다. 이와 같은 비전을 달성하기 위한 중장기 경영전략 수립과정은 다음과 같이 진행했다. 주요 정부정책 분석과 내부역량 진단을 통해 경영전략체계를 진단하고, 아이디어 공모, 워크숍을 실시하여 내부 의견을 수렴한 후, 전문기관 컨설팅 등 외부전문가의 자문과정을 거쳐 경영목표체계를 확정했다.

경영목표체계는 5대 전략방향으로 설정하고 이를 실행하기 위해 15대 전략 과제와 48개 실행과제로 구체화했다.

전략방향 I 보훈의료 품질 및 공공성 강화

고령의 국가유공자 질환 특성에 맞는 수준 높은 전문 진료 및 고난도 시술을 제공하기 위해 중앙보훈병원은 상급종합병원 수준에 도달함과 아울러 지방 병원은 특성진료과 집중 육성을 통해 지역 공공의료기관으로 역할을 제고해야 한다. 급성-재활-요양 진료전달체계 일환으로 중앙보훈병원에 이어서 부산·광주보훈요양병원을 개설하고, 전문화된 재활서비스 제공을 위해 부산, 광주, 대구, 대전에 재활센터를 순차적으로 개설할 예정이다.

향후 민간위탁병원의 지속적인 증가와 국공립병원의 보훈위탁병원 지정 움직임에 대해서는 당면 정책과제로서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강구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보훈환자의 맞춤형 의료서비스 일환으로 요양병원 운영,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가정간호서비스, 호스피스 완화의료 등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공공의료기관으로서 군인·경찰·해양경찰·소방관 등 국가사회 기여자에 대한 의료지원을 확대하여야 한다.

전략방향 II 다양성 존중의 복지서비스 구현

보훈공단의 목표는 국가유공자에게 최고 수준의 요양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있다. 요양서비스 표준화 및 개개인에게 맞는 체계적인 맞춤형 요양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빅데이터 기반의 요양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과학화, 선진화된 요양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입소자의 고령화와 거동불편으로 낙상위험이 상존함으로 ICT기술을 접목한 낙상예방시스템, IT기반 인지기능훈련 프로그램, 스마트 원격 협진 프로세스, ICT맞춤형 요양서비스를 도입했다. 독거세대 증가로 고령, 질병으로 인한 고독사 문제가 대두됨에 따라 ICT기술을 접목한 위험 사전경보시스템, 활동감지센서, 화재·가스 감지센서, 응급호출기 설치, 치매전담실 운영 등 수준 높은 보훈요양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한편 수요자 중심 복지 인프라 구축과 관련하여 고령화에 따른 요양수요의 지속적인 증가 및 수도권 지역의 대기수요 등을 고려하여 요양시설을 추가 확충할 계획이다.

또한 장애·치매 등으로 거동이 불편한 국가유공자를 대상으로 생활편의시설 및 가옥구조를 개선하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생활공간에서 낙상 등 안전사고 예방과 일상생활의 불편을 해소하는 맞춤디자인을 적용해 시공하는 등 수혜자 중심의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한다.

전략방향 III 뉴노멀 시대 미래 성장 선도

4차 산업혁명 시대 헬스케어의 중심에 정밀의료가 있고, 그 핵심인프라가 바이오뱅크에 있으므로 이는 차세대 보건의료연구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이다. 보훈공단은 의학연구소 중심의 연구협의체(국가연구소, 민간 및 공공병원 등)를 구성하여 치매, 혈액암 등 보훈환자 질환 코호트 구축 및 유전체 칩 정보 생산을 계속하고 있다.

특히, 보훈환자에게 첨단기술을 통한 진단 및 치료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차세대 염기서열분석(NGS) 임상검사를 진행할 수 있는 의료기관으로 등록, 유전자 바이오진단마커(단백질이나 DNA, RNA 대사물질 등을 이용해 몸 안의 변화를 알아내어 진단할 수 있는 지표)검사를 통해 정밀의료의 근거를 명확히 제시하여 암을 포함한 다양한 질환의 진단과 치료에 의학적으로 기여하게 된다. 또한 진료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디지털 비대면 의료서비스, 스마트병동 구축, AI 진단시스템, AI로봇 헬스케어 등 미래지향 의료서비스 분야에도 역점을 두고 있다.

국가유공자의 초고령화 사회 진입에 따라 고령친화적인 보철구 수요의 지속적 증가가 예상된다. 보장구센터는 4차산업 기반의 감지센서·AI딥러닝 등 첨단기술이 포함된 의수족, 휠체어 등 국가유공자들의 높아진 생활 수준 및 욕구에 맞는 보철구를 지급하여 보훈가족의 건강과 행복한 삶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국내 최고 수준의 보장구 제작 능력을 보유한 곳으로 발전하게 될 것이다. 보훈공단 통합 의료·복지 정보시스템은 병원 정보시스템, 요양 정보시스템 및 홈페이지를 재구축하고 경영정보시스템 등 정보연계 및 공유 플랫폼을 구축해 보훈병원, 보훈요양병원, 보훈요양원, 위탁병원 간의 정보연계 및 공유가 가능한 플랫폼을 구축하려는 데 있다. 아울러, 국가유공자의 평생 건강관리를 돕기 위한 건강복지안전망 구축을 확대해 의료와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이로써 예방·치료·재활·요양·양로·재가·임종으로 이어지는 보훈의료복지통합서비스를 구축해 국내 최대 공공의료복지기관으로서 공단의 역할을 기대할 수 있다.

전략방향 IV ESG(Environment, Social, Governance)기반 지속가능경영

국제사회의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신기후체제가 출범했고, 환경경영 실현을 위한 신경영트렌드는 모든 기업에게 선택이 아닌 생존을 위한 필수가 되었다. 기업뿐만 아니라 정부에서도 공공기관 공시항목에 ESG 반영을 확대하고 경영평가제도를 개편하고 있어 움직임에 대응할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보훈공단은 ESG 비전을 ‘ESG 路 더 나은 보훈의료복지를 선도하는 파트너’로 설정하고, 공단 창립 40주년 기념식에 맞춰 노사공동 ESG 경영선포식을 진행했다. 연구영역을 통해 직원의 ESG 인식수준 진단을 시작해 ESG 추진과제를 선정하고 성과지표화했다.

E에 해당하는 과제로는 K-RE100(2050년까지 기관에서 사용하는 전체 에너지를 대체에너지로 전환하겠다는 선언)전 소속기구 가입, 노후 건물 등의 에너지효율 및 에너지자립도를 향상하는 제로에너지 건축물 구현, 친환경 차량 및 친환경 물품 구매, Paperless 오피스 구현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S에 해당하는 과제는 열린고용 확대 및 고용의 질 개선을 통한 지속가능한 일자리 창출, 중소기업 판로지원 및 성과·이익 공유 등을 통해 중소기업과 동반성장 추진, 지속적인 지역사회와 협업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노력 및 사회적 책임 실천 등의 의지를

담았다. G에 해당하는 과제는 국민 눈높이에 맞춘 반부패·청렴시스템 구축, 내부직원 및 모든 이해관계자의 인권존중을 위한 소통 중심 문화 구축, 경영정보 공개 확대 등을 통한 투명한 경영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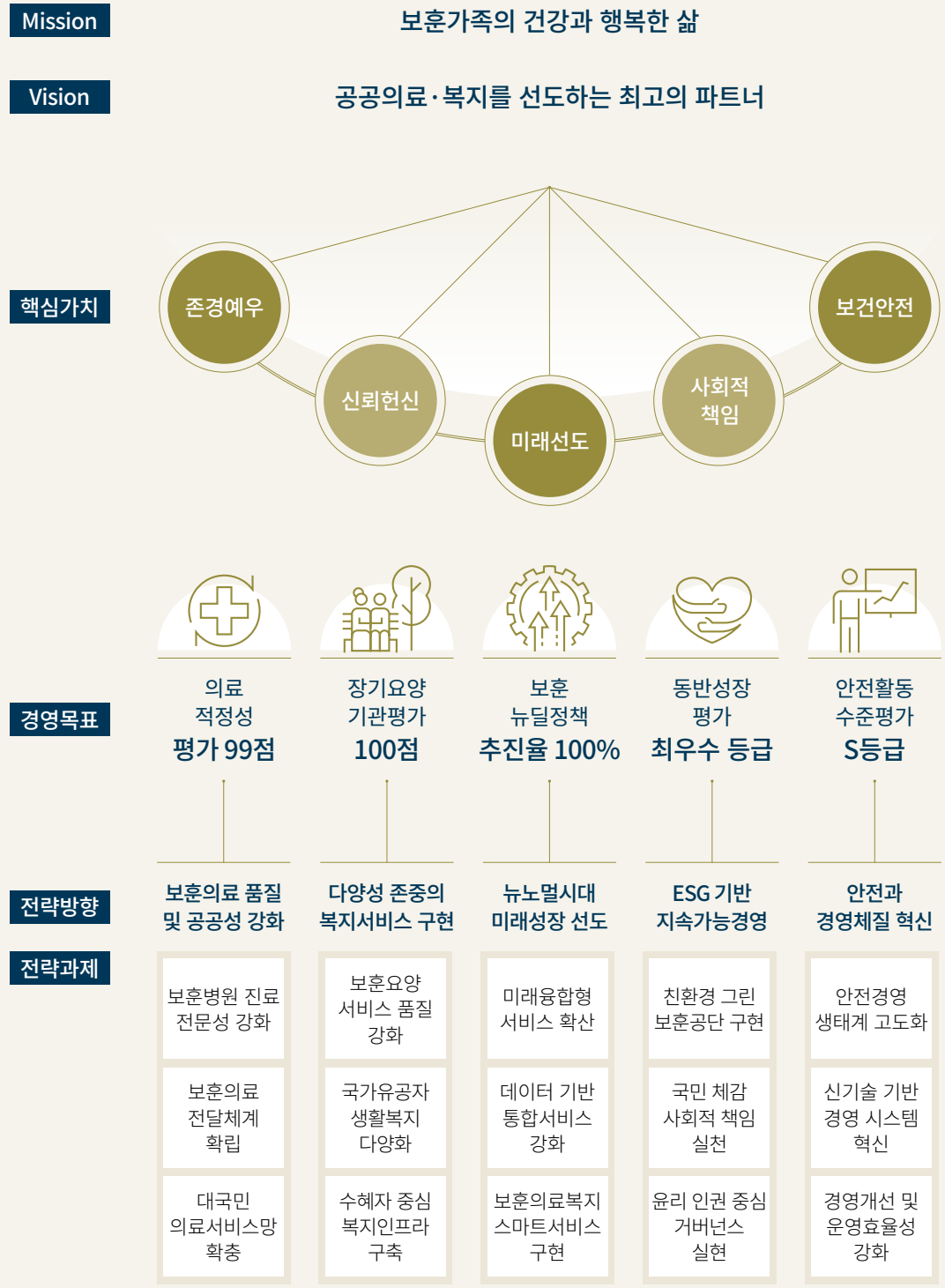
전략방향 V 안전과 경영체질 혁신

국민과 근로자의 생명·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안전경영 생태계 구축을 전략과제로 선정했으며, 산업재해 예방 관련 국제안전표준인 ISO45001을 전 소속기구로 확산하고 전 사업장 위험성 평가를 통해 위해요인을 사전 발굴 개선하고 있다. 본사-병원-요양원으로 이어지는 전사적 감염대응체계 구축으로 감염 확산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데 역점을 두고 있다. 또한 경영체질 혁신을 위한 신기술 기반의 경영시스템을 도입할 계획이다.

스마트 워크시스템 도입으로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는 근무환경을 구현하고, 낙상예방 솔루션을 설치해 낙상사고가 매년 감소하는 성과를 나타냈다. 특히 업무 처리 자동화(Robotic Process Automation)를 도입해 단순 반복 업무를 발굴, 인력은 핵심업무에 초점을 맞춰 투입하고 단순 반복업무는 자동화 프로그램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하였다. 또한 기술진화에 따른 검체이송, 환자케어 로봇, 식판배송 로봇 등 AI로봇 활용가능 분야를 적극 발굴하는 등 혁신기술 기반 경영시스템 혁신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다.

국가유공자의 진료와 중상이자에 대한 의학적·정신적 재활을 통해 복지증진에 기여할 목적으로 1981년 설립된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은 지난 40여 년 동안 전국 권역별 보훈의료망과 복지시설 등의 인프라를 구축하고, 다양한 의료복지통합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보훈가족으로부터 사랑과 신뢰를 받는 국내 굴지의 공공의료복지기관으로 자리매김하였다. 앞으로 보훈공단의 지속가능한 미래발전을 위해서는 정부정책과 보훈의료·복지의 환경변화에 대응하여 수립한 미래경영전략에 따라 그동안 축적한 의료·복지분야의 전문성을 체계화하여 차질없이 수행하여야 한다. 보훈공단은 보훈가족의 건강과 행복한 삶이라는 미션하에 비전과 핵심 가치를 공유하고 지속적인 내재화를 통한 소통과 신뢰를 바탕으로 미래의 40년을 향해 나가는 새로운 도전을 시작할 것이다.

비전·전략 체계도



부록

- I 역대기관장
- II 전·현직 간부 명단
- III 보훈병원 현황
- IV 재산 현황
- V 연표
- VI 대외기관 주요 수상내역
- VII 보훈공단 동우회
- VIII 국가보훈 관련 자료

I 역대기관장



1대 허길(許 佶)
1981.10.1~1983.6.22



2대 최명재(崔明載)
1983.6.23~1985.4.18



3대 윤종화(尹鍾華)
1985.4.25~1989.7.27



4대 김희오(金喜午)
1989.7.28~1992.12.21



5대 박익순(朴益淳)
1992.12.21~1993.4.5



6대 조명제(趙明濟)
1993.4.6~1995.8.11



7대 최태호(崔泰浩)
1995.8.14~1998.8.13



8대 배기운(裴奇雲)
1998.8.24~2000.2.28



9대 조만진(趙萬進)
2000.5.15~2003.5.14



10대 박종권(朴鍾權)
2003.7.1~2005.9.27



11대 김하경(金夏競)
2005.12.8~2008.5.9



12대 김종성(金鍾成)
2008.8.5~2011.8.4



13대 이종정(李鍾鼎)
2011.8.9~2013.11.26



14대 김옥이(金玉伊)
2013.11.27~2017.8.31



15대 양봉민(梁奉玟)
2017.12.18~2021.2.4



16대 감신(甘信)
2021.2.5~현재

II 전·현직 간부 명단

본사

대	직급	성명	재임(직)기간	비고
감사				
1	임원	장영건	1981.11.2~1983.7.7	
2	"	신우철	1983.12.1~1985.11.30	
3	"	신우철	1985.12.1~1987.11.30	
4	"	김제형	1987.12.1~1989.11.30	
5	"	김인선	1990.1.4~1990.11.8	
6	"	이훈승	1990.11.8~1992.1.3	
7	"	이훈승	1992.1.4~1993.4.12	
8	"	심국무	1993.4.12~1994.1.3	
9	"	심국무	1994.1.4~1996.1.3	
10	"	채남석	1996.1.4~1997.3.13	
11	"	김일영	1997.3.13~1998.4.14	
12	"	김병걸	1998.4.20~2000.4.19	
13	"	김승일	2000.6.12~2001.12.26	
14	"	명재현	2002.3.27~2004.3.26	
15	"	이충렬	2004.5.4~2006.5.3	
16	"	박익만	2006.5.10~2008.8.7	
17	"	김공자	2008.8.8~2010.8.17	
18	"	강명원	2010.8.18~2012.10.4	
19	"	이재순	2012.10.5~2014.12.4	
20	"	안상현	2014.12.5~2017.2.26	
21	"	유주봉	2017.2.27~2019.3.28	
22	"	박경필	2019.3.29~2021.6.6	
23	"	이병구	2021.6.7~현재	
부사장(직제폐지)				
1	임원	민철식	1981.11.10~1984.10.29	
2	"	윤종화	1984.10.30~1985.4.24	
3	"	신봉림	1985.4.25~1987.10.29	
4	"	김홍수	1987.10.31~1990.10.29	
5	"	김인선	1990.11.8~1993.4.12	
6	"	류육형	1993.4.13~1993.12.31	
7	"	황이연	1994.1.1~1996.7.1	
8	"	이천우	1996.7.2~1998.4.14	
9	"	정탁균	1998.4.14~2001.2.5	
기획이사				
1	별정직	조창구	1981.11.2~1983.12.1	총무상무
2	"	조형기	1983.12.2~1984.11.9	
3	"	조창구	1985.5.29~1986.12.9	
4	"	최도완	1986.12.10~1988.5.28	
5	"	김용환	1988.6.1~1990.9.30	
6	"	박남기	1990.10.1~1991.1.31	기획상무
7	"	홍동표	1992.2.1~1992.6.30	
8	"	박남기	1992.7.1~1993.6.9	기획조정실장

대	직급	성명	재임(직)기간	비고
9	"	류관희	1993.6.10~1996.8.20	
10	"	이동권	1996.8.21~1997.8.17	
11	"	백운위	1997.8.18~1998.12.9	기획본부장
12	임원	김형길	2001.2.26~2003.5.2	기획이사
13	"	장성진	2003.5.3~2006.5.2	
14	"	이철조	2006.5.10~2008.5.10	기획본부장
15	"	이봉춘	2008.11.28~2010.11.29	경영지원본부장
16	"	김우섭	2010.11.30~2012.10.21	
17	"	임희택	2012.10.22~2014.8.26	기획이사
18	"	정영권	2014.8.27~2017.6.30	
19	"	구길환	2017.7.1~2017.7.9	
20	"	오철식	2018.7.28~2019.6.30	
21	"	구길환	2020.1.1~2020.5.18	
22	"	구길환	2020.5.19~현재	
관리이사				
1	임원	김우섭	2012.10.22~2012.11.29	
2	"	정하태	2012.11.30~2015.6.15	
3	"	신영교	2015.6.16~2018.7.27	
4	"	김민숙	2018.7.28~2020.9.6	
5	"	최혁진	2020.9.7~현재	
사업이사				
1	별정직	이완수	1986.12.10~1989.12.9	의료사업본부장
2	"	백운위	1999.8.17~2000.2.9	의료관리실장
3	"	이창희	2000.6.15~2001.2.16	
4	임원	이창희	2001.2.17~2004.2.16	의료이사
5	"	이창희	2004.2.17~2007.2.16	관리이사
6	"	이길재	2007.3.15~2009.3.20	의료사업본부장
7	"	김시종	2009.3.25~2010.5.16	
8	"	이선	2010.5.17~2012.5.16	의료이사
9	"	임희택	2012.5.17~2012.10.21	
10	"	안금두	2012.10.22~2014.4.30	사업이사
11	"	제선주	2014.5.1~2016.6.12	
12	"	김우경	2016.6.13~2019.2.6	
13	"	조용기	2019.2.7~2021.5.31	
14	"	이상진	2021.6.1~현재	
복지사업본부장(직제폐지)				
1	별정직	이강천	1981.11.10~1983.12.1	기획상무
2	"	최종대	1983.12.2~1986.11.30	관리상무
3	"	윤인상	1986.12.1~1988.5.28	
4	"	성현경	1988.5.29~1990.1.2	
5	"	노병구	1990.1.3~1991.9.30	
6	"	변재윤	1992.10.1~1993.9.8	
7	"	강현석	1993.9.9~1994.8.15	복지상무
8	"	박기국	1994.8.18~1995.4.23	

대	직급	성명	재임(직)기간	비고
9	임 원	최광규	2001. 2. 6 ~ 2004. 2. 5	복지이사
10	〃	박종문	2004. 5. 4 ~ 2007. 1. 22	
11	〃	정하철	2007. 1. 23 ~ 2010. 1. 26	복지사업본부장
12	〃	신현재	2010. 1. 27 ~ 2012. 2. 5	
13	〃	안금두	2012. 2. 6 ~ 2012. 10. 21	
수익사업본부장(직제폐지)				
1	별정직	민철식	1981. 11. 10 ~ 1983. 6. 15	영업상무
2	〃	최종대	1983. 12. 2 ~ 1985. 5. 28	
3	〃	윤인상	1985. 5. 29 ~ 1986. 12. 9	
4	〃	조창구	1986. 12. 10 ~ 1988. 6. 21	
5	〃	이상의	1988. 6. 22 ~ 1988. 10. 14	
6	〃	주정석	1988. 10. 5 ~ 1991. 1. 5	
7	〃	변재윤	1991. 2. 11 ~ 1992. 9. 30	
8	〃	류관희	1992. 10. 1 ~ 1993. 6. 9	
9	사무1급	강현석	1993. 6. 10 ~ 1993. 7. 15	
10	별정직	강현석	1993. 7. 16 ~ 1993. 9. 8	
11	〃	변재윤	1993. 9. 9 ~ 1994. 4. 23	
12	〃	박기국	1994. 4. 24 ~ 1997. 8. 17	
13	〃	이두평	1997. 8. 18 ~ 1999. 8. 16	수익사업본부장
14	〃	권필수	1999. 8. 17 ~ 2001. 5. 3	
15	임 원	이화춘	2001. 5. 11 ~ 2004. 5. 10	수익이사
16	〃	김진기	2004. 5. 31 ~ 2006. 1. 27	
17	〃	함기수	2006. 3. 21 ~ 2009. 3. 20	수익사업본부장
특수사업본부장(직제폐지)				
1	별정직	김철영	1981. 11. 2 ~ 1985. 4. 11	
비서실장				
1	사무3급	좌덕종	1981. 11. 2 ~ 1982. 4. 20	
2	〃	김진기	1982. 4. 21 ~ 1983. 6. 23	
3	〃	좌덕종	1983. 6. 24 ~ 1983. 7. 12	
4	〃	이화춘	1983. 7. 13 ~ 1985. 5. 8	
5	사무2급	정진만	1985. 5. 10 ~ 1987. 12. 31	
6	〃	최영한	1988. 1. 1 ~ 1990. 7. 20	
7	사무3급	이장호	1990. 7. 21 ~ 1993. 8. 13	
8	〃	김춘석	1993. 8. 14 ~ 1995. 8. 17	
9	사무2급	김유활	1995. 8. 18 ~ 1998. 12. 9	
10	사무3급	천명주	1998. 12. 10 ~ 2003. 7. 4	
11	사무2급	김병택	2003. 7. 5 ~ 2005. 12. 13	
12	〃	이홍식	2005.12. 14 ~ 2009. 5. 10	
13	사무3급	조성제	2009. 5. 11 ~ 2011. 6. 26	
11	〃	정진복	2011. 6. 27 ~ 2014. 5. 14	
12	〃	이종훈	2014. 5. 15 ~ 2017. 7. 16	
13	사무2급	전봉안	2017. 7. 17 ~ 2017. 12. 18	
14	〃	이상호	2017. 12. 19 ~ 2019. 12. 31	
15	〃	김상철	2020. 1. 1. ~ 2021. 3. 31	
16	사무3급	봉성종	2021. 4. 1 ~ 현재	
감사실장				

대	직급	성명	재임(직)기간	비고
1	사무1급	이석근	1982. 2. 1 ~ 1984. 3. 31	
2	〃	주중석	1984. 4. 9 ~ 1985. 4. 21	
3	〃	이석근	1985. 4. 22 ~ 1987. 12. 31	
4	〃	조석호	1988. 1. 1 ~ 1988. 10. 20	
5	〃	이석근	1988. 12. 24 ~ 1989. 12. 31	
6	〃	이상의	1990. 1. 10 ~ 1991. 3. 31	
7	〃	이동권	1991. 4. 10 ~ 1994. 7. 4	
8	〃	이두평	1994. 7. 5 ~ 1997. 8. 17	
9	〃	권필수	1997. 8. 18 ~ 1998. 12. 9	
10	〃	이화춘	1998. 12. 10 ~ 2000. 8. 27	
11	〃	김진기	2000. 8. 28 ~ 2001. 3. 4	
12	〃	이 선	2001. 3. 5 ~ 2003. 10. 31	
13	〃	김진기	2003. 11. 1 ~ 2004. 5. 30	
14	사무2급	조용호	2004. 8. 16 ~ 2004. 10. 31	
15	사무1급	이 선	2004. 11. 1 ~ 2008. 11. 9	
16	〃	이익주	2008. 11. 10 ~ 2009. 10. 13	
17	사무1급	조용호	2009. 10. 14 ~ 2013. 06. 30	
18	〃	천명주	2013. 7. 8 ~ 2014. 6. 22	
19	〃	이회용	2014. 6. 23 ~ 2017. 7. 9	
20	〃	구길환	2017. 7. 10. ~ 2017. 12. 31	
21	〃	채수정	2018. 1. 1 ~ 2018. 8. 31	
22	〃	정금영	2018. 9. 1 ~ 2021. 6. 30	
23	〃	심재일	2021. 7. 1 ~ 현재	
기획조정실장, 미래전략실장, 경영혁신실장				
1	사무1급	박시철	1982. 1. 12 ~ 1983. 3. 20	기획부장
2	〃	최종대	1983. 3. 21 ~ 1983. 12. 1	
3	〃	성헌경	1983. 12. 3 ~ 1984. 11. 5	
4	〃	류관희	1984. 11. 6 ~ 1986. 1. 31	
5	〃	주정석	1986. 2. 1 ~ 1987. 3. 31	
6	〃	변재윤	1987. 4. 1 ~ 1987. 10. 11	
7	〃	박남기	1987. 10.12 ~ 1988. 5. 31	
8	〃	류관희	1988. 6. 1 ~ 1992. 9. 31	
9	〃	이화춘	1992. 10. 1 ~ 1996. 1.14	
10	〃	이창희	1996. 1. 15 ~ 2000. 6. 14	기획조정실장
11	〃	이화춘	2000. 8. 28 ~ 2001. 5. 10	〃
12	〃	조정래	2001. 5. 14 ~ 2002.12. 22	〃
13	〃	김진기	2002. 12. 23 ~ 2003. 10. 31	〃
14	〃	이 선	2003. 11. 1 ~ 2004. 10. 31	〃
15	〃	이길재	2004. 11. 1 ~ 2005. 7. 31	〃
16	〃	서재필	2005. 8. 1 ~ 2006. 3. 12	경영혁신실장
17	〃	김시중	2006. 3. 13 ~ 2006. 11. 12	기획조정실장
18	〃	구길환	2006. 11. 13 ~ 2008. 11. 9	〃
19	〃	이규원	2008. 11. 10 ~ 2009. 10. 13	〃
20	〃	임희택	2009. 10. 14 ~ 2011. 12. 4	경영기획실장
21	〃	정영권	2011. 12. 21 ~ 2012. 10. 21	〃
22	〃	구길환	2012. 10. 22 ~ 2017. 7. 9	미래전략실장

대	직급	성명	재임(직)기간	비고
23	〃	김병택	2017. 7. 10 ~ 2017. 12. 31	〃
24	〃	이용재	2018. 1. 1 ~ 2018. 12. 31	〃
25	〃	이상진	2019. 1. 1 ~ 2019. 12. 31	경영혁신실장
26	〃	구길환	2020. 1. 1 ~ 2020. 5. 18	〃
27	사무3급	김지민	2020. 5. 19 ~ 2020. 6. 30	〃
28	사무1급	조정현	2020. 7. 1 ~ 2021. 6. 30	〃
29	〃	김주천	2021. 7. 1 ~ 현재	〃
행정지원실장				
1	사무1급	박용대	1982. 5. 24 ~ 1982. 8. 30	총무부장
2	〃	차학무	1982. 9. 1 ~ 1983. 7. 5	
3	〃	주중적	1983. 8. 12 ~ 1984. 4. 8	
4	〃	내상웅	1984. 5. 9 ~ 1986. 1. 31	
5	〃	이상의	1986. 2. 1 ~ 1986. 5. 20	
6	〃	박남기	1986. 5. 21 ~ 1987. 2. 27	
7	〃	김재륜	1987. 2. 28 ~ 1987. 10. 11	
8	〃	배상웅	1987. 10. 19 ~ 1987. 12. 31	
9	〃	이영복	1988. 3. 1 ~ 1988. 12. 14	
10	〃	김창석	1988. 12. 15 ~ 1989. 1. 15	
11	〃	이상엽	1989. 1.16 ~ 1990. 1. 9	
12	〃	박기국	1990. 1.10 ~ 1991. 2. 10	
13	〃	최복순	1991. 2.11 ~ 1991. 9. 15	
14	〃	이화춘	1991. 9.16 ~ 1992. 9. 30	
15	〃	박오규	1992. 10. 1 ~ 1993. 3. 31	
16	사무2급	최영한	1993. 4. 1 ~ 1993. 7. 15	
17	사무1급	최영한	1993. 4. 1 ~ 1994. 7. 24	
18	〃	김경의	1994. 7. 25 ~ 1999. 8. 16	
19	〃	김진기	1999. 8. 17 ~ 2000. 8. 27	행정지원실장
20	〃	조정래	2000. 8. 28 ~ 2001. 3. 4	
21	〃	김경의	2001. 3. 5 ~ 2001. 7. 10	
22	〃	이익주	2001. 7. 20 ~ 2002. 8. 11	
23	〃	이길재	2002. 8. 12 ~ 2003. 4. 8	
24	〃	이창환	2003. 4. 9 ~ 2003. 10. 31	
25	〃	이장호	2003. 11. 1 ~ 2004. 10. 31	
26	〃	김경의	2004. 11. 1 ~ 2005. 7. 31	
27	〃	정영찬	2005. 8. 1 ~ 2006. 3. 12	
28	〃	박종식	2006. 3. 13 ~ 2006. 11. 12	혁신평가실장
29	사무2급	김종운	2006. 11. 13 ~ 2007. 4. 30	행정지원실장
30	〃	신정우	2007. 5. 1 ~ 2008. 6. 30	
31	사무1급	조용호	2008. 7. 1 ~ 2009. 10. 13	
32	〃	정영권	2012. 10. 22 ~ 2013. 10. 13	행정지원실장
33	〃	김종운	2013. 10. 14 ~ 2015. 4. 16	
34	〃	유상현	2015. 4. 17 ~ 2015. 6. 30	
35	〃	김재승	2015. 7. 1 ~ 2016. 12. 31	
36	〃	이상진	2017. 1. 1 ~ 2018. 6. 30	
37	〃	장윤동	2018. 7. 1 ~ 2019. 6. 30	
38	〃	최성기	2019. 7. 1 ~ 2021. 6. 30	
39	〃	이호건	2021. 7. 1 ~ 현재	

대	직급	성명	재임(직)기간	비고
의료지원실장				
1	사무1급	성헌경	1986. 12. 10 ~ 1988. 5. 28	의료기획부장
2	〃	박남기	1988. 6. 1 ~ 1989. 5. 31	
3	〃	임희택	2003. 11. 1 ~ 2004. 10. 31	의료관리실장
4	〃	정영찬	2004. 11. 1 ~ 2006. 3. 12	
5	〃	정영찬	2006. 3. 13 ~ 2007. 1. 31	
6	〃	정영찬	2007. 2. 1 ~ 2007. 4. 30	의료지원실장
7	사무2급	김종운	2007. 5. 1 ~ 2008. 1. 28	
8	사무1급	임희택	2008. 1. 29 ~ 2009. 4. 21	
9	〃	정영권	2009. 4. 22 ~ 2011. 12. 20	의료기획실장
10	〃	정영찬	2011. 12. 21 ~ 2012. 7. 3	
11	〃	김종운	2012. 7. 4 ~ 2013. 10. 13	사업지원실장
12	〃	류건상	2013. 10. 14 ~ 2014. 1. 19	
13	〃	김병택	2014. 1. 20 ~ 2017. 7. 9	
14	〃	조정현	2017. 7. 10 ~ 2017. 12. 31	
15	〃	박준원	2018. 1. 1 ~ 2018. 12. 31	의료지원실장
16	〃	김병택	2019. 1. 1 ~ 2019. 6. 30	
17	〃	채수정	2019. 7. 1 ~ 2019. 12. 31	
18	〃	이상진	2020. 1. 1 ~ 2020. 6. 30	
19	〃	심재일	2020. 7. 1 ~ 2020. 12. 31	
20	〃	이용재	2021. 1. 1 ~ 2021. 6. 30	
21	〃	전영의	2021. 7. 1 ~ 현재	
복지지원(기획)실장				
1	사무1급	정규식	2007. 2. 1 ~ 2008. 11. 9	복지지원실장
2	사무2급	이성복	2008.11. 10 ~ 2010. 1. 25	
3	사무1급	구길환	2010. 1. 26 ~ 2012. 7. 3	복지기획실장
4	〃	이회용	2012. 7. 4 ~ 2012. 10. 21	
5	〃	김주천	2018. 9. 1 ~ 2019. 6. 30	복지지원실장
6	〃	김재화	2019. 7. 1 ~ 2019. 12. 31	
7	〃	이용재	2020. 1. 1 ~ 2020. 12. 31	
8	〃	김주천	2021. 1. 1 ~ 2021. 6. 30	
9	〃	김재화	2021. 7. 1 ~ 현재	
시설건립단장(직제폐지)				
1	사무1급	이익주	1999. 8. 17 ~ 2001. 7. 19	시설관리단장
2	〃	이만술	2001. 7. 20 ~ 2002. 12. 22	
3	〃	이진방	2006. 3. 13 ~ 2009. 4. 21	시설건립단장
4	〃	정영찬	2009. 4. 22 ~ 2011. 12. 20	
위탁병원관리단장				
1	사무1급	이장호	2010. 7. 1 ~ 2011. 12. 31	수도권 본부장
2	〃	김영진	2010. 7. 1 ~ 2012. 6. 30	영남권 본부장
3	〃	이익주	2010. 7. 1 ~ 2012. 6. 30	충청·호남권 본부장
4	〃	이회용	2012. 10. 22 ~ 2013. 1. 20	위탁병원관리단장
5	약무1급	김미정	2013. 1. 21 ~ 2018. 12. 31	
6	사무1급	이기생	2019. 1. 1 ~ 2020. 6. 30	
7	〃	김주천	2020. 7. 1 ~ 2020. 12. 31	
8	〃	심재일	2021. 1. 1 ~ 2021. 6. 30	
9	〃	최성기	2021. 7. 1 ~ 현재	

소속기구

대	직급	성명	재임(직)기간	비고
중앙보훈병원				
병원장				
1	별정직	최진학	1981. 10. 30 ~ 1984. 10. 29	서울원호병원장
2	〃	양경호	1984. 10. 30 ~ 1987. 10. 29	한국보훈병원장
3	〃	최정수	1987. 10. 31 ~ 1990. 10. 30	
4	〃	최정수	1990. 10. 31 ~ 1993. 10. 30	
5	〃	이헌치	1993. 10. 31 ~ 1996. 10. 30	
6	〃	이덕용	1996. 11. 11 ~ 1999. 11. 10	
7	〃	허경발	1999. 11. 11 ~ 2002. 11. 10	서울보훈병원장
8	〃	하권익	2002. 11. 11 ~ 2004. 1. 31	
9	〃	박승철	2004. 2. 23 ~ 2006. 8. 8	
10	〃	김 엽	2006. 10. 1 ~ 2008. 6. 30	
11	〃	심홍방	2008. 11. 17 ~ 2011. 11.16	중앙보훈병원장
12	〃	심홍방	2011. 11. 28 ~ 2013. 1. 3	
13	〃	하우송	2013. 1. 4 ~ 2016. 1. 3	
14	〃	이정열	2016. 1. 28 ~ 2019. 1. 27	
15	〃	허재택	2019. 5. 13 ~ 2021. 2. 28	
16	〃	유근영	2021. 5. 17 ~ 현재	
진료부원장				
1	의사직	김동은	1983. 10. 10 ~ 1987. 10. 31	진료부장
2	〃	이은호	1987. 11. 17 ~ 1990. 1. 2	
3	〃	이은호	1990. 1. 3 ~ 1995. 2. 28	진료부원장
4	〃	최수홍	1995. 3. 1 ~ 2001. 2. 5	
5	〃	박성기	2011. 12. 21 ~ 2014. 12. 20	
6	〃	김춘동	2014. 12. 21 ~ 2016. 7. 8	
7	〃	최윤미	2016. 7. 9 ~ 2016. 7. 31	
8	〃	최상경	2016. 8. 1 ~ 2018. 2. 28	
9	〃	김봉석	2018. 3. 1 ~ 2019. 9. 11	
10	〃	박중일	2019. 9. 12 ~ 2019. 9. 30	
11	〃	윤정로	2019. 10. 1 ~ 현재	
행정부원장				
1	별정직	조형기	1981. 11. 10 ~ 1983. 12. 1	관리실장
2	〃	조창구	1983. 12. 2 ~ 1985. 5. 28	
3	〃	최도완	1985. 5. 29 ~ 1986. 12. 9	
4	〃	임우식	1986. 12. 10 ~ 1989. 12. 9	
5	〃	성현경	1990. 1. 3 ~ 1991. 5. 28	행정부원장
6	〃	홍동표	1991. 6. 1 ~ 1991. 12. 31	
7	〃	박종필	1992. 7. 2 ~ 1993. 10. 31	
8	〃	박남기	1993. 11. 1 ~ 1996. 9. 30	
9	〃	이동권	1996. 10. 1 ~ 1998. 6. 30	관리부원장
10	〃	백운위	1998. 12. 10 ~ 1999. 8. 16	
11	사무1급	임희택	2011. 12. 5 ~ 2012. 5. 16	행정부원장
12	〃	서재필	2012. 6. 19 ~ 2014. 4. 30	
13	〃	김우경	2014. 5. 1 ~ 2014. 6. 22	
14	〃	천명주	2014. 6. 23 ~ 2015. 4. 16	
15	〃	김종운	2015. 4. 17 ~ 2016. 6. 30	

대	직급	성명	재임(직)기간	비고
16	〃	임세용	2016. 7. 1 ~ 2017. 6. 30	
17	〃	성문수	2017. 7. 1~ 2017. 7. 9	
18	〃	이회용	2017. 7. 10 ~ 2019. 6. 30	
19	〃	김병택	2019. 7. 1 ~ 2020. 6. 30	
20	〃	이상진	2020. 7. 1 ~ 2021. 5. 31	
21	〃	박명수	2021. 6. 1 ~ 2021. 6. 30	
22	〃	이용재	2021. 7. 1 ~ 현재	
제1진료본부장				
1	의사직	변종훈	2001. 2. 6 ~ 2005. 3. 1	
2	〃	노용호	2005. 3. 2 ~ 2006. 3. 12	
3	〃	이 근	2006. 3. 13 ~ 2009. 1. 8	
4	〃	박성기	2009. 1. 9 ~ 2011. 12. 20	
5	〃	양수현	2011. 12. 21 ~ 2016. 6. 15	제1진료본부장
6	〃	최윤미	2016. 6. 16 ~ 2019. 6. 30	
7	〃	박중일	2019. 7. 1 ~ 현재	
제2진료본부장				
1	의사직	심재익	2001. 2. 6 ~ 2004. 2. 15	
2	〃	심홍방	2004. 3. 11 ~ 2006. 3. 12	
3	〃	지문표	2006. 3. 13 ~ 2009. 1. 8	
4	〃	김재오	2009. 1. 9 ~ 2011. 12. 20	
5	〃	김택선	2011. 12. 21 ~ 2013. 12. 31	
6	〃	박관호	2014. 1. 1 ~ 2016. 6. 15	제2진료본부장
7	〃	노상익	2016. 6. 16 ~ 2018. 2. 28	
8	〃	이정기	2018. 3. 1 ~ 현재	
제3진료부장(직제폐지)				
1	의사직	김정례	2001. 4. 1 ~ 2005. 3. 1	
2	〃	박현혜	2005. 3. 2 ~ 2008. 12. 31	
3	〃	이명희	2009. 1. 1 ~ 2011. 12. 20	
치과병원장				
1	의사직	박필규	2008. 2. 1 ~ 2016. 12. 31	치과병원장
2	〃	장영일	2017. 3. 6 ~ 2020. 7. 19	
3	〃	이근우	2020. 7. 20 ~ 현재	
교육수련실장				
1	의사직	변종훈	1994. 1. 1 ~ 1999. 1. 27	
2	〃	심재식	1999. 1. 28 ~ 2005. 3. 1	
3	〃	이상천	2005. 3. 2 ~ 2007. 2. 15	
4	〃	김택선	2007. 2. 16 ~ 2007. 6. 30	
5	〃	김택선	2007. 7. 1 ~ 2009. 1. 8	
6	〃	정문용	2009. 1. 9 ~ 2010. 7. 31	
7	〃	김춘동	2010. 8. 1 ~ 2011. 12. 20	
8	〃	이명희	2011. 12. 21 ~ 2014. 6. 30	교육연구부장
9	〃	전태희	2014. 7. 1 ~ 2017. 7. 16	교육연구실장
10	〃	안영미	2017. 7. 17 ~ 현재	교육수련실장
암 센터장				
1	의사직	이호석	2011. 6. 7 ~ 2016. 6. 23	
2	〃	조윤구	2016. 6. 24 ~ 현재	

대	직급	성명	재임(직)기간	비고
심혈관 센터장				
1	의사직	이 근	2011. 12. 21 ~ 2016. 6. 23	
2	〃	박훈기	2016. 6. 24 ~ 현재	
간호본부장				
1	간호2급	김암녀	1981. 11. 1 ~ 1993. 10. 31	간호과장
2	〃	김암녀	1993. 11. 1 ~ 1998. 12. 31	간호부장
3	간호1급	이정자	1999. 1. 1 ~ 2000. 7. 27	
4	〃	손홍례	2000. 8. 28 ~ 2002. 6. 31	
5	간호2급	이영순	2002. 7. 1 ~ 2009. 12. 31	
6	간호1급	최운규	2010. 1. 1 ~ 2014. 6. 30	
7	〃	김향숙	2014. 5. 1 ~ 2017. 12. 31	간호본부장
8	간호2급	강옥정	2018. 1. 1 ~ 2018. 1. 18	
9	〃	김숙희	2018. 1. 19 ~ 2018. 12. 31	
10	〃	김남옥	2019. 1. 1 ~ 2020. 6. 30	
11	〃	배정임	2020. 7. 1 ~ 현재	
약제실장				
1	약무2급	정휘영	1981. 11. 1 ~ 1986. 6. 30	약제과장
2	〃	김진애	1986. 7. 1 ~ 1993. 10. 31	
3	〃	김진애	1993. 11. 1 ~ 1998. 12. 22	약제부장
4	〃	최용순	1998. 11. 3 ~ 2001. 3. 4	
5	약무3급	김미정	2001. 3. 5 ~ 2003. 10. 31	
6	약무2급	류재곤	2003. 11. 1 ~ 2006. 3. 12	
7	〃	이태웅	2006. 3. 13 ~ 2007. 4. 30	
8	약무1급	류재곤	2007. 5. 1 ~ 2009. 1. 31	
9	〃	김미정	2009. 2. 1 ~ 2011. 2. 15	
10	〃	류재곤	2011. 2. 16 ~ 2012. 7. 4	
11	〃	정효근	2012. 8. 16 ~ 현재	약제실장
기획조정실장				
1	사무1급	배성준	1990. 1. 3 ~ 1990. 6. 4	기획부장
2	〃	박종필	1990. 6. 5 ~ 1994. 8. 6	
3	〃	김진기	1994. 8. 7 ~ 1997. 8.17	
4	〃	이길재	1997. 8.18 ~ 1998. 4. 3	
5	의사직	김춘동	2011. 12. 21 ~ 2014. 12. 20	기획조정실장
6	〃	박훈기	2014. 12. 22 ~ 2016. 6. 15	
7	〃	김봉석	2016. 6. 16 ~ 2018. 2. 28	
8	〃	정영진	2018. 3. 1 ~ 현재	
원무실장				
1	사무2급	임희택	2001. 3. 5 ~ 2002. 8. 11	
2	사무3급	제선주	2002. 12. 23 ~ 2003. 10. 31	
3	사무1급	이장호	2004. 11. 1 ~ 2006. 3. 12	
4	〃	임희택	2006. 3. 13 ~ 2007. 1. 28	
5	〃	천명주	2007. 1. 29 ~ 2007. 1. 31	
6	〃	이길재	2007. 2. 1 ~ 2007. 3. 14	
7	〃	천명주	2007. 3. 15 ~ 2009. 4. 21	
8	〃	이장호	2009. 4. 22 ~ 2010. 6. 31	
9	〃	이진방	2010. 7. 1 ~ 2011. 12. 20	
10	사무2급	제선주	2011. 12. 21 ~ 2012. 7. 3	
11	〃	이홍식	2012. 9. 17 ~ 2014. 6. 22	

대	직급	성명	재임(직)기간	비고
12	사무1급	성문수	2014. 6. 23 ~ 2017. 7. 9	
13	〃	김민숙	2017. 7. 10 ~ 2018. 7. 27	
14	사무2급	박명수	2018. 7. 28 ~ 2018. 8. 31	
15	사무1급	김정면	2018. 9. 1 ~ 2020. 6. 30	
16	〃	박명수	2020. 7. 1 ~ 현재	
운영실장				
1	사무1급	강영성	1983. 4. 1 ~ 1983. 8. 3	관리부장
2	〃	이상의	1983. 8.17 ~ 1986. 1.31	
3	〃	이영복	1986. 2. 1 ~ 1986.12. 9	
4	〃	배성준	1990. 6. 5 ~ 1991. 9.30	
5	〃	정진만	1991.10. 1 ~ 1994. 6.21	
6	〃	배국본	1994. 6.22 ~ 1996. 1.14	
7	〃	이화춘	1996. 1.15 ~ 1997. 8.17	
8	〃	이길재	1998.12.10 ~ 1999. 8.27	
9	〃	이길재	2001. 3. 5 ~ 2001. 8.27	
10	〃	김창석	2001. 5.28 ~ 2002. 8.11	
11	〃	김시종	2002. 8.12 ~ 2002.12.22	
12	사무2급	정영찬	2002.12.23 ~ 2003.10.31	
13	사무1급	이길재	2003.11. 1 ~ 2004.10.31	
14	〃	임희택	2004.11. 1 ~ 2006. 3.12	운영부장
15	〃	이길재	2006. 3.13 ~ 2007. 1.31	
16	〃	이성길	2007. 2. 1 ~ 2008.11. 9	
17	〃	김시종	2008.11.10 ~ 2009. 3.24	
18	〃	류건상	2009. 4. 22 ~ 2010. 6. 30	
19	〃	서재필	2010. 7. 1 ~ 2011.12.20	
20	〃	천명주	2011.12.21 ~ 2013.7.7	
21	〃	김우경	2013. 8. 5 ~ 2015. 4.16	
22	〃	임세용	2015. 4. 17 ~ 2016.6.30	운영실장
23	〃	김민숙	2016. 7. 1 ~ 2017.7.9	
24	〃	정금영	2017. 7. 10 ~ 2018. 8.31	
25	〃	채수정	2018. 9. 1 ~ 2019.6.30	
26	〃	이종훈	2019. 7. 1 ~ 현재	
중앙보훈병원 개원준비단장(직제폐지)				
1	사무1급	이진방	2006. 3.13 ~ 2009. 4. 8	병원준비단장
2	〃	김우경	2009. 9. 1 ~ 2011.12.20	병원개원준비단장
보장구센터장				
1	사무2급	이인선	1983. 3.22 ~ 1986. 1.31	의지창장
2	〃	이상엽	1986. 2. 1 ~ 1989. 1.15	
3	〃	강장근	1989. 1.16 ~ 1989. 5.31	
4	사무1급	박남기	1989. 6. 1 ~ 1990. 9.31	
5	〃	강장근	1990.10. 1 ~ 1991. 9.15	
6	〃	최복순	1991. 9.16 ~ 1992. 9.30	
7	〃	이인선	1992.10. 1 ~ 1993.10.31	
8	별정직	박종필	1993.11. 1 ~ 1994. 3.31	
9	사무1급	이동권	1994. 7. 5 ~ 1994.12.14	
10	별정직	이동권	1994.12.15 ~ 1996. 8.20	
11	〃	강현석	1996. 8.21 ~ 1996.11. 4	
12	의공2급	박윤서	1996.11. 5 ~ 1997. 8.17	직무대행

대	직급	성명	재임(직)기간	비고
13	사무1급	배국본	1997. 8.18 ~ 1998. 4.27	
14	의공2급	박윤서	1998. 4.28 ~ 1999. 3.31	직무대행
15	의공1급	박윤서	1999. 4. 1 ~ 2001. 3. 4	
16	〃	박윤서	2001. 3. 5 ~ 2007. 6.31	보장구센터소장
17	사무2급	이성복	2007. 7. 1 ~ 2008. 1.31	
18	사무1급	이장호	2008. 2. 1 ~ 2009. 4.21	
19	〃	이진방	2009. 4. 22 ~ 2010. 6. 30	
20	〃	박종식	2010. 9. 6 ~ 2012. 7. 3.	
21	〃	정영찬	2012. 7. 4. ~ 2014. 1.20.	
22	〃	류건상	2014. 1.21. ~ 2016. 9.29.	
23	〃	김민숙	2016.10. 1. ~ 2016.12.31.	겸직(운영실장)보장구센터장
24	〃	박준원	2017. 1. 1. ~ 2017.12.31.	
25	〃	김병택	2018. 1. 1 ~ 2018.12.31.	
26	의공2급	안동영	2019. 1. 1. ~ 2019. 6.30.	직무대행
27	사무1급	이종문	2019. 7. 1.~2019.12.31.	
28	〃	채수정	2020.1.1~현재	
부산보훈병원				
병원장				
1	별정직	양경호	1984. 1. 9 ~ 1984. 10. 30	부산원호병원장
2	〃	이학용	1984. 12. 8 ~ 1987. 12. 17	부산보훈병원장
3	〃	이학용	1987. 12. 18 ~ 1990. 12. 17	
4	〃	이헌치	1991. 1. 11 ~ 1993. 10. 31	
5	〃	이세종	1993. 12. 1 ~ 1996. 11. 30	
6	〃	손명길	1996. 12. 1 ~ 1999. 1. 14	
7	〃	이헌치	1999. 2. 1 ~ 2000. 10. 21	
8	〃	이헌치	2000. 10. 22 ~ 2003. 10. 21	
9	〃	이광평	2003. 10. 22 ~ 2006. 10. 21	
10	〃	윤상인	2006. 11. 1 ~ 2009. 10. 31	
11	별정직	박순규	2009. 11. 6 ~ 2012. 11. 5	
12	〃	박순규	2012. 11. 6 ~ 2015. 11. 5	
13	〃	김동현	2015. 11. 6 ~ 2018. 11. 5	
14	〃	백승완	2018. 11. 28 ~ 현재	
기획조정실장				
1	의사직	허정문	2021. 1. 1 ~ 현재	
제1진료부장				
1	의사직	이학용	1984. 3. 22 ~ 1984. 10. 31	진료부장
2	〃	오세원	1985. 9. 2 ~ 1986. 9. 1	
3	〃	박청길	1986. 9. 1 ~ 1994. 2. 1	
4	〃	서재영	1994. 2. 1 ~ 1996. 12. 31	
5	〃	이문태	1997. 1. 1 ~ 2001. 11. 10	
6	〃	안정모	2001. 11. 11 ~ 2005. 7.31	
7	〃	정진학	2005. 8. 1 ~ 2005. 10. 12	제1진료부장
8	〃	이상룡	2006. 9. 1 ~ 2015. 2. 9	
9	〃	이상룡	2015. 2. 10 ~ 2017. 4. 30	제1진료실장
10	〃	김학준	2017. 5. 1 ~ 현재	
제2진료부장				
1	의사직	안정모	2005. 8. 1 ~ 2009. 11. 30	
2	〃	여만수	2009. 12. 1 ~ 2014. 1. 9	제2진료부장

대	직급	성명	재임(직)기간	비고
3	〃	허정문	2014. 3. 1 ~ 2015. 2. 9	
4	〃	허정문	2015. 2. 10 ~ 2020. 12. 31	제2진료실장
5	〃	허원	2021. 1. 1 ~ 현재	
교육연구실장				
1	의사직	이종률	2005. 8. 1 ~ 2006. 8. 31	
2	〃	이장수	2006. 11. 20 ~ 2008. 12. 4	
3	〃	이진숙	2008. 12. 5 ~ 2015. 2. 9	교육연구부장
4	〃	이진숙	2015. 2. 10 ~ 현재	교육연구실장
적정진료실장				
1	의사직	노성우	2020. 1. 1 ~ 현재	
감염관리실장				
1	의사직	황선태	2020. 1. 1 ~ 현재	
간호실장				
1	간호2급	송효정	1984. 3. 2 ~ 2001. 3. 31	간호과장
2	간호1급	정정자	2001. 4. 1 ~ 2012. 6. 30	간호부장
3	〃	김정선	2012. 7. 1 ~ 2015. 2. 9	
4	〃	김정선	2015. 2. 10 ~ 2015. 6. 30	간호실장
5	〃	박윤선	2015. 7. 1 ~ 2019. 12. 18	
6	간호2급	조선화	2019. 12. 19 ~ 현재	
약제실장				
1	약무2급	손정남	1984. 2. 20 ~ 1999. 2. 8	약제과장
2	〃	이태웅	1999. 4. 12 ~ 2006. 3. 12	약제부장
3	약무1급	류재곤	2006. 3. 13 ~ 2007. 4. 30	
4	〃	김미정	2007. 5. 1 ~ 2009. 1. 31	
5	약무1급	김연희	2009. 2. 1 ~ 2015. 2. 9	
6	〃	김연희	2015. 2. 10 ~ 2021. 7. 31	약제실장
7	약무3급	김민정	2021. 8. 1 ~ 현재	
운영실장				
1	사무1급	한진규	1984. 1. 1 ~ 1987. 12. 31	관리부장
2	〃	민병성	1988. 1. 1 ~ 1988. 12. 14	
3	〃	이영복	1988. 12. 15 ~ 1990. 1. 9	
4	〃	손창희	1990. 1. 10 ~ 1993. 10. 31	
5	〃	이윤옥	1993. 11. 1 ~ 1996. 1. 14	
6	〃	배국본	1996. 1. 15 ~ 1997. 8. 17	
7	〃	이정수	1997. 8. 18 ~ 1998.12. 9	
8	〃	김진기	1998. 12. 10 ~ 1999. 3. 7	
9	〃	이윤옥	1999. 3. 8 ~ 2004. 10. 31	
10	〃	김영진	2004. 11. 1 ~ 2006. 3. 12	운영부장
11	〃	이장호	2006. 3. 13 ~ 2006. 10. 24	
12	〃	이규원	2006. 10. 25 ~ 2008. 11. 9	
13	〃	김영진	2008. 11. 10 ~ 2010. 6. 30	
14	〃	이성길	2010. 7. 1 ~ 2011. 6. 26	
15	사무2급	이선우	2011. 6. 27 ~ 2012. 7. 3	
16	사무1급	박종식	2012. 7. 4 ~ 2013. 10. 13	
17	사무2급	최정목	2013. 10. 14 ~2014. 1. 13	직무대행
18	사무1급	이희룡	2014. 1. 14 ~ 2014. 6. 22	
19	〃	이홍식	2014. 6. 23 ~ 2017. 6. 30	운영실장
20	〃	채수정	2017. 7. 10 ~ 2017. 12. 31	

대	직급	성명	재임(직)기간	비고
21	〃	조정현	2018. 1. 1 ~ 2019. 12. 31	
22	〃	이규인	2020. 1. 1 ~ 현재	
광주보훈병원				
병원장				
1	별정직	김학운	1986. 12. 10 ~ 1989. 12. 9	
2	〃	김학운	1989. 12. 10 ~ 1992. 12. 9	
3	〃	장인원	1992. 12. 10 ~ 1995. 12. 9	
4	〃	장인원	1995. 12. 10 ~ 1999. 2. 28	
5	〃	이원구	1999. 3. 1 ~ 2002. 2. 28	
6	〃	이원구	2002. 3. 1 ~ 2004. 2. 29	
7	〃	김 엽	2004. 3. 1 ~ 2006. 9. 30	
8	“	정창영	2006. 10. 9 ~ 2009. 10. 8	
9	“	정창영	2009. 10. 9 ~ 2012. 10. 8	
10	“	정광익	2012. 11. 8 ~ 2015. 11. 7	
11	“	정광익	2015. 11. 8 ~ 2016. 11. 7	
12	“	정광익	2016. 11. 8 ~ 2017. 11. 10	
13	“	김재휴	2018. 3. 16 ~ 2021. 3. 15	
14	“	김재휴	2021. 3. 16 ~ 현재	
기획조정실장				
1	의사직	조홍만	2021. 1. 1. ~ 현재	
제1진료실장				
1	의사직	정성광	1987. 4. 1 ~ 1992. 9. 30	진료부장
2	〃	김 엽	1992. 10. 1 ~ 1999. 1. 31	
3	〃	김 완	1999. 2. 1 ~ 2000. 8. 27	
4	〃	송성환	2000. 8. 28 ~ 2004. 3. 10	
5	〃	김 완	2004. 3. 11 ~ 2009. 10. 11	제1진료부장
6	〃	정광익	2009. 10. 12 ~ 2012. 11. 07	
7	〃	류형선	2012. 12. 1 ~ 2014. 2. 28	
8	“	임종철	2014. 3. 1 ~ 2017. 2. 20	제1진료실장
9	“	오형균	2017. 2. 21 ~ 2018. 6. 30	
10	“	박창민	2018. 7. 1. ~ 2020. 6. 30	
11	“	오형균	2020. 7. 1 ~ 현재	
제2진료실장				
1	의사직	송성환	2004. 3. 11 ~ 2009. 10. 11	제2진료부장
2	〃	박봉주	2009. 10. 12 ~ 2012. 11. 30	
3	“	김용수	2012. 12. 01 ~ 2018. 4. 3.	제2진료실장
4	“	조홍만	2018. 4. 4. ~ 2019. 12. 31.	
5	“	오병석	2020. 1. 1. ~ 현재	
교육연구실장				
1	전문직	송성환	1999. 2. 1 ~ 2000. 8. 27	수련부장
2	〃	명재일	2000. 8. 28 ~ 2001. 9. 30	
3	〃	류형선	2001. 10. 1 ~ 2004. 3. 10	교육연구부장
4	〃	국명희	2004. 3. 11 ~ 2012. 11. 30	
5	〃	김세찬	2012. 12. 1 ~ 2014. 9. 21	
6	“	오형균	2014. 9. 22. ~ 2017. 2. 20	교육연구실장
7	“	윤서라	2017. 2. 21. ~ 2018. 6. 30	
8	“	손효림	2018. 7. 1. ~ 현재	

대	직급	성명	재임(직)기간	비고
적정진료실장				
1	의사직	박재우	2020. 1. 1 ~ 현재	
감염관리실장				
1	의사직	김윤희	2020. 1. 1 ~ 현재	
간호실장				
1	간호2급	박소미	1987. 4. 25 ~ 1988. 12. 9	간호과장
2	〃	정영숙	1988. 12. 10 ~ 2003. 1. 1	
3	간호1급	정영숙	2003. 1. 2 ~ 2006. 12. 31	간호부장
4	간호2급	임경순	2007. 1. 1. ~ 2010. 9. 30.	
5	간호1급	범정옥	2010. 10. 1. ~ 2011. 12. 31.	
6	간호2급	심경주	2012. 1. 1. ~ 2015. 1. 31.	
7	간호1급	황보경	2015. 2. 1. ~ 2020. 12. 31.	
8	간호2급	심은실	2021. 1. 1. ~ 현재	
약제실장				
1	약무2급	정동영	1987. 4. 25 ~ 1988. 10. 30	약제과장
2	〃	고우영	1988. 11. 1 ~ 2003. 4. 8	
3	〃	류재곤	2003. 4. 9 ~ 2003. 10. 31	약제부장
4	약무3급	박근경	2003. 11. 11 ~ 2006. 3. 12	
5	〃	김혜숙	2006. 3. 13 ~ 2007. 4. 30.	
6	약무2급	박근경	2007. 5. 1. ~ 2010. 1. 25	
7	약무1급	류재곤	2010. 1. 26 ~ 2011. 2. 15	
8	약무1급	박근경	2011. 2. 16. ~ 현재	약제실장
운영실장				
1	사무1급	김규철	1985. 1. 28 ~ 1988. 12. 31	관리부장
2	〃	김기풍	1989. 1. 16 ~ 1991. 2. 10	
3	〃	이인선	1991. 2. 11 ~ 1992. 9. 30	
4	〃	이창희	1992. 10. 01 ~ 1996. 1. 14	
5	〃	이윤옥	1996. 1. 15 ~ 1997. 10. 22	
6	〃	백운기	1997. 10. 23 ~ 1998. 4. 03	
7	〃	이길재	1998. 4. 4 ~ 1998. 12. 09	
8	“	김유희	1998. 12. 10 ~ 2000. 8. 27	
9	“	박형식	2000. 8. 28 ~ 2000. 3. 4	
10	사무2급	이진방	2000. 3. 5 ~ 2002. 08. 12	
11	〃	지병철	2002. 8. 13 ~ 2003. 10. 31	
12	사무1급	정영찬	2003. 11. 1 ~ 2004. 10. 31	
13	〃	이진방	2004. 11. 1 ~ 2006. 3. 12	운영부장
14	〃	김영진	2006. 3. 12 ~ 2008. 11. 9	
15	〃	김우경	2008. 11. 10 ~ 2009. 8. 31	
16	〃	이규원	2009. 10. 14 ~ 2011. 12. 20	
17	“	서재필	2011. 12. 21 ~ 2012. 6. 18	
18	〃	이세기	2012. 7. 4 ~ 2014. 6. 11	
19	〃	정규식	2014. 6. 23 ~ 2015. 2. 8	
20	〃	김재승	2015. 2. 9 ~ 2015. 6. 30	운영실장
21	〃	김원배	2015. 7. 1 ~ 2017. 7. 9	
22	〃	성문수	2017. 7. 10 ~ 2019. 6. 30	
23	〃	최찬목	2019. 7. 1 ~ 2021. 6. 30	
24	“	정금영	2021. 7. 1 ~ 현재	

대	직급	성명	재임(직)기간	비고
대구보훈병원				
병원장				
1	별정직	이치우	1993. 1. 6 ~ 1996. 1. 5	
2	〃	이치우	1996. 1. 6 ~ 1999. 1. 6	
3	〃	성창섭	1999. 5. 1 ~ 2004. 4. 30	
4	〃	인주철	2004. 5. 1 ~ 2010. 4. 30	
5	〃	박대팔	2010. 5. 6 ~ 2013. 5. 5	
6	〃	이상흔	2013. 5. 6 ~ 2017. 5. 5	
7	의사직	안재희	2017. 5. 6 ~ 2018. 4. 25	직무대행
8	별정직	조영래	2018. 4. 26 ~ 현재	
제1진료실장				
1	의사직	이순직	1993. 2. 12 ~ 2004. 5. 6	진료부장
2	〃	천종률	2004. 5. 7 ~ 2008. 12. 31	
3	〃	안재희	2009. 1. 1 ~ 2015. 2. 9	제1진료부장
4	〃	안재희	2015. 2. 10 ~ 2020. 11. 30	제1진료실장
5	〃	박재홍	2020. 12. 1 ~ 2020. 12. 31	
6	〃	박경건	2021. 1. 1 ~ 현재	
제2진료실장				
1	의사직	천종률	2009. 1. 1 ~ 2010. 9. 30	제2진료부장
2	〃	윤경혁	2010. 10. 1 ~ 2012. 2. 14	
3	〃	박동보	2012. 2. 15 ~ 2015. 2. 9	
4	〃	박동보	2015. 2. 10 ~ 2018. 4. 27	제2진료실장
5	〃	안재희	2018. 5. 2 ~ 2018. 5. 31	겸무
6	〃	위호욱	2018. 6. 1 ~ 현재	
교육연구실장				
1	의사직	김 욱	2009. 1. 1 ~ 2010. 9. 30	교육연구부장
2	〃	박 현	2010. 10. 1 ~ 2015. 2. 9	
3	〃	박 현	2015. 2. 10 ~ 2016. 10. 9	교육연구실장
4	〃	박재홍	2016. 10. 10 ~ 2020. 11. 30	
5	〃	박경건	2020. 12. 1 ~ 2020. 12. 31	
6	〃	허창욱	2021. 1. 1 ~ 현재	
적정진료실장				
1	의사직	박재홍	2020. 4. 1 ~ 2020. 11. 30	겸무
2	〃	허창욱	2020. 12. 1 ~ 2020. 12. 31	
3	〃	허창욱	2021. 1. 1 ~ 현재	겸무
감염관리실장				
1	의사직	손우진	2020. 4. 1 ~ 2020. 9. 6	
2	〃	김민정	2020. 9. 7 ~ 현재	
간호실장				
1	간호2급	김순희	1993. 2. 12 ~ 1996. 12. 31	간호과장
2	〃	심영숙	1997. 1. 1 ~ 2005. 3. 31	
3	〃	심영숙	2005. 4. 1 ~ 2008. 12. 31	간호부장
4	간호1급	서문자	2009. 1. 1 ~ 2014. 6. 30	
5	〃	한성남	2014. 7. 1 ~ 2015. 2. 9	
6	〃	한성남	2015. 2. 10 ~ 2016. 6. 30	간호실장
7	〃	전복순	2017. 1. 1 ~ 2020. 6. 30	
8	〃	박은주	2020. 7. 1 ~ 현재	

대	직급	성명	재임(직)기간	비고
약제실장				
1	약무2급	정재광	1993. 2. 12 ~ 1993. 2. 18	약제과장
2	〃	백수현	1993. 2. 19 ~ 2005. 10. 24	
3	약무4급	김민경	2005. 10. 25 ~ 2006. 3. 13	
4	약무1급	김미정	2006. 3. 14 ~ 2007. 4. 30	
5	약무2급	김민경	2007. 5. 1 ~ 2015. 2. 9	약제부장
6	약무1급	김민경	2015. 2. 10 ~ 현재	약제실장
운영실장				
1	사무1급	이정수	1993. 2. 12 ~ 1997. 8. 17	관리부장
2	〃	김진기	1997. 8. 18 ~ 1998. 12. 9	
3	〃	이정수	1999. 12. 10 ~ 2000. 8. 27	
4	〃	김시종	2000. 8. 28 ~ 2002. 8. 11	
5	〃	임희택	2002. 8. 12 ~ 2003. 10. 31	
6	〃	이성길	2003. 11. 1 ~ 2006. 1. 31	운영부장
7	〃	서재필	2006. 3. 13 ~ 2007. 7. 11	
8	〃	이익주	2007. 7. 12 ~ 2008. 11. 9	
9	〃	정규식	2008. 11. 10 ~ 2009. 11. 2	
10	〃	박종식	2009. 11. 3 ~ 2010. 9. 5	
11	사무2급	이선우	2010. 9. 6 ~ 2011. 2. 15	
12	사무1급	김종운	2011. 2. 16 ~ 2012. 7. 3	
13	〃	이선우	2012. 7. 4 ~ 2015. 2. 9	
14	〃	이선우	2015. 2. 10 ~ 2015. 6. 30	운영실장
15	사무2급	오윤균	2015. 7. 1. ~ 2016. 12. 31	
16	사무1급	조성제	2017. 1. 1 ~ 2018. 6. 30	
17	〃	이종문	2018. 7. 1 ~ 2019. 6. 30	
18	〃	정인채	2019. 7. 1 ~ 2020. 12. 31	
19	〃	장윤동	2021. 1. 1. ~ 현재	
대전보훈병원				
병원장				
1	별정직	이헌치	1997. 10. 22 ~ 1999. 1. 31	
2	〃	김 엽	1999. 2. 1 ~ 2002. 1. 31	
3	〃	김 엽	2002. 2. 1 ~ 2004. 2. 15	
4	〃	심재익	2004. 2. 16 ~ 2007. 2. 15	
5	〃	이상천	2007. 2. 16 ~ 2008. 7. 18	
6	〃	조현묵	2008. 11. 26 ~ 2011. 11. 25	
7	〃	조현묵	2011. 12. 2 ~ 2014. 12. 1	
8	〃	조현묵	2014. 12. 30 ~ 2017. 12. 29	
9	〃	송시현	2018. 3. 16 ~ 현재	
진료실장(직제폐지)				
1	의사직	홍인규	1997. 11. 10 ~ 2006. 3. 13	진료부장
2	〃	송인숙	2006. 3. 13 ~ 2009. 6. 1	
3	〃	최동석	2009. 6. 3 ~ 2011. 4. 10	
4	〃	박건영	2011. 4. 11 ~ 2014. 2. 28	진료실장
5	〃	조정옥	2014. 3. 1 ~ 2015. 2. 1	
6	〃	박건영	2015. 2. 1 ~ 2020. 12. 31	
기획조정실장				
1	의사직	박건영	2021. 1. 1 ~ 현재	

대	직급	성명	재임(직)기간	비고
제1진료실장				
1	의사직	김설영	2021. 1. 1 ~ 현재	
제2진료실장				
1	의사직	김범식	2021. 1. 1 ~ 현재	
교육연구실장				
1	의사직	송인숙	2000. 3. 1 ~ 2006. 2. 28	교육연구부장
2	〃	황익두	2006. 3. 1 ~ 2008. 5. 20	
3	〃	박건영	2009. 6. 1 ~ 2011. 4. 11	
4	〃	임충현	2011. 4. 12 ~ 2012. 6. 29	
5	〃	이준철	2012. 7. 1 ~ 2014. 6. 21	
6	〃	안영섭	2014. 6. 23 ~ 2015. 2. 1	
7	〃	이준철	2015. 2. 2 ~ 2018. 3. 31	교육연구실장
8	〃	최석우	2018. 4. 1 ~ 2021. 5. 31	
9	〃	최진호	2021. 6. 1 ~ 현재	
간호실장				
1	간호2급	정영실	1996. 3. 11 ~ 2010. 6. 30	간호부장
2	〃	안정남	2010. 7. 1 ~ 2012. 12. 31	
3	〃	이옥주	2013. 1. 1 ~ 2016. 6. 30	간호실장
4	간호1급	이혜숙	2016. 7. 1 ~ 2021. 6. 30	
5	〃	이경호	2021. 7. 1 ~ 현재	
약제실장				
1	약무2급	류재근	1997. 6. 5 ~ 2000. 8. 27	약제과장
2	약무4급	김혜숙	2000. 8. 28 ~ 2006. 3. 12	
3	약무2급	박근경	2006. 3. 13 ~ 2007. 4. 30	
4	약무1급	김혜숙	2007. 5. 1 ~ 2011. 2. 15	약제부장
5	〃	김미정	2011. 2. 16 ~ 2012. 2. 13	
6	〃	김혜숙	2012. 2. 14 ~ 현재	약제실장
운영실장				
1	사무1급	이상무	1997. 3. 13 ~ 2001. 3. 5	관리부장
2	〃	김윤희	2001. 3. 5 ~ 2002. 12. 23	
3	〃	김시종	2002. 12. 23 ~ 2003. 11. 1	
4	〃	서재필	2004. 3. 1 ~ 2005. 8. 1	운영부장
5	〃	이길재	2005. 8. 1 ~ 2006. 3. 13	
6	〃	서동기	2006. 3. 13 ~ 2006. 11. 13	
7	〃	박종식	2006. 11. 13 ~ 2007. 5. 1	
8	〃	김시종	2007. 5. 1 ~ 2008. 11. 10	
9	〃	이 선	2008. 11. 10 ~ 2010. 5. 16	
10	사무2급	김병택	2010. 7. 1 ~ 2011. 12. 20	
11	사무1급	이규원	2011. 12. 21 ~ 2013. 10. 13	
12	〃	정영권	2013. 10. 14 ~ 2014. 8. 26	
13	〃	정규식	2015. 2. 9 ~ 2016. 6. 30	운영실장
14	〃	안희권	2016. 7. 1 ~ 2018. 6. 30	
15	〃	이상진	2018. 7. 1 ~ 2018. 12. 31	
16	사무2급	김동휘	2019. 1. 1 ~ 2019. 12. 31	
17	사무1급	이종문	2020. 1. 1 ~ 현재	
인천보훈병원				
병원장				
1	별정직	김영찬	2018. 5. 1 ~ 현재	

대	직급	성명	재임(직)기간	비고
진료실장				
1	의사직	오정우	2018. 9. 1 ~ 현재	
간호실장				
1	간호3급	손대옥	2018. 9. 1 ~ 2020. 11. 8	
2	〃	오경숙	2020. 11. 9 ~ 현재	
약제실장				
1	약무3급	송수진	2018. 8. 1 ~ 현재	
운영실장				
1	사무1급	구길환	2018. 5. 1 ~ 2018. 12. 31	
2	〃	이용재	2019. 1. 1 ~ 2019. 12. 31	
3	〃	조정현	2020. 1. 1 ~ 2020. 6. 3.0	
4	〃	전영의	2020. 7. 1 ~ 2021. 6. 30	
5	〃	박진배	2021. 7. 1 ~ 현재	
보훈교육연구원				
보훈교육연구원장				
1	별정직	장귀호	1999. 1. 28 ~ 1999. 12. 31	보훈연수원장
2	〃	김세진	2000. 2. 8 ~ 2001. 12. 31	보훈교육연구원장
3	〃	김형중	2002. 2. 1 ~ 2003. 6. 30	
4	〃	김형중	2003. 7. 1 ~ 2004. 6. 30	
5	〃	임웅환	2004. 7. 12 ~ 2007. 7. 11	
6	〃	김경의	2007. 7. 12 ~ 2009. 10. 9	
7	〃	오일환	2009. 12. 14 ~ 2012. 12. 13	
8	〃	오일환	2012. 12. 14. ~ 2013. 12. 13	
9	〃	오일환	2013. 12. 14 ~ 2014. 12. 13	
10	〃	오일환	2014. 12. 14 ~ 2015. 12. 13	
11	〃	오일환	2015. 12. 14 ~ 2016. 12. 13	
12	〃	이영옥	2017. 2. 1 ~ 2020. 1. 31	
13	〃	이찬수	2020. 2. 11 ~ 현재	
연수실장(직제폐지)				
1	사무1급	이 선	1999. 3. 1 ~ 2000. 8. 27	
2	〃	이길재	2000. 8. 28 ~ 2001. 3. 4	
보훈원				
보훈원장				
1	사무1급	박오규	1993. 4. 1 ~ 1995. 9. 30	
2	〃	이길재	1997. 7. 1 ~ 1997. 8. 18	
3	〃	백운기	1997. 8. 18 ~ 1997. 10. 23	
4	〃	이윤욱	1997. 10. 23 ~ 1999. 3. 7	
5	〃	김진기	1999. 3. 7 ~ 1999. 8. 16	
6	〃	박형식	1999. 8. 16 ~ 2000. 8. 28	
7	〃	김윤희	2000. 8. 28 ~ 2001. 3. 5	
8	〃	김경의	2001. 10. 19 ~ 2002. 8. 11	
9	〃	김창석	2002. 8. 12 ~ 2004. 9. 30	
10	〃	김시종	2004. 11. 1 ~ 2006. 3. 12	
11	〃	김경의	2006. 3. 13 ~ 2007. 4. 30	
12	〃	정영찬	2007. 5. 1 ~ 2009. 4. 21	
13	〃	임희택	2009. 4. 22 ~ 2009. 10. 13	
14	〃	이익주	2009. 10. 14 ~ 2010. 6. 30	
15	〃	류건상	2010. 7. 1 ~ 2011. 2. 15	

대	직급	성명	재임(직)기간	비고
16	〃	이성복	2011. 2. 16 ~ 2012. 7. 3	
17	사무1급	서동기	2012. 7. 4. ~ 2013. 1. 20	
18	〃	김우경	2013. 1. 21 ~ 2013. 8. 4	
19	〃	신정우	2013. 8. 5 ~ 2015. 6. 30	
20	〃	박장희	2015. 7. 1 ~ 2015. 12. 31	
21	〃	김우경	2016. 1. 1 ~ 2016. 6. 12	
22	〃	박준원	2016. 7. 1 ~ 2016. 12. 31	
23	〃	김재승	2017. 1. 1 ~ 2019. 12. 31	
24	사무2급	심재일	2020. 1. 1 ~ 2020. 6. 30	
25	사무1급	이기생	2020.. 7. 1 ~ 2021. 6. 30	
26	〃	조정현	2021. 7. 1 ~ 현재	
수원보훈요양원				
수원보훈요양원장				
1	사무1급	서재필	2008. 7. 1 ~ 2009. 10. 13	
2	〃	서동기	2009. 10. 14 ~ 2011. 5. 31	
3	〃	이성길	2011. 6. 27 ~ 2012. 7. 3	
4	〃	제선주	2012. 7. 4 ~ 2014. 4. 30	
5	〃	이세기	2014. 6. 23 ~ 2017. 6. 30	
6	〃	김원배	2017. 7. 11 ~ 2018. 6. 30	
7	〃	조성제	2018. 7. 1 ~ 2020. 6. 30	
8	〃	김정면	2020. 7. 1 ~ 현재	
광주보훈요양원				
광주보훈요양원장				
1	사무1급	서동기	2008. 7. 1 ~ 2009. 10. 13	
2	〃	서재필	2009. 10. 14 ~ 2010. 6. 30	
3	사무2급	제선주	2010. 7. 1 ~ 2011. 12. 20	
4	사무1급	이진방	2011. 12. 21 ~ 2012. 7. 3	
5	사무2급	신정우	2012. 7. 4 ~ 2013. 8. 4	
6	〃	박종갑	2013. 8. 5 ~ 2014. 12. 31	
7	사무1급	임연숙	2015. 1. 1 ~ 2015. 12. 31	
8	〃	박장희	2016. 1. 1 ~ 2018. 12. 31	
9	〃	박준원	2019. 1. 1 ~ 2020. 6. 30	
10	사무2급	고 속	2020. 7. 1 ~ 2020. 12. 13	직무대행
11	사무1급	고 속	2020. 12. 14 ~ 현재	
김해보훈요양원				
김해보훈요양원장				
1	사무1급	이성길	2008. 11. 10 ~ 2010. 6. 30	
2	사무2급	이회룡	2010. 7. 1 ~ 2012. 7. 3	
3	사무1급	최병익	2012. 7. 4 ~ 2014. 7. 7	
4	〃	임석천	2014. 7. 8 ~ 2018. 12. 31	
5	〃	구길환	2019. 1. 1 ~ 2019. 12. 31	
6	〃	김동휘	2020. 1. 1 ~ 2020. 12. 31	
7	〃	김재화	2021. 1. 1 ~ 2021. 6. 30	
8	사무2급	이광호	2021. 7. 1 ~ 현재	
대구보훈요양원				
대구보훈요양원장				
1	사무1급	서동기	2011. 6. 1 ~ 2012. 7. 3	

대	직급	성명	재임(직)기간	비고
2	〃	이성복	2012. 7. 4 ~ 2015. 6. 30	
3	〃	이선우	2015. 7. 1 ~ 2016. 6. 30	
4	〃	구명서	2016. 7. 1 ~ 2018. 8. 31	
5	〃	김재화	2018. 9. 1 ~ 2019. 6. 30	
6	〃	장윤동	2019. 7. 1 ~ 2020. 12. 31	
7	〃	정인채	2021. 1. 1 ~ 현재	
대전보훈요양원				
대전보훈요양원장				
1	사무1급	류건상	2012. 10. 30 ~ 2013. 10. 13	
2	〃	이규원	2013. 10. 14 ~ 2015. 4. 16	
3	〃	천명주	2015. 4. 17 ~ 2018. 12. 31	
4	〃	이종태	2019. 1. 1 ~ 2019. 6. 30	
5	〃	김주천	2019. 7. 1 ~ 2020. 6. 30	
6	〃	박영욱	2020. 7. 1 ~ 현재	
남양주보훈요양원				
남양주보훈요양원장				
1	사무1급	안희권	2015. 1. 1 ~ 2016. 6. 30	
2	〃	김종운	2016. 7. 1 ~ 2018. 6. 30	
3	〃	최찬목	2018. 7. 1 ~ 2019. 06. 30	
4	〃	박명수	2019. 7. 1 ~ 2020. 6. 30	
5	〃	조성제	2020. 7. 1 ~ 현재	
원주보훈요양원				
원주보훈요양원장				
1	사무1급	전봉안	2020. 9. 7 ~ 현재	
보훈재활체육센터				
보훈재활체육센터장				
1	사무2급	신정우	2011. 6. 27 ~ 2012. 7. 3	
2	〃	안희권	2012. 7. 4 ~ 2013. 1. 20	
3	사무1급	구명서	2013. 1. 21 ~ 2014. 1. 19	
4	〃	안희권	2014. 1. 20 ~ 2014. 8. 7	
5	사무3급	정진복	2014. 8. 8 ~ 2014. 12. 31	직무대행
6	사무1급	구명서	2015. 1. 1 ~ 2015. 12. 31	
7	사무3급	정진복	2016. 1. 1 ~ 2016. 6. 30	
8	사무1급	이종진	2016. 7. 1 ~ 2019. 6. 30	
9	사무2급	공운석	2019. 7. 1 ~ 2020. 6. 30	
10	〃	황윤영	2020. 7. 1 ~ 현재	
보훈휴양원				
보훈휴양원장				
1	촉탁직	유희숙	1996. 6. 1 ~ 1997. 2. 17	
2	〃	김명효	1997. 2. 18 ~ 1997. 5. 5	직무대행
3	〃	양순임	1997. 5. 6 ~ 2014. 12. 31	
4	사무2급	차승연	2015. 1. 1 ~ 2017. 12. 31	
5	〃	이준신	2018. 2. 26 ~ 현재	

III 보훈병원 현황

1. 진료실적

보훈병원 진료

진료인원 (단위 : 천 명)

연도	구분	합계			국비			감면			일반		
		계	입원	외래	계	입원	외래	계	입원	외래	계	입원	외래
2011	중앙	1,270	289	981	769	198	571	464	83	381	37	9	29
	부산	633	173	460	464	131	333	137	36	101	32	7	26
	광주	688	183	505	417	112	305	179	48	131	92	23	69
	대구	509	168	341	303	113	190	159	42	117	47	13	34
	대전	391	120	272	273	88	185	88	24	64	30	8	22
	인천	-	-	-	-	-	-	-	-	-	-	-	-
	계	3,491	933	2,559	2,226	642	1,584	1,027	233	794	238	60	180
2012	중앙	1,407	327	1,081	831	214	617	535	101	433	42	12	31
	부산	644	174	470	473	136	337	137	33	104	35	6	29
	광주	717	189	528	438	115	323	187	50	136	93	24	68
	대구	509	164	345	309	115	195	159	40	119	41	10	31
	대전	411	121	290	286	91	195	97	23	74	28	7	22
	인천	-	-	-	-	-	-	-	-	-	-	-	-
	계	3,688	975	2,714	2,337	671	1,667	1,115	247	866	239	59	181
2013	중앙	1,441	331	1,109	853	216	638	550	107	442	38	9	29
	부산	656	175	481	481	138	343	140	32	109	35	5	29
	광주	712	191	520	429	118	311	190	51	139	93	23	70
	대구	523	166	356	321	118	204	160	39	122	41	10	31
	대전	428	120	308	295	90	205	103	23	80	29	7	23
	인천	-	-	-	-	-	-	-	-	-	-	-	-
	계	3,760	983	2,774	2,379	680	1,701	1,143	252	892	236	54	182
2014	중앙	1,489	331	1,158	878	211	666	567	107	460	45	12	32
	부산	682	176	506	498	139	359	148	32	116	36	5	31
	광주	722	189	532	429	112	317	193	52	141	99	25	74
	대구	530	169	360	325	121	203	162	39	123	43	9	34
	대전	430	114	317	295	85	211	105	23	82	30	6	24
	인천	-	-	-	-	-	-	-	-	-	-	-	-
	계	3,853	979	2,873	2,425	668	1,756	1,175	253	922	253	57	195
2015	중앙	1,521	335	1,185	900	213	686	570	106	464	51	16	35
	부산	678	166	512	497	135	362	145	25	120	36	5	31
	광주	716	187	529	427	110	317	191	52	139	98	25	73
	대구	529	167	361	323	119	203	167	40	127	39	8	31
	대전	457	127	330	310	92	217	115	27	88	32	8	24
	인천	-	-	-	-	-	-	-	-	-	-	-	-
	계	3,901	982	2,917	2,457	669	1,785	1,188	250	938	256	62	194

연도	구분	합계			국비			감면			일반		
		계	입원	외래	계	입원	외래	계	입원	외래	계	입원	외래
2016	중앙	1,505	321	1,183	846	197	649	600	107	493	58	17	41
	부산	709	181	529	520	147	373	152	29	123	38	5	33
	광주	716	180	535	424	106	318	190	50	140	102	25	77
	대구	533	165	367	325	119	205	168	38	130	40	8	32
	대전	478	130	348	321	95	227	121	27	94	35	8	27
	인천	-	-	-	-	-	-	-	-	-	-	-	-
	계	3,941	977	2,962	2,436	664	1,772	1,231	251	980	273	63	210
2017	중앙	1,592	332	1,259	919	207	712	613	108	505	60	17	42
	부산	698	173	525	514	142	372	148	27	122	36	5	32
	광주	725	179	546	427	103	324	197	52	145	102	24	78
	대구	529	159	370	323	116	207	166	35	131	40	7	33
	대전	472	124	349	313	89	224	120	27	93	39	8	31
	인천	-	-	-	-	-	-	-	-	-	-	-	-
	계	4,016	967	3,049	2,496	657	1,839	1,244	249	996	277	61	216
2018	중앙	1,587	331	1,256	881	200	682	646	115	531	59	16	43
	부산	707	170	537	498	130	368	171	35	136	38	5	33
	광주	744	180	564	429	103	326	214	52	162	101	24	77
	대구	529	152	376	311	107	203	178	38	140	40	7	33
	대전	505	127	378	321	88	233	143	29	113	42	10	32
	인천	23	2	22	9	1	8	13	1	12	2	-	1
	계	4,095	962	3,133	2,449	629	1,820	1,365	270	1,094	282	62	219
2019	중앙	1,623	325	1,298	881	192	689	682	118	563	61	15	46
	부산	718	159	559	497	122	375	178	30	148	42	6	36
	광주	739	179	560	424	105	319	212	49	163	103	25	78
	대구	528	149	379	307	105	202	184	38	147	36	7	29
	대전	526	122	405	328	82	245	157	30	126	42	9	33
	인천	152	24	128	53	10	43	91	13	78	8	1	7
	계	4,286	958	3,329	2,490	616	1,873	1,504	278	1,225	292	63	229
2020	중앙	1,480	280	1,200	795	161	634	623	100	523	61	19	43
	부산	684	150	535	472	114	358	171	29	142	41	6	35
	광주	655	162	493	380	97	283	187	45	142	87	20	67
	대구	451	126	325	263	87	176	154	29	125	34	10	23
	대전	476	103	373	292	68	223	141	25	116	44	9	34
	인천	157	28	129	55	11	44	93	15	77	9	2	7
	계	3,903	849	3,055	2,257	538	1,718	1,369	243	1,125	276	66	209

진료금액

(단위 : 백만 원)

연도	구분	합계			국비			감면			일반		
		계	입원	외래	계	입원	외래	계	입원	외래	계	입원	외래
2011	중앙	169,627	70,621	99,005	110,845	50,464	60,381	55,536	18,315	37,221	3,245	1,842	1,403
	부산	67,217	31,429	35,788	55,135	24,846	30,288	10,140	5,645	4,495	1,943	938	1,005
	광주	67,420	34,236	33,184	45,334	21,669	23,665	15,308	8,440	6,868	6,778	4,127	2,651
	대구	55,604	22,038	33,566	37,807	15,281	22,526	14,972	5,290	9,682	2,825	1,467	1,358
	대전	37,376	17,398	19,977	27,757	12,552	15,204	7,406	3,700	3,706	2,213	1,146	1,067
	인천	-	-	-	-	-	-	-	-	-	-	-	-
	계	397,244	175,722	221,520	276,878	124,812	152,064	103,362	41,390	61,972	17,004	9,520	7,484
2012	중앙	199,281	81,141	118,140	128,306	55,827	72,479	67,358	22,752	44,606	3,617	2,562	1,055
	부산	70,099	32,186	37,913	58,217	26,272	31,945	10,018	5,142	4,876	1,865	773	1,092
	광주	72,736	36,137	36,599	48,802	22,823	25,979	16,895	9,025	7,870	7,039	4,289	2,750
	대구	59,761	23,270	36,491	42,286	17,064	25,222	15,342	5,298	10,044	2,133	908	1,225
	대전	43,798	19,097	24,701	33,331	14,320	19,010	8,171	3,642	4,530	2,296	1,135	1,161
	인천	-	-	-	-	-	-	-	-	-	-	-	-
	계	445,675	191,831	253,844	310,942	136,306	174,635	117,784	45,859	71,926	16,950	9,667	7,283
2013	중앙	212,365	86,661	125,704	142,770	60,320	82,449	66,592	23,982	42,610	3,003	2,359	644
	부산	72,132	31,784	40,348	60,083	26,098	33,985	10,211	4,972	5,239	1,838	714	1,124
	광주	76,379	37,697	38,682	53,475	24,488	28,987	15,999	9,051	6,948	6,905	4,158	2,747
	대구	64,743	25,499	39,244	47,354	18,758	28,596	14,658	5,167	9,491	2,731	1,574	1,157
	대전	47,785	19,794	27,991	37,241	14,984	22,258	8,314	3,648	4,666	2,230	1,162	1,068
	인천	-	-	-	-	-	-	-	-	-	-	-	-
	계	473,404	201,435	271,969	340,923	144,648	196,275	115,774	46,820	68,954	16,707	9,967	6,740
2014	중앙	226,330	94,130	132,200	149,475	64,422	85,053	71,967	25,688	46,279	4,888	4,019	868
	부산	76,842	33,285	43,557	63,668	27,256	36,412	11,309	5,384	5,925	1,865	644	1,221
	광주	76,973	38,176	38,797	52,274	23,580	28,694	16,817	9,603	7,214	7,882	4,993	2,889
	대구	65,654	26,839	38,815	47,639	20,012	27,627	15,267	5,376	9,891	2,748	1,451	1,297
	대전	47,929	19,216	28,713	37,290	14,657	22,633	8,455	3,455	5,001	2,184	1,105	1,079
	인천	-	-	-	-	-	-	-	-	-	-	-	-
	계	493,728	211,646	282,082	350,346	149,927	200,419	123,815	49,506	74,310	19,567	12,212	7,354
2015	중앙	237,421	103,543	133,877	156,960	71,675	85,285	75,415	28,089	47,325	5,046	3,779	1,267
	부산	77,907	34,271	43,636	64,410	28,560	35,851	11,317	4,781	6,536	2,180	931	1,249
	광주	79,091	39,602	39,489	53,307	24,553	28,754	17,328	9,770	7,558	8,456	5,279	3,177
	대구	67,408	28,359	39,049	48,756	21,176	27,580	16,030	5,760	10,270	2,622	1,423	1,199
	대전	53,035	24,294	28,741	40,767	18,313	22,454	9,468	4,435	5,032	2,800	1,546	1,254
	인천	-	-	-	-	-	-	-	-	-	-	-	-
	계	514,862	230,069	284,792	364,200	164,277	199,924	129,558	52,835	76,721	21,104	12,958	8,146

연도	구분	합계			국비			감면			일반		
		계	입원	외래	계	입원	외래	계	입원	외래	계	입원	외래
2016	중앙	244,874	105,341	139,534	155,562	69,989	85,573	83,389	30,634	52,756	5,923	4,718	1,205
	부산	85,777	38,157	47,619	71,043	31,596	39,446	12,176	5,435	6,741	2,558	1,126	1,432
	광주	83,823	41,868	41,955	55,152	25,130	30,022	18,727	10,593	8,134	9,944	6,145	3,799
	대구	72,119	30,715	41,404	52,366	23,023	29,343	17,206	6,405	10,801	2,547	1,287	1,260
	대전	55,713	25,701	30,012	41,777	18,739	23,038	10,542	5,139	5,403	3,395	1,824	1,571
	인천	-	-	-	-	-	-	-	-	-	-	-	-
	계	542,306	241,782	300,524	375,900	168,477	207,422	142,040	58,206	83,835	24,367	15,100	9,267
2017	중앙	277,125	121,333	155,792	178,867	81,340	97,527	91,784	34,717	57,067	6,474	5,276	1,198
	부산	86,352	36,914	49,438	71,730	30,707	41,023	12,046	4,996	7,050	2,576	1,211	1,366
	광주	85,545	43,323	42,222	55,857	25,380	30,477	19,543	11,532	8,011	10,145	6,411	3,734
	대구	72,802	31,909	40,893	52,555	23,831	28,724	17,390	6,557	10,833	2,857	1,521	1,336
	대전	55,806	26,618	29,189	41,803	19,311	22,493	10,649	5,384	5,265	3,354	1,923	1,431
	인천	-	-	-	-	-	-	-	-	-	-	-	-
	계	577,630	260,097	317,534	400,812	180,569	220,244	151,412	63,186	88,226	25,406	16,342	9,065
2018	중앙	288,778	127,450	161,328	177,997	83,653	94,344	104,729	38,848	65,881	6,052	4,949	1,103
	부산	90,740	39,806	50,934	71,978	31,317	40,661	16,004	7,217	8,788	2,757	1,273	1,485
	광주	93,219	48,857	44,362	58,699	27,935	30,764	22,327	12,858	9,469	12,193	8,064	4,129
	대구	77,207	35,003	42,204	53,075	25,168	27,907	21,496	8,555	12,941	2,636	1,280	1,356
	대전	62,676	31,030	31,647	44,025	21,162	22,864	14,211	7,031	7,180	4,440	2,837	1,603
	인천	1,396	294	1,102	692	133	559	645	142	503	59	19	40
	계	614,016	282,440	331,577	406,466	189,368	217,099	179,412	74,651	104,762	28,137	18,422	9,716
2019	중앙	298,625	131,359	167,266	175,479	82,670	92,809	116,177	43,235	72,942	6,969	5,454	1,515
	부산	93,858	41,051	52,807	73,071	31,476	41,595	17,031	7,418	9,614	3,755	2,157	1,599
	광주	97,189	51,146	46,043	61,388	30,007	31,381	23,111	13,140	9,971	12,690	7,999	4,691
	대구	82,027	38,781	43,246	55,831	27,907	27,924	23,207	9,185	14,022	2,989	1,689	1,300
	대전	71,262	32,709	38,553	49,721	22,107	27,614	16,833	7,827	9,006	4,707	2,774	1,933
	인천	14,801	6,043	8,758	6,797	2,607	4,190	7,519	3,194	4,325	485	242	243
	계	657,762	301,089	356,673	422,287	196,774	225,513	203,878	83,999	119,880	31,595	20,315	11,281
2020	중앙	289,243	121,504	167,740	168,030	76,444	91,586	114,165	40,078	74,086	7,048	4,981	2,067
	부산	96,421	43,099	53,323	75,435	33,198	42,236	16,831	7,550	9,281	4,156	2,350	1,805
	광주	95,145	51,311	43,834	60,982	30,902	30,080	22,186	13,152	9,034	11,977	7,257	4,720
	대구	79,658	38,317	41,341	53,683	27,429	26,254	22,377	8,445	13,932	3,598	2,443	1,155
	대전	70,285	31,881	38,404	48,563	21,180	27,384	15,977	7,484	8,493	5,745	3,217	2,528
	인천	17,405	7,879	9,525	8,403	3,482	4,921	8,359	4,053	4,306	643	344	298
	계	648,157	293,991	354,167	415,096	192,635	222,461	199,895	80,762	119,132	33,167	20,592	12,573

전문위탁 진료

진료인원 (단위 : 천 명)

구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합계	중앙	68	65	71	61	66	54	59	61	66	66
	부산	72	85	93	85	89	85	86	90	102	83
	광주	27	26	28	28	29	32	30	33	34	35
	대구	49	55	59	52	52	57	54	57	68	63
	대전	48	44	47	55	53	49	44	53	46	40
	인천	-	-	-	-	-	-	-	-	-	-
	계	264	275	298	281	289	277	273	294	316	287
입원	중앙	10	12	12	11	10	6	8	9	7	7
	부산	53	60	67	59	62	60	59	59	65	52
	광주	15	15	15	16	15	17	16	16	17	17
	대구	30	35	36	31	30	35	32	34	39	34
	대전	24	20	22	25	26	23	21	28	23	19
	인천	-	-	-	-	-	-	-	-	-	-
	계	132	142	152	142	143	141	136	146	151	129
외래	중앙	58	53	59	50	56	48	51	52	59	59
	부산	19	25	26	26	27	25	27	31	37	31
	광주	12	11	13	12	14	15	14	17	17	18
	대구	19	20	23	21	22	22	22	23	29	29
	대전	24	24	25	30	27	26	23	25	23	21
	인천	-	-	-	-	-	-	-	-	-	-
	계	132	133	146	139	146	136	137	148	165	158

진료금액 (단위 : 백만 원)

구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합계	중앙	3,089	4,074	4,460	4,566	3,918	3,094	3,455	3,731	3,326	2,850
	부산	5,877	8,238	8,780	8,203	8,322	8,210	8,094	7,779	9,691	8,002
	광주	2,671	2,658	3,038	2,708	2,818	3,377	3,192	3,454	3,451	3,849
	대구	3,888	5,182	5,451	4,901	4,764	5,316	4,659	4,470	5,507	5,434
	대전	3,783	3,656	3,620	4,483	3,799	3,392	3,569	3,838	3,748	3,458
	인천	-	-	-	-	-	-	-	-	4	25
	계	19,308	23,808	25,349	24,861	23,621	23,389	22,969	23,272	25,727	23,618
입원	중앙	1,298	2,320	2,456	2,504	2,106	1,417	1,658	1,989	1,354	1,021
	부산	4,600	6,325	6,902	6,341	6,509	6,355	6,047	5,716	6,903	5,646
	광주	1,880	1,846	2,222	1,956	1,888	2,250	2,183	2,452	2,468	2,562
	대구	2,718	3,707	3,986	3,470	3,416	3,835	3,145	2,966	3,547	3,173
	대전	2,628	2,490	2,529	3,056	2,679	2,294	2,247	2,464	2,390	2,122
	인천	-	-	-	-	-	-	-	-	4	19
	계	13,124	16,688	18,095	17,327	16,598	16,151	15,280	15,587	16,666	14,543
외래	중앙	1,791	1,754	2,004	2,062	1,812	1,677	1,797	1,742	1,972	1,829
	부산	1,277	1,913	1,878	1,862	1,813	1,855	2,047	2,063	2,788	2,356
	광주	791	812	816	752	930	1,127	1,009	1,002	983	1,287
	대구	1,170	1,475	1,465	1,431	1,348	1,481	1,514	1,504	1,960	2,261
	대전	1,155	1,166	1,091	1,427	1,120	1,098	1,322	1,374	1,358	1,336
	인천	-	-	-	-	-	-	-	-	-	6
	계	6,184	7,120	7,254	7,534	7,023	7,238	7,689	7,685	9,061	9,075

응급통원 진료

진료인원 (단위: 천 명)

구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합계	중앙	26	26	36	31	33	30	39	43	38	34
	부산	18	17	19	19	21	20	21	22	22	24
	광주	4	4	3	4	4	4	6	8	8	9
	대구	7	8	7	7	7	9	8	9	11	11
	대전	11	10	10	9	10	13	11	12	10	9
	인천	-	-	-	-	-	-	-	-	7	6
	계	66	65	75	70	75	76	85	94	96	93
입원	중앙	24	24	30	29	30	27	34	38	32	27
	부산	9	7	9	8	8	8	9	10	10	10
	광주	3	3	3	3	3	3	4	5	5	5
	대구	6	7	6	6	6	8	7	8	10	9
	대전	5	5	5	4	4	4	5	6	5	5
	인천	-	-	-	-	-	-	-	-	7	6
	계	47	46	53	50	51	50	59	67	69	62
외래	중앙	2	2	6	2	3	3	5	5	6	7
	부산	9	10	10	11	13	12	12	12	12	14
	광주	1	1	-	1	1	1	2	3	3	4
	대구	1	1	1	1	1	1	1	1	1	2
	대전	6	5	5	5	6	9	6	6	5	4
	인천	-	-	-	-	-	-	-	-	-	-
	계	19	19	22	20	24	26	26	27	27	31

진료금액 (단위: 백만 원)

구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합계	중앙	3,239	3,112	4,231	4,235	4,387	3,908	5,290	5,370	5,000	4,475
	부산	1,564	1,376	1,783	1,573	1,886	1,752	1,873	2,013	1,896	2,036
	광주	292	392	370	363	459	488	674	854	743	877
	대구	794	1,005	891	955	1,038	1,353	1,201	1,404	1,631	1,532
	대전	680	768	925	751	754	855	817	909	902	910
	인천	-	-	-	-	-	-	-	-	1,028	958
	계	6,569	6,653	8,200	7,877	8,524	8,356	9,855	10,550	11,200	10,788
입원	중앙	3,045	2,934	3,960	4,002	4,095	3,657	4,916	4,956	4,556	4,022
	부산	1,343	1,117	1,494	1,245	1,489	1,350	1,461	1,586	1,515	1,630
	광주	247	366	328	329	313	409	578	699	586	732
	대구	711	918	802	838	898	1,162	1,032	1,208	1,415	1,319
	대전	592	686	822	632	630	704	706	789	787	806
	인천	-	-	-	-	-	-	-	-	956	921
	계	5,938	6,021	7,406	7,046	7,425	7,282	8,693	9,238	9,815	9,430
외래	중앙	194	178	271	233	292	251	374	414	444	453
	부산	221	259	289	328	397	402	412	427	381	406
	광주	45	26	42	34	146	79	96	155	157	145
	대구	83	87	89	117	140	191	169	196	216	213
	대전	88	82	103	119	124	151	111	120	115	104
	인천	-	-	-	-	-	-	-	-	72	37
	계	631	632	794	831	1,099	1,074	1,162	1,312	1,385	1,358

위탁병원 진료

지정현황 (단위: 개소)

구분	지역	합계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	의원	요양병원
합계		439	1	87	123	204	24
중앙	서울	47	-	1	13	31	2
	강원	41	1	8	9	22	1
	경기	64	-	18	20	24	2
	계	152	1	27	42	77	5
부산	부산	10	-	-	8	2	-
	울산	10	-	4	1	4	1
	경남동부	23	-	6	7	7	3
	경남서부	21	-	1	9	9	2
	제주	10	-	3	2	3	2
	계	74	-	14	27	25	8
광주	광주	23	-	3	7	13	-
	전남	31	-	9	9	13	-
	전북	31	-	6	7	17	1
	계	85	-	18	23	43	1
대구	대구	25	-	3	6	14	2
	경북남부	15	-	3	3	6	3
	경북북부	14	-	2	5	7	-
	계	54	-	8	14	27	5
대전	대전	11	-	1	2	8	-
	충남동부	9	-	3	1	5	-
	충남서부	14	-	3	8	3	-
	충북남부	14	-	3	4	6	1
	충북북부	10	-	2	3	3	2
	계	58	-	12	18	25	3
인천	인천	9	-	5	3	-	1
	경기	7	-	3	1	2	1
	계	16	-	8	4	2	2

진료인원 (단위 : 천 명)

구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국비	합계	중앙	1,246	1,345	1,283	1,396	1,315	1,355	1,366	1,350	1,361	1,088
		부산	689	694	787	818	681	774	735	704	731	698
		광주	460	505	475	462	475	453	427	398	439	425
		대구	359	355	377	401	334	379	341	340	335	321
		대전	193	239	201	206	211	204	213	219	208	193
		인천	-	-	-	-	-	-	-	-	-	152
		계	2,947	3,138	3,123	3,283	3,016	3,165	3,082	3,011	3,074	2,877
	입원	중앙	278	293	293	323	293	302	299	309	308	236
		부산	209	232	255	246	203	222	208	207	203	193
		광주	140	140	131	126	118	106	104	94	100	92
		대구	103	105	102	98	86	96	84	87	89	89
		대전	55	54	51	50	47	47	49	49	45	42
		인천	-	-	-	-	-	-	-	-	-	48
		계	785	824	832	843	747	773	744	746	745	700
	외래	중앙	968	1,052	990	1,073	1,022	1,053	1,067	1,041	1,053	852
		부산	480	462	532	572	478	552	527	497	528	505
		광주	320	365	344	336	357	347	323	304	339	333
		대구	256	250	275	303	248	283	257	253	246	232
		대전	138	185	150	156	164	157	164	170	163	151
		인천	-	-	-	-	-	-	-	-	-	104
		계	2,162	2,314	2,291	2,440	2,269	2,392	2,338	2,265	2,329	2,177
감면	합계	중앙	310	290	493	381	399	420	491	405	633	509
		부산	62	142	186	272	229	236	267	248	292	242
		광주	71	128	108	135	125	112	91	106	118	114
		대구	67	87	93	105	79	90	103	120	139	111
		대전	50	28	73	38	51	119	126	74	106	79
		인천	-	-	-	-	-	-	-	-	-	45
		계	560	675	953	931	883	977	1,078	953	1,288	1,100
	입원	중앙	141	122	235	185	176	184	232	189	268	222
		부산	7	73	96	117	110	112	119	117	141	114
		광주	41	72	61	78	72	63	48	61	62	58
		대구	35	47	47	51	40	50	62	71	90	77
		대전	29	16	39	21	34	67	57	42	58	41
		인천	-	-	-	-	-	-	-	-	-	31
		계	253	330	478	452	432	476	518	480	619	543
	외래	중앙	169	168	258	196	223	236	259	216	365	287
		부산	55	69	90	155	119	124	148	131	151	128
		광주	30	56	47	57	53	49	43	45	56	56
		대구	32	40	46	54	39	40	41	49	49	34
		대전	21	12	34	17	17	52	69	32	48	38
		인천	-	-	-	-	-	-	-	-	-	14
		계	307	345	475	479	451	501	560	473	669	557

진료금액 (단위 : 백만 원)

구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국비	합계	중앙	79,878	80,473	77,603	85,778	86,365	89,737	93,840	96,035	103,070	88,867
		부산	36,740	36,408	36,928	38,820	37,000	40,728	41,463	41,567	44,497	45,380
		광주	26,210	24,730	22,932	26,070	25,846	26,119	26,695	27,056	29,298	30,342
		대구	21,679	19,692	20,178	20,347	19,451	20,868	20,931	21,648	22,532	22,743
		대전	10,441	11,137	10,041	10,352	11,668	12,196	13,222	14,056	14,695	14,169
		인천	-	-	-	-	-	-	-	-	-	12,068
		계	174,948	172,440	167,682	181,367	180,330	189,648	196,151	200,362	214,092	213,569
	입원	중앙	11,491	12,441	12,400	14,264	14,070	14,546	14,676	15,842	18,278	14,905
		부산	6,344	7,055	6,861	7,299	6,787	7,857	7,706	8,100	9,423	9,833
		광주	3,785	3,876	3,925	4,067	4,118	3,941	4,109	4,102	4,881	5,220
		대구	2,845	3,031	2,906	2,897	2,596	3,005	2,787	3,233	3,721	3,903
		대전	1,531	1,682	1,375	1,606	1,776	1,827	2,019	2,107	2,076	1,983
		인천	-	-	-	-	-	-	-	-	-	2,546
		계	25,996	28,085	27,467	30,133	29,347	31,176	31,297	33,384	38,379	38,390
	외래	중앙	68,387	68,032	65,203	71,514	72,295	75,191	79,164	80,193	84,792	73,962
		부산	30,396	29,353	30,067	31,521	30,213	32,871	33,757	33,467	35,074	35,547
		광주	22,425	20,854	19,007	22,003	21,728	22,178	22,586	22,954	24,417	25,122
		대구	18,834	16,661	17,272	17,450	16,855	17,863	18,144	18,415	18,811	18,840
		대전	8,910	9,455	8,666	8,746	9,892	10,369	11,203	11,949	12,619	12,186
		인천	-	-	-	-	-	-	-	-	-	9,521
		계	148,952	144,355	140,215	151,234	150,983	158,472	164,854	166,978	175,713	175,179
감면	합계	중앙	4,930	4,474	6,898	5,717	6,448	6,565	8,340	8,044	14,647	13,194
		부산	2,337	1,949	2,638	3,828	3,393	3,598	4,399	4,824	6,318	5,907
		광주	887	1,541	1,312	1,740	1,588	1,639	1,366	2,052	2,640	2,877
		대구	791	1,087	1,100	1,231	1,017	1,169	1,377	1,948	2,858	2,394
		대전	630	359	949	520	673	1,664	1,562	1,274	2,634	2,115
		인천	-	-	-	-	-	-	-	-	-	1,038
		계	9,575	9,410	12,897	13,036	13,119	14,635	17,044	18,142	29,097	27,525
	입원	중앙	2,653	2,338	3,822	3,089	3,409	3,403	4,487	4,304	7,974	7,191
		부산	1,285	1,054	1,499	2,030	1,830	1,922	2,344	2,654	3,657	3,456
		광주	664	1,141	951	1,251	1,150	1,178	979	1,517	1,862	2,042
		대구	548	761	740	817	694	831	1,036	1,397	2,173	1,889
		대전	467	255	672	355	505	1,028	1,018	885	1,772	1,481
		인천	-	-	-	-	-	-	-	-	-	779
		계	5,617	5,549	7,684	7,542	7,588	8,362	9,864	10,757	17,438	16,838
	외래	중앙	2,277	2,136	3,076	2,628	3,039	3,162	3,853	3,740	6,673	6,003
		부산	1,052	895	1,139	1,798	1,563	1,676	2,055	2,170	2,661	2,451
		광주	223	400	361	489	438	461	387	535	778	835
		대구	243	326	360	414	323	338	341	551	685	505
		대전	163	104	277	165	168	636	544	389	862	634
		인천	-	-	-	-	-	-	-	-	-	259
		계	3,958	3,861	5,213	5,494	5,531	6,273	7,180	7,385	11,659	10,687

2. 2020년 보유 의료장비

중앙보훈병원

(단위 : 백만 원)

구분	장비명	단위	수량	취득금액	취득일자	제조국	설치장소	용도
1	환자감시장치 세트	SET	2	212	2002.12.31	독일	내과계중환자실	중증환자의 병태를 파악하기 위해 사용되는 장비
2	수술용현미경	SET	1	182	2004.12.31	독일	안과	미세 수술 시 사용되는 전용 현미경
3	자기공명영상진단기	SET	1	1,485	2005.12.30	미국	MRI 1검사실	자장을 이용하여 인체의 병변이나 종양 등을 진단하는 장비
4	뇌·척추수술 항해기기	SET	1	301	2005.12.30	미국	신경외과 수술실	뇌종양 및 뇌수술 시 종양의 위치, 크기, 수술범위를 안내하여 보다 정확한 수술을 시행할 수 있는 기기
5	다이오드 그린 레이저	SET	1	100	2006.01.19	독일	안과	망막질환의 치료 장비
6	네비게이션시스템	SET	1	123	2006.12.29	독일	정형외과 수술실	인공관절 이식 시 수술방향과 각도 등을 설정하여 보다 정확한 수술을 시행할 수 있는 기기
7	실시간 3차원 초음파기	SET	1	106	2006.12.29	미국	2병동(분만실)	초음파영상진단기
8	심장초음파영상진단기	SET	1	139	2006.12.29	미국	심장초음파실	심장용 초음파영상진단기
9	수술용현미경	SET	1	249	2007.12.28	독일	신경외과 수술실	미세 수술 시 사용되는 전용 현미경
10	복부초음파영상진단기	SET	1	238	2008.11.06	네덜란드	초음파실	복부 등의 이상여부 진단을 위한 초음파장비
11	이비인후과 유니트	SET	1	116	2008.12.12	한국	이비인후과	이비인후과용 진료유니트
12	콤빰씨티	SET	1	216	2009.12.03	한국	방사선과	X선을 이용하여 인체의 횡단면상의 영상을 획득하여 진단에 이용하는 장비
13	내시경시스템	SET	1	191	2009.07.10	일본	내시경실	상·하부 위장관 질환 검사 및 병변 치료
14	자동기구세척기	SET	1	117	2009.08.28	한국	중앙공급실	병원 물품 세척에 사용
15	디지털비디오이미지시스템	SET	1	105	2010.08.27	한국	이비인후과 수술실	이비인후과용 비디오이미지 시스템
16	수술용엑스선기	SET	2	298	2010.12.23	한국	영상의학과	척추 및 사지뼈 등 수술 시에 사용하는 엑스선장비
17	고압증기멸균기	SET	4	424	2011.05.01	한국	중앙공급실	고압의 증기를 이용한 수술기구류 멸균기
18	복강경시스템	SET	1	123	2011.07.25	일본	산부인과 수술실	복강이나 간의 아래쪽 표면, 담낭 따위를 살펴보는 내시경시스템
19	이비인후과 유니트	SET	2	256	2011.07.21	한국	이비인후과	이비인후과용 진료유니트
20	심장초음파영상진단기	SET	2	304	2011.07.26	한국	심장초음파실	심장용 초음파영상진단기
21	수술용현미경	SET	1	188	2011.07.26	독일	정형외과 수술실	미세 수술 시 사용되는 전용 현미경
22	검체전처리시스템	SET	1	300	2011.07.28	한국	접수실	환자 혈액 샘플검사 전에 필요한 전처리 과정을 자동으로 진행해주는 장치
23	혈관조영촬영기	SET	1	1,603	2011.07.29	미국	영상의학과	X-ray를 이용한 혈관검사 및 시술장비

구분	장비명	단위	수량	취득금액	취득일자	제조국	설치장소	용도
24	양전자방출단층촬영기	SET	1	2,031	2011.07.29	미국	PET-CT실	암의 조기발견 및 치료를 위한 병기설정, 재평가, 추적 관찰을 위한 암진단 장비
25	혈관조영촬영기	SET	1	1,966	2011.07.29	미국	심혈관센터	X-ray를 이용한 혈관검사 및 시술장비
26	감마카메라	SET	1	438	2011.07.29	미국	핵의학과	간, 심장, 뼈, 콩팥, 갑상선 등의 생체 내 검사장비
27	자기공명영상진단기	SET	1	3,361	2011.07.29	미국	MRI 3검사실	자장을 이용하여 인체의 병변이나 종양 등을 진단하는 장비
28	디지털일반촬영기	SET	3	1,173	2011.07.29	미국	일반검사실	인체 흉·복부 등의 이상여부 진단을 위한 디지털 엑스레이 장비
29	유방촬영기	SET	1	521	2011.07.29	미국	유방검사실	유방의 종양이나 혈관계의 이상유무 진단
30	수정체유화술기	SET	1	132	2011.08.02	독일	안과 수술실	노화 및 질병 등을 이유로 딱딱해진 백내장을 제거하고 인공수정체를 삽입하여 시력교정술을 시행할 때 쓰이는 안과용 수술 장비
31	전산화단층촬영기	SET	1	2,711	2011.07.29	미국	CT검사실	X선으로 인체의 횡단면상의 영상을 촬영하여 질환 진단
32	복부초음파영상진단기	SET	1	268	2011.08.12	일본	초음파실	복부 등의 이상여부 진단을 위한 초음파장비
33	선형가속기	SET	1	5,115	2011.09.20	미국	선형가속기치료실	암 치료용 장비, 고용량의 방사선을 암 조직에만 정확히 조사
34	내시경시스템	SET	2	600	2011.08.24	일본	내시경실	상·하부 위장관 질환 검사 및 병변 치료
35	회전의자검사 및 비디오전기안진검사기	SET	1	271	2011.10.31	한국	청력검사실	안구운동을 그래프로 기록하고 안구운동 중에 나타나는 안진(Nystagmus)을 분석하는 장비
36	유리체 흡입절단장치	SET	1	195	2011.12.26	독일	안과 수술실	유리체 또는 수정체를 흡입하여 제거하는 장치
37	디지털일반촬영기	SET	1	292	2011.12.29	한국	일반검사실	인체 흉·복부 등의 이상여부 진단을 위한 디지털 엑스레이 장비
38	방사선혈액조사기	SET	1	410	2012.06.08	한국	혈액종양내과	수혈용 혈액백에 X선을 조사시켜 수혈 후 발생할 수 있는 이식편대숙주병(수혈된 림프구가 면역 기능이 저하된 환자의 몸을 공격하면서 발생하는 질병)을 예방하는 데 사용
39	내시경시스템	SET	1	251	2012.07.25	일본	내시경실	상·하부 위장관 질환 검사 및 병변 치료
40	수술중신경생리추적감시장치	SET	1	101	2012.10.12	독일	신경외과 수술실	종추 및 말초 신경계질환을 외과적 수술로 치료하고자 할 때 수술 중 모든 신경계를 추적감시함으로써 수술 중 신경계의 손상을 미연에 방지, 전기적인 정보를 파형으로 보여줌
41	수중풀	SET	1	498	2013.12.31	한국	수치료실	체중부하가 불가능한 환자들의 근력강화, 유연성 향상 등의 훈련에 필요한 수치료풀
42	등속성근력측정치료기	SET	1	112	2013.09.23	한국	특수치료실	인체 주요관절의 움직임과 관련되는 근력, 순발력, 회복률 등의 치료전후의 비교를 측정, 진단, 분석하는 장비
43	이동형디지털엑스선촬영기	SET	1	135	2013.10.14	한국	영상의학과	인체 내의 장기 및 골격을 투시촬영하여 병변을 진단
44	디지털일반촬영기	SET	1	278	2013.08.30	한국	응급촬영실	인체 흉·복부 등의 이상여부 진단을 위한 디지털 엑스레이 장비

구분	장비명	단위	수량	취득금액	취득일자	제조국	설치장소	용도
45	근전도검사기	SET	1	127	2013.10.08	한국	재활센터	근육신경에 에너지를 가해 반응 및 신경전달속도 등을 측정하여 마비부위의 이상정도 진단
46	전신 승, 하강용 월풀	SET	1	198	2013.10.28	한국	수치료실	근육과 관절 등 신체 주요 부분을 마사지해주는 장비
47	동작분석시스템	SET	1	397	2013.12.23	한국	동작분석실	육안으로 판단하기 어려운 걸음걸이의 문제점을 분석하는 장비
48	초음파내시경시스템	SET	1	270	2013.12.23	일본	내시경실	초음파를 이용한 기관지용 질환 검사 및 병변 치료
49	디지털후두내시경	SET	1	158	2013.10.25	한국	이비인후과	이비인후과용 후두내시경시스템
50	이동형심장초음파진단기	SET	1	107	2013.10.30	독일	심장초음파실	심장용 초음파영상진단기
51	하지로봇 보행치료기	SET	1	297	2014.11.07	한국	보행로봇치료실	뇌질환 환자의 로봇 재활치료기
52	수술용엑스선기	SET	1	128	2014.11.07	독일	영상의학과	척추 및 사지뼈 등 수술 시에 사용하는 엑스선장비
53	디지털일반촬영기	SET	1	220	2014.10.23	한국	일반검사실	인체 흉·복부 등의 이상여부 진단을 위한 디지털 엑스레이 장비
54	전안부 단층촬영기	SET	1	125	2014.12.12	한국	안과	전안부의 전면 및 횡단면을 사진으로 찍어 기록으로 남기는 장비, 각막 표면의 전반적인 상태와 각막과 수정체의 횡단명을 관찰하는 데 이용, 안과질환의 악화나 호전 여부를 추적 관찰하는 사용
55	자동생화학분석기	SET	1	118	2014.12.22	한국	생화학 검사실	혈액 내의 화학적 성분을 자동으로 정량분석하는 장비
56	인공심폐기	SET	1	202	2014.12.11	독일	흉부외과 수술실	심장 수술이 가능하도록 체외 순환을 담당하는 기기
57	복부초음파영상진단기	SET	1	255	2014.12.24	일본	초음파실	복부 등의 이상여부 진단을 위한 초음파장비
58	로봇 상지재활치료 시스템	SET	1	220	2014.12.29	한국	상지로봇치료실	재활센터용 상지재활치료기
59	전립선초음파영상진단기	SET	1	129	2015.09.02	미국	비뇨의학과	전립선용 초음파영상진단기
60	3D 직장초음파영상진단기	SET	1	138	2015.10.27	미국	외과	3D 직장용 초음파영상진단기
61	형광안저카메라	SET	1	132	2015.10.28	독일	안과	안구 안쪽인 망막혈관에 조영제를 주사한 후 망막, 맥락막의 전반적인 질환을 진단하는 기기
62	감마카메라	SET	1	525	2015.11.02	미국	핵의학과	간, 심장, 뼈, 콩팥, 갑상선 등의 생체 내 검사장비
63	혈관조영촬영기	SET	1	1,550	2015.11.25	미국	심혈관센터	X-ray를 이용한 혈관검사 및 시술장비
64	자기공명영상진단기	SET	1	3,320	2015.11.30	미국	MRI 4검사실	자장을 이용하여 인체의 병변이나 종양 등을 진단하는 장비
65	산부인과초음파영상진단기	SET	1	143	2015.12.07	일본	산부인과	산부인과용 초음파영상진단기
66	초음파내시경스코프	SET	1	136	2015.12.09	일본	내시경실	초음파내시경시스템용 스코프
67	심장초음파영상진단기	SET	1	286	2016.07.20	미국	심장초음파실	심장용 초음파영상진단기

구분	장비명	단위	수량	취득금액	취득일자	제조국	설치장소	용도
68	초음파내시경시스템	SET	1	220	2016.11.22	일본	호흡기내과	초음파를 이용한 기관지용 질환 검사 및 병변 치료
69	수술현미경	SET	1	215	2016.12.16	독일	신경외과 수술실	미세 수술 시 사용되는 전용 현미경
70	디지털일반촬영기	SET	1	275	2016.12.28	한국	영상의학과	인체 흉·복부 등의 이상여부 진단을 위한 디지털 엑스레이 장비
71	전산화단층촬영기	SET	1	1,993	2016.12.29	미국	CT 3검사실	X선으로 인체의 횡단면상의 영상을 촬영하여 질환 진단
72	내시경시스템	SET	1	169	2017.04.25	일본	외과	상·하부 위장관 질환 검사 및 병변 치료
73	이동형디지털엑스선촬영기	SET	1	130	2017.06.15	한국	영상의학과	인체 내의 장기 및 골격을 투시촬영하여 병변을 진단
74	초음파 흡입 수술기	SET	1	170	2017.06.15	미국	신경외과 수술실	초음파를 이용하여 수술할 부위의 파쇄, 유화, 흡하는 수술기
75	의료용현미경	SET	1	290	2017.06.20	독일	이비인후과 수술실	이비인후과용 의료현미경
76	광간섭단층촬영기	SET	1	240	2017.06.22	독일	안과	안구 생체 조직의 단층영상 및 횡단면을 검사하는 기기
77	내시경시스템	SET	1	447	2017.06.28	일본	내시경실	상·하부 위장관 질환 검사 및 병변 치료
78	혈관조영촬영기	SET	1	1,208	2017.12.13	네덜란드	혈관조영실	X-ray를 이용한 혈관검사 및 시술장비
79	안과용 광학현미경	SET	1	279	2017.12.26	독일	안과 수술실	안과용 의료현미경
80	미생물동정분석기	SET	1	195	2017.12.29	미국	일반미생물 검사실	생화학적 미생물 동정 방법에 사용
81	수술용엑스선기	SET	1	194	2018.07.11	독일	영상의학과	척추 및 사지뼈 등 수술 시에 사용하는 엑스선장비
82	유전자은행자동화시스템	SET	1	623	2018.06.29	스위스	보훈의학연구소	바이오뱅크에 필요한 일련의 처리과정을 수행할 수 있는 장비
83	자동화염기서열분석기	SET	1	473	2018.06.27	미국	보훈의학연구소	자동으로 대용량의 염기서열 분석과 해석이 가능한 장비
84	콤빰씨티	SET	1	149	2018.07.19	미국	방사선과	X선을 이용하여 인체의 횡단면상의 영상을 획득하여 진단에 이용하는 장비
85	흉강경시스템	SET	1	168	2018.07.25	독일	흉부외과 수술실	흉강 내 장기를 수술할 때 사용, 흉부 관련 수술을 진행할 때 최소침습 수술에 사용 가능
86	뇌정위시스템	SET	1	209	2018.07.31	스웨덴	신경외과 수술실	뇌종양 및 뇌수술 시 종양의 위치, 크기, 수술범위를 안내하여 보다 정확한 시술을 시행할 수 있는 기기
87	3D 유연 복강경시스템	SET	1	134	2018.10.31	일본	외과 수술실	복강이나 간의 아래쪽 표면, 담낭 따위를 살펴보는 3D내시경시스템
88	전산화단층촬영기	SET	1	2,615	2018.11.09	미국	영상의학과	X선으로 인체의 횡단면상의 영상을 촬영하여 질환 진단
89	감마카메라	SET	1	428	2018.11.01	독일	핵의학과	간, 심장, 뼈, 콩팥, 갑상선 등의 생체 내 검사장비
90	채혈자동화시스템	SET	1	172	2018.12.12	일본	채혈실	외래 환자 채혈 수집 및 분리 자동화 기기
91	자율신경계검사장비	SET	1	184	2018.12.17	독일	신경과	자율신경계, 교감신경계의 이상유무를 파악하는 기기
92	홀몸야그레이저수술기	SET	1	219	2019.05.27	이스라엘	비뇨의학과 수술실	상부 요관 및 신장 결석 제거, 전립선비대증 개선을 위해 사용

구분	장비명	단위	수량	취득금액	취득일자	제조국	설치장소	용도
93	캐드캠 밀링장비	SET	1	143	2019.07.17	한국	치과기공실	보철물 제작을 자동화 장치로 빠르고 정밀하게 진행할 수 있는 장비
94	광간섭단층촬영기	SET	1	235	2019.07.15	일본	안과	안구 생체 조직의 단층영상 및 횡단면을 검사하는 기기
95	양전자방출단층촬영기	SET	1	2,830	2019.09.18	미국	PET-CT실	암의 조기발견 및 치료를 위한 병기설정, 재평가, 추적 관찰을 위한 암진단 장비
96	자기공명영상진단기	SET	1	2,493	2019.09.19	독일	MRI 2검사실	자장을 이용하여 인체의 병변이나 종양 등을 진단하는 장비
97	근전도검사기	SET	1	108	2020.07.21	덴마크	신경과	근육신경에 에너지를 가해 반응 및 신경전달속도 등을 측정하여 마비부위의 이상정도 진단
98	탄산가스레이저수술기	SET	1	127	2020.07.24	이스라엘	이비인후과 수술실	미세수술(성대결정, 후두암 등)의 정확하고 안전한 수술에 사용
99	내시경시스템	SET	1	432	2020.08.11	일본	내시경실	상·하부 위장관 질환 검사 및 병변 치료
100	심장내혈관초음파영상진단기	SET	1	206	2020.08.18	미국	심혈관센터	심실 구현으로 심실빈맥(부정맥) 치료 목적의 장비
101	기구세척기	SET	1	107	2020.09.02	슬로베니아	중앙공급실	병원 물품 세척에 사용
102	척추수술대	SET	1	183	2020.09.28	미국	신경외과 수술실	신경외과용 척추전용 수술대
103	복부초음파영상진단기	SET	1	150	2020.09.22	미국	초음파실	복부 등의 이상여부 진단을 위한 초음파장비
104	냉동수술기	SET	1	187	2020.10.27	미국	심혈관센터	부정맥 치료 시 액화질소를 이용, 안전하고 빠른 시술 가능
105	과산화수소소독기	SET	1	110	2020.10.07	멕시코	중앙공급실	로봇암 전용 멸균기
106	로봇수술기	SET	1	비공개	2020.10.22	미국	수술장	로봇을 환자에 장착, 수술자가 원격으로 시행하는 복강내시경 수술법
107	엑시머레이저기	SET	1	154	2020.10.07	미국	피부과	레이저를 이용한 고도 근시, 난시 및 노안 등을 시술하기 위한 장비
108	로봇수술기 전용 수술대	SET	1	277	2020.10.12	독일	마취통증의학과	로봇수술기와 연동되어 사용하는 전용 수술대
109	관절경시스템	SET	1	172	2020.10.12	미국	정형외과 수술실	관절 수술 시스템
110	체외충격파쇄석기	SET	1	580	2020.11.17	프랑스	체외충격파쇄석실	방광내 요석, 이물 등을 충격파를 이용하여 제거하는 기기
111	디지털투시촬영기	SET	1	440	2020.11.12	일본	특수촬영실	인체 내의 장기 및 골격을 투시촬영하여 병변을 진단
112	로봇수술기용 초음파영상진단기	SET	1	128	2020.12.07	일본	비뇨의학과 수술실	로봇수술기용 초음파영상진단기
113	마취기	SET	2	209	2020.12.08	독일	마취통증의학과	환자의 수술 전에 전신 마취하여 수술에 지장이 없도록 하고 수술 후 환자가 마취에서 깨어나 자발적으로 호흡할 수 있게 하는 장비
114	이동형디지털엑스선촬영기	SET	1	124	2020.12.11	한국	영상의학과	인체 내의 장기 및 골격을 투시촬영하여 병변을 진단
115	채혈자동화시스템	SET	1	175	2020.12.14	일본	채혈실	외래 환자 채혈 수집 및 분리 자동화 기기
116	심장초음파영상진단기	SET	1	251	2020.12.21	노르웨이	심장초음파실	심장용 초음파영상진단기

부산보훈병원

구분	장비명	단위	수량	취득금액	취득일자	제조국	설치장소	용도
1	수술대	SET	1	116	2004.04.01	미국	수술실	수술 시 사용하는 수술용 테이블
2	자동미생물분석기	SET	1	139	2005.01.25	프랑스	진단검사의학과	자동 미생물 동정 및 항생제 검사 장비
3	신경외과수술용현미경	SET	1	281	2005.09.20	스위스	수술실	신경외과 뇌, 척추 등 수술 시 사용하는 현미경
4	심혈관조영촬영기	SET	1	1,650	2005.12.30	프랑스	혈관촬영실	체내의 혈관에 카테타를 삽입, 조영제를 이용하여 혈관을 촬영하여 진단 및 시술하는 장비
5	심장초음파진단기	SET	1	253	2006.12.11	미국	심장검사실	초음파를 이용하여 심장의 이상유무를 진단하는 장비
6	심장초음파진단기	SET	1	202	2007.08.13	미국	심장검사실	초음파를 이용하여 심장의 이상유무를 진단하는 장비
7	수술용현미경	SET	1	293	2008.12.01	독일	수술실	안과 수술 시 사용하는 수술용 현미경
8	복강경영상시스템	SET	1	127	2008.12.30	미국	수술실	복강경 수술 시 사용되는 내시경 영상 시스템
9	자기공명영상처리장치	SET	1	1,860	2009.04.01	독일	영상의학과	자장을 이용하여 인체의 병변이나 종양 등을 촬영하여 진단하는 장비
10	복부초음파진단기	SET	1	237	2009.06.26	미국	영상의학과	초음파를 이용하여 인체 내 장기의 이상유무를 진단하는 장비
11	내시경영상시스템	SET	1	164	2011.11.22	일본	의료창고	내시경 검사 시 사용하는 내시경 영상 시스템
12	관절경영상시스템	SET	1	104	2011.12.19	미국	수술실	관절경 수술 시 사용하는 내시경 영상 시스템
13	체외충격파쇄석기	SET	1	123	2011.12.22	한국	체외충격파쇄석실	신장결석과 담석의 무침습으로 치료하는 장비
14	심혈관조영촬영기	SET	1	1,256	2012.04.19	독일	혈관촬영실	체내의 혈관에 카테타를 삽입, 조영제를 이용하여 혈관을 촬영하여 진단 및 시술하는 장비
15	흉부촬영기	SET	1	104	2012.07.03	한국	건강검진센터	엑스선을 이용하여 흉부를 촬영하는 장비
16	컴퓨터단층촬영기	SET	1	1,577	2013.11.11	미국	영상의학과	컴퓨터를 이용 장기, 골격 등 병변의 크기, 위치, 진행의 정도 등을 촬영하는 기기
17	디지털엑스선촬영기	SET	1	269	2013.12.05	한국	영상의학과	엑스선을 이용하여 인체 내 관절 및 골격 등을 촬영하는 장비
18	내시경영상시스템	SET	1	103	2014.07.29	일본	내시경실	내시경 검사시 사용하는 내시경 영상 시스템
19	디지털엑스선촬영기	SET	1	290	2014.09.23	한국	영상의학과	엑스선을 이용하여 인체 내 관절 및 골격 등을 촬영하는 장비
20	이동용초음파진단기	SET	1	107	2014.11.19	미국	응급실	초음파를 이용하여 인체 내 장기의 이상유무를 진단하는 장비
21	디지털엑스선촬영기	SET	1	260	2014.12.18	한국	영상의학과	엑스선을 이용하여 인체 내 관절 및 골격 등을 촬영하는 장비
22	자동생화학분석기	SET	1	118	2014.12.22	일본	진단검사의학과	혈액이나 뇨를 분석하여 간, 신장 등 모든 장기의 기능을 검사하는 장비
23	투시촬영기	SET	1	169	2015.10.29	일본	영상의학과	엑스선을 이용하여 종재적 시술용 검사, 담도계검사 등을 시행하는 투시촬영기
24	자동기구세척기	SET	1	110	2015.12.15	이탈리아	중앙공급실	시술, 처치 및 수술 시 사용한 기구를 자동으로 세척 및 건조하는 세척기

구분	장비명	단위	수량	취득금액	취득일자	제조국	설치장소	용도
25	복강경영상시스템	SET	1	106	2016.06.30	일본	수술실	복강경 수술 시 사용되는 내시경 영상 시스템
26	안구단층촬영기	SET	1	247	2016.07.14	일본	안과	안구를 단층 및 횡단면 촬영하여 황반변성 및 당뇨황반부종 등 진단 및 관찰하는 장비
27	형광안저카메라	SET	1	280	2016.07.28	영국	안과	망막혈관을 촬영하여 망막 질환을 진단 및 경과 관찰을 위한 장비
28	심전도통합관리시스템	SET	1	100	2016.08.30	미국	혈관촬영실	심장검사실, 심혈관실에서 검사 장비를 연결하여 데이터를 주고 받는 서버
29	유방촬영기	SET	1	274	2016.10.13	미국	영상의학과	엑스선을 이용하여 유방을 촬영하여 이상유무를 진단하는 촬영기기
30	혈관내초음파진단기	SET	1	158	2016.12.16	미국	혈관촬영실	관상동맥 및 혈관에 Catheter를 직접 삽입하여 진단 및 치료하는 장비
31	자기공명영상처리장치	SET	1	2,033	2017.02.22	독일	영상의학과	자장을 이용하여 인체의 병변이나 종양 등을 촬영하여 진단하는 장비
32	혈구계산기	SET	1	220	2017.06.29	미국	진단검사의학과	혈액 내 혈구의 수 및 혈구형태 분석을 통하여 각종 질병을 진단하는 기기
33	스팀소독기	SET	1	145	2017.07.14	미국	중앙공급실	가열된 수증기로 기구류 등을 멸균하는 장비
34	컴퓨터단층촬영기	SET	1	1,713	2017.10.31	미국	영상의학과	컴퓨터를 이용 장기, 골격 등 병변의 크기, 위치, 진행의 정도등을 촬영하는 기기
35	복부초음파진단기	SET	1	169	2017.11.23	미국	영상의학과	초음파를 이용하여 인체 내 장치의 이상유무를 진단하는 장비
36	심장초음파진단기	SET	1	315	2018.03.27	노르웨이	심장검사실	초음파를 이용하여 심장의 이상유무를 진단하는 장비
37	모바일엑스선촬영기	SET	1	129	2018.06.04	한국	영상의학과	거동이 불편한 환자를 대상으로 기기를 이동하여 엑스선 촬영하는 장비
38	수술용씨암엑스선촬영기	SET	1	250	2018.06.04	독일	수술실	수술중 뼈, 관절 등 투시가 가능하여 병변의 유무 및 위치 등을 확인하는 장비
39	패턴레이저광응고장치	SET	1	218	2018.06.12	일본	안과	망막병증, 증식성망막병증, 황반부 이상 환자의 치료 목적으로 사용하는 레이저
40	채혈실자동화시스템	SET	1	165	2018.07.27	한국	진단검사의학과	채혈환자의 바코드 및 라벨링 등 자동으로 발행 부착하여 주는 시스템
41	관절경영상시스템	SET	1	218	2018.12.07	미국	수술실	관절경 수술 시 사용하는 내시경 시스템
42	스팀소독기	SET	1	177	2018.12.11	미국	중앙공급실	가열된 수증기로 기구류 등을 멸균하는 장비
43	자동혈액형및 불완전항체검사기	SET	1	111	2019.07.17	프랑스	진단검사의학과	수혈을 위한 혈액형 검사 및 불완전항체 검사장비
44	신경외과수술용현미경	SET	1	625	2019.07.17	독일	수술실	신경외과 뇌, 척추 등 수술 시 사용하는 현미경
45	수술용씨암엑스선촬영기	SET	1	255	2019.08.06	독일	수술실	수술 중 뼈, 관절 등 투시가 가능하여 병변의 유무 및 위치 등을 확인하는 장비
46	백내장수술기	SET	1	127	2019.08.22	미국	수술실	수정체의 혼탁을 분쇄, 제거하는 목적으로 백내장을 흡인, 적출하는 장비
47	비뇨기과내시경영상시스템	SET	1	158	2019.11.27	독일	수술실	비뇨의학과 수술 시 사용하는 내시경 영상 시스템
48	생체신호처리장치	SET	1	120	2019.12.20	미국	혈관촬영실	심장 시술, 검사 및 치료 시 환자의 생체신호를 지속적으로 감시 및 기록하는 장비
49	관절경영상시스템	SET	1	218	2020.10.23	미국	수술실	관절경 수술 시 사용하는 내시경 영상 시스템
50	이비인후과내시경 영상시스템	SET	1	131	2020.10.27	독일	수술실	이비인후과 수술 시 사용하는 내시경 영상 시스템
51	자기공명영상처리장치	SET	1	2,356	2020.11.25	독일	영상의학과	자장을 이용하여 인체의 병변이나 종양 등을 촬영하여 진단하는 장비
52	플라즈마소독기	SET	1	142	2020.12.14	미국	수술실	열과 압력, 습기에 민감한 기구를 과산화수소를 이용하여 멸균하는 장비

광주보훈병원

(단위 : 백만 원)

구분	장비명	단위	수량	취득금액	취득일자	제조국	설치장소	용도
1	심장초음파진단기	SET	1	202	2006.12.11	미국	소아청소년과	심장을 초음파로 진단하는 장비
2	복부초음파기	SET	1	194	2006.12.28	미국	수술실	복부를 초음파로 진단하는 장비
3	외과용 수술기구셋	SET	1	173	2007.08.10	미국	수술실	외과 수술 시에 필요한 수술기구셋
4	복강경수술 시스템	SET	1	131	2007.12.24	미국	수술실	외과 복부 수술 시 내시경으로 수술하는 장비
5	심전도분석장치	SET	1	111	2007.12.27	미국	심전도실	심전도를 자동으로 분석하는 장비
6	양전자방출단층촬영기 (PET-CT)	SET	1	2,483	2008.07.31	미국	핵의학과	방사성의약품을 혈관을 통해 인체 내로 주입한 후, 얻은 영상으로 암의 위치와 크기를 진단하는 장비
7	자동기구세척기	SET	1	117	2009.08.28	독일	중앙공급실	수술기구류를 자동으로 세척, 소독하는 장비
8	수술용엑스선기(C-Arm)	SET	1	141	2009.07.24	이탈리아	수술실	신경외과 수술 시에 병변을 투시하는 엑스선기
9	내시경시스템	SET	1	211	2010.09.17	일본	내시경실	내시경실에서 위, 대장을 내시경으로 진단하는 장비
10	감마카메라(Gamma Camera)	SET	1	765	2010.12.31	미국	핵의학과	방사선 검출을 통하여 심장, 간, 콩팥을 촬영하는 장비
11	자동혈구분석기	SET	1	113	2011.09.29	일본	진단검사의학과	세포(백혈구, 적혈구, 혈소판)를 동정, 계수하는 장비
12	수술용엑스선기(C-Arm)	SET	1	150	2011.09.26	독일	수술실	정형외과 수술 시에 병변을 투시하는 엑스선기
13	자기공명영상촬영기 (MRI 1.5T)	SET	1	1,641	2011.12.30	미국	영상의학과	자기장을 이용하여 인체의 병변을 촬영하는 장비
14	혈관내초음파기	SET	1	190	2011.12.30	미국	Angio실	혈관에 삽입하여 초음파를 이용하는 혈관을 검사하는 장비
15	백내장수술기	SET	1	130	2012.06.19	미국	수술실	백내장 수술 시에 사용하는 백내장 수술장비
16	디지털 유방촬영엑스선기	SET	1	297	2012.08.31	미국	영상의학과	엑스선을 이용하여 유방을 촬영하는 장비
17	심혈관촬영장치(Angio)	SET	1	1,236	2012.12.14	독일	Angio실	엑스선을 이용하여 심장혈관을 투시하는 장비
18	내시경시스템	SET	1	243	2013.09.16	일본	내시경실	내시경실에서 위, 대장을 내시경으로 진단하는 장비
19	환자감시장치시스템	SET	1	120	2013.09.26	미국	중환자실	중환자실에서 환자의 바이탈사인을 측정하는 장비
20	전신전산화단층촬영기 (MD-CT)	SET	1	1,516	2013.12.23	네덜란드	영상의학과	엑스선을 이용하여 신체의 단층을 촬영하는 장비
21	내시경시스템	SET	1	328	2014.07.28	일본	내시경실	내시경실에서 위, 대장을 내시경으로 진단하는 장비
22	자동혈액배양기	SET	1	133	2014.11.28	미국	진단검사의학과	패혈증 및 균혈증의 원인균을 진단하기 위해 혈액에서 세균이나 진균(곰팡이)을 배양하는 검사
23	심장초음파진단기	SET	1	318	2014.11.13	미국	심장초음파실	초음파를 이용하여 심장을 검사하는 장비
24	자동생화학분석기	SET	1	118	2014.12.24	미국	진단검사의학과	혈액,소변등 다양한 검체를 화학적인 방법으로 검사해 질병 유무를 진단하는 장비
25	신경외과 수술현미경	SET	1	160	2014.12.18	독일	수술실	신경외과 수술 시 현미경으로 병변을 관찰하는 장비

구분	장비명	단위	수량	취득금액	취득일자	제조국	설치장소	용도
26	디지털엑스선기	SET	1	260	2014.12.26	한국	영상의학과	엑스선을 이용하여 인체를 촬영하는 장비
27	내시경시스템	SET	1	251	2015.04.30	일본	내시경실	내시경실에서 위, 대장을 내시경으로 진단하는 장비
28	안과수술현미경	SET	1	127	2015.08.27	스위스	수술실	안과 수술 시에 사용하는 현미경
29	복부초음파진단기	SET	1	181	2015.10.01	미국	영상의학과	복부를 초음파로 진단하는 장비
30	복강경수술시스템	SET	1	200	2015.10.30	미국	수술실	외과에서 복부를 내시경을 이용하는 수술하는 장비
31	다기능투시촬영기 (Angio & RF)	SET	1	727	2015.11.30	독일	영상의학과	엑스선을 이용하여 인체를 투시, 촬영하는 장비
32	레이저신석제거기 (Holmium)	SET	1	237	2015.12.15	이스라엘	수술실	방광수술 시에 레이저를 이용하여 수술하는 장비
33	비뇨기와 내시경수술기	SET	1	135	2016.06.24	미국	수술실	비뇨기와 방광수술 시에 내시경을 이용하여 수술하는 장비
34	디지털 엑스선기	SET	1	283	2016.07.22	한국	영상의학과	엑스선을 이용하여 인체를 촬영하는 장비
35	자동기구세척기	SET	1	105	2016.11.01	이탈리아	중앙공급실	수술기구류를 자동으로 세척, 소독하는 장비
36	자기공명영상촬영기 (MRI 3.0T)	SET	1	2,033	2017.02.17	독일	영상의학과	자기장을 이용하여 인체의 병변을 촬영하는 장비
37	관절수술경시스템	SET	1	130	2017.05.12	미국	수술실	정형외과 관절 수술 시 내시경을 이용해 수술하는 장비
38	이동식엑스선기	SET	1	130	2017.05.08	한국	영상의학과	이동이 불가능한 환자를 엑스선으로 촬영하는 장비
39	자세균형치료기	SET	1	154	2017.06.30	미국	재활센터	재활의학과에서 환자의 보행자세를 분석, 치료하는 장비
40	수술용엑스선기(C-Arm)	SET	1	203	2017.06.29	독일	수술실	신경외과 수술 시에 병변을 투시하는 엑스선기
41	심장초음파진단기	SET	1	259	2017.06.26	미국	심장초음파실	심장을 초음파로 진단하는 장비
42	내시경시스템	SET	1	349	2017.06.26	일본	내시경실	내시경실에서 위, 대장을 내시경으로 진단하는 장비
43	정형외과 수술테이블	SET	1	136	2017.07.03	미국	수술실	정형외과 수술 시에 사용하는 수술테이블
44	디지털 엑스선기	SET	1	270	2017.11.30	한국	영상의학과	엑스선을 이용하여 인체를 촬영하는 장비
45	고압멸균기	SET	1	144	2017.12.04	미국	중앙공급실	수술기구류를 자동으로 멸균하는 장비
46	복부초음파진단기	SET	1	185	2018.06.12	미국	영상의학과	복부를 초음파로 진단하는 장비
47	초음파내시경시스템	SET	1	333	2018.06.21	일본	내시경실	초음파를 이용하여 위, 대장을 진단하는 내시경
48	이동식심장초음파진단기	SET	1	103	2018.07.03	미국	심장초음파실	이동이 불가능한 환자의 심장을 초음파로 진단하는 장비
49	등속성근관절검사기	SET	1	122	2018.07.10	미국	재활센터	재활의학과에서 등속성 관절을 진단 및 치료하는 장비
50	자동혈구분석기	SET	1	159	2018.07.12	미국	진단검사의학과	혈액 내에 적혈구, 백혈구 등을 검사하는 장비
51	대장내시경시스템	SET	1	165	2018.07.27	일본	수술실	외과에서 수술 전, 후 대장을 내시경으로 검사하는 장비

구분	장비명	단위	수량	취득금액	취득일자	제조국	설치장소	용도
52	내시경시스템	SET	1	186	2018.11.29	일본	내시경실	내시경실에서 위, 대장을 내시경으로 진단하는 장비
53	골밀도검사기	SET	1	151	2018.12.06	미국	영상의학과	엑스선을 이용하여 골밀도를 검사하는 장비
54	초음파진단기	SET	1	184	2018.12.18	미국	인공신장실	초음파를 이용하여 신장을 검사하는 장비
55	초음파 위내시경	SET	1	132	2019.07.04	일본	내시경실	초음파를 이용하여 위를 검사하는 내시경
56	디지털 엑스선기	SET	1	268	2019.07.19	한국	영상의학과	엑스선을 이용하여 인체를 촬영하는 장비
57	고압멸균기	SET	2	243	2019.07.19	한국	중앙공급실	수술기구류를 자동으로 멸균하는 장비
58	자동채혈시스템	SET	1	172	2019.07.19	한국	진단검사의학과	혈액채혈 시 검사 종류를 자동으로 분류하는 장비
59	체외충격파쇄석기	SET	1	480	2019.11.07	독일	비뇨기와	체외 충격으로 담석을 쇠석하는 장비
60	심장초음파진단기	SET	1	253	2019.12.11	미국	심장초음파실	초음파를 이용하여 심장을 검사하는 장비
61	수술용엑스선기(C-Arm)	SET	1	240	2019.12.23	독일	수술실	정형외과 수술 시에 병변을 투시하는 엑스선기
62	초음파진단기	SET	1	149	2020.09.01	미국	비뇨기와	초음파를 이용하여 방광, 복부를 검사하는 장비
63	비뇨기과용 펜던트시스템	SET	1	127	2020.09.28	미국	수술실	비뇨기와 방광수술 시에 사용하는 펜던트 시스템
64	자기공명영상촬영기 (MRI 3.0T)	SET	1	2,500	2020.11.25	독일	영상의학과	자기장을 이용하여 인체의 병변을 촬영하는 장비
65	심혈관동영상저장장치	SET	1	118	2020.12.10	한국	심장초음파실	심혈관 동영상을 편집, 저장하는 장비
66	이동식엑스선기	SET	1	125	2020.12.11	한국	영상의학과	이동이 불가능한 환자를 엑스선으로 촬영하는 장비
67	방광경카메라세트	SET	1	101	2020.12.21	독일	수술실	비뇨기와 방광수술 시에 내시경용 카메라 장비
68	관절경시스템	SET	1	129	2020.12.15	미국	수술실	정형외과 관절 수술 시 내시경을 이용해 수술하는 장비
69	자동기구세척기	SET	1	130	2020.12.15	이탈리아	중앙공급실	수술기구류를 자동으로 세척, 소독하는 장비
70	자동혈액배양기	SET	1	112	2021.05.03	미국	진단검사의학과	패혈증 및 균혈증의 원인균을 진단하기 위해 혈액에서 세균이나 진균(곰팡이)을 배양하는 검사
71	심장초음파진단기	SET	1	270	2021.06.29	미국	심장초음파실	초음파를 이용하여 심장을 검사하는 장비
72	로봇상지재활치료시스템	SET	1	230	2021.06.30	미국	재활센터	재활의학과에서 로봇을 이용하여 상지를 치료하는 장비
73	보행보조재활시스템	SET	1	157	2021.07.08	스위스	재활센터	재활의학과에서 보행 훈련을 보조해주는 치료 장비

대구보훈병원

(단위 : 백만 원)

구분	장비명	단위	수량	취득금액	취득일자	제조국	설치장소	용도
1	심장초음파진단기	SET	1	157	2003.10.31	한국	응급실	응급 심장질환환자 진단
2	심장초음파진단기	SET	1	253	2007.08.13	네덜란드	심장초음파실	순환기 내과에서 심장질환의 진단을 위해 사용하는 장비
3	수술용 현미경	SET	1	112	2007.11.30	독일	수술실	안과, 신경외과, 이비인후과 등에서 미세 수술을 하기 위해 사용하는 수술용 현미경 시스템
4	자기공명영상화진단기 (MRI 1.5T)	SET	1	1,333	2007.12.28	미국	영상의학과	초전도 자석과 고주파 및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체를 여러 각도로 촬영하여 진단하는 장비
5	심혈관촬영장치(Angio)	SET	1	1,099	2008.03.27	미국	심혈관촬영실	협심증이나 급성 심근경색증 환자에게 관상동맥 중재시술(풍선확장술, 스텐트삽입술)을 시행하기 위한 심혈관 촬영 장비
6	양전자방출단층촬영장치 (PET/CT)	SET	1	2,494	2008.07.31	미국	핵의학과	암의 조기발견 및 치료를 위한 병기 설정, 재평가, 추적 관찰을 위한 암진단 장비
7	감마카메라 (Gamma Camera)	SET	1	491	2010.12.31	미국	핵의학과	방사선 검출을 통하여 심장, 간, 콩팥을 촬영하는 장비
8	수술용 현미경	SET	1	353	2011.12.20	독일	수술실	안과, 신경외과, 이비인후과 등에서 미세 수술을 하기 위해 사용하는 수술용 현미경 시스템
9	이동형 엑스선 투시촬영장치	SET	1	147	2011.12.27	미국	수술실	정형외과, 신경외과 등에서 엑스선 영상을 보면서 수술하기 위한 투시촬영 장비
10	자동미생물동정기	SET	1	115	2011.12.30	미국	진단검사의학과	전자동으로 미생물을 생화학적 방법으로 동정하기 위한 장비
11	심장초음파 진단기	SET	1	180	2012.12.18	중국	심장초음파실	순환기 내과에서 심장질환의 진단을 위해 사용하는 장비
12	복부초음파 진단기	SET	1	228	2013.09.06	네덜란드	영상의학과	복부의 주요 고형장기 즉,간,췌장,비장,신장과 액체인 담즙이나 소변이 차 있는 쓸개와 방광 등의 검사
13	전자내시경시스템	SET	1	179	2014.07.28	일본	내시경실	식도 및 위, 십이지장, 대장을 관찰하고, 필요시에는 조직검사나 색소내시경 등을 통하여 이상 유무를 확인하고 위 및 대장 등에 생기는 여러 가지 질환을 진단
14	원격제어 디지털 R/FX선 시스템	SET	1	372	2014.11.02	일본	영상의학과	방사선을 인체에 연속적으로 투시하여 시술 및 병변진단
15	자동생화학분석기	SET	1	118	2014.12.18	일본	진단검사의학과	진단검사의학과에서 간, 신장, 순환계 등의 각종 질환을 진단하는 생화학 검사장비
16	수술현미경	SET	1	319	2015.08.04	독일	산부인과	안과, 신경외과, 이비인후과 등에서 미세 수술을 하기 위해 사용하는 수술용 현미경 시스템
17	자기공명영상촬영장치 (MRI 1.5T)	SET	1	1,485	2015.11.05	독일	영상의학과	초전도 자석과 고주파 및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체를 여러 각도로 촬영하여 진단하는 장비
18	전산화단층촬영장치(CT)	SET	1	1,140	2015.12.09	일본	영상의학과	컴퓨터단층촬영법으로, 엑스선을 여러 각도에서 인체에 투영하고 이를 컴퓨터로 재구성하여 진단
19	복강경	SET	1	120	2016.06.20	미국	수술실	외과 내시경 수술장비로 복강을 살펴보는 내시경시스템
20	일반엑스레이	SET	1	282	2016.07.27	한국	영상의학과	엑스선의 투과도가 물질에 따라 차이가 나는 것을 이용하여 인체 내부를 검사하는 장비
21	이동형 엑스선 투시촬영장치	SET	1	207	2016.08.22	독일	수술실	정형외과, 신경외과 등에서 엑스선 영상을 보면서 수술하기 위한 투시촬영 장비
22	환자중앙모니터링장치 (8Bed)	SET	1	277	2016.08.31	네덜란드	중환자실	중증환자의 병태를 파악하기 위해 사용되는 장치로 혈압·맥박·호흡수·심전도의 계속적 감시

구분	장비명	단위	수량	취득금액	취득일자	제조국	설치장소	용도
23	전기생리학기록장치	SET	1	190	2017.04.06	미국	심혈관촬영실	심혈관 질환인 부정맥 진단 및 치료 장비
24	이동형 엑스선기	SET	1	130	2017.05.08	한국	영상의학과	병동 입원환자를 주로 촬영하기 위한 엑스선 진단기
25	디지털 엑스선기	SET	1	290	2017.06.13	한국	영상의학과	디지털 방식으로 엑스선의 투과도가 물질에 따라 차이가 나는 것을 이용하여 인체 내부를 검사하는 장비
26	디지털 흉부 엑스선촬영기	SET	1	195	2017.06.14	독일	영상의학과	디지털 방식으로 흉부를 촬영하여 폐 질환을 진단하는 장비
27	심장초음파진단기	SET	1	270	2017.06.27	미국	심장초음파실	순환기 내과에서 심장질환의 진단을 위해 사용하는 장비
28	전자내시경시스템	SET	1	291	2017.06.28	일본	내시경실	식도 및 위, 십이지장, 대장을 관찰하고, 필요시에는 조직검사나 색소내시경 등을 통하여 이상 유무를 확인하고 위 및 대장 등에 생기는 여러 가지 질환을 진단
29	중앙환자감시장치	SET	1	277	2017.06.28	독일	중환자실	환자감시장치의 정보를 중앙으로 모아 전체를 감시할 수 있도록 하는 장비
30	골밀도측정기	SET	1	150	2017.07.14	멕시코	영상의학과	뼈의 밀도를 측정하여 골다공증, 골연화증과 같은 대사성 골질환의 진단
31	의료용임체정위기	SET	1	350	2018.05.17	이스라엘	심혈관촬영실	부정맥시술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보조 장비로 정확한 위치 선정으로 안전한 시술 가능
32	초음파영상진단장치	SET	1	185	2018.06.12	미국	영상의학과	복부의 주요 고형장기 즉, 간, 췌장, 비장, 신장과 액체인 담즙이나 소변이 차 있는 쓸개와 방광 등의 검사
33	광각안저촬영기	SET	1	205	2018.06.14	영국	안과	산동 검사(안약을 통해 새끼 동자를 키워서 동공을 확대하는 검사) 없이도 주변부 망막까지 정밀하게 촬영할 수 있는 시스템
34	체외충격파쇄석기(ESWL)	SET	1	115	2018.06.19	한국	비뇨의학과	몸 밖에서 충격파를 결석에 쏘아 파쇄하는 치료장비
35	의료용현미경	SET	1	207	2018.06.20	스위스	수술실	안과, 신경외과, 이비인후과 등에서 미세 수술을 하기 위해 사용하는 수술용 현미경 시스템
36	저온멸균기	SET	1	135	2018.06.25	멕시코	중앙공급실	열과 습기에 약한 내시경 등 의료기구를 낮은 온도에서 빠르게 멸균하기 위한 장비
37	의료용자비소독기	SET	2	354	2018.12.11	멕시코	중앙공급실	가압 증기를 사용하여 고온 고압으로 기구 멸균
38	자동세척기	SET	2	260	2018.12.13	이탈리아	중앙공급실	중앙공급실에서 수술기구를 자동으로 세척 건조하는 장비
39	신경외과 수술대	SET	1	138	2019.06.12	미국	수술실	신경외과 척추 수술 전용 수술대
40	디지털 유방촬영기 (Mammo)	SET	1	295	2019.07.29	미국	영상의학과	디지털 방식으로 유방암 등의 진단을 하기 위한 방사선 검사장비
41	자기공명영상촬영장치 (MRI 3.0T)	SET	1	2,850	2019.09.17	독일	영상의학과	초전도 자석과 고주파 및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체를 여러 각도로 촬영하여 진단하는 장비
42	백내장 수술기	SET	1	245	2019.10.16	미국	수술실	혼탁된 수정체를 초음파 유화 흡입술을 시행하여 제거한 후 인공 수정체를 삽입하는 방법으로 백내장 수술
43	혈관내초음파	SET	1	130	2019.10.29	미국	심혈관촬영실	혈관 조영제를 관상동맥 안으로 주입해서 관상동맥의 실루엣을 보는 것으로 관상동맥의 협착 유무 및 협착 정도를 진단

구분	장비명	단위	수량	취득금액	취득일자	제조국	설치장소	용도
44	전자내시경시스템	SET	1	185	2020.08.05	일본	내시경실	식도 및 위, 십이지장, 대장을 관찰하고, 필요시에는 조직검사나 색소내시경 등을 통하여 이상 유무를 확인하고 위 및 대장 등에 생기는 여러 가지 질환을 진단
45	이동식 심장초음파진단기	SET	1	172	2020.08.19	중국	심혈관촬영실	심장, 말초 중재시술, 부정맥 시술 시 중환자의 심장상태 확인
46	심장초음파진단기	SET	1	283	2020.11.02	미국	심장초음파실	순환기 내과에서 심장질환의 진단을 위해 사용하는 장비
47	자동혈액분석기	SET	1	258	2020.11.09	일본	진단검사의학과	혈구를 자동 분리하여 분석해서 진단하는 장비
48	망막광학단층촬영기	SET	1	238	2020.11.25	독일	안과	녹내장, 망막, 각막 질환에서 정밀 검사를 통한 진단 및 치료방향 설정
49	심혈관촬영기(Angio)	SET	1	1,570	2020.12.10	네덜란드	심혈관촬영실	협심증이나 급성 심근경색증 환자에게 관상동맥 중재시술(풍선확장술, 스텐트삽입술)을 시행하기 위한 심혈관 촬영 장비
50	냉동풍선절제술시스템	SET	1	185	2021.05.07	미국	심혈관촬영실	심장절제시술에 사용되는 냉동수술기로 치료를 요하는 부위를 냉각시켜 조직을 괴사
51	혈관내초음파	SET	1	120	2021.06.02	미국	심혈관촬영실	혈관 내 병변의 양상확인이 가능하고 혈관의 직경이나 병변의 길이를 정확하게 측정
52	형광안저카메라	SET	1	105	2021.06.18	일본	안과	망막 혈관 상태 검사 및 형광안저 형광조영술 등 시술 전 검사
53	혈역학모니터링장치	SET	1	119	2021.06.17	미국	심혈관촬영실	심혈관 시술 시 환자의 심전도, 혈압, 산소포화량 등 심장 활동 모니터링

대전보훈병원

(단위 : 백만 원)

구분	장비명	단위	수량	취득금액	취득일자	제조국	설치장소	용도
1	방사선투시촬영장치	SET	1	458	2005.03.29	일본	영상의학과	방사선을 인체에 연속적으로 투시하여 시술 및 병변진단
2	수술용 현미경	SET	1	143	2006.12.07	독일	수술실	외과적(OS, NS) 미세수술 시 사용하는 의료용 현미경
3	수술용 현미경	SET	1	142	2007.10.15	독일	수술실	안과 미세수술 시 사용하는 의료용 현미경
4	디지털X선촬영장치	SET	1	369	2007.12.31	미국	영상의학과	방사선을 인체에 투과시켜 그 결과를 영상화하여 병변진단
5	전산화단층촬영기(CT)	SET	1	973	2008.01.29	미국	영상의학과	방사선을 여러 각도에서 투과시켜 인체 내부 단면을 영상화하여 병변진단
6	관절경 시스템	SET	1	108	2009.08.12	미국	수술실	작은 절개구멍을 통해 카메라와 수술용 기구 등을 삽입하여 관절 안의 상태를 확인하고 수술하는 장비
7	자동세척기	SET	1	117	2009.09.02	독일	중앙공급실	중앙공급실 내 각종 의료기구 세척
8	의료용저온플라즈마멸균기	SET	1	146	2009.12.09	미국	중앙공급실	과산화수소를 매개로 플라즈마 현상을 이용하여 각종 기구를 멸균
9	흉부용 디지털X선촬영장치	SET	1	135	2010.08.30	한국	영상의학과	방사선을 인체에 투과시켜 그 결과를 영상화하여 병변진단
10	내시경영상시스템	SET	1	135	2011.11.21	일본	내시경실	위, 대장, 기관지 스크을 인체 삽입 후 장기내부를 영상화하여 병변진단

구분	장비명	단위	수량	취득금액	취득일자	제조국	설치장소	용도
11	자기공명전산화단층촬영장치 (MRI 1.5T)	SET	1	1,560	2011.12.28	독일	영상의학과	자기장을 이용하여 생체 임의의 단층상을 얻을 수 있는 진단장비
12	수술용 C-arm	SET	1	156	2012.07.25	독일	수술실	외과적(OS, NS) 수술 시 및 통증클리닉 신경치료, 검사에 사용하는 투시형 방사선 촬영
13	심장초음파영상진단장치	SET	1	270	2014.11.28	미국	심혈관조영실	심장 부위 병변진단에 특화된 초음파진단장치
14	혈관조영장치(Angio)	SET	1	1,665	2014.11.28	네덜란드	심혈관조영실	혈관에 조영제를 주입하여 인체의 혈관상태를 진단하고 시술 시 이용하는 장비
15	내시경영상시스템	SET	1	351	2015.04.30	일본	내시경실	위, 대장, 기관지 스크을 인체 삽입 후 장기내부를 영상화하여 병변을 진단하는 장비
16	유방촬영용X선장치	SET	1	108	2015.09.16	한국	영상의학과	유방암 등을 진단하기 위한 유방 전용 방사선 촬영
17	초음파영상진단장치	SET	1	164	2015.10.01	미국	영상의학과	복부, 갑상선 등 다양한 부위의 병변을 초음파를 이용하여 진단하는 장비
18	심장초음파영상진단장치	SET	1	286	2016.07.20	미국	심장초음파실	심장 부위 병변진단에 특화된 초음파진단장치
19	수술용 C-arm	SET	1	208	2016.08.22	독일	수술실	외과적(OS, NS) 수술 시 및 통증클리닉 신경치료, 검사에 사용하는 투시형 방사선 촬영
20	자기공명전산화단층촬영장치 (MRI 3.0T)	SET	1	2,033	2017.02.17	독일	영상의학과	자기장을 이용하여 생체 임의의 단층상을 얻을 수 있는 장비
21	내시경영상시스템	SET	1	352	2017.06.22	일본	내시경실	위, 대장, 기관지 스크을 인체 삽입 후 장기내부를 영상화하여 병변을 진단하는 장비
22	혈구계산기	SET	1	116	2017.06.30	일본	진단검사의학과	혈액의 적혈구, 백혈구, 혈소판 등의 수를 계수하는 진단장비
23	척추전용수술대	SET	1	183	2019.06.05	미국	수술실	척추수술전용(카본재질, 환자위치 360도 회전 등) 으로 사용하는 수술대
24	관절경 시스템	SET	1	156	2019.07.19	미국	수술실	작은 절개구멍을 통해 카메라와 수술용 기구 등을 삽입하여 관절 안의 상태를 확인하고 수술하는 장비
25	수술용 C-arm	SET	1	240	2019.12.23	독일	수술실	외과적(OS, NS) 수술 시 및 통증클리닉 신경치료, 검사에 사용하는 투시형 방사선 촬영
26	초음파영상진단장치	SET	1	152	2020.11.02	일본	영상의학과	복부, 갑상선 등 다양한 부위의 병변을 초음파를 이용하여 진단하는 장비
27	자기공명전산화단층촬영장치 (MRI 3.0T)	SET	1	2,413	2020.11.25	독일	영상의학과	자기장을 이용하여 생체 임의의 단층상을 얻을 수 있는 장비
28	이동형 방사선촬영장치	SET	1	124	2020.12.04	한국	영상의학과	거동이 어려운 환자 등을 위해 직접 이동하여 방사선 촬영하는 장비
29	디지털X선촬영장치	SET	1	263	2020.12.17	한국	영상의학과	방사선을 인체에 투과시켜 그 결과를 영상화하여 병변진단
30	자동생화학분석기	SET	1	156	2020.12.17	일본	진단검사의학과	간, 신장, 순환계 등의 각종 질환을 진단하는 생화학 검사장비
31	3D 복강경시스템	SET	1	144	2021.07.05	일본	수술실	일반외과 수술 시 3차원 화면을 통하여 수술하는 복강경시스템

인천보훈병원

(단위 : 백만 원)

구분	장비명	단위	수량	취득금액	취득일자	제조국	설치장소	용도
1	초음파진단기	SET	1	177	2018.06.29	노르웨이	초음파검사실	초음파를 이용하여 간, 담낭, 담도, 비장, 췌장 등의 이상 유무를 진단하는 기기
2	골밀도 촬영장치	SET	1	147	2018.06.29	미국	골밀도검사실	골대사성 질환자 진단 목적에 사용되는 기기
3	이동형 엑스레이	SET	1	130	2018.06.29	한국	영상의학과	인체의 흉부, 복부, 두부 등의 이상 여부를 진단하기 위한 이동형 엑스레이 기기
4	근전도검사기	SET	1	109	2018.06.29	덴마크	근전도검사실	말초신경 및 근육의 전기적 활성도를 확인하는 검사기기
5	일반진단용 X-Ray 촬영장치	SET	2	444	2018.07.01	일본	일반촬영실	엑스선을 이용하여 인체 내부를 찍어내는 기기
6	환자감시모니터시스템	SET	1	152	2018.07.13	독일	중환자실	환자의 심장, 호흡, 맥박, 혈압 등을 24시간 동안 관찰하고 기록하는 기기 및 중앙에서 감시하는 기기
7	심장초음파 검사기	SET	1	175	2018.08.21	네덜란드	심장초음파실	심장질환의 진단 및 평가 기기
8	내시경영상장치	SET	1	385	2018.08.28	일본	내시경실	위, 대장 내 병변의 위치, 크기 및 진행 정도를 진단하기 위한 영상 시스템
9	수술용 현미경(안과용)	SET	1	279	2018.08.29	독일	수술실	안과 수술 시 병변부위 관찰용 기기
10	자기공명영상장치	SET	1	1,940	2018.08.31	미국	MRI 실	자장을 이용하여 내중추 신경계 및 척추신경 심맥 관계 및 흉부, 복부, 골반 근골격계 및 사지 등의 진단에 사용되는 기기
11	컴퓨터단층촬영기	SET	1	1,400	2018.08.31	미국	CT 실	컴퓨터를 이용 체내의 장기 및 골격에 발생하는 병변의 크기, 위치, 진행의 정도 등을 진단하는 촬영기기
12	C-Arm 영상진단기	SET	1	230	2018.08.31	네덜란드	수술실	수술 시 사용되는 방사선 촬영 장치
13	수술용 현미경(공용)	SET	1	213	2018.09.27	독일	수술실	NS 등 부서에서 수술 시 병변부위 관찰용 기기
14	전립선초음파 진단기	SET	1	121	2018.11.22	미국	비뇨의학과 검사실	전립선암 여부 진단 시 사용되는 초음파 진단기기
15	체외충격파쇄석기	SET	1	215	2018.12.20	이스라엘	쇄석실	체외의 충격파를 사용해 결석을 파쇄하여 소변을 통해 체외로 배출시키는 의료기기
16	정형외과 전용 수술대	SET	1	170	2019.12.26	미국	수술실	고관절 및 대퇴관절 수술 시 안전하고 효율적인 수술에 이용됨
17	척추전용수술대	SET	1	182	2020.12.16	미국	수술실	C-arm 사용 척추 수술에 적합한 전용 수술대
18	약품자동분배시스템	SET	1	177	2021.11.02	한국	응급실	환자별로 필요한 약품을 처방에 의해 자동으로 분배하여 배출하는 시스템

3. SCI(과학기술 논문 인용 색인) 등재

중앙보훈병원

연월	소속	성명	제목
2011.01	정신건강의학과	정문용	Bone density in chronic schizophrenia with long-term antipsychotic treatment : preliminary study
2011.02	정형외과	양재혁	Comparison of soft-tissue serum markers in stable intertrochanteric fracture : Dynamic hip screw versus proximal femoral nail-A preliminary study
2011.02	정형외과	양재혁	Transpatellar approach in lateral meniscal allograft transplantation using the keyhole method : can we prevent graft extrusion?
2011.03	정형외과	양재혁	Is radiographic measurement of bony landmarks reliable for lateral meniscal sizing?
2011.07	정형외과	양재혁	Importance of Independent Measurement of Width and Length of lateral meniscus during preoperative sizing for meniscal allograft transplantation
2011.09	영상의학과	조윤구	Radiofrequency ablation versus surgical resection as primary treatment of hepatocellular carcinoma meeting the Milan criteris : A systematic review
2011.09	정형외과	윤호현	Relationship between the pelvic osteolytic volume on computed tomography and clinical outcome in patients with cementless acetabular components
2011.12	영상의학과	조윤구	Radiofrequency ablation of high grade dysplastic nodules
2011.12	보철과	장희원	A Retrospective on related factors affecting the survival rate of dental implants
2012.02	외과	이호석	A single surgeon's experience with 54 consecutive cases of multivisceral resection for locally advanced primary colorectal cancer : can the laparoscopic approach be performed safely?
2012.03	정형외과	양재혁	Primary total arthroplasty using rotation-hinge prosthesis in severely affected knees
2012.06	정형외과	양재혁	Hybrid Component Fixation in Total Knee Arthroplasty Minimum of 10-Year Follow-Up Study
2012.09	정형외과	윤호현	Reliability of a PowerPoint Method for Wear measurement After Total Hip Arthroplasty A Retrieval Study Using 3-Dimensional Laser Scanning
2013.01	정형외과	양재혁	Total knee arthroplasty in a pseudoachondroplastic dwarfism patient with bilateral patellar dislocation.
2013.02	혈액종양내과	임태규	Comparison of Medical Expenditure According to Types of Hospice Care Patients Terminal Cancer
2013.02	정형외과	윤호현	The Use of the Posterior Lesser Trochanter Line to Estimate Femoral Neck Version : An Analysis of Computed Tomography Measurements
2013.03	정형외과	양재혁	The effect of biplane medial opening wedge high tibial osteotomy on patellofemoral joint indices
2013.03	정형외과	최기원	Osteochondral lesions of the talus: are there any differences between osteochondral and chondral types?
2013.05	안과	최상경	New approach for conjunctivochalasis using an argon green lase
2013.05	피부과	박향준	Extramammary Paget Disease: Minimal Surgical Therapy
2013.06	정형외과	최기원	Additional surgical factors affecting the recurrence of hallux valgus after Ludloff osteotomy
2013.07	안과	최상경	Ocular Biometric Parameters Associated With Intraocular Pressure Reduction After Cataract Surgery in Normal Eyes
2013.08	정형외과	최기원	Comparison of the HINTEGRA and Mobility total ankle replacements. Short- to intermediate-term outcomes
2013.09	흉부외과	유지훈	Endovascular repair of bilateral iliac artery aneurysm with branched iliac stents: case report and review of the current literature
2013.11	정형외과	양재혁	Endoscopic treatment of calcific tendinitis of the rectus femoris inpatientwithintractablepain
2013.12	진단검사의학과	배은신	Differential diagnosis of myelofibrosis based on WHO 2008 criteria: Acute panmyelosis with myelofibrosis, acute megakaryoblastic leukemia with myelofibrosis, primary myelofibrosis and myelodysplastic syndrome with myelofibrosis.
2013.12	정형외과	윤호현	A Validation Study for Estimation of Femoral Anteversion Using the Posterior Lesser Trochanter Line An Analysis of Computed Tomography Measurement
2013.12	혈액종양내과	남승현	Validation of the Edmonton Symptom Assessment System in Korean Patients With Cancer
2013.12	정신건강의학과	김태용	APOLIPOPROTEIN E GENE POLYMORPHISM, ALCOHOL USE, AND THEIR INTERACTIONS IN COMBAT-RELATED POSTTRAUMATICSTRESSDISORDER
2013.12	정형외과	양재혁	In Vivo Gap Analysis in Various Knee Flexion Angles During Navigation-Assisted Total Knee Arthroplasty
2013.12	내분비내과	정윤이	Independent Associations of Circulating 25-Hydroxyvitamin D and Parathyroid Hormone Concentrations with Blood Pressure Among Koreans: The Korea National Health and Nutrition Examination Survey (KNHANES), 2009–2010
2013.12	영상의학과	조현제	Detecting hepatocellular carcinoma in gadoteric-acid-enhanced hepatobiliary-phase MR imaging at 3T: comparing high and low flip angle.
2014.01	정형외과	양재혁	The Use of Contralateral Knee Magnetic Resonance Imaging to Predict Meniscal Size During Meniscal Allograft Transplantation

연월	소속	성명	제목
2014.02	내과	이동영	Effect of gradually lowering dialysate sodium concentration on the interdialytic weight gain, blood pressure, and extracellular water in anuric hemodialysis patients.
2014.03	이비인후과	김승우	Association study of FOS -Like antigen-2 promotor polymorphisms with papillary thyroid cancer in korean population
2014.05	영상의학과	허선진	Heterogeneous Echogenicity of the Thyroid Parenchyma Does not Influence the Detection of Multi-focality in Papillary Thyroid Carcinoma on Preoperative Ulteasound Staging
2014.06	피부과	박향준	The reverse nasolabial flap with a cartilage graft for the repair of a full-thickness alar defect: A Single-Stage Procedure
2014.07	정형외과	김영배	A Comparative analysis of sagittal spinopelvic aligment between young and old men without localized disc degeneration
2014.07	정형외과	양재혁	changes in the spinopelvic parameters of elite weight lifters
2014.07	정형외과	양재혁	Radiologic bone remodeling pattern around dcpd coated metaphyseal loading cementless short stems in elderly patients
2014.08	마취통증의학과	윤진선	Association between the use of gel pads undes patients' knees and the incidence of peroneal neuropathy following liver transplantation
2014.09	치과병원	김희경	Effect of the number of coloring liquid applications on the optical properties of monolithic zirconia.
2014.10	정형외과	양재혁	Bilateral condyle fracture of tibial insert in mobile bearing total knee arthroplasty
2014.11	호흡기내과	임효정	Inhibitory Effects of Ginsenoside-Rb2 on Nicotinic Stimulation-Evoked Catecholamine Secretion
2014.11	신경과	양영순	Left dominance of EEG abnormalities in patients with transient global
2014.12	흉부외과	김두상	Awake extracorporeal membrane oxygenation bridging for pulmonary retransplantation provides comparable results to elective retransplantation
2014.12	재활의학과	김승민	Early infarct growth predicts long-term clinical outcome in ischemic stroke
2015.01	정형외과	양재혁	Tibial plateau fracture after single bundle anterior cruciate ligament reconstruction using post-tie wasger-screw fixation
2015.01	신경과	양영순	Hemiparkinsonism-hemiatrophy syndrome with Alzheimer's disease
2015.01	혈액종양내과	임태규	Synergistic Effect of Simvastatin Plus Radiation in Gastnic Cancer and Colorectal Cancer : Implications of BIRC5 and Connective Tissue Growth Factor
2015.02	핵의학과	천미주	Focal Increased 18F FP-CIT Uptake in a Recent Ischemic Lesion in the Frontal lobe
2015.03	감염내과	김춘관	Superantigens in Staphylococcus aureus isolated from prosthetic joint infection
2015.04	치과병원	이동운	Effect of laser-dimpled titanium surfaces on attachment of epithelial-like cells and fibroblasts
2015.05	정형외과	윤호현	Use of Auxillary Locking Plate for the Treatment of Unstable Ptertrochanteric Femur Fractures
2015.07	순환기내과	박종일	Usefulness of the Integrated Scoring Model of Treadmill Tests to Predict Myocardial Ischemia and Silent Myocardial Ischemia in Community-Dwelling Adults (from the Rancho Bernardo Study)
2015.07	신경과	하상원	Changes in regional brain glucose metabolism measured wiht F-18-FDG-PET in sessential tremor
2015.07	재활의학과	김대현	Effects of intermittent theta burst stimulation on spasticity after stroke
2015.07	정형외과	윤호현	Idiopathic retroperitoneal fibrosis mimicking periprosthetic hip infection
2015.07	정형외과	양재혁	Does patella position influence ligameng balancing in total knee arthroplasty?
2015.07	정형외과	여의동	A Specialized Fibular Locking Plate for Lateral Malleolar Fracture
2015.08	치과병원	이동운	The Pole of Two Different Collagen Membranes for Dehiscence Defect Around Implants in Humans
2015.08	치과병원	이동운	Simultaneous Block Bone Grafting Using "L-Shaped Notch" Preparation in Mandible: Casr Series and 1-Year Follow-up
2015.09	재활의학과	양혜은	Usefulness of Magnetic Resonance Neurography for Diagnosis of Piriformis Muscle Syndrome and Verification of the Effect After Botulinum Toxin Type A Injection
2015.12	감염내과	김춘관	Superantigen-Producing Staphylococcus aureus Elicits Syatemic Immune Activation in a Murine Wound Colonization Model
2015.12	영상의학과	김원태	congenital anomaly of combined atlas-odontoid process fusion and bipartite atlas
2016.01	정형외과	양재혁	subcataneous versus intraarticular closed suction indwelling drainage after total knee arthroplasty:A randomised control trial
2016.02	피부과	주민숙	The accuracy of ultrasonography on the location of lipomas in the forehead
2016.02	혈액종양내과	김해수	The impact of KRAS mutations on prognosis in surgically resected colorectal caner patients with liver ang lung metastases:a retrospective analysis
2016.02	이비인후과	조현상	The significance of Rhinologic Evaluation and Pretreatment for patients undergoing Two-Jaw Surgery Through Nasotracheal intubation
2016.03	정형외과	신영수	comparison of specific femoral short stems and conventional-length stems in primary cementless total hip arthroplasty
2016.04	정형외과	여의동	Can Bassett's ligament be removed?

연월	소속	성명	제목
2016.04	혈액종양내과	남승현	extranodal marginal zone B-Cell lymphoma of mucosa-associated tissue type involving the dura
2016.04	이비인후과	김승우	prevalence and risk factors of sialocele formation after partial superficial parotidectomy: A multi-institutional analysis of 357 patients
2016.06	흉부외과	유지훈	Aortic valve Replacement with Carpentier-Edwards: Hemodynamic outcomes for the 19-mm valve
2016.06	재활의학과	김대현	usefulness of voxel-based lesion mapping for predicting motor recovery in subjects with basal ganglia hemorrhage
2016.06	비뇨기과	류재현	radical prostatectomy in korean men aged 75-years or older:safety and efficacy in comparison with patients aged 65-69 years
2016.06	혈액종양내과	김해수	assessment of objective responses in thymic epithelial tumors using ITMIG modified criteria
2016.07	재활의학과	김대현	Ultrasonographic evaluation of anatomic variations in the scaral hiatus
2016.07	혈액종양내과	김해수	value of volume-based early metabolic response in patients with unresectable thymic epithelial tumor
2016.07	정신건강의학과	강석훈	application of short screening tools for post-traumatic stress disorder in th korean elderly population
2016.07	재활의학과	김대현	Thoracic radiculopathy resulting from retrograde neuronal degeneration
2016.08	정형외과	양재혁	total knee arthroplasty after failed high tibial osteotomy: a systematic review of open versus closed wedge osteotomy
2016.08	정형외과	양재혁	Alignment in knee flexion position during navigation-assisted total knee arthroplasty
2016.09	정형외과	윤정로	Myopericytoma around the knee: mimicking a neurogenic tumour
2016.09	정형외과	신영수	comparison of dorsal and volar percutaneous approaches in acute scaphoid fractures: A meta-analysis
2016.10	재활의학과	강효정	effect of finger motion on transverse medianverve moremeutinthe carpal tunnel
2016.10	정형외과	여의동	comparison of all-inside arthroscopic and open techniques for the modified brostrom procedure for ankle instability
2016.10	재활의학과	도경희	A New Sacroiliac Joint Injection Technique and Its Short-Term Effect on Chronic Sacroiliac Region Pain
2016.10	피부과	최광현	Inflammatory bowel disease is associated with an increased risk of inflammatory skin diseases: a population-based cross-sectional study
2016.11	정형외과	신영수	minimally invasive navigation-assisted versus conventional total knee arthroplasty: a meta-analysis
2016.11	진단검사의학과	지미숙	comparing results of five glomerular filtration rate-estimating equations in the korean general population:MDRD study, revised lund-malmo, and three CKD-EPI equations
2016.11	정형외과	신영수	Comparison between two angular stable locking plates for medial opening-wedge high tibial osteotomy: decisive wedge locking plate versus tomofix
2016.12	피부과	주민숙	Hidden pictures of Kaposi's sarcoma in psoriatic lesions:a diagnostic challenge
2016.12	피부과	주민숙	Hidden pictures of kaposi's sarcoma in psoriatic lesions: a diagnostic challente
2017.01	재활의학과	김대현	Structural and functional improvements due to robot-assisted gait training in the stroke-injured brain
2017.01	정신건강의학과	강석훈	Prevalence and clinical characteristics of insomnia and its subtypes in the korean elderly
2017.02	피부과	최광현	subsequent vitiligo after hematopoietic stem cell transplantation: a nationwide population-based cohort study from korea
2017.02	정신건강의학과	김태용	Epigenetic alterations of the BDNF gene in combat-related post-traumatic stress disorder
2017.02	피부과	박향준	Digital mucous cyst: a clinical-surgical study
2017.03	피부과	박향준	Late-onset bulky naevocytoma of the perineum masquerading as a malignant melanoma
2017.03	정신건강의학과	강석훈	Subjective memory complaints in an elderly population with poor sleep quality
2017.03	보철과	강정경	Polymerization mode of self-adhesive, dual-cured dental resin cements light cured through various restorative materials
2017.03	정신건강의학과	강석훈	Heart rate variability of chronic posttaumatic stress disorder in the korean veteras
2017.03	재활의학과	도경희	comparison of intra-articular lumbar facet joint pulsed radiofrequency and intra-articular lumbar facet joint corticosteroid injection for management of lumbar facet joint pain: randomized controlled trial
2017.03	정형외과	윤정로	Sagittal osteotomy inclination in medial open-wedge high tibial osteotomy
2017.03	정형외과	윤정로	changes in coronal alignment of the ankle joint after high tibial osteotomy
2017.03	안과	신주영	carboxymethyl-lysine-modified plasma proteins in age-related macular degeneration
2017.04	혈액종양내과	김해수	patient-generated subjective global assessment as a prognosis tool in patients with multiple myeloma
2017.04	정형외과	신영수	No clinically important difference in knee scores or instability between transtibial and inlay techniques for PCL reconstruction: a systematic review
2017.05	영상의학과	김인중	Early-onset mild cognitive impairment in parkinson's disease: Altered corpetal cholinergic network
2017.05	신경외과	이지혜	primary glioblastoma of the cerebellopontine angle: case report and review of the literature
2017.06	정신건강의학과	김태용	The effect of trauma and PTSD on telomere length: an exploratory study in people exposed to combat trauma
2017.07	신장내과	이동영	comparing the clinical efficacy of resting and antihypertensive medication in patients of hypertensive urgency: a randomized, control trial

연월	소속	성명	제목
2017.07	피부과	최광현	Cutaneous plasmacytoma: metastasis of multiple myeloma at the fracture site
2017.07	혈액종양내과	김봉석	survey of medical oncology status in korea(SOMOS-K) : A national survey of medical oncologists in the korean association for clinical oncology(KACO)
2017.07	정형외과	신영수	Prospective randomized study comparing two cephalomedullary nails for elderly intertroch
2017.08	치주과	이동운	alveolar ridge preservation using allografts and dense polytetrafluoroethylene membranes with open membrane technique in unhealthy extraction socket
2017.08	혈액종양내과	김해수	A retrosepective feasibility study of biweekly, reduced-dose docetaxel in asian patients with castraqte-resistant, metastatic prostage cancer
2017.08	재활의학과	김대현	The pulvinar nucleus is associated with the presence of dysarthria in patients with basal ganglia hemorrhage
2017.09	재활의학과	도경희	safety and efficacy of letibotulinumtoxinA(BOTULAX) in treatment of post stroke upper limb spasticity: a randomized, double blind, multi-center, phase e clinical trial
2017.09	안과	설보람	comparison of glaucoma progression between unilateral and bilateral disc hemorrhage eyes and associated risk factors for progression
2017.09	호스피스완화의료사업실	이준용	secondhand smoking is associated with poor mental health in korea adolescents
2017.09	정형외과	여의동	Changes in ankle joint motion after supramalleolar osteotomy: a cadaveric model
2017.09	혈액종양내과	김해수	Clinical features and treatment outcomes of blastic plasmacytoid dendritic cell neoplasm: a single-center experience in Korea
2017.09	정형외과	신영수	comparison of kinematic and mechanical alignment techniques in primary total knee arthroplasty: a meta-analysis
2017.09	정형외과	신영수	similar outcomes for locking compression plating and retrograde intramedullary nailing for periprosthetic supracondylar fractures following total knee arthroplasty: a meta-analysis
2017.09	정형외과	신영수	Proprioception in patients with posterior cruciate ligament tears: a meta-analysis comparison of reconstructed and contralateral normal knees
2017.10	호스피스완화의료사업실	이준용	The influence of family adaptability and cohesion on anxiety and depression terminally ill cancer patients
2017.11	내분비내과	김예안	Synchronous metastasis from double primary cancers in a single left supraclavicular lymph node
2017.11	안과	설보람	Effect of 4-month intermittent atropine penalization in amblyopic children for whom patch therapy had failed
2017.11	안과	설보람	Assessment of optical coherence tomography color probability codes in myopic glaucoma eyes after applying a myopic normative database
2017.11	흉부외과	김두상	Reduced amputation rate with isovolemic hemodilution in critical limb ischemia patients
2017.11	정형외과	신영수	use of autogenous onlay bone graft for uncontainde tibial bone defects in primary total knee arthroplasty
2017.11	정형외과	신영수	intravenous versus topical tranexamic acid administration in primary total knee arthroplasty: a meta-analysis
2017.12	정형외과	여의동	Comparison of outcome in patients with generalized ligamentous laxity and without generalized laxity in the arthroscopic midified brostrom operation for shronic lateral ankle instabiliy
2017.12	정형외과	신영수	Better clinical outcomes after unicompartmental knee arthroplasty when comparing with high tibial osteotomy
2017.12	피부과	주민숙	the lateral tarsal strip for paralytic ectropion in patients with leprosy
2018.01	영상의학과	조윤구	Non-hypervascular Hypointense nodules on hepatocyte phase Gadoxetic acid-enhanced MR images : transformaion of MR hepatobiliary hypointense nodules into hypervascular hepatocellular carcinomas
2018.01	재활의학과	김대현	Bilateral hemispheric changes and language outcomes in chronic left hemisphere stroke
2018.02	보훈의학연구소	김춘관	Reduced NK cell IFN-g secretion and psychological stress are indendently associated with herpes zoster
2018.02	보훈의학연구소	김길환	Transplantation of human bone marrow-derived clonal mesenchymal stem cells reduces fibrotic scar formation in a rat spinal cord injury model
2018.03	비뇨의학과	류재현	Radical prostatectomy for clinically localized prostate cancer in patients aged 75 years of older : comparison with primary andfogen deprivation therapy
2018.03	정형외과	윤정로	arthroscopic suture bridge fixation technique with multiple crossover ties for posterior cruciate ligament tibial avulsion fracture
2018.03	정형외과	윤정로	Satisfactory short term results of navigation assisted gap-balancing total knee arthroplasty using ultracongruent insert
2018.04	재활의학과	김대현	Brain mapping for long-term recovery of gait after supratentorial stroke: A retrospective cross-sectional study
2018.04	재활의학과	도경희	Intraarticular Pulsed Radiofrequency to treat refractory Lumbar Facet Joint pain in patients with Low Back Pain
2018.04	정형외과	윤정로	Effect of shape on bone cement polymerization time in knee joint replacement surgery
2018.04	정형외과	신영수	midterm and long-term results of medial versus lateral meniscal allograft transplantation
2018.05	방사선종양학과	박소연	Optimal collimator rotation based on the outline of multiple brain targets in VMAT
2018.05	정형외과	윤호현	Effect of pelvic tilt and rotation on cup orientation in both supine and standing positions
2018.06	치과병원	이동운	A retrospective comparison of three modalities for vestibuloplasty in the posterior mandible : apically position flap only vs. free gingval graft vs. collagen matrix

연월	소속	성명	제목
2018.06	영상의학과	정보미	Magnetic resonance imaging Follow-up of chondroid tumors : regression vs. progression
2018.06	영상의학과	정보미	Infiltrating angiolipoma of the foot : magnetic resonance imaging features and review of the literature
2018.06	정형외과	신영수	diagnostic accuracy of interleukin-6 and procalcitonin in patients with periprosthetic joint infection : a systematic review and meta-analysis
2018.06	안과	설보람	comparison of chantes of macular ganglion cell-inner plexiform layer defect between stable group and progression group in primary open-angle claucoma
2018.07	영상의학과	정보미	Lumbar spine MRI versus non-lumbar imaging modalities in the diagnosis of sacral insufficiency fracture : a retrospective observational study
2018.07	외과	박효준	polymeric nano-shielded islets with heparin-polyethylene glycol in a non-human primate model
2018.08	치과병원	이동운	Incidence and pattern of implant fractures : A long-term follow-up multicenter study
2018.08	재활의학과	김대현	Effect of reducing assistance during robot assisted gait training on step length asymmetry in patient with hemiplegic stroke
2018.08	방사선종양학과	박소연	Validation of new transmission detector transmission factors for online dosimetry : an experimental study
2018.08	정형외과	신영수	Gait comparison of unicompartmental knee arthroplasty and total knee arthroplasty during level walking
2018.08	진단검사의학과	지미숙	comparison of second and third generation immunoassays for detection of anti-cyclic citrullinated peptide antibodies
2018.08	정형외과	신영수	polyurethane meniscal scaffolds lead to better clinical outcomes but worse articular cartilage status and greater absolute meniscal extrusion
2018.09	재활의학과	김대현	Brain mapping of motor and functional recovery after supratentorial stroke
2018.09	핵의학과	유장	Clinical value of delayed of delayed F-Fdg PET/CT for predicting nipple-areolar complex involvement in breast cancer : A comparison with clinical symptoms and breast MRI
2018.10	순환기내과	이창훈	diabetes and subclinical coronary atherosclersis
2018.11	보훈의학연구소	이영	Multiple genotype-phenotype association study reveals intronic ariant pair on SIDT2 associated with metabolic syndrome in a korean population
2018.11	정형외과	윤정로	unsatisfactory clinical outcomes of second-generation mobile bearing floating platform total knee arthroplasty : comparing outcomes with fixed bearing after five years minimum
2018.11	정형외과	신영수	posterior-stabilized inserts are preferable to cruciate-substituting ultracongruent inserts due to more favourable kinematics and stability
2018.11	정형외과	신영수	Unicompartmental knee arthroplasty fails to completely restore normal gait patterns during level walking
2018.11	마취통증의학과	최낙민	reversible horner's syndrome after cervical spinal cord timulator implantation in a patient with complex regional pain syndrome
2018.12	재활의학과	도경희	Hypercapnia caused by a therapeutic dosage of pregabalin in a tetraplegic patient with cervical spinal cord injury
2018.12	방사선종양학과	박소연	Assessment of the modulation degrees of intensity-modulated radiation therapy plans.
2018.12	안과	유나경	Thickness of retina and choroid in the elderly population and its association with Complement Factor H polymorphism: KLoSHA Eye study.
2019.01	이비인후과	이지혜	Hearing loss in Korean adolescents: The prevalence thereof and its association with leisure noise exposure.
2019.01	정신건강의학과	최하연	Implication of Fast Activities of Spectral Analysis in Subjective Sleep Complaints of Elderly Women.
2019.02	치주과	이동운	Alveolar ridge preservation using an open membrane approach for sockets with bone deficiency: A randomized controlled clinical trial.
2019.03	방사선종양학과	박소연	Development and dosimetric assessment of a patient-specific elastic skin applicator for high-dose-rate brachytherapy.
2019.03	방사선종양학과	박소연	Evaluation of the plan delivery accuracy of intensity-modulated radiation therapy by texture analysis using fluence maps.
2019.03	진단검사의학과	배은신	Impact of Community-Onset Methicillin-Resistant Staphylococcus aureus on Staphylococcus aureus Bacteremia in a Central Korea Veterans Health Service Hospital.
2019.03	안과	설보람	Intraocular Pressure (IOP) Change and Frequency of IOP Spike After Cataract Surgery in Normal-tension Glaucoma: A Case-Control Study.
2019.03	치주과	이동운	Implant fracture failure rate and potential associated risk indicators: An up to 12-year retrospective study of implants in 5,124 patients.
2019.03	보훈의학연구소	이학모	Direct differentiation of bone marrow mononucleated cells into insulin producing cells using pancreatic β-cell-derived components.
2019.05	재활의학과	김대현	Structural and functional connectivity correlates with motor impairment in chronic supratentorial stroke: a multimodal magnetic resonance imaging study.
2019.05	보훈의학연구소	서제현	Evaluation of Functional Filtering Bleb Using Optical Coherence Tomography Angiography.
2019.05	안과	설보람	Optic Disc Tilt and Glaucoma Progression in Myopic Glaucoma: A Longitudinal Match-Pair Case-Control Study.

연월	소속	성명	제목
2019.05	보훈의학연구소	이영	Association between CT-Measured Abdominal Skeletal Muscle Mass and Pulmonary Function.
2019.05	방사선종양학과	최누리	A meta-analysis of the impact of neutrophil-to-lymphocyte ratio on treatment outcomes after radiotherapy for solid tumors.
2019.05	정신건강의학과	김기원	Deformities of the Globus Pallidus are Associated with Severity of Suicidal Ideation and Impulsivity in Patients with Major Depressive Disorder.
2019.06	방사선종양학과	박소연	Modulation indices and plan delivery accuracy of volumetric modulated arc therapy.
2019.06	재활의학과	이승화	Altered structural connectivity associated with motor improvement in chronic supratentorial ischemic stroke.
2019.06	정형외과	이승훈	Femoral tunnel placement in single-bundle, remnant-preserving anterior cruciate ligament reconstruction using a posterior trans-septal portal.
2019.07	호흡기내과	박연경	Intensive care unit length of stay is reduced by protocolized family support intervention: a systematic review and meta-analysis.
2019.08	감염내과	전재현	Incidence and seasonality of respiratory viruses causing acute respiratory infections in the Northern United Arab Emirates.
2019.08	핵의학과	천미주	Diagnostic Performance of 18F-Fluorodeoxyglucose Positron Emission Tomography/CT for Chronic Empyema-Associated Malignancy.
2019.09	비뇨의학과	김상진	Does the Time Interval from Biopsy to Radical Prostatectomy Affect the Postoperative Oncologic Outcomes in Korean Men?
2019.09	정형외과	김영배	Predictive formula of ideal lumbar lordosis and lower lumbar lordosis determined by individual pelvic incidence in asymptomatic elderly population.
2019.09	방사선종양학과	박소연	Modeling scattered radiation from multi-leaf collimators (MLCs) to improve calculation accuracy of in-air output ratio.
2019.09	안과	설보람	Intraocular pressure according to different types of tonometry (non-contact and Goldmann applanation) in patients with different degrees of bilateral tearing.
2019.09	안과	설보람	Ocular and systemic risk factors associated with recurrent disc hemorrhage in primary open-angle glaucoma.
2019.09	호흡기내과	원하경	Cough-Related Laryngeal Sensations and Triggers in Adults With Chronic Cough: Symptom Profile and Impact.
2019.09	보훈의학연구소	윤일희	Peri-graft porcine-specific CD4+ FoxP3+ regulatory T cells by CD40-CD154 blockade prevented the rejection of porcine islet graft in diabetic mice.
2019.09	정형외과	윤호현	Differentiating Nutrient Artery Canals of the Femur versus Fracture Lines in Patients with Total Hip Arthroplasty on Plain Radiographs.
2019.09	정형외과	윤호현	Occult periprosthetic femoral fractures occur frequently during a long, trapezoidal, double-tapered cementless femoral stem fixation in primary THA.
2019.09	치주과	이동운	Conflicts between histologic and clinical/radiologic findings in functional endoscopic sinus surgery for managing maxillary sinusitis following sinus augmentation: A case report.
2019.10	재활의학과	김대현	Differences in Brain Areas Affecting Language Function After Stroke.
2019.10	피부과	김민수	The Reappraisal of the Slide-Swing Skin Flap: A Versatile Technique for Surgical Defects.
2019.10	신경과	김승민	Cilostazol Mono and Combination Treatments in Ischemic Stroke: An Updated Systematic Review and Meta-Analysis.
2019.10	보훈의학연구소	서제현	Comparison of conjunctival vascularity changes using optical coherence tomography angiography after trabeculectomy and phacotrabeculectomy.
2019.10	안과	유나경	Regression of Axoplasmic Stasis After Pars Plana Vitrectomy With Epiretinal Membrane Peeling.
2019.10	이비인후과	이지혜	Evaluation of Ototoxicity of an Antifog Agent and the Suspected Underlying Mechanisms: An Animal Study.
2019.10	방사선종양학과	최누리	The Characteristics of Local Recurrence After Breast-Conserving Surgery Alone for Malignant and Borderline Phyllodes Tumors of the Breast (KROG 16-08).
2019.11	신경과	강민주	Early-onset Alzheimer's disease patient with prion (PRNP) p.Val180Ile mutation.
2019.11	신경과	강민주	Prediction of cognitive impairment via deep learning trained with multi-center neuropsychological test data.
2019.11	이비인후과	이지혜	Assessment of hair cell damage and developmental toxicity after fine particulate matter 2.5 μm (PM 2.5) exposure using zebrafish (Danio rerio) models.
2019.11	영상의학과	정보미	Nondisplaced fractures on hip CT: added value of dual-energy CT virtual non-calcium imaging for detection of bone marrow edema using visual and quantitative analyses.
2019.12	신경과	강민주	Novel amyloid precursor protein mutation, Val669Leu (“SeoulAPP”), in a Korean patient with early-onset Alzheimer's disease
2019.12	재활의학과	김대현	Bihemispheric changes associated with cognition in patients with chronic brainstem stroke
2019.12	흉부외과	김두상	Patient-specific Hemodynamics of Severe Carotid Artery Stenosis Before and After Endarterectomy Examined by 4D Flow MRI
2019.12	호흡기내과	송진화	The clinical impact of drug-induced hepatotoxicity on anti-tuberculosis therapy: a case control study
2019.12	피부과	주민속	Efficacy and Safety of Alitretinoin Therapy in Korean Elderly Patients with Chronic Hand Eczema : A Retrospective Single Center Study

연월	소속	성명	제목
2019.12	내분비내과	김예안	Effects of physical activity on bone mineral density in older adults: Korea National Health and Nutrition Examination Survey, 2008–2011
2020.01	정형외과	윤호현	Effect of pelvic tilt and rotation on cup orientation in standing anteroposterior radiographs
2020.01	신경외과	한문희	Healing of Aneurysm after Treatment Using Flow Diverter Stent : Histopathological study in Experimental Canine Carotid Side Wall Aneurysm
2020.01	안과	최상경	Quantitative evaluation of choriocapillaris using optical coherence tomography and optical coherence tomography angiography in patients with central serous chorioretinopathy after half-dose photodynamic therapy
2020.02	재활의학과	양혜은	Changes in etiology and severity of dysphagia with aging
2020.02	보훈의학연구소	김길환	Low-intensity ultrasound attenuates paw edema formation and decreases vascular permeability induced by carrageenan injection in rats
2020.03	신장내과	이동영	High dose haemodialysis and haemodiafiltration parameters and the relationship with advanced vascular calcification
2020.03	재활의학과	도경희	Effect of interlaminar epidural steroid injection in patients with moderate to severe lumbar central spinal stenosis : a prospective study
2020.03	정형외과	윤정로	Impingement between medial plica against femoral condyle osteophyte after high tibial osteotomy
2020.04	재활의학과	김대현	Gait pattern analysis and clinical subgroup identification
2020.04	영상의학과	윤현정	Deciphering the tumor microenvironment through radiomics in non-small cell lung cancer : Correlation with immune profiles
2020.05	영상의학과	정보미	MRI Findings Predictive of Shoulder Stiffness in Patients With Full-Thickness Rotator Cuff Tears
2020.05	류마티스내과	이정선	Methotrexate-related toxicity in patients with rheumatoid arthritis andrenaldysfunction
2020.06	피부과	주민속	A Correlation between Serum Level of Alkaline Phosphatase and Acne Severity in Children and Adolescents: A Retrospective Cross-Sectional Study
2020.06	응급의학과	조시온	The prognostic value of platelet-tolymphocyte ratio on in-hospital mortality in admitted adult traffic accident patients
2020.06	내분비내과	김예안	Renal Complication and Glycemic Control in Korean Veterans with Type 2 Diabetes: A 10-Year Retrospective Cohort Study
2020.06	신경과	강민주	Predictors of pre-operative cognitive impairment in meningioma patients over 60 years old
2020.07	재활의학과	김대현	Robot-assisted gait training promotes brain reorganization after stroke
2020.07	이비인후과	이지혜	Prevalence, associated factors, and comorbidities of tinnitus in adolescents
2020.07	신장내과	이동영	Mild chronic kidney disease and its relation to functional disability in Korean elderly population
2020.07	이비인후과	조현상	Maxillary sinus pneumocele presenting as aesthetic deformity : A case report with literature review.
2020.07	신장내과	정진선	Predictive value of cardio-ankle vascular index for the risk of end-stage renal disease
2020.07	피부과	주민속	Hydrochlorothiazide use and the risk of skin cancer in patients with hypertensive disorder: a nationwide retrospective cohort study from Korea
2020.07	신경과	정다운	Brain Abscess Masquerading as Brain Infarction
2020.07	보훈의학연구소	윤재원	Dysregulation of cancer genes by recurrent intergenic fusions
2020.08	마취통증의학과	양재영	The Development of a Novel Device Based on Loss of Guidewire Resistance to Identify Epidural Space in a Porcine Model
2020.08	류마티스내과	이정선	Six-month flare risk after discontinuing long-term methotrexate treatment in patients having rheumatoid arthritis with low disease activity
2020.08	류마티스내과	이정선	Rapid reduction in uric acid by a urate-lowering agent is associated with recurrent cardiovascular events
2020.08	내분비내과	이지현	Association between interarm blood pressure differences and diabetic retinopathy in patients with type 2 diabetes
2020.09	영상의학과	윤현정	Prediction of tumor doubling time of lung adenocarcinoma using radiomic margin characteristics
2020.09	영상의학과	정보미	Imaging features of periostitis as a manifestation of IgA vasculitis_a case report
2020.09	안과	유나경	Laser and anti-vascular endothelial growth factor treatment for drusenoid pigment epithelial detachment in age-related macular degeneration
2020.09	정신건강의학과	최하연	REM Sleep Behavior Disorder among Veterans with and without Post-Traumatic Stress Disorder
2020.09	비뇨의학과	최중원	Learning curve of various type of male urethroplasty
2020.09	정신건강의학과	김기원	Associations between vascular risk factors and subsequent Alzheimer's disease in older adults
2020.10	보훈요양병원	홍기홍	Negative Correlation Between Vitamin A and Positive Correlation Between Vitamin E and Inflammation Among Healthy Adults in Korea: Based on the Korea National Health and Nutrition Examination Survey (KNHANES) 2016–2018 7th Edition
2020.10	신경과	김승민	Characterization of idiopathic Parkinson's disease subgroups using quantitative gait analysis and corresponding subregional striatal uptake visualized using 18F-FP-CIT positron emission tomography

연월	소속	성명	제목
2020.10	정형외과	여의동	Direct reconstruction of chronic extensor digitorum longus tendon rupture using interposed scar tissue in the foot
2020.10	류마티스내과	이정선	Prognostic factors for steroid-free remission in patients with idiopathic inflammatory myopathies: importance of anthropometric measurements
2020.10	비뇨의학과	최종원	Prognostic Impact of Bone Metastasis on Survival Outcomes in Patients with Metastatic Renal Cell Carcinoma Treated by First Line Tyrosine Kinase Inhibitors: A Propensity-Score Matching Analysis
2020.10	보훈의학연구소	김학수	Stearic acid attenuates profibrotic signalling in idiopathic pulmonary fibrosis
2020.10	피부과	강현지	Clinicoprognostic characteristics of cutaneous metastatic melanoma: a retrospective comparative study between acral and nonacral melanoma
2020.11	정형외과	이승훈	Outcomes of trans-tibial posterior cruciate ligament reconstruction using a fovea landmark technique in relation to tunnel position and serial tunnel configuration
2020.11	호흡기내과	원하경	Impact of Chronic Cough on Health-Related Quality of Life in the Korean Adult General Population: The Korean National Health and Nutrition Examination Survey 2010–2016
2020.11	순환기내과	황진경	Hypertension-Mediated Organ Damage and Long-term Cardiovascular Outcomes in Asian Hypertensive Patients without Prior Cardiovascular Disease
2020.11	순환기내과	이창훈	Clopidogrel drug interactions: a review of the evidence and clinical implications
2020.11	정신건강의학과	최하연	Korean Clinical Practice Guideline for the Diagnosis and Treatment of Insomnia in Adults
2020.11	비뇨의학과	최종원	Correlation between Gleason score distribution and Prostate Health Index in patients with prostate-specific antigen values of 2.5–10 ng/mL
2020.11	치과병원	이근우	Evaluation of the color stability of 3D-printed crown and bridge materials against various sources of discoloration : an in vitro study
2020.11	내분비내과	이지현	Optimal Body Mass Index for Minimizing the risk for Osteoporosis and Type 2 diabetes

부산보훈병원

연월	소속	성명	제목
2017.11	병원장	김동현	Atraumatic Live Retraction Using Nelaton Catheters During Totally Laparoscopic astrectomy
2019.07	순환기내과	최종현	Clinical results of intravascular treatment of ruptured chest aortic disease
2020.04	순환기내과	최종현	Clinical outcomes of endovascular treatment for ruptured thoracic aortic disease

광주보훈병원

연월	소속	성명	제목
2011.01	순환기내과	김완	The preventive effects of dark chocolate on impaired endothelial function in medical personnel working sequential night shifts
2011.12	순환기내과	김완	Disrupted circadian rhythm in night shift workers
2013.03	정형외과	조홍만	Cementless bipolar hemiarthroplasty using a rectangular cross-section stem for unstable intertrochanteric fractures
2014.04	순환기내과	황선호	The CHA2DS2 VASc scor can be used to stratify the prognosis of acute myocardial infarction
2014.12	일반외과	정희석	Lumbar hernia in south Korea: different from that in foreign literature?
2015.01	일반외과	조원형	Comparison of AdvanSure TB/NTM PCR and COBAS TaqMan MTB PCR for Detection of Mycobacterium tuberculosis complex in Routine Clinical Practice
2016.01	정형외과	조홍만	Survival and Functional Outcomes afer Hip Fracture amoung Nursing Home Residents
2017.02	순환기내과	조상철	Early versus late thrombolysis in acute arterial occlusion of lower extremity
2018.02	정형외과	조홍만	Method for Removing broken proximal femoral nails using existing screw hole
2018.06	재활의학과	최유리	Changes in Oxygen Consumption and Heart Rate After Acute Myocardial Infarction During 6-Month Follow-up
2018.08	정형외과	조홍만	Mid-to long-term results of total hip arthroplasty after contralateral lower extremity amputation
2019.01	정형외과	조홍만	Effect of surgical approach for contralateral side hip arthroplasty in below knee amputees: a retrospective cohort study
2019.07	정형외과	조홍만	Conservative treatment using a sponge cast for transfer fractures in nursing home patients
2020.10	영상의학과	송상국	Pleural Effusion after Hepatic RFA with Artificial Ascites

대구보훈병원

연월	소속	성명	제목
2014.03	안과	임수호	Penetratig ocular trauma associated with blank cartidge
2014.05	안과	임수호	Immunohistopathologic features of surgically excised overhanging filtering bleb:myofibroblasts filtration surgery-a case report
2014.12	안과	임수호	Incidental frontoparietal parasagittal meningioma in a patient with acute bilateral optic neuritis
2015.03	안과	임수호	Clinical Applications of Anterior Segment Optical Coherence Tomography
2015.12	안과	임수호	Long-term Outcomes of Mitomycin-C Trabeculectomyin Exfoliative Glaucoma Versus Primary Open-AngleGlaucoma
2016.03	안과	임수호	Acute angle-closure glaucoma in a highly myopicpatient secondary to well-Marchesani syndrome : histopathologic lens features.
2016.07	안과	임수호	COMPARISON OF THE LAMINA CRIBROSA THICKNESS OF PATIENTS WITH UNILATERAL BRANCH RETINAL VEIN OCCLUSION AND HEALTHY SUBJECTS.
2016.09	안과	임수호	Hypertrophic scar of the conjunctiva presenting as an eyelidmass : an unusual complication after surgical treatment of a chalazion
2017.07	내과	박규환	Migration of Large Thrombus From the Left Atrial Appendage During Transesophageal Echocardiography in a Stroke Patient
2017.10	안과	임수호	Short-term in vivo morphological changes of amniotic membrane after fibrin glue-assisted pterygium surgery on anterior segment optical coherence tomography : a case presentation
2018.10	내과	박규환	Hemorheologic Alterations in Patients with Type 2 Diabetes Mellitus Presented with an Acute Myocardial Infarction
2019.11	안과	임수호	Comparison of the retinal nerve fiber layer and ganglion cell complex thickness in Korean patients with unilateral exfoliation syndrome and healthy subjec
2020.12	안과	임수호	Evaluation of ocular surface disease in elderly patients with glaucoma:expression of matrix metalloproteinase-9 in tears
2020.12	안과	임수호	Clinical outcomes of trabecular microbypass stent (iStent)implantation in medically controlled opeb-angle glaucoma in the Korean population
2020.12	안과	임수호	Comparison of the retinal nerve fiber layer and ganglion cell complex thickness in Korean patientswith unilateral exfoliation syndrome and healthy subjects

대전보훈병원

연월	소속	성명	제목
2016.09	이비인후과	이용원	Mucocele of the inferior turbinate: a case report
2017.08	심장내과	윤신의	Successful removal of embolized chemoport catheter within the heart and pericardium:3 case reports
2018.04	이비인후과	이용원	Bilateral spontaneous symptomatic temporomandibular joint herniation into the external auditory canal:A case report and literature review
2018.11	소화기내과	박대화	Role of preoperative endoscopic clipping in laparoscopic distal gastrectomy for early gastric cancer
2019.01	이비인후과	이용원	Functional compensation of a hypertrophied sublingual gland and the absence of the ipsilateral submandibular gland
2019.08	이비인후과	이용원	Posteroinferior septal defect due to vomeral malformation
2019.02	류마티스내과	김영	Anti-TIF1γ antibody and the expression of TIF1γ in idiopathic inflammatory myopathies
2019.12	이비인후과	이용원	Intraglandular Ordinary Limpoma of the Submandibular Gland
2020.06	이비인후과	이용원	Eagle syndrome after a fracture of complete ossified stylohyoid ligament from indirect trauma treated using local steroid injection injection: A case report
2020.08	소화기내과	김덕영	Self-exandable metal stent (SEMS) of Esophageal-gastric junction versus Pyloric area obstruction in Advanced Gastric Cancer Patients : retrospective, comparative, single-center study

4. 의료진 해외연수

중앙보훈병원

연도	소속	성명	연구목적	연수국가
2011	영상의학과	김완태	근골격계 영상의 최신지견 습득 및 연구	미국
	순환기내과	박종일	심부전 임상연구 및 기초연구 참여	미국
	병리과	김윤정	림프관내계 및 비뇨기계의 다양한 진단 종례 경험 및 최신지견 습득 연구	미국
	치주과	유정아	임플란트의 골이식 분야에서 골유도 및 골재생을 유발하는 성장인자에 대한 연구	미국
2012	소화기내과	방제소	소화기 질환에 대한 최신지견 술기 습득	미국
	흉부외과	김두상	흉부외과 영역의 최신지견 습득 및 연구	오스트리아
	마취통증의학과	윤진선	동물 모델에서의 Pain mechanism에 관한 연구	미국
2013	감염내과	김춘관	임상 미생물 실험실에서 정형외과 Device 관련 감염 및 biofilm 관련 실험 및 연구	미국
	정형외과	강규복	최소침습법에 의한 척추수술분야 최신지견 습득 및 동물실험	미국
	정형외과	양재혁	병원 수술참관 등 술관절 주위 골절 및 인공관절분야 최신지견 습득	오스트리아
	치주과	이동운	치과대학병원 진료참관 등 임플란트, 치주조직 재생분야 최신지견 습득	미국
2015	혈액종양내과	남승현	림프종 및 다발성 골수종에 대해 공부하고 최신치료에 대한 연구	미국
	소화기내과	박원형	알콜성 간염 및 알콜성 간질환의 병태 생리 연구, 간 질환에 대한 세포치료 연구	미국
	정형외과	양재혁	수술의 술기 습득, 학회 활동 및 논문작성(임상연구 및 세포관련 기초연구 포함)	미국
2016	재활센터	이승화	Dystonia에 대해 이해하고 임상 양상 및 증상에 따른 치료법에 대해 연구	미국
	내분비내과	정은희	질병의 조기진단 및 표적치료의 기초가 되는 나노기술과 화학생물학의 기초적 이해 및 최신 지식의 습득	미국
	정형외과	윤호현	성인 고관절 질환 치료에 대한 최신 선진의료기술 습득 및 연구	미국
2017	소화기내과	장지선	염증성 장질환 환자의 장내 미생물총(intestinal microbiota)연구	미국
	외과	윤호근	위 운동 촉진에 대한 연구, 영양집중지원 연수	미국
	혈액종양내과	임태규	암환자 항암화학요법과 보전적 치료교육 및 임상연구 참여	미국
2019	순환기내과	이창훈	인공지능, 빅데이터, 최신 시술 습득, 환자 진료개선 및 병원위상 고취	미국
	방사선종양과	장나영	암환자의 선진 방사선치료 기술의 참관 및 습득	미국
	재활의학과	이원재	선진 재활의학분야에 대한 견학, 연구 및 지식 습득	미국

부산보훈병원

연도	소속	성명	연구목적	연수국가
2016	간호실	윤재연	피폭자 지원 대책 설명, 피폭시설 시찰, 나가사키대학병원, 평화공원 등 관계기관 방문	일본
	간호실	조선화	피폭시설 시찰, 피폭자대책 설명 청취, 방사선영향연구소, 히로시마 원폭장애대책협의회 등 관계기관 방문	일본
2017	간호실	서국순	피폭시설 시찰, 피폭자대책 설명 청취, 방사선영향연구소, 히로시마 원폭장애대책협의회 등 관계기관 방문	일본
2018	간호실	은미경	피폭시설 시찰, 피폭자대책 설명 청취, 방사선영향연구소, 히로시마 원폭장애대책협의회 등 관계기관 방문	일본
	교육연구실	김미나	피폭자 지원 대책 설명, 피폭시설 시찰, 나가사키대학병원, 평화공원 등 관계기관 방문	일본

광주보훈병원

연도	소속	성명	연구목적	연수국가
2015	이비인후과	박정미	보훈병원 이비인후과 환자 어지러움증 질환 검사 및 전정재활치료 UPDATE	미국
2016	비뇨의학과	오병석	보훈대상자에서 빈발하는 배뇨장애, 비뇨기암 등 노인성 질환에 대한 선진 의료기관 연수를 통한 기술 습득	미국

대구보훈병원

연도	소속	성명	연구목적	연수국가
2017	내과	강상욱	심혈관 및 말초혈관 중재시술에 대한 선진기술 습득 및 심혈관 질환에 대한 연구	미국
2018	이비인후과	송선희	비과 질환의 치료와 수술에 대한 선진 의료기술 습득 및 연구	미국
2019	내과	이동석	소화기영상의학의 방사선 중재적 시술과 소화기내과 중재시술에 관한 최신 시술, 의료지견 습득 및 연구	미국

대전보훈병원

연도	소속	성명	연구목적	연수국가
2014	진료실	박건영	척추수술 최신의료습득 해외연수	미국

IV 자산 현황

1. 부동산 (2021.06.30. 기준)

구분	토지면적		건물면적		장부가액 (백만 원)	비고
	㎡	평	㎡	평		
계	384,395	116,283	354,501	107,237	539,889	※ 3.3㎡=1평 기준
중앙병원	87,718	26,535	143,253	43,334	339,065	- 토지(1,368㎡) 기부채납 - 2011.6 중앙관 신축
부산병원	65,670	19,865	41,557	12,571	52,549	- 2020.1 교육연구동 철거
광주병원	67,997	20,569	48,751	14,747	53,624	- 2019.8 인공신장실 증축
대구병원	31,252	9,454	37,623	11,381	13,498	- 1993.2 개원
대전병원	40,944	12,386	38,541	11,659	28,018	- 2019년 본관 등 3곳 증축 - 2019.12 장례식장, 보장구센터 철거
인천병원	28,680	8,676	10,979	3,321	34,694	- 2019.9 증축(50.45㎡)
안산사업소	49,771	15,055	27,018	8,173	3,658	- 동일위치 및 공동건물 (목제공장·철제공장·봉제사업단)
본부사옥	4,919	1,488	6,779	2,051	14,783	- 2013.12 신축(원주)
신사옥부지	7,444	2,255			4,094	

* (구)광주보훈병원 매각으로 2014년 12월 광주광역시 남구청으로 소유권 이전등기

* 유통사업단 양산창고 부지 매각(2015.9)으로 소유권 이전등기

2. 국유재산 관리

구분	토지면적		건물면적		비고
	㎡	평	㎡	평	
계	340,957	103,139	134,563	40,711	
보훈교육연구원	99,091	29,975	10,782	3,267	2006.02. 신축
수원보훈요양원	6,106	1,847	7,934	2,400	2008.08. 개원
광주보훈요양원	-	-	7,563	2,288	2008.09. 개원
김해보훈요양원	29,104	8,804	7,661	2,317	2009.09. 개원
대구보훈요양원	19,987	6,046	7,490	2,266	2011.11. 개원
대전보훈요양원	7,700	2,329	7,378	2,232	2012.10. 개원
남양주보훈요양원	5,005	1,514	9,268	2,804	2015.02. 개원
원주보훈요양원	9,785	2,960	10,515	3,181	2020.12. 개원
보훈재활체육센터	31,773	9,611	16,756	5,069	2011.05. 개원
보훈원	34,443	10,419	41,546	12,567	1997.07. 신축
보훈휴양원	97,963	29,634	7,670	2,320	1996.09. 개원

* 보훈복지기금 4필지(1,745㎡, 528.6평) : 보훈원 내 3필지, 연구원 내 1필지

3. 주요자산 증감(1982년~2021년 3월 기준) (단위 : 백만 원)

일시	주요자산	금액		비고
		취득	매각	
1982.04.29.	- 봉제사업 반월공장 인수	420	-	
1983.03.09.	- 합성수지사업 성남공장 인수(현대화학)	2,057	-	
1983.06.15.	- (주)한성 인수(주택공사)	13,250	-	- 원금 8,998, 이자 4,252
1983.08.18.	- 부산병원 인수(철도병원)	1,841	-	- 원금 1,534, 이자 307
1983.08.30.	- 구 원호병원 매각(교통안전진흥공단)	-	3,721	- 원금 3,566, 이자 155
1984.01.16.	- 서울보훈병원 인수(국유재산 귀속)	16,054	-	- 의료장비 포함(16,892)
1985.08.25.	- 반월공장 부지 매입(13,826평)	1,489	-	
1987.04.25.	- 광주병원 신축(건립비)	5,401	-	
1987.08.25.	- 철제사업 수원공장 매각 · 한국건설(주) : 2,867백만 원 · 경기도교육위원회 : 55백만 원	-	2,922	- 감정가 : 2,898
1988.02.29.	- 철제사업 반월공장 신축	1,991	-	- 건립비
1989.02.03.	- 부산병원 신축부지 매입(20,129평)	1,538	-	
1989.05.31.	- 목제사업 반월공장 신축	2,193	-	- 건립비
1990.11.01.	- 광주병원 1차 증축(506평)	576	-	- 증축비
1991.04.11.	- 광주병원 부지 인수 국유재산 귀속	1,092	-	- 4,143평
1991.11.18.	- 서울병원 장기병동 등 신축	6,316	-	- 의지창, 재활체육관
1991.12.02.	- 광주병원 2차 증축	639	-	- 증축비
1992.05.15.	- 부산병원 이전 신축	13,627	-	- 부지제외
	- 대구병원 부지 매입	1,000	-	- 대구시 기증
1993.02.12.	- 대구병원 신축	21,069	-	
1993.08.10.	- 구 부산병원 매각	-	9,177	- 1992년 해약 10억 원 별도
1994.07.12.	- 대전병원 신축부지 매입(65,544평)	1,950	-	- 소유권 등기
1994.07.18.	- 부산병원 도로부지 매각(182평)	-	211	
1994.09.17.	- 의지창 3층 증축(297평)	280	-	
1994.11.04.	- 부산병원 100병상 증축(988평)	2,664	-	- 증축비
1994.11.18.	- 유통사업단 양산창고 매입(1,506평)	1,815		
1995.08.18.	- 본부사옥(대동빌딩) 매입(255평)	5,201	25,000	- 2013.12.27매각
1995.12.17.	- 유통사업단 성남창고 신축	1,495	-	- 합성수지사업단
1995.12.29.	- 유통사업단 성동창고 매입(774평)	5,333	-	
1996.04.01.	- 봉제사업단 증·개축(597평)	1,039	-	
1996.06.30.	- 서울병원 의료지원실 신축(1,336평)	3,854	-	

일시	주요자산	금액		비고
		취득	매각	
1996.08.13.	- 대구병원 재활체육관 신축(250평)	590	-	
	- 광주병원 진료지원실 신축(1,286평)	2,655	-	
1997.09.04.	- 대전병원 신축	51,162	-	
1998.04.05.	- 상무대 신축부지 매입(2,000평)	3,862	-	
1999.06.29.	- 광주병원 신축부지 매입(22,416평)	11,235	-	
1999.08.20.	- 상무대 신축부지 매각	-	5,196	- 광주병원 이전
2000.07.31.	- 서울병원 의료시설확충 부지매입(6,638평)	2,260	-	- 법령개정 후 활용
2001.06.03	- 대전병원 의료지원동 증축	1,561		
2002.04.01.	- 합성수지사업단 (성남공장) 매각	-	10,301	
2002.06.22.	- 서울병원 장례식장 신축(779평)	3,860	-	
2002.12.06.	- 광주병원 신축	39,365	-	- 신축 이전 개원
2003.03.28.	- 제주휴양시설 부지 매입(60,174평)	2,036	-	- 소유권 등기
2003.04.21.	- 제주휴양시설 부지 매입(28,500평)	1,154	-	- 소유권 등기
2003.08.13.	- 제주휴양시설 부지 매입(3,601평)	225	-	- 소유권 등기
2004.07.08.	- 제주휴양시설 부지 매입(1,989평)	112	-	- 소유권 등기
2005.05.06.	- 부산병원 증축(3,862평)	218	-	
2005.08.17	- 대전병원 재활체육관 증축	2,392		
2005.12.21.	- 제주휴양시설 부지 매입(5,588평)	898	-	- 소유권 등기
2006.04.13.	- 제주휴양시설 부지 매입(3,007평)	306	-	- 소유권 등기
2007.01.31.	- 부산병원 증축(56평)	46	-	
2007.04.02.	- 광주병원 전공의 숙소 증축(598평)	1,081	-	
2007.04.25.	- 구 광주병원(주월동 소재) 매각	-	9,310	- 소유권 이전
2007.05.21.	- 제주휴양시설 부지 매각(102,859평)	-	10,084	- 소유권 이전
2008.05.23.	- 구 수원철제공장 부지 매각(21평)	-	55	- 소유권 이전
2008.08.14.	- 구 광주병원(주월동 소재) 소유권반환	-	-	- 매각무효 소유권반환
2008.09.30.	- 대구병원 증축(5,874평)	38,743	-	- 주차장 1,252평 포함
2008.12.31.	- 대구병원 리모델링	11,356	-	
2009.05.25.	- 광주병원 재활센터 증축(448평)	1,106	-	
2011.04.30.	- 중앙보훈병원 신축(26,082평)	159,732	-	- 소유권 등기(2011.8.12)
2011.05.25.	- 중앙병원 토지 기부채납(415평)	-	-	- 강동구청 기부채납
2011.07.26.	- 부산병원 동관신축(3,017평)	12,216	-	
2011.10.19.	- 광주병원 체력증진실 등 증축공사(93평)	208	-	

일시	주요자산	금액		비고
		취득	매각	
2012.11.12.	- 광주병원 공조실 증축(13평)	58		
2013.12.31.	- 원주 혁신도시 본사사옥 부지(1,337평)	2,511	-	
2013.12.31.	- 원주 혁신도시 본사사옥 건물(2,051평)	14,298	-	
2014.09.24.	- 대전병원 본관증축 및 주차장(2,054평)	8,657	-	
2014.12.18.	- 구 광주병원(주월동 소재) 매각완료	-	8,500	- 소유권 이전
2014.12.31.	- 광주병원 수술실 등 증축(149평)	669	-	
2015.09.22.	- 인천병원 건립 부지 매입(8,676평)	8,963	-	- 소유권 등기
2015.09.30.	- 유통사업단 양산창고 부지매각 완료	-	3,535	- 소유권 이전
2015.10.20.	- 광주병원 원무 등 증축(68평)	325	-	
2016.09.30.	- 광주병원 전문진료센터 증축(1,029평)	5,743	-	
2016.12.16.	- 중앙병원 도로확장부지 일부매각(86평)	-	1,283	- 강동구청 토지수용
2017.11.27.	- 중앙병원 철골주차장 신축(97대)	3,275	-	
2018.08.31.	- 인천병원 건물 신축(3,321평)	29,667	-	- 임시사용승인
2018.08.31.	- 중앙병원 장례식장 증축(860평)	11,075	-	
2018.08.31.	- 중앙병원 보훈의학연구소 신축(1,974평)	15,985	-	
2018.10.02.	- 중앙병원 지하철9호선 부지매각(133평)	-	2,079	- 강동구청 토지수용
2019.06.03.	- 대전병원 수술실 증축(108.9평)	1,283	-	
2019.08.27.	- 광주병원 인공신장실 증축(205평)	1,507	-	- 소유권 이전 등기
2019.09.18.	- 인천병원 증축(15.2평)	14	-	
2019.09.30.	- 대전병원 의료지원동 증축(78.6평)	532	-	
2020.01.20.	- 부산병원 교육연구동 철거(242평)	-	-	- 재활센터동 건립 관련 - 잔액 463백만 원
2020.01.31.	- 대전병원 내시경실 확장, 본관 증축(59평)	837	-	- 등기 진행 중
2020.02.25.	- 대전병원 호흡기내과 증축(29평)	363	-	- 준공·등기 진행 중
2021.03.22	- 본사 신사옥 부지(클러스터14) 매입(2,255평)	4,094		
합계		568,325	91,374	

V 연표

연도	내용
공단 창립 이전	
1953. 2. 23	대구 제2호 병원 창설(대통령령 제65호)
1957. 4. 22	서울특별시 구로구 오류동 소재 구병원으로 이전
1957. 9. 25	오류동 구호병원으로 개칭
1961. 7. 29	보건사회부에서 원호처로 이관
1962. 5. 12	원호병원으로 조직개편(각령 제70호)
1969. 8. 20	국립원호병원으로 개칭(대통령령 제4025호)
1970. 1. 1	직업재활원에서 의지창 인수
1974. 8. 1	종합병원 승격(일반인 진료병행 실시)
1975. 2. 1	전공의 수련병원 인가
1976. 12. 24	직제개편(사무국 신설)
1980년대	
1980. 6. 17	서울특별시 강동구 둔촌동 소재 신축병원 착공식
1981. 4. 4	한국원호복지공단법 공포(법률 제3419호)
1981. 5. 20	한국원호복지공단법 시행령 공포(대통령령 제10318호)
1981. 11. 2	한국원호복지공단 설립(국립원호병원, 직업재활원, 원호단체후원회, 원호장학회, 서울목공분조합 흡수통합)
1982. 2.	원호단체후원회의 미군면세품 판매사업 인수
1982. 4. 8	합성수지사업소 신설
1982. 5. 10	봉제사업소 신설(상이군경회로부터 서울편직 인수)
1982. 7.	관세청 범칙물품 수탁 판매기관으로 지정
1982. 8. 20	관세품 판매사업소 신설
1983. 1.	(주)한성 인수(대한주택공사) 자회사로 설립
1983. 8. 16	서울보훈병원 신축 이전(오류동→둔촌동, 440병상)
1984. 4. 3	부산보훈병원 개원(150병상)
1984. 5.	(주)창훈실업 설립
1984. 12. 10	광주보훈병원 착공식
1985. 1. 1	한국보훈복지공단 명칭변경(법률 제3742호)
1986. 2. 10	본사에 의료사업본부 설치
1987. 4. 25	광주보훈병원 개원(120병상)
1987. 8. 18	서울보훈병원 노동조합 설립
1988. 6. 1	한국보훈복지공단 노동조합 설립
1989. 5. 27	목제·철제공장 신축이전
1989. 12. 27	부산보훈병원 신축착공식

연도	내용
1990년대	
1990. 1. 3	의료사업본부 폐지 보훈병원 기획부 설치
1990. 2. 15	광주보훈병원 80병상 증축착공식
1990. 3. 12	서울보훈병원 장기요양병동(330병상) 증축 착공식
1990. 6. 2	서울보훈병원 인공신장실 개설
1990. 9. 20	서울보훈병원 의지창 신축착공식
1990. 9. 21	광주보훈병원 80병상 증축완공식(200병상)
1990. 12. 24	서울보훈병원 정신재활관 기공식
1991. 6. 11	대구보훈병원 신축착공식(300병상)
1991. 9.	공단과 병원 심볼마크 개발
1991. 11. 21	서울보훈병원 장기요양병동 300병상(740병상) 및 의지창 준공식
1991. 11. 29	광주보훈병원 100병상 증설준공식(300병상)
1991. 12. 2	서울보훈병원 정신재활관 준공식
1992. 5. 15	부산보훈병원 신축이전(240병상)
1993. 2. 12	대구보훈병원 신축개원식(300병상)
1993. 4. 1	보훈원 인수운영(양로.양육업무 위탁)
1994. 5. 1	광주보훈병원 재활의학과 개설
1994. 6. 10	대전보훈병원 신축착공식
1994. 6. 15	광주보훈병원 진료지원 시설 신축기공식
1994. 7. 1	서울보훈병원 한방진료과, 부산보훈병원 해부병리와 개설
1994. 8.	유통사업단 명칭변경, 부산영업소 신설
1994. 11. 1	부산보훈병원 100병상 증축(340병상)
1995. 4. 13	서울보훈병원 진료지원 시설 신축기공식
1995. 4.	유통사업단 양산창고 매입(24억 500만 원)
1995. 12.	유통사업단 성동보세장치장 개소
1996. 6. 28	서울보훈병원 진료지원시설 준공식
1996. 9. 13	광주보훈병원 응급센터 및 진료지원시설 준공식
1996. 7. 21	보훈복지타운 개원
1996. 8. 30	충주 보훈휴양원 개원
1996. 10. 11	광주보훈병원 신장내과 및 인공신장실 개설
1997. 6.	보훈원 신축 이전
1997. 8. 14	부산보훈병원 피부과 개설
1997. 8.	봉제사업단 명칭변경
1997. 9.	하나로통신 주식 매입(223억 원)
1997. 11. 5	대전보훈병원 신축 개원(350병상)

연도	내용
1997. 12.	유통사업단 외교관면세점 개소
1998. 10.	보훈병원 전자처방전달시스템(O.C.S) 체계 구축
1998. 3	유통사업단 성동보세장치장 사업종료
1998. 10. 1	서울보훈병원 종합전산화(O.C.S) 가동
1998. 11. 29	서울보훈병원 종합재활센터 준공식(73병상)
1998. 12. 10	목제.철제사업단 통합(건제사업단)
1999. 1. 1	보훈연수원 인수 운영(보훈처 훈령 제667호)
1999. 6.	보훈공단 홈페이지 개설
1999. 7.	하나로통신 유상증자 주식 매입(146억 원)
1999. 8. 16	의료사업 중심체제로 조직 정비
1999. 8. 20	(주)한성매각(주)서희건설)
1999. 8. 27	제6회 보훈병원 종합학술대회 개최
1999. 10. 1	1999년도 국정감사 수감(서울보훈병원)
1999. 10. 18	직원 집체교육 실시(수원보훈연수원)
1999. 10.	국방부에서 이관 국가유공자 5,200여 명 신체검사 업무수행
1999. 10.	독일 오토복사 의지기술협정 및 미국 스타키사와 보청기 기술협정 체결
1999. 11. 2	보훈공단 창립 제18주년 기념식 사보 ‘공단 소식지’ 창간호 발행(월2회)
1999. 11. 9	보훈연수원 ‘초·중등교원의 민족정기 선양 특수 분야 일반 연수 연수기관’ 선정
1999. 11. 19	보훈학술 토론회 개최
1999. 11. 25	국가유공자 신체검사 실시
1999. 11. 29	한국정보통신기술사협회와 인증검사용역 계약 체결 (Y2K문제 전문기관 인증)
1999. 11. 30	핀티킴폭 유엔평화대사 서울보훈병원 방문
1999. 12. 9	서울보훈병원 가정의학과 개설
1999. 12. 29	경영실적에 따른 인센티브 상여금 결정, 차등지급
1999. 12. 30	건제사업단 제품 ISO 9001 인증
2000년대	
2000. 1. 1	국립현충원 및 4.19묘소 참배
2000. 1. 14	국가유공자 진료향상과 경영내실화 사업계획 보고
2000. 1. 15	경상이자 신규 신체검사 워크숍 개최
2000. 1. 20	병원협회 주관 병원표준화 수범기관 선정 (대전보훈병원)
2000. 1. 21	사업계획 및 예산 확대간부회의 개최
2000. 1.	대전보훈병원 신경과 개설
2000. 3. 28	참전기금운용 심의회 개최
2000. 4.	교원 교육과정 및 전역 예정군인 교육과정 신설 (보훈연수원)

연도	내용
2000. 4. 8	본사 의료지원실 서울보훈병원으로 이전
2000. 4. 30	서울보훈병원 입원환자 및 보호자 휴게실 증축공사 완공식
2000. 5. 1	광주보훈병원 내분비내과 개설
2000. 5. 8	직원 조직개발 교육실시(05~12)
2000. 5. 15	제9대 조만진 사장 취임
2000. 6. 6	김대중 대통령 서울보훈병원 위문
2000. 6. 11	의료분야 직무분석(T/F) 실시
2000. 6. 20	대전보훈병원 의료시설 신축 기공식
2000. 6. 20	의약분업 관련 보훈병원 비상진료체제 운영(6.20~6.21)
2000. 6. 28	광주보훈병원 신축병원 기공
2000. 6. 30	(주)창훈실업 매각완료(상이군경회)
2000. 7. 1	의약분업 관련 대책반 운영(7.1~7.20)
2000. 7. 29	공직기강(잔존부조리 근본대책) 확립교육
2000. 8. 17	역대 사장 초청 간담회 개최
2000. 8.	부산보훈병원 EDI방식(전자문서교환방식) 도입
2000. 9. 1	제7회 보훈의학회 종합학술대회 개최
2000. 9. 21	제1회 의료 복지 수익사업 간부회의
2000. 10. 2	참전기금 관리업무 보훈처로 이관
2000. 10. 10	보훈공단 자금관리 특별대책위원회 개최
2000. 10. 12	보훈공단 정보화 종합계획 설명회 개최
2000. 10. 16	보훈공단 소식지 ‘미아찾기 캠페인’란 신설
2000. 11. 2	보훈공단 창립 제19주년 기념식
2000. 11. 16	조만진 사장 천수이벤 대만총통 예방
2000. 11. 27	의약분업관련 장기파업 전공의 진료 정상화 (11.27~11.28)
2000. 11. 29	대전보훈병원 대전보건대학과 산학협동체결
2000. 11.	퇴직금 누진제에서 단수제로 개선
2000. 12. 25	서울보훈병원 본관 로비확장 및 의지창 개보수 공사 준공
2000. 12	의료사업 분야 전문화 교육
2001. 1. 16	「보훈공단법」 개정, 법률 제6372호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으로 명칭 변경, 이사장제 도입, 의료중심 체제로 전환)
2001. 2. 5	부산보훈병원 종합진료안내 센터 설치
2001. 2. 16	광주보훈병원 신축 이전공사 착공식
2001. 2. 19	대만 영민병원 간부진 공단 방문
2001. 2.	보훈연수원 보훈교육연구원으로 명칭변경
2001. 3. 1	광주보훈병원 신경과 개설

연도	내용
2001. 3. 5	복권사업단 발족
2001. 3. 16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와 업무협정 체결 (의료 봉사활동)
2001. 3. 28	우크라이나 대통령부인 서울보훈병원 방문
2001. 4. 7	고엽제 검진 및 신체검사 워크숍 개최
2001. 4. 19	이한동 국무총리 서울보훈병원 위문
2001. 4. 25	합성수지사업단 무재해 기록인증 획득
2001. 4. 27	대전보훈병원 의료지원시설 준공식
2001. 4. 28	의료사업 분야 직원 전문화교육 실시(4.28~11.11)
2001. 4.	국가유공자와 공단 임직원 자매결연 (보훈병원 이용안내)
2001. 5. 2	서울보훈병원 한방침구과 개설
2001. 5. 21	복권사업단 플러스 플러스복권 발매(2개월 주기)
2001. 5. 23	공단 간부직원 관리자 교육(5.23~25/6.7~9)
2001. 6. 2	호국보훈의 달 국립현충원 참배
2001. 6. 6	김대중 대통령 서울보훈병원 위문
2001. 6. 24	호국보훈의 달 거북이 마라톤대회 참가
2001. 6.	5개 보훈병원 환자복 개선
2001. 7. 4	서울보훈병원 장례식장 신축기공식
2001. 8. 24	가천의과대학교 길병원과 병원교류협정 체결
2001. 8. 28	공단 규정집 발간(보완)
2001. 8. 31	광복 56주년 기념 중국 연변지역 독립유공자 후손 의료봉사(8.31~9.5)
2001. 9. 12	선진의료시스템 견학(보훈병원 약사 연수단, 일본. 9.12~9.15)
2001. 9. 21	제8회 보훈의학회 종합학술대회 개최(9.21~9.22)
2001. 10. 15	복권사업단 스피드플러스복권 발매(즉석복권)
2001. 10. 18	광주보훈병원 한방진료과 개설
2001. 10. 22	보훈병원 간호직 전문화교육 실시(10.22~10.27)
2001. 10. 26	조만진 이사장 우크라이나 국립 키예브대학교에서 명예정치학 박사학위
2001. 10.	월남참전전우회 서울 및 광주보훈병원에 월체어 기증
2001. 11. 1	보훈공단 창립 제20주년 기념식
2001. 11. 3	서울보훈병원 호스피스 병실 개설
2001. 11. 30	서울보훈병원 여성폭력 긴급의료 지원센터 설치
2001. 12. 3	의료관리 분야 직원 전문화 교육 실시(12.3~12.8)
2001. 12. 10	보훈병원을 중국대사관 전담병원으로 지정
2001. 12. 31	‘보훈공단 20년사’ 발간
2001. 12.	대학생자녀 학자금 제도 변경(무이자 융자)
2001. 12.	보훈공단 소식지 합본호 발간(1~51호)
2002. 1. 15	부산보훈병원 국가유공자 무료급식소 개소식

연도	내용
2002. 1. 16	의료 만족도 제고를 위한 보훈병원장 간담회 개최
2002. 1. 25	보훈공단 사업 분야별 정책회의 개최
2002. 2. 2	당직제도 개선(무인경비시스템 설치)
2002. 2. 9	김대중 대통령 서울보훈병원 위문
2002. 2. 27	보훈원 제1기 보훈경로대학 졸업식
2002. 3. 5	대전보훈병원 e-OCS 및 보훈 EDI 프로그램 설치
2002. 3. 21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준비위원회 개최
2002. 4. 1	대전보훈병원 충남대병원과 모자병원 현판식
2002. 4. 7	월드컵 성공개최를 위한 마라톤 대회 참가
2002. 5. 2	한서대학교와 보장구 관련 산학협동 협정
2002. 5. 6	합성수지사업단 폐지
2002. 5. 10	서울보훈병원 장례식장 준공식
2002. 5. 10	보훈교육연구원 교육서비스 현장 제정 공포
2002. 6. 4	호국보훈의 달 국립현충원 참배
2002. 6. 16	호국보훈의 달 거북이 마라톤대회 참가
2002. 7. 7	중국 연변지역 해외의료봉사 활동(7.7~7.14)
2002. 7. 12	연변 화룡인민병원과 교류협정 체결
2002. 7. 27	광주민주유공자 국비가료 개시
2002. 8. 8	유통사업단 판매장 이전(반포동)
2002. 9. 2	서울보훈병원 전면 예약진료 실시
2002. 9. 6	제9회 보훈의학회 종합학술대회 개최(9.6~9.7)
2002. 9. 6	보훈공단 강원도 양양 수해지역 의료 복구지원 (9.6~9.11)
2002. 10. 21	연변 화룡인민병원 의료진 보훈병원 연수(10.21~11.4)
2002. 11. 1	보훈공단 창립 제21주년 기념식
2002. 11. 11	조직력 개발교육 실시(11.11~11.30)
2002. 12. 6	광주보훈병원 신축 이전(500병상)
2002. 12. 18	서울보훈병원 한국재활복지대학과 산학협동 협정
2002. 12. 31	의약품 코드 표준화 완료
2003. 1. 23	광주보훈병원 광주보건대학과 산학협력체결 조인식
2003. 2. 18	보훈공단 임직원 대구지하철사고 관련 위문성금 기탁
2003. 3. 20	광주보훈병원 가정의학과 개설
2003. 3. 27	광주보훈병원 호스피스 병실 개설
2003. 4. 3	한국우사회 주식 매입(24억 원)
2003. 4	서울보훈병원 브랜드 인지도 우수병원 선정(SBNC 의료기관 마케팅 평가회사)
2003. 5. 1	광주보훈병원 신축 장례식장 개소
2003. 6. 2	호국보훈의 달 국립현충원 참배
2003. 6. 5	노무현 대통령 서울보훈병원 위문

연도	내용
2003. 6. 15	호국보훈의 달 거북이 마라톤대회 참가
2003. 7. 1	제10대 박종권 이사장 취임
2003. 7. 28	보훈병원 의료진 베트남 퀴논 및 다낭지역 해외의료봉사활동(7.28~8.6)
2003. 8. 1	서울보훈병원 의료영상전달시스템(PACS) 가동
2003. 8. 6	보훈공단 중장기 발전을 위한 경영개선팀(T/F) 운영 (8.6~8.10)
2003. 8. 30	고엽제환자 진료범위 확대
2003. 9. 5	제10회 보훈의학회 종합학술대회 개최(9.5~9.6)
2003. 9. 18	보훈공단 임직원 태풍 매미 피해 수재민을 위한 수재의연금 기탁
2003. 9.	하나로통신 주식 매각완료(1999.10~2003. 9)
2003.10.28	봉제사업단 국방품질경영시스템 규격 인증 획득
2003.10.29	대만 대표부 보훈공단 방문
2003.10.31	역대 이사장 초청 간담회 개최
2003. 11. 1	보훈공단 창립 제22주년 기념식
2003. 11. 6	부산보훈병원 200병상 증축 기공식 및 주차장 준공식
2003. 11. 21	국회 보훈특별위원회 및 보훈단체장 조찬 간담회 개최
2003. 12. 5	수도권 위탁병원장 회의 개최
2003. 12. 9	유통사업단 전자입찰 시스템 도입
2003. 12. 16	대만 행정원 등조림(鄧祖琳) 주임위원 공단 방문
2004. 1. 19	본부·복지·수익사업 분야 확대 경영 회의
2004. 1. 20	홍보책자 ‘함께 여는 보훈의 길’ 발간
2004. 2. 13	독일 오토복사 사장단 보훈공단 방문
2004. 3. 10	대전보훈병원 가정의학과 개설
2004. 4. 9	보훈단체장 초청 간담회 개최
2004. 5. 7	중국 화롱시 부시장과 화룡인민병원장 보훈공단 방문
2004. 5. 21	광주보훈병원 심혈관센터 개소식
2004. 5. 31	보훈교육연구원, 전역예정자 사회 적응 교육(5.31~6.13)
2004. 6. 1	광주·대구·대전보훈병원 의료영상전달시스템(PACS) 가동
2004. 6. 1	호국보훈의 달 국립현충원 참배
2004. 6. 20	호국보훈의 달 거북이 마라톤대회 참가
2004. 7. 1	대전보훈병원 육창센터 개소식
2004. 7. 20	사보 ‘보훈공단보’ 창간호 발행(월간)
2004. 7. 20	‘존경·신뢰·성실·봉사’를 바탕으로 공단 윤리강령 제정 및 선포
2004. 8. 1	부산보훈병원 의료영상전달시스템(PACS) 가동
2004. 8. 15	초·중등교원 국외독립운동사적지 탐방(6박 7일간)
2004. 8. 16	중국 화롱지역 독립운동후손 해외의료봉사(8.16~8.23)
2004. 9. 1	부산보훈병원 통합 전자처방전달시스템(OCS) 표준화

연도	내용
2004. 9. 11	서울보훈병원 칠레인 화상환자 진료지원
2004. 9. 16	제11회 보훈의학회 종합학술대회 개최(9.16~9.17)
2004. 10. 1	광주·대구·대전보훈병원 통합 전자처방전달시스템 (OCS) 표준화
2004. 10. 18	박종권 이사장 주한 칠레대사로부터 감사장
2004. 11. 1	보훈공단 창립 제23주년 기념식
2004. 11. 19	광주보훈병원 재활체육시설 준공식
2004. 12. 2	수원 종합보훈복지센터 조성 착공식
2004. 12. 6	경영비전 선정 ‘국민과 함께하는 보훈의 전위,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2004. 12. 7	국가유공자에게 첨단 휠체어 1,500대 전달 (복권기금 50억 원)
2004. 12. 12	베트남 하노이 및 남딘지역 해외의료봉사활동 (12.12~12.20)
2004. 12. 21	장기근속 모범직원 해외 역사 탐방(중국 12.21~12.24)
2004. 12. 21	독일 오토보사 및 미국 스타키사와 보철구 기술협정 체결
2004. 12. 22	의식 확립을 위한 변화와 혁신 워크숍 개최 (12.22~12.23)
2005. 1. 24	박종권 이사장 칠레대사관 초청 방문
2005. 1. 25	2005년도 사업시행계획보고 회의(변화와 혁신)
2005. 1.	건제사업단 주भाग구 KS인증 획득(한국표준협회)
2005. 2. 1	부산보훈병원 본관 및 별관 증축(562병상)
2005. 3. 2	부산보훈병원 신경과 개설
2005. 3. 21	보훈교육연구원 연구부 개소식
2005. 3. 24	2005년도 상반기 의료전문화 교육(3.24~5.13)
2005. 4. 22	본사 및 사업단 한마을 체육대회 개최 (안산 올림픽경기장)
2005. 4.	2004년도 기획예산처 주관 정부산하기관 고객만족도 우수기관 선정
2005. 5. 6	부산보훈병원 요양병상 증축(340 → 540병상) 및 재활체육관 준공식
2005. 6. 1	호국보훈의 달 국립현충원 참배
2005. 6. 4	광주보훈병원 제3회 심장의 날 행사
2005. 6. 6	이해찬 국무총리 서울보훈병원 위문
2005. 6. 19	호국보훈의 달 거북이 마라톤대회 참가
2005. 7. 11	중국 연변지역 해외의료봉사활동(7.11~7.18)
2005. 8. 1	윤리강령선포 1주년 기념 클린카드 제도 운영
2005. 8. 1	제2회 중국지역 독립운동 사적지 탐방(8.1~8.6)
2005. 8. 3	위탁병원 진료비 심사 평가업무 위탁계약 체결 (건강보험 심사평가원)
2005. 8. 5	대구보훈병원 요양병상 증축 및 재활체육시설 기공식
2005. 9. 2	대전보훈병원 재활체육관 준공식
2005. 9. 8	제12회 보훈의학회 종합학술대회 개최
2005. 10.11	서울보훈병원 통합예약센터 개설

연도	내용
2005. 11. 1	보훈공단 창립 제24주년 기념식
2005. 11. 5	노사합동 해외연수(호주, 홍콩, 대만 11.5~11.27)
2005. 12. 5	베트남 하노이 및 다낭지역 해외의료봉사활동(12.5~12.13)
2005. 12. 6	2005년도 경영혁신 경진대회 개최
2005. 12. 8	제11대 김하경 이사장 취임
2006. 1. 18	보훈단체장 초청 간담회
2006. 1. 25	역대 공단 이사장 초청 간담회
2006. 2. 1	자유복장의 날 실시
2006. 2. 3	간부급 직원 혁신교육
2006. 2. 15	2005년도 기획예산처 주관 정부산하기관 고객만족도 우수기관 선정
2006. 2. 17	보훈교육연구원 신축이전
2006. 2. 27	서울지방 조달청과 업무협력을 위한 협정서 MOU 체결
2006. 3. 26	플러스북권 사업종료(제42회 차 추첨)
2006. 3. 31	부산보훈병원 심혈관실 개소식
2006. 4. 17	베트남 하노이·다낭·타이웬 지역 해외의료봉사활동(4.17~4.25)
2006. 6. 1	호국보훈의 달 국립현충원 참배
2006. 6. 5	한명숙 국무총리 서울보훈병원 위문
2006. 6. 18	호국보훈의 달 거북이 마라톤대회 참가
2006. 6. 19	중국 연길 및 화룡지역 해외의료봉사(6.19~6.25)
2006. 6. 27	서울보훈병원 '국비접수·통합예약센터' 개설
2006. 7. 15	사보 '적성(赤誠)' 창간호 발행
2006. 7. 18	공직자윤리법에 따른 '임직원 행동강령' 시행
2006. 7. 22	임원 및 1급 간부직원 혁신 워크숍 개최(7.22~7.23)
2006. 7. 30	2006년도 국외독립운동사적지 탐방(7.30~8.18)
2006. 8. 21	갯고엽제 후유증 환자지원에 관한 법률」의거 만성림프성 백혈병 추가
2006. 9. 28	직원 직무교육 평가시험 실시
2006. 10. 4	「보훈공단법」 개정 주택사업 특례조항 등 신설
2006. 11. 1	보훈공단 창립 제25주년 기념식
2006. 11. 11	제13회 보훈의료학회 종합학술대회 개최
2006. 11. 29	대구보훈병원 대구보건대학과 산학협력 협약체결
2006. 12. 1	2006년도 경영혁신 경진대회 개최
2006. 12. 7	수원·광주 노인요양시설 착공식
2006. 12. 29	보훈공단 미션·비전 선포식
2007. 1. 9	봉제사업단 국방품질경영시스템 획득
2007. 1. 10	2007년도 사업시행계획 보고
2007. 1. 15	2006년도 기획예산처 주관 정부산하기관 고객만족도 3년 연속 우수기관 선정

연도	내용
2007. 1. 17	부산보훈병원 부산대학교병원과 자매병원 결연
2007. 1. 18	광주보훈병원 전남대학교와 의료협력 기본협약 조인
2007. 1. 29	건제사업단 주방용구 단체표준표시 인증
2007. 2. 1	보훈공단 조직개편(팀원·팀장·실장 직제의 팀제)
2007. 2. 12	부산보훈병원 동부산대학과 산학협력 체결
2007. 2. 21	광주보훈병원 전남대병원과 협진위원회 개최
2007. 3. 1	광주보훈병원 소화기내시경 세부전문의 수련병원 지정
2007. 3. 2	보훈병원 치과 의료진 간담회
2007. 3. 2	대한치과의사협회로부터 치과의사심화교육수련병원 지정(서울보훈병원)
2007. 3. 12	보건복지부로부터 치매관리 전문 인력 양성기관 선정(보훈교육연구원)
2007. 3. 15	5개 보훈병원 비데 380대 설치
2007. 3. 19	서울보훈병원 '조직은행' 설립허가 취득
2007. 3. 31	광주보훈병원 개원 20주년 및 홍부외과 개설 기념 심포지엄 개최
2007. 4. 10	광주보훈병원 최첨단 시력보정장비 엑시머레이저 가동
2007. 4. 15	보훈병원 통합 EMR 시스템 워크숍 개최
2007. 5. 1	광주보훈병원 홍부외과 개설
2007. 6. 1	호국보훈의 달 국립현충원 참배
2007. 6. 4	대전보훈병원 충남대학교병원과 협약체결
2007. 6. 6	한덕수 국무총리 서울보훈병원 위문
2007. 6. 17	호국보훈의 달 거북이 마라톤대회 참가
2007. 6. 28	서울보훈병원 가톨릭중앙의료원과 의료협약 체결
2007. 7. 3	중국 연길 및 화룡지역 해외의료봉사(7.3~7.10)
2007. 7. 13	직원 전문화 교육 평가시험 실시
2007. 8. 28	부산보훈병원 대한적십자사와 '재한원폭피해자 종합검진' 약정 체결(2007.9.3~2012.31)
2007. 8. 29	성과관리체계(BSC) 구축 전략워크숍 개최
2007. 9. 1	사회복지사 2급 자격 취득과정 개설
2007. 9. 7	송실대학교와 사회복지사과정 교육협약체결
2007. 9. 20	서울보훈병원 치과진료센터 개소식
2007. 10. 2	보훈교육연구원 중앙공무원교육원과 공동 민·관 교육훈련발전 기관장협의회 개최
2007. 11. 1	보훈공단 창립 제26주년 기념식
2007. 11. 1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복지항목 자유선택)
2007. 11. 22	보훈중앙병원 건립 기공식
2007. 11. 24	제14회 보훈의료학회 종합학술대회 개최
2007. 11. 29	대구보훈병원 병상 증축(300 → 500병상) 및 재활체육시설 준공식
2007. 12. 11	2007년도 경영혁신 경진대회 개최

연도	내용
2007. 12. 18	보훈공단 윤리헌장·윤리경영 캐치프레이즈 선정
2007. 12. 27	광주보훈병원 545병상으로 증설
2007. 12. 27	광주보훈병원 소화기병 센터 개소식
2007. 12. 28	보훈공단 임직원 충남 태안에서 자원봉사활동
2008. 1. 2	국립현충원 참배
2008. 1. 4	보훈병원 의료진 충남 태안에서 의료지원 봉사활동
2008. 1. 9	2008년도 사업운영계획 보고
2008. 1. 14	베트남 다낭 및 타이웬 지역 해외의료봉사 활동(1.14~1.22)
2008. 2. 15	부산지역 국가유공자 요양시설 기공식
2008. 2.	공단 그룹웨어시스템 가동(공단 e-메일 bohun.or.kr로 통일)
2008. 3. 3	보장구센터 MBC의학 다큐멘터리 '닥터스'에 소개
2008. 3. 7	광주보훈병원 뇌혈관센터 개소식
2008. 3. 13	보훈원 김갑수 할머니 보훈원 발전기금으로 1000만 원 기탁
2008. 3. 24	보훈교육연구원 치매전문 인력 양성기관으로 재선정
2008. 3. 26	대구보훈병원 Angio 심혈관센터 가동
2008. 4. 1	서울보훈병원 EMR시스템 가동
2008. 4. 24	콜롬비아 중앙재활센터 건립단 서울보훈병원 방문
2008. 5	베트남 PACCOM(국민원조 조정위원회) 대표단 서울보훈병원 방문
2008. 6. 2	호국보훈의 달 국립현충원 참배
2008. 6. 6	이명박 대통령 서울보훈병원 위문
2008. 6. 15	호국보훈의 달 거북이 마라톤대회 참가
2008. 7. 2	광주보훈병원 소방 전문치료센터 지정병원 협약 체결
2008. 8. 1	대구보훈병원 PET/CT(양전자단층촬영기) 도입
2008. 8. 5	제12대 김종성 이사장 취임
2008. 8. 20	상반기 사업전략회의 및 윤리경영 실천결의 대회 개최
2008. 8. 26	수원보훈요양원 개원식
2008. 9. 4	광주보훈요양원 개원식
2008. 9. 6	노사합동 동명노인복지센터에서 자원봉사(서울 봉천동)
2008. 9. 29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진료비 심사 평가업무 위탁계약체결
2008. 10. 18	아름다운 가가와 자매결연체결 서울 노현점에서 직원들 1일 정원봉사
2008. 10. 29	2008년도 보훈복지 발전 워크숍 개최(수원보훈요양원)
2008. 10. 31	2008년도 학습동아리(CoP) 경진대회 개최
2008. 10. 31	보훈공단 창립 제27주년 기념식
2008. 11. 7	2008년도 창의혁신 경진대회 개최
2008. 11. 8	제15회 보훈의료학회 종합학술대회 개최(보훈교육연구원)

연도	내용
2008. 11. 15	강원도 평창군 미탄면 율치리 마을과 1사1촌 자매결연 및 의료봉사
2008. 12. 10	노사합동 이웃사랑 따뜻한 희망나눔행사(서울 북부장애인복지관)
2008. 12. 18	노사합동 사랑의 김장담그기 행사(보훈원)
2008. 12. 26	보훈공단·사업단 노동조합위원장‘노사화합선언문’ 선포
2009. 1. 20	오토북코리아 해외의료봉사 보장구 부품 기증(16종 227개)
2009. 1. 30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과 개발도상국 의료기기 기증협약체결
2009. 1. 30	보훈중앙병원 기본운영계획 용역결과보고
2009. 2. 23	중국 연변지역 해외의료봉사활동 실시(2.23~2.28)
2009. 2. 27	부산보훈병원 동의과학대학과 상호협동 협약체결
2009. 2. 27	대전보훈병원 대전 동구보건소와 진료협약체결
2009. 3. 2	광주보훈병원 전남대병원과 의료협력 기본협약 체결
2009. 3. 10	한국연합북권 주식 매입(8억 7400만 원)
2009. 3. 13	공단 간부직 직원 연찬회(보훈교육연구원 3.13~3.14)
2009. 4.	2008년도 기획재정부 주관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우수기관 선정
2009. 4. 1	공공기관 선진화계획에 따라 조직개편 및 정원감축 시행(383명)
2009. 4. 14	수원보훈요양원 아름어린이집과 자매결연
2009. 4. 15	2009년도 노사합동 간담회(보훈교육연구원)
2009. 4. 17	노사합동 1사1촌 자매결연마을(강원도 율치리) 꽃동산 조성행사
2009. 4. 24	수원보훈요양원 수원여자대학과 산학협약체결
2009. 5. 8	2009년도 보훈이미지 공모전 수상작 선정(3편)
2009. 5. 12	보장구센터 작업장 환경개선 오픈행사
2009. 5. 29	보훈복지 성장 발전 워크숍 개최
2009. 6. 1	호국보훈의 달 국립현충원 참배
2009. 6. 6	한승수 국무총리 서울보훈병원 위문
2009. 6. 22	부산보훈병원 안구광학단층촬영기(OCT) 도입
2009. 7. 15	2009년도 상반기 사업전략회의 개최
2009. 7. 21	보훈원 양육원생 자녀 장학사업 협약식(청록회)
2009. 9. 18	광주보훈요양원 YMCA보훈요양보호사 교육원 개원식
2009. 9. 24	매칭그랜트 통해 백혈병 소아암 환자 치료비(1천만 원) 지원
2009. 9. 28	공단 홈페이지 개인정보보호 우수사이트 선정
2009. 9. 30	김해 보훈요양원 개원식
2009. 9.	‘국가유공자 사랑의 집 고쳐주기’사업 제3 야전군사령부와 합의각서 체결
2009. 9.	중앙보훈병원 개원준비단 운영
2009.10.	지속가능경영체계 구축을 위한 UN Global Compact 가입

연도	내용
2009. 10. 6	Bohun-THIS(보훈의료복지통합서비스) 발대식
2009. 10. 23	종합 재활체육시설 건립 기공식
2009. 11. 2	사보 ‘가슴에 피어나는 꽃’ 창간호 발행
2009. 11. 1	부산보훈병원 EMR 가동
2009. 11. 2	보훈공단 창립 제28주년 기념식
2009. 11. 7	제16회 보훈의료학회 종합학술대회·창의 혁신 및 학습동아리 경진대회 통합 개최
2009. 11. 11	부산보훈병원 의료시설 확장 기공식
2009. 11. 16	보훈원 부설 재가복지센터 현판식
2009. 11. 26	대구보훈요양원 기공식
2009. 12. 10	노사합동 송년 자원봉사(서울 북부장애인종합복지관)
2009. 12. 18	이동보훈복지사업 워크숍 개최
2009. 12. 23	Bohun-THIS 시범사업 보고회
2009. 12	보훈요양원 당시 보건복지가족부 주관 장기요양기관 평가 우수기관 선정
2009. 12. 31	제1회 올해의 보훈공단인 2명 선정(서울병원 윤정로 과장, 부산병원 김수홍 과장)
2010년대	
2010. 1. 1	광주보훈병원 EMR 가동
2010. 1. 20	2010년도 경영자문위원 위촉 및 자문회의 개최
2010. 1. 29	Bohun-THIS 브랜드 등 공단 뉴비전 선포식 및 실천결의대회
2010. 2. 11	Bohun-THIS 워크숍 개최(대전역 코레일 회의실)
2010. 2.	2009년도 기획재정부 주관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우수기관 선정
2010. 3. 5	부산보훈병원 부산대학병원과 상호협력 협약협정
2010. 3. 8	김해보훈요양원 가야대학교와 산학협약협정
2010. 3. 18	강원도 원주 혁신도시 이전부지 매입계약 체결
2010. 3. 19	재활 및 만성질환 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워크숍 개최
2010. 3. 23	수원 및 광주보훈요양원 장기요양기관 평가 우수기관 (A등급) 선정
2010. 3. 24	서울보훈병원 강동소방서와 응급의료서비스 협약협정
2010. 4. 1	보훈병원 통합 콜센터 운영
2010. 4. 1	대구보훈병원 EMR 가동
2010. 5. 14	보훈복지타운 진터백이 푸드홀 개소
2010. 6. 1	호국보훈의 달 국립현충원 참배
2010. 6. 1	대전보훈병원 EMR 가동
2010. 6. 1	보훈이미지 광고공모전 수상작 시상식
2010. 6. 4	‘국가유공자 사랑의 집 고쳐주기’사업, 육군 제8 군단사령부와 합의각서 체결
2010. 6. 8	2009년도 감사원 자체감사운영 우수기관에 보훈공단 선정
2010. 6.	새로운 공단 통합 CI 개발착수(~12월)

연도	내용
2010. 6. 29	복지사업분야 상반기 워크숍 개최(6.29~6.30)
2010. 7. 7	김해보훈요양원 동의대와 산학협약 체결
2010. 7. 15	광주보훈요양원 심리안정치료실 개소
2010. 7. 22	2010년도 상반기 사업전략회의 개최
2010. 8. 24	보훈복지 파트너십 세미나 개최(수원보훈요양원)
2010. 9. 1	수원보훈요양원 심리안정치료실(스노 젤렌 프로그램실) 개소
2010. 9. 16	‘사랑의 집 고쳐주기’ 공군주택 1호 준공식 (천안시 성남면 소재)
2010. 9.	김해보훈요양원 경남대와 산학협약, 제52군수지원단과 자매결연 협약협정
2010. 10. 1	대전보훈병원 31병동 추가운영
2010. 10. 6	수원보훈요양원 경기과학교 수원교육청과 자원봉사 협약협정
2010. 10. 9	제1회 보훈병원 야구교류전 개최(부산 화명야구장)
2010. 10. 13	오토북코리아 보장구 부품 기증(15종 172개)
2010. 10. 16	제2회 보훈병원 배드민턴 교류전 개최 (부산병원 체육관)
2010. 10.	위탁진료관리단 시범운영
2010. 10.	지속가능 윤리경영보고서 발간
2010. 10. 20	보훈공단 동우회 설립 발기인 대회
2010. 11. 2	보훈공단 창립 제29주년 기념식
2010. 11. 6	제17회 보훈의료학회 종합학술대회 및 지식경영 경진대회 통합 개최
2010. 11. 25	국가유공자 재활을 위한 연구 및 서비스 협약체결(국립재활원)
2010. 12. 1	위탁병원장 간담회 개최
2010. 12. 2	주거복지사업, 민관협력 우수사례 공모대회 ‘공기업부문 최우수상’ 수상
2010. 12. 3	노사합동 사랑의 김장담그기 자원봉사(수원 보훈원)
2010. 12. 9	노사합동 송년 자원봉사(서울 북부장애인종합복지관)
2010. 12. 9	보훈단체장 간담회 개최(공군회관)
2010. 12. 17	Bohun-THIS 워크숍 개최(보훈교육연구원)
2010. 12. 22	보훈공단 동우회 창립총회
2010. 12. 23	대전보훈요양원 기공식
2011. 1. 21	새로운 공단 통합 CI 선포 및 반부패 청렴실천결의대회 개최
2011. 1. 28	광주보훈병원 감마카메라(SPECT/CT) 가동식
2011. 2. 17	광주보훈요양원, 사랑나눔 연예봉사단과 자매결연 체결
2011. 2.	2010년도 기획재정부 주관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3년 연속 우수기관에 선정
2011. 3. 1	서울보훈병원 DUR(의약품처방조제시스템) 서비스 시범 운영
2011. 3. 2	본사사옥 현판 제막식(C.I 변경)

연도	내용
2011. 3. 5	김해보훈요양원, 창원보훈청·(주)한국지엠·의령초교와 산학관 공동협력
2011. 3. 12	창립 30주년 기념 통합 시산제 및 임직원 화합 등반대회(계룡산)
2011. 3. 30	‘국가유공자 사랑의 집 고쳐주기’ 협력사업 육군본부와 합의각서 체결
2011. 3. 12	김해보훈요양원, 진해여성자원봉사회·진해모범운전자회와 자매결연
2011. 4. 29	통합재무관리시스템 구축협약(IBK 기업은행)
2011. 5. 19	보훈재활체육센터 개원식(수원 보훈교육연구원)
2011. 5. 20	홍보대사 위촉(KBS 아나운서 이선영)
2011. 5. 27	보건복지부 주관 제1회 노인장기요양기관평가대회 주간보호 부문 최우수 기관 선정(수원·광주·김해보훈요양원)
2011. 6. 17	부산보훈병원 최첨단 외래진료센터 신축 개소식
2011. 8. 9	제13대 이종정 이사장 취임
2011. 9. 6	중앙보훈병원 신축중앙관 개원식
2011. 10. 28	보훈공단 창립 제30주년 기념식 및 한마음 체육대회 개최
2011. 10. 29	제18회 보훈의료학회 종합학술대회 및 지식경영 경진대회 통합 개최
2011. 11. 7	대구보훈요양원 개원식
2012. 05. 11	현직 소방공무원 의료지원 협약 체결
2012. 06	퇴직연금제도 도입
2012. 06. 30	정기학술지 보훈연구 발간
2012. 10. 30	대전보훈요양원 개원
2012. 11. 01	중앙보훈병원 암센터 개소식
2013. 07.	보훈재활체육센터 종합운동장 및 양궁장 준공
2013. 11. 21	주거환경개선 ‘나라사랑 행복한 집’ 제1,000호 준공식 (경북 영주)
2013. 11. 27	제14대 김옥이 이사장 취임
2013. 12. 19	본사 원주혁신도시 이전
2014. 02.	해군 힐링교육 필승 해군캠프 신설
2014. 02. 28	중앙보훈병원 확대 개원(1,400병상) (보훈요양병원 및 재활센터 개원식)
2014. 07. 07	현역 군장병 의료지원 협약 체결
2014. 08. 10	2014 도농교류 활성화 대통령 표창
2015. 02. 27	남양주보훈요양원 개원
2015. 03. 22	통합경영정보시스템 구축
2015. 04. 29	본사 홍보관 설치
2015. 08. 31	청렴 보훈어사 도입
2016. 12. 28	경찰공무원 의료지원 협약 체결
2017. 11. 01	수원보훈요양원 증축 개원
2017. 12. 18	제15대 양봉민 이사장 취임

연도	내용
2018. 06. 25	중앙보훈병원 장례식장 재개장
2018. 07. 16	보훈공단 시민참여혁신단 구성
2018. 08. 30	보훈의학연구소 개소식
2018. 10. 12	상생결재시스템 도입
2018. 11. 07	인천보훈병원 개원
2018. 11. 28	제13대 부산보훈병원장(백승완) 취임
2018. 12. 12	주간보호센터 창업지원센터 개설
2018. 12. 24	안전보건 경영시스템(ISO45001) 인증 취득
2019. 07. 19	성과공유제 도입
2019. 11. 01	안전경영 선포식
2019. 12. 16	2019 정부 실패박람회 참가 및 행정안전부 장관상 수상
2020년대	
2020. 01.	공단 인적자원개발업무 보훈교육연구원 이관
2020. 01. 01	법무실 신설
2020. 05. 13	건강복지안전관리(IMSAFE) 모형 특허권 취득
2020. 06. 12	‘피해극복-활력충만 착한 선결제’ 추진 및 캠페인 전개
2020. 06. 23	6. 25전쟁 70주년 ‘나라사랑 행복한 집’ 제5,000호 준공식(경기 파주)
2020. 11.	보훈교육연구원 실시간 온라인 스튜디오(2개실) 구축
2020. 11. 10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 주관 2020년 대한민국 일자리 우수사례 선정
2020. 11. 23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CP) 도입
2020. 12. 01	기업성장 응답센터 운영
2020. 12. 15	태백시-공단-강원랜드 태백 노인요양사업 성공적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2020. 12. 16	원주보훈요양원 개원
2021. 02. 05	제16대 감신 이사장 취임
2021. 05. 03	‘국방부 6. 25 무공훈장 찾아주기 사업’ 참여
2021. 06. 15	동반성장물 도입
2021. 08.	위탁병원 총 439개소 계약
2021. 11. 02	보훈공단 창립 제40주년 기념식 개최 (원주 본사)

VI 대외기관 주요 수상내역

정부정책 선도

구분	수상내역	주관
2019	• 여성이 일하기 좋은 직장 부문 대통령 표창 수상	고용노동부
	• 진료정보 교류사업 확산 관련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 수상	보건복지부
	• ICT 기반 의료정책 유공상 수상	보건복지부
	• 남녀고용평등 우수기업 장관상 수상	고용노동부
	• 고용노동행정 유공 관련 장관 표창 수상	고용노동부
2020	• 대한민국 일자리 우수사례 선정	대통령 직속 일자리 위원회
	• 복권기금 효율적 집행관리 관련 장관상 수상	기획재정부
	• 지역사회공헌 인정기관 선정, 장관상 수상	보건복지부
	• 장애인고용 신뢰기업(트루컴퍼니) 고용노동부 장관상 수상	고용노동부
	• 협업 성공사례 선정 및 UCC 공모전 1위 장관상 수상	행정안전부
	• 9년 연속 공공부문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 인증 획득	교육부, 인사혁신처
	• 지역상생 전통시장 활성화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 부문 우수상	소상공인진흥공단
	• 안전보건 국제표준(ISO45001) 인증 획득	한국경영인증원
	• 지역경제 활성화 우수사례 공모전 우수상 수상	중소벤처기업부
	• 코로나19 혈액수급 안정화 혈액사업 유공 표창	원주시
	• 코로나19 의료지원 부문 장관상 수상	보건복지부
	• 코로나19 감염예방 지역사회발전 기여 공로상 수상	경기도
	• 청소년 의료문제 해결 장관상 수상	보건복지부
	• 자체감사 콘테스트 최우수상 수상	감사원

사업 성과

구분	수상내역	주관
2019	• 장기요양기관 평가 10년 연속 최우수기관	보건복지부
	• 공공기관 범죄예방 최우수 시설 선정	서울지방경찰청
2020	• 장기요양시설 감염관리 모범기관 선정	대구광역시, 경상북도
	• 강원혁신도시 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 최우수상 수상	강원도
	• 공공보건의료계획 시행결과 최우수·우수 선정	보건복지부
	• 공공보건의료 역량 강화 활동 사례 공모전 최우수상 수상	보건복지부
	• 호스피스 전문기관 사업평가결과 최우수기관 선정	보건복지부
	• PTSD 예방·치료 관련 감사장 수상	부산지방경찰청
	• 가족친화기관 10년 연속 인증	여성가족부
	• ‘비대면 안심면회 만남애(愛) 창’ 우수사례 관련 장려상 수상	국민건강보험공단
	• 건강복지안전망(IMSAFE), 제14회 대한민국 우수 특허 대상 수상	한국일보

VII 보훈공단 동우회

연혁

창립	2010.10	창립발기인 대회 공단 발전에 기여하고 상호친목을 도모하기 위해 전 의료이사 이길재 등 30인이 발기하여 설립	
	2010.12	창립총회 및 초대 회장 선출	
	2010.12	제1기 임원진 구성	
	2011.6	행복한 섬김이 봉사단 출범	
안정기반	2011.10	보훈공단 창립 30주년 간담회	
	2012.1	제2대 회장 취임	
	2015.3	제2기 임원진 구성	
	2016.2	동우회 회보 창간호 발간	
	2017.2	비영리 사단법인 허가 (국가보훈처)	
	2017.4	운영규정 제정 시행	
성장발전	2019.2	제3대 회장 취임	
	2019.3	제3기 임원진 구성	
	2019.7	보훈공단과 상생협력 협약체결	
	2019.9	보훈병원 본인 진료비 30% 감면 대상 : 공단에서 20년 이상 재직한 후 동우회에 가입한 정회원과 공단에서 상임 임원을 역임한 자	
	2019.10	보훈휴양원 이용료 50% 할인	
	2020.12	제21회 보훈문화상 수상 - 이현옥 동우회장	

역대 회장



초대
최태호 회장
2010.10~2011.9



제2대
허길 회장
2011.9~2019.2



제3대
이현옥 회장
2019.2~현재

주요 활동

봉사 활동	2015.3	보훈병원 자원봉사 - 환자 안내, 원무과 업무지원 등(월 4회)	
	2019.9	보훈병원 자원봉사 : 퇴직자 재능기부	
	2019~	공채시험 감독관 위촉(4회)	
친목 활동	2019.7	덕구온천 1박2일 워크숍	
	2019.10	제1회 동우회장배 골프대회	
	2019.10	추계 전, 현직 회원 산행	
위문·기부	2019.5	동우회장(이현옥), 발전기금 1천만원 기탁	
	2019.9	동우회장(이현옥), 보훈원, 수원보훈요양원 농산물 500상자 전달	
	2020.6	동우회장(이현옥), 보훈원, 동우회원 농산물 위문품 420상자 전달	
	2020.6	동우회장(이현옥), 주거환경개선사업 1천만원 기부	
	2020.10	동우회장(이현옥), 인천보훈병원에 위문품 700여만원 상당 전달	
	2020.12	동우회장(이현옥), 발전기금 1천만원 기탁	
	2021.11	동우회장(이현옥), 발전기금 1천만원 기탁	

회원 (단위 : 명)	구분	고문	회장	부회장	감사	이사	회원	계
	2011	9	1	9	1	23	100	143
	2015	9	1	10	2	20	145	187
	2019	10	1	9	2	20	301	343
	2021.10	10	1	11	2	38	344	406

운영비 (단위 : 천 원)	2020년 이월	수입				지출	잔액
		회비	후원금	잡수입	계		
	16,668	17,680	6,640	19	41,007	30,879	10,128

- 회비(연) : 부회장 20만원, 감사 20만원, 이사 10만원, 회원 3만원
- 회원후원금 : (‘19)1472만원, (‘20)886만원, (‘21)664만원
- 특별후원금 : 이현옥 회장 3천만원(3회)
- 회원경조사 : 화환(10만원 상당)

보훈공단 설립 40주년 축하 인사

(사)보훈공단 동우회 회장 이현옥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설립 40주년을 맞이하여 오늘이 있기까지 지나온 역사를 재조명하고 분야별 진단과 향후 발전방향을 수록한 『보훈공단 40년사』를 발간하게 된 것을 전 동우회원과 함께 축하 드립니다.

지난 81년 11월 국가유공자에 대한 의학적·정신적 재활 및 직업재활을 위해 설립되어 당시에는 서울에 250병상의 원호병원과 수익사업단을 시작으로 국가유공자 의료와 복지향상을 위해 운영되었으나, 40년의 세월과 함께 지금은 전국의 6개 보훈병원과 7개 보훈요양원, 보훈원, 보훈재활센터, 보훈교육연구원, 충주보훈휴양원 등 18개 조직과 8,000여 명의 임직원으로 200만 보훈가족과 지역주민에게 의료와 복지를 전담하는 국내 유일의 공공기관으로 자리매김을 하였습니다.

40년의 세월동안 어려운 환경과 역경을 이겨내고 이처럼 많은 발전을 이룩하게 된 것은 외적으로 주무관청인 국가보훈처의 지도와 중앙보훈단체의 성원이 있다고 보며, 내적으로는 역대 공단 이사장님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의 성직자적인 자세로 부단히 임무에 매진한 결과라 생각하며 치하를 드립니다. 흔히 나이 40을 「불혹(不惑)」이라 하며 미혹되지 않는다는 의미로 모든일에 뚜렷한 판단을 할 수 있는 시기라고 하였습니다.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도 그간의 쌓아온 경험과 우수한 인력 자원, 현대화되고 있는 시설·장비 등으로 국가에서 수임된 보훈사업을 사회여건 변화에 대응하여 능률적이고 미래지향적으로 수행할 수 있으리라 확신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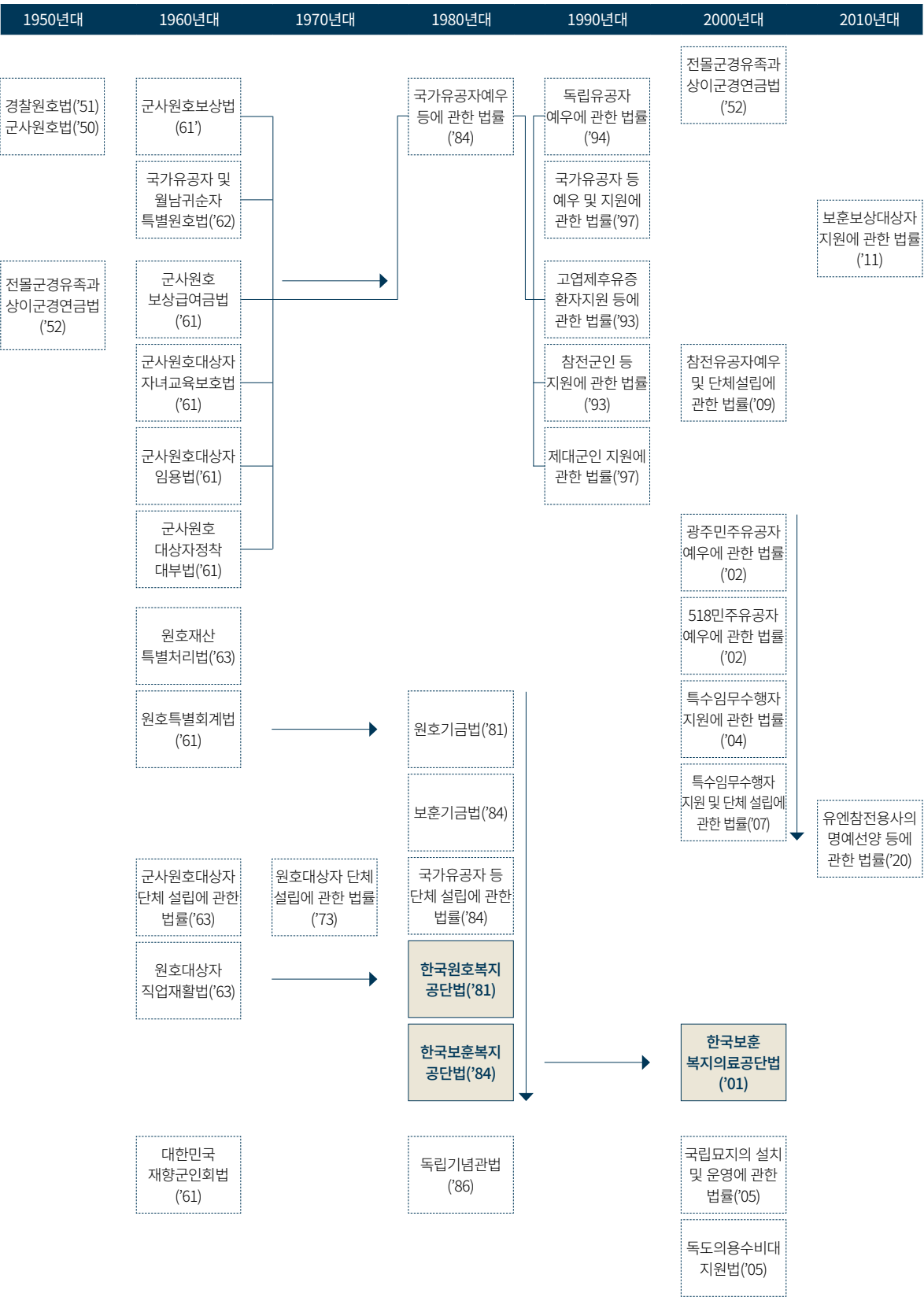
아울러 2010년 설립된 (사)보훈공단 동우회도 40년 역사의 보훈공단 위상에 걸맞게 보훈가족이 행복한 삶을 누리고 긍지와 자부심을 갖는데 일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코로나19 등으로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도 오직 보훈가족의 건강과 행복한 삶을 위해 심혈을 기울이고 계신 감신 이사장님을 비롯 의사·간호사 선생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와 치하를 보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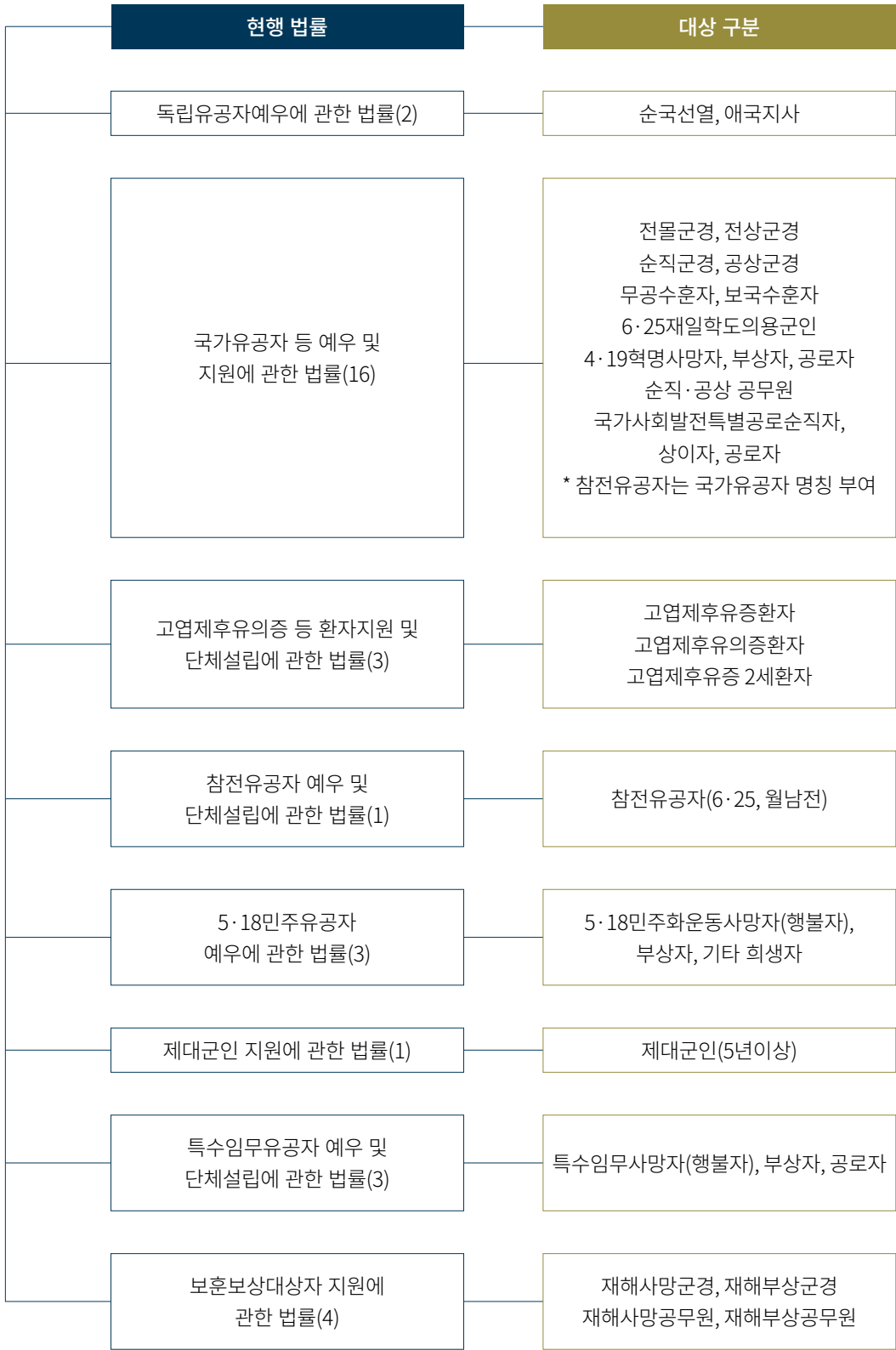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의 무궁한 발전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Ⅷ 국가보훈 관련 자료

국가보훈 관련 법률



보훈대상 유형



보훈대상자 현황

(단위 : 명)

구분		1962	1970	1980	1990	2000	2010	2020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순국선열, 애국지사	139	352	2,265	3,660	4,362	6,942	8,35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전몰·순직, 전·공상군경	149,518	145,000	123,721	120,704	139,560	212,195	262,543
	무공·보국수훈자	-	-	307	35,936	60,710	91,976	122,457
	재일학도의용군인	159	190	215	297	301	293	291
	4·19혁명 희생·공로	337	413	390	365	370	797	864
	순직·공상 공무원	-	-	3,379	6,290	11,214	14,628	14,680
	특별공로순직자	-	-	-	17	17	17	16
	지원순직·공상군경 지원순직·공상공무원	-	-	-	-	205	2187	2,839
	6·18 자유상이자	83	145	220	325	366	369	367
	월남귀순(상이)자	104	396	489	497	-	-	-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후유의증	-	-	-	-	19,730	52,636	51,604
	후유의증 등외	-	-	-	-	-	49,910	35,729
	고엽제후유증 2세	-	-	-	-	7	56	137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사망자 또는 행불자, 부상자, 기타 희생자	-	-	-	-	-	4,090	4,406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사망자 또는 행불자, 부상자, 기타 희생자	-	-	-	-	-	3,113	3,811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중·장기복무 제대군인	-	-	-	4,057	16,475	44,698	94,830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6·25참전, 월남전참전	-	-	-	-	259,930	325,014	267,902
지원에 관한 법률	재해사망군경, 재해부상군경, 재해사망공무원, 재해부상공무원	-	-	-	-	-	-	6,021
합계		150,340	146,496	130,986	172,148	513,247	808,921	876,848

편찬위원회	위원장	구길환	기획이사
	위원	김주천	경영혁신실장
		이호건	행정지원실장
		전영의	의료지원실장
		김재화	복지지원실장
		이종훈	중앙보훈병원 운영실장
		배정임	중앙보훈병원 간호본부장

실무위원회	위원장	홍주의	홍보실장
		박두상	경영전략부장
		백숙흠	총무안전부장
		민병휴	의료운영부장
		김용관	통합서비스부장
		손재한	시설건립부장
		박상영	복지운영부장
		김안나	중앙보훈병원 기획혁신부장
		나병인	수원보훈요양원 복지부장
	간사	이영진	홍보과장

자문위원	김종성 12대 이사장
	이화춘 보훈공단 동우회 부회장

전담편집부	前의료이사	이창희
	중앙보훈병원 前적정진료부장	김남수
	홍보담당	양지연
	홍보담당	최지예

건강복합서신

보훈공단 40년

발행일 2021년 11월

발행인 감 신

발행처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강원도 원주시 혁신로 40

Tel 033)749-3629 Fax 033)749-3630

www.bohun.or.kr

